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VII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VIII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VII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VIII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공저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투르크학의 새 지평을 열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Turkology) 이해에 필요한 인문 분야 전 영역의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고 집대성한 것이다. 투르크학은 유라시아 대륙을 발상지이자 근거지로 삼고 있는 투르크 민족들의 언어, 역사,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 인문·사회과학을 망라한 전 영역에 걸친 분야를 연구하는 종합적인 학문 분야이다. 투르크학의 지역적 범위는 러시아에서 중국, 중앙아시아를 지나 동서양이 만나는 튀르키예까지 하나의 벨트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른바 ‘투르크 벨트’라 불리기도 한다.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러시아 연방 내 알타이·투바·하카스·사하·바시키르·타타르스탄 공화국 그리고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포함한다.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튀르키예로 이어지는 이 광대한 투르크 언어·문화권은 과거 유라시아 초원 유목문화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지역으로 지정학적·지경학적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방대한 에너지 및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며,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투르크 지역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것은 이런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확대 때문만은 아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형성된 유라시아 투르크 벨트 국가들의 인문학적 유산은 ‘다국적 문화유산’이라는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국경 및 초민족적’ 정체성 형성의 근거가 되는 문화적이며, 철학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투르크 벨트 국가들과 언어 문화적 좌표상에서 그 어떤 민족 집단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이른바 친연성(親緣性)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상호연관성과 언어·문화적 친연성을 규명하여 상호이해의 공감대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인문학 연구의 확대 강화는 필수적이다. 한국문화의 원류와 실크로드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의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정치·경제적 교류의 기반으로 활용한다면 중요한 국가적

자산이 될 것이다.

‘투르크 벨트’ 국가들이 지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르크 인문학 연구는 아직 빈약한 상황이어서 투르크 문화에 관한 진일보된 연구는 물론, 일반인들은 기본 지식 습득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르크학 및 관련 인문 분야에 접근 가능한 ‘투르크학’ 인문사전이 필요하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 연구소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 5년간(2018년 8월~2023년 6월) 추진한 토대연구지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필자가 연구책임자인 이 프로젝트는 ‘투르크인문 백과사전 DB 구축’이었다. 이 연구 프로젝트에는 국내 투르크학 연구자들을 총동원했고, 외국 연구진의 도움을 받아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DB를 구축했다. 이 과정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투르크 인문학에 대한 정보와 연구 공백이 적지 않았고, 투르크학 연구자들이 넘어야 할 편견과 인식 부족의 장벽도 높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많은 분들의 협력 속에 DB 구축이 이루어졌기에 DB 차원에만 머물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예산을 아꼈고 DB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으로 만들어보려고 결심했다.

DB를 사전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은 원석을 보석으로 다듬는 연금술이었다.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했다. 고통스러웠지만 사전을 만드는 인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 준 것은, 이 사전이 미약하나마 국내 투르크학의 정보 공백을 메우고, 우리 사회와 투르크 국가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은 투르크학 연구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연구자들과 기업 관계자, 시민들에게 투르크학 관련 주요 인문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는 향후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과 대한민국의 관계 발전 그리고 한국인들의 시야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 이 대사전에서 다룬 투르크 인문학의 영역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종이책과 pdf 전자책으로 출판되고 보급되는 이 대사전은 2,020개의 표제어로 총 8권, 4,000여 페이지의 분량으로 구성된 방대한 자료이다. 또한 이 대사전의 모든 내용은 〈NAVER 지식백과〉에서 정보 제공되어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기에 여러 어려움들도 감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실수와 오류가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필자와 연구진의 몫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한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전 작업을 수행하면서 커다란 은혜를 입었고, 마음의 빛을 지게

된 분들이 너무도 많다. 사전작업에 참여한 집필진은 물론 번역, 멀티미디어 자료수집, 감수에 이르기까지 국내는 물론 외국의 자문위원과 연구자 등 참으로 많은 분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셨다. 누구보다도 'DB에 머물지 않고 사전을 발간하겠다'는 필자의 고집스러운 추진력에 두려움에 떨며 눈물을 흘렸던 최선아 박사, 장주영 박사, 구잘 미흐라예비는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함께 수행해주었다. 마침표를 찍는 순간까지 함께 해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따뜻하고 든든했다. 특히, 이 사전이 종이와 디지털로 그야말로 '사전'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편집과 교정, 교열, 디자인 영역에서 창의적인 제안은 물론 헌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류수 박사님이야말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의 숨은 주역이다. 이 사전은 이렇듯 투르크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존중해준 많은 이들의 고통과 인내의 결실이다. 사전이 발간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을 선물해준 모든 분들께 '소외 학문' 투르크학 연구자로서 오직 감사할 뿐이다.

이 대사전은 '한국 최초'이지만, 사실 '세계 최초'이기도 하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투르크학 인문 사전'은 아직 발간된 바가 없다. 앞서 대한민국의 투르크학 연구가 빈약하다고 했지만 그런 한국에서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이 발간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인문학의 저력이기도 하다. 이 대사전이 대한민국과 유라시아 투르크 국가들이 함께 펼쳐갈 미래를 밝혀줄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사전 발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대신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한다.

2023년 12월

모든 연구진과 집필진을 대표해서

연구책임자 **오은경** 씀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Azerbaij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교수

Nükhə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 Balkans, Eurasia Turkish Literatures Organization)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교수

집필 · 멀티 미디어 ·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어과 교수

연구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 · 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 관장

Кайрат Жадьра(카이라트 자디라) L. 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 교수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 박사수료

Leyla Masi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일러두기

1. 한국어 표제어 및 인명, 지명, 용어 표기 원칙 및 예외

한국어 표제어 항목과 내용 안의 인명, 지명, 용어는 일반적으로 국립국어원 표기 원칙과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외국어 표기법(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에 준하여 표기하되 다음 사항을 예외로 한다.

1.1. 인명, 왕명, 지명은 소속 국가, 출신 국가, 해당 국가의 원어에 맞추어 최대한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내에 이미 널리 퍼져있거나 외교부에서 공인되어 사용될 경우 여기에 맞춘다.

- 〈예〉 앙카라(Ankara)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안카라'가 맞으나 '앙카라'로 표기
- 부하라(Buxoro)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부허라'가 맞으나 '부하라'로 표기
- 시바스(Sivas)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시와스'가 맞으나 '시바스'로 표기
- 튀르키예(Türkiye)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튀르키이에'가 맞으나 '튀르키예'로 표기
- 카라바흐(Qarabağ) :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가라바그'가 맞으나 '카라바흐'로 표기

1.2. 왕조, 과거 국명, 조직이나 기타 용어는 최대한 원어 발음에 맞추거나 국립국어원의 원칙에 따라 표기하되,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표기법이 없고 국내 학계에 이미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그에 맞춘다.

- 〈예〉 셀주크 조(Selçuklular)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셀츠크루라르' 혹은 '셀츠크 조'가 맞으나 '셀주크 조'로 표기
- 예니체리(Yeniçeri)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이에니체리'가 맞으나 '예니체리'로 표기
- 샤이바니 조(Şayboniylar) :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샤이버니 왕조'가 맞으나 '샤이바니 조'로 표기
- 압바스 조(Abbasi)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아바스 조'이나 '압바스 조'로 표기
- 칸국(汗國) : 국립국어원 원칙으로는 '한국'이나 '칸국'으로 표기
- 괭(gök) :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괴크'가 맞으나 '괭'으로 표기

1.3. 우즈베크어로 된 인명의 한국어 표기의 경우, 사전표기법위원회가 정한 표기법에 따르면 Mahmud/Mahmut은 '마흐무트', Muhammad/muhammat는 '무함마트'로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각각 '마흐무드/마흐무트' '무함마드/무함마트'로 표기했다.

1.4. 인명 무함마드(Muhammad)는 튀르키예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드', 아제르바이잔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무함마트'이지만 모두 '무함마트'로 통일했다. 고유명사에 압드-(Abd-)가 들어갈 경우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아브드-', 카자흐어 표기법에 따르면 '압드-'이나 모두 '압드-'로 통일했다. 예를 들면 'Abdulla'는 압둘라로, 'Abdülhamid'는 '압뿔하미드'로 어느 나라 말인지에 관계없이 표기했다.

1.5. 우즈베크인 인명 중 러시아어에서 차용된 인명은 그 어미가 -ov로 끝나는 경우 실제 발음은 '-오프'에 가까우나 원칙에 맞춰 '-어브'로 표기하였다.

* 여러 표기법으로 혼동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에서 독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검색할 수 있게 했다.

2. 라틴 문자 표기

- 2.1. 라틴 문자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라틴 문자 표기를 말한다. 라틴 문자의 경우 최대한 원어 표기에 맞춘다.
- 2.2. 원어가 키릴 문자나 아랍 문자의 경우 라틴 문자 전사법에 맞추어 표기한다.
- 2.3. 표제어가 학술이나 이론, 개념, 이미 널리 알려진 용어 등의 경우 영어로 표기한다.
〈예〉 신붓값: Bride Price. 각종 투르크어 표기법에 따르면 kalın, qalın 등으로 표기되어야 하나 영어로 표기
- 2.4. 여러 투르크 사회가 공유되는 개념이 각 투르크어로 달리 표기되는 경우 집필자가 하나로 정하여 사용하되, 어느 나라 언어인지 내용에서 밝힌다.
- 2.5. 모스크, 마드라사, 미너렛 등과 같은 용어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표제어의 경우 검색의 용이함을 위해 고유명사는 해당 언어로, 그 외 부분은 영어로 표기한다.
〈예〉 Süleymaniye mosque: 원어는 Süleymaniye camii이지만 검색과 이해의 용이함을 위해 Süleymaniye mosque로 표기

* 사용자가 라틴 문자 이외에 다른 문자로 검색해도 찾을 수 있도록 '다국어 표기'를 통해 검색의 용이성을 높였다.

3. 시대 구분

- 3.1. 기본적인 시대 구분은 다음과 같이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B.C. ~ A.D. 1000년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A.D. 1800년 ~ 현대
기타
- 3.2. 시기 구분은 이슬람 역사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대 구분법을 차용한 것으로 현대 투르크 인구 다수가 이슬람교를 믿는 것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 3.3. 시대 구간이 위의 시기 구분 여러 개에 걸쳐 있을 경우 통합하여 표기했다.
〈예〉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 A.D. 1000년 ~ A.D. 1800년
- 3.4.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시기가 불분명하거나, 시기가 필요 없는 이론, 여러 시기를 걸쳐 공유될 경우에 사용된다.

4. 지역 구분

4.1. 지역은 다음 다섯 지역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북아시아
- 동아시아
- 서아시아
- 중앙아시아
- 기타

4.2. '기타'는 해당 표제어를 포함하는 지역이 불분명하거나, 지역 구분이 의미가 없을 경우, 유럽이나 아프리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제시된 지역 외의 지역을 구분할 때 사용한다. 캅카스는 서아시아에 포함했다.

5. 국가

국가는 해당 표제어의 내용이 존재하거나 사건이 발생한 대표 국가를 의미한다. 이 국가는 현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표제어를 대표하는 국가를 표기함으로써 검색의 편의성을 위하여 표기한 것이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오스만 제국'과 관련한 표제어의 경우 현대 기준으로 튀르키예를 비롯하여 발칸 반도의 일부 국가, 북아프리카 일부 국가, 아랍 일부 국가를 포함할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 튀르키예만 표기하였다.

6. 유형

6.1. 유형은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지리, 민속, 종교 7개 항목으로 분류한다.

6.2. 유형이 중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했다. 유형 분류는 집필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에 기반하여 정해졌다.

〈예〉 쉴레이마니이에 모스크의 경우 '종교' 유형과 '예술' 유형이 가능한데 '예술'로 분류했다.

6.3. 유형 소분류 1, 2는 유형의 하위 분류이다. 유형 소분류 1은 대체로 유형 소분류 2의 상위 항목이나, 아닌 경우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 소분류 2가 작성되지 않았다.

7. 집필자

집필자는 해당 표제어를 작성한 저자이며, 이 집필자가 2명 이상인 것은 공동집필한 것이다. 집필자 이름 옆에 표기된 '자문위원'은 해당 표제어를 작성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한 해외의 학자들이다.

8. 멀티미디어 링크

멀티미디어 링크는 표제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 자료 링크이다. 다만, 이 링크는 인터넷상의 자료로 집필진이 작성한 자료는 아니다. 따라서 멀티미디어 자료의 저작 및 관리 책임은 해당 자료의 소유주에게 있으며,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9. 다국어 표기

다국어 표기는 해당 표제어의 외국어 표기를 말한다. 이 표기는 주로 투르크어(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우즈베크어, 카자흐어 등)를 위주로 표기했으나 해당 투르크어가 확인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기타 다른 외국어로 표기했다. 다른 외국어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등 표제어와 관련이 깊은 언어를 주로 제시했다.

10.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참고문헌으로 표기 방식은 저자의 의사를 따랐다. 인용하는 문헌들의 출판 국가가 다양하고, 참고문헌 표기법도 상이하여 통일된 표기 방식을 정하지 않았다.

온라인 참고문헌의 경우, 표제어를 집필하는데 사용된 온라인 문서로 경우에 따라 해당 링크에 연결된 문서가 소멸될 수 있음을 밝힌다.

11. 링크(link)의 연결

멀티미디어, 참고문헌(온라인) 등에서 파란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PDF 전자책에서 누르면 해당 자료로 이동한다. 단, 소유주가 자료를 삭제한 경우 링크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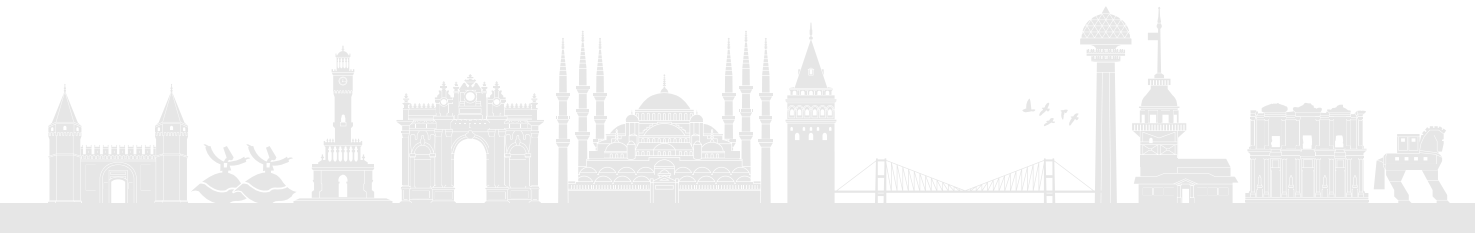
12. 사진 Source

Source를 별도로 밝히지 않은 사진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나 연구진이 보유하고 있거나, 집필자 및 자문위원이 기증한 사진, RF123, Shutterstock 등에서 구입한 사진이다. Source를 밝힌 사진들은 저작권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UNESCO 등 공적 기구, 대학교, 연구기관, wikimedia 등 비영리단체, amazon 등 온라인 커머스 회사 자료들이다. 이 자리를 빌어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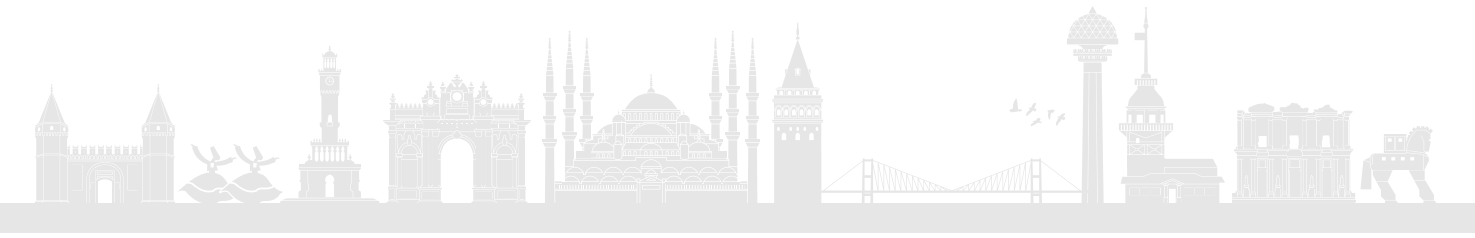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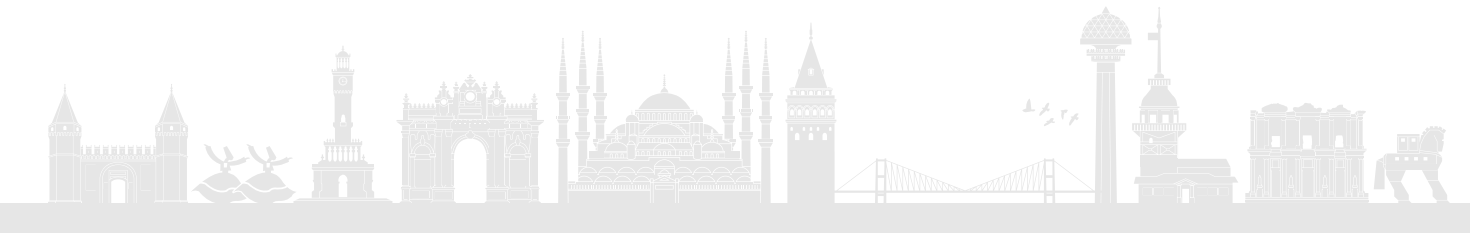
서문	003	I H021 타슈켄트 두마	062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006	I H022 타슈켄트 봉기	063
일러두기	008	I H023 타스파르 카간	064
		I H024 타아르	066
I H001 타가르 문화	023	I H025 타자루나메	067
I H002 타가야흐	025	I H026 타크마크	068
I H003 타다르 톤	026	I H027 타크팍	069
I H004 타라즈	027	I H028 타클라마칸 사막	070
I H005 타락키이	030	I H029 타키야	072
I H006 타르박다이	032	I H030 타타르	074
I H007 타르크 부으라	033	I H031 타타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076
I H008 타리카트	036	I H032 타타르어	077
I H009 타막 오르티르게	039	I H033 타타르인	078
I H010 타미링 올란 호소	041	I H034 타흐신 반구오을루	080
I H011 타발로	042	I H035 타히르와 주흐라	081
I H012 타브리즈 칸국	043	I H036 타히팅 훗거르	083
I H013 타사우프	046	I H037 탄르	085
I H014 타사우프 문학	049	I H038 탄지마트	086
I H015 타샤베 아바칸	051	I H039 탄지마트 문학	089
I H016 타샤베 아바칸 성지	052	I H040 탈가르	093
I H017 타산타이, 타산타이	053	I H041 탈두아이르 제1유적	095
I H018 타쉬트 데스 마스크	055	I H042 탈라스 전투	096
I H019 타쉬트 문화	058	I H043 탈라트 테킨	098
I H020 타슈켄트	059	I H044 탈르시 칸국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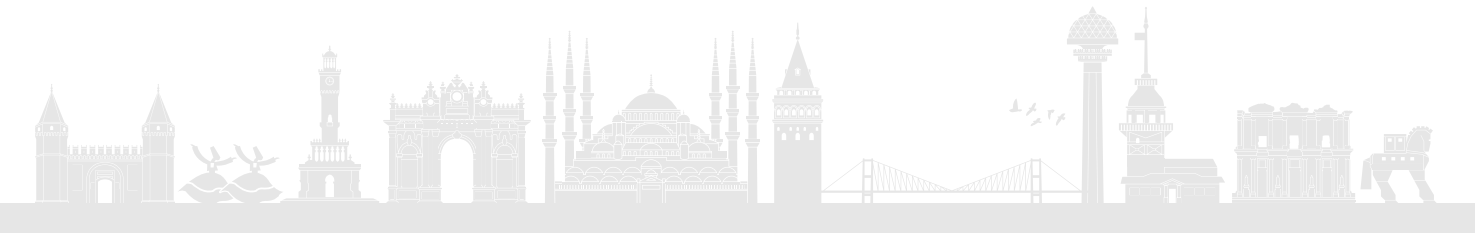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H045 탈리프 아파이트	103	H069 텡그리즘	146
H046 탈코 그린체비치	106	H070 테르메	148
H047 탈하탄 바바 모스크	107	H071 토그룰 내리만배여브	149
H048 탐갈리 암각화	109	H072 토그즈-쿠말락	151
H049 타가이 무러트	111	H073 토미리스	153
H050 터번	112	H074 토온	154
H051 터히르 말릭	115	H075 토이카잔	155
H052 테렐진 두르불진	116	H076 토파인	157
H053 테르메스 궁전	117	H077 토펡 맬릭리	158
H054 테멧투아트	119	H078 토하라인	160
H055 테미르 코무즈	121	H079 토흐타미쉬	162
H056 테브라트	122	H080 톤	163
H057 테브피크 피크레트	123	H081 톨가으	164
H058 테우케 칸	126	H082 톨란 니점	166
H059 테즈힉	127	H083 톨레비	168
H060 테케멧	130	H084 톨카프 궁전	170
H061 텍케	131	H085 투그릴 베그	174
H062 텐산 산맥	135	H086 투글라그 조	177
H063 텔레우트	138	H087 투라	180
H064 텔렝기트인	139	H088 투라니즘	181
H065 템니크	140	H089 투라백 하눔	183
H066 템시 올	141	H090 투라백 하눔 영묘	184
H067 텡게	142	H091 투립 톨라	186
H068 텡그리	144	H092 투르구트 외잘	188



H093 투르구트 우야르	189	H117 투우르	231
H094 투르마감벳 이즈틸레요브	191	H118 투오라	232
H095 투르크	192	H119 투키아	235
H096 투르크 언어 이해서	195	H120 투투슈	236
H097 투르크메니스탄	196	H121 툰 파이람	239
H098 투르크멘	199	H122 툴파르	241
H099 투르크멘어	200	H123 튀르퀴	242
H100 투르크멘의 계보	201	H124 튀르크 위츠게니	244
H101 투르크멘인	203	H125 튀르크멘차이 조약	246
H102 투르크어 분류	204	H126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249
H103 투르크어 사용 민족 신화	207	H127 튀르키예노동당	252
H104 투르크어의 역사	208	H128 튀르키예 독립 전쟁	254
H105 투르크의 계보	212	H129 튀르키예 라디오 텔레비전 공사	256
H106 투르키스탄	214	H130 튀르키예 문자 개혁	258
H107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216	H131 튀르키예 민속희극	261
H108 투르키스탄 자치 정부	218	H132 튀르키예어	265
H109 투르키스탄 지역 무슬림 회의	219	H133 튀르키예어 번역본 및 초보자를 위한 몽골어와 페르시아어 사전	266
H110 투르키스탄의 소리	221	H134 튀르키예 커피	267
H111 투르판	222	H135 툴귀 포리크	269
H112 투르판 방언	224	H136 툴립 시대	270
H113 투르판 위구르	225	H137 트란스옥시아나	273
H114 투바어	227	H138 트루바	275
H115 투바인	228	H139 티마르	276
H116 투사우 케수	230	H140 티모시 1세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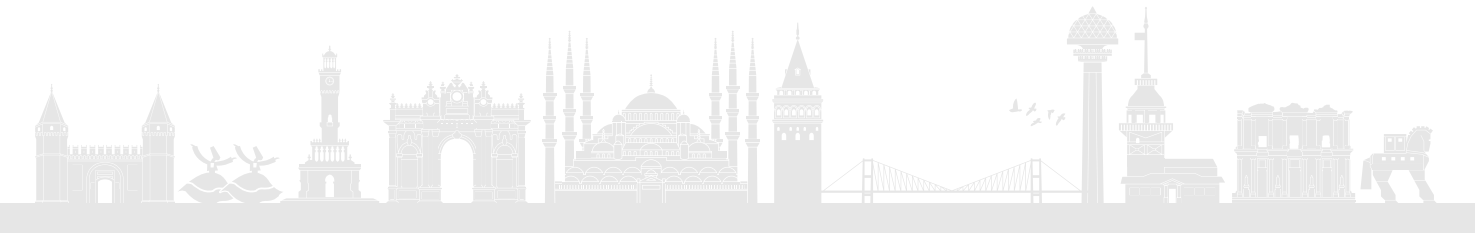
H141 티무르 건축.....	279	H165 페네르바흐체 스포츠 클럽.....	333
H142 티무르 법령.....	282	H166 페라이즈의 서.....	335
H143 티무르 제국.....	284	H167 페르가나.....	336
H144 티베트 불교.....	287	H168 페르테브 나일리 보라타브.....	338
H145 틴.....	289	H169 페를레.....	342
H146 툴라커리 마드라사.....	290	H170 페리.....	343
H147 툴라 테페.....	293	H171 페지리 아티 문학.....	344
H148 파르가니(이슬람 황금시대).....	295	H172 페체네크.....	347
H149 파르다 투르순.....	296	H173 페탈리 카차르 뤼가트.....	348
H150 파르티아 왕국.....	298	H174 페툴라흐 굴렌.....	349
H151 파묵칼레.....	300	H175 펠리오.....	351
H152 파이저버드 허나커히.....	301	H176 포고.....	353
H153 파즈롤라 한 사전.....	303	H177 포르바진.....	355
H154 파지리크 문화.....	304	H178 폰다코 데이 투르치.....	357
H155 파지리크 유적.....	307	H179 플랏 봉기.....	359
H156 파지리크 카펫.....	309	H180 플로스막.....	360
H157 파키르 바이쿠르트.....	311	H181 표토르 바실예비치 쿠르비제코프.....	362
H158 파트마 알리에 토포즈.....	316	H182 푸아드 파샤.....	363
H159 파티마.....	319	H183 푸우스.....	365
H160 파티흐 모스크.....	321	H184 푸위 키르기스어.....	366
H161 파파 에프팀.....	325	H185 플레흐.....	367
H162 파흘라반 마흐무드 영묘.....	327	H186 프레드리히 빌헬름 라들로프.....	368
H163 판펠로프 공원.....	329	H187 프레베자 해전.....	369
H164 패탈리의 운영.....	332	H188 피끄흐의 서.....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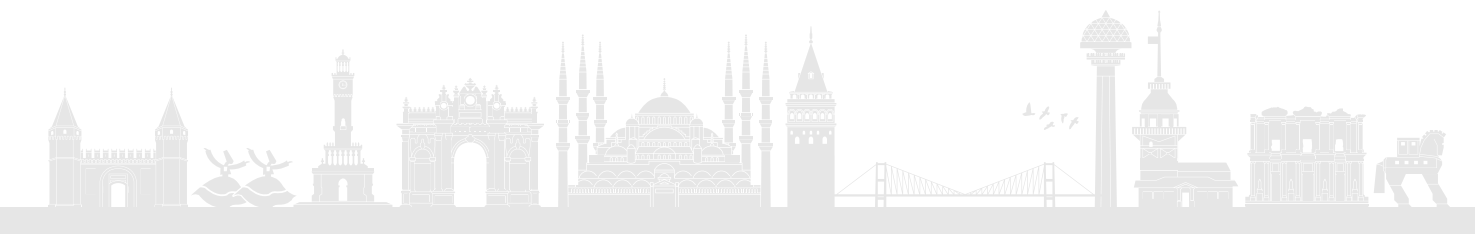
H189 피르	373	H213 하얀 뼈대	423
H190 피르 술탄 압달	375	H214 하이릿딘 술탄너브	424
H191 피르와 지야렛가흐	380	H215 하이지	426
H192 피리	383	H216 하자렛 술탄 모스크	427
H193 피리 레이스	384	H217 하즈	429
H194 피리둔 베이 괴채틀리	387	H218 하즈 바이라므 웰리	430
H195 피첸	389	H219 하카스 고고학 미술	434
H196 피터 골든	390	H220 하카스 마(馬)	435
H197 하가니 쉬르바니	391	H221 하카스 언어문화역사학 연구소	436
H198 하나피	393	H222 하카스 전통력	438
H199 하디스	396	H223 하카스어	439
H200 하라 수오룬	398	H224 하카스인	440
H201 하람	399	H225 하킴잔 나우르즈바이	442
H202 하르간 두르별징 유적	401	H226 하트	443
H203 하맘	403	H227 한 모스크	444
H204 하미	406	H228 한혈마	447
H205 하미디어에 기병대	408	H229 할	448
H206 하미트 굴럼	410	H230 할랄	450
H207 하미트 얼림전	412	H231 할리데 누스레트 조르루투나	452
H208 하브라우	414	H232 할리데 에디프 아드와르	454
H209 하비비	415	H233 할리마 후더이베르디예바	458
H210 하산 예렌	417	H234 할리트 지야 우샤클르길	459
H211 하산 이젯틴 디나모	418	H235 함사	463
H212 하산 휘세인 코르크마즈길	421	H236 함자 첼피카르	465



H237 핫투샤	468	H261 호미스	511
H238 해럴 르자 올루투르크	469	H262 호스틴 볼락	512
H239 해센 베이 재르다비	472	H263 호자	513
H240 하이대르-바바에게 보내는 인사	473	H264 호자 데하니	514
H241 해티브 태브리즈	475	H265 호자 무함마드 버버이 사머시이	516
H242 햄새	476	H266 호자 무함마드 어리프 아르 레브가리	517
H243 행복의 정원	478	H267 호자 압뒴할릭 기즈두버니이	519
H244 허디 자리프	479	H268 호자 아흐멧 야사위 영묘	521
H245 허자	481	H269 호자 알리 레미타니이	524
H246 허지 무인	483	H270 호자 알리 르자	526
H247 헤라트	486	H271 호탄	528
H248 헤르멘 탈 유적(우기우르 솜)	488	H272 호흘라치 유적	530
H249 헤르멘 탈 유적(어기너르솜)	489	H273 홀라바르	531
H250 헤벨	490	H274 훌바인 카펫	532
H251 혁명(우즈베키스탄 저널)	491	H275 황금인간	535
H252 현대 위구르어	493	H276 황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537
H253 현자 코르쿠트	495	H277 황색 위구르어	539
H254 현자 코르쿠트의 서(書)	496	H278 후다코프	540
H255 형제 살해법	501	H279 후더요르 칸	541
H256 호드긴 톨고이	503	H280 후도이베르디 토흐타버예브	543
H257 호라조미	504	H281 후르쉬드	544
H258 호라즘 조	506	H282 후르쉬드 다브런	545
H259 호라즘 투르크어	508	H283 후바이더	547
H260 호라즘 더스탄	509	H284 후반 아르그	548



H285 후아스투아니프트	549	H309 히바혁명	592
H286 훈족	550	H310 히스랏	593
H287 휘세인 나마크 오르쿰	553		
H288 휘세인 자비드	555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597
H289 흰카르 이스켈레시 조약	556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600
H290 흉노	558		
H291 흉노 마구	560		
H292 흉노 옥기	561		
H293 흉노의 마차	562		
H294 흉노의 장식 마구	565		
H295 흉노의 장신구	567		
H296 흉노의 청동 거울	568		
H297 흉노의 청동 술	570		
H298 흉노의 카펫	571		
H299 흉노의 활과 화살	573		
H300 흉노 의복과 의복 장신구	574		
H301 흉노 칠기	576		
H302 흉노 토기	578		
H303 흉노-훈 동족론	581		
H304 흐드르 내비	583		
H305 흑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585		
H306 희생	587		
H307 히르기스트 홀로이	589		
H308 히바 칸국의 관청 기록물	590		



제1권 A001 13세기 이전 투르크어원 사전 ~ A284 리파이 중단

제2권 B001 마고키 아타리 모스크 ~ B284 밀레트

제3권 C001 바기르의 검 ~ C150 빌헬름 피터 그린베크

제4권 D001 사가이 ~ D215 심판의 날

제5권 E001 아가 ~ E256 얼림 칸

제6권 F001 에게해 분쟁 ~ F270 잉판 유적

제7권 G001 자디드운동 ~ G348 킵차크어파

제8권 H001 타가르 문화 ~ H310 히스랏

I H001 | 타가르 문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 문화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agar Culture

타가르 문화는 남부 시베리아 하카스 영토에서 발견되는 문화, 기원전 9세기에서 2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스키타이-시베리아 동물 문양들이 새겨진 유물들이 그 시대의 대표 유물로 전해진다.

‘타가르’라는 명칭은 이 마을 주변 타가르 섬에서 수행된 발굴 조사로부터 명명되었다. 하카스 공화국에서 발견되는 고분의 90%는 모두 타가르 문화에 속한다. 하지만 이것은 타가르 시대의 고분, 유물들의 수가 다른 시대의 유물, 고분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학



타가르 문화의 고대 암각화(러시아 하카스 공화국)



기원전 7세기~5세기 사슴상, 타가르 문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자들은 타가르인들이 다른 문명의 유적들에 비해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거대한 쿠르간을 쌓고 높은 바위로 무덤을 둘러쌌기 때문이라 주장한다.

타가르 문화에 속하는 최초의 고분 발굴 및 연구는 1722년 1월 다니엘 고틀리에브 메서쉬미디트(Daniel Gottlieb Messerschmidt)에 의해 수행되었다. 이들 시대에 남겨진 고분들은 거대한 크기 때문에 ‘칸의 고분(Tsarskie kurgany, Kral Kurganları)’이라고도 불린다. 하카스 공화국에서 발견된 거대 살복 고분의 경우 그 무게가 50톤 이상이며, 높이가 무려 5미터 이상이다.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타가르 문화’는 흑해 지역에 거주하던 스키타이인

들의 문화라고 전해지며 그 밖에도 라들로프, 테플류호프, 키셀레프, 그라즈노프 등에 의해서 이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연대 측정이 이루어졌다. 때문에 하카스-미누신스크 지역은 알타이, 투바 및 몽골과 함께 흑해-스키타이 문화의 보고로 간주된다.

동유럽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 스키타이-시베리아 동물 문양/스타일 등은 타가르 시대에 말의 마구, 의복, 무기 등의 다양한 물건 및 장신구 등에 적용되었다. 이들 자수들 중에서 멧돼지, 산양, 사슴, 숫양, 늑대, 호랑이, 눈표범 등의 묘사가 가장 흔한 모티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가르인들은 동물들이 서로 싸우는(혹은 사냥하는) 장면을 그들의 물건 등에 생생하게 묘사하여 나타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가르 컬처
- 다국어 표기 Тагарская культура(러시아어), Tagar Kültürü(튀르키예어), Tagar Culture(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Хакаси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Гл. ред. В. Я. Бутанаев. Абакан: Издательство Хакас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Н.Ф. Катанова, 2008.

I H002 I 타가야흐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aghayakh

타가야흐는 하카스인 중 사가이족 여성들이 (혼인 여부에 관계 없이) 착용하는 모자이며 모피로 만들어진다. 하카스어로 타가야흐는 ‘둥글다’라는 뜻을 가지며, 하카스인의 고유 전통 민속 장신구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와 비슷한 형태의 모자를 찾아볼 수 없다. 투르크 부족인 텔레위트(Teleüt)의 어린 남자아이들이 착용하는 모자도 타가야(Tagaya)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하카스인의 타가야흐와 별개이다.

일반적으로 하카스인은 타가야흐를 만들 때 수달의 꼬리, 양가죽 그리고 비단을 사용하며 그 위에 자개 단추로 수를 놓는다.

타가야흐는 그 테두리가 수달의 털로 덮여 있고 뒷부분은 목덜미까지 길게 내려가며, 모자의 앞부분은 얼굴을 덮어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타가야흐 상단에는 붉은 실로 만든 술이 있다.

본래 사가이족의 고유 장신구라 전해지던 타가야흐는 19세기 후반 카친(하아스_하카스의 또 다른 부족)과 사가이족들의 의복 양식이 섞이게 됨에 따라, 이후 사가이족과 카친족 여성들 모두가 착용하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야흐, 타가야크

● **다국어 표기** Таҕаyah / Taghayakh(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Шибаева, Ю. А. Одежда хакасов. Сталинабад: Таджикский гос. ун-т им. В. И. Ленина. с. 89. 1959.

I H003 | 타다르 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hk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adar ton

타다르 톤은 남부 시베리아 하카스인의 전통 의상이다. 러시아 차르 시대 러시아인들은 모든 투르크인들을 가리켜 ‘타타르’라 불렀는데, 이때 ‘타타르’라는 발음은 하카스인에게 ‘타다르(Tadar)’라 발음되었으며, 그들(하카스인)이 입던 ‘타다르 톤’은 직역하면 ‘투르크인들이 입는 옷’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타다르 톤은 양의 가죽으로 제작되는 외투의 일종이며, 하카스인 중 사가이족과 벨티르, 카친(하아스) 부족의 남녀 모두가 착용하는 전통 의상으로 알려져 있다. 타다르 톤은 검은 양털로 만든 커다란 둥근 칼라, 넓은 플레어 밑단 그리고 안감이 양모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외투의 오른쪽 가운데 부분에는 옷을 여미어 고정할 수 있는 둥근 버튼이 달려 있다. 외투의 밑단은 칼라와 동일한 형태로 검은 양털로 넓게 덮여 있다.

타다르 톤의 소매는 넓지만 손목으로 갈수록 좁아지며, 소맷단은 천을 한 겹 접은 뒤 그 위에 양가죽으로 덧대어 꿰맨다. 타다르 톤은 화려한 색실로 수놓은 식물 형태의 자수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카스인이 주로 말을 탈 때 입던 옷인 타다르톤은 현재까지도 그 형태가 보존되어 전해지며, 일부 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타르 톤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bigenc.ru/ethnology/text/5149680>
- 참고문헌(오프라인) Шиббаева, Ю. А. Одежда хакасов. Сталинабад: Таджикский гос. ун-т им. В. И. Ленина. с. 90. 1959.

I H004 | 타라즈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araz

카자흐스탄 남부의 고도 타라즈는 2001년에 창건 2,000주년 행사를 거행할 정도로 오래된 도시로서 실크 로드상에 위치하여 동서 문물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지역이다. 기원 무렵의 타라즈 지역은 흉노인들이 건설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후 소그드인 및 투르크 종족의 도시로 변화되어 나갔다. 중세기에 실크 로드상의 주요 도시로서 타라즈는 발전해 나갔다.

타라즈의 명칭은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했다. 568년의 그리스어 문헌에는 톨로스(Tolos), 나중에는 탈라스(Talas), 893년부터는 타라즈(Taraz)로 불렸고 사만 조와 카라한 조의 주요 도시로서 발전했다. 1864년에 제정 러시아의 군대가 타라즈를 점령하고 1917년에는 이 일대를 지나가는 철도가 건설되었다. 이후 1936년까지는 아울리에-아타(Aulie-ata), 1936~1938년에



타라즈 입구



타라즈 유적지

는 초대 카자흐 공화국 공산당 제1서기의 이름을 따서 미르조얀(Mirzoyan)으로 불렀다가, 이후 1998년까지는 전통적인 카자흐 시인의 이름을 따서 잠블(잠블 Zambyl)로 불렀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는 751년에 아랍군과 당나라군(고선지 장군의 지휘)의 대전투가 있었던 곳이 바로 타라즈 혹은 탈라스인데 현재 이 지역이 정확히 카자흐스탄의 타라즈인지 키르기스스탄의 탈라스인지 학자들의 논쟁이 진행 중에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타라즈,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탈라스를 역사적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라즈는 현재 잠블주의 주도이며, 인근의 심켄트와 함께 남부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도시로 간주된다.

- 다국어 표기 Tapaz(카자흐어), Tapaz(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탈라스



타라즈 궁전 유적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5b8wbMuYmQ>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ochka-na-karte.ru/Goroda-i-Gosudarstva/2458-Taraz.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H005 | 타락키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신문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Taraqiy

<타락키이(Taraqiy: 진보)>는 1906년에 타슈켄트에서 발행된 자디드(jadid) 사회정치 신문으로 우즈베크어로 발간된 최초의 신문 중 하나이다. <타락키이>는 교육계와 문화계의 진보주의자인 무납바르 커리 압두라쉬ద్(Мunavar qori Abdurashidov), 압둘라 아블러니이(Abdulla Avloniy), 마흐무트하 베흐부다이(Mahmudxoja Behbudiy)와 이스마일 아비더브(Ismail Abidov)가 창간했다. 초대 편집장은 이스마일 아비더브(Ismail Abidov)가 맡았고, 창간호는 1906년 6월 27일에 발행되었다.

신문은 투르키스탄 지역의 사회정치 이슈가 주를 이루었으며, 일주일에 두 번 발행됐다.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가혹한 식민 정책과 지역 상황에 대한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기사가 많았고, 교육 문제도 자주 언급됐다. 창간호와 2호에는 무납바르 커리 압두라쉬ద్의 「우리 무지의 근원은 무척 복잡합니다」라는 칼럼이 연재해 학교와 마드라사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흐무트하 베흐부다이의 칼럼 「계몽의 필요성」은 인간의 정신적, 영적 발달에서 교육의 중요성과 역할을 피력했다.

<타락키이>는 타슈켄트 주민들에게 빠르게 인기를 얻었고, 지식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독자층을 넓혀가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일반인들이 찻집과 시장에서 신문을 읽는 지식인들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으면서 파급력은 더욱 커져갔다. 압둘라 아블러니이가 칼럼 「우즈베크 정기간행물의 역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신문이 너무 유명해져서 신문 편집장인 이스마일 아비더브(Ismail Abidov)를 ‘(신문의 이름인)타락키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신문의 인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타락키이>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러시아 제국 당국은 급기야 1906년 8월 20일 신문을 폐간시키고, 출판사 재산을 몰수했다. 편집장을 비롯해 신문사 직원 다수가 체포되었고, 편집장 이스마일 아비더브는 투르키스탄 지역에서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

<타락키이>는 1906년 6월 27일부터 8월 19일까지 3개월 동안 20호가 발행되었다. <타락키



Source: <https://oyina.uz/storage/articles/June2022>

이>의 총 6호가 현재 알리셰르 나버이이(Alisher Navoi) 국립 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라키의, 타락키이, 타락키이, 타라크크이
- 다국어 표기 Taraqqiy(우즈베크어), Таракки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무납바르 커리 압두라쉬ద్브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O'zbekiston Respublikasi Fanlar akademiyasi, *Qata' on qurbonlari va ularning adabiy-badiy hamda publisistik merosi*, Toshkent: Mumtoz so'z, 2015.
Sharopov Abdulla, *O'zbekiston tarixidan universal qo'llanma*, Toshkent: Akademnashr, 2019.

I H006 | 타르박타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arvagatai

타르박타이(Tarvagatai) 무덤 유적은 울르항가이 아이막 울찌르와 질르 솜 경계 지역으로 질르 솜 중심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 계곡 끝 낮은 언덕 남쪽 평지에 무덤들이 분포하고 있다. 모두 64기의 무덤이 자연 지형을 따라 동서로 분포하고, 100m 간격으로 남쪽과 북쪽 무덤으로 나누어진다. 무덤은 묘도가 없는 고리형 무덤이다.

유적의 서쪽에 있는 소형 유구의 무덤으로 적석 유구의 지름은 3.6m이다. 무덤의 장축은 남북향이고 얇은 판재로 만든 목관 안에는 어린아이 인골이 확인되었다. 평면 형태는 사다리꼴로 길이 1.28m, 단벽 길이 0.4m, 다리쪽 단벽 길이 0.28m, 높이 0.24m이다. 목관의 흔적만 남아 있고 인골도 도굴로 심하게 교란되었다. 1호 무덤 동쪽에 있는 대형 무덤이 2호 무덤이다. 돌이 없는 고리형으로 지름이 6m이다. 적석을 제거하자 깊이 1.2m에서 남북향인 굴광선이 확인되었고 묘광 안에서 적석층이 노출되었다. 깊이 2m의 중앙에서 피장자의 두개골이 발굴됐는데, 60세 남성으로 추정된다. 뚜껑 제거 후 목관이 드러났는데, 목관을 묘광 남쪽에 안치해 북쪽에 부장칸을 조성했다.

목관은 사다리꼴로 길이 2m, 북쪽 단벽 폭 0.6m, 남쪽 단벽 폭 0.4m, 높이 0.4m로 추정되었다. 도굴에 의한 교란으로 인골 대부분이 묘광 북편에 모여 있다. 인골과 함께 철제 손칼, 유연형 철촉 3점, 얇은 도금 장식편, 은제 장식과 철제 꽃 모양 목관 장식 등이 출토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르바가타이

● 다국어 표기 Тарвагатай(러시아어), Tarvagatai(몽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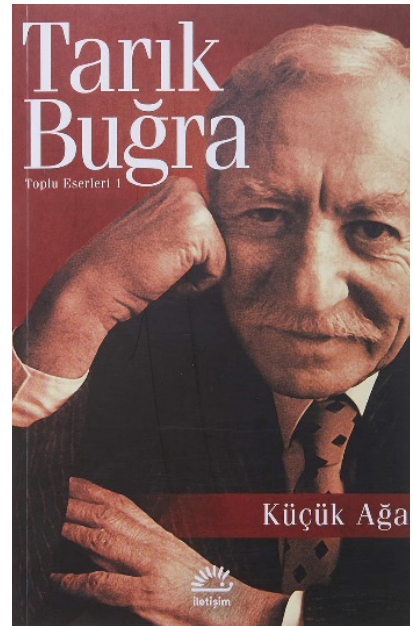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국립중앙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몽골국립박물관, 『몽골 흉노무덤 자료집성』, 2008.

I H007 | 타르크 부으라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Tarık Buğra

튀르키예의 현대 작가 타르크 부으라(Tarık Buğra)는 1918년 9월 2일 코니아의 악세히르 지역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메흐메트 나즘은 에르주룸 출신으로 법조인이었고, 어머니 나지케는 악세히르 출신이었다. 타르크 부으라가 중학교 때 튀르키예어 교사는 르프크 메릴 메리츠(Rıfık Melül Meriç)였고, 고등학교 때 문학교사는 하크 쉬하 게즈긴(Hakkı Süha Gezgin)이었다. 부으라는 악세히르에서 중학교까지 다녔고, 고등학교는 이스탄불 남자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2년 뒤 학교 기숙사가 없어지자 코니아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갔고 1936년에 졸업했다. 대학은 이스탄불대학교 의대, 법대, 문학과 학부를 2년~3년씩 다녔지만 모두 졸업은 하지 못했다. 대신 당시 이스탄불의 문화공간이었던 '퀵 커피하우스'에서 일했고, 동시에 시실리테라키고등학교에서 보조 교사로 근무했다.



『작은 영웅 (Küçük Ağa)』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이 공간에서 그는 야흐야 케말, 입눌레민 마흐무트 케말, 푸아드 쿠프릴뤼, 아흐메트 함디 탄프나르, 알리 니하드 타를란, 누룰라흐 아타츠와 같이 담소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그는 「우리 아들(Oğlumuz)」이라는 단편소설로 1948년에 이우누스 나디 단편소설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다. 이 상이 동기부여가 되어 그 후부터 문예지 <츠나르알트(Çınaraltı)>와 <밀리예트(Milliyet)> 신문에 글을 기고하기 시작했다. 1948년부터 1952년 사이에는 아버지와 함께 코니아 악세히르에서 신문 <나스렛딘 호자(Nasreddin Hoca)>, 타라트 테킨과 함께 이스탄불에서 잡지 <제이틴달르(Zeytindalı, 1950)>와 <이스탄불 주간(İstanbul Haftası, 1951)>을 발행했다.

타르크 부으라가 문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다독가인 아버지 덕분이었다. <사파하트(Safahat)>, <부서진 사즈(Rübâb-ı Şikeste)>, <불꽃(Şerâre)>, <피알레(Piyâle)>, <제브데트 파샤의 발자취(Cevdet Paşa Târîhi)>, <세르베티 뤼논(Servet-i Fünûn)>, <테라키(Terakkî)> 같은 책과 문예지를 어릴적부터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로 인해 조성된 문화환경으로 인해서 시, 단편소설, 칼럼 등을 읽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튀르키예 문화와 문학에 대한 식견을 넓혔다.

더불어 타르크 부으라에게 학창시절 교사들이 미친 영향도 컸다. 중학 시절 그가 썼던 시를 르프크 메텔 메리츠 튀르키예어 교사가 눈여겨보고 부으라가 시를 계속 쓰도록 격려했다. 이스탄불 남자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문학 교사 하크 쉬하 게즈긴이 주관한 글짓기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페르테브 나일리 보라타브(Pertev Naili Boratav)가 주장한 ‘언어 인지 자극의 효과와 인간과 운명의 관계’가 그를 자극했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해석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1956년 헝가리 혁명에서 헝가리 시민들이 소련에 저항하는 내용을 다룬 「페슈트 56(Peşte 56)」라는 희곡을 발표하면서 극작가로 데뷔했다. 이후 1966년에는 「나는 일어서고 싶다(Ayakta Durmak İstiyorum)」, 1981년에는 「희곡 3편: 나는 일어서고 싶다. 충전 라디오(Akümülatörlü Radyo), 수백 송이 꽃이 갑자기 피었다(Yüzlerce Çiçek Birden Açtı)」, 1970년에는 「이비쉬의 꿈(İbiş'in Rüyası)」, 1988년에는 「태양과 사자(Güneş ve Arslan)」, 1994년에는 「바닥에서 정상으로(Sıfırdan Doruğa)」 등 시나리오도 발표했다.

타르크 부으라가 문단에서 제대로 명성을 쌓기 시작한 것은 독립전쟁시기 민병대(Kuvay-ı Milliye)의 활동과 국민이 점령군에게 저항한 내용을 주제로 1963년에 소설 『작은 영웅(Küçük Ağa)』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 소설의 속편은 1966년에 발간된 『앙카라의 작은 영웅(Küçük Ağa Ankara'da)』이다. 그는 이외에도 『이비쉬의 꿈(1970)』, 『파라오의 신념(Firavun İmanı, 1976)』, 『모퉁이에서(Dönemeçte, 1978)』, 『별장 있는지요?(Bir Köşkünüz Var mı?, 1978)』, 『아! 내 청춘(Gençliğim Eyvah, 1979)』, 『비를 기다리며(Yağmur Beklerken, 1981)』, 『외로운 사람들(Yalnızlar, 1981)』, 『오스만족(Osmancık, 1983)』,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골목(Dünyanın En Pis Sokağı, 1989)』 등의 소설을 썼다.

그의 개인사는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그는 1950년 9월 단편소설 작가 잘레 바이살과

결혼했지만 1968년 이혼했다. 1969년 6월부터 신문 <테르쥐만>에 칼럼을 쓰기 시작해 1983년 까지 썼는데, 1973년 5월에 심근경색을 앓고 난 이후로는 글을 매일 쓰는 것은 포기하고 신문 <테르쥐만>에 매주 단편소설만 기고했다. 1977년 9월에는 단편소설 작가 하티제 빌렌과 재혼했다.

그의 수상경력으로는, 소설 『이비쉬의 꿈』으로 TRT 소설 상(1970), 『비를 기다리며』로 튀르키예 노동은행 대상(1981), 『충전 라디오』로 튀르키예 작가협회 희곡 상(1981), 『오스만족』으로 튀르키예 국립문화재단 상(1985년)을 받았다. 1991년 국민 예술인 훈장을 받았고, 1993년에는 튀르키예 작가협회에서 ‘올해의 예술인’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자유 헝가리 협회에서 시나리오 『나는 일어서고 싶다』로 공로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 중 『작은 영웅』은 사회적 사건들을 묘사할 때 사람에 의해 생긴 변화와 반응을 살피는데 집중한 작품으로 1983년 8부작 텔레비전 드라마로 TRT에서 방영되기도 했다.

그는 첫 단편소설에서 1950년대 튀르키예 지식인들이 느끼던 불안을 작은 마을을 깊이 관찰하면서 통찰력있게 묘사해냈고, 거기서 일어나는 뒤틀린 사랑을 다루었다. 이 작품에서 그는 설득력 있는 이야기 구성과 탄탄한 전개로 시선을 끌었다. 그는 1955년에 출간한 소설 『검은 호박(Siyah Kehribar)』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자 한동안 소설을 내려 놓기도 했다. 이 소설과 관련한 답답함을 이렇게 토로했다. “마치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 내 코가 캅카스 산맥에 눌러 뭉개진 것 같다. 4년 동안 단편소설을 쓴 건지, 소설을 쓴 건지 모르겠다.”

타르크 부으라는 지역사회 동네 현실을 꿰뚫고 있던 소설가이다. 사건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 판단을 선불리 정의하지 않았고, 모든 이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 속사정들도 다 알고 있었다. 타르크 부으라는 이처럼 열린 사고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타르크 부으라는 ‘시골’ 출신인 데다 대가족이 익숙할 뿐더러 손님과 새로운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는 가족과 주변사람에 대한 관심은 물론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예의도 중요시했다. 부으라는 전통 문화에 등 돌리지 않으면서도 참신하고 새로운 것에 호기심이 많았다. 이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선호했다. 그는 사람들의 행동을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고 배워나갔다. 그의 가족들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았고, 남녀노소, 시골 사람, 마을 사람, 공무원, 상인 분별 없이 모두에게 열린 태도로 대했다. 그러나 남성 중심 사회 구조가 일반적이었으므로 이를 극복하지는 못했다. 부으라가 남자 주인공을 그럴 때 더 성

공적으로 그렸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스탄불에서의 그의 삶도 어떤 의미에서는 ‘남성 중심적’ 성격을 띠고 있다. 가족, 학교 주변, 커피하우스, 기숙사 등 주변 지인 대부분이 남자였고, 부으라는 이런 환경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양한 사회 계층의 사람들과 만났지만, 작가로서는 제한된 사람들과만 교류했다. 1994년 2월 26일 이스탄불에서 눈을 감은 타르크 부으라의 무덤은 카라자아흐메트 묘지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르크 부그라, 타룩 부라

● 다국어 표기 Tarik Bugra(영어), Tank Buğr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코니아, 푸아드 코프릴뤼, 세르베티 뤼논,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Ayvazoğlu Beşir, *Büyük Ağa Tank Buğra*, Kapı Yayınları, 4. Basım, İstanbul, 2011.

Naci Fethi, *Yüzyılın 100 Romanı*, Adam Yayınları, 3. Basım, İstanbul, 2000.

Tekin Mehmet, *Tank Buğra*, Yılmaz Ebru Burcu (Editör),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2011.

Tuncer Hüseyin, *Tank Buğra*,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88.

I H008 | 타리카트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수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Sufi Order

아랍어 타리카(Tariqah:طريقة)에서 파생된 이 단어는 ‘길’이라는 의미로 수피즘에서 진실, 즉 알라에게 도달하기 바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습관이나 상황, 태도, 방법을 뜻한다. 이런 방법 중 특정한 방식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이들의 집단을 지칭할 때도 사용된다. 한국어로는 일반적으로 종단이나 교단, 파생 교리 등으로 번역된다.

수피즘에서 알라에 도달하는 길에는 네 단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샤리아적인 첫 단계, 타사우프(신비주의, 수피즘)적 방식인 두 번째 단계인 타리카트, 신비로운 진실인 세 번째 단계,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한 네 번째 단계로 나눈다.

수피들은 인간이 알라(의 진실)에 도달하는 세 가지 타리카트(길, 방식)를 분류했는데, 하나는 기도, 금식, 코란 읽기, 순종하는 방법, 두 번째는 투쟁과 순종으로 영혼을 정화하여 좋은 습관을 익히는 방법, 세 번째는 사랑으로 알라를 향해 여행하는 것이며 이 중 세 번째가 가장 빠른 방식이라고 말해진다. 이 방식은 다시 육체적인 방식과 영적인 방식으로 나뉜다. 영적인 방식은 기도와 알라의 이름들을 부르고 기억하는 것으로 영혼을 강화해 악이 발생하는 근원인 육체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고, 육체적인 방식은 고행(적게 먹고 적게 자고 기도를 많이 하는 등)을 수행하여 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수행 방식의 적용과 활용 방식에 따라 타리카트가 분류되기도 한다. 다만, 종교의 외형과 형식이라 할 수 있는 샤리아를 어긴다면, 타리카트를 따른다고 할지라도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수피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발생한 다양한 타리카트들 중 샤리아에 완전히 부합하는 수니파에서 파생된 타리카트들과 시아파에서 발생한 타리카트 이외에도 샤리아에 어긋나는 종단, 즉 수니파도 아니고 시아파도 아닌 타리카트도 존재한다.

수피들은 타리카트의 최초 발생을 예언자 무함마드로 친다. 무함마드가 4대 칼리프를 비롯한 동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방식을 알려줬고, 여기서부터 타리카트가 파생되었다고 믿는다. 이에 따라 4대 칼리프의 이름을 딴 타리카트(종단)들이 파생되었으며, 또한 이 계파에서 다시 파생 타리카트가 등장하여 현재까지도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타리카트들이 8세기 이후부터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집단 거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한카(Khanqah), 다르가흐(Dargah), 텍케(Tekke), 자위야(Zawiya) 같은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와크프의 재정적 후원을 바탕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생활을 영위한다. 초기에는 수피들의 거주지만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며 도서관, 교실, 병원, 객실과 같은 부속 시설과 포도밭과 같은 생산 시설도 추가된다. 이 타리카트의 기관은 마드라사의 역할을 맡기도 하여, 타리카트의 교육과 함께 일반인에게 일반적인 이슬람교, 아랍어 교육을 실시했다. 타리카트 셰이크들의 교육 수준은 높았다. 예를 들어 오스만 시대에는 종교적 지식뿐만 아니라, 천문학, 의학, 음악, 작곡, 서예, 그림, 꽃꽂이와 같은 학문과 예술 분야에서도 공헌하여 타리카트는 다양한 인재를 창출했다.

한 타리카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 타리카트의 셰이크에게 보고하고, 셰이크가 입문을 허용할 시, 입문자는 셰이크와 그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맹세한다. 셰이크는 입문자에게



야야사위 종단 창시자 야사위의 영묘

해당 타리카트가 지정하는 옷과 모자를 입혀준다. 이후, 타리카트의 규칙과 전통 방식들을 셰이크에게 지도받고, 입문자는 이에 따른다. 타리카트의 셰이크는 자신이 지도하는 입문자의 영적 아버지/어머니이기에 입문자들도 서로를 형제로 여긴다. 교육이 완료된 입문자들은 일종의 졸업장을 받고, 그 단계-칼리프 단계-에 적절한 옷을 입게 된다. 이 옷은 각 타리카트마다 색상이나 형식에 차이가 있다. 이 옷을 입은 이들은 다른 이들을 이 타리카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수피들은 한곳에 모이면 대화(알라께서 항상 곁에 있기에 안정되고 기쁜 마음으로 셰이크나 자질 높은 사람에게 지도를 받으며 하는 대화)를 하고, 알라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기도를 하고, 은둔 수행을 하며, 알라에게 도달하는 길을 수행한다.

타리카트는 개인적인 영적 수행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도 종교적 교화의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사회적 활동으로서 이슬람 선교와 비무슬림 침략 세력에 반하여 민중을 통합하고 필요시 군대에 참여하는 활동까지 겸했다.

많은 타리카트 중에서 중앙아시아와 아나톨리아반도, 캅카스 등 투르크 민족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타리카트로는 낙쉬반디(Naqshbandiyah), 벡타슈(Bektdshiyya), 칼리디

(Khalidiyya), 야사위(Yasawiyyah), 콰자간(Khwajagan), 바이라미(Bayramiye), 사파비(Safa viyya), 콰디리(Qadiriyya), 쿠브라위(Kubrawiyya), 젤베티(Jelveti), 리파이(Rifa'iyya), 마발라 위(Mawlawiyya, 메블라나 종단)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리캣, 타리카 수피 종단, 교단
- 다국어 표기 Tariqa(영어), Tarikat(튀르키예어), Tariqat(우즈베크어), Тариқат(카자흐어), Təriqət(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실실라, 텍케, 데르가흐, 데르비슈
- 참고문헌(오프라인) Öngören, Reşat. «Tarikat»,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40, İstanbul: TDV; 2011, pp.95~105.
Geoffroy, E.. “TARIKA-I.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THE TERM IN SUFISM”, *The Encyclopaedia of Islam*(ed:PJ. BEARMAN, TH. BIANQUIS, C. E. BOSWORTH, E. VAN DONZEL AND W. P. HEINRIGHS), New Edition, Volume X T-U, Leiden: E. J. Brill, 200, pp.244~246.
Zarcone, TH. “TARIKA-II. THE TERM CONSIDERED GEOGRAPHICALLY-5. In the Turkish lands, from Anatolia to Eastern Turkestan”, *Encyclopaedia of Islam*(ed:PJ. BEARMAN, TH. BIANQUIS, C. E. BOSWORTH, E. VAN DONZEL AND W. P. HEINRIGHS), New Edition, Volume X T-U, Leiden: E. J. Brill, 200, pp.249~253.
Ceyhan, Semih. “Tarikat ve Tekke Kavramlarına Dair” *Türkiye’de Tarikatlar Tarih Ve Kültür*, İstanbul: ISAM, 2015, pp.27~53.

I H009 | 타막 오르티르게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amakh ortirge

하카스어로 타막 오르티르게(Tamah örtirge)는 ‘음식 태우기’로 해석된다. 직역하면 ‘불타는 음식’을 뜻하며, 이는 고인의 영혼을 배불리기 위하여 음식을 태우는 의식이다. 죽음과 관련된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관습을 가지고 있는 하카스인들은 불에 타고 남은 음식에 치딤닉 타막(çidimnig tamah)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였다. 이 특별한 음식은 지방과 살이 많은 고기로 이루어진다.

하카스인들은 매장된 지 7일째 되는날 그들이 생전 살던 집이 아닌 매장지 무덤 근처에서 이

의식을 행한다. 그들은 무덤의 서쪽에 불을 피운다. 그리고 각자 준비해온 음식과 술을 일정량 덜어 그릇에 옮긴다. 이 그릇은 무덤 앞 상석에 놓인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온 술을 무덤 위 석상에 세 번 뿌리면서 ‘Minañ is, minañ çi(이것을 마시시오, 이것을 드십시오)’라고 외치며 자신들이 각자 준비해온 음식을 먹는다. 이후 하카스인들은 무덤 위 석상에 놓은 술을 가져다 불에 붓고, 고기 세 줌 정도를 가져다가 불에 던져 넣는다. 남은 고기는 고인의 가까운 친척, 혹은 이웃들에게 나누어준다.

하카스인들이 불을 통해 고인의 영혼을 먹이는 풍습이 생기기 이전에 그들은 기름, 고기 또는 빵을 불에 태우며 불을 배불리 먹인다고 여겼으며 불을 여신으로 여겼다. 장례식에서도 하카스인들은 불에 음식을 던지면서 ‘내가(말하는 사람 본인의 이름) 왔어요. 음식을 가져왔어요.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돌아다니세요. 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벌이세요(Min (pozının adın adapça) kildim, tulup salçam. Astabin, suhsabin anda çör, toy-pay sal andağılarnañ hada)’라고 말한다. 하카스인들은 불이 고인의 유족들이 영혼과 소통할 수 있게 해 주며 더불어, 고인에게 음식과 음료를 보내준다고 믿었다.

차가운 숨을 내쉬는 뿔을 가진 동물들은 타막 오르티르게를 위해 제물로서 희생될 수 없다고 말하는 하카스인들도 있다. 동물들의 호흡의 온도와 관련된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실제로 그 지역의 하카스인들의 인터뷰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하늘과 산의 신에게 바쳐지는 희생 제물들에 염소, 뿔이 있는 소 혹은 냉호흡을 하는 동물들 대신 따뜻한 호흡을 하는 동물들의 고기를 바친다. 그 이유는 하카스 샤머니즘에서 중간 세계의 생물들은 온화한 호흡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냉호흡을 하는 동물들은 저승을 상징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마흐 오르티게, 음식 태우기 의식
- 다국어 표기 Tamah örtirge / Tamax örtipre(하카스어), Tamakh ortirge(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Okutan, N. *Hakaslarda Atalar Kültü ve Günümüz Hakas Kültürüne Etkileri*. (Yayımlanmamış Yüksek Lisans Tezi). Hacettepe Üniversitesi, Türkiye Araştırmaları Enstitüsü, Ankara, 2016.
Okutan Davletov, N. *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leri*. İstanbul: Ötügen Neşriyat, 2021.

I H010 | 타미링 올란 호쇼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Tamiryn Ulaan Khoshuu

타미링 올란 호쇼(Tamiryn Ulaan Khoshuu)는 몽골 아르항가이 아이막 오기노르 сом 지역에 위치하며, сом 중심지에서 약 24km 떨어져 있다. 타미르강 연안의 편평한 곳을 현지 주민들은 올란 호쇼라고 부르는데, 서쪽 가장자리에 분포한다. 유적의 남쪽에는 타미르강이 있고 북쪽에는 오르혼강의 나무다리(바트첵겔르 сом)를 통하는 길이 있다. 이 유적에는 287기의 무덤이 있고, 주변에 토성 3기가 나란하다. 대형 무덤의 지름은 18m, 중형은 8m~10m, 소형은 5m~6m이다. 그중에서 7호는 서쪽 무덤군의 남쪽 가장자리에 위치하는데, 지표면에는 크기 10m×9m의 적석 유구가 노출되어 있다. 적석을 제거하고 하강하지 굴광선이 확인되었다. 동최대경이 위쪽에 있는 대형 토기의 호형 토기로 동체 아래쪽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입술의 지름 27cm, 바닥 지름 16.5cm, 높이 69cm). 이런 구멍은 몽골의 흉노 무덤에서는 거의 처음 발견되었다.

묘광 동쪽 가장자리에서는 칠기편과 자작나무 껍질이 출토되었다. 깊이 3m 아래에서는 매장 주체부가 드러났으며, 길이 2.5m, 폭 1.2m의 목관이 발견되었다. 목관 안에 인골이 안치되었는데, 심하게 교란되었다. 두개골은 목관의 중앙에 늑골은 동벽에 치우쳐 있다. 목관을 목곽 서남부에 치우치게 안치해 동쪽과 북쪽에 부장칸이 따로 마련되었다. 동쪽 칸에는 부식이 심해 형태를 알 수 없는 철판이 많았는데 재갈 정도만 형태 파악이 가능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미린 올란 코쇼우

● 다국어 표기 Тамирын улаан хошууны(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흉노무덤(1)』, 2011.

David E.Purcell, Kimberly C. Spurr. Archaeological Investigation of Xiongnu Sites n the Tamir River Valley. The silk road Volume 4, Number 1, 2006.

I H011 | 타발로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Tavallo

타발로(Tavallo, 본명은 톨라간 호자미요러브 To'lagan Xo'jamiyorov)는 1882년 타슈켄트 곡차(Ko'kcha) 마할라(mahalla)에서 태어났다. 그는 구식 학교에서 초등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무키미이(Muqimiy)와 푸르캣(Furqat) 등 고전문학 작가들을 배출한 베크라르베기(Beklarbegi) 마드라사에서 수학했다.

1906년에 그는 압둘라(S.Abdulla)와 아블러니이(Avloniy)와 함께 '투런(Turon) 협회'에서 일하며 함께 출판사를 설립했다. 타발로가 시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는 유수프 사르요미이(Yusuf Saryomiy)의 도움이 컸다. '타발로(Tavallo)'라는 필명도 그에게서 받은 것이다. 타발로는 타타르 시인 압둘라 토카이(Abdulla To'qay)의 사망일에 그를 추모하며 그에게 바치는 헌정 시를 쓰기도 했다.

1905년에 그는 자디드(Jadids)에 합류했으며, 그 시기 신문과 잡지에는 그의 시 「진보(Taraqqiy)」, 「명성(Shuhrat)」, 「투르크িস탄의 목소리(Sadoi Turkiston)」, 「페르가나의 소리(Sadoi Fergana)」 등이 실렸다.

그는 타슈켄트에 위치한 콜로세움 극장에 마흐무드허자 베흐부디(Mahmudhoja Behbudi)의 「친부 살해자(Padarkush)」 연극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타발로는 이 연극을 위해 시 여러 편을 썼다. 비록 그의 시 작품들은 출판되지 못했지만 이후 그의 시집 『라브낙 울 이슬람(Ravnaq ul-Islom)』에 수록되었다. 이 시집은 1993년 우즈베키스탄 독립 이후 코시머브(B. Qosimov) 교수에 의해 재출판되었으며, 추후 선문과 주석들이 추가되었다.

10월 혁명 이후 타발로는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여 <주먹(Mushtum)> 잡지사의 기자로 활동했다. 1920년대 그는 <주먹>에 '마그자바(Mag'zava)'라는 필명으로 풍자시 10편을 발표했다.

타발로는 1937년 8월 14일 반혁명적 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혀 체포되었고, 1937년 11월 10일 사형을 선고받았다. 타발로는 1968년 10월 18일 무죄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만, 그의 매장지와 관련된 내용은 어떠한 정보도 전해지지 않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발로
- 다국어 표기 Tavallo(우즈베크어), Тавалло(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압둘라 토카이(Abdulla To‘qay)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o-zbek-ziyolilari/to-lagan-xo-jamyorov-tavallo-1882-1937>
<https://arboblar.uz/uz/people/tavallo>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I H012 | 타브리즈 칸국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Tabriz Khanate

18세기 중반에 수립된 타브리즈 칸국(1747년~1799년)은 아프샤르 부족(Əfşar tayfası) 출신 애미르아슬란(Əmiraslan) 칸이 건국했다. 타브리즈 칸국의 중심부는 타브리즈였으며, 코이(Xoy), 나흐츠반(Naxçıvan), 카라바흐(Qarabağ), 새라브(Sərab), 마라가(Marağa) 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다. 애미르아슬란 칸은 할할(Xalxal), 애르대빌(Ərdəbil), 카라다그(Qaradağ) 등 아제르바이잔의 여러 남부 지방 도시들을 빠르게 정복했다.



타브리즈 칸국의 주화

나디르 샤 아프샤르(Nadir şah Əfşar)의 조카 이브라힘 미르재(İbrahim Mirzə)는 아프샤르의 정부에 굴복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타브리즈를 공격하여 점령했지만, 끝까지 타브리즈를 지켜내지 못했다. 그는 매스해드(Məşhəd)와 이스파한(İsfahan)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매스해드(Məşhəd)로 돌아갔다가 전투에서 전사했다.



19세기 세밀화에 그려진 패탈리 칸의 재패르쿨루 한 정복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18세기 남아제르바이잔(현재의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는 15개 이상의 작은 칸국이 있었지만, 자치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 후, 나디르 샤 아프샤르의 사촌 패탈리 칸 아프샤르(Fətəli xan Əfşar)가 타브리즈를 점령했고 내재프쿨루 칸 뉘벌뤼(Nəcəfqulu xan Dünbülü)를 칸으로 임명했다. 이로 인해 타브리즈 칸국은 일정 기간 동안 우르미야 칸국(Urmiya xanlığı)에 예속되었다.

타브리즈 칸국은 자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었지만, 고대 공예(직조 및 카펫 제작) 및 상업의 중심지로 명성을 유지했다. 당시 이 지역을 여행했던 여행가들은 타브리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타브리즈 도시 내 시장은 넓다. 그곳에서는 아시아, 유럽의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다. 종이, 실크, 모직물이 풍부하여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 제품, 고급 스카프, 카펫, 유리

와 도자기, 철제 제품 등도 구할 수 있다.”

1763년 패탈리 칸 아프샤르(Fətəli xan Əfşar)가 캐림 칸 잔드(Kərim xan Zənd)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자, 타브리즈 칸국은 비로소 독립을 얻었다.

내재프쿨루 칸(Nəcəfqulu xan)은 그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타브리즈 주변에 성벽을 쌓았다. 1784년 내재프쿨루 칸이 사망한 후, 쿠다다드 칸(Xudadad xan)이 즉위했다. 하지만, 그의 통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는 1787년, 사디그 칸 새가이그(Sadiq xan Şəqaiq)에 의해 살해되었다. 쿠다다드 칸(Xudadad xan) 이후 내재프쿨루 칸(Nəcəfqulu xan)의 조카 Hüseyinqulu xan Dünbülü가 칸이 되어 1793년까지 통치했다. 아가 모하마드 샤(Ağa Məhəmməd şah Qacar)가 타브리즈 중앙 정부에 종속시키면서 타브리즈 칸국은 멸망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테브리즈 칸국

● 다국어 표기 Tebriz Hanlığı(튀르키예어), Tabriz Khanate(영어), Тебризское ханство(러시아어), Khanato di Tabriz(이탈리아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7 cildə, 3-cü cild, Bakı, 2007, 563.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Çingizoğlu, Ənvər., Aydın Avşar. *Avşarlar*, Bakı, “Şuşa”, 2008, səh. 139~140.

Əliyev F. *XVIII əsrin birinci yarısında Azərbaycanda ticarət*, Bakı, 1964.

Dəlili, Hüseyn. *Urmiya xanlığının tarixi oçerki* (XVIII əsrin II yarısı XIX əsrin 30-cu illərində) – Namizədlik dissertasiyası, Bakı, 1967.

Dəlili, Hüseyn. *Azərbaycanın cənub xanlıqları* (XVIII əsrin ikinci yarısında), Bakı: “Elm”. 1979.

Hüseynov, Yunis. *“Qarabağnamələr” Azərbaycan tarixini öyrənmək üçün mənbə kimi*, Bakı: Elm nəşriyyatı, 2007.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Nazim Axundov, Akif Fərzəliyev): 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Axundov, Nazim., Fərzəliyev, Akif.): I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Məmmədli, Bəhrəm., Çingizoğlu. ənvər. *Urmiya xanlığı* (PDF). Bakı: SDU nəşriyyatı. 2013.

Məmmədova, Gövhər. *Urmiya xanlığı*. Ankara: Türklər jurnalı. 2002.

Mustafayeva, N.C. *Cənubi Azərbaycan xanlıqları*. Bakı. 1995.

Mustafayev, T. *XVIII yüzillik–XIX yüzilliyin əvvəllərində Osmanlı–Azərbaycan münasibətləri*. Bakı, 2002.

Mustafazadə. *Tofiq Qarabağ xanlığı*, Bakı: “Sabah”. 2009.

Nuriyeva, İradə Tofiq qızı.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də).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ik. Bakı: Mütərcim, 2015.

Süleymanov, Mehman. Güllüstan müqaviləsi – II hissə. *“Elm və təhsil”*, Bakı, 2014.

Tahirzadə, Ədalət. *Ağaməmməd şah Qacar*, Bakı: Kür nəşriyyatı, 2002.

I H013 | 타사우프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비주의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tasavvuf

타사우프는 이슬람 신비주의로 ‘수피즘’으로 일컬어진다. 튀르키예어로는 ‘tasavvuf’, ‘sûfilik’으로 표기된다. 인간의 영혼은 ‘절대 진리(하나의 조물주)’인 신과 하나가 된다는 교리이다. 이런 의미의 교리는 가톨릭, 동방정교회, 힌두교, 유대교, 샤머니즘 등 다른 종교에도 존재한다. 수피즘은 수행과 영적 체험을 통해 신인합일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간은 신비주의적 영적 체험, 조물주와 피조물의 사랑,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결합하는 느낌, 음악·그림과 같이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경우 느낄 수 있는 환희와 카타르시스에서 엑시터시와 같은 감정의 절정을 느낄 수 있다. 나와 너의 경계가 사라질 때 느낄 수 있는 하나가 되는 감정이다. 이 감정은 서로 다른 두 개인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주체와 객체는 하나가 된다. 이 상황은 영적 경험을 통해 도달할 수 있으며,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인합일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은 숨겨진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고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깨닫게 되며 오감으로 느낄 수 없던 새로운 영적인 문이 열린다.

이슬람에서 수피즘이 나타난 것은 고대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의 이상주의와 형이상학, 기독교, 인도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예를 권괴르(Erol Güngör)는 이슬람 수피즘의 근원을 동양과 서양으로 각각 나누어 분석했다. 이슬람 수피즘에 영향을 미친 신플라톤주의 사상은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전달됐고, 이 사상을 동방으로 전달하는 데 프로클로스(Proclus: 기원후 5세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수피즘은 이븐 아라비(Muhyiddin İbni Arabi)의 출현과 그의 추종자, 그리고 필론(Filon)과 플로티노스(Plotinus)의 영향을 받았다. 수피즘(tasavvuf) 수행자들은 ‘수피(sûfi)’ 또는 ‘무타사브으프(mutasavvıf)’라고 한다. 수피즘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압박과 무거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지혜(비밀)를 알아차리고, 상징적 의미로 ‘무(無)’와 영적으로 알라를 만나는 것, 알라의 도덕을 내재화하면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수피즘은 지혜를 깨닫고 찾아가며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수피즘은 단순히 원리보다는 내적 의미에서 영

향을 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영적 삶을 물질적 삶보다 우위에 둔다.

수피즘의 기본 교리에는 다양한 사상이 함축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념을 설명한다. 이슬람 출현 이후 초기 2세기 동안은 수피즘은 태동 단계였기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은) 외면하고, 포기하라’는 의미를 가진 금욕주의는 수피즘 사상의 기본 교리다. 금욕주의는 이슬람의 용어로서, 세계와 그분의 목소리를 소망하고, 흥과 기쁨, 탐욕에 반하는 태도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금욕의 개념은 이슬람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에서나 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운동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금욕주의는 이슬람 초기 1세기부터 우마이야 왕조 이전과 압바스 왕조 이후에 출현한 것으로 이란과 메소포타미아의 불교와 마니교, 인도-이란의 신비로운 토착 문화와 헬레니즘 시대의 영지주의, 신플라톤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지역 문화가 서로 융합돼 그 결과물로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수피즘 사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신앙은 이슬람 종교이다.

‘수피즘’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은 9세기부터 시작됐는데, 첫 수피 신도라고 할 수 있는 첫 수피즘운동가는 마루피 케르히(Ma’rûf-i Kerhi, 815년 사망)였다. 대표적인 신도는 쥘눈으 므스리(Zünnûn-ı Misri, 860년 사망), 세리유이 사카티(Seriyî-i Sakati, 865년 사망), 바예지디 비스타미(Bâyezid-i Bistâmi, 874년 사망), 쥘네이디 바오다디(Cüneyd-i Bağdadi, 910년 사망), 할라즈 만수르(Hallâc-ı Mansûr, 922년 사망) 등이다.

수피즘이 태동한 지역을 이슬람이 출현한 헤자즈(Hicaz) 지역이 아니고 초승달 지역(Münbit Hilâl)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초승달 지역은 바로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 이란을 의미한다.

초창기 수피 신자 대부분이 아랍에 뿌리를 두었기는 했지만 비아랍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나 자라투스트라(Zerdüşti), 마니교인도 많았다. 사회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이나 자영업자였다는 것도 흥미롭다.

수피즘은 인간의 영적 성장을 ‘쿠트브(Kutb)’라는 단계로 나눈다. 가장 높은 지점에 우주 질서의 근원인 ‘알라’가 자리한다. 신성한 마지막 진리에 도달할 때까지 인간은 성장 시스템(velayet system)의 모든 단계를 넘어야 한다. 신과 하나가 되는 ‘신인합일’ 사상은 ‘범신론(汎神論)’으로 표현된다. 이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어둠과 무(無) 그리고 창조주가 있었다. 창조주는 최고 수준의 선함, 아름다움, 지혜를 갖추고 있었지만 인간처럼 마음을 가질 수는 없었다. 창조주는 보여지지도, 알아차려지지도, 느껴지지도, 시공간에 국한되지도 않았다. 유일한 진리인 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을 숭배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그는 “빛이 있으라”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으로 빛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어둠이 되었다. 인간은 이 어둠에서 창조되어 나왔다. 그래서 형상이 완전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신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악하기도 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본성에는 이중성이 있다. 인간은 천사이면서 악마이기도 하다. 인간은 어린양이자 늑대이며, 선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한다. 광명이자 어둠이다. 그러나 이 우주에서 오직 인간만이 본질적인 신을 닮고자 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 사랑을 남기는 것은 신(神)이다.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 교리로 길을 인도할 것이다. 거기에서 이슬람 율법과 알라를 만나 최고의 경지에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에 이르면 인간에게는 악이 남지 않을 것이고, 어둠과 허무가 사라질 것이다. 단지 신의 능력만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인간은 신성을 갖추게 되어 신과 하나가 될 것이다. 주-종, 조물주-피조물의 분리가 사라지는 신인합일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사우프, 타사부프

● 다국어 표기 Mistisizm, tasavvuf(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타사우프 문학, 수피즘, 수피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pınar Bahar, Arslan Mustafa, *Türk Halk Edebiyatı* (Editör: M. Öcal Oğuz), 4. Baskı, Grafiker Yayınları, Ankara, 2006.

Gölpınarlı Abdülbaki, *Tasavvuf ve Yunus Emre*, Remzi Kitabevi, İstanbul, 1961.

Gölpınarlı Abdülbaki, *100 Soruda tasavvuf*, 2. Baskı, GerçekYayınevi, İstanbul, 1985.

Güzel Abdurrahman, *Kaygusuz Abdal*,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81.

Kemikli Bilal, *Dost İliinden Gelen Ses*, Kitabevi Yayınları, İstanbul, 2004.

Kocatürk Vasfı Mahir, *Tekke Şiiri Antolojisi*, 2. Basım, EdebiyatYayınevi, İstanbul, 1968.

Köprülü M. Fuad, *Türk Edebiyatı Tarihi*, 2. Baskı, Ötüken Yayınları, İstanbul, 1980.

Ocak Ahmet Yaşar, *Bektaşî Menakıbnamelerinde İslam Öncesi İnanç Motifleri*, Enderun Kitabevi Yayınları, İstanbul, 1983.

Ocak Ahmet Yaşar, *Türkler, Türkiye ve İslam*, İletişim Yayınları, İstanbul, 1999.

Özkırmımlı Atilla, *Alevilik-Bektaşîlik Toplumsal Bir Başkaldırının İdeolojisi*. 2. Basım, CemYayınevi, İstanbul, 1993.

- Pekolcay Necla, İslâmî Türk Edebiyatı, 2. Baskı, Kitabevi Yayınları, İstanbul, 1994.
- Sanaslan Ümit, *Hacıbektaş Aydınlığı*, Anadolu Ekini Yayınları, Ankara, 1992.
- Turan Metin, *Kul Himmet*, Günorta Yayınları, Ankara, 1994.
- Turan Metin, *Ozanlık Gelenekleri ve Türk Saz Şiiri*. 3. Basım, Başkent Matbaacılık&Klişecilik, Ankara, 1997.
- Türk Dili Dergisi, Türk Halk Edebiyatı Özel Sayısı, Sayı: 207, Aralık, 1968.
- Uçman Abdullah (Hazırlayan), *Rıza Tevfik'in Tekke ve Halk Edebiyatı ile İlgili Makaleleri*.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İstanbul, 1982.
- Uludağ Süleyman, *Terimleri Sözlüğü*. Marifet Yayınları, İstanbul, 1991.

I H014 | 타사우프 문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튀르키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시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Tekke- tasavvuf

타사우프 문학은 한마디로 수피 문학이다. 수피 문학은 ‘텍케-타사우프(Tekke- tasavvuf) 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피즘은 튀르크 민족에 큰 영향을 끼친 종교다. 수피즘은 10세기~13세기 사이에 튀르키스탄에서 나타나 짧은 시간에 넓은 지역으로 퍼졌고,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슬람 이후 등장하기 시작한 수피즘은 그들의 예배 장소를 일컫는 ‘텍케(tekke)’와 ‘종파(tarikkat)’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는데, 물질보다 의식의 성장과 신과의 합일을 중시한다. 수피문학은 튀르크인들이 이슬람을 수용하고 난 후 형성됐지만, 문화적 바탕은 이슬람 이전 문화와 전통 신앙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수피문학 작품들의 기본적 특징은 이슬람 사상과 신앙, 즉 타사우프 사상을 주제로 한다. 형식에 있어서는 운율 시와 같은 이슬람 이전 튀르크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신비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수피문학이 확산된 것은 몽골 침략 이후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 때문이었다. 13세기는 아나톨리아 역사에서 가장 힘겨운 시대 중 하나였다. 쿠티사다오(Kösedağı) 전투(1243년 6월 26일) 이후 셀주크 조는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때때로 몽골 군대에 양식을 빼앗겼고, 세금을 내야

했고, 목숨과 재산도 지키기 어려웠다. 반란, 약탈과 학살, 기근 등으로 인해 아나톨리아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 평화나 안보는 지킬 수 없었다. 몽골의 침입은 수피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나라가 불안했고, 물질적 번영이 사라진 나라에서 사람들은 정신적 안정이 필요했다. 수피즘은 삶의 본질적인 목적과 태도, 지혜, 인류애와 열정, 도덕적인 세계로 지친 사람들을 안내했다.

수피사상은 이슬람 종교가 탄생한 뒤 200년이 지나서 등장했지만, 여러 종파와 텍케를 통해 전파되면서 수백 년 동안 이슬람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집단 정착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유목민, 반(半)유목 공동체를 막론하고 모든 곳에서 확산되었다. 구전 문학과 기록 문학이 모두 동원되었다. 수피즘은 모든 신학적 이론을 문학 작품에 녹여냈다.

튀르키예에서 가장 중요한 수피 종파는 알레비-벡타쉬이다. 알레비-벡타쉬는 중앙아시아 투르크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 있고, 엄격하게 원리 원칙을 지키려는 수니파와 비교할 때보다 유연한 해석을 용납한다. 사즈 반주에 맞추어 시를 읊고, 종교적 의식을 한다. 이 두 가지 행위가 가장 중요한 의식이다.

수피문학이 튀르키예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것은 수피시인 아흐메드 야사비(Hoca Ahmed Yesevi)가 「히크메트(Hikmet; 지혜)」라는 제목으로 정통 수피 시 형식의 텍케 시를 만들어 전파했기 때문이다. 이어 이우누스 엠레(Yunus Emre)의 시가 수피 사상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고, 유명세와 영향력을 발휘하여 전 세대에 널리 퍼졌다. 하즈 벡타쉬 벨리(Hacı Bektaş-ı Veli), 하즈 바이람 벨리(Hacı Bayram-ı Veli), 카이구수즈 압달(Kaygusuz Abdal), 에쉬레폴루 루미(Eşrefoğlu Rumi), 에플라키 데데(Eflaki Dede), 사이드 엠레(Said Emre), 굴쉐히리(Gülşehri), 압둘라힘 트르시(Abdurrahim Tırsi), 움미 시난(Ümmi Sinan), 피르 술탄 압달(Pir Sultan Abdal), 아즈미(Azmi), 쿨 힘메트(Kul Himmet), 무히이(Muhyi), 가이비 수눌라(Gaybi Sunullah), 쿨 부달라(Kul Budala) 등이 수피 시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들이다.

타사우프 문학은 귀족문학인 디반(Divan)문학과 민중문학인 아시옥(âşık)의 특성이 융합되었다. 고전시와 민속시의 두 가지 매력이 합쳐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수피문학에서도 운율 시는 아루즈, 음절 운율에 맞추어 창작되었다. 아흐메드 야세비, 이우누스 엠레, 카이구수즈 압달, 하즈 바이람 벨리, 아흐메드 사르반(Ahmed-i Sarban), 움미 시난, 니야지 므스리(Niyazi-i Mısrî) 등 수피문학의 거장들은 아루즈 운율을 잘 활용했다. 그러나 대중에게 선보일 작품에는 음절에 맞춘 운율을 활용했다.

이슬람 이후 투르크 민속문학은 한편으로는 샤머니즘의 맥을 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피 사상을 바탕으로 한 프우사타문학을 형성했다. 이들 모두 사회 통합과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는 데 공헌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수피 문학, 타사부프 문학, 텍케 문학
- 다국어 표기 Dini-Tasavvufi Halk Edebiyatı (튀르키예어), Tekke- tasavvuf(영어)
- 연관 검색어 코니아, 벡타슈
- 참고문헌(오프라인) Ceylan Ömür, *Böyle Buyurdu Sûfi*, 2. Baskı, KapıYayınları, İstanbul, 2010.
Eyuboğlu İsmet, Zeki *Alevi-Bektaşî Edebiyatı*, DerYayınları, İstanbul, 1991.
Gölpınarlı Abdülbaki, *100 Soruda Tasavvuf*, 2. Baskı, GerçekYayınevi, İstanbul, 1985.
Güngör Erol, *İslâm Tasavvufunun Meseleleri*, ÖtükenYayınları, İstanbul, 1982.
Kemikli Bilal, *Dost İlinden Gelen Ses*, KitabeviYayınları, İstanbul, 2004.
Ocak AhmetYaşar, *Bektaşî Menakıbnamelerinde İslam Öncesi İnanç Motifleri*, Enderun KitabeviYayınları, İstanbul, 1983.
Pekolcay Necla, *İslâmî Türk Edebiyatı*, 2. Baskı. KitabeviYayınları, İstanbul, 1994.
Uçman Abdullah (Hazırlayan), *Rıza Tevfik'in Tekke ve Halk Edebiyatı ile İlgili Makaleleri*,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İstanbul, 1982.
Uludağ Süleyman, *Tasavvuf Terimleri Sözlüğü*, MarifetYayınları, İstanbul, 1991.

I H015 | 타샤베 아바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성지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asahbe

몽골의 성지는 몽골, 러시아, 중국 내 몽골에서 20여기가 발견되었다. 대부분 셸렝가강 주변(자바이칼 지역과 몽골)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타샤베 아바칸 유적은 이들 유적과 멀리 떨어져서 확인되는 유적으로 러시아에서는 타샤베, 몽골에서는 아바칸 유적으로 불린다. 아바칸강과 타샤베강에서 남서쪽으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1940년에 도로 공사중에 발견되었고, 1941년, 1944년~1945년에 발굴되었다. 유적은 직경 60m, 높이 0.6m~1.8m의 성지가 발견

되었고 그 내부에 궁전터가 발굴되었다. 바닥에 깔린 전돌은 높이 1.8m이다. 이 궁전터에서는 20개의 방이 있었고, 중앙에는 빈 공간이 있었는데 광장이었다. 유적에서는 건물지뿐만 아니라 기와도 발견되었고 바닥을 데우는(온돌) 난방 시스템이 확인되었다. 아궁이에서 가열된 뜨거운 공기는 건물 외부의 굴뚝을 통해 배출되는 구조였다. 유적에서는 수막새를 비롯한 기와뿐만 아니라 전돌, 문을 장식한 청동 손잡이(동물 문양 장식)도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숫돌, 타원형 접시의 연녹색 비취, 산호 구슬,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유적은 기원후 1세기로 편년된다. 흉노의 성터는 헤를렌 강변에 위치한 최상위 계급의 수도와 계절 궁전지이다. 뿐만 아니라 제사용 건물지, 방어용 성터, 귀족 계층이 살던 궁전지, 생산 장인이 모여 사는 마을 등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 타샤베 아바칸 성지는 제사용 건물지로 보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샤웨

● 다국어 표기 Ташаб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Евтюхова Л.А. Южная Сибирь в древности // По следам древних культур. От Волги до Тихого океана. М., 1954. С. 195-224; Кызласов Л. Р. Гуннский дворец на Енисее. М., 2001

I H016 | 타샤베 아바칸 성지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성지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asheba Abakan

유적은 하사시아에서 아바칸 시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데, 타샤베와 아바칸 시 사이에 있다. 유적은 도로 공사로 인해서 많이 파괴된 채 1940년에 발견되었다. 성은 남북 방향 길이는 35m, 동서 방향 길이는 45m이다. 남아 있는 성벽의 하단 너비는 2m이다. 성 안에는 내성이 있는데, 내성까지의 길이가 1.8m이다. 성벽의 외벽 높이는 50cm, 내면에서의 높이는 180cm이다. 성 안의 구조는 출입구를 통해 다른 방과 연결된 대형 중앙 공간이 있는 여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내부에서는 주거지 벽면을 따라서 석판에 세워진 채 확인되었는데, 온돌이다. 석판은 사암으로 된 것으로 너비가 약 50cm이다. 이 석판으로 된 구들 끝에는 아궁이 시설이 확인되었다. 집터 내부에는 나무 기둥이 남아 있다. 집터에서는 기와가 발견되었는데 2층 혹은 4층을 덮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벽돌에는 한자로 된 글자가 남아 있었다. 문의 손잡이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그 끝에는 인간 형상이 장식된 것이다. 이 유적에서 발견된 온돌이 설치된 주거지, 기와를 사용한 집 등 여러 특징은 몽골 고비에서 발견되는 흉노 성지의 특징과 거의 유사하다. 특히 기와를 2층과 4층으로 얹은 집은 몽골의 헤를렌 강변에 위치한 고아도브, 테렐진 두르불진 등 흉노의 귀족 궁전과 비슷하다. 몽골의 흉노 성지는 주로 중부 지역과 고비 사막에 위치하는데, 아바칸 성은 이곳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흉노의 귀족 성이다. 유적은 이미 파괴가 극심해서 1940년대 이후에 재조사는 되지 못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샤베 아바칸
- 다국어 표기 Ташебе Абак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C.V.; *Данилов Города в кочевых обществ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Улан-Удэ: 2004. 202 с.

I H017 | 타산타II, 타산타III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ashantall, III

타산타II 유적은 유스티드강의 좌측 지류인 타산틴카강의 좌측 높은 하안 대지 위에 위치한다. 타산타 마을에서 남쪽으로 100m~1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타산타III 유적은 타산타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2km~3km 떨어진 곳이다. 타산타II 유적은 강의 방향과 직교되도록 남북 방향으로 4개의 스키타이 문화 무덤이 있고, 그 옆에서 벗어나서 동쪽으로 초기 투르크의 고

분이 1기 발굴되었다. 타산타III 유적도 남북 방향으로 9개의 고분이 열을 잇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동쪽에만 떨어져 1기 무덤이 설치된 것이 초기 투르크 시대의 무덤이다. 타산타II 유적의 투르크 시대 무덤인 5호분은 봉분(직경 8.5m, 높이 0.3m)이 돌로 둥글게 덮인 모습이고, 봉분 아래의 무덤 구덩이는 타원형이다. 북동-남서 방향으로 긴 방향이 설치되었다. 구덩이(260cm×220cm), 깊이 50cm~60cm 안에는 말의 뼈가 구덩이 동쪽에서 확인되었고 서쪽에는 돌로 채웠다. 인골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사람 없이 말만 부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타산타III 유적의 투르크 시대 무덤 10호는 봉분(직경 9m, 높이 0.3m) 아래에 장방형에 가까운 구덩이 안에 인간과 말이 함께 부장되었다. 인간은 구덩이의 북쪽, 말은 남쪽에 부장되었는데, 중앙에는 통나무를 이용해서 인간과 말의 공간을 구분했다. 시신의 두향은 동쪽, 말은 서쪽으로 향하고 있다. 말은 철제 재갈과 재갈멈치, 등자 등을 착용했다. 시신은 머리가 잘린 상태로 확인되었는데,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활통이 목뼈부터 무릎뼈까지 덮고 있었다. 그 외에도 버클 장식 등이 출토되었다. 알타이 지역에서 흉노가 멸망하고 투르크 제국(7세기)이 들어서기 전의 유적이 존재한다. 이 시기의 유적은 말의 등자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코크 파시 단계와 개마와 금속제 등자가 사용되는 쿠디리게 단계로 구분된다. 전자는 3세기~5세기 중반, 후자는 5세기 중반~7세기이다. 비케 유적은 금속제 등자가 사용되면서 알타이에서 투르크 제국이 들어서기 전 쿠디리게 단계(5세기 중반~7세기)의 유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산타2, 3

● 다국어 표기 ТашантаI, III(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스키타이, 쿠디리게, 코크 파시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В.Д., Курганы Юстыда. Новосибирск: 1991. 194 с.

Кубарев Г.В. Культура древних тюрок Алт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ЭТ СО РАН, 2005. 400 с.

I H018 | 타쉬트크 데스 마스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유적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ashtyk Death Masks

기원전 2세기에서 5세기를 아우르는 타쉬트크 문화의 이름은 이 시대와 관련된 고분들이 위치한 지역 근처에 흐르는 타쉬트크강의 명칭에서 따왔으며, 특히 고분들에서 발견된 독특한 데스-마스크(죽음의 가면)로 유명하다. 예로부터 이 지역에 거주하던 하카스인들의 샤머니즘을 통한 조상 숭배는 매우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기 때문에 이들은 조상묘에 외부인들이 접근하는 것을 몹시 꺼렸다.

사후의 삶에 대한 믿음과 사후 인간의 영혼 소멸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데스 마스크는 19세기에 이 지역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하지만 하카스인



타쉬트크 데스 마스크



타쉬트크 데스 마스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들의 염려와 우려대로 러시아인들이 이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하카스-미누신스크 계곡 근처에서 발견되던 고분 대부분은 파괴되었다.

이 지역 고분에서 발굴된 데스 마스크와 관련된 연구는 1883년 고고학자 아드리아노프(Adrianov)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아드리아노프는 하카스 영토 내 타가르(Tagar) 섬에서 발굴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 중이던 고분 속 매장실에서 두개골과 화장되어 안치된 뼈와 함께 20개 이상의 데스 마스크를 발견했다. 동시에 러시아와 핀란드 고고학자 아스펠린(Aspelin)과 클레멘츠(Klements)도 다른 고분들에서 이와 비슷한 형태를 띤 가면들을 발견했다. 아드리아노프는 1883년 이들 마스크를 처음 발견한 이후 1895년~1897년 사이 아바칸 대초원의 크즐 쿨(붉은 호수) 주변에서도 또 다른 종류의 데스 마스크들을 발견했다. 아드리아노프가 타가르섬에서 발견한 가면들이 연조직에 직접 만들어졌다면, 크즐 쿨 지역에서 발견된 데스 마스크의 경우 연조직이 이미 썩어 없어진 두개골에 점토를 회반죽하여 만들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이러한 이

유로 첫 번째 데스 마스크에서는 고인이 본래 갖고 있던 코 구조, 목의 피부, 머리카락의 흔적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나타났지만, 크즐 쿨 주변에서 발견된 데스 마스크들의 경우 이러한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크즐라소프(Kızılbaşov)는 타가르섬 지역의 데스 마스크가 타쉬트크 시대 초기에 속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한다. 초기 고분에서 발견된 시신들도 미라화되어서 부장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데스 마스크가 고인의 얼굴에 직접 닿아 피부의 질감, 주름, 입, 코, 귀의 모양과 머리 모양까지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다. 데스 마스크는 2000년 전 하카스 영토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복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각각의 마스크는 다양한 색상의 염료와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다. 여성들의 마스크의 경우 색이 밝은 점토에 붉은 나선으로 장식이 되어 있지만, 남성들의 마스크의 경우 비교적 어둡고 날카로운 선으로 장식이 되어 있다. 크즐라소프는 크즐 쿨 지역에서 발견된 고분들은 고대 투르크인들의 장례 전통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특히 사람이 죽은 이후 매장 단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시체의 뇌는 먼저 두개골에서 제거된 이후 확장되며, 두개골만 남게 된 시신에 특수 점토 혹은 석고로 회반죽을 만들고 비강, 눈구멍 및 두개골 내부를 채워 데스 마스크를 완성한다. 중국 당나라 실록인 당서(唐書)에서 예니세이 키르기스인들은 사람이 사망한 후 1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시체를 확장하고 유골을 묻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죽음의 마스크, 죽음 가면

● 다국어 표기 Таштыкские погребальные маски(러시아어), Taştık Ölümlü Maskeleri(튀르키예어), Tashtyk Death Masks(영어)

● 연관 검색어 타쉬트크 문화

● 참고문헌(오프라인) Л.Р. Кызласов. Таштыкская эпоха в истории Хакаско-Минусинской котловины. (I в. до н.э. – V в. н.э.). // М.: МГУ, 1960.

I H019 | 타쉬특 문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 문화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hk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ashtyk Culture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5세기까지를 아우르는 타쉬특 문화는 최근 몇년 동안 이 지역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타가르-타쉬특 문화 그리고 타쉬특 문화로 분류되어 연구되었다. ‘타쉬특’이라는 명칭은 하카스-미누신스크 계곡의 투바강 유역의 테스 마을 주변에서 수행된 발굴 작업을 따서 명명되었다.

타가르-타쉬특 문화는 두 문화를 잇는 과도기적인 특징을 지니는데, 일반적으로 기원전 2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를 아우르며, 타쉬특 문화는 그 이후 시기, 즉 서기 1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로 받아들여진다.

타가르 문화는 테스 시대 혹은 타가르-타쉬특 전환기라고도 불리는 초기 시대로서 이 시기에



타쉬특 고분에서 출토된 부장품

하카스 영토에서 본격적으로 철 가공 기술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화장 풍습의 보편화와 더불어 시체를 미라화하는 풍습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초기 타쉬특 시기에는 많은 사망자가 같은 무덤에 안치되기도 했는데, 이 시기 무덤으로 추정되는 일부 고분에서는 무려 300구의 미라로 된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하카스인들은 타쉬특 시기에 하카스-미누신스크 계곡 주변에 정착했으며, 이전 시대의 고분 주변을 묘지로서 사용하곤 했다. 타쉬특 시대의 고분들에서는 장신구, 장식품, 재봉 바늘 및 무기 등이 부장품으로 발견되기도 했으며, 이 시기의 묘지들에서는 여성, 남성 그리고 어린이들의 양모, 모피, 가죽 소재로 만든 의복들이 발견된다. 귀를 덮는 모자, 한 손가락 장갑, 바지, 무릎까지 오는 부츠 등을 착용한 시신들의 머리 밑에는 베개도 놓여 있다. 또한 이 시기의 여성들도 바지를 입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타쉬특 시대를 대표하는 장례 풍습 중 하나는 데스 마스크 전통이다.

또한 이 시기 그들의 정착지에서 가축화된 돼지 뼈 등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타쉬특 문화의 정주 생활 방식이 일반적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시특 시대, 타시특 문명, 타시특 문화
- 다국어 표기 Таштыкская культура(러시아어), Taştık Kültürü(튀르키예어), Tashtyk Culture(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Хакаси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современности). Гл. ред. В. Я. Буганаев. Абакан: Издательство Хакас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Н.Ф. Катанова, 2008.

I H020 | 타슈켄트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ashkent

타슈켄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로서 공화국 동남부 지역의 시르다리아강 중류에서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온 치르치크 강변에 위치해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오아시스 도시이며



타슈켄트 야경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102개의 민족이 거주하는 다민족 도시로 구소련에서 중앙아시아 지역 도시 중 4번째로 큰 도시이다. 주요 민족은 우즈베크인 70%, 러시아인 13%, 타타르인 4.5%, 우크라이나인 4%, 고려인 2.2%로 구성되어 있다. 타슈는 ‘돌’을 의미하는 tash와 ‘도시’를 의미하는 kent의 합성어이다. 즉 한자어로 석시(石市)이다. 중국의 사료에는 석국(石國)으로 기술되어 있다.

타슈켄트는 중앙아시아 최대의 공업 도시로서 시(市)의 남동쪽에 러시아 최대의 면직물 콤비나트와 ‘타슈켄트 농기(農機)’ 외에 볼베어링·케이블·컴프레서·가스산업용 기계·약품·향료·과일·식육가공 등의 공장이 있다. 문화 시설로는 공화국 과학아카데미·레닌대학(1920년 창설) 등 20개의 교육·연구 기관과 알셴나보이 기념 극장(민족극이나 민족 무용 등을 상연)·하므자 극장·민족 역사 박물관이 있고 교외에는 국민 경제 박람회(상설)·지진 관측소 등이 있다. 시가는 크게 나누어 서부의 구시가와 동부의 신시가(제정 말기의 러시아인 식민가)로 되어 있었으나 1966년



타슈켄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에스키 주바 바자르(eski juva bazaar)

의 대지진으로 연와조 건물이 즐비했던 구시가가 파괴되었기 때문에 현재 대규모의 도시 개조가 진행 중이며 동시에 치란자르 등 2개~3개의 위성 도시가 건설되었다.

시(市)의 역사는 불분명하지만 가장 오래된 기록은 B.C. 2세기~B.C. 1세기경부터 등장하며 7세기~8세기에는 투르크계 문화와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으며 10세기에는 사만 조가 지배했다. 뒤에 몽골의 지배로 바뀌어 차가타이 칸국과 티무르의 지배를 받았다. 16세기부터 남하하는 우즈베크인의 샤이바니 조 치하에 들어갔다가 코칸드와 부하라의 양 한국에 귀속되었다. 1865년 러시아군이 점령하여 1867년부터 투르키스탄 총독부가 설치되었다. 그 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배의 중심지가 되었다. 1917년 중앙아시아 최초의 혁명 소비에트 자치공화국의 건국이 선언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슈켄트
- 다국어 표기 Toshkent(우즈베크어), Ташкент(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티무르, 코칸드, 부하라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문지리사전, 타슈켄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75886&cid=51778&categoryId=51778>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타슈켄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1941&cid=40942&categoryId=34057>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퍼내기, 1997.

I H021 | 타슈켄트 두마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조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ashkent City Duma

1867년 러시아가 투르키스탄 지역의 식민 통치를 시작한 후 타슈켄트를 투르키스탄 총독부의 중앙 행정부로 설정했다. 당시 타슈켄트 인구는 약 8만 명 가량이었다. 러시아인들은 타슈켄트 동부 지역 주민 일부를 이주시켜 러시아인들의 가옥, 거리 및 공원 등을 건축하게 했으며, 도시 동부를 새로운 도시로 지정했다. 1877년 당시 총독 카우프만(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фон-Кауфман: 1818년 3월 2일~1882년 5월 16일)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타슈켄트시 헌장을 승인받아 두마와 이사회를 건립하고 선거가 결정되었다. ‘두마(дума)’는 러시아의 의회를 일컫는 말이다. 유권자가 주에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유권자를 세 분류로 분류하고 재산이 충분하지 않은 지식인, 노동자, 농민 및 장인의 투표권은 박탈했다. 1877년 개최된 선거에서 인구 4천 명뿐인 타슈켄트 신도시에서는 50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던 반면, 인구 8만 명 이상의 타슈켄트 구도시에서는 21명의 대의원만이 선출되었다. 대의원들은 인종, 엄밀히 말하면 종교별로 나뉘었고 24명만이 비기독교인이었다. 또한 첫 번째 두마에서 가장 주요한 직이라 할 수 있는 군사 및 행정 관련 대의원 48명 중 24석은 기독교인이 차지했다. 즉, 다른 도시의 두마와 마찬가지로 현지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제한적이고 제도는 차별적이었다. 두마의 권리는 지

방세를 징수, 유지 관리 및 재산 소유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할 권리가 있었고, 행정 및 학교, 도로, 조경, 상수도 건설과 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 두마의 결정에 따라 1892년 시내 전화 가설, 1901년 말 전차 건설, 1912년 전차 도입, 가로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었으나 근본적으로 두마는 식민지 질서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슈켄트 두마
- 다국어 표기 Toshkent shahar Dumas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타슈켄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Sahadeo, Jeff. *Russian colonial society in Tashkent : 1865-1923*, Bloomington : Indiana Univ Press, 2010
- Q. USMONOV; M.SODIQOV; S.BURXONOVA,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I H022 | 타슈켄트 봉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봉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holera Riot(1882)

1892년 6월 타슈켄트에서 전염병이 발생하고 봉쇄 조치가 발효되었다. 행정부는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도시 내 묘지에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도시 밖 묘지에, 시신 위에 석회를 뿌려 매장할 것을 명령한다. 또한, 도시로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는 이 조치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무슬림의 풍습 등도 고려하지 않아 반발을 초래했다. 그러나 전염병 조치가 반발의 촉발점이었을 뿐, 이미 러시아가 그간 타슈켄트에서 행했던 세금 문제와 러시아인과 지역민 간의 식민 불균형 등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던 상태였다.

1892년 6월 24일 아지즈 에산 호자, 시장 장로 지요무함마드 등 도시의 유력 인사들과 약 천여 명의 시민이 시청을 향해 행진했다. 시장 피텐세프 대령과 도시 장로 무함마드 야쿱은 시민

들의 불만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시민을 비난하자 시민은 이들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장로는 주지사 사무소로 도망쳤고, 푸틴세프는 권총을 꺼내 들었다. 시민은 푸틴세프와 경비를 구타했고 시청을 전복했다. 이로 인해 무장 병사를 비롯해 러시아 정착민은 군중을 향해 발포했다. 시위대는 비러시아인 정착 지구로 도주했으나 무장 세력이 이들을 쫓아 공격했다. 1892년 6월 25일 안하르강에서 80여 명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 외 사망자와 부상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만큼 많았다. 이 봉기로 인하여 약 60명이 체포되어 징역형과 추방형을 선고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질병 반란, 돌공격 반란

● 다국어 표기 Tashkent qo'zg'oloni(우즈베크어), vabo isyoni(우즈베크어), toshotar voqeasi(우즈베크어), Холерный бунт в Ташкенте 24 июня 1892 года(러시아어), Cholera Riot(1882)(영어)

연관 검색어 타슈켄트

참고문헌(오프라인) Usmonov, Q.: M.Sodiqov; S.Burxonova,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Sahadeo, Jeff. *Russian Colonial Society in Tashkent, 1865-1923*, Indiana University Press, 2007

I H023 | 타스파르 카간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aspar Qaghan

타스파르 카간(Taspar Qaghan, 재위: 571년~581년)은 부민 카간(Bmin Qaghan, 551년~552년)의 셋째 아들로 형인 무칸 카간(Mukan Qaghan, 재위: 553년~571년)의 뒤를 이어 제위에 오른다. 당시 조카였던 이쉬바라(Ishbara, 재위: 581년~587년)와 비뤼(Börü, 재위: ?~?)를 돌궐의 동, 서의 소(小)칸으로 임명하여 통치하게 했다. 또한, 당시 북주와 부제의 교체 시기의 혼란을 틈타 이간 정책을 조장하여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취했다.

타스파르 카간의 이런 대내외 정책뿐만 아니라, 불교의 장려와 보호 정책을 크게 펼친 것으로 유명하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타스파르 카간 시대에 이미 승가(僧迦, samgha)가 존재했고,

타스파르의 즉위 이후 더 많은 새로운 사찰을 건설했다고 한다. 또한, 승려 혜림(慧琳, huilin)과 불법에 관한 질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승려는 타스파르에게 인연과 윤회와 같은 불법의 기본을 알려 주었고 타스파르 카간은 이를 듣고 바로 불교를 믿기 시작했으며, 사찰 건설을 하고 있다고 일부 기록에 전해진다. 다만,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기록으로, 일반적으로 타스파르 카간 자신은 불자가 아니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타스파르 카간은 중국에서 승려를 데려올 사자를 보냈으며 불경을 구해오길 부탁했다. 이때 구한 불경은 『유마경(維摩經, Vimalakīrti Nirdeśa)』, 『열반경(涅槃經, Nirvana Sūtra)』, 『화엄경(華嚴經, Avataṃsaka Sūtra)』과 함께 불자들의 규칙을 담은 『설일체유부비나야(說一切有部毘奈耶, Sarvastivada Vinaya)』라고 한다. 『유마경』, 『열반경』, 『화엄경』은 대승 불교의 서적이며 『설일체유부비나야』의 경우는 부파 불교의 서적이다. 그러나 어느 종단이든 『설일체유부비나야』는 모두 잘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타스파르 카간이 받아들인 불교는 대승 불교라고 보고 있다. 또한, 타스파르 카간 시대에 중국만이 아니라 인도에서도 승려가 왔다. 사나굴다(闍那崛多, 523년~600년)는 인도 출신으로 중국에서 불교에 대한 압박을 피해 돌궐로 오기도 했다.

타스파르 카간의 불교 정책의 자세한 부분은 더 확인되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불교를 장려하고 보호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의 행적은 당시 스텝 돌궐 문화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스파르 칸, 타스파르 카안, 타파르 카간, 타파르 카안
- 다국어 표기 他鉢可汗(중국어), Taspar Kağan(튀르키예어), Taspar xaqan(아제르바이잔어), Тобо қаған(카자흐어), Taspar(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돌궐, 사나굴다
- 참고문헌(온라인) 이희수_터키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9558&categoryId=62103&cid=62103>
- 참고문헌(오프라인) Ekrem, Erkin. “Seyahatnamelere Göre Göktürklerde Budizm”, *Türkler* Cilt 3,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636~669.
- Klimkeit, Hans-J. “Buddhism in Turkish Central Asia”, *Numen* Vol. 37, Fasc. 1, Jun., 1990, pp.53~69.

I H024 | 타아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aar

타아르는 18세기 무렵부터 하카스인이 입기 시작한 셔츠 형태의 의복이며, 러시아인들에게 오드노리야드카(однорядка)라고 알려져 있다. 하카스의 사가이, 벨티르, 코이발 및 카친 부족들은 타아르라 불리는 이 셔츠의 재봉을 위한 면, 모직물을 러시아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구매하거나 주문해서 사용하곤 했다. 특히 면직물로 만들어진 타아르는 시크펜 킵(sikpen kip)이라 불렸다. 일반적으로 타아르는 길이가 짧지만, 무릎까지 내려오는 타아르도 종종 발견된다. 타아르는 성별 관계없이, 남녀 모두 착용한다.

유목 생활을 하던 하카스인은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의복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 하카스인 중 사가이, 벨티르 그리고 코이발 부족들은 자신들의 의복 문화로부터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카친 부족의 경우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 당시 까지도 그들 문화를 지키며 자신들의 전통 의복을 고수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러시아인의 영토 확장과 함께 20세기 하카스인은 러시아의 막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 결과 약 40년 만에 사가이족과 벨티르족의 타아르는 1950년경부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르
- 다국어 표기 однорядка(러시아어), Таар(하카스어)
- 연관 검색어 시크펜, 벨티르, 카친, 사가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Шиббаева, Ю. А. Одежда хакасов. Сталинабад: Таджикский гос. ун-т им. В. И. Ленина. с. 93. 1959.

I H025 | 타자루나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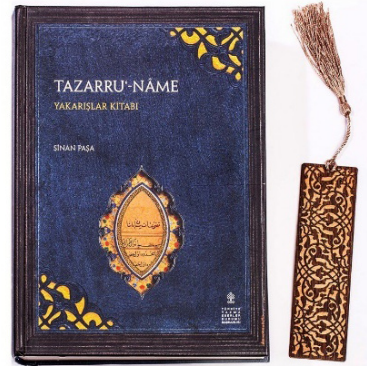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tazarrunâme

타자루나메(Tazarrunâme)는 시난 파샤(Sinan paşa)가 1481년 투르크어로 집필한 최초의 종교 서적이다. 타자루나메 이외에도 타자루아트 시난 파샤(Tazarru'ât-ı Sinan Pasha), 다라아트나메 타자루아트(Darâ'atnâme, Tazarruat)라고도 불린다.

시난 파샤는 마아리프나메(Maârifname)의 세베비 텔리피 키타브(Sebeb-i Te'lîf-i Kitâb) 파트에서 타자루나메에 대해 언급하면서 몇 달 만에 이 작품을 완성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저자가 하나님에게 간청하는 기도를 포함하여 예언자 무함마드가 종교 국가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와 산문이 혼합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신에 대한 찬양 이야기 및 조언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신비주의 관점이 지배적인 것이 특징이다. 타자루나메는 디반 문학에서 예술적(musanna) 산문의 대표적인 예로 간주된다. 시난 파샤는 짧은 문장 행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통해 유창하고 간결한 시적 표현을 제공했다.



타자루나메(Tazarrunâme) 라틴문자 및 원본 수록 현대 출판본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자루나메
- 다국어 표기 Tazarrunâm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시난 파샤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islamveihsan.com/sinan-pasa-kimdir.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Caferoğlu, Ahmet. Türk Dili Tarihi, İstanbul, 1974.
Ercilasun, A. B.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Türk dili tarihi (Vol. 603). Akçağ, 2004.

I H026 | 타크마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민요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Takmak

타크마크는 바시키르인과 타타르인 전통 민요의 한 장르이다. 타크마크 양식은 19세기 러시아의 민속학자 S.G. 리바코프가 처음 채록해 「우랄 이슬람교도들의 음악과 노래, 그리고 그들의 생활 묘사(Музыка и песни уральских мусульман с очерком их быта)」에서 기록에 남겼다. 1929년~1931년 I.V. 살티코프가 수집한 녹음 자료에 타크마크가 있었다. 타크마크는 치유 의식에 덧붙이는 노래로 사용되기도 하고, 서사시나 동화, 춤출 때 부르기도 했다. 둔구르, 둠부르자크, 콜로투시카 같은 민속 타악기나 숄가락, 자, 양동이, 쟁반 등을 두드리며 부른다.

타크마크는 멜로디가 수반된 사설(辭說) 형태로 노래한다. 타크마크의 시적 문장들은 8음절~9음절로 된 2행시로 구성된 4행시의 형식이다.

타크마크는 칭송하는 ‘카라바이’와 조롱하는 ‘소나이임’, 춤으로 초대하는 ‘베이에르 울’로 구분되는데, 결혼식의 행사와 관련된 ‘이이우아사’, ‘시비르트킬라우’나 군무 놀이를 위한 타크마크도 있다.

구성상으로 타크마크는 러시아의 속요인 차스투시카나 남부 시베리아 지역 민족들(알타이, 하카스, 쇼르 등)의 운율을 맞추는 노래와 가깝다. 타크마크는 이슬람 종교의 영향을 받은 음악 장르가 아니라 이슬람 이전의 투르크 전통에 영향을 받은 음악 장르이다. 카자흐, 키르기스 민족에게는 타크파크(такпак), 하카스 민족에게는 타흐파흐(тахпах)가 타크마크와 비슷하며 이들 모두는 고대 투르크 민족의 운율 체계인 바르마크(бармак)를 사용하고 있다.

타크마크의 명칭이 리듬적 속성(두드림, 춤, 장단 맞추기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학설도 있다. 타크마크가 움직임이나 나타내는 의태어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크막
- 다국어 표기 Такма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타타르인, 바시키르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ijp891wSGj8>
- 참고문헌(온라인) <http://башкирская-энциклопедия.рф/index.php/prosmotr/2-statya/3729-takmak>
http://www.gulzada.ru/folk/01-muzykalnaya_kultura_tatar.htm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йгуль Мужавировна Хакимьянова, “Башкирские народные такмаки”, Oriental Studies, 2019. Is. 3. Elista, 493~494.

I H027 | 타크팍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노래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akhpakh

타크팍은 태초부터 샤머니즘을 조상 종교로 하는 남부 시베리아 하카스-미누신스크 계곡의 하카스인들의 가장 대중적이고 흔한 노래 유형이다. 타크팍의 예술적 본질은 두 시인이 음에 맞추어 시를 만들어 읊는 과정에서 상대 예술가에게 즉흥적으로 화답하는 즉흥성에 있다. 타크팍은 대중적이고도 서정적인 민요 반주에 따라 연주가 사랑, 저항, 애국심, 인간의 운명 등을 주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과 자연을 비교하는 주제가 많아 전통 샤머니즘 예술로 분류되기도 한다. 구조면에서 타크팍은 일반적으로 두개의 절로 구성된다. 타크팍은 오늘날까지 하카스인들에게 사랑받는 음악 장르이다.

다음 예는 타크팍 장르의 두 절이다.

<i>Hoŝtan itken homdım</i>	잘 꾸며진 내 관
<i>Hodırılıp halzın ol çırde:</i>	부서진 채 그 자리에 두어라.
<i>Hada çurtırğa sađınzan,</i>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i>Sađıp algayzın, aarlıçaam</i>	나를 기다리라고 전해라.

<i>Sırlap itken homdıçaam</i>	잘 칠해진 내 관
-------------------------------	-----------

Sırınan halzın ol çirde
Sınap çurtirga sağınzan,
Sagıp algayzın pozımnı

유약이 묻은 채로 그 자리에 두어라.
진실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나를 기다리라고 전해라.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크파크

● 다국어 표기 Takhpakh / Тахпах(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ауногашева, В. Е. «Тахпах».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2. Абакан: ООО Поликор. 2008. С. 177.

Okutan Davletov, N. *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leri*. İstanbul: Ötüken Neşriyat. 2021.

I H028 | 타클라마칸 사막

- 시기 기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사막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Taklamakan Desert

타클라마칸 사막은 현재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심부 타림 분지에 위치한 달걀 모양으로 된 모래 사막이다. 중국의 간쑤성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속한다. 타클라마칸은 위구르어로 ‘버려진’이라는 뜻을 가진 takla-와 ‘장소’를 나타내는 아랍어 makan의 합성어로서, 직역하면 버려진 곳,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을 가진 사막이다.

한나라 역사서에서는 타클라마칸을 ‘유사(움직이는 사막)’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사막의 바람으로 인하여 누런 사구가 움직이는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19세기 말 서구 열강들의 고문서 발굴 경쟁으로 인하여 중앙아시아 탐험에 나선 스웨덴 출신 유대인 스벤 헤딘은 타클라마칸 사막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최악의 사막’이라고 묘사했으며, 그의 견문록에 의하면 “우리가 평지에 도달할 때까지 해골의 모습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줄지어진 뼈와 시체들은 우리가 길을 몰라 헤매일 때마다 으스스한 길 안내자가 되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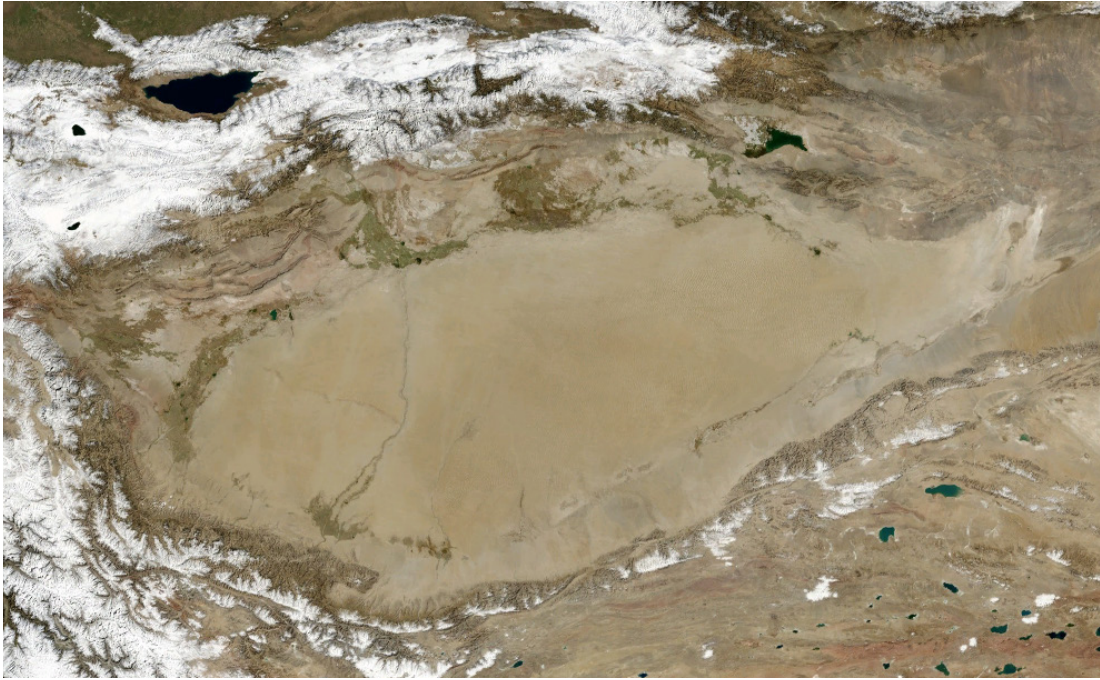


타클라마칸 사막의 고창 지역 고대 유적지

중앙아시아 탐험 및 연구에 미친 공적을 인정받아 영국 정부로부터 작위를 수여받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 영국 왕립 지리 학회로부터 금 훈장을 수여한 스타인은 ‘아라비아 사막은 타클라마칸에 비하면 길들여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리학자이며, 카쉬가르 주재 영국 총영사 퍼시 사이크스 경은 타클라마칸 사막을 ‘죽음의 땅’이라 묘사했다. 실제로 타클라마칸 사막 속에는 과거 실크 로드 위에 번성한 많은 왕국들의 유물과 유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인류학적으로 중요한 유물들이 많이 발굴되어 역사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커라마칸 사막
- 다국어 표기 塔克拉玛干沙漠(중국어), Taklamakan Desert(영어), تەكلىماكان قۇملۇقى(위구르어)



나사(NASA)가 촬영한 타클라마칸 사막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연관 검색어 스타인, 누란
- 참고문헌(오프라인) Hopkirk, P., & Case, D. *Foreign devils on the Silk Road*. Books on Tape. 1990.

I H029 | 타키야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촬영삼
- 라틴 문자 Takia

타키야는 카자흐인들이 부르는 이름이며 러시아어식 표현으로 '튜베테이카(tubeteika)'라고도 부른다. 위에서 볼 때 사각형 형태와 낮은 높이를 가진 단순하게 생긴 모자로서 남녀노소 모두 사용하지만 대개 어린 아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착용한다.

특히 타키야는 카자흐 5세이상의 어린 여자아이들이나 젊은 여성들이 주로 쓰는 전통모자로서 화려하거나 장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고도 실용적인 것이 특징이다. 대개 위에서 볼 때 마름모 형태를 갖고 있으며 높이도 높지 않으며 크기 또한 작은 편에 속한다. 또한 계절적으로는 봄과 여름철에 사용하며 이는 나뭇가지로 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타키야
Source: <https://kk.wikipedia.org/wiki>

따라서 평상시에 젊은 여성들이 쓰기에 좋은 타키야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전문적으로 타키야 제작을 학습하는 학과도 있을 정도여서 기술을 익히면 스스로 만들 수도 있다. 타키야의 색상은 다양하지만 주로 붉은 색, 자주색, 보라색 등 붉은 계열이 인기가 있다. 이 모자가 처음 등장했을 시기에는 철제로 된 각종 장식품이 달려 있어서 무거웠지만 점차 간단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타키야는 카자흐인들이 부르는 용어이지만 형태가 같아도 국가마다 부르는 용어가 다양하다. 즉, 토푸(topu, 키르기스스탄), 두피(dupi,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인데 대개 러시아어식 표현으로 튜베테이카로 통칭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튜베테이카
- 다국어 표기 тақия(카자흐어), тубетейк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전통의상, 사우켈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rMPv8lwCnFY>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aa.com.tr/ru/2570963>
- 참고문헌(오프라인) Kalybekova Asm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H030 | 타타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atar

타타르는 오늘날 투르크계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는 몽골계 유목 부족으로 본거지는 몽골 동부, 셸렝가, 케룰렌강 유역이었다. 타타르라는 이름은 8세기 돌궐 비문에도 나타난다. 12세기 칭기즈 칸이 흥기해서 몽골고원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는 숙적 타타르족을 복속시키는 데 성공했다. 훗날 바투가 이끄는 몽골군이 러시아에서 동유럽으로 진격하게 되는데, 이 몽골군 가운데 타타르족이 많았다고 한다. 이때에 몽골군은 당시의 유럽 세계를 크게 위협하여 공포를 안겨 주었는데, 유럽인은 이러한 타타르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지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타르타로스(Tartaros)를 차용하여 경멸조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유럽인들은 몽골을 타르타르(Tartar)라고 부르게 되었다.

13세기~14세기 종족 간 교류를 통해 킵차크 칸국의 투르크계 종족과 몽골계 종족이 통합되었고, 이 과정에서 핀-우그르계 토착 종족들도 포함됐다. 킵차크 칸국의 붕괴 이후 형성된 여러 한국(汗國, 칸국), 예를 들면 카잔 칸국, 크림 칸국, 아스트라한 칸국 등에서는 가장 상위 계층을 타타르로 불렀다. 이후 이들 한국이 차례로 러시아에 병합되면서 이 지역 평민들도 타타르로 불리게 됐다. 타타르라는 명칭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

오늘날 러시아의 타타르인은 투르크계 민족으로 주요 거주 지역에 따라, 볼가-우랄 타타르, 시베리아 타타르, 아스트라한(카스피해 부근) 타타르 등 여러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2014년 우크라이나 땅이었던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그곳의 크림 타타르가 세간의 주목을 끈 바 있다. 타타르라는 이름 때문에 몽골-타타르인의 하부 그룹으로 혼동될 수 있지만, 크림 타타르는 몽골-타타르가 러시아를 침입하기 훨씬 이전에 이미 유럽 동부에 살던 투르크계와 캅카스계(코카서스) 종족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타타르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분명한 구분 없이 통용되면서 생겨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타타르인은 중국에도 있는데, 현재 중국 서부의 신장 위그르 자치구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194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만주 지역에도 타타르인들이 살고 있었으나, 이들은 2차 세계 대전,



사반투이 축제에 참여한 러시아의 타타르인

일제의 만주 침략 등으로 다른 국가들로 이주했다. 오늘날 러시아에 거주하는 타타르인의 약 36%가 자신의 영토인 타타르스탄 공화국에 거주하며, 인근의 바시코르토스탄, 올라놉스크 주와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극동 지역까지 전역에 살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르타르
- 다국어 표기 татарлар(타타르어), татары(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칭기즈 칸, 킵차크 칸국, 바시코르토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타타르족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2092&cid=40942&categoryId=31642>

● 참고문헌(온라인) In Encyclopædia Britannica. Retrieved October 28, 2006, from Encyclopædia Britannica Online: <http://search.eb.com/eb/article-9071375>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퍼내기,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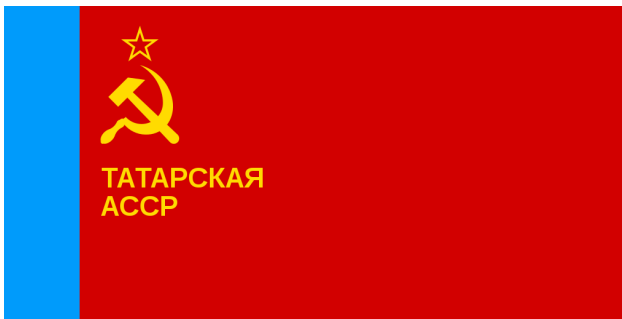
I H031 | 타타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공화국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atar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소비에트 정부는 투르키스탄 자치 정부의 자치권 요구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토대로 소비에트 자치공화국을 만들기로 결정한다.. 소비에트의 계획에 의해 1918년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지역 소비에트 제5차 총회에서 '타타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ASSR)'이 결성된다. 이 타타르 자치 사회주의 공화국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RSFSR)에 편입된다.

타타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의회는 공화국의 통치 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와 인민위원회 위원을 선출했다. 중앙집행위원회의 36명 중 9명만이 지역민이었다. 볼셰비키 코보제프는 자치 공화국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며 16인의 인민위원회에는 단 3명의 타타르 출신 인물이 포함되었다. 1918년 6월 투르키스탄 공산당이 결성되어 2,000명의 볼셰비키를 통합했다. 1918년 10월 지역 소비에트 제6차 회의에서 타타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이 채택되었다. 이 헌법에 따르면 지역 국민의 관리는 공화국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타타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1920년 5월 27에 건국되어 1990년 소비에트 붕괴 전까지 존속된다. 소비에트 붕괴 후 타타르스탄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재건되었다.



타타르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국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타타르 자치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건국 60주년 기념 우표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타르 자치 소련 사회주의 공화국
- **다국어 표기** Tatar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영어), Tataristan Özerk Sovyet Sosyialist Cumhuriyeti(튀르키예어), Татарстан Автономияле Совет Социалистик Республикасы(타타르어), Татар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Советска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Usmonov, Q.; M. Sodiqov; S. Burxonova,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Mingnorov, A. *Turkistonda 1917—1918 yillardagi milliy siyosiy tashkilotlar*, Tashkent, 2002.

I H032 | 타타르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Tatar Language

타타르라는 이름은 각기 다른 시대와 다른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르콘 비문에서 타타르는 비(非)투르크 공동체를 뜻하며, 몽골 역사 속에서는 몽골인들의 이름으로도 사용되었다. 러시아인들은 수세기 동안 유럽-러시아 등지에 살고있는 무슬림 투르크인 그리고 카잔 칸국에서 시작하여 러시아 주권하에 있던 모든 투르크인을 타타르라 불렀다. 1437년 알톤 오르두가 분열된 이후, 타타르는 볼가 지역의 투르크 공동체를 나타내는 데 계속 사용되었다.

현재 타타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카잔에 위치한 타타르스탄과 크림반도에 거주하는 투르크인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며, 넓은 의미에서는 러시아와 서부 시베리아에서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투르크족을 의미하는 데 사용된다.

타타르인이 사용하는 언어는 타타르어이며, 타타르어는 다른 타타르 방언과 함께 투르크어 분류 체계의 북서투르크어로 분류된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으로는 15세기에 작성된 비문들이 전해진다. 1785년 카잔에서 이슬람을 국교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모스크, 학교, 마드라사 등의 설립으로 인하여 각종 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교재, 교본 등이 타타르어로 작성되기 시작했다. 타타르인들이 사용하는 구어와 문어였던 차가타이 투르크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저명한 타타르 작가로 꼽히는 카이움 나스리(kayyum Nasrî: 1824년~1902년)는 1871년부

터 1897년까지 쉬하벳딘 메르자니(Şihabeddin Mercani)와 함께 타타르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문어 체계로 만들어 언어 시스템을 정립하려고 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타타르인이라고 말했으며, '타타르'라는 단어에 영향력을 부과시켰다. 타타르어는 19세기 후반에서야 문어로 정착되었고, 이 시기에 타타르어 표기와 관련된 연구들이 시작되었다. 타타르어는 19세기 말부터 1928년까지는 아랍 문자를, 1928년부터 1939년까지는 라틴 문자를 사용하다가, 1939년 이후 현재까지 키릴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타타르어에는 중앙어(표준어) 이외에서 카잔 타타르어, 서부-미샤르(mishar) 방언, 동서부 시베리아 방언, 남부 시베리아 방언 등의 방언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타르 투르크어
- 다국어 표기 Татарский язык(러시아어), 鞑靼语(중국어), Татар теле(타타르어)
- 연관 검색어 오르콘, 카잔, 투르크어 분류
- 참고문헌(온라인) <http://yunus.hacettepe.edu.tr/~eminey/makaleler/yilmazuhd3.pdf>
- 참고문헌(오프라인) Johanson, Lars, and Éva J. Csató. *The Turkic Languages*. Routledge, 2015.

I H033 | 타타르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Tatars

타타르인은 러시아 연방에서 그 수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민족이다(약 550만). 카자흐스탄(20만), 우즈베키스탄(20만), 우크라이나(7만) 등에도 적지 않은 타타르인들이 살고 있다.

6세기~9세기 몽골계, 투르크계 부족 사이에서 처음으로 타타르 민족이 등장했지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민족 명칭이 확립되었다. 13세기 타타르인들이라고 불리던 투르크계 토착 부족들은 금장 칸국을 세운 몽골인에게 포함되어 있었다. 13세기~14세기에 금장 칸국에서 수적으로 다수였던 킵차크인들이 다른 투르크-몽골계 부족들을 동화시키는 과정에서 타타

르라는 민족 명칭을 사용했다. 그 후로 러시아인이나 다른 중앙아시아 민족들, 유럽 사람들은 그들을 타타르인이라고 불렀다. 금장 칸국의 멸망 이후 킵차크-노가이 출신의 귀족 계층들이 자신들을 타타르인이라고 불렀고, 타타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16세기 부터 19세기 후반까지 타타르라는 명칭은 사라졌고 메셀만, 카잔리, 불가르, 미셰르, 티프테르, 나가이베크 등으로 불렸다. 타타르라는 명칭은 민족 통합 과정에서 선택되었으며 1926년 인구 조사에서 대부분의 타타르인들은 스스로를 타타르인이라고 불렀다.

타타르 민족은 크게 세 개의 인류학적 그룹으로 나뉘는데, 불가-우랄 타타르, 아스트라한 타타르, 시베리아 타타르이다. 하지만 시베리아 타타르인들은 그 문화적 독창성과 인류학적 역사로 인해 독립적인 민족으로 분류된다. 불가-우랄 타타르에는 과거 카잔 타타르, 미샤레이, 카시모프 타타르가 포함된다. 아스트라한 타타르는 하자르, 킵차크 출신의 금장 칸국 그룹의 후손들이다. 불가-우랄 타타르와 아스트라한 타타르는 18세기에 상호 관계가 강화되었고 단일한 타타르 민족 형성으로 이어졌다.

타타르인 대부분은 이슬람을 믿는다. 타타르 외에 사용하던 명칭인 메셀만(меселман)은 이슬람교도를 뜻하는 무슬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한다. 하지만 타타르인들의 전통에는 이슬람교 도입 이전의 고대 세시 의례들이 남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따따르
- 다국어 표기 Татары(러시아어), تتر(아랍어), Tatarl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시베리아 타타르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H034 | 타흐신 반구오을루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Tahsin Banguoglu



타흐신 반구오을루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타흐신 반구오을루(1904년~1989년)는 당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으나 지금은 그리스에 속한 드라마(Drama) 지역에서 태어났다. 1926년 이스탄불 남자 고등학교(İstanbul Erkek Lisesi)를 마치고, 1930년 이스탄불 다뤘튀는 문학부 튀르키예어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앙카라 가지 교육 기관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1932년~1936년 베를린과 브로츠와프 대학에서 수학하며 오스만 투르크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튀르키예로 귀국한 그는 앙카라대학교 언어역사지리학부 튀르키예어과 부교수로 임용되었다.

타흐신 반구오을루는 1943년 빈필 지역의 국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948년부터 1950년까지 제20대 교육부 장관직을 수행했다. 1955년~1958년에는 런던 대학교에서 비교투르크어학을 강의했으며, 귀국하여 1959년~1961년 앙카라 대학교 신학부와 이스탄불 대학교 문학부에서 교직 활동을 계속했다. 1961년 공화인민당(CHP) 에디르네(Edirne) 지역 상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약 7년간(1961년 10월 15일 ~ 1928년 6월 2일) 그 자격을 유지했다. 또한 1960년~1963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Türk Dil Kurumu; TDK) 원장으로 재직했다.

타흐신 반구오을루는 이스메트 이뇌뉘(İsmet İnönü)의 ‘중도 좌파(Ortanın Solu)’ 정책에 반하며 탈당하여 신투르키예정당(YTP; Yeni Türkiye Partisi)으로 입당했고, 1966년에는 당대표직을 맡았으며 1973년 선거 이후 정치 생활에서 물러났다. 위에 요약된 간략한 생애와 업적에서 알 수 있듯이, 타흐신 반구오을루는 튀르키예언어학자, 교수인 동시에 정치인으로서도 많은 행보를 보였다.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재직 당시 튀르키예어의 규칙과 의견이 분분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으며, 1974년에는 그의 대표 저서 『튀르키예어 문법(Türkçenin Grameri)』을 출판했다. 타흐신 반구오을루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보다 더욱 학문적으로 튀르

키에어를 설명한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다양한 협회와 조직에서 활동하였고, 연구에도 힘썼다.

튀르키예어 및 언어학과 관련된 대표 저서는 다음과 같다. 『튀르키예어 문법 개요(Ana Hatlarıyla Türk Grameri, 1940)』, 『언어 문제(Dil Bahisleri, 1941~1942)』, 『국가어로서 튀르키예어에 관하여(Devlet Dili Türkçe Üzerine, 1945)』, 『위구르족과 위구르어에 관하여(Uygurlar ve Uygurca Üzerine, 1958)』, 『튀르키예어 문법, 음운론 (Türk Grameri, Ses Bilgisi, 1959)』, 『튀르키예어 문법(Türkçenin Grameri, 1974)』

타흐신 반구오을루는 심도 있는 연구로 언어, 문화, 문학 분야에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남긴 언어학자였다.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그의 저서가 학생들에게 개론서로 선택되어 강의되고 연구의 초석이 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흐신 반구오을루, 타흐신 방구올루
- 다국어 표기 Tahsin Banguoğlu(튀르키예어), Tahsin Banguoglu(영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앙카라, 공화인민당, 이스메트 이뇌뉘,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cokbilgi.com/yazi/tahsin-banguoglu-hayati-kimdir/>
<https://islamansiklopedisi.org.tr/banguoglu-hasantahsin>
<http://dergiler.ankara.edu.tr/dergiler/12/850/10769.pdf>
- 참고문헌(오프라인) Zülfikar H. *Tahsin Banguoğlu ve Türkçecilik Akım* içindeki Yeri, Türk Dili 154 sayı, 1989.

Ⅰ H035 Ⅰ 타히르와 주흐라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민담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Takhir i Zukhra

타히르와 주흐라는 동양의 민담이다. 이야기의 기본 구조가 비극적 사랑을 다루는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레일라와 마준 *ليلى مجنون*」과 유사하다. 이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처음 개작한 이는 우즈베크 시인 사이이오디(Саййоди, 17세기~18세기)이다. 이 이야기는 중앙아시아의 가



우즈베크 SSR이 만든 「타히르와 주흐라」 영화 포스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부장적 사회와 관습, 법률을 반영하는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동방의 왕과 그의 대신은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것이 그들을 애타게 만들었다. 어느 날 그들이 정원을 방문했을 때, 한동안 정원 입구를 찾을 수 없었고, 정원을 들어갔을 때 한 노인을 만나게 된다. 노인은 각자에게 사과를 하나씩 주었고, 아내들이 그것을 먹게 하라고 했다. 왕과 대신은 그대로 행동했고 곧 아내들은 임신을 한다. 왕의 아이는 여자 아이 주흐라였는데 아들을 원했던 왕은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고, 같은 날 대신에게서는 아들 타히르가 태어났다. 하지만 대신은 집으로 가던 중 말에서 떨어져 죽고,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된 타히르는 가난하게 살았다. 많은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왕은 과거 대신의 아내가 소년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때 왕은 자신이 딸을 죽이라고 한 것이 끔찍한 실수였음을 알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왕의 신하가 주흐라를 죽이지 않고 비밀리에 숨겨두었는데, 그는 이 사실을 왕에게 고했고 왕은 기뻐하며 딸을 맞이한다. 타히르는 이웃 중 하나가 그에게 약혼녀가 있다는 말을 해 주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타히르는 어머니에게 누가 약혼녀인지 물었고, 결국 어머니는 모든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주흐라는 왕의 딸이며, 타히르는 가난뱅이이기 때문에 서로 엮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타히르는 주흐라와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공부를 했는데, 타히르가 주흐라의 학업에 방해가 된다고 교사들이 일러서 왕은 둘 사이에 벽을 세워 두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타히르는 벽을 부셨다. 화가 난 왕은 궤짝을 준비하고 거기에 타히르를 넣어 강에 던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주흐라는 궤짝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궤짝 장인들을 매수했다. 타히르가 궤짝에 갇힐 때 타히르의 어머니는 죽고, 타히르와 주흐라는 서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궤짝에 떨어져 강에 던져진 타히르는 오랫동안 떠내려가다가 다른 왕국의 공주 두 명에 의해 발견되었다. 큰 공주는 궤짝을 가졌고, 작은 공주는 그 왕국의 왕의 명으로 타히르와 결혼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타히르는 주흐라만 생각했고 자기 아내와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흐라는 일

치 않게 어떤 부호와 결혼하게 된다. 어느 날 주흐라는 타히르와 산책을 하는 꿈을 꾸었고, 타히르가 죽지 않았다고 확신을 한다. 주흐라는 사방으로 사람을 보내 타히르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타히르를 찾는데, 이에 타히르는 아내에게 자신은 주흐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는 아내를 떠난다. 타히르와 안내인은 주흐라에게 가는 길에 그들은 두 강도가 활개 치는 어떤 도시에 들리게 된다. 타히르와 안내인은 강도로 오인되었고 감옥에 갇힌다. 타히르는 감옥 창문에서 주흐라를 그리워하며 노래를 불렀고, 이를 어떤 상인이 들었다. 상인이 이를 도시 사람들에게 말해 두 사람은 풀려났다. 결국 타히르와 주흐라는 만나게 되었지만, 주흐라의 남편이 이를 알고 타히라를 체포해 사형시킨다. 그러자 주흐라는 칼을 가지고 타히라의 무덤에 가서 자살을 한다.

이 이야기는 소련 시기에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여러 차례 영화, 만화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히르-주흐라, 토히르와 주흐라
- **다국어 표기** Тахир и Зухра(러시아어), Tohir va Zuhra(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ор-Оғлы Х. Г., Узбек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М., 1968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Алматы, 2004. — Т. 4. С. 179.

I H036 | 타히팅 훗거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AKHILTYN KHOTGOR

타히팅 훗거르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몽골 흉노 무덤 유적 중에 하나이다. 유적은 몽골 홉드 아이막 만한 솜 중심 마을에서 서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첩헤르강 유역의 높은 산 북부 평탄지에 위치해 있다. 2006년에 몽골 미국 공동 조사단 보고서에 따르면 200여기 무덤이 분포한다. 무덤에는 묘도가 있는 방형 무덤과 없는 고리형 무덤 두 가지가 있다. 묘도가 있는 방형 무덤인

1호는 유적 중심에 있는 무덤 동북쪽 가장자리에 있다.

무덤의 규모는 16m×14m이고, 남쪽에는 사다리꼴 묘도가 있다. 무덤 바닥까지의 깊이는 12m이다. 무덤 바닥에서 확인된 무덤구덩이의 크기는 4m×3m이고, 통나무로 만든 목곽과 목관이 안치되어 있다. 목곽 길이는 4m, 너비 1.8m, 높이 0.8m이다. 목관의 길이는 2m, 폭 0.4m, 높이는 0.4m이다. 목관은 녹색 비단으로 덮고 그 위에 꽃 모양 금박 장식을 했다.

목곽 서북 모서리에는 높이 65cm의 대형 토기가 매납 상태로 발견되었고 목관 머리쪽 밖에는 토기가 2점 놓여 있었다. 토기 옆에서는 동북(청동술)이 출토되었다. 목곽 뚜껑 위에는 바퀴, 일산대, ‘ㄱ’자형 청동기 2점, 일산 꼭지 등이 출토되어서 마차를 목곽 위에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못, 재갈, 재갈멈치, 철기, 낙타뼈 등이 출토되었다.

2호의 무덤 크기는 16m×13m이고, 묘도 길이는 8m이다. 무덤 깊이는 11m이고, 무덤방의 크기는 5m×2m이고, 통나무를 짜서 만든 목곽 시설이 있다. 시신은 머리가 북쪽을 향하고 위를 바라보게 안치되었다. 피장자 주변에서는 금제 귀걸이, 막대형 청동기가 비단에 싸여 가죽끈으로 묶인 채 1점씩 발견되었다. 허리띠 버클 2점, 대금구로 추정된 목제 장식 2점 등이 출토되었다. 묘도가 없는 무덤은 지표로 드러난 무덤의 형태가 원형이다. 지름이 3m 가량이고, 적석을 제거하고 파 내려가자 깊이 1.3m에서 석곽이 노출되었고, 길이 2m, 폭 0.8m이나 인골은 심하게 교란되었다. 석곽 안에서는 철기편이 많이 수습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크트 쿿고르

● 다국어 표기 ТАХИЛТЫН ХОТГОР(러시아어), TAKHILTYN KHOTGOR(몽골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hc.unesco.org/en/tentativelists/5951/>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국립중앙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몽골국립박물관, 『몽골 흉노무덤 자료집성』, 2008.

G. 에렉젠, 「흉노 귀족계층 무덤의 연구」, 『중앙 아시아 연구』 제15호

I H037 | 탄르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용어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anrı

탄르(Tanrı)는 투르크어에서 ‘신(神)’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알라(Allah)를 의미하기도 하며, 그 외 일신교의 절대자와 다신교의 신 모두에게 사용 가능한 단어이다. 현재도 이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등이며, 우즈베크어, 타타르어 등에서는 ‘신’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 후다(خدا)의 영향을 받은 단어를 사용한다.

탄르의 어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대 투르크어의 천신(天神)을 의미하는 텡그리(tengri)와 연관짓는다. 이 텡그리는 후에 천신만이 아닌 숭배의 대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tengri, tanrı, bayat tenri, ugan tenri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었다.

『고대 투르크어 대사전(튀르키예어 표기: *Diwān Lughāt al-Turk*)』에서 텡그리라는 단어는 ‘위대한 신’에서 왔으며 투르크인은 커다랗게/위대하게 보이는 것은 모두 텐리(tenri)라고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투르크 전통 신앙 구조에서 신의 존재는 다신교적 성격이 있으나,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투르크인에게 기본적인 숭배 대상인 천신은 유일신의 성격이 짙다. 이 신은 동물 따위에 비유되지 않고, 성별이 없으며, 그 성격상 민족 신이라기보다는 전 인류의 신으로 본다. 다만 이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모든 것에 간섭하는 샘계 종교의 신 같지는 않았다.

투르크인이 이슬람을 받아들인 후에도 알라를 지칭하기 위하여 탄르라는 단어는 계속 사용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라’ 또는 ‘후다’를 사용하게 된다. 알라(Allah)라는 단어는 이슬람 이전 시대의 아랍인들도 사용하기는 했으나, 이슬람 이후로는 ‘만물의 창조자’이자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위대한 존재’로서의 신을 의미하게 된다.

13세기 이우누스 엠레(Yunus Emre, 1238년~1328년) 같은 시인이거나 14세기 쉴레이만 첼레비(Süleyman Çelebi, 1351년~1422년) 같은 학자의 글에서는 여전히 탄르와 알라를 병용하고 있으며, 15세기 코란의 행간 해석본/번역본에서는 ‘알라’의 해석은 ‘탄르’로 표기하고 있다. 이런 사용법은 1세기 가량 더 지속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탄리, 탄르, 후다, 쿠자흐, 후더, 후도, 후다
- 다국어 표기 Tann(아제르바이잔어), Tann(튀르키예어), Қудай(카자흐어), Xudo(우즈베크어), Ходай(타타르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anyu, Hikmet. *İslâmlıktan Önce Türklerde Tek Tanrı İnancı*, Ankara 198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trans.Aykut Kazancıgil), Istanbul : Kabcacı, 2002.
Güngör, Harunç “TANRI”, *TDV İslâm Ansiklopedisi*Cilt 39, Istanbul: TDV, 2010, pp.570~571

I H038 | 탄지마트

- 시기 AD1800년 - 현재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개혁 ● 유형 소분류2 시대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Tanzimat



1878년 오스만 헌법 표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탄지마트는 술탄 압뒨메지드(Abdülmeçid, 재위: 1839년~1861년)가 즉위 초년에 선포한 국가 개혁 프로그램이자 그것이 시행된 시대를 지칭한다. 탄지마트란 질서를 세운다는 뜻의 아랍어 동명사로, 이 당시에는 ‘개혁들’이라는 뜻으로 쓴 것이다. 당시의 전면적인 개혁은 전대 술탄인 마흐무드 2세의 개혁들과 연결되어 있었으므로 학자에 따라서는 시점을 1830년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종점은 1871년, 1877년, 1878년, 1881년 등으로 다양한 입장이 있으나 흔히 헌정이 중단된 1878년이 가장 선호되어 왔다.

탄지마트가 시작된 배경은 1830년대 말의 정치, 경제, 군사적 위기가 중첩되었을 때 위기를 모면하고 제국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이다. 탄지마트의 모든 개혁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국가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 있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매우 취약했던 오스만 제국의 입지를 생각하면 당연

히 유럽 열강의 외교적, 군사적 지지를 필요로 했다. 따라서 탄지마트는 부국강병 자체를 목표로 할 뿐 아니라, 열강에게 오스만 제국을 문명국가 내지 근대 국가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개혁은 초기에는 군사 부분의 근대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군사 개혁 이상으로 중앙 집권화가 중요해졌고, 본격적인 입헌 정치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대의 기구가 점진적

으로 설립되었고 국가의 역할이 증대되어 교육이나 보건 위생 등의 새로운 부문도 포함하게 되었다. 개혁은 전 부문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으며, 유럽의 시스템, 특히 많은 경우 프랑스의 기관들을 모델로 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서양화'를 동반했다. 새로운 문물을 번역할 적당한 어휘가 없었기 때문에도 신식 지식인이나 개혁파 관료들은 프랑스어를 많이 쓰게 되었다.

한편 마드라사나 샤리아 법정 같은 구식의 종교적인 기관들이 폐지되지 않은 채 역할만 축소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원적 시스템이 많은 혼란과 부조화를 초래했다. 개혁은 보수주의자들의 반대와 유럽 열강의 간섭, 국내 기독교인들의 분리주의 반란 등으로 순탄히 진행되지 못했다. 분쟁이 있을 때 열강이 오스만 정부를 지지한 것은 1839년~1841년, 1854년~1856년 두 번에 불과했고, 흔히 반란 측에 더 공감하는 편이었다. 비록 탄지마트 기간 중에는 공식적인 영토 상실은 드물었으나 발칸 여러 지역이 자치권을 얻었고 열강이 반란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제국의 보전이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었고 이는 특히 탄지마트 말기로 갈수록 위험은 더욱 뚜렷해졌다. 또한 개혁에는 많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했는데 중앙 집권화의 과제를 달성하지 못했던 19세기 중엽의 오스만 제국에게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개혁의 방향은 1839년의 굴하네(장미원) 칙령에서 꾸란과 샤리아를 언급하는 전통적인 종교적 수사로 포장되었지만, 주로 신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생명, 명예, 재산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탄지마트 기념 우표 속의 푸아트 파샤, 레시드 파샤, 알리 파샤

세금 청부를 폐지하여 중앙에서 임명받은 징세관에 의한 직접 징세를 관철하고 군역을 공평하게 한다는 매우 새로운 방향이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중앙의 관료 조직, 입법, 사법 조직의 재구성, 유럽의 법을 참조한 형법, 상법, 토지법, 국적법 등의 도입, 지폐의 발행, 지방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 단위의 재정비, 지방위원회의 설치, 각급 학교의 설립을 통한 개혁인재의 양성 등을 포함했다. 특히 세금의 직접 징수와 일관성 없는 비무슬림 징병 관련 조치들은 많은 반발에 부딪혔고 개혁 관료들의 정권 장악은 안정적이지 못했다. 예컨대 초창기 개혁 관료의 거두였고 귤하네 칙령을 기초한 무스타파 레시드 파샤는 여러 차례 실각을 경험했다.

오스만 제국이 영국과 프랑스와 동맹하여 크림 전쟁을 치른 시기에는 동맹국들로부터의 개혁 압력에 따라 변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전후 파리 강화 조약이 있기 한 달 전에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외교관들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1856년 2월 또 한 차례 개혁 칙령이 반포되었으니, 여기에서는 열강의 의도가 상당히 반영되어 있었다. 이 두번째 개혁 칙령은 귤하네 칙령을 계승하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인을 포함하는 모든 종파가 평등하다고 천명했으며, 소수 종교 집단들의 행정 개혁을 촉구했다. 이 칙령은 무슬림에게는 일종의 이권 할양같이 보였으며 탄지마트 후반기 무슬림 오스만인들 사이에는 열강에 대한 양보가 지나치고, 무슬림들이 무슬림 국가에서 비무슬림들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다는 피해 의식이 팽배해졌다. 이런 인식은 1860년대 신오스만인들의 탄지마트 관료 독재 비판을 담은 언론 활동으로 이어졌고, 이후 이슬람주의의 득세로 이어졌다.

개혁파의 지도자 푸아드 파샤와 알리 파샤가 사망한 뒤 1870년대 초에는 술탄 압뒬아지즈와 보수파 관료들의 비효율적인 통치가 이어지다가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의 반란, 오스만 정부의 파산, 열강의 간섭 심화, 국내 정치 불만 등의 위기가 한꺼번에 닥친 1875년부터의 위기에 즈음하여, 유능한 개혁 관료 미드하트 파샤를 중심으로 한 입헌파가 열강의 내정 간섭에 대한 정면 돌파책으로 입헌주의를 추진하여 쿠데타로 압뒬아지즈를 폐위하고 무라드 5세를 세웠다. 무라드 5세가 신경 쇠약으로 몇 달 만에 폐위되고 그의 동생 압뒬하미드가 헌정을 약속하고 술탄이 되었다. 벨기에 헌법을 바탕으로 하여 신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 앞의 평등을 약속한 이 헌법은 흥정 헌법의 형태였다. 그는 헌법에서 군주의 권한을 최대한으로 확보해 놓고, 1878년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헌정을 중단시켰다. 헌정은 탄지마트의 최대 성과였고, 그것의 중단은 탄지마트의 시대를 종결했다고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탄지마트, 탄지맛
- 다국어 표기 Tanzimat(튀르키예어), Tənzimat(아제르바이잔어) Tanzimot(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레시드 파샤, 아흐메드 미드하트 파샤, 마흐무드 2세, 압뮐메지드, 압뮐아지즈, 압뮐하미드 2세, 밀레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Ali Akyıldız, “Tanzimat,” *TDVİA*; Roderic Davison, “Tanzimat,” *EI2*

I H039 I 탄지마트 문학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시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TURKISH LITERATURE OF TANZIMAT REFORM PERIOD

튀르키예 문학에서 시대를 구분할 때, 정치적 생활의 변화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오스만 제국 시대의 개혁운동의 첫 선구자인 술탄 2세 마흐무트(Sultan II. Mahmut)의 죽음으로 왕 자리에 오른 압뮐메지트(Abdülmecit)는 1839년 11월 3일 선포된 ‘굴하네 칙령(탄지마트 칙령)’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탄지마트(Tanzimât)는 사전적 의미로 ‘개편(改編)’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 조직과 제도, 법률의 개편을 감행하고자 하는 혁신과 개혁이었다. 탄지마트 칙령은 1839년부터 1895년 사이에 이뤄졌다. 오스만 제국이 서방의 가치를 알게 되면서 수도인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사회 구조에서 변화의 조짐이 일었다. 이는 점차 행정, 군사, 경제, 교육 분야로 확산됐다. 이어 사고 방식은 물론, 문학 분야에서도 새로운 트렌드가 생겨났다.

탄지마트 칙령이 선포되고 난 후 약 20년이 지난 1860년에는 시나시(Şinasi)와 아가흐 에펜디(Agah Efendi)가 함께 <Tercüman-ı Ahval> 신문을 발행하기 시작했고 이는 탄지마트 문학으로 명명됐다.

탄지마트 시대 공식적인 언어는 ‘오스만 투르크어’이다. 탄지마트 이전의 오스만 제국은 다양한 인종, 국가, 종교, 문화가 모여 하나의 제국을 형성했다. 당시 오스만 투르크어는 ‘무슬림이 아닌 귀족’이 사용하던 언어였다. 국가를 다스리는 귀족들은 아랍어,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슬라브어를 차용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했다. 오스만 투르크어는 수



신문<Tercüman-ı Ahval>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세기 동안 규모가 커졌고 무굴 제국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군대와 궁중 언어로만 발전된 우르두어와 같은 인위적인 언어가 됐다.

탄지마트 이후 오스만 제국 문학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지향하면서 언어를 단순화하기도 하고 새로운 문학 장르를 소개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이 시기까지 튀르키예 문학에서 볼 수 없었던 에세이, 소설, 연극, 회고록, 비

평, 번역 소설과 같은 작품들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신문은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됐다. 탄지마트 문학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알리 수아비(Ali Suavi)는 신문을 더 나아가 일종의 학교로 봤다.

서구 문화와 문학 작품을 제대로 접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은 세대들은 탄지마트 문학을 작가들의 예술관과 언어와 사회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전기 탄지마트 문학(1860년~1876년)과 후기 탄지마트 문학(1876년~1895년)으로 나눈다.

탄지마트 칙령을 필두로 개혁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은 대부분 서방에서 오스만 제국을 대표해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튀르키예 문학에서 쉬나시(Şinasi)는 「시인의 결혼(1859)」이라는 연극 각본을 썼는데 이 작품은 서구의 기준에서 인정받은 첫 시나리오다. 「시인의 결혼」은 탄지마트 시대의 대표적 문학 작품이다.

탄지마트로 인해 튀르키예 문학에 들어온 장르도 있다. 바로 일기 장르이다. 디렉토르 알리 베이(Direktör Ali Bey)가 오스만 공공 부채관리국에 근무하는 동안 1885년부터 1888년까지 감찰로 다니면서 썼던 기행기인 「여행 일기(Seyahat Jurnalı)」는 일기 장르 첫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탄지마트 시기에 작가들은 서구 문학, 특히 프랑스의 볼테르(Voltaire), 루소(Rousseau)와 같은 진보적 성향 작가들의 영향을 받아 조국, 국민, 자유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보였다.



탄지마트 문학의 대표적 문학가 지야 파샤 묘지(아다나, 튀르키예)

전기 탄지마트 시기를 대표하는 문학가들로는 지야 파샤(Ziya Paşa), 나므크 케말(Namık Kemal), 이브라힘 쉬나시(İbrahim Şinasi), 아흐메트 미합트 에펜디(Ahmet Mithat Efendi), 아흐메트 테브피크(Ahmet Tevfik Paşa), 썬셋딘 사미(Şemsettin Sami)가 있다.

후기 탄지마트 시기를 대표하는 주 문학가들은 레자이자데 마흐무트 이크렘(Recaizade Mahmut Ekrem), 압뮐하크 하미트 타르한(Abdülhak Hamit Tarhan), 사미파샤자데 세자이(Samipaşazade Sezai), 나비자데 나즘(Nabizade Nazım), 무알림 나지(Muallim Naci), 디렉퇴르 알리 베이(Direktör Ali Bey)가 있다.

전기 문학가들은 후기 문학가들보다는 대중적인 성향을 보였고, 언어적인 부분에서는 간소화에 힘썼지만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또 문학을 사회를 계몽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으므로 조국, 국민, 자유와 같은 개념을 작품을 통해 소개하고자 했다.

전기 탄지마트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신문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과 오스만 시대 궁전에서 구

사하던 장황한 언어를 버리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어와 평이한 언어로 문학 작품을 남기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후기 탄지마트 시기 문학가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보다 개인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언어적으로 수식어가 많은 문체를 선호했다는 점이다. 신문은 전기 때보다 기능적인 면을 줄이면서 사회적 이슈보다는 예술과 관련된 주제를 선호하게 됐다.

탄지마트 시대에 튀르키예 문학을 주도한 작가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대중을 계몽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을 했던 작가들이다. 쉬나시(Şinasi), 지야 파샤(Ziya Paşa), 나므크 케말(Namık Kemal), 아흐메트 미하트 에펜디(Ahmet Mithat Efendi)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상류층이 향유할 수 있는 글쓰기에 열중했던 레자이자데 마흐무트 에크렘(Recaizade Mahmut Ekrem), 압뉘하크하미트 타르한(Abdülhakhamit Tarhan), 사미파샤 카데 세자이(Samipaşazade Sezai)와 같은 작가들은 ‘문학은 그 자체로 예술이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작품을 썼다.

탄지마트 시대에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회·정치적 개혁이 시도되면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전반적 사회 구조의 변화는 문화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에서 도입된 신문, 잡지, 번역서, 일기, 연극, 기사 같은 여러 문학 장르는 오스만 시대의 문화생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탄지마트 시대 문학

● 다국어 표기 Tanzimat Edebiyatı(튀르키예어), TURKISH LITERATURE OF TANZIMAT REFORM PERIOD(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erkes Niyazi, *Türkiye’de Çağdaşlaşma*, Doğu-Batı Yayınları, İstanbul, 1978.

Duman M. Akif, *Tanzimat Dönemi Türk Edebiyatı’nın Pragmatikliği*, Paradigma Akademi Yayınları, Çanakkale, 2019.

Özkırmılı Atilla, *Tarih İçinde Türk Edebiyatı*, ÜmitYayıncılık, Ankara, 1995.

Tanpınar Ahmet Hamdi, *19uncu Asır Türk Edebiyatı Tarihi*, Çağlayan Kitabevi, İstanbul, 1982.

I H040 | 탈가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algar

탈가르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동쪽 25km 떨어진 도시로서 오래된 역사와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다.

9세기에 촌락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10세기 이란계 지리학자의 문헌에 '탈히즈(Talkhiz)'가 등장하는데 여기가 바로 탈가르이다. 당시 이곳 주민들은 카를룩 투르크인들이던데 용맹한 사람으로 소개되었다. 카를룩인들은 751년 고선지 장군과 관련이 있는 탈라스 전투에서 당(唐)을 배반하고 아랍군을 지원했던 투르크인들이다.



알마티 인근 탈가르의 수려한 자연 경관



탈가르 전경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현재의 탈가르 지역과 중세기의 탈히즈는 비슷한 유역에 위치해 있어서 인접한 지역에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다. 실크 로드 지역에 있었던 탈가르(탈히즈)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곳이고 한때 물질적 발전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나 실크 로드의 소멸과 함께 이 지역은 잊혀졌다. 제정러시아가 이곳으로 팽창하면서 1854년에 베르노예(현 알마티)에 요새를 건설하고 난 후 남동부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코사크 부대들이 새로운 요새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 지역이 다시 노출되기 시작했다.

당시 탈가르는 코사크 부대의 요새 중 하나로서 ‘소피아 부대기지’로 개발되었다.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당연히 코사크 부대원과 그 가족들이었다. 소피아 부대기지는 1918년에 ‘무라예보촌’으로 개명되었고 다시 1919년에 ‘탈가르’로 변경되었다. 1959년에 탈가르는 ‘읍’ 지위를 갖게 되면서 도시적 성격으로 탈바꿈되었다.

탈가르는 높고 아름다운 산으로 대표되는 곳으로 현재 카자흐인들과 외국인들이 자연경관을 보러 찾아가는 지역이다. 천산산맥의 한 갈래에서 나온 자일리 알라타우 산등성이에 있어 쾌적한 기후와 함께 휴식 공간으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탈가르 산맥의 최고봉의 고도는 4,979m이며,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 다국어 표기 Талғар(카자흐어), Талга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hXppgOTRB-Y>
- 참고문헌(온라인) <https://tochka-na-karte.ru/Goroda-i-Gosudarstva/2481-Talgar.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H041 | 탈두아이르 제1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alduair I

탈두아이르 제1유적(Talduair I)은 알타이의 탈두아이강의 우측 강안에 위치하는데, 이 강의 이름을 따서 유적명으로 했다. 이 유적은 남북 방향으로 스키타이 문화의 무덤 5개가 열상으로 확인되고 그 동쪽에 알타이 투르크 무덤이 2개 존재한다. 그중 6호는 무덤의 상부는 둥글게 돌을 돌리고 쌓은 것이다(직경 7.5m, 높이 0.2m~0.6m이다.).

깊이 35cm 가량 아래에 7세~10세 정도의 어린아이가 묻혔는데, 무덤의 장축 방향은 북서향이다. 어린아이는 양뼈, 재갈 및 조개껍데기 2점과 함께 매장되었다. 그 아래(깊이 135cm)에는 어린아의 무덤과 거의 직교되는 방향으로 타원형 무덤(215cm×155cm)이 설치되었다. 장축 방향은 동-동북으로 거의 동쪽에 가깝다. 인간과 말 1필이 매장되었는데, 인간의 두향은 동향이 고, 말은 반대 방향이다. 인간은 가슴부터 무릎까지 자작나무 껍데기를 덮었고 그 위에 화살촉 9점이 놓였다. 그 외에도 활의 시위, 철제 칼, 은제 향아리 등이 인간과 함께 매장되었다. 말은

안장, 재갈, 등자 등을 착용한 채로 확인된다.

알타이 지역에서 흉노가 멸망하고 투르크 제국(7세기)이 들어서기 전의 유적이 존재한다. 이 시기의 유적은 말의 등자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코크 파시 단계와 개마와 금속제 등자가 사용되는 쿠디리게 단계로 구분된다. 전자는 3세기~5세기 중반, 후자는 5세기 중반~7세기이다. 비케 유적은 금속제 등자가 사용되면서 알타이에서 투르크 제국이 들어서기 전 쿠디리게 단계(5세기 중반~7세기)의 유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탈두아이르1
- 다국어 표기 Талдуайр1(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스키타이, 쿠디리게, 비케, 코크 파시
- 참고문헌(오프라인) Кубарев Г. В. Культура древних тюрок Алта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огребальных памятни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Изд-во ИАЭТ СО РАН, 2005. 400 с

I H042 | 탈라스 전투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투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attle of Talas

7세기 중엽 사산 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지역을 이슬람화시킨 아랍 세력은 중앙아시아의 스텝 지역으로 세력 확장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아랍의 세력 확장을 봉쇄하고자 중국측도 적극 공세에 나서게 되어 아랍의 지야드 이븐 살리히(Ziyad Ibn Salih) 장군이 이끄는 아랍, 카를루크, 티베트의 연합군과 고구려 유민 출신의 고선지(高仙芝) 장군이 이끄는 당군과 위구르의 연합군이 탈라스강 유역에서 대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동 전투는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중대 사건이었는데 패배한 중국측은 파미르고원 이서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동 전투에서 아랍측의 승리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아랍의 영향력이 확장되



포오늘날의 탈라스강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어 이슬람교가 투르크계 부족들에 전해져 이 지역에서 투르크계 이슬람 세계가 형성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슬람교가 중앙아시아 제민족의 제1종교로 남아 있게 되었고 동 전투 결과 위구르인의 이슬람화와 위구르인에 의한 이슬람의 중국 전파가 가능하게 되어 중국에서는 이슬람교가 위구르인 즉, 회흘인이 신봉하는 종교라는 의미로 회교(回教), 회회교(回回教)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또한, 탈라스 전투는 동서 교류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바로 제지술의 전파이다. 당시, 아랍측에 잡혀간 중국인 포로들 중에 제지 기술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통해 아랍 세계에 제지술이 알려졌고 제지술은 아랍인들에 의해 실크 로드를 통해 유럽 세계로도 전파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탈라스 전투
- 다국어 표기 怛羅斯戰役(중국어), معركة نهر طلاس(아랍어)

● 연관 검색어 실크 로드, 카를루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Christopher I. Beckwith, *The Tibetan Empire in Central Asia: A History of the Struggle for Great Power Among Tibetans, Turks, Arabs, and Chinese During the Early Middle Ag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Gibb, H. A. R., *The Arab Conquests in Central Asia*. London: The Royal Asiatic Society. 1923.

Muhamad S. Olimat, *China and Central Asia in the Post-Soviet Era: A Bilateral Approach*. Lexington Books,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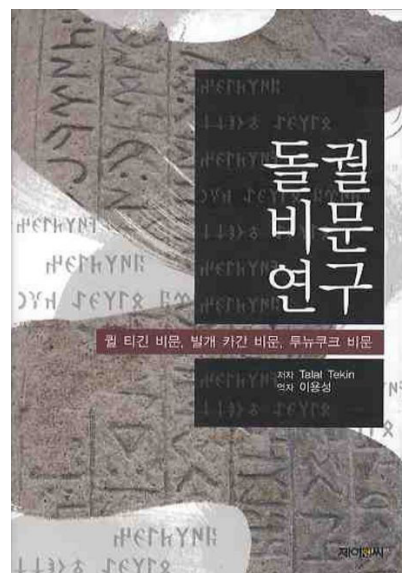
I H043 | 탈라트 테킨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Talat Tekin

탈라트 테킨(Talat Tekin)은 교수로서 활발한 학술 활동으로 알타이 제어와 튀르키어 연구에 큰 공헌을 한 튀르키예 언어학자이다. 탈라트 테킨(1927년~2015년)은 이스탄불 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과를 졸업했다(1946년~1951년). 졸업 후에는 교직 생활을 하다 군 제대 후 결혼을 하고, 그 이듬해 앙카라 튀르키예 국립국어원(Türk Dil Kurumu)에서 문법 전문가로 1961년까지 일했다. 이후 탈라트 테킨은 미국으로 건너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연구 조교를 병행하며 박사 과정을 시작한다. 인디애나 대학교 우랄-알타이어과에서 2년간 튀르키예어를 강의하면서, 이 기간 동안 오르콘(Orhon, 오르혼 - 튀르키예어식 표기; Orkhon, 오르콘 - 영어식 표기) 비문과 관련한 연구로 「오르콘 튀르키어 문법(A Grammar of Orkhon Turkic)」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65년 캘리포니아 대학 튀르키예어문학과에서 강의하였고, 1968년에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이 책으로 출간되었다. 1969년에서 1970년까지 연구년 동안 튀르키예로 돌아와 하제테페 대학에 신설된 튀르키예어문학과에서 일반언어학 강의를 맡았다. 1972년에 완전히 튀르키예로 귀국한 탈라트 테킨은 1975년 교수로 승진했고, 1982년 학과장, 1983년부터 1990년까지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의 정회원을 지냈다. 1994년 퇴임 후에는 이스탄불의 예디테페 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과 학과장직을 맡았다.

탈라트 테킨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연구를 했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르콘 비문을 비롯하여 투르크어족, 알타이어족과 관련된 수많은 연구물을 남겼다. 또한 튀르키예어의 다양한 접사를 투르크 어군에서 통시적으로 연구했고 어원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도 많이 남겼다. 탈라트 테킨은 튀르키예어 연구에 있어 튀르키예어를 중심으로 다른 투르크어들을 방언(lehçe, şive)이라는 어휘로 표현하지 않는 대신 개별 언어(dil)로 일컬었다. 또한 탈라트 테킨은 튀르키예어의 언어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를 비평하는 견해에 상응하는 언어 순화운동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튀르키예 언어(Türk Dili dergisi)> 학회지에 꾸준히 발표한다. 그러나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의 모든 언어 정책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았으며, 잘못된 부분은 비평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탈라트 테킨의 오르콘 비문들과 투뉴쿠르비문의 한국어 번역본 표지
Source: <https://contents.kyobobook.co.kr/sih/>

탈라트 테킨은 튀르키예 언어 학회지에 40편의 연구 논문을 게재할 정도로 연구 활동을 활발히 했다. 탈라트 테킨은 위대한 연구자인 동시에 작가이기도 했다. 그는 1953년~1957년에 여섯 편의 시를 지었다. 투르크어학과 알타이어 연구에서 탈라트 테킨이 남긴 수많은 연구 업적은 관련 분야의 토대가 되었다.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이를 활용하여 다각도로 더욱 풍성하고 깊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언어학의 기초가 되는 지식들은 튀르키예인, 더 나아가 투르크인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탈라트 테킨, 탈랏 테킨
- 다국어 표기 Talât Teki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알타이 제어, 이스탄불, 앙카라,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 참고문헌(오프라인) Sertkaya, O. F., Doğumunun 80. Yıl Dönümü Dolayısıyla Prof. Dr. Talat Tekin'in Hayatı ve Eserleri". Türk Dili, 672. Sayı, s. 874-889, 2007.
- Yılmaz, E., Türk Dili ve Talât Tekin, Türk Dili, 700. Sayı, s. 887-889, 2010.

I H044 | 탈르시 칸국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Əli Şamil) ● 라틴 문자 Talysh Khanate

탈르시 칸국(Talış xanlığı, 1747년~1826년)은 18세기 현재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남동쪽에 건국된 아제르바이잔 칸국이다. 탈르시 칸국은 벨레수바르(Beləsuvar), 마살르(Masallı), 아르둠르(Yardımlı), 레리크(Lerik), 랜카란(Lənkaran), 아스타라(Astara)와 같은 소도시 그리고,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위치한 길란(Gilan), 아스타라(Astara), 해쉬태뤼드(Həştərüd, Tales)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세이드 재마래드딘(Seyid Cəmaləddin)은 왕족이 아니었으나, 나디르 샤(Nadir şah)에게 충성을 바친 공로를 인정받아 칸의 칭호를 부여받고 탈르시 칸국 영토를 다스렸다. 세이드 재마래드딘은 그의 피부색으로 인하여 검은 칸(Qara xan)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세이드 재마래드딘(Seyid Cəmaləddin, 1747년~1786년) 칸 집권 당시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었으며, 영구 군부대가 창설되었다. 그는 칸국의 수도를 아스타라(Astara)에서 랜카란(Lənkaran)으로 옮겼다. 랜카란이 중심 도시가 되며 부두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주택이 들어서며 항구 도시로 발전했다. 카스피해를 통해 들어온 각종 물품들이 랜카란을 통해 바쿠, 니야자바드, 대르밴드 등지로 운송되었다. 랜카란은 전국 각지에서 장인들을 데려와 성을 쌓고, 칸의 궁전, 모스크, 목욕탕, 시장, 대상 숙소(카라반사라이)를 지었다. 또한 그는 카스피해를 통해 경유 무역에 참여하여 랜카란의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세이드 재마래드딘은 외교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 차르 러시아 세력과 가깝게 지내려고 했고, 이러한 상황을 우려했던 길란(Gilan)의 히다야트 칸(Hidayət xan)은 1768년 12,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랜카란(Lənkaran)에 입성했지만 성과 없이 퇴각했다. 이에 세이드 재마래드딘은 히야다트 칸이 재차 습격을 할 것을 고려하여 자신의 동생 캐르벨라이으 술탄(Kərbəlayı Sultan)을 구바 칸국(Quba xanlığı)으로 보내 패탈리 칸(Fətəli xan)과 협상을 하게 한다. 1785년에 협정을 통해 구바 칸국과 탈르시 칸국은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었다.

1789년에 구바 칸국의 패탈리 칸이 사망한 이후, 탈르시 칸국은 다시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했다. 세이드 재마래드딘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 미르 뮈스타파(Mir Müstafa, 1786년~1814년)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가 칸으로 제위에 있을 당시 남쪽 국경 지역에서의 외부 세력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 1794년 아제르바이잔 남부에서 권력을 잡은 아가 맴매드 샤 가자르(Ağa Məmməd şah Qacar)는 이란에서 자신의 지위를 강화한 이후, 남캅카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그는 모든 아제르바이잔 칸국이 자신에 복종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칸국은 이러한 요청을 거부했다.

이러한 상황을 틈타 차르 러시아는 아제르바이잔 캅카스 지역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미르 뮈스타파 칸(Mir Mustafa xan)은 러시아의 보호를 받으면 이 사태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여 1795년, 자만 베이(Zaman bəy)의 사절을 북 캅카스의 러시아 장군 구데비치(Qudeviç)에게 보냈다. 1795년 9월에 탈르시 칸국의 사절로 출발한 캐르발라이의 애새둘라 베이(Kərbəlayı Əsədulla bəy)는 1796년 3월 12일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여 예카테리나 2세(II Yekaterina)에게 칸이 쓴 편지를 전달했다.

미르 뮈스타파 칸이 러시아에게 후원을 요청한 사건은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카스피해에서 러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매우 중요했다. 1802년 12월 26일 체결된 게어르게비스키비스키 조약(Georgeviski müqaviləsi)의 결과 탈르시 칸국은 러시아의 보호하에 놓였다.

1809년, 가자르 제국(이란)은 페르줄라 칸(Fərəculla xan)의 지휘하에 2천 명의 기병을 랭카란으로 보냈다. 1812년 12월 21일 랭카란 칸국의 영토에 들어간 러시아 군대는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다. 코틀랴레프스키(Kotlyarevski)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랭카란 요새의 수비자들은 항복하기를 거부했다.

코틀랴레프스키 장군이 지휘하는 러시아군이 공격을 시작했고,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랭카란 요새 방어를 위한 전투에서 6,000명의 병사와 사드그 칸(Sadiq xan) 장군이 순직했다. 러시아인은 도시로 들어가 16,000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다.

1813년 10월 12일 가자르 제국과 러시아 사이에 굴리스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으로 아제르바이잔은 둘로 나뉘게 되었고, 아제르바이잔은 두 침략자(이란과 러시아)에 의해 분할되었다. 다른 많은 아제르바이잔 칸국과 함께 탈르시 칸국은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1814년 결핵으로 사망한 미르 뮈스타파 칸(Mir Mustafa xan)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미르 해

샌 칸(Mir Həsən xan)이 즉위했다. 1826년 탈리시 칸국은 러시아에 의해 폐지되었고, 이는 미르 해산 칸(Mir Həsən xan)과 지역 주민들이 러시아에 대항하여 반란하는 사건의 원인이 된다. 미르 해산 칸은 1931년 랜카란 반란에서 러시아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웠으나 결국 테헤란으로 피신했고, 1832년 그곳에서 독살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탈리시 칸국, 탈리쉬 칸국

● 다국어 표기 Talysh Khanate(영어), Taliş Hanlığı(튀르키예어), Taliş xanlığı(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켈리스탄 조약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tarixi*. 7 cildde, 4-cü cild, Bakı, 2000, s.14-53.

Azərbaycan tarixinə dair qaynaqlar. Bakı, 1989.

Bünyadov, Ziya., Yusifov, Yusif. *Azərbaycan tarixi*, Bakı, 2006.

Əsədov, F. *Taliş xanlığı*. Bakı, Çənlibel nəşriyyatı, 1998

Məmmədov, Kərəm. 1000 il İrani idarə edən Türklərin, *Qacarları*, “Ədalət” qəzeti, 28 fevral, 2021-ci il.

Mustafayev, T. *XVIII yüzillik-XIX yüzilliyin əvvəllərində Osmanlı-Azərbaycan münasibətləri*. Bakı, 2002.

Nuriyeva, İradə Tofiq qızı. *Azərbaycan tarixi* (ən qədim zamanlardan-XXI əsrin əvvəllərinədək). Ali məktəblər üçün dərslik. Bakı: Mütərcim, 2015.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Axundov, Nazim., Fərzəliyev, Akif): 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Axundov, Nazim., Fərzəliyev, Akif): 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Qarabağnamələr (Çevirənlər və nəşrə hazırlayanlar.: Axundov, Nazim., Fərzəliyev, Akif): III kitab,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Süleymanov, Mehman. Gülüstən müqaviləsi - II hissə. “Elm və təhsil”, Bakı, 2014.

Tahirzadə, Ədalət. *Ağaməmməd şah Qacar*, Bakı, Kür nəşriyyatı, 2002.

I H045 | 탈리프 아파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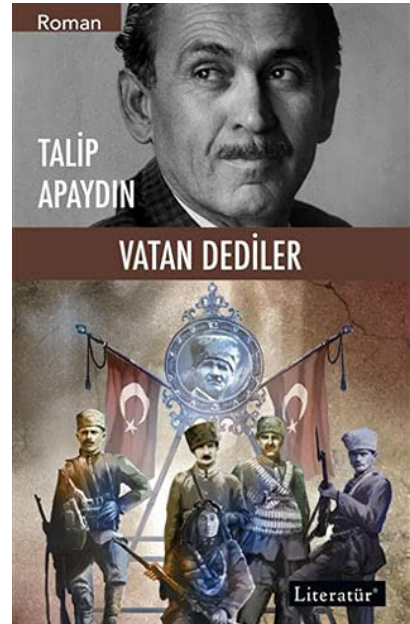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Talip Apaydin

탈리프 아파이드(Talip Apaydin)은 1926년 앙카라 베이 파자르 지역에 속한 카플르 마을에서 가난한 영세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이브라힘은 16년 동안 차낙칼레, 캅카스, 예멘, 아피온에서 군인으로 지냈다. 그의 등에는 가방끈 자국이, 가슴에는 총상이 세 개나 있었다. 어머니 사트는 오마르라르 마을 출신이었다. 그의 부모는 둘 다 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가난한 아나톨리아 사람이었다.

탈리프 아파이드의 이름에 얽힌 사연은 그의 아버지가 군인으로 예멘에 있을 때 치렀던 어느 교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음은 탈리프 아파이드가 기억하는 아버지가 들려주신 이야기다.

“어느 날 밤 갑자기 습격을 당해 격렬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동이 트고 아침이 됐다. 끝에 칼이 부착된 총을 가진 우람한 이교도가 갑자기 총을 겨누었다. 아버지는 그들의 총을 뺏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아버지가 앞으로 다시 진격할 때 뒤에서 “이브라힘 엎드려! 이브라힘 엎드려!”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가 뒤돌아보니 탈리프 소령이 배에 상처를 입은 채 땅에서 몸을 비틀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바로 몸을 숙였다. 마침내 ‘탕탕!’ 아버지의 총소리와 함께 이교도는 땅에 쓰러지더니 곧바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탈리프 소령에게 다가가 그를 품에 안았다. 탈리프 소령의 상처는 깊었고 아버지의 품에서 전사했다. 아버지는 탈리프 소령을 기억하고자 내 이름을 탈리프로 짓게 됐다.”

10살에 시골 학교를 졸업한 탈리프 아파이드는 1940년대 시골의 어린이 대부분의 꿈이었던 마을학교(Köy Enstitü)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먼저 치프테레르 마을학교(Çifteler Köy



『조국이 말했다(Vatan Dediler, 1981)』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Enstitüsü)를 다녔고 하산오을란 고등 마을학교(Hasanoğlan Yüksek Köy Enstitüsü) 예술반으로 진학했다. 졸업 후 탈리프 아파이든은 1946년 즐라우즈 마을학교(Cılavuz Köy Enstitüsü)에 교사로 파견됐다. 그 시기에 위대한 혁신 선구자 하산 알리 유젤이 교육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부임했는데, 그는 마을학교 운영에 대해 꺾끄러운 입장이어서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 게다가 고등 마을학교 졸업생들을 서둘러 입대시켰다. 아파이든은 장교로 복무해야 했지만 다른 졸업생들과 마찬가지로 병사로 군 복무를 해야 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튀르키예는 양대 진영 중 미국의 편에 섰다. 튀르키예 정부는 미국 체제와 다르다고 판단해서인지 가난한 시골 어린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던 마을학교를 폐쇄했다. 여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했다. 탈리프 아파이든도 그런 불이익을 받은 한 사람이었다.

마을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글을 쓰기 시작한 아파이든은 첫 작품을 마을학교 교지에 실었다. 아파이든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시골 환경을 배경으로 삼았고, 친숙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 1950년대 튀르키예 인구의 약 80%가 시골에 거주했다. 아파이든은 시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잘 아는 사람으로 마을학교 세대의 작가가 됐다. 그의 첫 번째 책 『초원에서 보낸 나날들(시골에서의 기록)(Bozkırda Günler(köy notları))』은 1952년에 발간되었다. 1950년 마흐무트 마칼이 시골을 관찰하며 쓴 「우리 마을(Bizim Köy)」이라는 글을 보면서 탈리프 아파이든도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 글은 그가 이후에 단편소설과 기타 소설을 집중적으로 쓰기 이전에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첫 시집 『가뭄(Susuzluk)』은 1956년에 출판했고, 첫 소설은 1958년에 쓴 『노란 트랙터(Sarı Traktör)』였다. 기계화와 관련된 농업 분야의 가능성을 트랙터로 보여 주었다. 탈리프 아파이든은 오랫동안 사람과 동물의 힘으로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업 분야의 생산량에 한계가 있었는데, 트랙터로 인해 희망이 생겼다고 여겼다. ‘작은 우물 안 개구리로 살았던 시골 청년’이었던 아파이든은 그의 현실 인식을 계속 글로 남겼다.

글을 쓰는 것, 문제를 언어로 표현하는 계몽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사회였고, 안타깝게도 민주주의가 정립되지 않았던 사회에서 집권당은 그를 썩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탈리프 아파이든도 여느 지식인이나 작가들처럼 그런 압박을 느끼고 있었다. 아파이든은 당시 상황과 같이 회고했다.

“토카트 마을에서 의욕적으로 설렘을 가지고 일을 했다. 농촌을 구석구석 돌아다녔다. 시골 학교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지켜보니 결실은 손가락 사이로 다 새어나갔고 튀르키예는 후퇴하고 있었다. (...)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압수 수색을 당했다. 책과 편지를 가져가면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나는 긴장했다.”

그는 1961년 튀르키예 교사협회 이사로 선임됐다. 1970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위원이 되었고, 1976년에는 교사직에서 은퇴했다. 은퇴한 뒤에는 교육부 고문을 맡아 1979년까지 수행했다. 여러 작품들이 소송에 걸려 책이 수거됐지만 소송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받았다.

아파이든은 농촌 소설 외에 역사 소설도 집필했다. 독립 전쟁을 주제로 한 3부작 중 첫 번째 책 『먼지 바람 안에서(Toz Duman İçinde)』는 1974년에 발표됐다. 이 소설에서 1919년에 도시 우삭 타짐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었는데, 튀르키예 시골 사람들이 독립 전쟁 때 어떤 사건들을 겪었고, 시골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새로 구성한 정부에게 걸었던 기대와 실망을 다루었다. 두 번째 책 『조국이 말했다(Vatan Dediler, 1981)』에서는 1920년 8월의 분위기와 몰라 마흐무트의 주도로 독립 전쟁에 참여한 시골 사람들이 겪은 일들을 다루었다. 역사 소설 시리즈 세 번째 책 『시골 사람(Köylüler, 1991)』은 독립 전쟁이 사실상 끝난 뒤 튀르키예 민병대(Kuvayımilliye)가 시골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를 썼다.

1964년 어린이 도서 『땅을 밟으면(Toprağa Basınca)』으로 도안 카르데쉬 어린이 소장 수상, 소설 『피곤한 담뱃잎(Tütün Yorgunu)』으로 마다랄르 소설 상, 소설 『시골 사람(Köylüler)』으로 1992년 오르한 케말 소설상, 『구조를 만들 때(Yapılar Yapılırken)』와 『버스 경주(Otobüs Yarışı)』로 1975년 TRT 방송되지 않은 라디오 극 예술상을 받은 탈리프 아파이든은 1997년에는 문학가 잡지에서 금메달, 국내교육학술지에서 2012년 교육상을 받았고 새로운 세대 마을학교협회(Yeni Kuşak Köy Enstitülüler Derneği)에서도 2009년 무스타파 네자티 명예 교사상을 받았다.

시, 단편, 소설, 희곡 등 40개 이상 작품을 남긴 탈리프 아파이든은 2014년 9월 28일 앙카라에서 눈을 감았다. 그의 묘소는 카르식야카 묘지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탈리프 아파이든

● 다국어 표기 TALIP APAYDIN(영어), Talip Apaydı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 참고문헌(오프라인) Apaydın Talip, “Hayatım”, *Yeni Efkular*, Eylül, 1970.

Aytaç Gürsel, *Çağdaş Türk Romanları Üzerine İncelemeler*, 2. Basım, Gündoğan Yayınları, Ankara, 1999.

Bayrak Mehmet, *Köy Enstitüsü Ozanlar ve Yazarlar*, Töb-Der Yayınları, Ankara, 1978.

Bayrak Mehmet, *Köy Enstitüleri ve Köy Edebiyatı*, Öz-Ge Yayınları, Ankara, 2000.

Erol Kemal, *Talip Apaydın'ın Hayatı, Roman ve Öyküleri Üzerine Bir Araştırma*, Yayımlanmamış Doktora Tezi. Yüzüncü Yıl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Van, 2005.

Mutluay Rauf, “Yoz Davar Üstüne”, *Barış Gazetesi*, 11. 7. 1973.

Özbek Fevziye, *Ortağının Oğlu Talip Apaydın*, Kaynak Yayınları, İstanbul, 2012.

I H046 I 탈코 그린체비치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alko-Gryntsevitch



탈코 그린체비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탈코 그린체비치는 폴란드 야기엘론스키 대학교(Jagiellonian University)의 인류학과 교수이다. 폴란드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으며 러시아 제국 시절 루스칸니에서 태어났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의료아카데미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유럽에서 유학하던 가운데, 파리에서 인류학 강의를 듣고 나서부터 인류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뒤에 리투아니아에서 의사로서 근무하면서 처음 발굴을 경험했다. 1892년부터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근무하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고고학 연구를 시작했고, 박물관을 건립하고 러시아 지리학회(Russian Geographical Society)의 회원으로서 그곳을 이끌었다. 시베리아에 근무하는 동안 몽골, 부랴트, 야쿠트, 통구스 등을 돌아다니면서 연구했고, ‘자바이칼 지역과 몽골의 인류학적인 정보’라는 연구물은 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탈코 그린체비치는 자바이칼 지역의 흉노 시기 무덤을 발굴하고, 무덤방 안에 통나무관의 존재를 알아냈고, 두 가지 양식의 무덤이 있음을 처음으로 밝혔고, 100개 이상의 무덤을 발굴했다. 1908년에 폴란드로 돌아가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에 한 곳인 야기엘론스키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고, 300편 이상의 흉노에 관한 다양한 논문을 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탈코-그린체비치
- 다국어 표기 Талько-Гринцевич Юлиан(러시아어), Talko-Gryntsevitch(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ru.wikipedia.org/wiki/%D0%A2%D0%B0%D0%BB%D1%8C%D0%BA%D0%BE-%D0%93%D1%80%D0%B8%D0%BD%D1%86%D0%B5%D0%B2%D0%B8%D1%87,%D0%AE%D0%BB%D0%B8%D0%B0%D0%BD>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тыпова Г. С. 1999, О возможном пребывании Ю. Д. Талько-Грынцевич в должности старшего врача Бурятского петроградского лазарета в годы Перв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 Музей истории Бурятии. Сборник статей. — Улан-Удэ; Эйльбарт Н. В.1936, Юлиан Доминикович Талько-Грынцевич — исследователь Забайкалья, 1850.

I H047 | 탈하탄 바바 모스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alkhatan Baba Mosque

메르브에 건설된 탈하탄 바바 모스크(Talkhatan Baba Mosque)는 비문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건설 연도, 후원자 및 건축가는 알 수 없다. 다만 건축 양식으로 보아 건설 연도를 11세기, 11세기 말 또는 12세기 초로 추정하고 있다.

벽돌이 주재료인 탈하탄 바바 모스크는 18mx10m 직사각형 형태의 플랜 위에 건설되었다. 이 직사각형 공간은 기둥으로 다시 세 부분으로 나뉘었으며 가운데 공간이 다른 두 공간보다 더 넓다. 직사각형의 기둥도 벽돌로 되어 있고 이는 첨두아치로 연결되어 있다.



탈하탄 바바 모스크가 들어간 투르크메니스탄 우표

중앙 공간의 미흐랍 앞에는 돔이 있고 이 양옆의 공간은 교차궁륭으로 덮여 있다. 이 교차궁륭으로 돔의 크기를 넓힐 수 있었다. 양 공간은 다시 아치 두 개씩으로 연결되어 있다. 돔은 미흐랍이 있는 벽과 네 개의 기둥으로 지지되어 있고, 각 모서리는 첨두아치형의 트롬프가 있는 팔각형의 드럼으로 떠받치고 있다. 트롬프 사이에는 정사각형의 벽감들이 있다. 모스크 앞에는 작은 공간이 있고 전설에 의하면 탈하탄 바바와 친구의 무덤이라고 한다.

건물의 전면은 아치형의 벽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구는 북동쪽에 있으며, 이곳도 세 개의 첨두아치로 이루어져 있다. 모스크의 남서쪽 면에는 작은 기둥이 있고 네 개의 첨두아치가 존재한다. 이 네 개의 첨두아치 중 남쪽 모서리의 아치에는 문이 있다. 나머지 두 면에도 각각 세 개

씩 첨두아치형의 벽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면부를 비롯하여 모든 면은 벽돌을 교차하여 쌓아 장식했다. 입구 주변을 둘러싼 아치의 양옆에는 작은 정사각형 안에 별 모양이 있다. 남서쪽 면도 벽돌을 이용하여 기하학 문양을 만들어냈다.

이 모스크는 플랜과 건축 재료의 측면에서 카라한 칸국 건축의 영향이 강하게 보인다. 이로 인해 일부 학자는 이 모스크가 카라한 조의 건축물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으나 11세기 이후 셀주크 조가 메르브와 그 주변 지역에 있던 것을 보면 대 셀주크 조의 건축물이라 봐야 옳다. 그러나 카라한 조의 건축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현 이란 영토에 남아 있는 당대의 건축물과 플랜과 장식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이 모스크에서는 카라한 조가 발전시켰던 모스크 디자인이 후대에 미친 영향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모스크 양식은 대 셀주크 조뿐만 아니라 아나톨리아 투르크 왕조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부 학자는 이

돔의 설계가 오스만 제국의 미마르 시난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탈하탄 바바 마스지드, 탈하탄 바바 메지트
- **다국어 표기** Talkhatan Baba metjit(투르크멘어), Talhatan Baba Cami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르브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ikolsoftware.com/public/resized/high/image_data/original/570572df50d16d10a291454551d3e9b155b7ce4c/5818b2ded3af9.jpg
https://www.ikolsoftware.com/public/resized/high/image_data/original/570572df50d16d10a291454551d3e9b155b7ce4c/5818b2df1c8c9.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Ankara: İş Banka, 1977.
Sayan, Yüke. “Türkmenistan’ın XI–XIX. Yüzyıllar Mimari Anıtları” *Türkler 6* (Ed:Kemal Çiçek, Hasan Celâl Güzel, Salim Koca)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91~108.
Галина Анатольевна Пугаченкова, Пути развития архитектуры Южного Туркменистана поры рабовладения и феодализма, Moscovia:Изд-во Академии наук СССР, 1958.

I H048 | 탐갈리 암각화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암각화
- 집필자 촬영삼 ● 라틴 문자 Petroglyphs within the Archaeological Landscape of Tamgaly

탐갈리 암각화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북서쪽으로 170km 떨어져 있는 지대에 있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진 사람들의 주거지 존재를 알려주는 유적지이다. 면적만 900ha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이며 여기에는 암각화 외에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과 제단들도 있어서 오래 전부터 인간이 거주했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대략 기원전 2천년 대부터 시작하며 카자흐인들의 조상에 해당하는 사카족과 우이순족의 촌락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연구 결과다. 이 지역에는 이후에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거주해 왔고 소련 시기에 이루어진 농업 집단화 정책에 잠시 인적이 끊겼다가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 지역에는 약 5천 점에 이르는 암각화



탐갈리 암각화

(암면 조각, 바위 그림)가 유명한데 이것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모습을 추정하고 있다. 청동기 및 철기 시대의 활동 모습을 추정해볼 수 있고 유목민들의 기상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림도 표시되어 있다.

이 암각화의 존재는 1957년 소련 학자 알렉세이 로고진스키(Aleksei E. Rogozhinsky)가 지도하는 고고학 연구팀의 발굴로 세상에 알려졌고 이후 지속적인 조사 결과 방대한 인간 주거지 형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주거지 외에도 제사를 지내던 제단 등의 터도 발굴되어 넓은 지역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역사적으로 몽골 침략 및 지배 시기에 암각화가 줄어들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후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술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일리(Chu-Ilji)강 일대에 형성되었던 탐갈리 암각화 지대는 2004년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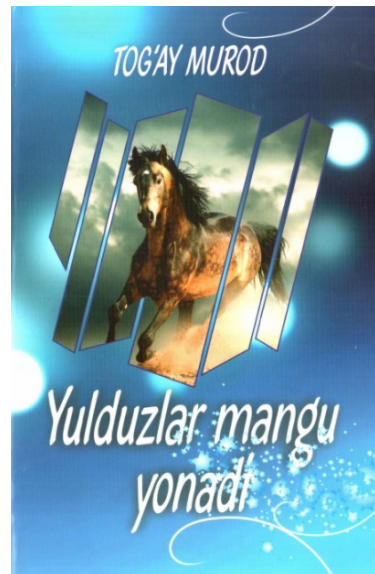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탐갈르 암각화
- 다국어 표기 Тамғалы петроглифтері(카자흐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EgGTYfw95M4>
- 참고문헌(온라인) <https://heritage.unesco.or.kr/%ED%83%90%EA%B0%88%EB%A6%AC-%EA%B3%A0%EA%B3%A0-%EA%B2%BD%EA%B4%80%EC%9D%98-%EC%95%94%EB%A9%B4-%EC%A1%B0%EA%B0%81/>
- 참고문헌(오프라인) Қазақ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H049 | 터가이 무러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Tog'ay Murod

터가이 무러트(Tog'ay Murod)는 1948년 2월 3일 수르한다리아 주 데노프의 호차서아트(Surxandaryo viloyati Denov tumani Xo'jasoat)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타슈켄트 국립대학교 언론학과를 졸업 후 1972년부터 1976년까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라디오 프로듀서,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우즈베키스탄의 체육(O'zbekiston fizkulturasini)> 신문사에서 번역가, 1982년부터 1984년까지 <과학과 인생(Fan va turmush)> 잡지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했다. 군대를 다녀온 후 1985년부터 1987년까지 모스크바에 위치한 세계 문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다. 터가이 무러트(Tog'ay Murod)는 그의 필명이며 본명은 터가이무러트 멩노로브(Tog'aymurod Mengnorov)이다.

그는 『별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Yulduzlar mangu



『별들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Yulduzlar mangu yonadi, 1976)』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img_knigi

yonadi, 1976)』, 『말이 울부짖던 밤(Ot kishnagan oqshom, 1979)』, 『달빛 아래를 걷는 사람들(Oydinda yurgan odamlar, 1980)』, 『조국의 노래(Momo yer qo'shig'i, 1985)』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작가연합에서 어이벡(Oybek) 상을 수상했다.

그는 1986년부터 1991년 사이 집필하고 1993년 출판한 소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전답들(Otamdan qolgan dalalar)』로 1994년 압둘라 커드리이(Abdulla Qodiriy) 상을 수상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심리, 삶의 풍부함, 인간관계, 인간의 운명, 미래에 대한 걱정들을 이야기한다. 그 밖에 그의 대표작으로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 없다(Bu dunyoda o'lib bo'lmaydi, 2001)』가 있다.

터가이 무러트(Tog'ay Murod)는 번역가로서 J. 런던과 어니스트 이반 톰프슨(Ernest Evan Thompson)의 작품을 우즈베키어로 번역했다. 작가 터가이 무러트(Tog'ay Murod)가 2003년 5월 27일에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토가이 무로드, 토가이 무라드
- 다국어 표기 Tog'ay Murod(우즈베키어), Тогай Мурад(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어이벡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imov N., *XX asr O'zbek adabiyoti tarixi*, O'qituvchi, Toshkent, 1999.
Karimov Obidjon, *Yangi o'zbek adabiyoti tarixi*, Namangan, Namangan, 2016.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Fan, Toshkent, 1993.

I H050 | 터번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urban

터번은 머리 위에 모자를 쓰고 그 위를 둘둘 감는 가느다랗고 긴 천을 의미한다. 현재 아랍어에서는 암마에(Ammae: عمامة), 페르시아어에서는 데스타르(Destar: دستار)라고 하지만, 터번

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단어를 사용한다. 영어 식 표기인 터번(Turban)은 페르시아어 돌반드(dolband: تلبند)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사용되는 천의 종류로는 무명천이나 비단 등 각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기후가 만연한 국가와 인도 등에서 사용한다. 남성 무슬림과 인도 시크교도가 특히 많이 착용했으며, 과거 아나톨리아반도나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인 일부도 터번을 사용했다.

역사적으로 터번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역사가 짧지 않다. 헤로도토스(Herodotus, 기원전 484년~기원전 425년)의 기록에 의하면 바빌로니아인과 페르시아인은 터번을 사용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토라에 아론이 터번을 착용한 기록이 있고, 요셉의 것이라고 알려진 터번은 오스만 시대까지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아나톨리아반도의 4천 년 전의 조각이나 그림에서도 터번을 착용한 남성과 여성이 발견된다.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도 메카를 정복했을 당시 검은 터번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

무함마드는 흰색 옷과 흰색 터번을 즐겨 착용했고, 압바스 칼리프들과 귀족이나 중간 계층, 율레마들도 원통형의 모자에 짧게 터번을 감았으며, 이 터번은 어깨까지 감는 스타일이었다고 한다. 또한, 압바스 칼리프들은 특별한 자리에서 금사로 수놓은 비단 터번을 사용했고 관료들은 직급에 따른 터번을 사용했으며 무함마드의 후손은 초록색 터번을 착용했다.

터번은 일종의 계급화 과정을 거치며 일부 시대와 국가에서 비무슬림이 무슬림과 같은 형태와 색의 터번을 감는 것에 제한이 생기기도 했다. 수피교도들은 종단과 직위에 따라 터번의 종류와 색상이 달라지기도 했다.

터번을 남성의 상징으로 보기도 해 일부 문화권에서 성인식과 유사하게 터번을 감는 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일부 투르크 사회나 키르기스의 여성은 터번을 착용하기도 한다. 기혼 여성의



터번을 감은 쉴레이만 1세 초상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파란색 터번을 쓴 시크교도

경우 터번의 높이와 뒷부분에 놓인 수(繡) 문양에 따라 부족을 알 수 있다.

종교적으로는 인도 시크교의 경우 터번 착용이 의무이며,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터번을 다수 착용했거나, 현재도 착용하고 있다. 다만, 터번 착용이 순나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 터번은 코란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하디스에서 예언자 무함마드가 착용을 언급한 구절들이 있다. 터번이 순나인지 여부에 대해 우선 예언자와 그 동료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나 일상에서 착용하는 것은 순나라는 주장, 다음으로는 터번을 쓰고 생활했기 때문에 기

도를 할 때도 터번을 사용한 것이지만, 그래도 터번을 쓰고 기도한 것은 순나라는 주장, 이슬람 이전 시대에도 기후 때문에 터번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주장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터번, 사룩, 살라, 찰마
- 다국어 표기 Çalma(아제르바이잔어), sank(튀르키예어), Salla(우즈베크어), Салде(카자흐어), Чалма(타타르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encyclopedia.com/sports-and-everyday-life/fashion-and-clothing/clothing-jewelry-and-personal-adornment/turbans>
- 참고문헌(오프라인) Bozkurt; Nebi. İsmail Yalçın, "SARIK",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36, İstanbul: TDV; 2009, pp.152~145.
Türkoğlu, Sabahattin. *Tarih Boyunca Anadolu'da Giyim Kuşam*, İstanbul 2002.

I H051 | 터히르 말릭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Tohir Malik

터히르 말릭(Tohir Malik -Hobilov Tohir Abdumalikovich)은 1946년 12월 27일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터히르 말릭(Tohir Malik)은 현대 우즈베크 문학을 대표하는 문학가로서 우즈베크 판타지 소설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작가다.

터히르 말릭(Tohir Malik)은 타슈켄트 국립 대학 언론학과 야간 수업을 수강하면서 낮에는 건설 현장 노동자와 교사로 일했다. 터히르 말릭은 그 당시 같이 일했던 건설장 노동자들을 작품의 주인공들로 등장시켰다. 작가는 작품 속에서 인간의 영적 세계와 육체적 행위 사이의 논리적 연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며 더불어 최신 과학 연구 결과를 작품에 반영하고자 했다. 허버트 조지 웰스(Herbert



터히르 말릭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George Wells), 쥘 베른(Jules Verne), 알렉세이 톨스토이(Aleksey Tolstoy), 알렉산더 벨랴에프(Alexander Belyaev)와 같은 작가들이 그의 작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설 『팔락(Falak)』에서는 자헨기르 알리에브(Jahongir Aliyev) 교수가 만든 망자의 기억을 복원하는 기계를 통해 5세기 전 살았던 울루그 베그(Mirzo Ulugbek), 압둘바호브(Abdulvahob), 무프티(Mufti), 잠쉬드(Jamshid) 등의 영혼과의 만남이 묘사된다. 이 작품은 개인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대 인물과 과거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위인들이 대립하는 상상적 내용이다.

그밖에도 작가의 『물레방아(Charkhpalak)』, 『사냥(Ov)』, 『안녕, 어린 시절(Alvido, bolalik)』, 『사탄의 세계(Shaytanat)』, 『마지막 총알(So'ngi o'q)』은 우즈베크 문학사에서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다. 특히 『마지막 총알(So'ngi o'q)』은 7부작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터히르 말릭(Tohir Malik)은 2019년 5월 16일에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터히르 말릭
- 다국어 표기 Tohir Malik(우즈베크어), Тахир Мали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tohir-malik-1946>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raxmonov R., Mamajonov S., *O'zbek tili va adabiyoti: Tohir Malik*, Toshkent: O'zbekiston, 2002.
- Malik Tohir, *Falak*, ilmiy fantastic qissa, Toshkent: Yosh gvardiya, 1976.
-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I H052 | 테렐진 두르불진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성지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Tereljın Durvuljin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150km 떨어진 헤를렌강 우측에는 흉노 시대의 성터 5기가 분포한다. 북에서 남으로 테렐진 두르불진, 부리힝 두르불진, 후레트 도브, 운두르 도브, 고아 도브 성터가 차례로 위치한다. 이것들을 발굴하기 전에는 의례 공간으로 생각했다. 그 중에서 테렐진 두르불진과 고아 도브 유적을 발굴한 결과 이 유적은 최상위 계층의 생활 유적일 가능성이 밝혀졌다.

테렐진 두르불진 유적은 헤를렌강으로 흘러가는 테렐지라는 작은 하천의 동편으로 유적의 북쪽에서부터 동남쪽까지 높은 산이 둘러싸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으로 유목민들은 바람을 피해 가을이나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흉노 시대에 남겨진 유적지도 겨울 궁전지일 가능성이 있다. 유적은 230m×230m 규모의 방형 건물지이고 내부에는 50m×40m 규모의 대형 기와 건물지와 30m×20m의 건물지가 조성되어 있다. 1950년대 조사에도 기와 건물지의 존재가 확인되었지만 일상생활의 흔적을 보여주는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방형의 토제 전판만이 확인되어서 제사 유적으로 생각되었으나, 발굴 결과 궁전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아 도브 유적과 테렐진 두르불진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막새 기와의 문양을 제외하고

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두 유적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고, 고아도브 유적은 여름 건물지, 테렐진 두르불진 유적은 겨울 건물지로 생각된다.

역사가들은 흉노의 선우정을 몽골의 중앙에 위치한 향가이 산맥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이는 흉노 이후의 유연, 돌궐, 위구르, 몽골 제국까지 수도가 향가이 산맥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고학적으로 향가이 산맥 주변에서는 흉노의 선우정 유적이 발견된 적이 없다. 그래서 몽골에서 확인된 16개의 성터 가운데서 헤를렌 강변에 있는 5개의 유적이 최상위 귀족 계층일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 투바에 있는 아바칸을 제외하면 모두 헤를렌 강변에 위치한 성터에서만 기와 건물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테렐진 두르불진
- 다국어 표기 Тэрэлжийн дөрвөлжин(몽골어)
- 연관 검색어 고아도브, 흉노, 유연, 돌궐, 투바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G. 에렉젠·양시은,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17.
국립중앙박물관·몽골 과학아카데미 역사학고고학연구소·몽골 국립박물관, 『몽골 고아도브 흉노 유적』, 2017.
Л. Эрдэнэболд, Ц. Бямба-Очир, Н.Н. Крадин, А.Л. Ивлиев, С.А. Васютин, Е.В. Ковычев, А.Н. Харинский, 2016,
「Тэрэлжийн дөрвөлжин балгасанд явуулсан 2015 оны археологийн малтлага судалгаа

I H053 | 테르메스 궁전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ermez palace

테르메스 궁전은 카라한 칸국의 궁전으로 우즈베키스탄 서쪽에 위치한 구(舊) 테르메스시의 동쪽 외곽에 건설되었다. 서 카라한 칸국 대(大)카간 시대인 11세기에 건설되었고, 1129년~1130년 가즈나 조 바흐람 샤(Bahram Shah, 재위: 1117년~1157년) 시대에 복구가 이루어졌다. 왕조가 바뀐 이후에도 테르메스 궁전은 궁전으로서 역할을 계속했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



테르메스 궁전

당시 건물의 일부만 남아 있었다.

테르메스 궁전의 주재료는 벽돌이고 장식을 위하여 테라코타가 사용되었다. 평균 100mx74m 크기이고 내부에는 57mx47m의 중정이 있고, 중정의 중앙에는 정사각형의 수조가 있다. 정문은 건물 동쪽에 있으며 오지 아치로 되어 있다. 정문 반대편, 즉 건물 서편에는 이완이 있고, 이완에는 왕의 알현실이 있다. 알현실의 크기는 13.5mx11.5m이다. 알현실 앞에 작은 기둥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기둥을 연결하던 아치를 통해 알현실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알현실이 있는 이완 뒤에는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복도가 있다. 이곳 중앙은 아치로 세 회랑으로 나뉘어 있고 중랑이 다른 곳보다 넓고 높다.

이완, 알현실, 중정의 수조, 궁전 주변부에 배치된 방 등은 이 지역 전통이라기보다는 고대 사산 왕조 궁전의 흔적이 더 강하다. 이런 구조와 달리 카라한 칸국 궁전의 특성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장식 부분이다. 벽돌을 구조물의 형태에 따라 적절히 잘라 덮고 교차하여 배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양을 만들어냈다. 벽돌로 만들어낸 문양은 기하학 문양과 식물 문양으로 대략 30가지 종류가 있다. 벽돌 장식 이외에도 테라코타나 벽돌에 설화석고를 발라 그 위에 음각으로 기하학 문양, 나스크(Naskh) 서체 장식, 양식화된 동물 문양을 비롯하여, 그리폰, 머리가 하나이고 몸통은 두 개인 사자, 황소를 공격하는 사자, 날개 달린 사자와 같은 환상 동물도 자리하고 있다. 모든 장식은 직사각형 형태의 판 형태로 만들어졌다. 벽돌에 설화석고를 발라 음각한 장식 일부에 남아 있는 글로 보아 12세기 가즈나 조 시대 때 수리하면서 추가한 것이다. 이 장식 스타일은 이슬람 이전 시대부터 이후의 메소포타미아, 이란, 중앙아시아 장식 전통을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 화려한 벽면 장식 전통은 후에 인도-이슬람 건축 장식에 영향을 미쳤다.

테르메스 궁전은 칭기즈 칸의 침략으로 인해 대부분의 당대 건축이 소실된 이 지역에서 중세 중앙아시아 이슬람 왕조 궁전 건축 흔적이 남은 몇 안 되는 귀중한 사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테르메즈 궁전, 카라한 궁전, 카라한 왕들의 궁전, 카라한 궁, 카라한 칸국 궁전, 카라한 술탄의 궁전

● **다국어 표기** Termez palace(영어), Palace of the Qarakhanids(영어), Tirmiz Sarayı(튀르키예어), Termizshohlar saroy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카라한 칸국, 우즈베키스탄, 칭기즈 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Cezar, Mustafa. *Anadolu öncesi: Türklerde şehir ve mimarlık*, İstanbul : Türkiye İş Bankası, 1977.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bevi, 2015.

Çeşmeli, İbrahim. *Antik çağdan 13. yüzyıla kadar Orta Asya ve Karahanlı dönemi mimarisi*, İstanbul : Arkeoloji ve Sanat yayınları, 2007.

I H054 | 테멧투아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공문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emettuat

1839년~1876년 오스만 제국이 시행한 개혁 정책이었던 탄지마트 시기에 오스만 제국 중앙 정부는 세제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따라 세금의 출처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었으며,

1840년 인구 조사와 함께 소득 출처를 조사하게 되었다. 이를 테멧투아트(Temettuat)라고 한다. 테멧투아트는 ‘이득’, ‘소득’, ‘이익’ 등의 의미를 지닌 테메튀(temettü)의 복수형이다. 개혁 이전까지는 소득 출처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각각 지불해야 했는데, 이를 대신하여 부동산과 동산을 비롯해, 연 소득을 고려하여 지불 능력에 따른 세금 계산법을 정비하게 된다. 이전 시대의 소득세가 신고에 기반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이 조사에 기반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된 것이다.

이 소득 출처의 조사 결과 약 20,000권에 달하는 문서가 완성되었으며 이를 테멧투아트 또는 테멧투아트 데프테리(Temettuat defteri)라고 한다. 이 문서에는 탄지마트 시기에 시행된 새로운 행정 구역 명칭에 따라 가장 작은 행정 구역 단위로 납세자의 성명, 소득원, 소득원에 따른 연간 수입, 이 수입에 따른 결정 세액이 기록되어 있다.

테멧투아트는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되었으며, 행정 구역 이름을 시작으로 1-납세자(가장)의 이름 및 직위, 직업, 2-동산 및 부동산(납세자가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경작지, 휴경지, 과수원, 포도밭 등, 임대한 토지와 임대를 준 토지), 가축의 종류와 수, 제분소나 상점과 같은 부동산 자산의 수와 크기, 3-납세자의 소득(2의 자산을 통한 수익 또는 임대 소득, 가장을 비롯하여 가구 구성원의 상업 및 노동으로 인한 소득), 4-납세액(가구 가장이 지불한 소득세액, 비무슬림 가구의 경우 가장과 다른 가구 구성원이 지불해야 하는 지즈야(Jizya)의 종류와 금액, 농민이 지불하는 십일조(aşar vergisi) 금액, 현물로 지불된 세금의 실제 현금 가치)가 기록되어 있다. 각 가구의 자산 기록 후 총 세액도 기록했으며, 이외에도 지난해 소득세, 십일조, 의무 세액, 내년도 추정 소득세, 연간 임대 소득과 그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세액, 차년도 추정 세액 등을 기록했다. 또한, 마을 단위별로 징수될 세금의 총 액수를 마지막에 기록했다.

이 문서에는 개인 정보 기록 시 인상 착의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면세자, 이민자, 재산이 없거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표기했다. 이와 함께 비 무슬림들의 경우 따로 구분해서 표기했다. 비 무슬림의 경우 이름, 직업 그리고 지즈야의 유형 순으로 작성되었다. 과부나 연로한 여성은 사망한 남편의 이름으로, 고아들의 경우 성인 후견자의 이름으로 적혔다.

이 조사는 각 행정 구역 단위 관리자가 조사했으며 세금 담당 관리인 무하슬(muhasıl)이 책임자가 되었다. 1845년 제도의 변화로 이후에는 무슬림들의 조사는 마을 이장이라 할 수 있는 무흐타르(muhtar)나 마을 이مام이 책임졌고, 비무슬림의 조사는 사제나 랍비의 책임하에 작성

되었으며, 기록 끝에는 이들의 도장이 찍혔다.

이 조사를 통하여 오스만 제국은 경제 분야를 정비하려고 했다. 또한, 탄지마트 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경제적 잠재력을 조사하고,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금융 개혁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재 테멧투아트 문서는 오스만 제국 시대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 연구에 있어서도 귀중한 사료로 활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테메투아트

● 다국어 표기 Temettuat(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Yükçü, Süleyman. Nur Fidancı, Umut Soysal. “Osmanlı Devleti’nde Temettuat Defterleri’nin Önemi ve Vergisel Açıdan Değerlendirilmesi: Tire Kazası Örneği”, *Muhasebe ve Finans Tarihi Araştırmaları Dergisi*, (7), pp.170~199.

Kütükoğlu, Mübahat S., “Osmanlı Sosyal ve İktisâdî Tarihi Kaynaklarından Temettü Defterleri”, *Belleter*, Ağustos 1995, Cilt 59 – Sayı 225, pp.395~412.

I H055 | 테미르 코무즈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imir khomys

투르크인들의 현악기로 알려진 코무즈는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테미르(temir 쇠, 철/현대 튀르키예어 demir) 코무즈라고도 불리며, 투르크 세계 전역에서 흔히 관찰된다. 테미르 코무즈는 쇠스랑 사이에 혀를 위치하여 고정시킬 수 있도록 가운데에 금속을 덧댄 입으로 붙여 연주하는 악기이다. 쇠스랑에는 앞니를 고정시키고, 손가락으로는 쇠스랑 사이에 위치한 금속을 튕겨 혀를 진동시킨다. 구강 내부를 마치 속이 빈 상자처럼 진동시켜, 울림소리를 만들어내는 원리를 활용한 것이다.

이 악기는 주로 금속으로 제작되지만, 투바족, 알타이족의 경우 나무를 이용해 제작한다. 사

하-야쿠트인들 사이에서 코무즈는 일반적으로 악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지만, 동시에 ‘마법, 마술’의 의미로도 사용되기도 한데, 코무즈는 악기임과 동시에 주술적 의미를 담은 종교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레쉴브스키(Seroşevskiy)는 새와 동물의 소리를 모방하는 악기인 코무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사하 투르크인들은 코무즈 이외에 어떠한 악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이 악기를 입술 사이에 위치시키고 쇠스랑 중간부에 용수철이 달려 있는 금속부를 손가락으로 활시위를 당기듯 가볍게 튕겨낸다. 이와 혀를 사용하여 다양한 억양을 만들어낸다. 그들은 이 악기 연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티미르 코무즈, 테미르 호무즈
- 다국어 표기 Komus(알타이어), Homus(사하_야쿠트어), Vargan-Варган(러시아어), Ağız kopuzu(튀르키예어), Ooz komuz(키르기스어), Shan kobyz/Şan kobız(카자흐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JEKNQybuulM>
- 참고문헌(오프라인) Aktaş, E. “Hakas Folklorunda Müzik Aletleri ile İlgili Efsaneler.” *Türklük Biliminde Gür Bir Ses Prof. Dr. İsa Özkan’a Armağanı* içinde (ss. 115- 135). Editörler: İbrahim Dilek, İhsan Kalenderoğlu. Ankara: 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 Yayınları. 2019.

I H056 | 테브라트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유대교 ● 유형 소분류2 경전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Tevrat

테브라트는 유대교의 경전 토라를 가리키는 아랍어 ‘타우라(Tawrah)’의 튀르키예어 발음이다. 제퍼리(Arthur Jeffery)는 타우라가 히브리어 토라에서 직접 아랍어로 차용되었고, 무함마드 시대 이전에 이미 아랍 사회에 알려졌다고 주장한다. 유대교에서 토라는 법을 뜻하고, 히브리 성서의 창세기, 이집트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다섯 권의 책을 가리킨다.

토라는 다시 구전(口傳) 토라와 문서(文書) 토라로 구분한다. 구전 토라는 위 다섯 권의 책,

즉 문서 토라에 기록되지 않고 입으로 전해진 토라를 뜻한다. 말로 전해진 구전 토라를 기원후 200년경에 집대성했는데, 이를 미슈나(Mishnah)라고 한다.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서는 이슬람 이전에 유일신 신앙인에게 내린 경전으로 모세의 토라, 다윗의 자부르, 예수의 인질을 든다. 코란은 토라를 모두 18번 언급하는데, 메디나 계시에만 나온다(3:3, 3:48, 3:50, 3:65, 3:93(2번), 5:43, 5:44, 5:46(2번), 5:66, 5:68, 5:110, 7:157, 9:111, 48:29, 61:6, 62:5).

코란에 따르면 이브라힘(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스라엘) 이후에 계시된 토라는 알라의 법을 담고 있는데, 예수는 토라를 확증했고, 토라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출현을 예고한다. 경전을 가진 백성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알라의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책을 싣고 다니는 나귀로 묘사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토라

● 다국어 표기 Tawrah(아랍어), Tevrat(튀르키예어), Tavrot(우즈베크어), Tövrät(아제르바이잔어), Təypar(카자흐어), Töwrat(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인질, 자부르, 코란

● 참고문헌(오프라인) Adang, Camilla P. "Torah." In *Encyclopaedia of the Qur'an*, 300–311. Vol. 10. Leiden, Boston, and Köln: Brill, 2006.

Jeffery, Arthur. *The Foreign Vocabulary of the Qur'an*. Baroda, India: Oriental Institute, 1938.

Kassis, Hanna E. *A Concordance of the Qur'an*. Berkeley and Los Angeles,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Lazarus-Yafeh, Hava. "Tawrät."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393–395. Vol. 10. Leiden: Brill, 2000.

I H057 | 테브피크 피크레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Tefvik Fikret

테브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는 1867년 12월 24일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휘세인은 찬크르 시(市) 바이람외렌 지역 달코즈 마을에서 이스탄불로 이주해 정착한 아흐메트 아아(Ağa)의 아들이었다. 어머니 하즈 하티제 레피아는 1822년 그리스 반란으로 고아가 된 채 오스만 제국으로 피난 와서 무슬림이 된 키오스섬 출신 그리스인의 딸이었다. 테브피크 피크레트에게는 스투카라는 여동생이 있었다.

피크레트가 9살 때 1876년 헌법이 공포됐고, 2년 뒤 압뒬하미드 2세가 의회를 휴회시켰다. 그가 12살 되던 해에 메카로 성지 순례를 떠난 어머니와 외삼촌이 돌아오는 길에 콜레라에 걸리면서 돌아가셨다. 고아가 된 피크레트가 크게 동요하자 이후 외숙모와 외할머니가 피크레트와 여동생을 돌봤다. 학업은 마흐무디예 중등학교,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에서 이어갔다.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면서 피크레트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여기서 무알림 나지, 레자이 차데 마흐무트 에크렘, 무알림 페이지 같은 뛰어난 교사들 덕분에 주요한 아나톨리아 문학 작품들을 접했고 프랑스인 교사들의 도움으로 서양 문학을 접할 수 있었다. 교과목으로 프랑스어를 배워 프랑스 문학에도 관심을 두게 됐는데 몽테스키외, 루소, 볼테르 같은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 쓴 글을 읽을 수 있었다. 피크레트의 감성적인 성격과 경험, 교사들의 영향으로 그는 시를 쓰게 됐다.

피크레트가 처음으로 쓴 시는 1883년에 발표되었고, 1888년 그는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1894년 친구인 휘세인 카즘 카드리, 알리 에크렘과 함께 잡지 <마루마트(Ma'lûmât)>를 창간했다. 이 잡지에 시와 번역물을 실었다. 같은 해 멕테비 술탄니(Mekteb-i Sultânî, 현재 갈라타사라이 고등학교)의 튀르키예어 교사 모집에 응시했고 합격해 임명됐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 임금을 체불하자 사직했다. 1896년부터 잡지 <세르베티 뤼눈(Servet-i Fünûn)>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로버트 사립 학교에서 삶의 마지막까지 튀르키예어 교사로 근무했다.

1896년 2월 7일부터는 잡지 <세르베티 뤼눈(Servet-i Fünûn)>을 맡아서 발행하게 된다. 이 때는 튀르키예-그리스 전쟁이 시작됐던 해이다. 피크레트는 이 시기에 '조국'에 대한 무거운 감정을 시에 나타냈다.

1898년 피크레트와 그의 아버지가 체포된다. 풀려난 뒤에도 계속 감시를 받았다. 감시받게 싫었던 피크레트는 먼저 몇몇 친구들과 함께 뉴질랜드, 그리고 이후에는 휘세인 카즘 카드리의 사르참(아다나) 마을에 있는 농장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에서 그는 작은 코뮌 공동체를 설립

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정적인 한계와 지식인들에 대한 아나톨리아 이주 금지령 때문에 이 계획은 실현할 수 없었다.

잡지 <세르베티 뤼논>이 정치적 표현을 하자 오스만 정부가 주시하게 되었다. 테브피크 피크레트는 사회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서 오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사회주의 투쟁에 불을 붙이는 글을 쓰고자 했으나 자유롭게 시를 쓰고 출판하는 것이 어려운 삼엄한 분위기에서 ‘혁신적이고 선동적’ 시를 쓰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테브피크 피크레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튀르키예 문학사에서 <세르베티 뤼논(에데비야트 제디데)> 동인들은 탄지마트 이후 실질적이며 서구적인 혁신을 이뤘다. 이들의 모든 활동은 테브피크 피크레트가 운영하는 잡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테브피크 피크레트는 튀르키예 문학에서 ‘청년은 지식인’이라는 관념을 처음 세웠다. 혁명가, 사회주의자의 관점으로 역사를 이해했고, 박제된 생각 대신에 빛이 나는 생각과 과학적 사고가 익숙해지도록 노력했다. 술탄과 칼리프 제도를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풍자하고 비판하면서, 피크레트는 이런 시각을 튀르키예 문학에 들여왔다.

테브피크 피크레트는 『할루크의 공책(Halûk'un Defteri)』에서 자필로 책을 만들듯이 시 사이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도 삽입했는데 상당히 잘 그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뇨가 있던 피크레트는 1915년 연초에 앓아누웠다.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채 8월 18일에서 19일로 넘어가는 밤에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가족 묘지가 있는 에위이프 술탄에서 진행했다. 이후 1945년 피크레트의 유언에 따라 이스탄불 시에서 에데비야트 제디데 박물관을 세웠다. 그의 무덤은 루멜리히사르에 있는 아시안의 공원으로 이장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테오피크 피크렛
- 다국어 표기 Tevfik Fikre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압뮐하미드, 이스탄불, 루멜리히사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Bayrak Mehmet, *Tevfik Fikret ve Devrim*, Yorum Yayınları, Ankara, 1973.
Bölükbaşı Rıza Tevfik, *Tevfik Fikret: Hayatı, San'atı, Şahsiyeti* (Hazırlayan: Abdullah Uçman), Kitabevi Yayınları,

İstanbul, 2005.

Kurdakul Şükran, *Çağdaş Türk Edebiyatı Meşrutiyet Dönemi*, Broy Yayınları, İstanbul, 1986.

Yücebaş Hilmi, *Bütün Cepheleriyle Tevfik Fikret: Hayatı, Hâtıraları, Şiirleri*, Dizerkonca Matbaası, İstanbul, 1959.

I H058 | 테우케 칸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auke Khan

테우케 칸(Tauke Khan)은 1635년 투르키스탄에서 출생하여 1718년 고향에서 사망한 카자흐 칸국의 15대 칸(제위: 1680년~1715년)으로서 칭기즈 가문이다. 17세기 중엽 이후 카자흐 칸국은 다방면으로부터 외적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우선 서쪽으로는 불가강 하류의 칼묵족과 바쉬키르인들이 공격해 들어 왔다. 북쪽에서는 시베리아 코사크족들의 침입이 있었고, 남쪽에서는 히바 및 부하라 칸국의 우즈베크인들의 침입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했던 것은 동남부의 중가르족의 침입이었는데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중가르족의 카자흐인들에 대한 공격은 카자흐인들의 거주 영역과 일상생활에 대해 심대한 피해를 주었다. 이에 카자흐 칸국의 지도자인 테우케 칸은 중가르족의 침입에 대항하여 1686년부터 1693년까지 제정 러시아에 사절단을 보내어 양국의 협력을 도모했다. 1717년 러시아에 편입되려는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칸의 사망으로 중단되었다. 중가르족의 침략은 시르다리아 중류에 위치한 수도 투르키스탄을 비롯하여 주요 거주지를 동쪽이나 중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카자흐인들과 오랫동안 인연을 갖고 있던 타슈켄트 지역이 우즈베크인들의 영향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변화를 초래했다.

테우케 칸의 업적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바로 당시 카자흐인들의 전통적 관습에 기초한 ‘제티 자르기(7조 법전)’의 제정이다. 이 법령은 카자흐 칸국의 행정 체계, 가족에 관한 규정 및 조세와 종교적인 부분을 체계화시킨 것으로서 국가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었다. 테우케 칸 사후 카자흐 칸국은 세 쥬즈의 분열이 심화하면서 외적의 침입에 극도로 취약하게 되었

다. 대주즈, 중주즈, 소주즈 등은 각자의 최고 지도자로 자체 칸을 선출하고 독자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카자흐 칸국의 세력 약화로 귀결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타우케 칸
- 다국어 표기 Тәуке хан(카자흐어), Тауке-х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PAV83fsm0FA>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history.kz/ru/prominent-figures/show/12646/>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5 , Алматы,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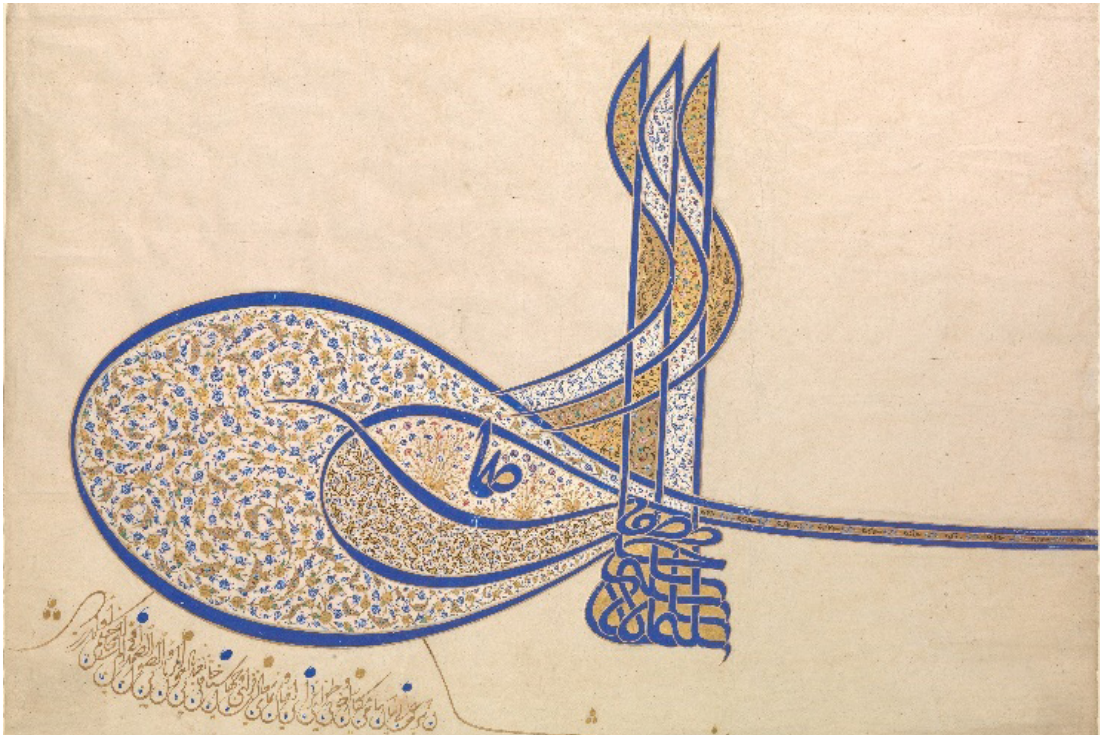
I H059 | 테즈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미술 ● 유형 소분류2 장르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ezhip

아랍어 ‘금으로 장식하다’, ‘장식’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어원으로 삼는 테즈힙은 서적이거나 헌판과 같이 글이 있는 작품을 다양한 문양으로 장식하는 예술 분야이다. 테즈힙 예술가를 뮈제히히브(müzehhib)라고 한다. 테즈힙은 보통 18k나 22k의 짙이긴 금과 다양한 색상을 이용한다. 테즈힙 예술의 기본은 하나의 큰 문양을 구성하는 다양한 문양이다.

보통 술탄이나 재상, 고위 관료나 유명인에게 바치는 책이나 특별하게 제작된 서적, 특히 시집을 테즈힙으로 장식한다. 코란의 경우 보통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 각 장의 첫 부분에 이 테즈힙 장식이 사용된다. 이 장식은 서적의 문장 사이나 시의 행 사이에, 페이지 모서리에 사용되기도 한다.

보통은 모델이 되는 기본 형태의 문양이 있고, 이를 작가의 상상에 따라 변형하되 원형은 바로 알아볼 수 있게 그린다. 이런 형식으로 그려진 문양을 ‘양식화’라고 한다. 자연에 존재하는 식물을 따와 양식화한 것을 하타이(hatâyi) 그룹이라고 부른다. 이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 단순하고



엘레이만 1세 투오라를 장식한 테즈히
Source: <https://images.metmuseum.org/>

작은 크기로 양식화되었다. 앞사귀 문양, 위에서 내려다본 꽃문양, 꽃을 반으로 자른 문양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카네이션, 백합, 장미, 시클라멘과 제비꽃 문양 등은 매우 적은 부분만 양식화되어 원형을 바로 알아볼 수 있어 원래의 꽃 이름 그대로 부른다.

동물과 관계된 문양은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시무르그, 용, 용마와 같이 상상의 동물 문양과 사슴, 가젤, 사자, 토끼, 새, 표범, 물고기, 황새와 같이 실제 동물 일부분만을 양식화하여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동물 문양이다. 중앙아시아와 이란의 장식 예술에서 자주 사용된 이 문양들은 오스만 시대 서책 예술, 주로 세밀화 서적이거나 글이 없는 판본에 사용되고 종교 서적이거나 종교적인 문구가 담긴 장식품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곡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겹치거나 얹혀 다시 곡선 문양을 만든 뮌하니(Münhanî), 구부러진 가지 앞사귀와 유사한 루미(Rûmî), 구름 문양인 친 불루투(Çin bulutu) 등이 있다.

앞서 언급한 이 문양들이 모여 다시 하나의 무늬를 이루게 된다. 서적에 장식하기 적당한 부



테제피르 모스크의 테즈히프(바쿠, 아제르바이잔)

분에 디자인하여 이 문양들을 배치하는 것이다. 보통은 서적의 제목 부분이나 글의 주변부는 패널 형태로 대칭을 이루는 디자인을 선호하고 글과 글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등을 채울 때는 자유롭게 디자인한다.

테즈히프 예술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존재하나 투르크의 경우 중앙아시아에서 위구르족과 함께 등장했고 발전하게 된다. 셀주크 시대에 이란에서부터 아나톨리아로 이동하며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테즈히프 예술은 시대마다 자신들만의 특성을 살려 발전하게 된다. 극동과 이란의 영향, 맘루크 예술의 영향, 아나톨리아 공국 시대의 유산 등 여러 요인들이 모여 16세기 오스만 시대에 큰 발전을 이루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서책 장식, 책 장식
- 다국어 표기 Ottoman illumination(영어), Tezhib(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세밀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images.app.goo.gl/F46M6obfsCQSXMoi6>

https://www.kulturportali.gov.tr/repoKulturPortali/small/Peteklcon/Tezhip2_20180301155717337.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irol, İnci A. *Türk Tezyîni Sanatlarında Motifler*, İstanbul : Kubbealtı neşriyâtı, 1992.

Özcan, Ali Rıza (ed). *Hat ve Tezhip Sanatı*, Ankara;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2009.

I H060 | 테케멧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주거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ekemet

테케멧(Tekemet)은 카자흐스탄의 전통 가옥에서 많이 보이는 펠트로 만들어진 일종의 카펫이나 바람막이 벽이다. 처음에는 보통 무늬 없이 밋밋한 형태의 펠트를 사용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얼룩덜룩한 색채와 무늬가 그려졌다. 전통적으로 카자흐인과 키르기스인들이 펠트를 이용하여 바닥용이나 방풍용 보온 내부 벽 장식으로 널리 이용했다.

펠트 제작 기술은 카자흐인들이 옛날부터 고안한 것으로 그 시기는 대략 기원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목민들은 천막집(유르타)을 이용하여 주거 시설을 만들었고 거기에 벽이나 바닥재 형태로서 펠트를 이용하여 온기를 유지했고 외풍도 막았다. 동시에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 질병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게끔 했다. 정착 생활이 아닌 이동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로서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면 쾌적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펠트 기술은 시간이 더함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무늬가 첨가되고 다양한 색조가 가미되었다. 본래 흑백 두 가지 양모실로 제작되던 것이 염색 기술의 발달로 빨강, 파랑, 노랑 등 색깔 있는 실이 등장하여 아름다운 형태의 모습으로 발전되어 오늘날에 이른다. 펠트 제작 기술은 현재 카자흐스탄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명절이나 주요 축제 및 특징적인 건물 내에서 이러한 펠트의 디자인이나 색채를 확인할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테케메트
- 다국어 표기 ала кийиз(키르기스어), текемет(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알라 키이즈(ala kiyiz), 쉬르닥(shyrdak)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ig8US_V5BuY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unesco-ichcap.org/eng/contents>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H061 | 텍케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종교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ekke

텍케는 간단히 정의하면 수피 종단이 예배, 수행, 교육 및 숙박을 할 수 있는 건물로 아랍어와 오스만 튀르키예어에서는 테이케(tekye)로 표기되고 현대 튀르키예어로는 텍케(Tekke)로 표기한다. 어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최초의 텍케가 언제 건설되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이 다양한 학설이 존재한다.

현대 튀르키예어를 기준으로 자위야(Zawiya), 한카흐(hankah), 데르가흐(dergâh), 리바트(ribât), 아시트하네(âsitâne), 부카(buk'a), 이마렛(imaret) 뒤베이레(düveyre), 사브마아(savmaa), 미흐랍(mihrap), 테브히드하네(tevhidhâne), 하라바트(harâbat)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텍케는 사회의 정신적, 도덕적인 측면을 교육하는 기능이 중심이었다. 초기의 텍케는 방 하나와 작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일반적으로 텍케는 종단의 창립자, 지도자, 신학자 또는 국가 통치자에 의해 건설되며 상황에 따라 워크프의 도움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국가 통치자의 수피즘에 대한 철학 또는 신념이 텍케의 증설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셀주크 조 이전의 텍케는 특정 종단의 소속 기관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13세기 이후에 텍케



할라 술탄 텍케(Hala Sultan Tekke, 키프러스)

는 수피 종단의 활동 중심지가 되었고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종파 창립자의 영묘가 있는 텍케가 해당 종파의 중심 텍케로 받아들여졌다.

수피즘이 아직 종파 형태로 자리 잡지 않았던 9세기 초에 수피들과 신도들이 모여 대화를 하고 지식을 나누었던 장소는 집 또는 집을 개조한 곳이었으며, 그들은 기도 시간에 모스크에 갔고 정주하지 않던 수도승들이 숙박을 해결하던 곳은 리바트(ribat: 군사 업무를 병행하던 대상 숙소 일종)였다.

9세기 초, 페르시아-투르크의 문화권의 호라산 지역에서는 수피와 셰이크가 머물던 한카(hankah)라는 건물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텍케와 유사하다. 당시의 건축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여러 자료를 통해 대체로 일반 가옥을 사용하거나, 가옥을 변형시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기 가옥 건축의 특징인 네 개의 이완이 있는 건축물이었

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피 종파가 새롭게 조직되는 대 셀주크 조 시기인 11세기 중반에 이르러 한카의 개념이 셀주크인들과 함께 서쪽으로 퍼지게 된다.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아나톨리아에 텍케인 한카를 건설하게 되었으며 압바스 조에 의해 이집트로 이동해 맘루크에 의해 계속 건설하게 된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가옥을 넓은 형태로 건설한 것으로 보인다. 11세기~15세기는 텍케 건축이 발전하는 시기로 가옥을 변형시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투르키스탄과 호라산 출신의 투르크계 왕국들이 지배하게 되는 투르키스탄, 호라산, 북인도, 이란, 이라크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아나톨리아 지역의 텍케는 대부분 초기 호라산 한카의 네 개의 이완을 바탕으로 한 건축에 영향을 받아 건설하게 되었다. 또한, 모스크의 역할을 하는 중심 건물 앞에 샤프르반이 있는 중정을 두고 주변에 건물을 나열하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냈다. 작은 크기의 텍케의 경우 후원자의 영묘를 중심으로 영묘와 건물을 연결하여 구성하는 방식이 널리 퍼지기도 했다.

아제르바이잔과 이란의 셀주크와 일 칸국 시대의 아제르바이잔 및 셀주크 아타베그 시대 말기의 경우 한카는 바위산 정상에 위치했으며 벽과 성으로 둘러싸여 요새와 같은 역할을 했다. 옥외 중정 주변에 한카 건물 사이에 솟은 미너렛은 망루 역할을 했다.

맘루크 조의 이집트의 경우 자위와, 한카, 쿠베 등 3종류로 나누어졌다. 자위와의 경우 정사각형으로 배치된 건물에 돔이 있는 건물이 주요 의식 장소로 사용되었고, 관리 계층이 건설하고 와크프가 지원한 한카의 경우 마드라사와 유사한 구성으로 옥외 중정과 네 개의 이완, 각 이완 사이에 부속 건물이 위치한 형태였다. 쿠베의 경우 나일강 근처에 정사각형 플랜에 돔이 있는 저택 형태로 정원이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및 공국 시대에는 텍케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중앙에 옥내 중정과 이완, 그리고 이완 사이에 부속 건물이 있는 형태다. 중정 건물에서는 주요 행사 및 기도를 드리게 된다.
- 옥외 중정을 중심으로 갤러리가 둘러싸인 형태이다.
- 옥외 중정 중앙에 영묘 건축이 있는 형식이다.
- 리바트/대상 숙소와 연결된 형태이다.



외즈베허레르 텍케(이스탄불)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각 건물이 서로가 인접해 있는 직사각형/정사각형 도면으로 돔이나 볼트로 각 건물을 연결한 형태이다.

오스만 제국에 이르러서는 국토가 넓어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경향을 가지지만, 공통적인 요소로는 기도 및 의식이 치러지는 주요 건물과 숙소가 나뉘며 숙소는 오스만 시대 가옥 건축과 같이 셸람룩(남성 공간)과 하렘(여성 공간)으로 나뉘며, 하렘에는 셰이크와 그 가족이 머물게 된다. 그 외에 도서관이나 학교, 수조와 같은 다양한 부속 건물들이 있다. 이런 공통점을 중심으로 크게 분류하면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옥외 중정과 갤러리가 있는 오스만식 마드라사와 부속 건물 및 숙소가 공유하는 공동 중정이 있는 형태

- 주요 건물(기도 및 의식)과 연결된 영묘, 샤드르반이 있는 중정이 있는 형식
- 기도와 학습 같은 부분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부분이 완전히 같은 형식. 즉 한 공간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옥 건축과 유사하게 설계된 방식 등

이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현대에의 일부 국가에서는 서구화나 공산주의 등의 영향으로 수피운동이 금지되면서 텍케가 박물관이나 모스크로 개조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테케

● 다국어 표기 khaṅqah(영어), tekke(튀르키예어), Xanəqah(아제르바이잔어), Təkya(아제르바이잔어), Ханәка(카자흐어), Xonaqoh(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데르야흐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a, Mustafa. “Tekke”,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40, İstanbul: TDV, 2011, pp.368~370.

Tanman, M. Baha. -Sevgi Parlak, “Tekke”,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40, İstanbul: TDV, 2011, pp.370~379.

Parlak, Sevgi. “Tarikat Yapıları”, *Anadolu Selçuklular ve Beylikler Dönemi Uygarlığı II* (ed. Ali Uzay Peker-Kenan Bilici), Ankara :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2006, pp.391~419.

I H062 | 텐산 산맥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산맥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ien Shan

일반적으로 텐산(天山)이라고 약칭해서 불리는 텐산 산맥은 일 년 내내 녹지 않는 만년설에 덮여 있어 옛날에는 바이산(白山) 또는 쉘산(雪山)이라고 불렸으며, 당나라 때는 저뤄만산(折羅漫山)이라고 불렸다. 동서주향(東西走向)의 습곡단괴로 이루어진 산맥으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중부를 가로지르며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등 4개국에 걸쳐 있다.



텐산 산맥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서쪽의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싱싱샤(星星峡)에 이르는 동서의 길이는 약 2,500km, 남북의 너비는 250km~300km이다. 평균 해발은 약 5,000m이며, 최고봉은 키르기스스탄과 중국 국경에 있는 해발 7,435.3m의 포베다산(Pobeda Mt, 중국명은 토틀봉(托木尔峰))이다. 그 밖에 주요 봉우리로 한텡그리봉(汗腾格里峰, 6,995m), 보거다봉(博格達峰, 5,445m)이 있으며, 3,000m~4,000m급의 봉우리들이 즐비하다. 약 200만~300만 년 전에 형성된 젊은 산계(山系)에 속하며, 전체적으로 3열의 산맥으로 이루어져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북텐산(北天山), 중텐산(中天山), 남텐산(南天山)으로 구분한다. 지형은 산지와 산간 분지 그리고 산자락 평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간 분지로는 하미 분지(哈密盆地)·투르판 분지(吐魯番盆地)·이리 곡지(伊犁谷地) 등의 함몰 분지가 있으며, 남쪽으로 파미르고원과 이어진다.

산정의 빙하가 녹은 물이 흘러내려 강을 이루는데, 시르다리야강, 이리강, 추강 등이 이 산맥에서 발원한다.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사막과 스텝 지역을 2,900킬로미터나 가로지르는 텐산 산맥(혹은 ‘천산 산맥’)은 가파른 비탈과 깊은 협곡, 빙하, 순백의 설원을 간직한 곳이다. 최고봉인 피크포베디는 무려 7,439미터나 솟아 있으며 그보다 낮은 한텡그리 봉은 6,995미터이다. 두 산 모두 카자흐스탄 국경 근처에 있으며 이 산맥은 러시아의 표트르 세묘노프가 1865년에 처음



키르기스스탄 나린 지역에서 바라 본 텐산

으로 탐험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에서 여정을 시작한 세묘노프는 ‘신성한 호수’라는 의미의 이식-쿨 호수에 처음으로 도착했다. 이 호수는 세계 최고의 산악 호수로 호수의 물이 절대 얼지 않는다. 이듬해 그는 산타시 고개를 지나 텐산으로 들어갔다.

지정된 면적은 60만 6833ha이며, 주변의 완충 지역(Buffer zone) 면적은 49만 1103ha이다. 지정된 면적은 토티무얼(托木爾, Tomur) 구역과 카라진-쿠얼더닝(喀拉峻-庫爾德寧, Kalajun-Kuerdening) 구역, 바인부루커(巴音布魯克, Bayinbuluke) 구역, 보거다(博格達, Bogda) 구역의 4개 구역으로 구성되는데, 각 구역은 지리적 특징과 식생대에 따라 나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천산 산맥
- 다국어 표기 天山山脈(중국어), Tannı Dağları(튀르키예어), Tian Shan(영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The Contemporary Atlas of China. 1988. London: Marshall Editions Ltd. Reprint 1989.

Sydney: Collins Publishers Australia. The Times Comprehensive Atlas of the World. Eleventh Edition. 2003. Times Books Group Ltd. London.

I H063 | 텔레우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Teleuts

텔레우트는 러시아의 투르크계 민족으로 스스로를 텔렌겟테르(теленгеттер), 타다르라르(тадарлар), 텔렝쿠트 등으로 부른다. 텔렝구트는 몽골어로 ‘하얀 칼미키 사람’(белый калмыки)이란 뜻이다. 텔레우트의 어원인 텔레(Телә)는 5세기 흉노가 세운 고창국(高昌)과 열반국(悅般)을 멸망시킬 정도의 군사적 성공을 거둔 고대 투르크계 민족인 철륵(鐵勒, 또는 정령丁零, 고차高車라고도 부름)을 일컫는다.

오랜 기간 역사에서 사라졌으나 원조(元朝) 비사에서 텔레우트가 언급되면서 몽골의 영향하에 속했음이 확인되었다. 러시아 문헌에서는 1601년 ‘하얀 칼미키’로 기록되면서 몽골 군사 집단의 일부로 처음 기록된다. 18세기 대부분의 텔레우트인들은 중가르 왕국으로 이동했는데, 중가르가 청에게 멸망하면서 텔레우트 종족 공동체는 와해되었다.

현재 텔레우트인들의 대부분은 러시아의 케메로프 주(州)(2,643명)에 살고 있으며 알타이 공화국과 알타이 변강에 극소수가 산다. 텔레우트인들은 알타이인들과 밀접한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투르크어계 키르기스-킵차크어(하카스어)와 가까운 텔레우트어를 사용한다. 현대의 텔레우트인들은 러시아 정교를 믿지만 샤머니즘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고대 텔레우트인들은 조장(鳥葬, sky burial)이라는 장례 풍습도 갖고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텔레위트
- 다국어 표기 Телеуты(러시아어), Teleütle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키르기스-킵차크어, 하카스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bigenc.ru/ethnology/text/4186326>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H064 | 텔렝기트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Telengits

텔렝기트인은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의 소수 민족이자 알타이 민족의 하위 민족(sub-ethnicity)이다. 인구는 3만 7천 명이며, 그중 3만 6천 명이 알타이 공화국에 살고 있다(2010년 기준). 대부분의 텔렝기트인들은 인구 조사에서 스스로를 알타이인으로 표기했다.

이들은 출림시만강과 추야강 사이에 살고 있으며, 알타이어의 방언, 러시아어, 카자흐어로 말한다. 주로 러시아 정교를 믿는다. 생업은 유목과 반유목 목축이며(사슴, 말, 낙타, 야크 등), 독특한 펠트 직조, 뜨개질, 무두질, 목공예 전통이 보존되고 있다. 주거 형태는 주로 키이이스(кийис), 케레게 아이일(кереге айыл)이라고 불리는 유르트나 차디르(чадыр), 알란치크(аланчик)이라고 불리는 나무껍질로 덮인 원추형 천막에서 거주한다.

텔렝기트인의 기원은 고대 투르크 부족인 고차, 정령, 철족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정교를 믿으면서도 발생 신화와 올레(уле)라는 돌무지를 바치면서 에에(ээ), 에에지(ээзи)라 불리는 서낭신을 믿는 전통이 있다. 샤먼(кам кам)과 예언자(이아린치 йарынчы)가 활동하고 있다. 집 앞에 제단을 만드는 음력설(차가 바이람)을 지낸다. 후설 음악으로 영웅서사시를 읊는 전통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텔렝기트, 텔렌기트
- 다국어 표기 Теленгиты(러시아어), Telengitle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g1nilMaaT5c>
- 참고문헌(온라인) <https://bigenc.ru/ethnology/text/5097449>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H065 | 템니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칭호 ● 유형 소분류2 관직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Temnik

템니크는 몽골 제국의 봉건 귀족 계급에서, 만 명의 전사 수로 이루어진 군대의 최고 전술 조직 단위인 투멘(тумэн, 만호萬戶)을 지휘하는 군사령관을 일컫는 말이다. 템니크란 단어는 킵차크 칸국의 군사 명칭인 투멘바시(тумэнбаши)의 러시아식 호칭이다. 영어에서 템니크는 주로 ‘장군(general)’이나 ‘에미르(emir)’로 번역된다. 템니크는 만 명의 전사들을 지휘했으며 칸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에 있었다.

그래서 템니크는 칸에게 종속된다. 러시아어의 암흑(тьма)이란 단어와 템니크란 단어는 몽골의 투멘에서 기원한다. 본령 루씨(Ордынская русь) 시절에 천인장(тысячник)과 템니크는 둔전의 지도자였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특수 부대의 지휘관이 되어야 했으며, 질서 수호와 세금 징수 감시 업무를 수행했다.

오르다의 역사에서 노가이, 마마이, 예디게이, 부룬다이 같은 템니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 군사 고문관 수부다이-바가투르(Субудай-багатур)와 제베-노이온(Джэбэ-нойон)도 템니크였다. 천인장이나 아타만(아타-테멘)은 템니크 휘하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템닉
- 다국어 표기 Темни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노가이, 킵차크 칸국
- 참고문헌(온라인) https://bigenc.ru/military_science/text/4186841
- 참고문헌(오프라인) Ланда Р.Г. Ислам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и, М.: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95, 46.

I H066 | 텡시 올

- 시기 BC - AD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Tevsh Uul

텡시 올 유적은 몽골 울르항가이 아이막 복드 솜 중심지 동북쪽에 있는 박아 텡시 산 남쪽 평탄면이 또팅 쥘 보츠지에 있다. 이 일대는 청동기 시대에서 중세에 이르는 여러 시기의 무덤 200여기, 히르기수리, 암각화 등 다양한 유적이 산재해 있다. 흉노 시대 무덤군은 작은 골짜기 서쪽에 남북 두 군으로 나뉘 분포하며, 서로 150m 정도 떨어져 있다. 북쪽에는 9기, 남쪽에는 14기가 있다.

흉노 무덤은 1971년, 1972년, 1977년 세 차례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1971년은 소련과 공동 조사로 3기 발굴되었고, 1972년 4기, 1977년에 4기를 조사했다. 텡시 올 72-7호 무덤은 직경 5m의 고리형 무덤으로 적석부 중앙에는 반경 2.3m 범위에 흙으로만 채워졌다. 깊이 1.5m에 이르러 적석층이 노출되었다. 적석층 아래에 1.75m 지점에서 동북 손잡이가 출토되었고, 그 밑에는 매장 주체부의 뚜껑으로 추정되는 나무 구조물이 드러났다. 통나무를 묘광 단축 방향으로 나란히 놓은 후 그 위에 다시 길이 2m~2.4m 크기의 통나무 5개를 묘광 장축 방향으로 놓은 것이다. 통나무의 지름은 8cm로 대부분 방형 구멍이 있어서 수레의 부속품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목관 안에는 신전장한 인골이 확인되었다. 피장자의 머리와 가슴은 도굴로 교란되었고 다리 부분만 원위치이다. 성인 남성으로 추정된다.

목관의 길이는 2m, 폭 0.5m, 높이 0.4m이며 세 개의 얇은 판재로 뚜껑을 만들었다. 목관 밖에는 말, 소, 양 머리 1개체씩과 염소 머리 15개체분, 다리뼈, 등뼈, 갈비뼈, 개의 양측 견갑골, 다리뼈, 엉덩뼈, 갈비뼈, 사슴뿔, 새와 생주 등 다량의 동물뼈가 수습되었다. 동물뼈 가운데 소, 양, 염소 머리에는 뿔이 있다. 부장품으로는 중국 거울인 소명경(昭明鏡)의 편, 목제 빗, 철제 칼, 골제 활 부속구, 화살통의 나무 바닥, 철촉 2점, 철편 등이 출토되었다. 이 무덤의 조성 시기는 소명경의 연대로 보아서 기원전 1세기 중엽~후반으로 생각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텡시 올

● 다국어 표기 Тевш Уул(러시아어), Tevsh Uul(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TAR, 2013.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흉노무덤(1)』, 2011.

G. Eregzen, 『몽골 흉노 무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I H067 | 텡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경제 ● 유형 소분류2 화폐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engge

텡게(tenge)는 카자흐스탄에서 1993년 이후 지금까지 공식 통용되는 화폐 단위이다. 소련 붕괴 이후 카자흐스탄은 일시적으로 러시아 루블화의 체제하에 있었지만 1993년 7월에 러시아 연방에서 루블화 체제를 러시아 내에 국한함으로써 카자흐스탄에서도 새로운 화폐 제도가 모색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텡게화이며 당시 1텡게는 500루블의 교환비로 결정되었다.

‘텡게(tenge)’는 저울의 뜻을 가진 투르크 고어에서 기원하며 몽골인들도 사용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젠기(деньги, 돈의 복수형)’로 전수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용되고 있는 텡게화의 도안은 여러 차례 변화 과정을 겪었다. 텡게화 단위는 1993년에 사용된 텡화에 이어 1996년 1월부터 지폐에 표시되었는데 단위는 1, 3, 5, 10, 20, 50, 100이었으며 여기에 사용된 초상화는 각각 알파라비, 수윤바야 아로눌르, 쿠르만가즈, 발리하노프, 아바이, 아불하이르 칸, 아블라이 칸 등이었으며 2006년 11월 15일에 폐지되었다.

한편 알파라비의 초상화는 1994년에 200텡게화를 필두로 색깔과 디자인의 변화와 함께 500, 1,000, 2,000, 10,000텡게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이 알파라비 도안은 2007년 11월부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사용되는 도안은 누르술탄에 있는 카자흐스탄 국가의 상징물인 바이테렉이 뒷면의 카자흐스탄 지도와 함께 200, 500, 1,000, 2,000, 5,000, 10,000텡게의 단위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화폐(500, 1000, 2000, 5000, 10000 텡게)

2011년에 카자흐스탄 국기와 문장으로 된 새로운 도안이 5,000텡게로 등장했고, 2012년에는 2,000텡게와 10,000텡게, 2014년에 1,000텡게, 2015년에 20,000텡게 그리고 2017년에 500텡게화가 나왔다. 동전 텡게화도 발행되었는데 그 단위는 1, 2, 5, 10, 20, 50, 100, 200 등이다. 점차 인플레이션과 함께 높은 단위의 동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1텡게 동전은 찾아보기 힘들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텡게
- 다국어 표기 теңге(카자흐어), тенге(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화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yNxwHebBo5E>
- 참고문헌(온라인) <https://blog.continentalcurrency.ca/kazakhstan-tenge/>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Б.Г. Аяган, А.М. Ауанасова, А.М. Сулейменов, Новейшая история Казахстана (1991–2014), Алматы, Атамұра, 2014.

I H068 | 텡그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중국,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민속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engri

텡그리는 투르크, 몽골 그리고 통구스 민족에서 발견되는 텡그리즘이라 불리는 최상위 신을 지칭한다. 사기와 한서 등의 중국 기록에 따르면 흉노는 텡그리를 탱리(撐犁)라고 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투르크인의 조상들은 정령과 자연을 숭배하던 사람들이다. 샤머니즘 신앙을 통해서 천국의 신들과 지구의 자연적인 힘을 경배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고대의 투르크 세계관에서 신이란 단어가 텡그리이며 종교적인 믿음으로 하늘은 텡그리로 대체된다. 텡그리는 만물을 창조한 최고신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작은 신성이 있는데 텡그리의 의도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투르크계, 몽골계 그리로 오늘날에는 사어화되었지만 통구스계 민족은 하늘을 Tengri, 하늘에서 내려오는 명령 즉 천명을 Kut이라고 명명했다. 즉 샤머니즘에서 무당들이 행하는 곳은 바로 하늘의 명령을 받드는 행위이다. 그래서 유목 민족 가운데 돌궐, 몽골 등은 신은 천상에 있고 그것이 천상에서 인간계로 강림하다고 믿어 그의 조상을 천신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내려온 암이리(牝狼)에서 비롯되었다고 믿고 있다.

중국측 기록을 보면 흉노의 경우, 從天生匈奴大單于 그리고 돌궐은 從天生突厥大可汗이라고 그들의 군주가 하늘의 천명을 받아 등극했다고 밝히고 있다. 돌궐 비문도 'Tengride Kut Bolmuş Kağan(하늘의 천명을 받은 카간)'이라고 밝히고 있다. 텡그리 또는 푸른 하늘의 신은 천상계 우주를 지배하는 투르크족 판테온(신들의 전당)의 신이다.

투르크족 신화에 따르면, 텡그리는 순수하며 새하얀 오리로 끝없는 수면 위를 날아다닌다. 수면은 시간을 상징하는데 텡그리가 “만들어져라.”라고 말하니 ‘아크-아나(하얀 어머니)’가 수면 아래 나타났다. 그는 고독을 극복하려고 텡그리만큼은 아니지만 새하얗고 순수한 ‘엘 키쉬’를 창조했다. 그 둘은 세상을 창조해 나갔다. 엘 키쉬는 악마같이 되어버려, 현혹된 인류와 싸우고 사람들을 암흑으로 끌어들었다. 텡그리는 천상으로 물러나 ‘텡그리월겐’이라 불리는 자리를 맡고 지상 사람들에게 신성한 동물을 내려 보내는 일을 하게 된다. ‘아크 텡그리’들은 천상계의



돌궐문자로 쓰인 '텡그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5층을 차지하고 있다. 주술사 사제들은 텡그리 월겐에 도달하기를 원하지만 5층 이상은 경험하지 못한다. 따라서 신성한 가르침으로 내려온 동물로 그 뜻을 전달받는다. 땅이나 인간 세계에 돌아올 때는 오리 형상의 그릇에 자리를 잡는다. 한편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에 의하면 텡그리는 식물을 자라게 하고 번개를 일으킨다고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텡그리, 텡그리
- 다국어 표기 Kök Tenri(고대투르크어), Тэнгэр(몽골어), تەڭرى(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흉노, 돌궐, 마하무드 알 카쉬가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m7Yb1vyDXnc>
- 참고문헌(오프라인) Brent, Peter. *The Mongol Empire: Genghis Khan: His Triumph and his Legacy*. Book Club Associates, London. 1976.
Sarangerel. *Chosen by the Spirits*. Destiny Books, Rochester (Vermont). 2001.
Yves Bonnefoy, *Asian mytholog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I H069 | 텡그리즘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몽골, 키르기스스탄,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텡그리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engriism

‘텡그리(Tänri)’는 하늘신, 즉 천신(天神)으로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 스텝 지역 및 중앙 유럽 투르크인과 몽골인에게 널리 퍼져 있는 신앙이다. 일반적으로 천신 숭배 사상, 천신 신앙 정도로 분류되었고 텡그리즘(Tengrism)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카자흐 민족학자 쇼칸 왈리카노브(Шоқан Шыңғысұлы Уәлихан, 1935년~1865년)가 처음 사용했고 50년대 이후 투르크학 학자 장 폴 로(Jean-Paul Roux, 1925년~2009년)에 의해 널리 쓰이게 된다.

텡그리즘에 대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오르혼 비문, 이릭 비티그(Írk bitig), 『몽골비사』, 중국의 사서들과 같은 기록에 기반하고 있으며, 텡그리즘은 따로 경전이 있는 종교는 아니다. 텡그리 신앙이 기록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기원전 4세기로 중국 사서에 흉노족의 천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후 돌궐, 위구르에 이르기까지 중세 투르크 국가들이 마니교, 불교와 같은 외래 종교를 받아들이고 이슬람화가 되기 이전까지 텡그리즘은 투르크 국가의 종교로서 기능했다. 또한, 텡그리즘은 고대 투르크 국가에서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중세 이전 투르크 국가에서 지배자는 텡그리의 자손으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당대 투르크 칸들의 칭호는 하늘과 관련된 단어가 붙기도 했으며, 칸이나 국가의 공적이 ‘천신의 은총’으로 가능했다는 구절 등이 발견되기도 한다.

텡그리는 하늘 신인 텡그리를 중심으로 여러 하위 신들이 있으나, 신앙의 주 대상은 텡그리이다. 텡그리즘에서는 태양, 달, 별 등 자연물에 신성함을 부여하여 신앙의 보조 요소로 삼았다. 신화 속에서 이 보조 역할의 신들은 하늘, 즉 텡그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텡그리의 유일신적 개념은 후대로 갈수록 강화되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 텡그리즘은 샤머니즘이나 애니미즘과는 분리된다.

텡그리즘 사제는 캄(Kam)이라고 불린다. 텡그리즘에서 우주는 세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텡그리가 있는 천상계(하늘)와 인간이 사는 지상계(땅), 그리고 지하 세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 세계는 악신과 악령의 땅이며 지옥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배를 위한 장소

는 중국 측 기록에는 푸윤세(Fuyunse)라고 하는 예배소가 있다고 하나, 아직까지 증명된 바는 없다. 유르트나 성스러운 산, 나무, 동굴, 무덤 등이 예배 장소로 추정되고 있다. 기도의 형태는 얼굴과 손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고 알려져 있다. 계절이 바뀔 때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의식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제물은 상황에 따라 피가 있는 제물과 없는 제물이 있다. 이런 큰 제의에서는 사제인 캄(kam)이나 가내에서는 가주, 국가의 경우 칸이 집례했다.

텡그리즘은 중세 투르크 국가들이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외래 종교를 받아들인 이후에도 민속 신앙과 언어 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현대에 와서도 텡그리즘은 다른 형태로 전해졌다. 특히 1990년대 소련의 붕괴 이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투르크 국가들과 타타르스탄, 바시키르 공화국과 같은 러시아 자치 연방의 투르크인은 자신들의 뿌리를 찾는 이데올로기운동의 일환으로 텡그리즘을 내세우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천신 숭배, 텡그리 숭배, 텡그리 신앙
- 다국어 표기 Tengricilik(튀르키예어), Gök Tanrı inancı(튀르키예어), Tenqriçilik(아제르바이잔어), Тәңречелек(타타르어), Тәңіршілдік(카자흐어), Тэнгэр шүтлэг(몽골어)
- 연관 검색어 샤먼
- 참고문헌(온라인) 이희수_터키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09611&cid=62103&categoryId=62103>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gör, Harun. “Eski Türklerde Din ve Düşünce”, *Türkler*Cilt 3,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463~500.
-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Aykut Kazancıgil), İstanbul : Kabalcı, 2002.
- Küçük, Abdurrahman. “İslâm Öncesi Dinlerde İbadet”, *TDV İslâm Ansiklopedisi*Cilt 19, İstanbul: TDV, 1999.
- Laruelle, Marlène. “Religious revival, nationalism and the ‘invention of tradition’: political Tengrism in Central Asia and Tatarstan”, *Central Asian Survey*Volume 26, 2007, pp.203–216.

I H070 | 테르메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정시
- 집필자 추영민 ● 라틴 문자 Terme

‘테르메’는 특별히 정해진 주제 없이 교훈적인 시구절을 모아 돔브라 연주와 함께 읊조리는 카자흐 민족 서정시의 한 종류이다. 그 기원은 19세기 카자흐스탄 서부 지역과 스르다리아강 주변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역으로, 20세기 초 매우 빠르게 발전되었다.

‘테르메’라는 명칭은 카자흐어로 ‘(이런저런) 말을 주워담다’라는 의미로, 선과 악, 정의, 인간의 본성 등과 같은 주로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주제의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삶의 올바른 방향이나 교훈적인 이야기를 주 내용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때문에 테르메는 정확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카자흐어 알파벳을 개척한 카자흐 민족의 언어학자 아흐메트 바이투르스노프(1873년 ~1937년)는 이것이 ‘테르메’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이유에 대해 “하나의 주제에 관한 것이 아닌 많은 내용을 모아 포괄하여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거나 끊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 흐르듯 이어져 나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르메를 바람을 타고 풀을 뜯으며 이동하는 가축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테르메를 노래하는 사람은 테르메스(Термеші)라고 불리며, 돔브라를 연주하면서 동시에 시를 짓고 노래를 하는 능력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테르메
- 다국어 표기 Терме(카자흐어), Terme(영어)
- 연관 검색어 돔브라,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pGTJ3PFiaME>

I H071 | 토그룰 내리만베여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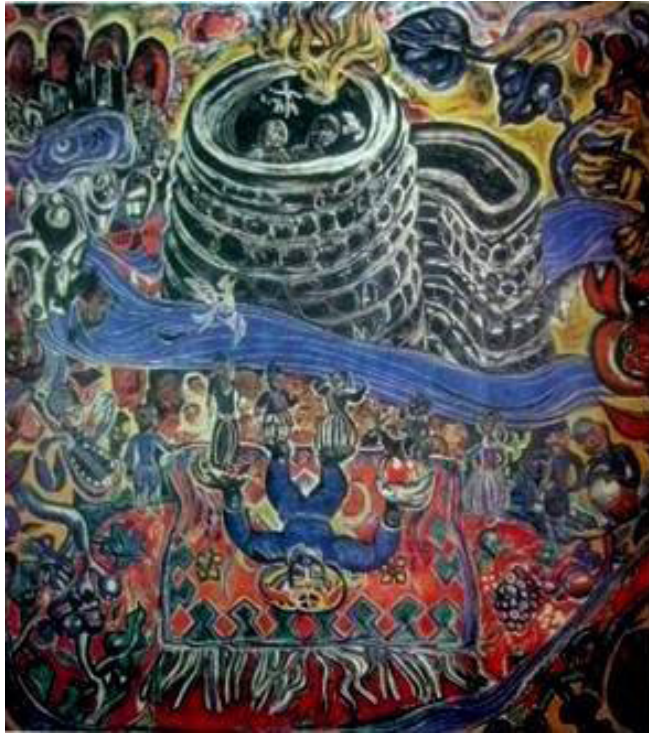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미술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Toğrul Narimanbekov

토그룰 내리만베여브(Toğrul Nərimanbəyov)는 1930년 8월 7일에 바쿠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화가를 대표하는 저명 국민 화가로서 아제르바이잔의 명예훈장과 독립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는 1950년에 애짐 애짐자대 미술학교(Əzim Əzimzadə adına Rəssamlıq məktəbini)를 졸업하고, 1933년에 빌뉴스 미술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유명한 리투아니아인 예술가 유오자스 미케나스(Yuozas Mikenas)의 제자이다. 1950년대에 예술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의 작품은 주제와 장르의 다양성, 미적 완벽성과 독특한 스타일로 다른 화가와 구분된다. 그의 창작물은 주로 풍경화, 초상화, 기념비화, 일러스트레이션, 연극화 등 다양한 장르들에 속한다. 그는 음악 분야에도 관심을 보였다. 인터뷰에서 “내가 화가로 성장할 수 없었다면 성악가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성악에 조예가 깊었다. 미국, 룩셈부르크,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그의 작품들은 아제르바이잔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2013년 6월 2일에 파리에서 사망하여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파시 묘지(Passi qəbristanlığı)에 묻혔다.

그의 작품과 스타일을 결정짓는 주요 특징은 아제르바이잔의 장식 미술에 내재된 색채 조화와 현대 미술의 새로운 트렌드를 조화시킨 것이다. 그는 인물의 내면을 가장 미묘한 음영으로 묘사하는 초상화의 대가다. 그의 작품에는 대조와 조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아우러져 있다. 다양한 예술적인 디자인으로 아제르바이잔 공연 미술의 소중한 작품들을 창작했다. 그의 기념비화나 벽화 장르의 그림들은 민족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의 개인 전시회가 개최되었다.

세계적을 널리 알려진 그의 주요 작품은 「작업장에서(Emalatxanada)」, 「카페에서(Kafədə)」,



「소녀의 성(城)(Qız Qalası)」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소녀의 성(城)(Qız Qalası)」, 「탈르스 산에서(Talış dağlarında)」, 「여름 목초지에서(Yaylaqda)」, 「목동의 가족(Çoban ailəsi)」, 「추수명절(Məhsul bayramı)」, 「정원 찻집(Bağda çayxana)」, 「바쿠에 있는 시장(Bakıda bazar)」 등이다. 그는 「시인 피크레트 고자(Şair Fikrət Qoca)」, 「화가의 가족(Rəssamın ailəsi)」, 「작가 아나르(Yazıçı Anar)」, 「셋타르 배흐룰자대(Səttar Bəhlulzadə)」, 「어머니(Ana)」 등 친구나 가족들을 초상화로 남겼다. 그의 작품이 가진 특징은 인물들의 기념비성, 구성의 풍부함, 인물들의 풍부함, 예술적·관습적 장식, 풍부한 색채, 사물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이다. 창작 과정에서도 자유로움을 시도하는데, 종종 미술 이론에서 받아들여지는 전형적인 형식과 잘 알려진 예술적 틀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미술 형식을 만들었다. 초상화, 풍경, 가정, 정물 등의 장르로 남긴 그의 작품들은 현대 아제르바이잔 미술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전시관과 미술관에 전시돼 있다. 그 외에 여러 나라의 박물관 및 개인 소장품으로도 보관 중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굴 네리만베요브
- 다국어 표기 Tugrul Nerimanbeyof(튀르키예어), Тогрул Нариманбеков(러시아어), Togrul Narimanbeyov(영어)
- 연관 검색어 바쿠,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Toğrul Nərimanbəyov (film-1966)— (qısametrajlı sənədli televiziya filmi)
- 참고문헌(오프라인) Нариманбеков Тогрул Фарман оглы // Большая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в 30 т.], 3-е изд. —М., 1969.
- Серов А. Этюды натюрморта // Художник. 1961, № 2. С.43-47.

I H072 | 토그즈-쿠말락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놀이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ogyz Kumalak

토그즈-쿠말락은 카자흐인들의 전통 보드게임이다. 푸른 창공과 드넓은 초원을 바탕으로 생활을 한 유목민인 카자흐인들은 동그랴게 생긴 양의 똥을 이용하여 수리 계산 능력을 함양하는 게임을 고안했다. 아홉(토그즈) 개의 양의 똥(쿠말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게임은 2인이 진행한다. 바둑판이나 체스판 정도의 사각형 판 위에 플레이어 쪽에 각각 9개의 흙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 9개의 구슬이 놓인다. 구슬은 플레이어 1명이 81개씩 총 162개가 준비되면 플레이어 앞에 놓인 9개의 칸에 9개씩 배치된다. 가운데에는 긴 흙이 두 개 있는데 여기에 빼앗은 구슬을 둔다(관련 사진 참고).

‘9’라는 숫자는 고대 투르크인 및 몽골인들에게 신성한 숫자였으며 이를 응용한 숫자 활용은 사람들의 계산 능력을 배양시켰다. 즉 네 개를 가지고 있을 경우 다섯 개를 더하면 아홉이 된다는 식이다. 10진법 이전의 계산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아홉 세대까지가 친족을 구성한다고 보기도 했다.

경기 방식을 보면 장기판 형태의 판에 마주 보는 플레이어의 앞쪽에 각각 9개의 큰 흙이 있고 그 속에는 구슬이 9개씩 담겨 있다. 이제 한 플레이어가 자신의 앞쪽에 있는 한 칸에서 구슬



토그즈-쿠말락

을 모두 손으로 담아 그곳에 하나를 남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씩 투하한다. 물론 상대방의 칸에도 하나씩 투하된다. 이때 마지막 투하된 구슬로 상대방의 칸에 짝수가 형성되면 그 칸에 있는 구슬을 모두 가져가서 가운데 있는 별도의 칸에 모아 둔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구슬을 하나씩 투하하여 홀수가 아닌 짝수로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승리의 전략이다. 상당한 지략과 계산이 필요한 게임인 것이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대개 카자흐스탄의 축제 때에 쉽게 볼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조직도 구성되어 있을 정도이다. 현재 카자흐인과 키르기스인들이 많이 즐기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에서는 ‘토구즈 코르골’이라고 부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토기즈-쿠말락
- 다국어 표기 тоғыз құмалақ(카자흐어), тоғуз коргоол(키르기스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전통 놀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Mi3-eX71wA>
- 참고문헌(온라인) <https://pypi.org/project/gym-togyzkumalak/>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H073 | 토미리스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omyris

기원전 7세기경 현재의 카자흐스탄 영토에는 사카족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은 마사케티아 왕국을 건설했다. 토미리스(Tomyris)는 국왕 남편이 페르시아 왕인 키루스에게 패배하여 사망한 이후 마사케티아 왕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당시 사카인과 페르시아인들은 상호 적대관계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토미리스는 여인이었지만 뛰어난 통솔력으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

토미리스에 관한 기록은 일찍이 고대 그리스 문헌에 등장하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스키타이(사카)인인 토미리스가 이끄는 병사들이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를 전쟁에서 패퇴시키고 결국 처형시켰다는 내용이다. 양자간의 전투에서 토미리스의 아들이 먼저 전투에 나가 싸웠지만 키루스 국왕에게 패전하고 처형되고 말았다. 이에 토미리스는 매우 격분했고 병력을 성공적으로 지휘해 페르시아 병력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이 독립함에 따라 국가의 역사와 민족의 기원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밝혀진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학계와 정부에서 새롭게 조명받게 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역사는 15세기 중엽



영화 토미리스 한국어판 포스터
Source: <https://t1.daumcdn.net/movie>

케레이와 자니벡이 건국한 카자흐 칸국에서 시작되지만, 종족적 차원에서는 그 역사가 기원전까지 거슬러 간다.

즉, 카자흐인들의 기원은 투르크 종족과 몽골인의 혼혈 이전 사카인들에게서 찾아야 하며, 그것은 바로 이식-쿠르간에서 발굴된 황금인간 유물과 토미리스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중시되는 이유이다.

토미리스에 관한 이야기는 비교적 최근에 카자흐스탄에서 불랏 자르단베코브(Bulat Zhardanbekov)에 의해 재조명되었다. 이를 토대로 카자흐스탄 영화사인 '카작 필름'은 2019년에 영화 '토미리스'를 제작 발표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톨리스
- 다국어 표기 Τόμιρις(그리스어), Томирис(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사카인, 스키타이인, 황금인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PGCOLM4nuw4>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llthatsinteresting.com/tomyris>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H074 | 토욘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강덕수 ● 라틴 문자 tojon

‘토욘’은 존경받는 존재의 이름 뒤에 붙이는 존칭이다. 한국어 ‘~님’, 영어의 ‘Mr’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토욘’이라는 존칭은 현대어에선 자주 사용되지 않는다.

‘토욘’이라는 칭호를 가진 이름 중 가장 위대한 이름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 아아르 토욘, 위령 아이으 토욘, 쉬게 토욘 3형제이다. 이 형제들은 어느 날 한 마음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기로 결정했다.

이 형제들과 대립적인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알라라이 베게이다. 그는 아바아흐족의 시조로서 대기 현상을 창조했다. 알라라이 베게는 대기 현상을 이용해 온 우주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싶어 했다. 이 때문에 아아르 토온과 그 형제들은 그를 웨덴(Үөддэн)이라 하는 지옥에 가두었다.

대기 현상을 만든 탓에 알라라이는 인류와 동물들의 적이 되었다. 그는 때때로 우박과 흑한의 추위, 눈과 폭우를 보내 인류를 괴롭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토요노

● 다국어 표기 Тойон(러시아어, 야쿠트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강덕수, 『야쿠티야. 맘모스와 다이아몬드와 착한 사람들의 나라』, HUFS Books. 2011. 35~36

I H075 | 토이카잔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oikazan

토이카잔은 매년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의 마을에서 개최되는 카자흐인들의 음식 문화 축제이다. 이 축제 기간에는 카자흐인의 전통 음식인 베스바르막과 바우르삭 등을 만드는 요리 경연 대회가 열리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2013년부터 알마티에서 시작된 토이카잔은 작은 마을에서 개최되고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개 수천 명에 달한다. 시기적으로는 9월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고 가끔 8월이나 10월에도 개최되었다.

주된 축제 내용은 요리 만들기 경연 대회이다. 그 외에도 전통적인 말 경기 축제와 노래 부르기 등의 행사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카자흐인들의 공동체 정신을 재확인한다. 토이카잔은 글자 그대로 토이(잔치, 축제)와 카잔(솥)의 합성어인데 그 뜻이 바로 ‘잔치 솥’이다. 카잔은 다같이 함께 먹는 것을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바로 우호의 공동체를 상징한다. 즉 공동체 잔치이며 사람의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요리 만들기가 행해진다. 대형 카잔에는 고기를 삶는 냄새가 전체 야외 행사장을 덮는데 이는 참가자들의 기분을 돋군다. 요리 만들기는 카자흐인의 전통 요리와



토이 카잔에서 음식을 준비중인 여성들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함께 타 민족의 요리인 삼사, 보르쉬, 플롭 등도 준비된다.

토이카잔 축제에는 카자흐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타 민족들도 함께 초대되어 서로서로 어울린다. 이러한 점에서 토이카잔은 카자흐 민족주의 경향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다민족 국가인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진행되는 축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축제 진행 때 각 민족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참가하고 때로는 전통 의상 경연 대회도 열리는데, 카자흐인, 러시아인, 우즈베크인 등의 고유 의상들을 선보인다.

- 다국어 표기 Тойқазан(카자흐어), Тойказан(키르기스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 음식 문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YgJgPPoJi_4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caravan.kz/gazeta/festival-tojkazan-est-takaya-tradiciya-80361/http://toikazan.kz/>
<https://anydaylife.com/festival/3045-toikazan>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a Jeteyeva Yerkebulan Dzhelbuldin, *Traditions and Customs of Kazakhs*, AuthorHouse, 2014

I H076 | 토파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Tofa people

토파인은 이르쿠츠크 주(州)의 니즈니우딘스키 지역에 사는 투르크계 민족이다. 토프(тоф) 또는 카라가스(карагас)로 자신들을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20세기 초에 토파인이 카라가스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소련 시대에 토파, 즉 토파라르라는 민족이 등장했고 ‘토파’란 명칭은 투바 지역의 중세 표기인 ‘두보(дубо)’에서 유래한다. 토파라르는 사람이란 뜻의 라르(-lar) 어미가 붙은 ‘토파(두보) 사람’이란 뜻의 합성어이다.

토파어는 동투르크어(시베리아 투르크어)에 속한다. 총 인구수는 2010년 기준 761명이다. 투바 지역에 살던 투르크계 민족이 13세기 몽골의 세력 확장에 밀려 사얀 산 깊은 곳으로 이주했다. 러시아 탐험대가 부랴트 공국에 복속되어 있던 토파인을 발견했고 17세기부터는 러시아 제국의 영향을 받았다. 18세기 말에 토파인의 언어와 기원에 대해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투르크화된 케트인, 사모이드인들이 토파 민족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밝혀졌다.

1970년대까지 토파인은 원추형 천막에서 거주했고, 채집과 사슴, 곰, 노루, 족제비, 다람쥐, 수달 등을 사냥했다. 사슴을 타거나 운송 수단으로 이용했다. 토파 민족은 라마교와 러시아 정교를 믿는데, 러시아 정교 신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샤머니즘 전통도 적지 않게 남아 있

다. 20세기 초까지 토파 민족에게는 20명이 넘는 무당들이 있었으며, 집안에 온곤이라 불리는 부적을 많이 보관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토팔라리

● 다국어 표기 Топалары(러시아어), Tofal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투바, 온곤

● 멀티미디어 링크 토팔라르 민족 축제

https://www.youtube.com/watch?v=_3JN08m8how

● 참고문헌(온라인) 러시아의 사라지는 토파 민족

<https://www.culture.ru/materials/50976/ischezayushie-narody-rossii-tofalary>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H077 | 토핑 맬릭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Tofiq Məlikli

토핑 맬릭리(Tofiq Məlikli)는 아제르바이잔의 문학평론가이자 투르크학자이며, 번역가이다. 그는 1942년 8월 31일에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샴키르(Şəmkir şəhəri)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등 교육을 샴키르에서 받았다. 1956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현 바쿠 국립대학교)의 동양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64년에 박사 과정에 입학해 1968년에 학위를 받았다. 1997년에 교수가 됐다. 그는 1986년~1991년에는 소비에트 투르크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 아제르바이잔의 예술학자 칭호를 수여받았다. 2000년부터 투르크어협회 명예 회원이다. 러시아 작가연맹과 아제르바이잔 작가 연맹의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1969년~1991년에는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 동양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1991년~1994년에는 이스탄불 대학교(İstanbul Universiteti)에서 러시아어 및 문학학

과의 창시자이자 학과장이었다. 1994년~1996년에는 세계 문학 연구소의 연구원이었고, 모스크바 국립 언어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했다. 그는 1995년~2015년에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터르크어 및 문화학과의 학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2015년에 모스크바 국립 언어 대학교를 은퇴하고,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왔다. 현재 그는 아제르바이잔 작가 연맹에서 러시아어로 글 쓰는 작가들 예술모임인 ‘루츠(Luç)’의 모임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픽 멜릭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그의 주요 학술적 활동은 물론 문학 평론, 튀르키예 문학, 문학 이론, 문화와 관련된다. 그는 새로운 터르크 시의 사상·미학적 원리를 역사-문학적 비평의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터르크학에서 최초로 독창적, 예술적 통합이라는 완벽한 체계를 만들어냈다. 이 체계는 현대 터르크 문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의 주요 논문은 「20세기 60년대 터르크 시 문학(XX yüzilin altmışıncı illərində Türk poeziyası, 모스크바, 1980)», 「나짐 히크멧과 새로운 튀르키예 시(Nazim Hikmət və yeni türk şeiri, 모스크바, 1987)», 「튀르키예 문학: 뿌리들과 가지들(Türkiyə ədəbiyyatı: Köklər və Budaqlar, 모스크바, 1998)», 「터르크학의 문제점들(Türkoloji problemlər, 바쿠, 2008)», 「튀르키예 문학사(Türkiyə ədəbiyyatı tarixi, 모스크바, 2010)», 「천재의 외로움: 파질 휘스뉘 다글라르자(Dahinin tənhalığı: Fazil Hüsnü Dağlarca, 모스크바, 2014)», 「튀르키예 시인들(Türkiyə şairləri, 바쿠, 2017)», 「터르크학 및 언어학의 문제점들(Türkoloji və filoloji problemlər, 바쿠, 2017)」 등이다. 그는 번역 작업도 했는데, 나짐 히크멧(Nazim Hikmət), 야샤르 케말(Yaşar Kamal), 파키르 바이쿠르트(Fakir Baykurt), 파질 휘스뉘 다글라르자(Fazil Hüsnü Dağlarca), 오르한 파묵(Orhan Pamuk)과 같은 저자들의 현대 튀르키예 문학 작품을 튀르키예어에서 러시아어로 번역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토피그 멜릭리

● 다국어 표기 Tofig Melikli(튀르키예어), Тофиг Мәликли(카자흐어), Тофиг Меликли(러시아어), Tofig Malikli(우즈베크어), Tofig Malikli(투르크멘어), مالکلی توفیق(위구르어), Тофиг Маликли(타타르어), Tofig Məlikl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오르는 파목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n nəşriyyatı, 2011.

С.Д.Милибанд. Востоковеды России. Библи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Москва. Издательская фирма «Восточная литература», 2008, с. 899~900.

Тофик Меликли. Жизнь без черновика (К 7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Составитель Ильхам Бадалбейли Москва, Изд-во «Вече», 2012, с. 220.

I H078 | 토하라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ocharian

토하라인 또는 토카라인(Τόχαροι, Tocharian, Tokharian)은 타림 분지에 거주하며 토하라어파 계열의 언어를 사용하던 인도·유럽인 집단이다. 알란어(Alanic language)로 토흐(Tokh)는 전쟁(War)을 의미하며, 접미사 -ar는 직업을 뜻하는 말로, 토하르(Tokhar)는 무사 또는 군병(Warrior)을 뜻하는 말이다. 토하라인이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월지와 동일 집단이라고 추측된다.

당시 소그디아나의 기록이나 서방 측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중국 사서에 등장하는 월지의 사건들과 토하라인의 사건들이 일치함을 알 수 있는데 토하라인들은 흉노의 침입으로 인해 모두 남쪽 소그디아나로 밀려났다. 소그디아나에서 대월지를 건국한 토하라인은 이후 인도로 모두 이주하여 쿠샨 왕조를 이룬다. 이후 토하라인들이 떠난 이곳에 위구르인들이 정착하게 되었다.

토하라어 또는 토카라어(토카르어, 토카리아어)(영어: Tocharian(Tokharian) languages)는 지금의 신장 타림 분지에서 쓰이던, 인도·유럽어족의 언어이다. 토하라어 A(아그나어, 동토하라어)와 토하라어 B(쿠차어, 서토하라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도·유럽어족에 속하는 언어 가운데에서는 가장 동쪽에서 쓰이는 언어이다.

토하라인은 기원전 2세기 모두 인도 북부로 이동했고 언어는 기원전 37세기경에서 기원전

2세기까지 쓰였으며 인도 북부에 남아 있는 브라흐미 문자를 토하라어로 추측하는 설이 있어 인도 북부에서 서기 9세기경까지 쓰인 뒤 사멸했다는 설이 있다. 인도·유럽어족에 속한 독립적인 어파로 토하라어파를 형성한다. 고립어가 아닌 교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학자들은 토하라어가 상고 한자에 영향을 주었으며 그들이 서융이라 불렀고 후에 중원에서 서쪽 야만인으로 불린 진나라가 서융의 후예라고 주장하지만 서양학자들은 이 주장을 서북 공정의 일환으로 본다.

토하라어가 상고 한자에 영향을 주었다는 주장은 일부 극소수의 단어가 우연의 일치로 유사하다는 주장인데 유럽과 미국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유사 과학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대 불교 언어의 전래로 인한 영향으로만 보고 있다. 토카라어는 브라흐미 문자 계통인 토하라 문자로 기록되었다. 19세기 말에 문헌이 발견되어 연구가 시작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토하르인

● 다국어 표기 Τόχαροι(그리스어), Tocharian(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교착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LiWR-WsbZEQ>

● 참고문헌(온라인) Adams, Douglas Q., *A Dictionary of Tocharian B* (2nd ed.), Rodopi, 2013.

Beckwith, Christopher I.,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Loewe, Michael, "Introduction", in Hulsewé, Anthony François Paulus (ed.), *China in Central Asia: The Early Stage*. 125 BC - AD 23, Brill, 1979.

I H079 | 토흐타미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통치자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Tokhtamysh



토흐타미쉬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인 티무르 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토흐타미쉬(Тохтамыш)는 1380년~1395년 킵차크 칸국의 칸이었고, 1396년~1406년에는 시비리 칸국의 칸이었다. 그는 칭기즈 칸의 장자 주치의 13번째 아들인 투카이-티무르의 후손 중 하나였다.

보르지긴 토흐타미쉬는 만기슬라크(카자흐스탄의 서부 지역)의 통치자 투이-호드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죽음 이후 탈출하여 1376년 마베란나흐르의 통치자 티무르에게 의탁하기 위해 사마르칸트로 도주한다.

1377년 티무르의 도움으로 토흐타미쉬는 킵차크 칸국의 정권을 쟁취하려 시도했고, 첫 번째, 두 번째 도전에서 킵차크 울루스 칸의 군대에 대패한다. 우루스 칸이 갑자기 죽고 티무르-말리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토흐타미쉬는 다시 티무르의 군대를 이끌고 킵차크 칸국의 티무르-말리크를 공격했고, 킵차크 칸국의 동쪽 지역을 얻는다. 1378년 대장군 마마이가 통치하던

킵차크 칸국의 서쪽 지역을 공격했고, 1380년 초에는 아조프해에 이르는 킵차크 칸국의 전 영토를 차지하게 된다. 1380년 후반기에 쿨리코보 전투에서 러시아군이 마마이에게 큰 타격을 입힌 후 토흐타미쉬는 티무르의 지원을 받아 킵차크 칸국의 칸이 된다.

1382년 토흐타미쉬는 모스크바로 원정을 감행했다. 모스크바 공국과 리투아니아 공국이 연합하여 맞섰으나 토흐타미쉬는 모스크바를 점령하고 모스크바 주변 지역들을 공략했다. 하지만 토흐타미쉬와 티무르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의 모스크바 원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남캅카스와 이란 서부 지역이 티무르의 영향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토흐타미쉬는

1385년 이 지역으로 진출했다. 테브리즈를 점령한 그는 막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후퇴했다. 1390년대에 티무르는 콘두르차강 전투(битва под Кондурче)와 테렉강 전투(битва на Тереке)에서 토흐타미쉬에게 큰 타격을 가한 뒤 그를 제위에서 쫓아내고 다른 칸을 내세운다. 이후 토흐타미쉬는 동쪽으로 달아나 잠시 동안 시비르 칸국의 통치자가 된다.

사령관 예디게이의 도움을 받아 티무르-말리크의 아들 티무르-쿠틀룩은 킵차크 칸국을 되찾았고, 바로 토흐타미쉬를 패퇴시켰다. 토흐타미쉬는 가족과 함께 키예프의 리투아니아 공국으로 망명했고, 이후 동슬라브계, 폴란드계, 리투아니아계 공국들과 연합하여 1399년 킵차크 칸국의 티무르-쿠틀룩과 예디게이에게 맞섰는데 이것이 14세기 동유럽의 가장 큰 규모의 전쟁 중 하나인 보르스클라강 전투(Битва на Ворскле)이다. 이 전투는 킵차크 칸국의 대승으로 끝났고, 토흐타미쉬는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된다. 1406년 토흐타미쉬는 예디게이와 초크레와의 16번째 전투에서 패해 사망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토흐타미시
- 다국어 표기 Тохтамыш(러시아어), Тоқтамыс хан(카자흐어), Toktamış H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킵차크 칸국, 카자흐스탄, 티무르, 사마르칸트, 울루스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зенгаузен В., Сб. мат-лов, относящихся к истории Золотой Орды, т. 2, М.-Л., 1941.

| H080 | 톤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on

톤은 전통적으로 카자흐인들이 겨울에 추위방지용으로 입었던 모피외투이다. 어깨에서 발목까지 내려오는 길이와 두께 때문에 무게감이 나가며 두터워 추위를 잘 막아낸다. 외형만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 용도 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복이다. 샤판이 사계절 행사 및 귀빈용 의복으로 제작된다면, 톤은 겨울철 방한을 위해 만들어진 실용적인 외투라는 점에서 다

르다. 툰은 일반적으로 크고 무거우며 외관상 보아도 털옷 느낌을 많이 주는 외투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형태가 비슷한 카자흐인의 전통 의상 샤판과 구별된다. 대개 귀빈 초대나 공식 석상에서 등장하는 남자용 큰 의상은 샤판이며 툰은 실생활용이다. 목동 카자흐인들은 추운 겨울철에 툰을 입고 나서야 된다. 발목까지 내려가는 길이 때문에 툰은 착용자에게 추위를 막아 준다.

양모 외에 다른 동물들의 털이나 표피를 이용하여 툰을 만들기도 하는데 너구리, 흑여우, 비버, 낙타, 망아지 가죽 등이 사용된다. 많은 경우 펠트를 이용하여 옷을 제작하기도 하는데 방한 겨울용은 이와 같이 동물들의 털이 사용된다. 이를 ‘툰’이라 부른다.

툰은 민무늬 형태가 아니라 화려한 실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며 매우 다양한 모습의 디자인이 실행되어 있다. 툰과 어울리는 모자는 털모자이다. 툰은 겨울용 의상이고 추위를 막아 주는 털옷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툰
- 다국어 표기 ТОН(카자흐어), ТО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의 전통 의복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IhpGCvqd9Yw>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limai.kz/odezhda-ukrasheniya-i-oruzhie.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Kalybekova Asm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H081 | 툰가으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시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tolgaw

툰가으는 카자흐어로 여러 의미를 지니는데, ‘흔들다’, ‘돌리다’라는 동사이기도 하고, ‘서사시를 노래하다’, ‘찬양하다’, ‘심사숙고하다’ 등의 사전적 의미를 지닌다. 문학 장르로서 툰가으

는 카자흐, 카라칼파크, 노가이 민족의 구전 문학이나 개인적 창작물에서 존재하는 철학적-교훈적 시(詩) 장르를 의미한다.

장르로서 톨가오는 12세기~14세기에 형성되었다. 카자흐 시 문학에서 톨가오는 15세기~19세기 동안에 번성했다. 가부장적 씨족 사회에서 톨가오는 이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회-정치적, 철학적 주제가 톨가오의 핵심적 역할이었다. 사상은 교훈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으며, 시행에서는 각운뿐 아니라 요운, 두운도 쓰인다. 톨가오는 역사적 사건이나 개인의 즐거움이나 고난을 명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카즈투간이나 부하르 같은 아킨의 우수한 톨가오의 아포리즘은 속담이나 격언이 되기도 했다. 톨가오는 오늘날까지 구전되어 왔으며, 악기로 연주되는 특정한 음율에 맞춰 불리기도 한다. 톨가오 장르의 대표자들은 카즈투간, 도스팜베트, 샬키이즈, 아크탐베르디, 부하르, 둘라트, 마함베트, 바자르 등이 있다.

다음은 자야우 무사 바이자노프(Жаяу Муса Байжанов: 1835년~1929년)라는 유명한 아킨이 사회적 정의를 다루는 톨가오다.

내 영혼은 고뇌했다. 오 삶이여!
나는 외롭고 가난하지만, 쇼르마노프는 부자야.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너의 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거야.
한번이라도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생각하렴.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톨가우

● 다국어 표기 Толгау(러시아어), Толғау(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노가이

● 멀티미디어 링크 Шындық туралы толгау(진실에 대한 톨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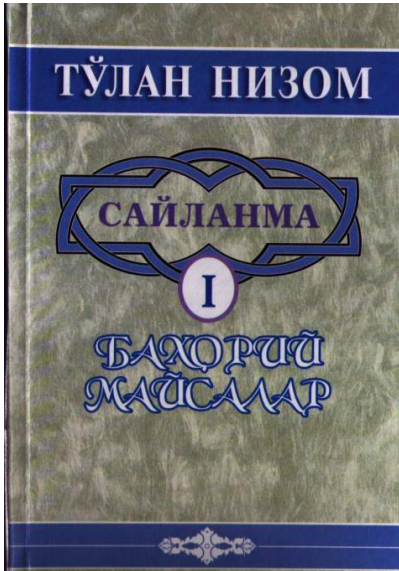
<https://www.youtube.com/watch?v=6cODTccT84o>

● 참고문헌(오프라인) Қазақ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Алматы: Қазақ энциклопедиясы, 2006. — Т. V. С. 219.

Толгау // Музык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Советский композитор.

I H082 | 톨란 니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To'lan Nizom



「선택(Saylanma)」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img_knigi/2865.jpg

시인 톨란 니점(To'lan Nizom)의 본명은 니점밋디너브 톨란버이(Nizomiddinov To'lanboy)이며 1938년 8월 17일 안디잔(Andijon)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안디잔 국립 사범 대학교에 입학하여 1965년에 졸업했다. 오랫동안 교사로 근무했으며 공직자로도 일했다. 또한, 톨란 니점은 1983년~1985년까지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의 안디잔 지역 지부의 사무총장으로, 1985년~2001년까지는 버즈(Boz) 지역 교육학 대학의 소장을 역임했다.

첫 시집 『너의 동화(Sening ertaklaring)』는 1970년에 출간되었다. 이후 『자랑(Iftikhor, 1982)』, 『달의 딸들(Oy qizlar, 1988)』 등이 출간되었다. 그의 시는 사랑에 관한 서정시 외에도 애국심과 애민심을 다룬 시가 주를 이룬다. 그의 초기 시는 노동과 이타주의가 주를 이루었고, 후기에는

인간의 감정과 영혼의 아름다움을 다룬다.

독립 시기인 1992년 『신성한 영혼(Muqaddas ruh)』이라는 시집이 발표된다. 이 시집에 수록된 작품 중 일부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다루고 있다. 모성을 주제로 한 시는 진정성, 순수성, 친밀함으로 독자에게 인상을 남겼다. 이후 「고향에 대한 감정(Vatan tuyg'usi, 1993)」, 「메아리(Aks-sado, 1994)」, 「감격한 기다림(Intizorlik, 1994)」, 「다흐르의 정원(Dahr bog'i, 1995)」, 「선택(Saylanma, 1998)」과 같은 시가 발표되었다. 2007년~2010년에는 『봄의 풀(Bahoriy maysalar)』, 『여름의 최고점(Avji yoz)』, 『황금빛 잎사귀(Zarrin yaproqlar)』라는 3권으로 이루어진 책이 출판되었다.

톨란 니점은 서사시도 다수 집필했다. 버부르(Bobur), 마쉬랍(Mashrab), 출판(Cho'lpon),

미르테미르(Mirtemir), 우스먼 너시르(Usmon Nosir), 사이다 준누노바(S. Zunnunova), 무함마드 유수프(M. Yusuf)와 같은 인물들을 노래한 「출편(Cho'lpon, 1993)」, 「버드나무의 울음(Majnuntol yig'isi, 1993)」, 「내 영혼의 믿음(Ruxi ravonim, 1993)」, 「버부르(Bobur, 1996)」, 「지지 못한 달(Botmay qolgan oy, 1996)」, 「알리셰르(Alisher, 2003)」 등이 있으며 그 외 「세 가지 단어(Uch so'z, 1995)」, 「흰 꽃(Oq gul)」, 「빵의 향기(Non hidi, 1998)」, 「고갯길(Dovon, 2002)」과 같은 서사시 작품들이 있다. 톨란 니점은 자신의 서사시에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인생 체험과 사회적 문제 그리고 비극적 인생을 묘사한다.

동시로는 「안디잔에 새 한 마리가 있다(Andijonda bir qush bor)」, 「제비(Qaldirg'och)」, 「태양의 사랑(Oftob ishq)」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작품은 아이들의 순수하고도 신비로운 세계를 드러낸다.

2014년에 『말로 변한 검(So'zga aylangan qilich)』이라는 운문 소설이 출간되었다. 15세기 말~16세기 초의 중앙아시아인들의 삶과 카슈미르의 왕 무함마드 하이다르 미르저(Muhammad Haydar Mirzo)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톨란 니점은 1998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민 시인 칭호와 우즈베키스탄 공교육 명예 학자의 칭호를 받는다. 또한 출편(Cho'lpon)상과 버부르 상의 수상자이다. 그는 2003년 노동 영광훈장과 2008년 국가 명예훈장을 받는다.

우즈베키스탄 국민 시인 톨란 니점은 2020년 12월 10일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톨란 니즘

● 다국어 표기 To'lan Nizom(우즈베크어), Тулан Низом(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버부르, 미르테미르, 출편

● 참고문헌(온라인) To'lan Nizom (1939) (ziyouz.com)

<https://arboblar.uz/uz/people/tulan-nizom>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Nizom To'lan, *Saylanma*, Toshkent: Sharq, 2007.

Nizom To'lan, *So'zga aylangan qilich*, Toshkent: Mumtoz so'z, 2014.

Mirvaliyev S., Shokirova Rixsiya, *O'zbek adiblari*, Toshkent: Fan, 2007.

To'lak Ismoil, *She'r-qalb yolqini To'lan Nizom ijodiy portretiga chizgilar*,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94.

I H083 | 톨레비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식인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ole-Bi

톨레비는 1663년 현재의 알마티 서쪽 알라콜 군(제티수 주 소속)에서 출생하여 1756년에 투르키스탄 주의 톨레비 군에서 사망한 대쥬즈의 호족이다. '비'는 호족을 나타내는 카자흐인들의 관직으로서 칸이나 술탄 다음의 위치이며, 재판관의 기능도 있다. 따라서 이름은 '톨레'인데 관례상 톨레비로 통칭된다.

현자, 문인, 지식인으로서 당시 카자흐인들에 많은 영향을 준 톨레비는 18세기 무렵 인접한 서몽골 지역으로부터의 중가르의 침입과 약탈로 피해가 막심했던 카자흐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중쥬즈의 카즈벡비와 소쥬즈의 아이테케비와 함께 힘을 합해 카자흐 칸국의 군주였던 아블라이 칸을 지지했다.

한편 3인의 비들은 톨레비가 중심이 되어 카자흐인들의 사회를 규율화하기 위하여 법전을 편찬하는 일도 했는데, 바로 '제티 자르기(7조법)'가 그것이다.

톨레비는 대쥬즈의 칸이 사망한 1743년부터 칸의 역할을 6년간 수행하기도 했는데 중심 활동 지역은 타슈켄트였다. 이러한 사실은 1988년에 간행된 『타슈켄트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톨레비는 타슈켄트의 군주로 기술되었던 것이다.

톨레비는 거침없이 공격하던 중가르족의 침입에 도주하지 않고 논리적인 대항을 했는데 이에 중가르족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후 톨레비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받았다. 타슈켄트에는 톨레비의 묘가 있다.

2003년에 톨레비를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되었고, 알마티 시내중심가에는 톨레비 거리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텔레비



톨레비 거리(알마티, 카자흐스탄)

- 다국어 표기 Төле би(카자흐어), Толье-б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CFAvxjUDf0A>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history.kz/ru/prominent-figures/show/12642/>
<http://old.unesco.kz/heritagenet/kz/content/history/portret/tolebi.htm>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H084 | 톱카프 궁전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궁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opkapı palace

톱카프 궁전은 오스만 제국의 궁전으로 이스탄불을 둘러싼 모든 바다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오스만 시대 내내 거의 모든 술탄이 머물렀으며 통치의 중심이었다. 1453년 술탄 메흐메드 2세(II. Mehmed, 재위: 1444년~1446년, 1451년~1481년)가 이스탄불을 정복한 직후 현재의 베야지트(Beyazit) 지역에 궁전을 건설시켰으나, 1464년에 다시 현재 톱카프 궁전이 위치한 곳에 다시 궁전 건설을 명령했다.

톱카프 궁전은 이스탄불 정복 직후 먼저 건설되었던 구궁전과 구별하고자 신궁전(사라이 예제디드(Sarây-ı Cedîd) 또는 예니 사라이(Yeni Sarayı))라고 부르기도 한다. 톱카프 궁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세기 중반까지 끊임없이 증축되었다. 궁전은 비잔틴 시대의 성벽이었던 벽을 증축한 성벽(Sûr-ı Sultânî)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파디샤의 문(Bâb-ı Hümâyün)’과 ‘철의 문(Demir Kapısı)’과 ‘광문(Otluk Kapısı/Ahırkapı)’이라는 이름의 대문이 있다. 이 문은 파디샤와 그 가족 및 주요 관리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고, 그 외 인물이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문은 따로 있다.

톱카프 궁전은 크게 세 개의 중정으로 나뉘며 각각의 중정을 연결하는 세 개의 거대한 문이 있다. 첫 번째 문은 앞서 언급한 파디샤의 문으로 외부와 제1중정을 연결한다. 두 번째 문은 ‘안녕의 문(Bâbüsselâm)’, 세 번째 문은 ‘행복의 문(Bâbüssaâde)’이다.

첫 번째 중정은 일반인과 군인도 출입할 수 있었다. 일반인은 민원을 해결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명절이나 축제 때는 행사에 참석하는 관리들과 군인들이 대기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파디샤의 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궁전 병원(Enderun Hastahanesi)이나 물 저장고와 같은 건물이 화덕과 함께 있었다. 왼쪽에는 장작 등을 보관하는 장소와 함께 비잔틴 시대의 교회였으나 후에 모스크로 전환한 이리니 교회(İrini Kilisesi)가 자리하고 있다. 두 번째 중정으로 통하는 ‘안녕의 문’ 인근에 위치한 팔각형의 탑 형태인 ‘사무원의 탑(Deâvî Kasrı)’은 일종의 민원 창구로 디완(divan)이나 파디샤에게 청원서 따위를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행복의 문(Babüssaâde)

제2중정은 관리들이 주로 사용했다. ‘안녕의 문’의 왼편에는 파디샤의 귀중한 말이 있는 마굿간과 승마 도구를 보관하는 곳이 있다. 제2중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은 ‘회의장(Divanhâne/Kubbealtı)’이다. 중정의 왼편에 존재하는 이 건물은 국가 대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중심지였다. 술탄 메흐메드 2세 시대에 건설되었고 쉴레이만 1세(I.Süleyman, 재위: 1520년~1566년) 시대에 대대적으로 수리했다. 이곳과 인접한 건물에는 관리들과 일을 하던 곳과 ‘기록소(defterhâne)’가 있었다. 이외에도 귀물 보관소 등이 있었다. 즉위식이나 명절과 같이 중요한 날에는 제2중정에서 ‘행복의 문’ 앞에서 옥좌를 꾸리고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제2중정에서 대사를 접견하고 연회장으로 모셔갔다. 연회장 건너편 첫 번째 홀 건너편 벽에는 창문 뒤로 세워진 ‘정의의 탑(Adalet Kasrı)’이 있다. 이 탑의 뒤편에 하렘으로 연결된 문을 통해 파디샤는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않고 여기로 들어올 수 있었다. 제2중정 오른편에는 ‘주방(matbah-ı âmire)’이 있다. 처음에 건설했던 주방은 1574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후에 유명 건축가 미마르



안녕의 문(Babüselâm)

시난(Mimar Sinan, 1489년~1588년)이 주방의 주요 건물을 건설했다. 원뿔형의 지붕이 달린 탑 형태의 굴뚝이 바로 보인다. 이 부역에서 하루에 1,500명~3,000명 가량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었고 파디샤의 식사를 준비하는 부역(kuşhâne)은 제3중정에 따로 위치해 있다.

‘행복의 문’을 통해 제3중정으로 진입하면 ‘엔데룬 도서관(Enderun Kütüphanesi)’이 있다. 이곳에서 최고 수준의 엔데룬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또한, 제3중정에는 ‘알현실(Arz Odası)’이 있어 거의 매일 있던 관리들의 회의 이후 이곳에서 파디샤와 만나 보고를 했다. 이 정기적인 보고와 청원 이외에도 관리들과 대사들의 알현을 받았다. 제3중정에는 엔데룬 출신의 아아들이 사용하는 ‘아아라르 모스크(Ağalar Camii)’도 있다. 제3중정에는 이외에도 크고 작은 방들과 부속 기관들, 그리고 보물 창고와 보물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었다.

제2중정과 제3중정의 왼쪽 편, 골든혼을 바라보는 방향에 여성과 파디샤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하렘(Harem)’이 위치해 있다. 주로 쉴레이만 1세 시대에 주로 확장된 하렘은 19세기 중엽



파디샤의 문(Bâb-ı Hümayun)

까지 지속적으로 증축되었기 때문에 초기 건물이 어떤 것인지 알기 어려우며, 증축이 세밀하게 계획되지 않아서 각방의 구성이 다소 복잡하게 이루어졌다. 하렘에는 술탄의 어머니와 딸들, 술탄의 여자 형제들과 아내들과 고모들, 여자 사촌들과 같이 술탄의 여성 가족과 친척들이 머물렀다. 그 외에 하렘에는 궁에 헌사되거나 구입한 여성 노예들이 머물렀다. 술탄의 아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양한 교육을 받은 후 결혼시켜 궁에서 내보냈다. 하렘의 여성 중 일부는 궁녀(시녀)로서 일정한 임무를 맡았다. 하렘에는 또한 황자(şehzade)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머물기도 했으며, 16세기까지 성인이 된 후 지방 성(sancak)으로 떠났으나 메흐메드 3세(III. Mehmed, 재위: 1595년~1603년) 이후로는 왕자와 그 가족들은 하렘의 특수 공간(Şimşirlik)에서 머물렀다. 19세기 중반 이후로는 출궁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부속 건물이 있었으며 정원에는 산책과 휴식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궁내에서 소비하기 위해 채소밭 따위가 존재했다. 정원에 존재했던 별관에서 왕자들의 교육을 하거

나 명절에 엔데룬과 하렘에 머무는 이들이 술탄에게 명절 인사를 올리기도 했다. 궁전 장식은 목재 장식 외에도 특히 15세기 이래로는 세라믹 타일이 주를 이루었으며 알현실, 하렘과 같은 공간의 세라믹 타일 장식이 특히 유명하다. 톱카프 궁전은 끊임없이 증축된 건축물로서 각 시기 별 오스만 제국이 당시 영향을 받았던 양식이 담겨 있기도 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톱카프 사라이, 톱카피 궁전, 톱카피 사라이
- 다국어 표기 Topkapı Sarayı(튀르키예어), Topqapı sarayı(아제르바이잔어), Topqapı(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술탄 메흐메드 2세, 미마르 사난
- 멀티미디어 링크 톱카프 궁전_정의의 탐
<https://cdn.islamansiklopedisi.org.tr/madde/41/topkapi-sarayi-9.jpg>
 톱카프 궁전_전경
<https://i2.cnnturk.com/i/cnnturk/75/1200x0/5a82924761361f2134e2e2b4.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Sanatı*, İstanbul: Remzi Kitapevi, 1997.
 Sözen, Metin. *Bir İmparatorluğun Doğuşu: Topkapı*, İstanbul 1998.
 Ertuğ, Zeynep Tarım. "TOPKAPI SARAYI", *TDV İslâm Ansiklopedisi*cilt.41, İstanbul: TDV, 2012, pp.256~261.

I H085 | 투그릴 베그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ughril beg

정식 이름이 아부 탈리브 투그릴 무함마드 이븐 미카일(Abu Talib Muhammad Tughril ibn Mika'il)인 투그릴 베그는 995년 잔드라는 도시에서 탄생했다. 아버지 미카일(Mikail, 11세기)은 비무슬림 투르크인들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여 조부인 셸주크가 투그릴과 그의 형제 차그리 베그(Chaghri Beg. 989년~1060년)를 키웠다. 셸주크는 오우즈 투르크족 중 키니크(크르크) 부족의 군사 지도자였다.

셸주크의 사망 후 그의 아들 아르슬란 야브구(Arslan (Isra'il) Yabgu, ?~1032년)는 잔드

에서 부하라 인근의 누르로 이주했고, 1025년 가즈나 조의 마흐무드(Mahmud, 재위: 998년~1030년)의 음모로 잡히게 된다. 그는 투그릴과 차그리에게 가즈나 조와 싸울 것을 권했다.

1032년 아르슬란의 사망 이후 무사 이나츠 야브구(Musa Inach Yabgu, ~1047년)가 그의 뒤를 이었지만, 실제적인 부족의 운영은 투그릴과 차그리가 맡았다.

1035년 카라한 조와 셸주크 그룹의 동맹이 깨지며 쿠그릴과 차그리는 호라즘으로 잠시 이주했으나 오래 머물지 못하고 1035년 가즈나 조 통치하의 호라산 지역으로 이주했다. 무사 이나츠는 가즈나 조 밑에 들어가겠다고 했으나, 가즈나 조는 이를 거부하고 셸주크 그룹을 자신들의 영토에서 몰아내기 위해 군대를 보낸다. 그러나 가즈나 조는 패배하게 된다. 투그릴 베그는 나사(Nasa)를, 차그리 베그는 디히스탄(Dihistan)을, 이나츠는 파라바(Farava)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후, 이들은 차츰 부족 단위나 그룹이 아닌 국가 건립을 희망하기 시작했고, 좀 더 공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1038년 니샤푸르(Nishapur)를 정복한 투그릴은 스스로를 호라산의 술탄이라고 선언했다. 1040년 가즈나 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투그릴 베그는 대 셸주크 조를 천명했다.

1041년~1042년, 차그리 베그는 메르브(Merv)에 남았고, 무사 이나츠 야부그는 헤라트(Herat)를 차지하기 위해 떠났으며 투그릴 베그는 니샤푸르로 옮겼다. 1042년~1043년 호라즘을 정복했다. 1045년 이후 셸주크의 영토를 점점 넓혀갔다. 이스파한(Isfahan)은 정복하지 못했으나 이스파한의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금요 예배에 투그릴 베그의 이름으로 설교를 읽는 것으로 보아 셸주크를 어느 정도 추종했던 것으로 보인다.

1047년 투그릴은 아나톨리아로 진군하여 에르주룸(Erzurum)을 정복했고, 1050년 이스파한을 정복했다. 1054년 타브리즈로 가 그의 이름으로 설교를 하게 했으며, 완(Van) 호수 인근의 바르기리(Bargir)를 정복, 만지케르트(Manzikert)를 포위했으나 정복에는 실패한다.

투그릴 베그는 아제르바이잔으로 돌아와 겐제를 차지했으며, 아르메니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1055년에는 바그다드의 칼리프 알 카임(Al-Qa'im, 재위: 1031년~1075년)은 부이드 왕조로부터 바그다드를 탈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바그다드로 가 투그릴은 부이드 왕조를 패배시킨다.

1056년~1057년 투그릴 베그는 바그다드를 떠났다가 무술을 정복하고, 바그다드로 돌아왔을 때 알 카임을 만나게 되고, 칼리프는 투그릴 베그에게 '동서의 왕(malik al-mashriq wa'l-maghrib)'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그러나 바그다드는 1058년 이복동생 이브라힘 이날(Ibrahim



투그릴 베그 영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Inal, 1000년경~1060년)이 반란을 일으키고, 1060년 투그릴은 이를 진압하고 이브라힘을 살해한다.

1060년 투그릴 베그는 차그리 베그의 사망 이후 그의 아들 중 술레이만의 어머니와 결혼을 했고, 조카이자 양자인 술레이만을 후계자로 공표했다.

1061년 호라산에 갇혀 있던 아슬란 야부그의 아들인 사촌 쿠탈미쉬(Qutalmish, 11세기)가 반란을 일으키고 투그릴 베그는 패배했으며, 이 반란은 투그릴 베그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1062년 투그릴 베그는 칼리프의 딸인 사이다 하툰(Sayida Khatun)과 결혼을 했다.

정복 활동을 지속하던 투그릴 베그는 병을 얻어 70세의 나이로 레이에서 사망했다. 투그릴 베그는 생의 대부분을 전장에서 보냈으나, 동시에 재건 활동도 끊임없이 지속했다. 니샤푸르, 레이, 이스파한, 바그다드와 같은 도시에 모스크와 마드라사를 건설했으며 시인과 문학에도 관심이 있었다.

투그릴 베그는 차그리 베그의 전처와 사이다 하툰 이외에도 알툰 잔 하툰(Altun Jan Khatun, ~1060년)과 1043년경 결혼하여 아들 아누쉬르반(Anushirvan)을 낳았으며, 아카 하툰(Akka Khatun)과도 결혼을 했다. 아카 하툰은 투그릴 사망 이후 알프 아슬란(Alp Arslan, 재위: 1063년~1072년)과 재혼했다. 부이드 에미르 아부 칼리자르(Abu Kalijar, 재위: 1024년~1048년)의 딸과도 결혼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그룰 베이, 투으룰 베이, 토그릴베크, 토그릴 베그, 토그룰 베그
- 다국어 표기 Tuğrul Bey(튀르키예어), Toğrul bəy(아제르바이잔어), Togrul beg(투르크멘어), To'g'rulbek(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Sümer, Faruk. "TUĞRUL BEY",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1, Istanbul: TDV, 2012, pp.344~346.
Köymen, Mehmet Altay. *Büyük Selçuklu İmparatorluğu Tarihi I: Kuruluş Devri*, Ankara 1975.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5.

I H086 | 투글라그 조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인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이수정 ● 라틴 문자 Tughlaq Dynasty

투글라그 조는 1320년에서 1413년까지 인도 전지역과 파키스탄 지역을 통치한 왕조로 델리 술탄국의 세 번째 왕조이다. 투글라그라는 단어의 어원은 불분명하다. 왕조의 창시자인 기야스 알 딘(Ghiyath al-Din) 개인의 이름인지, 가문의 명칭인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투글라그 조를 다스린 가문(부족)의 기원과 연결성을 밝히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기야스의 아버지가 투르크계 노예였다는 설화와 어머니가 편자브 지역의 여성이었다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기야스 알 딘은 칼지 조의 장군이였다. 1316년 강력한 군주였던 알라딘 칼지가 병으로 사망하자, 칼지 조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극심한 분열이 발생했다. 무려 3년 동안 3명의 술탄이 축출되거나 사망했다. 그러던 중 1320년 칼지 조의 무관이었던 쿠스로 칸(Khusraw Khan)이 집권하며, 술탄을 살해하고 왕조의 주요 구성원을 학살하기 시작했다. 당시 편자브 지역을 관장하고 있던 가지 말리크(훗날 기야스 알 딘 투글라크로 개명)는 델리 지역 귀족들의 설득에 힘입어 델리로 귀환한다. 이후 쿠스로 칸을 죽이고 술탄직에 오르며, 투글라그 조의 시작을 알린다.

기야스 알 딘 투글라그는 보통 투글라그 샤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르크-인도 혼혈인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 투글라그 샤는 술탄에 오르고 난 후, 쿠스로 칸을 따른 사람들을 처벌했다. 칼지 조 때 시행한 무슬림에 대한 조세 비율을 낮추었지만, 힌두교도에 대한 조세 비율은 오히려 인상했다.

델리에서 동쪽으로 6km 떨어진 곳에 도시를 건설하고, 몽골의 공격에 대비하려 했는데, 이 도시를 투글라카바드(Tughlakabad)라고 한다.

기록에 따르면, 1325년 투글라그 샤의 아들인 울루그 주나 칸(Ulugh juna Khan)은 아버지 투글라그 샤를 살해했다고 한다. 이후 주나 칸은 자신의 이름을 무함마드 빈 투글라그로 바꾸고, 술탄직에 올라 26년간 투글라그 조를 다스린다.

무함마드의 통치 기간 동안 델리 술탄국은 인도 아대륙 거의 대부분을 장악한다. 이때 확장한 영토는 인도에서 번성한 이슬람 왕조 중 가장 넓은 지역이었다. 문제는 확대된 영토 내 비무슬



투글라그 조의 무덤 단지

림 인구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무슬림으로 개종한 사람들은 인원수에 한계가 존재했고, 비무슬림을 중심으로 반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인도 아대륙 전역에서 반란이 일상화가 되었다.

또한 인상된 세금은 사람들이 지불을 거부하는 수준으로 오르게 되었는데, 특히 비무슬림의 경우 세금의 인상폭이 크고 부담이 증가하자, 경작지를 버리고 정글로 숨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술탄은 이탈민을 엄벌로 다스리면서 공포 정치를 시도했다.

또한 새롭게 만든 행정 도시인 다울라타바드(Daulatabad)로 무슬림을 강제로 이주시켰다. 이슬람에 기반한 통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였다. 이주를 거부하는 귀족은 잔인하게 처벌했다.

1327년 무함마드를 향한 반란이 시작되었고, 통치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1335년에는 정복한 영토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 남부에 대한 통치력을 잃게 되었고, 해당 지



투글라그 조 발행 금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역은 힌두 왕조가 다스리기 시작했다. 1347년에는 데칸 지역에서 바흐마니드 조(Bahmanid Sultanate)가 설립되며 투글라그 조와 이슬람 왕조로 경쟁 구도를 구성했으나, 무함마드는 이를 장악하거나 견제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았다. 무리한 영토 확장과 관리 실패로 인하여 국고를 탕진하게 된 무함마드는 금이나 은이 아닌 금속으로 주화를 제작하고, 이에 은과 같은 값어치를 매기도록 했다. 이는 위조 주화의 등장을 부채질하면서, 왕조의 경제를 빠르게 붕괴시켰다.

1351년 무함마드가 사망했을 당시 투글라그 조의 영토는 현재 인도 중부 지역에 한정될 정도로 축소되었다. 무함마드 사망 후, 측근이 잠시 술탄을 계승했다가 45세의 조카인 피루즈 샤 투글라그(Firuz Shah Tuglaq)가 술탄직에 올랐다. 피루즈는 이후 37년 동안 투글라그 조의 술탄으로 있었다. 피루즈는 정복 전쟁 일변도였던 그동안의 델리 술탄국의 정책을 포기했다. 사료가들은 피루즈가 델리 술탄국 형성 이래 가장 온건한 군주였다고 기록했다.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상태에서 무슬림 왕가는 힌두교인에게서 징수한 세금으로 왕조를 운영했다. 다만 피루즈의 경우 자신의 통치 지역에서 수니파 이슬람을 따르도록 강하게 압박했고, 다른 이슬람 종파와 다른 종교에 대한 압박과 핍박을 지속했다. 특히 1376년 자신이 가장 아끼던 후계자, 손자가 사망하자, 영토 전체를 이슬람법으로 다스리도록 정책을 변경하는 등, 이슬람에 기반한 정책을 주로 시행했다. 1388년 피루즈가 사망하자, 투글라그 조는 무정부 상태로 붕괴하기 시작했다.

피루즈가 사망하기 4년 전부터 내전이 발발하기 시작했고, 피루즈가 사망한 후 6년이 지났을 때 수니파 귀족들 사이에서 파벌로 인한 내전이 본격화되었다. 이후 반복적으로 내전이 펼쳐졌

고, 술탄의 죽음과 계승이 이루어졌다. 1398년 티무르 제국이 델리를 침공할 때까지 내전은 지속되었고, 티무르 제국은 8일 동안 델리를 약탈하고, 사람들을 학살했다. 이후, 투글라그 조는 하나의 통일된 왕조라고 칭할 수 없을 정도로 조각나기 시작했다. 각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상실했고, 인도 아대륙과 주변 지역에는 군소 왕국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특히, 티무르 제국의 장군으로 델리를 침략했던 히즈르칸이 사이드 조를 건설했고, 1413년 투글라그 조는 멸망하면서, 델리 술탄국의 명맥은 사이드 조로 계승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글라그 왕조

● 다국어 표기 طغلق(아랍어), Tughlaq Dynasty(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osworth, B. C., *New Islamic Dynasties: A Chronological and Genealogical Manual*.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19.

Hasnain, N., *Islam in South Asia: A Short History*, 2013.

Ludden, D., *India and South Asia: a short history*. Simon and Schuster, 2013.

I H087 | 투라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Tura

투라는 추바시 신화 속의 최상위 신으로 선한 신들의 대표이다. 대부분의 추바시 신들이 그렇듯, 투바에게는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는 투르-아쉬세(Тур ашшә), 어머니는 투르-아미제(Тур амәшә)라 부른다. 투라의 부모는 투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데, 이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보인다.

‘투라’라는 이름은 추바시어로 ‘만들다’란 단어인 ‘투레(Турё)’에서 유래하는데, 창조자란 의미이다. 또한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 ‘투페(Турпе)’와도 연관된다. ‘투(ту)’란 단어는 정상이나 높은 곳, 산을 의미한다. 몽골-투르크 신 중 하나인 텡그리와 자주 혼동하는데, 추바시어로 텡그리는 탕개르(Танкәр)이니 혼동해서는 안된다.

투라가 아시아에서 유래했다고 믿는 학자들은 추바시의 투라가 독일-스칸디나비아계 신인 튜라(Тюра)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한 페르시아의 경전 아베스타에도 투란 민족의 선조라는 ‘투라’라는 신이 등장하지만 추바시의 투라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는 없다.

추바시인들은 투르크 민족들 중 드물게 기독교를 믿는데, 다신교적인 신인 투라 신앙이 있어 논란이 되곤 한다. 하지만 투라가 최상위 신으로 유일신적 역할을 한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투라는 가장 높은 하늘에 살고 있다. 천국에서는 신격화된 인간이나 동물의 형상을 한 존재인 피레쉬티(пирешти)가 투라를 둘러싼다. 세계의 종말이 오면, 투라는 새로운 세계와 인간들을 창조하며, 인간 종족을 보호하고 굶는 이들을 구원하고 약한 자와 일하는 자들을 도우며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살펴본다. 투라는 지상의 악과 싸우며 번개를 이용해 악을 멸한다.

투라는 지상의 모든 선의 근원이며, 인간과 세계의 운명을 아는 유일한 존재이다. 모든 인간의 이마뼈 위에 운명을 기록해 둔다고 하며 이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투라만이 보고 읽을 수 있다. 투라는 모든 인간에게 신의 표식을 남겨두었는데, 그것이 허리 아래에 있으면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허리 위에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트라, 티라
- 다국어 표기 Tura(아제르바이잔어, 튀르키예어), тура(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нтон Салмин, Система верований чувашей, Чебоксары, 2004, 17~27.

Ⅰ H088 Ⅰ 투라니즘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상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Turanism

투라니즘(Turanism)은 범투라니즘(pan-Turanism, pan-Turanianism)으로도 불리며, 범슬라브주의, 범게르만주의 같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영향하에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난 민족주의적 문화, 정치운동이다. 투라니즘은 문화적, 언어적, 민족

적으로 관련된 중앙아시아와 핀란드, 일본, 한국, 사모예드, 헝가리, 튀르키예, 몽골, 만주 등의 인류학적 집단들의 연대와 협력을 주장했다.

투라니즘은 1차 세계 대전 즈음, 튀르키예에서 고양된 민족주의의 각성으로 유럽과 아랍, 페르시아 같은 외국 요소를 배제하고 민족 전통에 기반한 문명 수립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민족운동은 국가 차원을 넘어서 중앙아시아, 동아시아까지 범위를 넓히면서 ‘튀르키예’보다 더 포괄적인 ‘투라니아(Turanian)’란 용어를 사용했다. 아틸라, 칭기즈 칸, 오우즈 칸 등이 투라니즘을 대표하는 영웅으로 칭송되면서 튀르키예에 국한되지 않은 ‘광범위하고 끝없는 투라니아의 땅’이 조국으로 간주되었다.

‘투라니즘’의 어원은 B.C. 800년경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인 아베스타에서 페르시아와 충돌하는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투라(Tura)’를 사용한 것에서 기원한다. 페르시아 문헌에서의 투라는 오늘날의 중앙아시아와 거의 일치한다. 19세기 후반부에 투라는 언어적 집단, 즉 인도·유럽 어족나 셈어족 계열이 아닌 알타이어족, 또는 우랄-알타이 어족을 지칭하는 언어 집단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1차 세계 대전 무렵 튀르키예, 헝가리, 핀란드 정도로 유럽과 가까운 민족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시베리아, 동북아시아의 투라 민족들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유럽, 러시아, 중국 등에 종속적인 상황이었다. 투라 민족의 언어적 특징을 대표하는 것이 투르크-타타르어이며, 몽골인으로 대표되는 넓은 얼굴, 작고 사선인 눈, 높은 광대뼈, 황갈색 피부색, 곧고 성긴 모발이 외형적 특징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 특징은 튀르키예나 핀란드, 헝가리 같은 지역에서는 카프카스 인종들과의 오랜 교류로 많이 사라졌다.

투라 민족의 초기 종교는 샤머니즘이지만, 지금은 시베리아, 동아시아, 몽골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슬람이나 기독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나 투라니즘운동이 가장 강력했던 곳은 튀르키예였으며, 튀르키예는 헝가리와의 동맹 관계, 러시아 중부,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타타르, 카자흐, 위구르 민족과의 연계를 목표로 정치적-외교적 차원에서 범투라니즘운동을 활용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투라니즘에서 제기하는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공통 요소는 언어학적, 유전학적 관점에서 실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란운동

● 다국어 표기 طورانیه(아랍어), Turançılıq(아제르바이잔어), Turanizmus(헝가리어), Turancılı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투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Arnakis, George G., "Turanism: An Aspect of Turkish Nationalism". *Balkan Studies*. 1: 19~32, 1990.

I H089 | 투라벡 하눔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urabek-Khanum

투라벡 하눔(Turabek-Khanum)은 캅차크 칸국 시대 하레즘 지방관인 아미르 쿠틀루그 티무르(Qutlugh Timur, 재위: 1321년~1333년)의 아내인데, 인근 지역의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들을 수호하는 성인으로 간주된다.

전설에 의하면, 투라벡 하눔은 종교적 열정이 뛰어나거나 호라즘 지역의 다른 성인들처럼 기도에 몰두하거나 기적을 발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 자신은 건축을 주도하고 예술과 이슬람 관련 기관의 후원자로 더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시대가 변하며 성인으로 추대되었는데, 예술과 정통 신학, 수피 교단에의 후원, 모스크와 수피 수도자들이 머무는 곳을 건설, 와크프(재단) 토지 할당 등과 같은 업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성인화된 투라벡 하눔의 사망 후 건설된 그녀의 영묘는 인기 있는 순례 장소가 되었다. 소련 시대 이전까지 많은 여성들이 투라벡 하눔의 영묘에 방문했고, 영묘 지하실에서부터 노래를 부르며 문까지 계단을 올라갔고, 약혼을 축복해 주길 기원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퇴레베그 하눔

● 다국어 표기 Törebeğ hanymyň(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캅차크 칸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Malikov, Azim. "Islam: Saints and Sacred Geographies-Central Asia", *Encyclopedia of women & Islamic cultures VOLUME V*(ed. Suad Joseph), Leiden: Brill, 2007, pp.223~224.

I H090 | 투라벡 하눔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urabek-Khanum Mausoleum

투라벡 하눔(Turabek-Khanum) 영묘는 투르크메니스탄 우르겐츠 쿠티루그 미너렛(Manar-i Qutlugh Timur)의 서북쪽에 자리한 영묘로 킵차크 칸국 시대 호라즘 지방관인 에미르 쿠티루그 티무르(Qutlugh Timur, 재위: 1321년~1333년)의 아내 투라벡 하눔을 위해 지은 영묘로 보인다. 정확한 건설연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투르크미르가 우르겐츠 지방을 통치하던 1321년~1336년 사이나 그 이후에 건설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물은 대기실, 방문객 머무는 방(ziyāratkhāna: 지야랏카나)과 그 뒤의 작은 무덤방으로 나뉘어 있다. 방은 모두 돔 지붕이다. 큰 돔으로 덮인 방문객이 머무는 방은 대문과 연결되어 있으며 외부 몸체는 십이각형이고 내부는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부 천장과 지붕은 모두 돔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외부 돔은 많이 훼손되었다. 복원 공사 때 학자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추형으로 건설되었다. 내부 천장의 돔 연결 부위는 24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완 형태의 대문을 통해 대기실이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에는 세 개의 문이 있다. 오른쪽 문은 복도와 위층 갤러리로 이어지고, 왼쪽 문은 창문이 있는 공간으로, 가운데 문으로는 건물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방문객을 받는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빛을 받을 수 있는 창문 달린 벽감이 있는 벽과 지름 약 12m 가량의 돔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의 무덤방은 사각형 형태인데 그 돔도 대부분 훼손되었다.

건축물의 내외부 타일 장식이 특히 눈에 띈다. 외부의 타일 장식은 대부분 훼손되었으나 남아 있는 타일은 상회 기법과 하회 기법이 골고루 사용되었으며 코발트블루, 터키석색, 흰색, 붉은색, 갈색, 녹색, 검은색의 타일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다양한 기하학 문양과 식물 문양과 서체 장식을 구성하고 있다. 형태나 장식 측면에서 14세기에 건축된 가장 아름다운 중앙아시아 투르크 건축물 가운데 하나다.

쿤야우르겐츠 지방은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영묘도 이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투라벡 하눔 영묘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퇴레벡 하눔 구부르하나시, 퇴레벡 하눔 튀르베시
- 다국어 표기 Törebeg hanymyň guburhanasy(투르크멘어), Törebeg Hanım Türbes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캅차크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d/de/Turabek_Khanum%2C_from_the_south.JPG/1280px-Turabek_Khanum%2C_from_the_south.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Golombek, Lisa. “The So-Called “Turabeg Khanom” Mausoleum in Kunya Urgench: Problems of Attribution.” *Muqarnas* vol. 28, 2011. pp.133~156.
Sayan, Yüksel. “Türkmenistan’ın XI-XIX. Yüzyıllar Mimari Anıtları”, *Türkler 6* (Ed:Kemal Çiçek, Hasan Celâl Güzel, Salim Koca) Ankara: 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91~108.

I H091 | 투룹 툴라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Turob To'la



투룹 툴라
Source: <https://arboblar.uz/uz/people/turab-tula>

시인이자 극작가인 투룹 툴라(Turob To'la)는 1918년에 카자흐스탄의 심켄트(Chimkent)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고아원에서 자랐다. 1938년~1941년에 타슈켄트 사범대학교 야간 과정을 다녔으며, 잡지 <젊은 힘(Yosh kuch)>과 신문 <젊은 레닌주의자(Yosh leninchi)>에서 일했다. 이후 그는 우즈베키스탄 국영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고, 영화사 '우즈베크 필름(O'zbekfilm)'과 우즈베키스탄 라디오의 부서장, 공화국 촬영연맹 비서관, 문화부 부장,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의 문학진흥부장, 합자 극장의 감독과 같은 여러 직책을 갖고 활동했다.

투룹 툴라는 시 창작은 1934년에 시작했고, 1939년에 첫 시집 『시선집(詩選集, She'rlar)』을 출간했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시기에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들에게 시집을 헌정했다. 당시 시는 파시즘에 대한 우즈베크인의 증오와 애국심을 묘사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나의 행복(Shodligim, 1941)』, 『미소(Tabassum, 1944)』와 같은 시집을 꼽을 수 있다.

전후에도 꾸준히 시를 발표했다. 그 예로는 「행복의 새벽(Baxt tongotari, 1948)」, 「너에 대해(Sen haqingda, 1954)」, 「날아라 내 노래들아(Qanot qoqing, qo'shiqlarim, 1954)」, 「무지개(Kamalak, 1954)」, 러시아어로 출판된 「내 노래여 울려라(Звени моя песня, 1954)」 등을 들 수 있다. 그는 「어린이 서사시(Bolalar dostoni, 1950)」라는 작품에서 어린 독자들에게 학교와 우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1955년에는 『날개를 펼쳐라 내 노래들아(Qanotlan qo'shiqlarim)』라는 시집을 발표했다. 노래를 위해 집필한 아름다운 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작사가로도 명성을 얻었다.

투룹 툴라는 「회장(Rais)」, 「마르길란에서 온 소녀(Marg'ilonlik qiz)」, 「재능(Talant)」, 「나는

너의 매혹에 빠졌다(Maftuningman)», 「푸르캣(Furqat)», 「샤쉬마콤(Shashmaqom)», 「9세기 모놀로그(To‘qqizinchil asr monologi)», 「참혹(Qahr)」을 포함한 수많은 영화 시나리오들을 집필하기도 했다.

말년에는 「40명의 소녀(Qirq qiz)», 「키즈불럭(Qizbuloq)», 「너드라베김(Nodirabegim)», 「참혹(Qahr)」 등의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그는 또한 어이벡의 소설 「신성한 피(Qutlug‘ qon)」를 기반으로 한 오페라 「어둠의 빛(Zulmatdan nur)」과 발레 「사마르칸트 신화(Samarqand afsonasi)」의 리브레토를 작성했다.

또한, 그는 셰익스피어, 타고르, 실러, 푸쉬킨, 레르몬토프, 이반 크릴로프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우즈베크어로 옮기기도 했다.

투룹 톨라는 1967년 우즈베키스탄의 명예 예술가 칭호를 받았고, 1988년 우즈베키스탄의 국민 시인 칭호를 받았다. 투룹 톨라는 1990년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룹 톨라

● 다국어 표기 Turob To‘la(우즈베크어), Тубаб Тула(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ziyouz.com/portal-haqida/xarita/o-zbek-ziyolilari/turob-to-la-1918-1990>

● 참고문헌(오프라인) Aliev M., *Turob To‘la- Adabiy portret*,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69.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Toshkent, 2000.

Fathullin Z., *Turob To‘la- Tanlangan asarlar ikki tomik*,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7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I H092 | 투르구트 외잘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인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urgut Özal



투르구트 외잘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투르구트 외잘(1927년~1993년)은 제8대 튀르키예 대통령이었던 정치인이다. 그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제26대 튀르키예 수상으로 재임했으며 모국당(the Motherland Party)의 대표였다. 그는 군사 정부가 정당에 취했던 정치 활동 규제 조치가 해제된 후 1983년 모국당을 창당했고 1983년의 총선에서 모국당의 승리로 수시상이 되었다. 그는 수상 재임 기간 동안 일련의 경제 개혁을 단행했다.

그는 1989년의 간접 선거에 제8대 튀르키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내각 책임제 정치 체제하에서 대통령은 사실상 상징적 역할을 했지만 아타튀르크 댐 건설과 더불어 남동 아나톨리아발 프로젝트(The Southeastern Anatolia Development Project)를 추진해

나갔고 1992년에는 앙카라에서 개최된 투르크계 국가 정상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다. 1993년 재직 중 의문의 사망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구투 요잘, 투르곳 외잘
- 다국어 표기 Turgut Özal(튀르키예어), Turgut Ozal(영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Turgut_%C3%96zal
- “Official Website of the Presidency of the Republic of Turkey – Turgut Özal”. www.tccb.gov.tr.
- 참고문헌(오프라인) Anderson, Perry. “After Kemal”. London Review of Books. Retrieved 2008-1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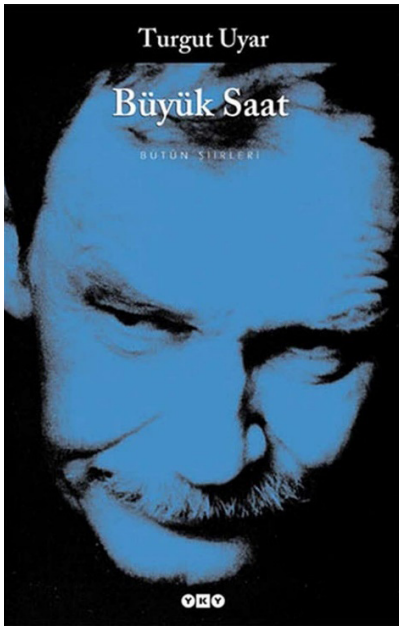
투르구트 외잘 기념탑(이stanbul, 튀르키예)

I H093 | 투르구트 우야르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TURGUT UYAR

투르구트 우야르(Turgut Uyar)는 튀르키예의 현대 시인이자 번역작가이다. 1927년 8월 4일 육군 지도 장교로 근무하는 하이리(Hayri) 베이와 어머니 파트마(Fatma) 하늬 슬하에 육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의 지방 근무로 인해 여러 도시를 거치며 초등 교육을 마쳤고, 중학교는 재정적인 이유로 기숙 군사학교로 진학했다. 1946년 부르사 으시으라르 군사 고등학교(Bursa Askerî Işıklar



「큰 시계(Büyük Saat)」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

Lisesi)를 졸업한 후 군무원 대학교(Askerî Memurlar Okulu)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다.

대학 졸업 후 군무원이 된 그의 첫 근무지인 소련 접경 도시 카르스 포소프는 구전 문학의 풍부한 자료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여기서 그는 민속 시에 대한 지식을 쌓았고 민속 시인들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투르구트 우야르는 1950년 이후 튀르키예 문학에 등장한 혁신파(派)(ikinci yeni akımı)의 가장 중요한 시인 중 한 명으로 사랑, 외로움, 이별, 도시로부터의 탈출, 도시의 복잡함과 죽음을 주제로 시를 썼다. 시적 감각이 타고난 그는 다른 시인들의 시를 잡지 <파피루스(Papirüs)>에서 다루었고 이후 글을 모아 1984년에 『시 한 편(Bir Şiir)』이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여기서 투르구트의 시에 대한 깊이를 느낄 수 있다.

1948년 잡지 <카이나크(Kaynak)>에서 개최한 시 대회에 「진정서(Arz-ı Hal)」라는 작품으로 2등을 했다. 이후 1950년에 <카이나크(Kaynak)> 출판사에서 책 『진정서와 해 질 무렵의 노래(Arz-ı Hal ve Akşam Üzeri Türküsü)』를 출간했고 2년 뒤 두 번째 시집 『나의 역사 소설(Türkiyem)』도 이어 나왔다.

투르구트 우야르는 1963년에 시 「젖은 담배(Tütünler Islak)」로 예디테페(Yeditepe)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로마의 시인 루크레티우스(Lucretius)의 「우주의 구조(Evrenin Yapısı)」를 톰리스 우야르(Tomris Uyar)와 함께 번역하여 1975년 튀르키예어 협회 번역상을 받았다. 1981년 「바위를 뚫은 무화과(Kayayı Delen İncir)」로 베흐체트 네자티길(Behçet Necatigil) 대회에서도 상을 받았고, 1984년 「큰 시계(Büyük Saat)」로 세다트 시마비(Sedat Simavi) 재단 문학상을 수상했다.

1985년 8월 22일 이스탄불에서 사망한 투르구트 우야르의 무덤은 이스탄불 진질리쿠유(Zincirlikuyu) 묘지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곳 우야르
- 다국어 표기 TURGUT UY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부르사
- 참고문헌(오프라인) Karaca Alâattin, *İkinci Yeni Poetikasi*, Hece Yayınları, Ankara, 2005.
Kolcu Ali İhsan, *Cumhuriyet Edebiyatı 1 Şiir*, Salkımsöğüt Yayınları, Erzurum, 2009.
Yılmaz Mehmet, “Kente Alışamayan Uyumsuz Bireyin Öyküsü: Turgut Uyar’in Geyikli Gece Şiiri Üzerine Bir Tahlil Denemesi”, *Turkish Studies*, Cilt: 6, 2011.

I H094 | 투르마감벳 이즈틸레요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urmaghambet Iztileyov

투르마감벳 이즈틸레요브(Turmaghambet Iztileyov)는 1882년 제정러시아령이던 시르다리아 카르막치군에서 출생하여 소련 시대였던 1939년에 사망한 카자흐 음유시인(아큰 Akyn)이자 번역가이며 지식인이었다. 투르마감벳은 마을에 있던 학교를 졸업하고 부하라의 미리 아랍 신학교에서 아랍어, 이란어 및 투르크어를 공부했다(1896년~1899년).



투르마감벳 이즈틸레요브
Source: <https://ru.wikipedia.org/>

이후 고향으로 되돌아가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시를 비롯한 문학을 가르쳤다. 1916년에 카자흐인들의 대정부 반대 투쟁이 발생하자 투르마감벳은 이를 지지하는 시를 발표했다. 이어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자 레닌을 지지하는 선언도 했다.

그 결과 새로운 소비에트 정부의 출범으로 새로운 직업이 주어졌는데, 1936년부터 1년간 카자흐 공화국 인민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정치 탄압을 피하지 못했던 투르마감벳은 1937년에 내무인민위원회(NKVD)에 체포되어 2년 후에 사망했다.

투르마감벳은 피르도우시의 「샤나마(Shanama)」 전체 40,000행 중에서 일부분인 24,000행

을 번역했는데, 이는 『루스탐-다스탄』의 이름으로 1961년에 출간되었다. 이것을 보면 그는 이란어에도 능통한 학자였음을 알 수 있다.

1981년에는 투르마감벳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고, 2007년에는 정치탄압 125주년을 기억하며 알마티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다. 2009년에는 투르마감벳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어 일반인들에게 소개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마감벳 이즈틸레요프
- 다국어 표기 Тұрмағамбет Ізтілеуұлы(카자흐어), Турмагамбет Изтлеу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MkCy3PKeofA>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history.kz/ru/news/show/4588>
<http://old.kzvesti.kz/kv/backissues/23982-turmagambet-iztleuov-akyn-poet-perevodchik.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H095 | 투르크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Turks

‘투르크’는 인류학적 구분에 의한 종족을 지칭하며, 민족의 명칭이기도 하고,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제(諸)민족의 총칭이기도 하다. ‘투르크’라는 단어가 국가의 공식명칭으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오르혼(Orkhon) 비문에 스스로를 ‘꺄-투르크(Gök Türk)’라고 기록했던 돌궐제국이다. 그 이후에는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흥기했던 수많은 투르크계 종족, 부족, 왕족, 국가의 용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투르크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주로 ‘용감한’ 혹은 ‘힘센’이라는 뜻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투르크’라는 개념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사용된다:



투르크인의 분포를 보여주는 투르크어 대사전에 수록된 세계지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첫째, 모든 투르크계 민족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30여 개 이상의 투르크 민족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발칸 불가르족, 발카르인, 바시키르인, 가가우스인, 다게스탄의 투르크계 종족, 야쿠트, 노가이, 아제르바이잔인, 알타이인, 타타르, 투바인, 튀르키예인, 투르크멘, 위구르, 하자르족, 하카스인, 추바시인, 출림인, 쇼르인, 우즈베크, 칼미크(teleut)인, 키르기스, 카자흐, 카라임족, 카라칼파크, 크림 타타르인 등 총 인구는 대략 2억 5천만 이상으로 추정된다. 알타이어족의 가장 큰 그룹은 투르크어이다. 동부 유럽에서 극동, 발트해에서 남

아시아까지 퍼져 있는 투르크인들은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다.

투르크 민족들의 역사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만주에서 카스피해에 이르는 중앙아시아 스텝 투르크 민족국가에서 시작해 인도, 스페인, 튀르키예 등 광범위한 지역의 2500년 투르크 민족사를 다루어야 한다.

투르크족은 알타이-사얀 산맥의 동남부 민누신스크(Minusinsk) 지역을 본거지로 B.C. 2천 년경부터 아시아 대륙 동북구 초원지대에서 활동해 왔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16개 제국과 100개 넘는 소국을 건설하며 철과 말을 기본으로 하는 스텝문화를 형성했다. 역사시대 이후에는 흉노, 돌궐, 위구르 제국이 대표적이며, 중앙아시아에서 서진한 투르크족들은 서아시아, 아나톨리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서 셀주크와 오스만 제국이라는 세계적인 제국을 형성했다. 오늘날에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등이 대표적인 투르크 국가들이다.

둘째, ‘투르크’라는 단어가 튀르키예 공화국인 아나톨리아반도와 인접 지역의 일부에 거주하는 투르크 종족의 일부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20세기 초까지는 ‘오스만(오스만 투르크)인’들이라고 불렸으며, 정확한 학술적 표기로는 ‘튀르키예 투르크인’이라고 지칭한다. 이들은 투르크족 중에서도 오우즈(또는 오구즈, oğuz) 그룹에 속하며, 이슬람 법학과 중에서는 주로 하나피파에 속한다.

셋째, 투르크가 우즈베크인들의 민족 발생과 관련된 종족 중 하나를 의미한다. 우즈베크인들은 네 개의 부족 즉, 투르크, 무서버저리(musobozorilar), 칼타토이(kaltatoy), 바를로스(barlos)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투르크인들 그룹에는 투르크화된 무굴인도 포함된다. 이들은 주로 축산업에 종사했으나, 그중 일부는 농업 일을 했다. 19세기 말까지 부하라 칸국, 사마르칸트, 페르가나 지역에 거주했으며 일부 그룹은 우라테페(Ura-Tepa), 지작(Jizzakh) 근처 및 타슈켄트에 거주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크

● 다국어 표기 ТУРК(ТЯР) (카자흐어), Turks(영어), Tür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크인, 카자흐인, 투르크멘인, 바시키르인, 야쿠트(사하)인, 하카스인, 카라칼파크인, 부하라, 사마르칸트, 페르가나, 타슈켄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Б.Х.Кармышева. Этническая группа «тюрк» в составе узбеков.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1960, № 1.
- Д.Е.Еремеев. Этногенез турок. М., «Наука», 1971.
- Л.В.Ошанин, В.Я.Зезенкова. Вопросы этногенеза народо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свете данных антропологии. Т., «Фан», 1953.
- 이희수, 『터키사』,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I H096 | 투르크 언어 이해서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itâbü 'Uidrâk li-lisani'l-Etrâk

『투르크 언어 이해서(Kitâbü 'Uidrâk li-lisani'l-Etrâk)』는 1312년 12월 그라나다 출신인 에시뤼드 에뷔 하얀이 카이로에서 아랍인들에게 투르크어를 가르치기 위해 집필한 킵차크 투르크어 문법 및 사전이다. 이 작품의 문법 파트에는 킵차크 투르크어의 음성 및 형태론, 단어와 접사, 사전 파트에는 아랍어 알파벳에 따라 킵차크 투르크어-아랍어가 배열된다. 사전에는 약 3,500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다.

현재까지 두 개의 사본이 전해지는데 하나는 현재 이스탄불 베이아지드 도서관(beyazid) 벨리윳딘 에펜디 2896번으로, 다른 하나는 베이아지드 대학 도서관 아랍어 사본 섹션에 3856번으로 등록되어 보관 중이다.

투르크 언어 이해서의 아랍어 부분은 검은색 잉크로, 투르크어 부분은 빨간색 잉크로 작성되어 있으며 전체 32쪽으로 구성된 투르크 언어 이해서의 사본은 1402년 라타키아의 아흐메드 이브니 사피에 의해서 필사되었으며 97개의 페이지로 구성된다.



『투르크 언어 이해서』 튀르키예어 판 (2001년 출간) 표지

Source: <http://www.sanatkitavevi.com.tr/kapak/7065.jpg>

하지만 필사자가 투르크어를 모른다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특히 투르크어 단어 오타자가 종종 발견된다. 이 책은 1895년 살로니카 출신 무스타파 에펜디에 의해 이스탄불에서 출판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타부 우이다락 리 리사니 에트라
- 다국어 표기 Kitâbü 'Uidrâk li-lisani'l-Etrâk(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살로니카
- 참고문헌(오프라인) Ahmet Caferoğlu, Abu Hayan, *Kitabü'l-Idrak litisan'l etrak*, İstanbul 1931.

I H097 | 투르크메니스탄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국가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urkmenistan



투르크메니스탄 화폐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더불어 투르크계 국가에 속하며, 중앙아시아 CIS 국가의 하나이다. 남동쪽으로는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접하고, 서쪽으로는 카스피해에 연하고 있어서, 과거 비단길과 관련 핵심적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가스 보유량 세계 4위를 점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자

원 부국이다. 이들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최근 수년간 석유·가스 등 수출을 통해 연평균 6%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는 아쉬가바트(Ashgabat)이며, 전체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5,900,000명이다. 면적은 488,100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약 2.2배 규모이다. 투르크메니스



투르크메니스탄 국회 의사당
Source: <https://mfa.gov.tm/uploads/>

탄의 주요 민족은 투르크멘인(77%), 우즈베크인(9.2%), 러시아인(6.7%), 카자흐인(2%), 기타(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후는 사막성 기후로, 여름에는 고온이며 겨울에는 겨우 영하인 정도이다. 강수량은 봄에 집중되나 곧 증발되어 버리며, 국토의 80%가 사막성 저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산물은 면화와 양모이며, 원유·천연가스 등의 지하자원도 풍부하다.

이 나라의 정체는 대통령 중심제 공화제이며, 의회는 임기 5년의 단원제(50석)이다. 주요 정당은 민주당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6세기 유목민인 투르크족이 이주하면서 시작되었다.

7세기~8세기에는 아랍, 9세기에는 사만 조, 13세기에는 몽골의 침입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티무르의 지배를 받았다. 16세기 이후 히바(Khiva)와 부하라 칸국(Bukhala 汗國) 및 이란과의 전쟁에 패하여 분할되었고, 18세기 이후 제정 러시아의 통치를 받아 왔다.

러시아 혁명 후 러시아 공화국의 일부로서 투르크스탄 자치 공화국이 되었으며, 1924년 일련의 행정 구역 개편 후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을 세우고, 1925년 5월 소련연방에 가입했다.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은 구소연방 해체 과정에서 1990년 8월 주권을 선언하고, 대통령제를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의 독립 기념비 및 국립도서관

도입했으며 1991년 10월 독립 선언 후 12월 독립 국가 연합에 가입했다. 2006년 독재자 니야조프 대통령 급서 직후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그는 2012년 재선 및 2017년 3선에 성공(투표율 97.27%, 득표율 97.69%로 당선)했다.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협력 관계가 한층 더 긴밀해지고 있으며, 2007년 6월 우리 대사관 개설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8년 11월 및 2015년 4월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등 정상 외교를 통해 양국 간 협력 관계가 한층 긴밀해짐과 동시에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국책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크메니스탄
- 다국어 표기 Türkmenistan(튀르키예어), Түркменист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티무르, 부하라 칸국

● 멀티미디어 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문지리사전, 투르크메니스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476214&cid=51778&categoryId=51778>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퍼내기, 1997.

Blackwell, Carole, *Tradition and Society in Turkmenistan: Gender, Oral Culture and Song*. Routledge, 2001.

Brummel, Paul, *Bradt Travel Guide: Turkmenistan*. Bradt Travel Guides, 2006.

Clammer, Paul; Kohn, Michael; Mayhew, Bradley, *Lonely Planet Guide: Central Asia*. Lonely Planet, 2014.

I H098 | 투르크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urkmen

투르크멘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투르크 계열의 민족을 지칭한다. 그 대부분은 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투르크메니스탄에 거주하고 있다. 투르크멘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종족명이 라기보다는 중앙아시아의 일부 집단 즉 이슬람을 받아들인 투르크인을 지칭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었다. 즉 투르크멘이란 용어는 원래 무슬림이 아니었던 오우즈 부족들이 8세기~9세기 이슬람을 받아들인 중앙아시아의 일부 오우즈 투르크인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됐다. 이후 10세기 투르크계 부족인 오우즈와 카를루크(Karluq, 7세기~12세기 준가얼 분지나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투르크계 부족 중 하나)를 지칭하는 부족명으로 사용됐고, 11세기 페르시아의 역사가인 가르디지(ابوسعید عبدالحی بن ضحاک بن محمود گردیزی)에 의해 투르크멘이 오우즈 부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 후 이러한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다.

투르크멘(Türkmen)은 ‘투르크 중의 투르크, 진정한 투르크’라는 뜻이다. 셀주크 조와 오스만 제국 등 대제국을 이룬 오우즈 투르크계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로는 현재의 투르크메니스탄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를 들 수 있다. 어원적으로는 투르크멘은 ‘나는 투르크인이다(Türkmen)’라는 문장에서 유래한 것이라든가, 종교적으로 ‘신실한 투르크인(Türk iman)’에서 유래했다는 설은 민간 어원론으로서 근거가 없는 이야기이다.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은 19세기 역사학자 밤베리(Vambery)가 제시한 가설 즉 Türk와 영어의 -ship 혹은 -dom을 의미하는 어미 men이 결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투르크멘인 대부분은 무슬림으로 이슬람 신비주의인 수피즘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투르크멘인의 종교는 중앙아시아 민속 신앙과 샤머니즘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또한 투르크멘 여자들은 대부분 무슬림 여성들에게 착용이 권장되는 히잡을 쓰지 않는데, 이는 투르크멘인들이 전통적으로 여성들도 남성처럼 전투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이슬람 율법보다 생활에 더 많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오늘날에도 투르크멘인들은 부족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크멘
- 다국어 표기 Türkmen(튀르키예어), Turkmen(영어)
- 연관 검색어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민족의 모자이크 유라시아, 투르크멘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81474&cid=56762&categoryId=56762>
- 참고문헌(오프라인) 최한우, 『중앙아시아학 입문』, 퍼내기, 1997.

I H099 | 투르크멘어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Turkmen language

투르크멘어는 투르크어 분류 체계의 남서투르크어(오우즈어)로 분류되며 투르크멘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투르크멘어는 1990년부터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식 언어로 지정되었다. 투르크멘어에는 약 30개의 방언이 존재한다. 이 방언들의 명칭은 지리적 명칭 혹은 이 언어를 구사하는 인종에 따라 분류가 이루어진다. 마리-아칼(Mari-Akal 방언), 테케(Teke), 북서부 방언을 포함하여 요무

트(Yomut), 살루르(Salur), 살루크(Saruk), 기레클렌(Gireklen), 초브두르(çovdur), 에르사르(Ersarı), 알릴리(Alili), 카라다실르(Karadaşlı), 에르멜리(Ermeli), 사카르(sakar), 아타(Ata), 바야트(Bayat), 노후르(Nohur), 뤼에쉬(Düeşi), 무르쉐(Murşe) 등이 있다.

현대 투르크멘 문어는 마리-아칼(Mari-Akal 방언), 테케(Teke) 방언을 기반으로 하는데, 공식적 교육 언어임과 동시에 도서, 신문, 잡지와 같은 출판물 라디오 및 텔레비전, 문학 작품, 영화, 극 등에 사용되며, 공식적인 언어, 계약 문서 등에도 사용된다.

투르크멘어는 수세기 동안 아랍 문자로 표기되다가 1928년 라틴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자가 채택되었는데, 1940년에 키릴 문자로 표기 문자가 변경되었다. 하지만 1991년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독립을 선언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이후 1993년 30개의 문자로 구성된 새로운 라틴 문자로 표기법을 전환했다.

투르크멘어는 오우즈 그룹으로 분류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어, 튀르키예어와 매우 비슷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크멘어

● 다국어 표기 Türkmençe(투르크멘어), 土库曼语(중국어), Туркменский язык(러시아어), Türkmençe(튀르키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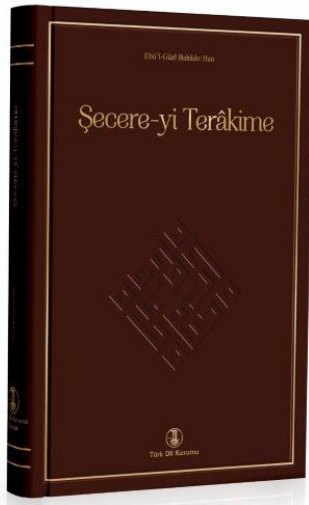
● 연관 검색어 투르크어 분류, 투르크메니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Nepesova, R. Türkmen Türkçesi. *Erciyes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Enstitüsü Dergisi*, 1(17), 2004. 271~286.

I H100 | 투르크멘의 계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Shajara-i Tarākima

『투르크멘의 계보(Shajara-i Tarākima)』는 아불거지 칸(Abulg'ozı Bahodirxon, 재위: 1643년~1633년)이 투르크멘의 지도자들의 부탁으로 집필을 시작했고 1659년 집필을 완료한



『투르크멘의 계보(Shajara-i Tarākima)』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2019년 출간본 표지
 Source: <https://emagaza-tdk.ayk.gov.tr/>

역사서이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랍어, 페르시아어 및 투르크어로 작성되었다. 이 책에서는 투르크멘과 관련한 정보와 오우즈 칸과 그 후손들, 투르크의 탐가(tamga), 각 부족의 시조새를 수록하고 있다. 아불거지는 투르크멘들의 구전 전설 및 베이들과 호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족보를 바탕으로 집필했다. 이외에도 『집사(Jami' al-tawarikh)』와 같은 페르시아어 역사서도 참고 자료로 사용했다. 이 책에는 『집사』에는 없는 오우즈 부족의 정보도 수록되어 있다.

『투르크멘의 계보』에는 여러 판본이 존재하는데, 이는 투르크멘들이 후에 자신들의 부족 조상의 전설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여러 판본에 다양한 투르크멘의 가

계도가 존재한다. 아불거지의 흐르는 듯한 문체와 풍부하고 다양한 문체로 인해 『투르크멘의 계보』 17세기 차가타이 투르크어의 훌륭한 예시로 손꼽히고 있다. 18세기 이후의 판본에서는 우즈베크어의 영향으로 차가타이어가 다소 변형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투르크멘의 계보』의 여러 사본 중 세 권은 타슈켄트에서 소장 중이며 두 권은 아시가바트에서, 레닌그라드 도서관에도 사본 한 권을 소장하고 있다. 투만스키(Туманский, Александр Григорьевич, 1861년~1902년)가 『투르크멘의 계보』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1892년 아시가바트에서 소량 출판되었고, 1903년 아시가바트에서 투르크어-페르시아어-러시아어로 번역되어 최초의 투르크멘 신문인 <하자르 바다의 저쪽 신문(Ruzname-yi mawera-yi bahri Hazar, 루즈나메-이 마웨라-이 바흐리 하자르)>에서 연재되기 시작했으나 끝까지 번역되지는 못했다. 바실리 바르톨드(Васил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Бартольд, 1869년~1930년)는 투만스키의 번역본을 처음 사료로 이용했다. 1937년 튀르키예의 언어학회(Türk Dil Kurumu)는 레닌그라드 도서관 판본을 복사하여 출간했다. 바실리 코노노프(Василий Макарович Кононов, 1923년~2011년)는 가장 오래된 판본인 타슈켄트 소장 판본을 다른 판본과 비교하고, 문법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여 러시아어로 번역 출판한다. 무하렘 에르긴(Muharrem Ergin)은 코노노프 판본을 기초로 현대 튀르키예어로 번역하여 출간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자라이 타라키마, 쉐제레이 테라키마, 샤자라의 타로키마
- 다국어 표기 Shajara-i Tarākima(영어), Shajarayi tarokima(우즈베크어), Şecere-i Terâkime(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불거지 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Ergin. Muharrem. *Ebulgazi Bahadır Han Şecere-i Terâkime (Türkmenlerin SoyKütüğü)*, Türk Dilleri Araştırmaları Dizisi:3, Ankara: Simurg Yayınları, 1996.
Kafalı, Mustafa. “EBÜLGAZİ BAHADIR HAN”, İslam Ansiklopedisi Cilt 10, İstanbul: TDV, pp.358~360.

I H101 | 투르크멘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Turkmens

투르크멘인은 독립 국가 투르크메니스탄의 근거지로 삼는 투르크계 민족이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러시아(북 캅카스, 아스트라한 주(州)), 이란, 아프가니스탄에도 거주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약 420만 명, 이란에 약 130만 명, 아프가니스탄에 약 93만 명, 우즈베키스탄에 약 20만 명, 파키스탄에 약 6만 명, 러시아에 약 3만 7천 명의 투르크멘인이 살고 있다.

오우즈 칸국의 후손으로 고대에는 오우즈인으로 스스로를 불렀고, 중세 비잔틴 제국, 키예프 루시, 러시아 왕국에서는 투르크오만(туркоман), 토르케멘(торкемен) 등으로 불렸다. 투르크멘인은 800만 명 이상이 종교적으로 이슬람 수니파를 믿는다. 투르크멘이란 단어는 당나라의 8세기 문서 통전(通典)에서 표기된 ‘테-고-멘(те-го-мен)’이란 음차 표기로 처음 사용되었다.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드 네시리(Мехмед Нешри)에 따르면 ‘투르크멘’은 ‘투르크(тюрк)’와 ‘이만(иман)’의 결합어로 ‘믿는 투르크인’, ‘투르크-이슬람교도’란 의미라 한다.

아주 고대부터의 혈연 종족 집단이 투르크멘인의 기원인데, 이들은 유라시아 초원과 알타이에서 흑해까지 살면서 스키타이인이라고 불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크멘인

- 다국어 표기 Туркмены(러시아어), ترکمان(아랍어), Türkmenle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H102 | 투르크어 분류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어족, 어파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Classification of Turkic Languages

언어를 살필 때, 계통상 하나로 묶이는 언어의 종족을 어족(語族)이라고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유럽 어족, 알타이 어족, 셈 어족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한 어족(語族)에서 같은 시기에 분화된 여러 언어를 통틀어 어파(語派)라 하고, 같은 어파 가운데 서로 친족 관계를 이루는 여러 언어를 통틀어 어군(語群)이라 칭한다. 알타이 어족에는 만주통구스어파, 몽골어파, 투르크어파의 세 어파가 존재한다. 이 중 투르크어파는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시베리아의 북극해 연안에서 페르시아만 연안, 태평양 연안에서 발트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동유럽, 중앙아시아, 시베리아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쓰인다. 투르크어파에 속하는 언어들은 오늘날 대략 1억 6천에서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 투르크어파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알타이어족의 하위 분류로 살필 경우 분류되는 명칭으로 이해할 수 있다. 투르크어파에 속한 언어들은 통상 투르크어족으로도 칭해지는데, 투르크어족은 투르크족이 사용하는 언어를 총칭해서 이르는 언어학적 분류이다.

오늘날의 지역적 구분에 따라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나라는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투르크어족은 이러한 나라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우즈베크어, 투르크멘어 등을 포함한다. 이들 언어는 튀르키예 투르크어,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어, 카자흐스탄 투르크어, 키르기스스탄 투르크어 등으로도 표현 가능하다. 투르크어족은 지역별

로 거리가 가까운 언어들도 있는 반면,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들도 있다. 투르크어족의 언어들에는 교착어, 모음조화, 주어-목적어-서술어 형태의 SOV어순 등의 알타이어족(또는 알타이제어)으로서의 공통적 특징을 지니며, 문법과 통사의 유사성과 공통 어휘 등으로 인해 수월하게 소통 가능한 언어들도 있다. 물론 고급 어휘나 복잡한 문장 구조에서는 동일 어휘나 유사한 표현이라 할 지라도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투르크어족, 투르크어파 또는 투르크계 언어 등과 같이 수많은 명칭으로 일컬어지는 언어들에는 그 분류 체계 또한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학자들은 대부분 현대 투르크계 언어를 음성적 기준 차이에 입각하여 분류하며 형태적 기준도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현대 투르크어 분류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탈라트 테킨(Talat Tekin, 1991)의 분류 체계

이 분류는 6가지 음성학적 기준에 따라 투르크어를 다음과 같이 12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6가지 음성학적 기준 : ① r = z, l = š 대응관계, ② 어두음 h-의 보존 유무, ③ 어중 및 어말의 /d/음의 발전 상황, ④ 다음절 낱말에서 어말의 소리때 /iʏ/의 발전 상황, ⑤ 단음절 낱말들에서 소리때 /ay/의 발전 상황, ⑥ 어두음 t-의 보존 또는 유성음화)

- I. 추바쉬어
- II. 할라지어
- III. 야쿠트어(사하어), 돌간어(Dolgan)
- IV. 투바어(Tuvan), 토파어(Tofa)
- V. 하카스어, 쇼르어, 푸위 키르기스어(Fuyü Kirghiz)
- VI. 알타이어의 북부 방언들
- VII. 알타이어의 남부 방언들
- VIII. 키르기스어
- IX. 차가타이 어군: 우즈벱어, 현대 위구르어
- X. 쿽차어 어군: 타타르어, 바시키르어, 카작어, 카라칼파크어, 노가이어, 카라임어, 크림 타타르어, 쿠르크어, 카라차이-발카르어, 우즈벱어의 쿽차 방언
- XI. 살라르어

XII. 오우즈어군: 튀르키예어, 가가우즈어, 아제르바이잔어, 투르크멘어, 호라산 투르크어, 우즈베크어의 오우즈 방언

2. 라르스 요한슨 (Lars Johanson, 1998, 2016) 분류 체계

I. 불가르(Bulghar) 분파: 추바쉬어

II. 아르구(Arghu) 분파: 할라지어

III. 남서투르크어 (서남 어군) = 오우즈(Oğuz)/오구즈 어파

① 서부 오우즈어 : 튀르키예어, 가가우즈어, 아제르바이잔어

② 동부 오우즈어 : 튀르크멘어, 호라산어

③ 남부 오우즈어 : 아프샤르어, 카슈카이어, 아이날루어

④ 고립어 : 살라르어(Salar)

IV. 북서투르크어파 (서북 어군) = 쿱착/쿱차크(Kypchak)/킵차크 어파

① 서부 킵차크어 : 크림 타타르어, 우룸어, 카라임어, 카라차이-발카르어, 쿠르크어/쿠미크어

② 북부 킵차크어 : 타타르어, 바시키르어

③ 남부 킵차크어 : 카작어/카자흐어, 카라칼팍어, 키르기스어, 노가이어

V. 남동투르크어 (동남 어군) : 우즈베크어, 현대 위구르어

VI. 북동투르크어 (동북 어군) = 시베리아 어군

① 북부 시베리아 : 야쿠트어(사하어), 돌간어(Dolgan)

② 남부 시베리아 : 알타이어, 하카스어, 쇼르어, 출름어, 투바어, 토파어

3. 에스놀로그(Ethnologue)에서 제시하는 분류 체계

웹 기반으로 세계 언어 데이터를 제공하는 국제 하계 언어학 연구소(SIL)의 에스놀로그(ethnologue.com)에 따르면 투르크어족은 크게 I. 우룸어(Urum), II. 불가르어(Bolgar), III. 동부투르크어(Eastern), IV. 북부투르크어(Northern), V. 남부투르크어(Southern), VI. 서부투르크어(Western)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분류 체계에 따라 총 41개의 투르크족 언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Radlov (1882), Ramstedt (1938), Samoylovich(1922), Kaare Grönbech (1936), Baskakov (1960), Menges, W. Bang 등 다양한 학자에 의해 투르크계 언어의 분류가 제안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크어 분류체계, 튀르크어 분류
- 다국어 표기 Türk dillerinin sınıflandırılması(튀르키예어), Classification of Turkic Languages(영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우즈베크어, 교착어, 모음 조화, 어순
- 참고문헌(온라인) 에스놀로그 <https://www.ethnologue.com/http://turkiclanguages.com/http://www.digizeitschriften.de/dms/toc/?PPN=PPN666048797>
- 참고문헌(오프라인) 김주원 외. 『알타이학의 어제와 오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이용성. 『샤크르 샤크르 터키어』, 이담북스, 2012.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Dilaçar, A. *Türk Diline Genel Bir Bakış*, Ankara, 1964.
Johanson, L. *The History of Turkic*. In Lars Johanson & Éva Ágnes Csató (eds) *The Turkic Languages*. London, New York: Routledge, 1998, 81~125.
Tekin, T. A new classification of the Turkic Languages. *Türk Dilleri Araştırmaları*, 1, 1991, 5~18

I H103 | 투르크어 사용 민족 신화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 전승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Mythology of Turkic-speaking peoples(summary)

투르크어 사용 민족 신화는 투르크어를 사용하는 민족들(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멘, 카자흐, 키르기스, 우즈베크, 위구르, 노가이, 타타르, 카라칼파크, 쿠미크, 카라차이, 발카르, 바시키르, 추바시, 알타이, 투바, 쇼르, 하카스, 야쿠트, 가가우즈, 카라임, 크림 타타르 등)의 신화 체계이다.

투르크어 사용 민족 신화의 공통 기원은 고대 투르크(돌궐)의 신화에서 유래한다. 투르크어

사용 민족 신화의 특수성은 고대 투르크 신화의 기원을 공유하면서도 다양한 종교, 인종, 시대, 문화적 배경이 반영된 여러 신화 체계를 보여 준다.

투르크어 사용 민족 신화의 범주는 시대별, 지역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크게 6세기~10세기의 고대 투르크 신화(오르콘 투르크 신화라고도 하며, 돌궐 제국의 신화), 8세기~14세기의 이슬람 투르크 신화(아나톨리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캅카스, 크림, 서시베리아 지역의 여러 투르크 민족), 16세기 이후에 형성된 불가 투르크 신화(불가강 중하류의 바시키르, 타타르, 추바시 민족의 신화),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의 사얀-알타이 투르크 신화(알타이, 하카스, 쇼르, 투바, 야쿠트 민족)가 있다.

투르크어 사용 민족 신화의 여러 범주는 종교적으로는 원시 토테미즘, 탕크리, 조로아스터교, 유대교, 불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의 영향과 북아프리카, 메소포타미아, 아랍, 페르시아, 로마, 북유럽, 중국 등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크 민족 신화
- 다국어 표기 Mythology of Turkic-speaking peoples(영어)
- 연관 검색어 고대 투르크 신화, 카자흐스탄
- 참고문헌(온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 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г. — т.2, 538~539.

I H104 | 투르크어의 역사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연대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A History of Turkish Languages

오늘날 튀르키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는 튀르키예어(Türkiye語)라고 이른다. 영어로는 'Turkish', 원어로는 'Türkçe' 튀르크체 또는 투르크체로 표현된다. 한국어로 '튀르키예어'와 '투르크어'는 각기 다른 어휘로 명명되었으나, 튀르키예어의 경우, 튀르키예어(Türkçe)와 투르크

어(Türkçe)는 표기상 그 차이가 없다. 투르크어파, 투르크어군, 투르크어 등과 같이 칭해질 경우, 이러한 분류는 여러 언어를 통틀어 이르게 된다. 그러나 튀르키예어 원어로 표현될 경우 어파, 어군으로서 투르크어와 오늘날 튀르키예에서 사용되는 현대 튀르키예어가 어휘상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로 인하여 튀르키예어를 ‘튀르키예 투르크어’라고 의식적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기도 한다. 이는 튀르키예어라고 칭하면서 모든 투르크어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이해하게 될 경우, 투르크어군의 다른 언어들에 튀르키예어의 하위 개념 혹은 방언으로 인식하게 되는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튀르키예어는 투르크어파에 속하며, 투르크어파는 알타이 어족의 한 어파로 살펴볼 수 있다. 통상적으로 투르크어의 분류 체계는 음운 대응이나 형태적 유사성에 착안하여 지역에 따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현대 튀르키예어에서 연대순으로 거슬러 오르면서 투르크어군의 언어학적 분류를 통시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투르크계 언어를 분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다. 유목 문화의 특성상 기록 문화가 늦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투르크학자 말로프(Sergey E. Malov)는 1951년~1952년 주요 비문들을 연구하여 연대순에 따른 투르크어 분류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최고(最古) 투르크 제어: 불가르어, 추바시어, 위구르어, 야쿠트어, 고대 투르크 제어: 오우즈(예니세이 비문 언어), 고대 위구르어, 투바, 하카스, 쇼르, 근대 투르크 제어: 아제르바이잔어, 투르크멘어, 가가우즈어, 위구르(동투르크스탄)어, 쿠만딘 우즈베크어, 킵차크어, 차가타이어, 페체네크어, 출름어, 쿠만어, 살라르 투르크어, 현대 투르크 제어: 바시키르어, 오이라트어, 카자흐어, 타타르어, 카라칼팍크어, 쿠무크어, 노가이어

아흐메트 자페르오을루(Caferoğlu, 1970, 2001)가 제시한 투르크어의 연대순 분류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알타이어 시대(Altay devri), 최고(最古) 투르크어 시대(En eski Türkçe devri), 초기 투르크어 시대(İlk Türkçe devri), 고대 투르크어 시대(Eski Türkçe devri), 중세 투르크어 시대(Orta Türkçe devri), 신투르크어 시대(Yeni Türkçe devri), 현대 튀르키예어 시대(Modern Türkçe devri)

투르크어의 연대순 분류 체계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그 시기를 6가지에서 8가지까지 나누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위에 제시한 것처럼 일곱 단계로 분류한다. 첫 번째 시기

는 알타이어 시대 혹은 원시 알타이어 시대로 투르크어의 가장 오래된 시대이며 이 시기에는 투르크어, 몽골어, 퉁구즈어 등이 나뉘지 않고 알타이 단일 언어가 사용되는 시기로 간주된다.

두 번째 시기는 알타이어와의 분리를 다루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자들 간 용어 사용 측면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통일되지 않는 시대 설정이 눈에 띈다. 이 시기는 ‘최고(最古) 투르크어 시대(En eski Türkçe devri, Proto Turkic)’로 지칭되기도 하고(Caferoğlu, 1970, 2001; Heyet, 2008; Akar 2013) 또는 ‘초기 투르크어 시대(İlk Türkçe devri, Pre Turkic; Özyetgin, 2006)’ 등으로 불린다. 이 시기는 알타이어의 분리가 일어나는 첫 번째 단계로, 먼저 한국어와 일본어가 알타이어에서 분리되어 나가게 된다. 아직 추바시어어와 알타이어는 분리되지 않았기에 ‘추바시-투르크어 연합 시대(Çuvaş - Türk Dil Birliği, Pre Turkic; Korkmaz, 2003)’가 이 기간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세 번째 시기는 ‘초기 투르크어 시대(İlk Türkçe devri, Proto Turkic; Caferoğlu, 1970, 2001; Heyet, 2008; Akar 2013, Eker 2006)’, ‘원시 투르크어 시대(Ana Türkçe dönemi, Proto Turkic; Güneş, 2002; Korkmaz, 2003; Ercilascun, 2004; Özyetgin, 2006) 혹은 ‘선 투르크어 시대(Ön Türkçe Devri, Pre Turkic; Güneş, 2002)’라고 불리며 1세기에서 6세기까지를 포함한다. 이 시기의 동일 계통의 주변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어적 성격이 자리를 잡기 전에 이들 조어 집합체에서 분리되어 멀어지거나, 조어 집합체 내에 존재했던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한다.

네 번째는 고대 투르크어 시기로 5세기~6세기부터 9세기~10세기를 아우른다. 학자들에 따라 이 시기에 돌궐어(궤투르크어)와 위구르어만 포함시키거나(Gabain, 1941) 카라한 칸국 시기의 투르크어까지 포함하기도 한다(Marcel Erdal, 2004).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이 돌궐어와 위구르어만을 포함시키며, 카라한 칸국 시기는 중세 투르크어에서 다룬다. 오르콘 비문 등의 기록 자료를 통해 앞선 시대보다 더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이므로 이 시기는 아래와 같이 더 세분화하여 다뤄볼 수 있다.

초기 고대 투르크어 시기: 400년~550년, 후기 고대 투르크어 시기 I: 550년~700년, 후기 고대 투르크어 시기 II: 700년~1000년, 후기 고대 투르크어 시기 III: 1000년~1200년(Róna-Tas, 2013)

중세 투르크어는 이슬람 텍스트들이 쓰인 11세기부터 16세기 말까지의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기를 12세기~15세기로 구분 짓기도 하는 등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다. 신티르크어 시기는 주로 15세기에서 16세기부터 19세기 말, 20세기까지의 기간을 가리킨다. 고대 투르크어까지의 기간은 다른 투르크어군의 역사적 분류와도 같다. 그러나 신티르크어와 현대 투르크어로 이어지는 마지막 두 시기는 튀르키예어로 제한되는 입장임을 밝힌다. 이는 튀르키예에서 연구되는 투르크어의 통시적 연구는 알타이어부터 고대 투르크어까지 이어져 중세 투르크어 그리고 현대 튀르키예어로 계승되는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티르크어 시기에는 중세 투르크어 시대에 사용된 일부 문어가 고전적이고 발전된 형태로 바뀌는 기간을 다루고 있으며, 19세기 말까지 계속된 이 기간에 서쪽에서는 오스만 투르크어가, 동쪽에서는 차가타이 투르크어가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현대 튀르키예어 시대 20세기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는 현재의 튀르키예어에서 사용되는 튀르키예어를 지칭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크어역사, 투르크어사
- **다국어 표기** Türk Dilinin Tarihsel Dönemleri(튀르키예어), A History of Turkish Languages(영어)
- **연관 검색어** 튀르키예, 튀르키예어, 카라한 칸국, 오르콘 비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cikders.ankara.edu.tr/mod/page/view.php?id=18775><https://www.makaleler.com/turk-dilinin-tarihsel-donemleri>
- **참고문헌(오프라인)** Caferoğlu, A., *Türk Dili Tarihi I*, İstanbul : İstanbul Üniversitesi Edebiyat Fakültesi Yayınları, 1970.
Dilaçar, A., *Türk Diline Genel Bir Bakış*, Ankara: Türk Tarih Kurumu Basımevi, 1964.
Karademir F., Türk Dilinin Tarihî Dönemlerini Adlandırma Sorunu. *Uluslararası Türkçe Edebiyat Kültür Eğitim Dergisi*, 5(2), 545~564. 2016.
Róna-Tas, A., *Türkolojiye Giriş* (Çeviren: İsa SARI). Ankara: Nobel Yayınları. 2013.
Tekin, T. ve Ölmez, M., *Türk Dilleri-Giriş*. İstanbul: Yıldız Dil ve Edebiyat Yayınları. 2003.

I H105 | 투르크의 계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Shajarayi turk

『투르크의 계보(Shajarayi turk)』는 15세기 말부터 시작하여 부하라 칸국의 샤이바니 조의 역사와 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불거지 칸(Abulg'ozzi Bahodirxon, 재위: 1643년~1633년)이 집필했다. 그러나 1633년 아불거지 칸이 사망하여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고 아들인 아누샤 무함마드 칸(Anusha Muhammadxn, 재위: 1663년~1687년)이 완성했다.

『투르크의 계보』는 샤이바니 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투르크와 몽골의 역사도 포함하고 있다. 작가는 책의 첫 부분을 『집사(Jami'al-tawarikh)』와 티무르 조의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역사서에서 일부 가져 왔고 고쳤다. 저자는 17권의 『징기스나마(Genghisnama)』를 바탕으로 저술했다고 밝히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1717년 시베리아에서 포로 생활 중이던 스웨덴 지리학자이자 공무원 스트랄렌버그(Philip Johan von Strahlenberg, 1676년~1747년)가 이 책을 발견했고, 쉘스트림(Schenström)이 러시아어를 알고 있는 부하라 출신 이맘에게 번역을 맡겼다. 이 번역본을 기반으로 1721년 독일어로 다시 번역되었다.

연구를 위해 시베리아에 왔던 독일의 학자 메셔슈미트(Messerschmid)는 이 작품의 원본과 번역본을 괴팅겐으로 가져간다. 괴팅겐에서 프랑스로 번역한 후 벤틀크(Bentinck) 박사의 해설을 추가하여 『타타르어 사본에서 번역된 아불가지 바가두르 칸의 타타르의 족보(Histoire Généalogique des Tartars traduit du manuscrit Tartare l'Abulgazi Bagadur Chan, La Haye, 1726)』라는 제목으로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된다.

이후 러시아어와 영어로도 번역되었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1780년 괴팅겐에서 독일어로도 출간되었다. 독일어 번역본은 『에불가지 바가두르 칸의 무갈-몽골 또는 몽골칸의 역사서(Ebulgazi Bagadur Chans Geschichtsbuch der Mugalisch-Mongolischen oder Mongolischen Chane, Göttingen: Wittve Vandenhoeck, 1780)』이다.

한편 러시아인들은 다른 판본을 찾아낸다. 1825년 역사학자 크리스티안 프란(Christian



『투르크의 계보(Shajarayi turk)』

우즈베키스탄 베루니 동양학 연구소 소장본

Source: <https://www.oeaw.ac.at/fileadmin/kommissionen/>

Martin Joachim Frähn, 1734년~1815년)과 카잔의 학자 이브라힘 알핀(Ibrâhim Halfin, 1778년~1829년)은 『투르크의 계보』의 다른 판본을 라틴어 머리말과 함께 『아불가지 칸의 몽골과 타타르의 역사(Abulgasi Bagadur Chani Historia Mongolorum et Tartarorum)』라는 제목으로 출간한다. 이 판본을 기초로 고르디 사블루코브(Гордий Семёнович Саблукóв, 1804년~1880년)가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1905년 출간한다. 카잔에서 출간된 판본을 기초로 삼아 오스만 제국의 아흐메드 베픽 파샤(Ahmed Vefik Paşa, 1823년~1891년)가 오스만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이 번역본은 1863년 9월 28일~1864년 2월 23일 동안 <생각의 그림(Tasvîr-i Efkâr, 타스비르-이 아프카르)> 신문에서 일부분 연재되었고, 1864년에 『투르크의 계보(Uşal-ı şecere-yi Türki)』라는 제목으로 출간된다.

장 자크 피에르 데스메종 남작(Jean Jacques Pierre Desmaisons, 1807년~1873년)은 그때 까지 출간된 모든 판본을 비교하여 튀르키예어와 프랑스어로 번역한 후 주석을 달아 『몽골과 타타르의 역사(Histoire des Mogols et des Tatares, St. Petersburg, 1871)』라는 제목으로 두 권을 출간한다. 이 판본에 기대어 압딜알람 페이즈한오을루(Abdülallâm Feyzhanoglu)가 카잔어, 르자 누르(Rıza Nur)가 튀르키예어로 출간했다. 『투르크의 계보』는 아불거지의 다른 작

품인 『투르크멘의 계보』와 함께 중앙아시아 투르크인의 역사와 가계에 관한 귀중한 사료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샤자라이 투르크, 쉐제레이 튀르크
 - 다국어 표기 Şecere-i Türk(튀르키예어), Shajarayi turk(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Kafalı, Mustafa. “EBÜLGAZİ BAHADIR HAN”, *İslam Ansiklopedisi Cilt10*, İstanbul: TDV, pp.358~360.
- Ölmez, Zuhâl, *Şecere-i Türk'ün Sözcüklerinden Örnekler*, Türk Dilleri Araştırmaları 1, 2001, pp.23~32.

I H106 | 투르크িস탄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urkistan, Turkestan

투르크িস탄이라는 명칭은 크게 구분하면 다음 세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투르크িস탄은 러시아어식 발음으로 ‘투르케스탄’이라고도 하는데, 카자흐스탄 남부 도시로서 16세기~18세기까지 카자흐 칸국의 수도였다. 야시(Yassi)라고도 불리는 투르크িস탄은 시르다리아강 중류에 위치하여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 이슬람 수피즘을 지도한 아흐메드 야세비의 영묘가 위치해 있어서 순례지로서 유명하다. 2022년에 단행된 카자흐스탄 행정지역 개편으로 남카자흐스탄 주 대신 투르크িস탄 주로 명칭이 변경됐고, 투르크িস탄 시는 주도가 되었다.

둘째, 제정러시아가 중앙아시아 일대로 팽창하면서 1867년에 타슈켄트를 수도로 한 지역이 바로 투르크িস탄 총독부령이며, 이 지역을 간략히 투르크িস탄(투르케스탄)이라고도 한다. 여기에 포함되는 곳은 히바칸국과 부하라 에미르국이 제외된 카자흐스탄의 남부 지역과 투르크메니스탄 및 타지키스탄의 동부 지역이 있다. 이 투르크িস탄 지역은 제정러시아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았고, 러시아 혁명 직후에는 잠시 투르크িস탄 자치 소비에트 공화국이 수립되어 러시아 공



투르키스탄 전경

화국에 소속된 적이 있다.

셋째, 투르키스탄은 광의의 지역으로 투르크인이 사는 땅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중남부 지역을 의미하기도 한다. 북부 지역은 카자흐 스텝 혹은 단순히 스텝 지역이라고 하여 구분했는데, 이는 제정러시아의 개념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중앙아시아 국가 지역과 대비하여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 지역을 ‘동투르키스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1933년 및 1944년에 해당 지역에서 나타난 동투르키스탄 국가 형성과도 관련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키스탄, 투르케스탄
- 다국어 표기 Түркістан(카자흐어), Туркест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24aBnYHku6w>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skyway.kz/places/ancient-city-of-turkestan/>



투르키스탄의 호자 아흐메드 영묘
Source: <https://kk.wikipedia.org/wiki/>

<https://www.caa-network.org/archives/22255/turkestan-duhovnaya-stolicza-kazahstana-ili-vsego-tyurkskogo-mira>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5, Алматы, 2006.

I H107 |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 1 국가 ● 유형 소분류 2 공화국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urkestan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1918년 4월 성립된 중앙아시아 원주민을 위한 자치 공화국을 지칭한다. 1917년 2월 볼셰비키에 의한 차르 정부의 몰락과 뒤 이은 10월 혁명은 중앙아시아 원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즉, 중앙아시아 원주민들에 있어서 10월 혁명은 단지 정부의 형태가 차르 체제에서 볼셰비키 체제로 바뀐 것에 불과했고 러

시아인들에 의한 러시아 혁명에 불과한 것이었다.

1917년 11월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제3차 소비에트 노동자·농민·병사위원회(The third congress of Soviets of Workers, Peasants, Soldier's Deputies)는 중앙아시아 내 차르 정부의 폐지와 소비에트 정부의 설립을 선언했다. 이 회의에서 중앙아시아 원주민을 대표하는 타슈켄트 무슬림 성직자위원회(The Congress of the Ulama)는 소비에트 정부 내에 무슬림 대표단의 설치를 요구했지만 묵살되고 말았다. 이로 인해, 1918년 4월 중앙아시아 원주민들은 대표 기관인 이슬람위원회와 성직자위원회를 통해 그들의 독자 정부라 할 수 있는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urkestan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 즉, 코칸드 자치 정부(Autonomous Government of Kokhand)의 형성을 선언하게 되었다.

즉, 이것은 두 차례에 걸친 러시아 혁명 와중에 발생한 현지 무슬림 민족의 자결권 회복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회의를 주도했던 대표단의 대부분이 지도자 계층에 있는 무슬림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치 정부를 내세워 사실상 소비에트 체제에 항복한 셈이 되고 말았다.

이후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내의 패권 다툼과 소비에트 중앙 정부의 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1924년 10월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리고 키르기스 사회주의 공화국 등 구소련을 구성하던 중앙아시아 5개 공화국으로 분열 재편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공화국

● **다국어 표기** Turkiston Avtonom Sovet Sotsialistik Respublikas(러시아어), Turkestan Autonomous Soviet Socialist Republic(영어)

● **연관 검색어** 코칸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9swuRoRBxnA>

● **참고문헌(오프라인)** Smele, Jonathan D. *The 'Russian' Civil Wars, 1916–1926: Ten Years That Shook the World*.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5 January 2016.

Yalcin, Resul, *The Rebirth of Uzbekista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in the Post-Soviet Era*. Garnet & Ithaca Press, 2002.

I H108 | 투르키스탄 자치 정부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자치 정부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urkestan Autonomy

1917년 11월 타슈켄트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소비에트 권력이 수립되어 임시 정부를 수립하고 통치를 대신했으나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공화국 구성원의 대다수는 러시아인이었으며 식민지 체제를 계속 유지했다. 이에 1917년 11월 26일 코칸트에서 개최된 제4차 무슬림 대회에서 투르키스탄 자치를 선언했다. 이 대회에서 발표된 결의문에 따라 러시아 혁명 이후 정부가 강조한 자치권을 요구하고, 투르키스탄은 러시아 연방 공화국 내에서 자치를 선언하고, 자치권을 제한 의회에 제출했으며, 투르키스탄 영토 내에 거주하는 소수 민족 권리의 보호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투르키스탄 자치 정부(Turkiston muxtoriyati)’로 개명되었고 관리 기구인 임시 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임시위원회에는 총리, 내무부 장관에 티니시아이브, 부총리에 이슬람 쇼아흐메도브, 외무부 장관에 무스타파 초카 예프(후에 총리가 됨), 국방부 장관에 우바이둘라 허지이프, 국토부 장관에 유랄리 아가이브, 식품부 장관에 오비드존 마흐무도브 내무부 차관에 두라흐먼 우라자이브, 재무부 장관에 솔로몬 게르스펠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투르키스탄 중앙 행정부를 장악한 소련 정부는 이 자치회 위원들과 지지자들을 암살하게 되었다. 1917년 12월 13일 타슈켄트에서 개최된 자치 회의를 압박하여 참석자 중 16명을 살해했다. 1917년 12월 25일 코칸트에서 제1차 타슈켄트 무슬림 노동자, 군인 및 농민 총회가 개최되고, 이 총회에서 투르키스탄 자치 정부 임시위원회를 무슬림 노동자, 군인 및 농민 대표로 구성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12월 27일 총회는 페테르부르크의 레닌에게 전보를 보내 투르키스탄의 자치 정부를 인정하고 타슈켄트 인민위원회에서 투르키스탄 자치 임시위원회로 권력을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레닌을 비롯하여 소련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1918년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투르키스탄 지역 소련 4차 의회는 투르키스탄 자치회 설립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지도자들을 체포하기로 결정하고 1월 30일 군사 작전을 시행했다. 당시 투르키스탄 자치회에는 이에 대항할 군사 및 재정 상황을 지원할 능력이 없었다. 한편 위원회 내에서도 분열이 일

어나, 경찰서장 키치크 에르가시가 총리가 되었다.

1918년 2월 14일 투르키스탄 소련 정부는 페르가나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무장군이 타슈켄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2월 19일~21일 코칸트 지역에서는 대학살이 일어나 수천 명의 코칸트 시민이 사망했다. 이로써 투르키스탄 자치 정부는 해체되고, 소련 정부는 사회주의 경제 및 정치 재건을 주장하며 사유지의 국유화를 추진했다. 이 후 소련에 의해 이 지역에는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건립되었다.



투르키스탄 자치 정부 깃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다국어 표기** Turkiston muxtoriyati(우즈베크어), Түркістан автономиясы(카자흐어), Türkistan Millî Özerk Hükûmeti(튀르키예어), Turkestan Autonomy(영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Hiro, Dilip. *Inside Central Asia*, Duckworth, 2012.
Usmonov, Q.; M.Sodiqov; S.Burxonova,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I H109 | 투르키스탄 지역 무슬림 회의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urkiston o'lka musulmonlar sho'rosi

1917년 4월 16일 '이슬람위원회'의 주도로 전 투르키스탄 무슬림 회의가 소집된다. 베흐부

디, 아사둘라호자이브, 라빈, 노르보타베커브, 왈리디, 유수보브, 쇼아흐메도브 등 당대 투르키스탄 지역의 유명한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투르키스탄 무슬림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중앙 기구인 중앙 협의회가 설립되었다.

무스타파 초카이브가 회장, 무나바르 커르는 차장, 아흐마드 자키 왈리드는 사무국장, 베흐부디와 아사둘라호자이브 등은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중앙 협의회는 전국에 산재한 조직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이었다. 투르키스탄 지역 무슬림위원회는 당시 투르키스탄 지역에서 러시아 임시 정부 투르키스탄위원회, 노동자 군인 대의원 협의회와 함께 영향력 있는 단체가 되었다. 지역 주민의 지도자였던 성직자와 자디드들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해외 무슬림 대표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추구했기에 1917년 5월 1일~2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차 러시아 무슬림 총회에 참석했다.

1917년 9월 17일~20일 타슈켄트에서 열린 제2차 전 투르키스탄 무슬림 회의에서는 지역 주민 500명의 대표가 참석하여, 12명으로 구성된 투르키스탄 지방위원회와 24명으로 구성된 샤리아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이슬람위원회와 올라마위원회, 투란, 이트하드 등 지역 조직을 통합하여 단일 무슬림 연합을 형성하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의회에서 베흐부디는 모든 사람의 단결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 당시 회의는 투르키스탄의 내부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의 지역 및 국가 자치권을 확립하자는 분위기가 대다수였다. 이에 따라 투르키스탄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국가의 모든 애국적인 세력이 연합하여 국가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투르키스탄의 일부 세력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서 단결을 추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럼에도 1917년 11월 26일~28일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는 투르키스탄 자치 정부 설립을 선언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키스탄 지역 무슬림 총회

● 다국어 표기 Turkiston o'lkasi musulmonlar sho'ros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투르키스탄 자치 정부

● 참고문헌(오프라인) Usmonov, Q.; M.Sodiqov; S.Burxonova,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Mingnorov, A. *Turkistonda 1917—1918 yillardagi milliyosiy tashkilotlar*, Tashkent, 2002.

I H110 | 투르크িস탄의 소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신문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Sadoi Turkiston

<투르크িস탄의 소리(Sadoi Turkiston, 사더이 투르크িস턴)>는 1914년 4월 4일부터 1915년 4월 10일까지 타슈켄트에서 발행된 신문이다. 창간호에는 ‘일주일에 두 번 발행되는 문학, 경제, 학술 및 일상소식을 다루는 투르크 신문’이라고 신문을 소개하는 글이 실렸다. 신문의 발행인이자 편집장은 변호사 우바이덜라 아사둘라허자예브(Ubaydulla Asadullaxojaev)로 다방면에 박학다식한 당대의 지식인이다. 그는 신문을 통해 식민주의, 무지 및 후진성의 족쇄에 묶여 어렵고 비참한 상황이었던 조국과 인민을 해방하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외 무납비르 커리(Munavvar qori Abdurashdonov), 압둘라 아블러니이(Abdulla Avloniy), 타발러(Tavallo), 사잇너스르 미르잘리로브(Saidnosir Mirjalilov), 함자 하킴저다(Hamza Hakimzoda), 하미트 사이트(Hamid Said), 출판(Cho'lon) 등의 선진 지식인들이 신문 제작에 참여했다.

신문은 민족 부흥에 집중했고, 신문이 제기한 문제는 날카로운 논쟁의 장으로 변했다. 신문의 편집인들과 발행인은 동시대의 자유주의 부르주아지 신문인 <시간(Vaqt)>과 <소비에트(Sho'ro)>의 방향을 알고 있었으며, <투르크িস탄의 소리(Sadoi Turkiston)>도 어느 정도는 이 신문들과 논조를 맞추려 노력했다. <시간(Vaqt)>과 <소비에트(Sho'ro)>에 게재되었던 일부 기사가 <투르크িস탄의 소리(Sadoi Turkiston)>에도 실리기도 했다.

<투르크িস탄의 소리(Sadoi Turkiston)>에는 또한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 아랍 국가와 같은 나라들의 무슬림의 삶에 관한 기사도 제공했다. 무엇보다 <투르크িস탄의 소리(Sadoi Turkiston)>는 언론과 신식 학교 조직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이로 인하여 각호에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창간호에서부터 당대의 현안 중 하나였던 땅과 집을 팔아 행하는 허례허식에 대해 반대하는 진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런 현실을 다룬 함자의 「새로운 행복 또는 전통적인 소설(Yangi Saodat yoki Milliy Romon)」, 라우프 무자파르저다(Rauf Muzaffarzoda)의 「의식의 희망(Ong Umidlari)」, 「철 바퀴 소리 아래의 꿈(Temir Gildiraklar Ustidagi Tushlar)」, 샷릿딘 아

이니이(Sadriddin Ayniy)의 「행복한 가족(Honadoni hush baht)」, 피트랏(Abdurauf Fitrat)의 「사이하(Sayha)」와 같은 사실주의적 문학 작품들도 실렸다.

<투르키스탄의 소리(Sadoi Turkiston)>에 게재되었던 기사들은 우즈베키스탄 역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출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언론 역사에 가치 있는 발자국을 남겼다. 또한, 투르키스탄의 출판 협력 조직과 지역민의 출판 부문 전문가 교육에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투르키스탄의 소리(Sadoi Turkiston)>는 재정난으로 신문 66호 이후 부득이하게 폐간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사도이 투르키스톤, 사더이 투르키스텐
- 다국어 표기 Sadoi Turkiston(우즈베크어), Голос Туркестан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무납비르 커리, 압둘라 아블러니이, 함자, 하미트 사이트, 출판, 사랏딘 아이니이, 피트랏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kutubxona/yangi-kitoblar/milliy-matbuotimizning-ikki-durdonasi/?lng=lat>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Abduazizova Nazira, *Istoriya nasionalnoy jurnalistiki I*, Toshkent: Sharq, 2012.

I H111 | 투르판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urpan

통상적으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톈산 산맥(天山山脈) 동쪽에 있는 도시 또는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한 분지 전체를 통틀어 투르판이라고 부르고 있다. 투르판은 투르크어로 '풍요로운 곳'이란 뜻인데 사방이 높은 산들로 에워싸인 동서 120km, 남북 60km의 사막 속 분지 오아시스다. 총 면적 5만제곱킬로미터 가운데서 80%인 4만제곱킬로미터는 고도가 해면보다 낮으며, 중심부는 60m나 낮다. 투르판이라는 지명은 15~16세기에 이 분지에서 세력을 떨쳤던 투르판



투르판 고창성(高昌城) 잔재

국(國)과 그 도성(都城)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투르판의 북서쪽은 우루무치, 남서쪽은 카쉬가르, 남동쪽은 간쑤성(甘肅省)으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발전했다.

또 이 도시의 북서쪽에 있는 야르호토는 한대(漢代)의 사서(史書)에 차사국(車師國)이라고 기록된 교하성(交河城)이고, 남서쪽의 카라호자는 고창국(高昌國)의 수도였던 고창성(高昌城)이다. 청대(淸代) 이전까지는 분지 전체를 고창이라고 불렀다. 이곳은 또한 해수면보다 280m 낮은 지점에 해당하므로 ‘아시아의 우물’이라고 일컬을 만큼 지리학상으로도 유명하다.

이 오아시스 도시는 1984년 시로 승격되었다. 특히 포도의 거리라고 할 만큼 옛날부터 포도가 특산물로 유명하며 건포도를 수출한다. 최근에는 유전이 개발되었다. 「서유기」에 나오는 화염산(火焰山)은 이곳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루판

● 다국어 표기 吐鲁番(중국어), تۇرپان شەھىرى(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3544&cid=40942&categoryId=40027>
<https://en.wikipedia.org/wiki/Turpan>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2.

Beckwith, Christopher I.,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Hill, John E., *Through the Jade Gate to Rome: A Study of the Silk Routes during the Later Han Dynasty, 1st to 2nd centuries CE*. BookSurge, Charleston, South Carolina. 2009.

Grousset, René,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Rutgers University Press. "Xinjiang: autonomous region, China". Encyclopædia Britannica. 1970.

I H112 | 투르판 방언

- 시기 기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방언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Turfan Dialect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투르판 계곡은 과거 위구르 왕조의 중심지 역할을 한 지역이다. 투르판 북쪽의 야르호토에는 교하성 유적이, 남쪽의 카라호자에는 고창성(이디쿠틀(Idikut)) 유적이 있다. 투르판 지역에서 사용되는 현지 위구르어의 변이형은 음운론, 어휘 및 형태론적 측면에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

투르판 방언에는 다른 방언에서 사용되지 않는 일부 특이한 단어들이 발견되며, 많은 고대 위구르어 단어들이 보존되어 있다.

원나라 몰락에 따른 이슬람화로 인하여 현 신장 위구르 자치구(동투르키스탄) 내에 거주하던 위구르인들의 언어는 카라하니 주에서 사용되었던 카를루크 방언의 영향을 받았다. 구어의 발전 경로는 대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의 투르크학자 마사히로 쇼가이토(Masahiro Shogaito)는 명나라의 위구르 만주 문자로 쓰인 고창 언어 사전과 한자 필사본이 있는 명나라

텍스트 만주 왕조의 다섯 개의 언어 사전(Yu-zhi Wu-ti-Qing-wen-jian)을 통해 이들 자료가 각각 15세기와 18세기 투르판에서 사용된 위구르어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위구르인 언어학자 압두리쉬드 야쿠프(Abdurrishid Yakup)는 1990년부터 신장 위구르 자치구 투르판 지역의 현장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이 지역의 언어와 관련된 사전 및 음운론을 중심으로 투르판 방언 연구를 수행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루판 방언
- 다국어 표기 Turfan Dialect(영어), Turfan Diyalekt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투르판
- 참고문헌(오프라인) Johanson, Lars. Türk Dili Haritası Üzerinde Keşifler. Grafiker: Ankara. (Çev.Nurettin Demir&EmineYılmaz), 2009.

I H113 | 투르판 위구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urpan Uyghur

840년 키르기스에 의해 위구르 제국이 멸망당하자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지역으로 이주해 간 위구르족의 일부는 텐산(天山) 산맥, 베쉬발리그(北庭), 투르판(吐魯蕃) 지역에 정착하여 856년 위구르 제국의 왕족인 멩글리(Mengli)를 카간으로 선출하면서 국가의 형태를 갖추었다. 당시 중국의 당은 내분과 반란에 휩싸여, 베쉬발리그, 투르판, 하미 지역에 대한 통제를 거의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상 중국에 복속된 위구르의 강성을 간섭할 여력이 없었다.

위구르는 내륙 아시아의 실크 로드 교역을 통해 얻게 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차차 주변 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 갔다. 당이 멸망하고 중국 대륙에서는 5대 10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중국의 영향력 상실을 틈타 투르판 위구르국을 건설했다. 당시 위구르 왕은 이디쿠티(Idi-qut)란 칭호로 흔히 알려졌으며, 수도도 이디쿠티의 도시라 불려졌다.

투르판 위구르국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기사는, 북송(北宋) 때 황제의 명으로 981년 코초를 방문한 송나라 사신 왕연덕(王延德)이 남긴 여행기에 잘 나타나 있다. 그가 남긴 서역사정기(西域使程記)와 왕연덕사고창기(王延德使高昌記) 두 여행기는 위구르 문화사에서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투르판 위구르국에는 불교가 특히 성행했다. 마니교보다 오히려 더욱 적극적인 비호를 받았다. 이 밖에 경교(景敎)로 알려진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슬람교의 영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뒤 신생 이슬람 국가인 카라한 칸국(Karakhanid)으로부터의 압력이 강화되면서 이슬람교의 전파가 더욱 활발해졌는데, 1074년에 마흐무드 알 카쉬가리가 집필한 고대 투르크어 대사 전에는 위구르국에 이슬람을 전파하려는 노력을 언급하고 있다.

투르판 위구르국은 바르추크 테긴(Barchuk Tegin) 이디쿠티(王) 통치하에 카라키타이(Kara-Khitai), 즉 서요(西遼)에 예속되어 있다가, 1209년 칭기즈 칸의 몽골 제국에 복속되었다. 그 뒤 칭기즈 칸이 제국을 분할할 때, 위구르 왕국은 차가타이 칸국(汗國)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이후 위구르인들은 몽골 제국 내에서 준두뇌 집단을 형성해서 제국의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고창 위구르, 고창 왕국
- 다국어 표기 高昌回紇(중국어),  (몽골어)
- 연관 검색어 돌궐, 위구르, 투르판, 하미, 카간, 실크 로드, 카라한 칸국, 마흐무드 알 카쉬기리, 칭기즈 칸, 차가타이 칸국, 마니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eb.archive.org/web/20151118063834/http://projects.iq.harvard.edu/huri/files/viii-iv_1979-1980_part1.pdf
- 참고문헌(온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7.
Barfield, Thomas,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BasilBlackwell, 1989.
Mackerras, Colin, *The Uighur Empire: According to the T'ang Dynastic Histories, A Study in Sino-Uighur Relations, 744-840*. Publisher: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Press, 1972.
Sinor, Denis,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I H114 | 투바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Tuva Language

투바인은 남부 시베리아의 하카스 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 부랴트 공화국, 알타이 공화국에 근접한 투바 공화국에서 거주하는 투르크인이다. 1944년 투바 자치구로서 구소련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소련의 해체와 함께 투바 공화국이 되었다. 투바인은 투바 공화국 이외에도 몽골, 중국, 이르쿠츠크 지역 등에 거주한다. 투바의 행정 지역은 71,3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며, 주로 산악 지대로 이루어진 이 지역의 평균 고도는 2,500미터이다. 투바 지역의 주요 천연 자원으로는 금, 은, 우라늄, 백금, 석탄, 석면 소금이 있다.

투바어는 투바인들이 사용하는 투르크어이다. 투바어는 음성학적 특성 측면에서 고대 투르크어의 특성들을 보존하고 있다. 단어의 음절 중간, 음절 끝의 /d/음가의 보존 측면에서 야쿠트어와 비슷하며, 어두 음가 /y-/의 /ç-/음가로의 변화 측면에 있어서는 인접 국가, 하카스 공화국에서 사용되는 하카스어와도 그 성질이 매우 유사하다. 투바어의 모음은 8개로 구성되지만, 문어에서 e(에)와 ä(애)는 특별히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몽골 인접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 문화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투바인들은 대게 샤머니즘과 함께 불교를 믿는다. 1930년까지 투바의 지식인들은 대게 몽골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며 당시 투바어를 몽골문자를 사용하여 표기했다. 이후 1930년부터 1940년까지 라틴 문자 체계를 도입하여 사용하다가, 1940년부터 현재까지 키릴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20세기 말이 되어서야 투바어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대표적으로 핀-우고르 언어 연구원 카스트렌의 저서 『코이발어와 가라가스어의 문법(Koibalischen und Karagassischei Sprachlehre)』, 라들로프의 『투르크 민속 문학 연구』, 카타노브의 『우리얀하이 언어와 기타 언어들과의 관계』 등이 있다. 첫 투바어 사전은 1955년에 출판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현재까지 문법책 출판과 기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바어

- 다국어 표기 Tuva Language(영어), Tuvac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어, 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Ölmez, M., *Tuvalar ve Tuvaca. Çağdaş Türk Dili*, (95), 1996, 10~17.

I H115 | 투바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Tuvans

투바인은 몽골 북서부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티바(투바) 공화국에 사는 투르크계 토착 민족을 일컫는다. 투바인들은 스스로를 티바(тыва)나 티바-키지(тыва-кижи, 키지는 투바어로 ‘사람’이란 뜻), 소이오트(сойот), 우랴하이인(урянхайцы) 등으로 부른다. <투바>라는 단어는 수나라와 당나라 역사서에 ‘두보’, ‘투보’, ‘투포’로 처음 등장하며, 원조 비사에서도 ‘투바’ 민족을 언급하고 있다.

국가명으로 투바라는 명칭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볼셰비키들이 투바 인민공화국(Тувин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하는데(실제 소련에 편입된 것은 1944년임), 1993년 공화국 헌법을 제정할 때 투바어에 가까운 발음인 티바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Тыва)으로 정식 명칭을 정했다. 그 후 ‘투바’, ‘티바’ 모두 공식 명칭으로 혼용되었다. 민족을 뜻하거나 형용사형일 때나 영어 표기 시에는 투바라고 쓰고, 공화국을 지칭할 때는 주로 ‘티바 공화국’으로 쓴다.

2010년 기준으로 러시아 전역에 263,934명의 투바인이 있으며, 이 중 25만 명 가량이 티바 공화국에 살고 있다. 투바어는 알타이어어족 투르크어의 동투르크어파(또는 시베리아 투르크어파)에 속하며 1930년까지는 몽골의 문자로 표기했고, 1940년 이후 키릴 문자로 표기하기 시작했다.

투바 민족은 9세기 무렵 중부 아시아 투바 지역으로 이주한 투르크계 예니세이 키르기스 민족과 몽골 민족이 섞여 형성되었다. 투바 민족의 통합체는 20세기 초 청나라에 복속되면서 처음 생겨났고, 몽골혁명을 거쳐 1921년 타누-투바 인민 공화국(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Танну-



투바 공화국 국립 박물관

Тува)이 처음으로 독립 국가로 생겨났다.

투바인들은 몽골의 영향으로 라마 불교와 샤머니즘(텡그리 신앙)을 주로 믿는데, 산신(山神) 신앙이 남아 있다. 서부 투바인들은 몽골-투르크계 민족의 전통에 따라 유르트에서 대부분 거주하고, 투바의 북동, 남동 산악 지역에 사는 토드진-투바(тувинцы-тоджинцы)인들은 ‘츄م’(чум)이라 불리는 원추형 천막에서 거주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트바인, 티바인
- 다국어 표기 Тувинцы(러시아어), Тува ястан(몽골어), Tuval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유르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 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H116 | 투사우 케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의식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usau Keser

투사우 케수(Tusau Keser)는 카자흐인이 출생 후 걷기 시작할 때 행하는 의식이다. 대개 1년 첫돌에 해당하는 시기에 유아들은 걸음마를 배운다. 이때 카자흐인들은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이 시기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발목에 묶여있는 끈을 자르다’는 의미를 가진 투사우 케수 행사에는 집안 친지들이 모여 축하의 잔치가 행해진다. 정찬(다스타르한) 이 차려지고 간단한 음식을 먹은 후 투사우 케수 의식이 치러진다. 우선 밝은 색 계통의 털실로 만들어진 끈(투사우)을 준비해서 이를 아이의 발목에 묶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흰색과 검은색 실로 꼬아진 끈(알라 집)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전통 방식은 선과 악, 빛과 어둠을 상징하는 끈이다.

아이의 다리에 묶인 끈은 대개 부모가 선택한 사람이 자를 수 있는데 보통 자녀를 많이 낳은 활발한 여성이 선택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현명하고 열정적이며 주변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런 사람이 아이의 발목 끈을 자르면 그 기운이 아이에게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발목 끈을 자른 후 어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 사람들은 선물과 동전을 이미 펼쳐져 있는 카펫 위에 던진다. 책, 거울, 채찍 등의 물건을 두기도 하는데 아이는 나중에 이 물건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아이가 책을 선택하면 나중에 그 아이는 학자나 교육자가 된다고 믿었고, 채찍을 고르면 용감한 사람이 된다고 믿었다.

카자흐인들은 이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아이가 자주 발을 헛딛고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아이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했다. 전통적으로 카자흐인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아이가 행복하고 운이 좋은 사람이 될 것을 기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사우 케스
- 다국어 표기 ұсау кесу(카자흐어), тусау кесер(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adventourist.kz/en/headlines/tradition-tusau-keser> <https://www.unesco-ichcap.or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llthatsinteresting.com/tomyris>
- 참고문헌(오프라인) Kalybekova Asma, *Theoretical and Applied Fundamentals of Kazakh Folk Pedagogy*, Almaty, 2006.

I H117 | 투우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uur

투우르(샤먼북)는 연주자가 공연 도중에 맨손으로 치거나, 혹은 하카스어 오르바(orba)라고 알려져 있는 전통 북채로 연주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르바가 악기의 일종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투우르는 전통적인 악기임과 동시에 샤먼의 주술 행위에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고대 투르크인들은 쿠피르게(köbürge), 퀴브뤼으(küvrüg), 투으(tuğ)로 알려진 북을 음악 연주 및 종교 행위 이외에 정치적인 목적으로도 사용했다. 고대 투르크 국가들의 지배와 권력의 상징으로 오타으(otağ: 투르크인들의 천막집), 야이(yay: 활), 투으(tuğ: 북)와 다울(davul: 북)을 사용했다.

북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문헌은 예니세이 키르기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당서(唐書)》이다. 투우르의 북틀은 시베리아 투르크인들이 신성시 여기는 너도밤나무, 소나무, 포플러 나무 등으로 만들고, 북면은 토끼 등 동물의 가죽을 사용한다. 이 악기의 전면에는 샤머니즘의 상징 요소들이 그려져 있다. 북채의 손잡이에는 방울 혹은 금속 부품을 놓아 다양한 소리를 낸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악기의 전면에는 샤머니즘적인 상징 요소들이 그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투르크인들의 우주 개념을 반영하는 3층 세계와 함께 이곳에 살고 있는 존재에 대한 다양한 묘사는 샤먼 북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들 중에 해, 달, 별, 금성, 창조신들 중 하나인 율겐(ülgen)의 딸들, 지하 세계의 신인 에를릭(Erlık)의 신하들과 아들들, 나무, 동물 등 중간계 주민인 인간의 모습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카스 사면북

● 참고문헌(오프라인) Aktaş, E. “Hakas Folklorunda Müzik Aletleri ile İlgili Efsaneler.” *Türklük Biliminde Gür Bir Ses Prof. Dr. İsa Özkan’a Armağan* içinde, Editörler: İbrahim Dilek, İhsan Kalenderoğlu, Ankara: Türk Kültürünü Araştırma Enstitüsü Yayınları, 2019, 115~135.

I H118 | 투으라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서명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uğra

오우즈족부터 오스만 시대 파디샤(술탄)에 이르기까지 투르크의 통치자를 대표하여 사용하는 심벌을 대개 투으라(Tuğra)라고 한다. 중세 투르크어에서는 ‘지배자의 도장과 사인’을 뜻하는 ‘tuğrağ’ 형태였다. 페르시아에서는 니산(nişân), 아랍어로는 테브키(tevkî), 알라멧(alâmet) 등으로 지칭한다. 오스만 시대에는 테브키, 니산 투으라, 알라멧 등 앞서 언급한 단어를 모두 사용했다.

통치자의 이름으로 나가는 공문 상단부에 이름과 별칭(elkâb) 그리고 기도문으로 이루어진 투으라를 기재하는 것은 오우즈 투르크족 전통을 이어받은 셀주크 시대 때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슬람 국가에 공식 문서를 작성하는 기구를 보통 디와느 인샤(Dîvân-ı İnşâ: 디완의 쓰기, 기록)라고 하는데 셀주크의 투으를 베이 (Tuğrul Bey, 재위: 1038년~1063년) 이래로 이 기구를 디와느 투으라(Dîvân-ı Tuğra)라고 부른 것에서 알 수 있다.

셀주크 조에서 아이유브 왕조를 통하여 이집트 맘루크로 전해진 투으라는 알 아쉬라프 샤반(Al-Ashraf Sha’ban, 재위: 1363년~1376년)의 투으라 예를 보면 사각형 형태로 술탄의 별호를 가장 아랫줄에 늘어놓고, 세로로 긴 문자는 굉장히 길게 쓰는 특징이 있다.

오스만 시대의 투으라는 오르한 가지(Orhan Gazi, 재위: 1326년~1362년) 시대부터 시작한다. 오스만 가지(Osman Gazi, 재위: 1299년~1326년)의 투으라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초창기의 단순한 형태에서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복잡성을 띠기 시작했으며 술탄 이름 앞에 붙



오스만 왕조의 투오라

Source: <https://www.ttk.gov.tr/wp-content/uploads/2016/12/>

는 별칭은 술탄에 따라 약간씩 추가되거나 생략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오스만 시대의 투오라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 술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영원한 승리를 기원하는 기도문(el-muzaffer dâimâ)으로 구성된 부분으로 세레(sere)라고 부른다.
2. 1번에서 왼쪽으로 구부러지며 서로 얽힌 두 개의 선을 베이자(beyza)라고 부른다.
3. 2에서 오른쪽 하단부로 길게 연결된 선으로 한체르(hançer)라고 부른다.
4. 1에서 위쪽으로 길게 세 개 선인 투으(tuğ)가 있다. 아랍 문자의 첫 번째 글자인 알

리프이다. 투으라에 쓰인 알리프가 몇 개이든 이 부분의 선은 세 개뿐이다.

5. 투으라의 최상단부에서 왼쪽 하단으로 구부러지며 내려오는 세 개의 선은 질페(zülfe)이다.

투으라는 공문서나 중요 문서 및 주화에 쓰이며, 때때로 특정한 서신에는 색이나 문양을 넣어 꾸미기도 했다. 이 경우, 이 투으라가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는 표식까지 추가되었다.

술탄과 황자들 이외에 재상이나 장관도 술탄의 투으라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예를 들어 술탄이 원정을 떠나기 전에 투으라가 그려진 일정 수의 종이를 남겨 놓고 가면, 이 명령서를 사용하여 중요한 명령을 내린 후, 술탄이 원정에서 돌아오면 이 종이가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하게 된다. 그러나 장관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사드라잠 케만케쉬 무프타파 파샤(Sadrazam Kemankeş Mustafa Paşa, 1592년~644년)는 이 제도를 폐지한다. 대신에 관리들은 자신의 투으라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펜체(pençe)라고 한다. 투으라처럼 서신의 가장 윗 부분에 그리는 것이 아니라 명령서의 시작 부분 오른쪽의 빈자리에 넣게 된다.

18세기에는 문양이 없는 투으라의 경우 도장을 파서 사용하기도 했다.

투으라는 주화와 공문서 이외에도 건축물의 비문 등에 사용하는 것이 점차로 정착되어 18세기에는 완전한 전통으로 자리 잡는다.

오스만 시대의 주화는 한 면에는 그 시대 술탄의 투으라가, 다른 면에는 발행 일자와 장소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투으라가 사라진 현대 튀르키예 공화국에서도 동전의 그림이 있는 면을 투라(tura)라고 부르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그라

● 다국어 표기 Tuğr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니산즈

● 멀티미디어 링크 쉴레이만 1세 투으라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f/f2/Tughra_Suleiman.jpg/1280px-Tughra_Suleiman.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Umur, Suha. *Osmanlı Padişah Tuğraları*, Istanbul: CemYayınevi, 1980.

Derman, M. Uğur. "Tuğr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1, Istanbul: TDV. 2012, pp.336~339.

I H119 | 투키아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Tukhya

추바시인들은 고대부터 수놓은 장신구, 구슬, 은화, 보석, 작은 금속(튜브, 바늘, 핀, 납구슬, 단추 등) 등을 옷 장식하는 데 사용했다. 그중에서 특히 추바시인들의 머리 장식 투키아는 추바시인들을 대표하는 의복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투키아는 추바시 미혼 여성들이 머리에 착용하는 눈썹까지 이마 전체를 덮는 깊은 반구형 모자이다. 투키아는 은과 여러 가지 빛깔의 구슬로 만들어진 머리 장식인데, 이때 은 장식은 10, 15, 20페니 동전이 사용될 수 있다. 투키아에 동전을 매다는 것은 소련 후기에 관습화되었는데, 이 동전들은 행복과 번영을 상징한다.



투키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투키아는 마름모 및 기타 기하학적 모양의 구슬로 행이 구성된다. 관자놀이 부분에는 빨간색, 흰색 및 녹색 구슬로 된 세 개의 작은 술이 있다. 투키아에 사용되는 구슬은 주로 빨간색, 노란색 및 흰색과 같이 따뜻한 색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파란색과 같은 차가운 색은 죽음을 상징한다는 추바시인들의 믿음 때문이다.

미혼 여성들은 자신들의 머리카락으로 구혼자의 관심을 끌 필요가 있다고 믿기에 투키아에는 특별히 머리카락을 감싸는 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결혼 후 여성들은 자신의 여동생에게 투키아를 물려주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키하, 투카, 투키야

● 다국어 표기 тухья(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추바시

● 참고문헌(온라인) https://ddn24.ru/activity/hats/tchoova_hat

● 참고문헌(오프라인) ЕФИМОВА, А. А. Методик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ародных традиций в изготовлении девичь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головного убора тухья. Народные сказки и легенды в систем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и в творчестве мастеров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2011, 62~68.

I H120 | 투투슈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시리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utush

투투슈의 정식 이름은 아부 사이드 타지 아드 다울라 투투슈(Abu Sa'id Taj ad-Dawla Tutush)로 1066년(또는 1062년)에 술탄 알파슬란(Alp Arslan, 재위: 1063년~1072년)의 아들로 태어났다. 말리크 샤(Malik-Shah I, 재위: 1072년~1092년)의 동생이다.

1077년~1078년에 말리크 샤는 파티마 조와의 전쟁을 완료하기 위하여 당시 겐제에 머물던 투투슈를 시리아 총독으로 보낸다. 당시 투투슈는 알레포(Aleppo)로 가서 3개월간 도시를 포

위하지만, 도시 점령에는 실패한다. 1078년~1079년 투투슈는 파티마 조와 전투 중이던 앓스즈(Atsiz ibn Uwaq, ~1079년)를 도와주기 위하여 다마스쿠스로 갔지만, 앓스즈가 무례했다는 이유로 처형하고, 직접 다마스쿠스를 통치했다. 이를 시작으로 기존에 앓스즈 통치하에 있던 예루살렘, 아카, 수르, 트리폴리, 자파, 아리쉬, 타베리에와 같은 도시를 정복하며 시리아 셀주크 왕조의 기초를 다졌다.

당시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의 술탄 쉴레이만 샤(Kutalmışoğlu Süleyman şah 1077년~1086년)가 알레포로 투투슈를 초대했다. 1086년 6월 발발한 양 세력 간에 전투에서 술탄 쉴레이만 샤는 사망하고, 투투슈가 승리하여 알레포를 정복했다. 그러나 정작 알레포 요새는 정복하지 못했고, 다마스쿠스로 후퇴했다. 술탄 쉴레이만 샤의 사망에 분노를 표하는 편지를 보낸 말리크 샤의 군이 알레포를 돌려받기 위해 진군했을 때, 투투슈는 말리크 샤의 군을 막지 않아 여전히 투투슈와 말리크 샤의 관계에 문제가 없음을 표명했다. 말리크 샤는 알레포를 비롯하여 근방 지역을 통치할 총독, 지사를 보내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투투슈의 세력 확장을 막았다.

1092년 말리크 샤가 사망하고, 투투슈는 스스로를 통치자로 선포하고 셀주크 조의 술탄 위를 차지하기 위하여 다마스쿠스로 돌아가 알레포의 아미르 아크순구르(Aksungur el-Hacib, 재위: 1086년~1094년)와 하란의 보잔(Bozan), 안티오크의 이아으스이안(Yağısıyan, 1011년~1098년) 등을 회유 및 포섭했다. 이들은 투투슈와 말리크 샤의 자식들과의 전쟁이 끝날 때까지 투투슈에게 복속하기로 했다. 1093년 투투슈는 하부루, 누사이빈, 모술, 디야르바크르를 점령했다. 투투슈는 당시 칼리프에게 바그다드에서 금요 예배의 설교인 쿠트바를 자신의 이름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칼리프는 필요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음을 말하며, 이스파한의 보물과 모든 이슬람 세계를 정복하고, 그에 대항할 말리크 샤의 아들들이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하다는 답을 보냈다. 한편 보잔과 아크순구르는 투투슈의 세력에서 나와 말리크 샤의 아들 중 하나인 베르크이아루크(Berkyaruk, 재위: 1094년~1104년)를 지지한다.

베르크이아루크는 레이와 하마단 사이의 영토를 정복한 상태였고, 숙부인 투투슈를 막기 위하여 레이 근처까지 간다. 인근 지역은 투투슈의 잔혹한 성정과 사람들을 박해한다는 이야기에 베르크이아루크의 세력에 가담하자, 투투슈는 디야르바크르로 회군하며, 하란, 우르파, 자지라, 아흘랏, 아제르바이잔, 하마단을 정복한다. 1094년 10월~11월 투투슈는 다시 한번 칼리프에게 대 셀주크 조 술탄 투투슈의 이름으로 설교를 읽어 주기를 요청했고, 바그다드의 대표

였던 아이테킨 첩(Aytekin Ceb)은 베르크이아루크가 패배했다는 소문을 듣고 투투슈의 이름으로 설교를 한다.

한편, 말리크 샤의 다른 아들 마흐무드(Mahmud, 1087년~1094년)를 대신하여 전쟁에 나섰던 그의 어머니 테르켄 하툰(Terken Hatun, ?~1094년)은 투투슈에게 베르크이아루크를 공동의 적으로 삼고, 함께 나라를 통치할 것을 권했고, 투투슈는 이를 받아들인다. 하마단에서 테르켄 하툰의 군이 투투슈에 합류했으나 정작 테르켄 하툰은 병사하고 만다. 테르켄 하툰의 휘하의 일부 군은 베르크이아루크에게 투신했으나 대부분은 투투슈에 합류했다. 투투슈의 세력에 커짐에 따라, 베르크이아루크는 이스파한으로 피신했고, 테르켄 하툰에 이어 아들 마흐무드도 사망하자, 베르크이아루크는 반 투투슈 세력의 지지를 받아 이스파한을 통치하게 되었다.

1095년, 투투슈는 베르크이아루크가 병환 중이라는 소식에 이스파한으로 진군하여 라이 근교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 이 당시 투투슈 휘하의 아미르 대부분은 투투슈의 잔혹한 성정과 지나친 약탈에 질려 베르크이아루크 세력으로 돌아서게 된다. 투투슈는 베르크이아루크와의 전투에서 사망했다.

투투슈의 사망 이후, 그의 군은 약탈당했고 포로들은 풀려났다. 투투슈의 아들 르드반(Rıdvan, 재위: 1095년~1113년)은 시리아 셀주크의 통치자가 되었고, 르드반의 형제 두카크(Dukak, 재위: 1095년~1104년)는 곧이어 자신의 정통성을 주장하며 다마스쿠스를 장악하며, 내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투투슈는 잔혹한 성정으로 지역 아미르들과 민중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후계 다툼으로 얻을 수 있던 기회를 잘 활용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지라, 아제르바이잔 등을 정복한 후에는 지역 안정과 농업, 상업 중흥을 위하여 노력했으며 도시 개발에도 힘썼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투쉬 1세

● 다국어 표기 Tutuṣ 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셀주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aydınü, Abdülkerim. «TUTUŞ»,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1, İstanbul: TDV. 2013. pp.446~449.

이희수. 『튀르키예史』. 대한교과서, 2005.

I H121 | 툰 파이람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례 ● 유형 소분류2 명절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un Payram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하카스인들의 전통 명절 중 하나인 툰 파이람은 ‘첫 아이란 명절’로도 통용되며, 축산과 관련된 유목 민족 전통을 기념하는 휴일이다. 겨울이 지나 초원으로 이동한 소 혹은 양(염소)들이 처음 생산한 젖으로 만들어진 아이란을 기념하는 의미로 거행되는 이 축제는 일반적으로 5월~6월에 열린다.

초원에 도착한 동물들(소, 양, 염소)에게 새로 돌아난 풀을 먹이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 하카스인들은 그들이 생산한 젖을 착유하고 이것으로 아이란을 만든다. 명절 전날에는 아이란이 준비되고 마을 사람들은 새 옷을 준비해 입는다. 하카스인들은 이 명절이 되면 (하카스인 스스로 신성한 지역이라고 여기는) 산 정상에 모여 너도밤나무 혹은 말을 묶기 위해 사용되는 거대한 나무로 된 장대를 태우는 의식을 치른다. 하카스인들은 산 혹은 초원의 정령들에게 무혈 희생으로 말 등의 가축을 목상에 묶어 바치는 의식을 치르는데, 이 목상은 고대튀르크어로 Iduk, 하카스어에서 izih이라 불리며 ‘신성한, 거룩한’이라는 뜻을 가진다.

하카스인들은 자신들이 제물로 바친 가축(일반적으로 말)이 무당(샤먼)의 축복을 받게 되면 정령들이 자신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수호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들 중 최고령 연장자가 목상에 묶인 말에게 다가가 아이란으로 그 말을 씻기고, 하카스어로 이르벤(irben)이라 불리는 약초를 향로에 넣고 불을 붙여 향기로운 연기를 피운다. 이러한 의식을 치를 때 꼬리와 갈기가 흰색과 빨간색 천으로 묶인 말은 의식이 끝난 이후 자유롭게 방목된다.

또한 하카스인들은 동시에 하늘, 땅 그리고 그사이의 모든 생물들을 위해 기도를 올린다. 이러한 의식이 끝나면 하카스인들은 말 경주, 씨름 및 다양한 경기를 개최한다. 이 대회 우승자에게는 아이란과 함께 아이란으로 만들어진 하카스인들의 전통주인 아라아(arağa)가 제공된다.

20세기에 이르러 서서히 잊혀지게 된 툰 파이람은 1980년 하카스 영토내에서 다시 부활하게 되었고, 다양한 민족들의 문화 전시회, 말 경주, 씨름, 활쏘기 대회, 무거운 돌 들기 대회, 전



‘툰 파이람’의 씨름 경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통 하카스 체스 게임 등의 대회가 개최되며, 오늘날 하카스 공화국의 공식 명절로서 하카스인들이 기념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툰 바이람, 툰 파이람
- 다국어 표기 Tun Pyram / Тун Пайрам, Tun Ayran / Тун Айран(하카스어)
- 연관 검색어 아이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QJ4QjLe6808>
-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танаев, В. Я., Асочаков, А. Н. “Тун-пайрам”.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2. Абакан: ООО Поликор. 2008. С. 201.

I H122 | 툴파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생물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Tulpar

툴파르(또는 툴파르라고 표기함)는 바시키르 신화에 나오는 날개 달린 말이다. 「용사 알퍼므쉬(Алпамыша батыр)」, 「알마바티르와 알마비케(Алмабатыр и Алмабикэ)」, 「용사 타즈(Таз-батыр)」와 같은 민담이나 「알다르와 주흐라(Алдар и Зухра)」, 「쿠지이쿠르파스와 마얀힐루(Кузыйкурпяс и Маянхылу)」와 같은 서사시에 등장한다.

첫 번째 툴파르는 아크부자트(Акбузат)이다. 전설 「용사의 첫 날개 달린 말(ТәҮге толпарзар)」에 따르면 툴파르는 수중 왕국에서 나왔다고 한다. 몇몇 민담에서 주인공은 패배한 적의 말을 소유하거나(용사 키란, Кыран батыр), 지하 세계에서 툴파르를 얻는다(용사 탄, Тан-батыр).

툴파르는 회백색, 검은색, 잿빛, 밤색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의 털을 가진다. 툴파르는 주인공이 목장에서 말을 고를 때 가장 먼저 굴레의 소리로 호응하는데, 처음에는 평범하고 기력이 쇠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용사가 안장을 채우면 바로 영웅적인 모습으로 바뀐다. 툴파르와 헤어질 때 주인은 툴파르의 조언에 따라 그의 갈기와 꼬리에서 털 몇 가닥을 뽑아 둔다. 이 털을 태우면 툴파르가 즉시 주인 앞에 나타난다. 이 말은 주인공이 역경을 극복하고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을 도와준다.

바시키르 미신에서는 다른 사람이 다리 사이나 등에 달려 있는 툴파르의 날개를 보면 툴파르는 죽는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툴파르를 감춘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파르, 툴파르
- 다국어 표기 Tulpar(아제르바이잔어), Тулпар(러시아어), Тұлпар(카자흐어)
- 참고문헌(온라인) 바시키르 백과사전/툴파르(Тулпар)
<http://bashenc.online/ru/articles/76892/>
- 참고문헌(오프라인) Башкорт халык ижады. 2-се т. Риүәйәттәр, легендалар. Өфө. 191, 1997.

Башкорт халык ижады. 3-сө т. Эпос. Өфө. 1998.

Йәшәгән, ти. батырзар. башкорт халык әкиәттәре. Өфө. 2005.

I H123 | 튀르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민요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Türkü

‘튀르퀴(Türkü)’는 튀르키예 구비문학 장르 중 하나이며 민요를 의미한다. ‘튀르퀴(Türkü)’라는 용어의 출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우선 투르크 민족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투르크 민족’이라는 뜻의 ‘투르크(Türk)’와 ‘-관련 있다’라는 의미로 ‘i’를 붙여서 T’ürki’가 되었고, ‘Türkü’로 변화됐다는 설이 유력하다. 튀르키예 민속시인 아시옥 웨이셀(Âşık Veysel)은 “우리는 투르크 민족이라 튀르퀴(Türkü)를 부릅니다”는 말을 남겼다.

‘튀르퀴(Türkü)’는 15세기 동투르키스탄에서 아루즈(Aruz) 운율과 특별한 선율로 구연하는 시문학에서 사용됐다. 알리셰르 나비이(Ali Şîr Nevâî, 1441년~1501년)는 ‘튀르퀴(Türkü)’가 처음으로 호라산(Horasán)에서 발견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운율과 시 형식으로 정보 제공을 위해 쓴 『미자닐 에브잔(Mîzanü’l-Evzân)』에서 튀르퀴(Türkü)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튀르퀴(Türk)는 매우 감동을 주는 노래다. 아루즈와 리듬감 있는 운율이 반복되는 패턴이다(‘Remel-i müsemmen-i mahfûz: Fâilâtün, fâilâtün, fâilâtün fá’ilün’).”

‘튀르퀴(Türkü)’는 투르크 민족에 따라 다양하게 불린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마흐느(mahnı)’, 카자흐스탄에서는 ‘할크 아느(halık ani)’, 키르기스탄에서는 ‘엘딕 으르(eldik ır)’,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튀르키(türki)’, 타타르공화국에서는 ‘할큰 즈르(halkın cırı)’,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할크 아이드므(halk aydımı)’ 그리고 위구르인은 ‘나흐샤’ 혹은 ‘코차 나흐쉬시(nahşa, koça nahşisi)’로 부르고 있다.

튀르퀴의 작곡가와 작사가가 누구인지는 불분명하다. 구비전승을 통해 시대와 사회의 변화와 스토리를 담은 집단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 튀르퀴(Türk)가 만들어지고 확산하는 데 있어

서 사즈 시인들의 역할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창작과 전파라는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사즈 시인은 튀르키위를 창작하고 확산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튀르키예의 민속학자 보라타브(Boratav)는 주제와 구성에 따라 튀르키위를 아래와 같이 분류했다.

첫 번째는 서정적 튀르키위이다. 자장가, 노스텔지어, 군가, 유배, 사랑 등 감정을 주제로 한 민요를 말한다. 두 번째는 풍자와 해학을 담은 튀르키위이다. 세 번째는 그 지역의 신화나 전설, 인물의 영웅담 등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한 노래이다. 네 번째는 노동요이다. 다섯 번째는 명절, 결혼, 종교 의식 등 의례를 위한 민요이다. 여섯 번째는 놀이와 춤을 동반한 연희를 목적으로 한 노래이다.

튀르키위의 또 다른 특징은 자연과 사회 현실을 노래로 담았다는 것인데, 특히 첫 소절을 튀르키위가 노래하고자 하는 장소의 자연 환경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예를 들면, “타르수스(Tarsus) 지역 주변에는 정원과 포도밭이 있네”, “마라쉬(Maraş)에는 강이 흐르네”, “에인(Eğin) 아래에 흐르는 유프라테스강”, “데르심(Dersim)에는 사방이 산이네”, “첼야즈(Çölyazı)는 연기가 자욱하네”, “우르파(Urfa) 산맥에는 산양이 떠돌아다니네”와 같은 구절로 노래가 시작한다.

옷차림에 대한 묘사도 튀르키위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하얀 발에 노란 구두를 신는다’, ‘하얀 앞치마에 코가 뾰족한 신(또는 두꺼운 양말)을 신는다’, ‘가슴 부분은 조개로 만든 단추’, ‘발에 신는다. 검은 플랫폼슈즈’ 등의 묘사가 자주 등장한다.

튀르키위 등장하는 공간들은 현실 속 생활 공간이다. 그러므로 배경이 되는 인물들의 사회생활을 파악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연인과 관계된 공간은 특별히 탐구할 필요가 있다. 튀르키위(Türk)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 두 군대를 꼽자면 창문과 우물가이다. 창문은 집의 내부와 외부, 개인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의 교차점을 의미하며, 우물가는 공동체에 참여하고 다양한 사교 활동을 하는 장소로 등장한다. 다시 말하면, 튀르키위에 등장하는 많은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사건 전개가 위의 두 공간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인류학자로 잘 알려진 알란 로맥스(Alan Lomax)는 ‘튀르키예의 튀르키위(Türkü)야말로 특별한 의사소통이며, 사람들의 삶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시대적 사건을 깊이 있게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라고 강조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큐

● 다국어 표기 FOLK SONG(영어), Türkü(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알리셰르 나버이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Başgöz İlhan, *Türkü*, Pan Yayınları, İstanbul, 2008.

Beysanoğlu Şevket, *Diyarbakır Folkloru*, Diyarbakır Halkevi Yayını, Diyarbakır, 1943.

Bilgin Nuri, *Siyaset ve İnsan. Siyaset Psikolojisi Yazıları*, Bağlam Yayınları, İstanbul, 2005.

Boratav Pertev Naili, *100 Soruda Türk Halk Edebiyatı*, 2. Baskı. Gerçek Yayınevi, İstanbul, 1973.

Dizdaroğlu Hikmet, "Halk Şiirinde Türler", *Türk Dili Dergisi, Halk Edebiyatı Özel Sayısı*, S.207, Ankara, 1968.

Eraslan Kemal, *Ali Şir Nevai, Mizan'ül Evzan*, İstanbul, 1993.

Özbek Mehmet, *Folklor ve Türkülerimiz*, Ötügen Yayınevi, İstanbul, 1994.

Öztelli Cahit, *Evlerinin Önü Halk Türküleri*, Hürriyet Yayınları, İstanbul, 1972.

Turan Metin, *Halk Deryasından Damlalar*, 2. Baskı, Ürün Yayınları, Ankara, 2011.

I H124 | 튀르크 위츠게니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요소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ürk Üçgeni

튀르크 위츠게니(türk üçgeni)는 ‘투르크 삼각형’이라는 의미로 삼각형 형태의 건축 요소로서 돔과 벽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사각형 또는 다각형의 평면 위에 둥근 돔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 부분을 연결해 주는 요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스퀀치나 펜던티브 등이 쓰인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수단 중 하나가 튀르크 위츠게니다. 삼각형을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배치하여 정육면체 건축물의 윗면을 최소 팔각형이 되도록 만들어 돔을 얹기 용이하게 만든다. 또한, 돔과 벽면을 이어 주는 역할뿐만 아니라 내부를 더욱 풍부하게 장식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구조물 자체가 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차례로 배치되어 장식성을 배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각형 면 위에 다양한 장식을 배치하기도 한다.

튀르크 위츠게니는 스퀀치나 펜던티브와 같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주두 장식으로도 사용되기도 했다. 튀르크 위츠게니가 위구르 건축에서 처음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있으나



부르사 예실 모스크의 튀르크 워츠키니

주로 아나톨리아 셀주크 시대 건축물에서 주로 발견되었다. 여기에 ‘튀르크’, 즉 투르크라고 명명된 것도 이에 기인한다.

튀르크 워츠키니는 초기 오스만 시대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튀르크 워츠키니의 대표적인 예는 코니아 카라타이 마드라사, 부르사 예실 모스크 등에서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키예 삼각형, 터키쉬 트라이앵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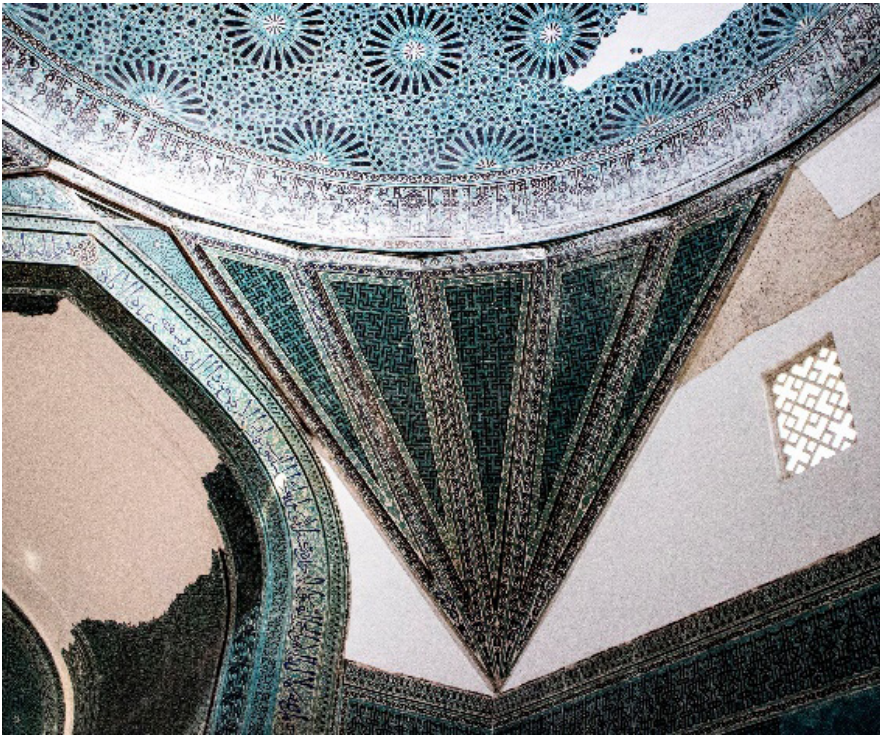
● 다국어 표기 Türk Üçgeni(튀르키예어), Turkish Triangle(영어)

● 연관 검색어 카라타이 마드라사, 예실 모스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Sözen. Metin, Uğur Tanyeli. *Sanat kavram ve terimleri sözlüğü*, İstanbul:Remzi Kitabevi, 2003.

Hasol, Doğan. *Ansiklopedik Mimarlık Sözlüğü* (11. baskı), İstanbul:Yapı-Endüstri Merkezi. 2010.

Kuban, Doğan. *Mimarlık Kavramları: Tarihsel Perspektif İçinde Mimarlığın Kuramsal Sözlüğüne Giriş* (9.baskı), İstanbul: Yem yayın. 2010.



카라타이 마드라사의 튀르크 위취게니

I H125 | 튀르크멘차이 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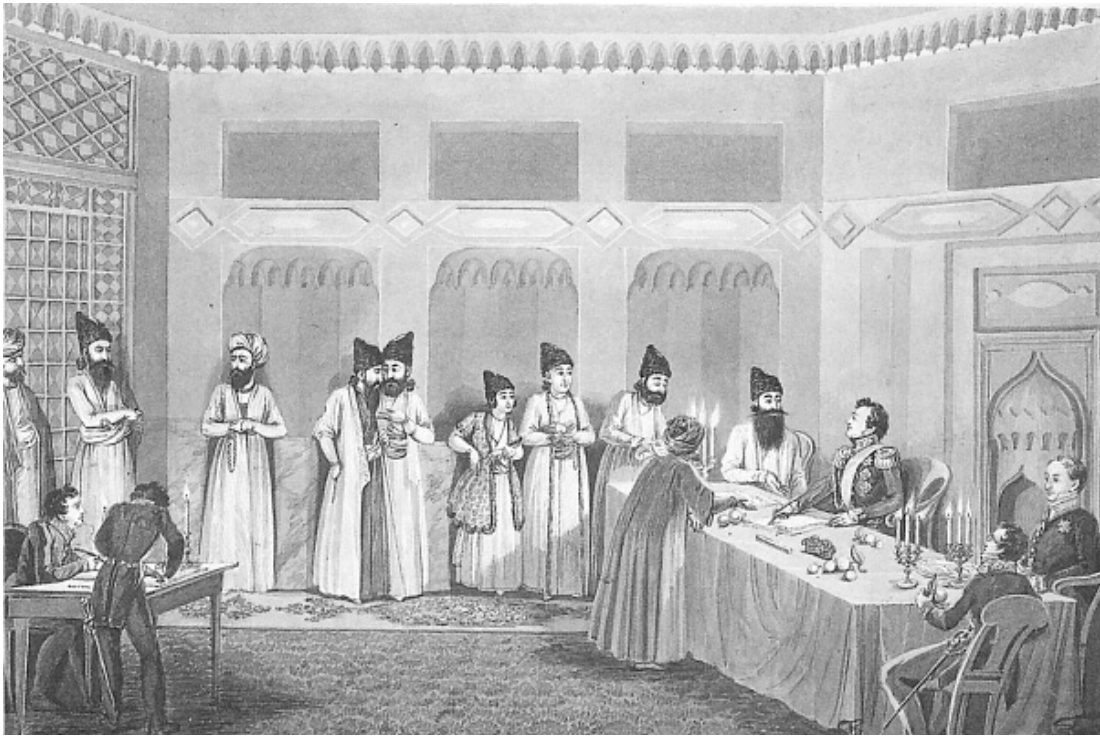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이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조약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Türkmençay Treaty

이 조약은 제정러시아와 이란 사이에 1828년 체결된 조약이다. 1813년 이란은 제정러시아에 패한 후 굴뤼스탄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국경 지역의 귀속 문제로 다시 러시아와 전쟁을 벌였지만 다시 패하고 만다. 그 결과 강화 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주하게 되었으며, 아르메이나인들과의 분쟁 원인이 이때부터

생기게 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805년 쿠라차이 조약에 의해 카라바흐 왕조는 엄밀한 의미로 러시아에 합병되었다. 왕조를 17년 더 유지하는 전략은 1806년 이브라힘 칸이 처형됨으로써 러시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메흐디굴루칸(1806년~1822년)의 지배 상황에서 제정러시아 짜르는 점령 체제를 강화시켰고 이 지역의 영토를 확고히 확보하기 위해 지배층 이슬람교도의 경제 상태를 악화시키려고 노력했다. 더불어 자신이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도록 지지하는 기독교도들과 아르메니아화된 고대 알바니아인들의 세력을 도우려고 노력했다. 칸 왕조(Khanate)가 붕괴한 후, 북부 아제르바이잔의 모든 곳에서는 통금 행정령이 내려졌으며 군사 무슬림 지구(Shusha 센터)가 수립되었다. 당시 러시아 군대와 합병 작전에 참여했던 아르메니아 출신 중장 마다토프(V.M. Madatov, 1782년~1829년)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르메니아-러시아 연합 정권을 수립하는 데 성공했다. 1830년 봉기를 핑계삼아, 이 연합군은 1840년 4월 10일에 행정-군 개혁을 수행했다. 이 개혁에 따라 카라바흐 지역은 슈샤(Shusha uezd)로 변경되어 카스피 지방의 감독하에 놓여졌다(Center Shamakhi). 결과적으로 카라바흐(Karabakh)는 정치적 의미를 잃어 버렸고, 지리적 개념으로 남게 되었다. 1846년 행정 구역에서 슈샤(Shusha uezd)는 새로 설립된 샤마키(Shamakhi) 지방(1859년 이후 바쿠) 감독하에 놓이게 되었다. 1867년 슈샤(Shusha uezd)는 영토가 분할되었고 행정 구역이 3개로 나뉘었다. 장가주르(Zangazur), 자반쉬르(Javanshir) 및 자브라일(Jabrail)이 그것이다. 슈샤는 행정 정치 판결을 잃었고, 행정 영토 분할은 그 특정한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지배 세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아제르바이잔 북부 영토를 지배했던 짜르 정권은 동시에 영토의 아르메니아화 정책을 수행했다. 1828년 투르크멘차이 조약 이후 이 사건은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 조약의 15조에는 이란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을 이주시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조약을 통해 샤(Shah)는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1년 동안 이란 지방에서 러시아로 가족과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게 하고, 관세 및 세금을 재산과 물품에 부과하지 않았다. 또한 이주민들이 부동산을 사고팔 수 있는 허용기간을 해마다 1년씩 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정부 및 지방 당국이 5년 기간동안 부동산을 매각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이 내용을 투르크멘차이 조약에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아르메니아인들은 카라바흐를 포함하여 이란에서 북부 아제르바이



블라디미르 모쉬코프가 그린 투르크멘차이 조약 장면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잔으로 대규모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아르메니아인의 정착과 관련하여 법적 정치 보증 및 조치가 조직적으로 취해졌다. 한편, 1829년 에디르네(아드리아노플) 조약에 의해 오스만 제국에서 아제르바이잔 영토로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주해 정착하기 시작했다. 아르메니아인들의 일부는 카라바흐 지역에 정착했다.

카라바흐 왕조가 붕괴하자 민족별 인구 재구성은 캅카스 예르몰로프(A.P. Yermolov, 1816년~1827년) 러시아군 사령관의 지시에 의해 실시된 통계 자료(description)에 반영되었다. 통계(1593년 이후)를 보면 카라바흐에서 실시된 아르메니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제르바이잔인이 당시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라바흐(Qarabağ) 지방의 20,095가구 중 15,729명은 아제르바이잔인(도시 1,111명, 시골마을 14,618명), 4,366명은 아르메니아인(도시 421명, 시골마을 3,945명)이다. 이 아르메니아인의 대다수는 고대 알바니아인들이 기독교화 되어 아르메니아인화 사람들이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카라바흐로 대거 이주하여 정

착한 결과, 새로운 아르메니아 마을(마라갈리, 야냐타그 등)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란에서 온 40,000명의 아르메니아인들, 오스만 제국의 90,000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아제르바이잔 북부와 카라바흐에 정착했다. 비공식적인 아르메니아 이주민들까지 포함하면 200,000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이 정착한 이후부터 카라바흐(Qarabağ) 지역민의 민족 구성에서 아르메니아인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크만차이 조약, 투르크만차이 조약
- 다국어 표기 Türkmençay(튀르키예어), Turkmenchay(영어)
- 연관 검색어 굴뤼스탄 조약, 아제르바이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www.ebooks.az/category_historyaz.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Goltz Thomas, *Azerbaycan Günlüğü*, Teas Press, Istanbul, 2018.
Pashayeva Gulshan, *Trapped between War and Peace: The Case of Nagorno-Karabakh*, Baku, 2018.
Svyatoçovski Tadeuş, *Rusya vè Azerbaycan*, Xəzər Universitəsi, Bakı, 2000.

I H126 |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기관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Türk Dil Kurumu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은 1932년 7월 12일 튀르키예어의 발전과 연구를 위해 아타튀르크의 지시에 따라 ‘튀르키예 언어 연구협회’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창립자는 당시 의회 의원이자, 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인이었던 샴이흐 리파트(Sâmih Rif’at), 루쎌 에쉬레프(Ruşen Eşref), 젤랄 샤희르(Celâl Sâhir) 및 야쿱 카디리(Yakup Kadri)였고, 제1회 튀르키예어 총회에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지시에 따라 언어 연구에 대한 결정권 및 다양한 연구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총책임자, 기관의 초대 회장으로 샴이흐 리파트(Sâmih Rif’at)가 추대되었다.

초기 ‘튀르키예 언어 연구협회’의 목표는 “튀르키예어 언어의 본질과 풍부함을 드러내, 세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앙카라)

언어 속 그 가치에 합당한 위치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었다. 1932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열린 제1차 튀르키예어 총회부터, 1934년 그리고 1936년의 세차례 회의를 통해 기관의 행정 관리들이 선출되었고, 언어 정책들이 결정되었으며 또한 학술적 논문들이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특히 1934년 열린 총회에서는 연구 기관명이 튀르키예어 연구 기관(Türk Dili Araştırma Kurumu)으로, 1936년에는 튀르키예어 총회의 첫 번째 조항에 따라 튀르키예 국립국어원(Türk Dil Kurumu)으로 그 명칭이 최종 변경되었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현지 및 해외 연구를 통하여 튀르키예어를 연구하고 조사했으며, 당시 학자들에게 함께 튀르키예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을 지시했다. 그 결과 튀르키예어의 근원이 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념물인 오르혼 비문들에 관련된 두 권의 책이 출판되었으며, 1940년대에는 디와뉘 루가티트 투르크, 쿠타두그빌리그 등 투르크학 연구의 기초 자료가 필수 참고 문헌들이 아타튀르크의 지휘하에 연구가 진행되었다.

KASIM SAYISI ÇIKTI!

Cemal Kirnaz • Mehmet Ayı • İmdat Avcı • Henry W. Decker • Mustafa Çiftci • Önder Öztürk • Mustafa Kirenci • Tarık Özcan • Hanza Zülfiyar • Engin Çetin • Şaban Abak • Ömer Ayhan • Abdullah Ezik • Ahmet Zarıfıoğlu • Hüseyin Akkaya • Ece Onural • Musa Yaşar Sağlam • Mirza Şahin • Selçuk Azmanoğlu • Ahmet Özcan • Yasin Şen • Sibel Oğuz • İsmail Karakurt • Yasin Yayla • Yusuf Turan Günaydin • Nail Tan

Türk Dili Dergisinin Kasım Sayısı Yayımlandı

ÖNE ÇIKANLAR



IX. Uluslararası Türk Dili Kurultayı
İki Gazi Mustafa Kemal Atatürk'ün katılımıyla 1932 yılında yapılan Türk Dili Kurultayı'nın dokuzuncusu...

[Devamını oku](#)



Sıkça Sorulan Sorular

Türk Dil Kurumu, gramerle ilgili bazı sorularımıza cevap olarak açıklayıcı bir şeyler yazmak...

[Devamını oku](#)



HABER BELGELİĞİ

Türk Dili Dergisinin Kasım Sayısı Yayımlandı

Tarih: 2 Kasım 2023

"Cumhuriyet ve Türkçemiz" Konulu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홈페이지
Source: <https://tdk.gov.tr/>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사망 직전의 유언을 통해 그의 자산을 모두 튀르키예 국립국어원과 튀르키예 역사협회에 기증하여, 튀르키예학에 대한 연구가 후대에 더 활발하게 발전되기를 소망했다.

최근에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은 시대와 주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튀르키예어 연구 및 연구 서적 출판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청중을 위한 튀르키예어 잡지도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6개월마다 발행되는 <Turkic World Language and Literature Magazine>를 통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우즈베크어, 투르크멘어, 아제리어, 타타르어 등, 투르크 공동체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연구들을 선보인다.

설립 이래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은 과학 및 예술 용어 사전, 튀르키예어 방언 연구, 투르크 서사시 및 문학 텍스트를 포함하여 1,163개 이상의 작품을 출간했다. 오늘날의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은, 20명의 학술위원회 의원, 17명의 전문가와 11명의 보조 연구원 및 66명의 직원들로 구

성되며, 연구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크 딜 쿠루무, 튀르크 딜 쿠루무
- 다국어 표기 Turkish Language Association(영어), Türk Dil Kurum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타튀르크, 킱투르크비문,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우즈베크어, 투르크멘어, 아제리어, 타타르어, 디와뉴 루 가티트 투르크, 쿠타두그빌리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turk-dil-kurumu> , <https://www.tdk.gov.tr>
- 참고문헌(오프라인) Türk Dil Kurumu. Turkish Language Society, 2020.

I H127 | 튀르키예노동당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단체 ● 유형 소분류2 정당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ürkiye İşçi Partisi

‘이원(Yön) 그룹’과 ‘민족민주혁명운동’과 더불어 1960년대 튀르키예 좌파를 대표하는 또 다른 정치 세력은 ‘튀르키예노동당’(Türkiye İşçi Partisi)이었다. ‘튀르키예노동당’은 당시 좌파의 유일한 합법 정당이었고 창당은 튀르키예 정치사에 있어 이정표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튀르키예 헌정 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었고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의회에서 노동당은 야당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튀르키예의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노동당 지도부는 사회주의는 군사 쿠데타나 게릴라 투쟁을 통해 이룩될 수 없기 때문에 ‘이원(Yön) 그룹’이나 ‘민족민주혁명운동’의 전략을 의회주의를 배제한 전략이라고 폄하했으며, 헌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투쟁을 선택했고 평화적, 민주적 방법에 의해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과연 어떤 계층이 반제국주의 투쟁과 민족해방운동

의 주도 세력이 될 것인가에 대해 범민족주의 전선을 구축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주도 세력은 노동자 계층이나 그들의 대리인들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반제국주의 투쟁은 튀르키예 노동당의 지도 아래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당 지도부는 무스타파 케말이 주도한 독립 전쟁에 관해서는 ‘이원(Yön) 그룹’이나 ‘민족민주혁명운동’과 견해를 같이했다. 그들은 독립 전쟁은 비단 튀르키예 국민뿐만 아니라 제삼 세계의 피압박 민족에 있어 역사적 사건으로 제국주의에 대항했던 최초의 성공적인 해방 전쟁이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독립 전쟁을 통해 쟁취한 정치적 독립은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급진적 구조적 개혁을 수반하지 못해 튀르키예는 독립을 상실하고 국부 아타튀르크의 사망과 1946년 다당제로의 전환으로 또다시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영향권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1971년 7월 20일 군부의 정치 개입으로 노동당은 해산되었고 지도부의 대부분이 체포 구금되었다. 군부의 정치 개입은 사회주의운동의 쇠퇴를 초래했고, 1974년 군부의 정치 개입이 종식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의 정치 활동은 또다시 재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당은 베히제 보란의 지도 아래 1975년 공식적으로 재창당했지만 튀르키예 좌파에서 사실상 이념적·정치적 헤게모니를 상실하게 되었고 1970년 중반 이후 명맥만 유지할 수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키예 이쉬지 파르티시
- 다국어 표기 Workers' Party of Turkey(영어)
- 연관 검색어 이원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Workers%27_Party_of_Turkey#/media/File:Emblem_of_Turkey.svg
- 참고문헌(오프라인) Avcıoğlu, Doğan. *Türkiye'nin Düzeni:Dün-Bugün-Yarın*. Ankara: BilgiYayınevi. 1969.
Lipovsky, Igor. "The Legal Socialist Parties of Turkey, 1960~1980". *Middle Easter Studies* 427. 1991.
Özgen, Hilmi. *Türk Sosyalizmi Üzerine Denemeleri*, Ankara: Ege Matbaası. 1963.

I H128 | 튀르키예 독립 전쟁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쟁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urkish War of Independence

튀르키예 독립 전쟁(1919년 5월 19일~1923년 10월 29일)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여 전승국인 연합국이 제국을 분리 강점하게 되자, 이에 반발하여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자들이 일으킨 정치 및 군사적 저항운동을 지칭한다.

아나톨리아에서 튀르키예의 민족운동은 새로운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창설로 절정에 이르렀는데, 대국민의회는 무스타파 케말의 지도하에 자국의 자원을 성공적으로 동원했다. 그리스-튀르키예 전쟁, 튀르키예-아르메니아 전쟁, 프랑스-튀르키예 전쟁 이후 케말주의자들은 1923년 7월에 연합국이 세브르 조약을 폐기하고 새로이 협상하여 로잔 조약을 도출하게끔 하여, 1923년 10월에 아나톨리아와 동트라키아 지방을 튀르키예 공화국의 영토로 보전할 수 있었다.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건물



아넛카비르 영묘 뒤에 있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수채화

튀르키예 민족운동이 성립하면서 오스만 제국의 밀레트 체제가 무너지고, 아타튀르크의 개혁으로 튀르키예에 근대적이고 세속화된 국민 국가가 들어섰다. 튀르키예 독립 전쟁은 튀르키예 공화국을 탄생시켰으며, 아직도 튀르키예 공화국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의 가장 큰 영향은 아타튀르크를 국부의 위치까지 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1923년 7월 24일 로잔 조약에서 신생 튀르키예 공화국은 오스만 제국의 후계 국가로서 그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1923년 10월 29일에 새 수도 앙카라에서 튀르키예 공화국이 정식으로 건국을 선포했다. 무스타파 케말은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으며, 옛 오스만의 잔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세속 공화국의 건설을 목적으로 여러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1924년에 그는 632년 이래 1,3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칼리프제를 폐지했고, 튀르키예 공화국의 기본 정신인 세속주의를 법으로 제정했다.

1925년에는 복장 개혁을 시행하여 여성들의 복장을 해방시키고, 과거에 금지되었던 여성의 교육권을 보장해 남녀평등 교육을 시행했으며, 이슬람력을 폐지하여 유럽식 그레고리력으로 대체했다. 1926년에는 민법을 개정해 일부다처제를 금지하고 일부일처제를 확립했으며, 1928년에 튀르키예어의 아랍 문자 표기법을 폐기하고 로마자 표기법으로 변경했다. 1930년에는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했다. ‘가족명에 관한 법’에 따라, 1934년에 튀르키예 의회는 무스타파 케말에게 ‘아타튀르크’(Atatürk: 아버지 튀르키예인, 즉 ‘국부’)라는 성을 만장일치로 부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키예 독립 전쟁
- 다국어 표기 Kurtuluş Savaş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세브르 조약, 밀레트, 앙카라, 로잔 조약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vro-U17ZWCM>
- 참고문헌(오프라인) Ali Çimen, Göknur Gögebakan. *Tarihi Değiştiren Savaşlar*, Timaş Yayınevi. 2. Cilt. sayfa 321 (in Turkish). 2007.
- Barber, Noel. *Lords of the Golden Horn: From Suleiman the Magnificent to Kamal Atatürk*. London: Arrow. 1988.
- Ergün Aybars. *Türkiye Cumhuriyeti tarihi I*, Ege Üniversitesi Basımevi. 1984.
- Kinross, Patrick. *Atatürk: The Rebirth of a Nation*. London: Phoenix Press. 2003.

I H129 | 튀르키예 라디오 텔레비전 공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소분류1 영화·방송 ● 유형소분류2 기관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RT

튀르키예 라디오 텔레비전 공사(튀르키예어: Türkiye Radyo ve Televizyon Kurumu)는 튀르키예의 국영방송 라디오 및 텔레비전 네트워크이다. 국내 채널로는 TRT 1(HD), TRT 2(2010년 3월 18일 TRT Haber로 대체됐다, 2019년 2월 22일 TRT Okul을 대신해 재개국)(HD), TRT 3(TRT Spor를 대체로 중계하나, TBMM TV(의회 채널)을 방송하는 경우도 있음)(HD), TRT Haber(HD), TRT Spor(HD), TRT Spor 2(HD), TRT Çocuk(HD), TRT Kurdi(옛



튀르키예 라디오 텔레비전 공사 첫 방송 장면
 Source: <https://youtu.be/0OASg7FVYE0?si=psodI66T5goGiBfC>

TRT 6: 이 방송은 튀르키예 내 쿠르드계 튀르키예인들을 위한 TV 방송이다), TRT Müzik, TRT Belgesel(HD), TRT Arabi(HD)가 있다. 국제 채널로는 TRT Avaz와 TRT Türk가 있다.

이 방송은 중앙아시아와 발칸 지역의 투르크인들을 겨냥한 방송이다. 2009년 3월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아제르바이잔어, 보스니아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투르크멘어 그리고 키르기스어로 방송을 하고 있다. TRT World는 영어 방송이다. 한편 라디오 채널로는 Radyo 1, TRT FM, Radyo 3, TRT Kurdi Radyo(이 방송은 튀르키예 내 쿠르드계 튀르키예인들을 위한 라디오 방송이다), TRT Radyo Haber, TRT Nağme, TRT Türkü 그리고 Voice of Turkey가 있다.

1964년 5월 1일 라디오 방송으로 시작했고, 1968년 1월 31일부터 TV 방송도 시작했다. 수도 앙카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유럽 방송연맹의 회원이기도 하다.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격교육 방송도 하고 있다. TRT EBA Uzaktan Eğitim, TRT EBA TV İlkokul Canlı İzle, TRT EBA TV Ortaokul Canlı İzle, TRT EBA TV Lise Canlı İzle가 원격 교

육 방송이다.

지난 2016년 7월 15일의 쿠데타로 많은 수의 TRT 소속원들이 해고되거나 강제로 퇴직당하고 말았다. 튀르키예 언론 노조(Haber-Sen)에 따르면 1,800명이 강제 퇴직당했다고 밝히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TRT, 테레테
- 다국어 표기 Türkiye Radyo ve Televizyon Kurumu(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쿠르드, 아제르바이잔어, 카자흐어, 우즈베크어, 키르기스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www.trt.net.tr/>
- 참고문헌(오프라인) Aziz, Aysel. "Türkiye'de radyo televizyon ile eğitim uygulamaları." *Eğitim ve bilim* 2.7, 1977.

I H130 | 튀르키예 문자 개혁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개혁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Alphabet Reform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이 멸망하고 1923년 민주주의와 세속주의를 받아들인 튀르키예 공화국이 세워졌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새로운 세속 공화국의 건설을 위하여 다방면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튀르키예인들은 5세기 이래로 돌궐 문자, 위구르 문자, 아랍 문자 등 다양한 문자를 사용해 왔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 이후 튀르키예 공화국은 언어 개혁의 일환으로 1928년 오스만 제국 시대에 사용했던 아랍 문자를 라틴 문자로 바꾸는 문자 개혁을 단행한다.

문자 개혁이 이루어진 원인과 배경은 다양하다. 오스만 제국 시기 오랜 기간 아랍 문자가 사용되어 왔으나 튀르키예어를 아랍 문자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알타이 제어의 두드러진 특징인 모음조화가 발달한 튀르키예어는 8개의 모음을 지녔고, 이에 비해 3개의 모음을 지닌 아랍어나 페르시아어의 모음 체계는 튀르키예어를 옮기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튀르키예의 문자 개혁에 관한 논의는 근대화 개혁 시대를 맞아 신진 개혁파 세력의 민족 자각 의식의 고취와 더불어 튀르키예어 기술에 있어 아랍 문자의 부적합성을 제기하는 지식인이 늘어나며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그런데 19세기 말 오스만 투르크어가 아닌 튀르키예어를 사용하는 작가들이 일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점차 튀르키예어에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어휘와 문법을 제거하거나 순화해 나가며 문어체와 중산층, 대중이 사용하는 튀르키예어들 사이의 차이를 없애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1908년 제2차 입헌 혁명 이후에도 문자 개혁의 논의가 대두되었으나 전쟁으로 공백기가 생겼다. 이후 1923년 라틴 문자 차용을 주장하는 의견들과 반대 의견들이 열띤 논쟁을 벌였다. 라틴 문자 차용 주장자들 아랍 문자의 튀르키예어 표



새 문자를 소개하는 아타튀르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기 부적성, 튀르키예어의 순수성 저해, 아랍 문자의 난해성, 서양 문물의 도입 필요성, 라틴 문자의 편의성 등을 거론했고, 반대파는 이슬람 문화 전통의 상실, 기존 문화유산의 사장 및 새 문자의 부담감으로 인한 국민의 언어생활 지장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결국 1928년 11월 아랍 문자보다는 라틴 문자가 튀르키예어의 특징을 더 명확하게 나타낸다는 점을 인정받아 튀르키예 문자로 인정되었다. 튀르키예 공화국의 문자 개혁으로 튀르키예어의 문자 체계는 자음과 모음이 29개로 이루어진 라틴 문자 기반의 문자 체계로 변화하게 되었다. 문자 개혁과 더불어 언어 개혁의 일환으로 튀르키예에는 튀르키예어 어원 연구 및 외래어 순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1932년에는 우리나라의 국립국어원 성격을 띠는 튀르키예 국립국어원(Türk Dil Kurumu)이 설립되고 근대 튀르키예어 순화운동이 시작되었다. 아타튀르크가 직접 나선 튀르키예어 순화운동은 1935년까지 계속되었다. 튀르키예 공화국의 언어명과 관련하여 롬 튀르키예어, 혹은 공화국 튀르키예어와 같은 표현이 제안되기도 했으나,



튀르키예 문자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타튀르크 동상(이stanbul)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은 1940년 ‘튀르키예 투르크어(Türkiye Türkçesi, Turkic of Türkiye)’라는 명칭을 발표했다. 통상 우리가 튀르키예어라고 칭하게 되는 현대 튀르키예어는 오스만 투르크어, 아나톨리아 방언, 루멜리 방언을 포함하고 있다.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은 새로운 튀르키예어를 순화시키고 정비하는 데 앞장선다.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의 튀르키예어대사전은 약 570,000개의 단어가 수록되어 있으며, 현재도 끊임없이 사전의 교정과 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은 전문 용어, 예술 용어, 방언 연구나 튀르키예 설화 및 원문 연구와 같은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을 통해 튀르키예어 및 투르크어학의 연구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오스만 제국 시기에 특정 계층에게만 허용되었던 읽고 쓰는 능력은 곧 권력이었다. 그러나 문자 개혁으로 읽고 쓰는 것이 쉬워지면서 문해율이 높아지고, 이는 곧 독서량의 증대로 이어졌다. 문자 개혁의 중요한 의의는 새로 시작될 문화 개혁 및 근대 교육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있다. 문자 개혁은 단지 문자만 차용하여 말을 적어낸 것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널리 영향을 미친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이뤄 낸 큰 혁명이자 문화 혁신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할프 데브리미, 야즈 데브리미, 터키 문자 개혁
- 다국어 표기 Harf Devrimi(튀르키예어), Yazı Devrim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돌궐 문화, 모음조화, 오스만 투르크어,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 참고문헌(온라인) <http://tdk.gov.tr/tdk/kurumsal/tarihce-2/>
- 참고문헌(오프라인) Agop Dilaçar. Devlet Dili Olarak Türkçe. Ankara: Aankara. Üniversitesi Yayınları. Türközü, G. 2017. 터키의 언어 정책. 새국어생활 27권 4호, 국립국어원. 1962, p.153~165. 서재만. 터키의 문자 개혁과 언어 순화. 세계 여러 나라의 순화운동. 국어생활 1988년 가을호. 1988.

I H131 | 튀르키예 민속희극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구비문학 ● 유형 소분류2 장르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FOLK COMEDY

구비문학은 민중의 문학이며, 일상생활의 언어였고, 해학이었다. 튀르키예 문학에서 구비문학이 중요한 이유는 투르크 민족의 역사와 생활방식, 세계관, 신앙, 지식 정보가 모두 전통적인 방식으로 입에서 입으로 다음 세대로 전해졌다는 점 때문이다. 기록 문화는 교육을 받고 관리 계층에 소속된 도시에 거주한 소수에 의해 유지됐다.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사용하던 언어는 일반 대중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달리 장황하고 외국어 사용이 많았다. 예를 들면 아랍어, 페르시아어, 17세기 이후에는 프랑스어를 가미했다. 이렇듯 대중의 언어와 통치자와 관리자들 사이에서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는 크게 달랐다.

문학 작품이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드는 감정, 생각, 소망, 근심, 걱정을 사즈를 배경 음악으로 삼아 민요인 튀르퀴(türkü)를 부르거나 동화, 우화, 이야기로 만들어 표현했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현상을 머릿속에 그릴 때 삶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희극의 요소를 추가했다. 이는 어려운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됐고,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면 우스개로 나타냈다. 이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여유를 찾을 수 있게 했다. 우스개에서는 사람, 자연, 동물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해학으로 강조했다. 이야기, 속담, 관용구, 동화, 일화에 이르기까지 모두 즐거움을 기반으로 했다. 주제와 메시지가 있는 모든 종류의 민속극은 희극이었다. 희극은 상당 부분이 일화가 모여 구성되며, 일화의 특징은 사건을 기반으로 내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튀르키예식 유머의 특징 중 하나는, 주제 대부분이 관리자 계층과 민중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점이다. 이때 민중은 관료들과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는다. 주인공의 입으로 생각, 태도, 행동을 표현한다. 대중은 자신들과 맞서는 모든 관리 앞에 영웅이 나타나게 했다. 술탄, 대신, 장관, 판사, 종교부 장관, 지방관, 보병 군단장, 내금위장, 종교 판사, 도지사, 군수, 이장 등은 관리자 계층이다. 일화에서 보통 이 사람들은 해코지하고, 위압적이고,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뇌물 비리 같은 문제를 일으켜 우스갯거리가 된다.

민속학자 일한 바쉬괴즈(Ilhan Başgöz)는 민담과 이야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적으로 긴장감이 느껴지는 주제에서 민담과 이야기의 양쪽 끝을 보면 한쪽에는 오스만 시대의 판사, 세무관, 파샤, 순례자, 도시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목동, 시골 사람, 청년이 있다. 전자는 오스만 시대에 공무원, 관리자, 고위 공무원이었고, 후자는 말하자면 민중 즉,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관리자들은 이 민담에서 편견이 있고, 이기적이고, 뇌물 수수꾼에 콧대가 높고, 국가의 힘을 나쁜 쪽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로 표현된다. 권력자들은 이야기에서 정당한 일에 형벌을 내린다. 민중들은 실실 웃기도 하고, 미묘한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고, 거칠게 뺨을 때려서 나쁜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기도 한다. 부패한 사회에서 희생양이 된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자신은 강인하고, 똑똑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정의감이 있다고 믿으며 만족한다. 이것은 구비문학 다른 장르에서도 볼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다.”

튀르키예 민속희극 전통에서 유머를 상징하고 대중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나스렛딘 호자(Nasreddin Hoca), 베크리 무스타파(Bekri Mustafa), 인질리 차부쉬(İncili Çavuş)와 같은 인물이다. 그리고 아나톨리아 공동체별 일화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벵타슈, 목수, 튀르크멘(Türkmen), 라즈족, 쿠르드족, 룸(로마인),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나라를 등진 자, 카라테펠리(Karatepeli), 유목민, 신비주의 성자들이 등장한다. 또 지역적 특색이 뚜렷한 “어떤 사람 한 명이...”로 문장을 시작해 사건과 장소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리즈가 있다.

튀르키예 민중 희극은 전통적으로 이솝우화처럼 재미있는 이야기가 일반적이다. 오랫동안 농사일을 하고 가축을 기르다 보니 사회적 분위기와 사건을 직접 비평하는 대신에 동물에 빗대어 견해를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들을 만들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없이 인간의 삶이 녹아 있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반영되었다. 다음은 동물을 주제로 한 우화의 한 예이다.

여우 한 마리가 숲에서 산책하는데 큰 양 한 마리를 보았다. 계략이라고 생각해 그냥 지나쳤다. 가던 길을 계속 가다가 늑대를 만났다. 늑대가 말했다.

“여우야, 나 배가 너무 고프다. 너를 잡아 먹어야겠다.”

여우는 대답했다.

“이리 와 봐, 나를 안 잡아 먹겠다고 약속해. 큰 양 한 마리를 보여줄게.”

여우는 길을 나섰다. 늑대는 여우가 의심스러워 물었다.

“그런데 이 꼬리가 너무 먹음직스러운데 너는 왜 안 먹었어?”

교활한 여우는 대답했다.

“지금 금식 중이야.”

그때 늑대와 여우는 꼬리 옆에 왔다. 배가 고픈 늑대는 큰 양의 꼬리를 보자 바로 낚아챘다. 그러자 덧붙은 “착” 소리와 함께 늑대의 엉덩이를 잡았다. 약삭빠른 여우가 덧붙은 꼬리에 다가가서 먹기 시작했다. 고통스러운 늑대는 여우에게 소리쳤다.

“야, 너 금식한다더니 꼬리는 왜 먹어?”

여우가 대답했다.

“금식도 깰 땐 깨야지.”

민속희극에 등장하는 벵타시 일화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벵타시 신도 중 한 명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신사가 가까이 와서 물었다.

“자네, 내일 신의 안식처를 떠나 황천길(다리)을 걷게 될 텐데 겁나지 않는가?”

벵타시는 물었다.

“황천길(다리)은 어떤 건가요?”

신사는 대답했다.

“그 다리는 털보다 얇고, 칼보다 더 잘 베어진다네.”

“그렇다면 손잡이가 있습니까?”

“없네.”

벵타시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떨어지면 되죠, 뭐!”

튀르키예 희극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나스렛딘 호자(Nasreddin Hoca)이다. 나스렛딘 호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려준다. 대부분 웃음과 교훈을 함께 주면서 규칙을 거부감 없이 준수하도록 민중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 다음은 나스렛딘 호자의 이야기이다.

황소가 한 마리 있는데 7개 마을의 암소를 합친 것만큼 컸다. 정부는 농장을 세우고 이 황소를 데려왔다. 그리고 황소 옆에 짝짓기할 암소도 들여보냈다. 큰 눈을 가졌고, 목살은 두툼하고, 털은 윤기가 있는 소였다. 하지만 황소는 암소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러자 더 아름답고 화려한 암소를 보냈는데, 냄새만 맡았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다.

나스렛딘 호자에게 사람들이 물었다.

“이 황소는 왜 이러는 거죠? 아무리 좋은 농장에서 데려와도 쳐다보질 않아요.”

나스렛딘 호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 황소는 이제 정부 소속 공무원이 되었으니까요. 오늘 가고, 내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 민중 희극은 일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운율시에 웃음 포인트를 넣어 과장하며 조롱과 풍자를 담아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키예 민속희극

● 다국어 표기 Folk Comedy(영어)

● 연관 검색어 나스렛딘 호자

● 참고문헌(오프라인) Başgöz İlhan, *Folklor Yazıları*, Adam Yayınları, İstanbul, 1986.

Başaran Mehmet, *Aç Kapıyı Bezirgan Başı*, Özyürek Yayınları, İstanbul, 1974.

Bayrak Mehmet, *Halk Gülmecesı*, Yorum Yayınları, Anakra, 1987.

Çevik Mehmet, *Abdal Fıkraları*, Ürün Yayınları, Ankara, 2018.

Kurgan Şükrü, “Nasraddin Hoca Fıkralarında Türk Halk Yaşayışının İzleri”, *Türk Dili, Türk Halk Edebiyatı Özel Sayısı*, Ankara, 1968.

Yıldırım Dursun, *Türk Edebiyatında Bektaşî Fıkraları*, Akçağ Yayınları, Ankara, 1999.

I H132 | 튀르키예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어족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Turkey Turkish, Turkish

튀르키예어는 형태론적으로 만주어, 몽골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한국어, 일본어 등과 같이 어근이나 어간에 어미나 접사들이 접미되어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교착어이며, 다른 표현으로는 첨가어이다. 튀르키예어를 설명할 때 문법적 특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착어적 특성인데, 교착어는 19세기 중엽 세계 언어들을 굴절어(屈折語), 교착어(膠着語), 고립어(孤立語)로 나누는 형태적 분류에서 쓰였다.

계통론적 측면에서 튀르키예어는 한국어, 만주-통구스어, 몽골어 등과 같이 알타이 제어에 속하는 언어로 분류된다. 알타이 제어에서 단어의 파생과 굴절은 주로 접미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어간과 접미사의 연결이 비교적 규칙적이다. 튀르키예어는 다른 알타이 제어와 마찬가지로 교착어이기 때문에 단어의 파생, 활용 및 곡용이 접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접사가 어기에 첨가되면서 모음 조화와 자음 동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튀르키예어의 가장 두드러진 음운론적 특징은 모음 조화이다. 모음 조화란 본질적으로는 한 단어 안에서의 모음의 동화 현상이다. 가령 전설 모음만으로 되어 있는 단어와 후설 모음만으로 되어 있는 단어는 있으나, 이 두 계열의 모음이 한 단어 안에 공존할 수 없다는 규칙이다. 이처럼 전설과 후설의 양 계열 대립에 기초를 둔 것을 ‘구개적 조화’라고 하며 튀르키예어가 이에 속한다. 여기에 원순과 비원순의 양 계열 대립에 기초를 둔 순적 조화가 추가되기도 한다. 한국어도 옛날에는 구개적 조화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대 한국어는 양성파 음성 모음의 대립이다.

튀르키예어는 자음 21개(b, c, ç, d, f, g, ğ, h, j, k, l, m, n, p, r, s, ş, t, v, y, z), 모음 8개(a, e, ı, i, o, ö, u, ü)로 구성되어 있다. 튀르키예어의 모음 체계에는 이중 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입 자음, 모음 탈락, 자질 변경 등이 나타난다. 또한 순수 투르크어에는 장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음의 경우 성대의 진동 유무가 변별적 자질로 작용하여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분이 있다. 순수 투르크어 어휘의 경우 의성의태어를 제외하고 어두에 c, f, h, ğ, j, l, m, n, p, r, (ş), v, z 자음이 오지 않으며 겹자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어말에 단음절 어

휘 및 일부 외래어 어휘를 제외하고 유성 자음(b, c, d, g) 대신 무성 자음(p, ç, t, k)이 나타난다.

튀르키예어의 어휘적 특징은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의 영향을 받은 어휘가 많으나, 순수 투르크어의 경우 어근과 접사의 경계를 쉽게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식어는 항상 피수식어의 앞에 오며, 문법적 성 구분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문장에서 인칭 대명사를 명시하지 않아도 문장 내 서술어 어미의 인칭 활용을 통해 인칭과 주어를 알 수 있다. 튀르키예어의 어순은 일반적으로 주어-목적어-서술어 순으로 설명되지만, 격어미가 어휘에 접미되어 표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성분의 위치는 자유롭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르키예 튀릭체씨, 터키어
- 다국어 표기 Türkiye Türkçesi(튀르키예어), Turkish(영어), トルコ語(일본어), 土耳其语(중국어), Türkische(독일어)
- 연관 검색어 교착어, 알타이 제어, 모음 조화
- 참고문헌(오프라인) Ergenç, İclal. *Türkiye Türkçesinin Görevsel Sesbilimi*. Engin Yayınları. 1989.
Uzun, Engin. *Biçimbilim: Temel Kavramlar*. Papatya yayıncılık eğitimi. 2006.
연구석, 『터키어 문법의 새 조명』, (주)우리와 중동. 2003.

I H133 | 튀르키예어 번역본 및 초보자를 위한 몽골어와 페르시아어 사전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itāb-ı Mecnū’u Tercümān-ı Türkī ve ‘Acemī ve Moğlī ve Farsī

『튀르키예어 번역본 및 초보자를 위한 몽골어와 페르시아어 사전(Kitāb-ı Mecnū’u Tercümān-ı Türkī ve ‘Acemī ve Moğlī ve Farsī)』은 카디 메블라나 케말뤼딘(Kadı Mevlana Kemalüddin)를 위해 할릴 무함마드(Halil B. Muhammed)가 집필했다. 집필 날짜는 1343년 1월 25일(이슬람력 743년 saban 27)로 기록되어 있다.

이 사전은 총 7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페이지는 13줄로 이루어졌다. 이 책은 단어의 유형별로 정리된 문법 사전이다. 이 사전은 튀르키예-아랍어와 몽골-페르시아어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저자 할릴 무함메드는 1,260개의 투르크어 단어 중 70개를 투르크멘어로, 나머지는 킵차크 투르크어로 분류했다. 작품은 아랍어-킵차크 투르크어 사전, 대명사, 명사 활용, 전치사 및 접미사 부분으로 구분된다.

단일 사본은 스웨덴 라이덴 아카데미 도서관에 있으며, 이 판본은 네덜란드 오리엔탈리스트인 Martin Theodor Houtsma가 출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타브 메즈위 우 테르쥐마느 투르키 뷁 아제미 뷁 몽골리 뷁 파르시

● 다국어 표기 Kitāb-ı Mecmū'u Tercümân-ı Türkî ve 'Acemî ve Moğlî ve Farsî(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킵차크 투르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Ahmet Caferoğlu, Ahmet. *Türk Dili Tarihi*, İstanbul, 1974.

Ercilasun, A. B.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Türk dili tarihi* (Vol. 603), Ankara: Akçağ, 2004.

I H134 | 튀르키예 커피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생활 ● 유형 소분류2 음식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urkish Coffee

튀르키예 커피는 제즈베(Cezve)라는 작은 냄비로 끓인다. 긴 손잡이가 달린 이 제즈베에 커피를 넣고, 물과 기호에 따라 설탕을 넣어 잘 섞는다. 낮은 불에서 커피가 끓기를 기다렸다가 냄비 위에 올라온 거품을 잔에 붓고, 다시 끓이기 시작한다. 다 끓은 커피를 잔에 붓고 물과 함께 대접한다.

튀르키예에 언제부터 커피가 유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오스만 제국이 1536년 예멘을 정복한 후 커피콩이 오스만 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된 이후로 보고 있다. 당시 예멘의 수출 항구였던 모하(Moha)였기 때문에 예멘에서 온 커피는 ‘모하’라고 불리기도 했다. 당시 주요한 수출 품목 중 하나였기 때문에 오스만인들은 예멘에 커피 농장을 세우기도 했으며, 커피콩



튀르키예 커피

이 다른 지역에서 자라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생커피콩은 해외로 유출할 수 없었다. 모하커피콩은 1600년대 이후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커피의 유행으로 1554년 이스탄불의 타흐툴칼레(Tahtulkale), 오늘날의 에미뇌뉘(Eminönü) 지역에 최초의 카흐웨하네(kahvehane) 즉 커피하우스가 생긴다.

처음 커피가 이스탄불로 유입되었을 때, 이 새로운 음료가 이슬람 율법에 맞는지에 대하여 수 많은 논쟁이 있었다. 사람을 취하게 하는 모든 음료는 하람(금지)이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커피하우스에서 도박이나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이 하람이지 커피를 마시는 것 자체는 금지가 아니라는 해석에 합의했다. 그러나 커피하우스는 오스만 시대에 여러 번 폐쇄 명령을 받기도 했다. 신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다. 커피하우스는 여론 형성의 집결지이기도 했으며, 소비재의 커피 소비의 증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결코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이런 여러 차례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커피와 커

피하우스는 계속 퍼지게 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서는 오스만 궁정의 공식 행사에서도 커피 대접이 포함되기 시작했고, 이후 커피 소비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현재 튀르키예는 유럽식 커피 끓이는 방식이 유입되기도 했으며, 인스턴트 커피도 소비되고 있으나, 여전히 튀르키예 커피는 손님 대접을 비롯하여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소비되고 있다.

튀르키예 커피는 2013년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투르크 카흐베시, 튀르크 카흐베시, 튀르크 카흐베, 튀르키예 전통 커피, 터키 커피

● 다국어 표기 Türk kahvesi (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Turkey Travel-Safranbolu (튀르키예 여행-사프란볼루)

https://www.youtube.com/watch?v=ls8_azMYnTU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ch.unesco.org/en/RL/turkish-coffee-culture-and-tradition-00645>

<http://www.hurriyet.com.tr/kelebek/keyif/turk-kahvesi-nasil-yapilir-turk-kahvesi-yapimi-40974647>

● 참고문헌(오프라인) Hattox, Ralph S. *Kahve ve kahvehaneler : bir toplumsal içeceğin Yakındoğu'daki kökenleri*, (Trans:Nurettin Elhüseyni), İstanbul : Türkiye Ekonomik ve Toplumsal Tarih Vakfı, 1996.

Yaşar, Ahmet. "Osmanlı Şehir Mekânları: Kahvehane Literatürü" *Türkiye Araştırmaları Literatür Dergisi*, Cilt 3, Sayı 6. 2005. pp.237~256.

I H135 | 털귀 포리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Tülgü Pörük

여우의 털로 만들어졌다고 하여 털귀 포리크라는 명칭을 가진 하카스 기혼 여성들이 착용하는 전통 머리 장식(모자)은 하카스인들의 또 다른 부족인 사가스(Sağay)인들에게는 타가야흐(Tagayah)로 알려져 있다. 시베리아 학자인 레오니드 포타포브(Leonid Potapov)에 의하면 털귀 포리크는 러시아 여성들이 착용하는 코코쉬니크(kokoshnik)와 비슷한 모양을 한 모피로 만드는 대형 머리 장식이다.

털귀 포리그의 머리 위 가운데 부분은 둥글게 되어 있으며, 비단으로 구성된다. 맨 윗부분은 비단실로 만든 술이 매달려 있다. 하지만 머리 안쪽 장식은 높이가 10cm나 되는 모자의 높이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머리 부분을 덮는 날개 부분은 검은색 혹은 붉은 여우의 털로 만든다.

하카스 여성들이 좋아하는 머리 장신구인 털귀 포리그는 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즐겨 쓴다. 이 때문에 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이 털귀 포리그를 소유한 사람은 마을에 고작 한두 명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포타포그(L. Potapov)는 하카스 샤먼(무당)들도 의식을 위해 이 털귀 포리그를 착용했다고 기록한다.

바시키르인들의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머리 장신구를 텔케 뷔르크(telke bürk)라고 불렀으며 하카스인들의 털귀 포리크보다는 조금 더 작은 크기로서, 주로 남성들이 착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털귀 포리그
- 다국어 표기 Tilki börk(튀르키예어), Tülgü Pörük(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Шибалева, Ю. А. Одежда хакасов. Сталинабад: Таджикский гос. ун-т им. В. И. Ленина. с. 69. 1959.

I H136 | 튜립 시대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시대
- 유형 소분류2 용어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ulip Age

오스만 제국의 18세기 초인 1718년~1730년을 이르는 튜립 시대(영어: Tulip Period, Tulip age, 튀르키예어: Lale Devri)라는 용어는, 당대에는 사용된 적이 없던 말이다. 후대의 작가 이 야히야 케말 베이아틀르(Yahya Kemal Beyatlı, 1884년~1958년)가 파사로비츠 조약이 체결된 1718년 이래로 계속된 평화 시대 중 이스탄불에 튜립이 재배되던 시대를 ‘튜립 시대’라고 지칭했고, 1912년 역사가 아흐메드 레피크 알트나이(Ahmed Refik Altınay, 1881년~1937년)가 신



튀립 시대의 상징적인 작품인 술탄 아흐메드 3세 체슈메

문에 연재했던 오스만사를 출간하며 제목으로 ‘튀립 시대’를 사용하여 오스만 역사와 관련된 문헌에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는 술탄 아흐메드 3세(III. Ahmed, 재위: 1703년~1730년)의 통치 중 네브셰히를리 다마드 이브라힘 파샤(Nevşehirli Damad İbrâhim Paşa, 재임: 1718년~1730년)가 대재상으로 재임하던 기간이며, 1730년 파트로나 할릴(Patrona Halil, 1690년~1730년)의 반란으로 끝난 기간이다. 튀립 시대는 서방과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관계가 발달한 시기였다.

유럽의 파견된 오스만 제국 대사들은 외교와 상업 협정과 유럽식 외교와 군사 제도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 특히 주 프랑스 오스만 대사는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관련된 문화를 오스만 제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새로운 시대의 시발점은 1727년 이스탄불에 인쇄소 설립한 것이었다. 현대적 의미의 소방서라고 할 수 있는 툴룸바즈 오자으(Tulumbacı Ocağı)가 설립되기도 했다. 대재상은 예술가와 문

학가를 모았으며, 외부로 필사본을 유출하는 것을 금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식적인 번역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동서양의 중요 서적들이 오스만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일부 작품은 오스만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되었고 사상에 변화가 발생했으며, 체계적인 저작 활동이 일어났다. 톱카프 궁전을 비롯하여 일부 모스크와 대재상이 건립한 킬리에(복합단지)에 도서관이 만들어졌다. 이즈니크와 쿠타히아의 타일 제조소가 재정비되고, 테크프루 궁전에서는 타일 제조소가 새로 건립되었다. 직조 공방이 열리고, 소상공인을 감찰하고, 국내외 무역이 발전되었다. 건축에 있어서도 플랜을 바탕으로 한 건축물이 건립되고, 특히 건축 장식에 있어서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바로크와 로코코 스타일이 적용되었다. 고급 저택과 별장 등이 유럽 스타일의 장식으로 건설되었다. 이와 함께 아흐메드 3세의 체슈메(çeşme: 분수 또는 수도가 달린 공공 수원)를 대표로 다량의 체슈메가 건설되었다. 이스탄불 도시에는 길과 부두가 새로 건설되었고, 화재로 소실된 그랜드 바자르의 일부분이 복구되었으며, 도시는 청결하게 재정비되었다. 의학 분야에서는 새로운 의학서가 집필되었으며, 무허가 의료진들은 퇴출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천연두 예방 접종, 즉 인두법이 실행되었다고 한다.

당시 대재상은 술탄을 위하여 다양한 유흥을 마련했는데, 이 상징이 튜립이었다. 정원과 창가 등에 인기 있는 튜립 839종을 재배했고, 신종 생산을 위한 대회가 마련하기도 했다. 튜립이 지는 계절에 궁 내에는 사방을 막고 난방을 한 공간에 튜립을 재배했다. 꽃과 관련된 직업이 자리 잡고, 이 분야에 대한 서적이 발간되었다. 다양한 축제와 연회가 개최되었고, 이곳에 예술가들이 초대되었다. 경마, 수영 경기, 레슬링 같은 세속화된 오락이 대중에게도 스며들었다. 이 시기에 궁전의 사치와 유흥으로 인하여 도덕, 생활 방식, 관습이 변화되었으며, 사치품의 소비가 증가했다. 사치를 막기 위한 칙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1772년에는 튜립 가격 고정을 위한 칙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위와 같은 풍조로 인하여 과도한 세금이 징수되고, 전통이 훼손되며 올레마와 같은 종교 계층과 민중의 불만이 축적되기 시작되었다. 군사 개혁에 불만을 품은 예니체리가 이들 민중을 지원하게 된다. 중앙 정부에 대한 불만, 실업률의 증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고위층의 내부 권력 투쟁을 비롯하여 1726년 발발한 오스만-페르시아 간의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의 패배 등을 원인으로 아흐메드 3세와 대재상에 대한 반발이 증가했다. 원정에 들어간 비용을 위하여 새로운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이것은 축적된 불만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결국, 1730년 파트로나 할릴(Patrona Halil, 1690년~1730년)을 앞세운 봉기가 발발하고, 대재상은 파면되었고, 술탄 아흐메드 3세는 퇴위하고 조카 마흐무드 1세(I. Mahmud, 재위: 1730년~1754년)가 보위에 오르며 튜립 시대가 끝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튜립이 심긴 정원과 저택, 그리고 각종 유흥과 오락 장소는 파괴되었다. 그러나 개혁과 서구에 대한 개방이 시작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띄레 데브리

● 다국어 표기 Lâle Devr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흐메드 3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can, Abdülkadir. «LÂLE DEVR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27, Ankara: TDV. 2003. pp.81~84.

Metin Kunt, Sina Akşin, Ayla Ödekan, Zafer Toprak, Hüseyin Yurdaydın. *Türkiye Tarihi 3: Osmanlı Devleti 1600~1908*. İstanbul: Cem. 1988.

I H137 | 트란스옥시아나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 1 지명 ● 유형 소분류 2 지형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ransoxiana

시르다리아강과 아무다리아강(혹은 옥수스강)의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현재의 우즈베키스탄 대부분, 타지키스탄 대부분, 카자흐스탄 남서부를 포함하는 지역이다. 주로 8세기 전후의 이 지역을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아랍어로는 마 와라 알나흐르라고 한다. 주요 도시는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호젠트이다.

트란스옥시아나라고 불리는 이곳은 예부터 몇 가지 이유로 중요한 지역으로 불렸다. 첫째, 풍부한 물로 인해 비옥한 토지가 생성되었고 많은 농작물이 수확되는 곳이다. 둘째로는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로 동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실크로드 비단 무역의 중

개 무역지로 각광받게 되었다. 세 번째는 정치·군사적으로 볼 때 수위가 높은 옥수스강(제이훈강)과 그 곁가지로 뻗은 강 그리고 주변에 위치한 초원들로 인해 반독립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었고, 이것들이 자연적 요소를 만들어 줘서 주변국들의 침입을 어렵게 만드는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었다.

이곳은 고대로부터 실크로드가 지나는 곳으로 번영했다. 아케메네스 조 페르시아 제국 때에는 소그디아나라는 이름의 사트라피였으며, 기원전 4세기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한 이후로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했다. 기원전 3세기에는 일부 지역이 박트리아의 지배에 들어갔고, 기원전 2세기부터는 파르티아의 영향권으로 편입됐다. 파르티아의 지배를 받던 126년에는 한 무제가 보낸 장군이 중국인 최초로 이 지역을 통과한 뒤 기록을 남겼다. 파르티아가 사산 조 페르시아로 교체된 3세기부터 사산 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다. 사산 조 페르시아대에는 동서 무역의 중심지로 특히 각광을 받아 경제, 문화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다.

트란스옥시아나는 7세기 이슬람 제국에 의해 정복당했으며 이후 이슬람화했다. 이후 우마이야 왕조, 압바스 조의 지배를 거쳐 이란에 세워진 여러 이슬람 국가들의 지배를 받았다. 1219년에는 칭기즈 칸의 호라즘 원정 때 정복되어 몽골 제국으로 편입되었고 이후엔 차가타이 칸국의 영토로 들어갔다. 1370년 이 지역의 중심 도시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하여 티무르 제국이 설립됐고, 약 1세기 가량 존속하다가 1500년에 우즈베크인에 의해 멸망했다. 이후 우즈베크인이 이 지역을 차지하여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트랜속시아나, 트랜스옥시아나, 트랜속시아나
- 다국어 표기 ما وراء النهر (아랍어) فرارود (페르시아어) 河中地区 (중국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사마르칸트, 부하라, 실크로드, 티무르 제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kQDplF5i3hU>
- 참고문헌(오프라인) “Transoxania (historical region, Asia)”. Encyclopedia Britannica. Retrieved 2017-11-10. Svat Soucek. *A History of Inner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I H138 | 트루바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고대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ruva

트루바(Truva)는 튀르키예 차낙칼레에 있는 고대 트로이 유적지를 지칭한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의 배경이 된 곳으로 199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고고학사에 있어 하인리히 쉘리만(Heinrich Schlieman: 1822년~1890년)에 의한 트로이 유적 발굴은 그야말로 꿈이 현실로 되는 드라마틱한 사건이었다. 7세 때 우연히 목사였던 아버지가 사 준 책에서 불타는 트로이성의 그림을 보고 언젠가는 그 성을 찾겠다는 꿈을 꾀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쉘리만이었다. 그는 성인이 되어 천재적인 어학 습득 능력을 배경으로 거부



고대 트로이 유적지 트루바

가 되었다. 그는 1870년 평생 숙원이었던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기 위해 튀르키예로 갔다. 이 유적이 위치한 곳이 현지명으로 히사르릭(Hisarlık)인데, 그는 1871년부터 발굴을 시작했다. 그가 트로이 유적을 발굴하는 데 도움을 준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두 번째 부인이었던 소피아이고, 다른 사람은 프랑크 갬버트라는 고고학자였다.

그는 인류사에 트로이 유적 발굴이라는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 하지만 발굴 과정에서 많은 유적층이 훼손되는 문화 파괴가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트로이, 투루바
- 다국어 표기 Troy(영어), Truva(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Troy>
- 참고문헌(오프라인) Carl W. Blegen. *Troy; excavations conducted by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1932~1938.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0.
유재원, 『터키, 1만년의 시간 여행 02』, 책문. 2010.

I H139 | 티마르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분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imar

티마르(Timar)의 원래 의미는 ‘돌봄’, ‘살핌’이다. 역사적으로는 오스만 중앙 정부 소유이며, 지방의 기병과 군사 행정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속되지 않는 토지를 의미한다. 즉, 일종의 봉건적 분배 체계로서, 일정 계급의 기병과 군사 체계 구성원들에게 봉토를 분배하는 방식이다.

국유지 중 연 수익 10만 악체 이상 토지의 경우는 하스(Has)라고 불리며, 이들은 술탄과 황실 가족들, 디반 구성원, 베이레르베이, 산작 베이 등에게 배분되었다. 하스 내의 토지 중 연 수익 2만 악체~10만 악체의 토지는 제아메트(Zeamet)로 분류되어 주로 중간 관료층에 배분되었고,

연 수익 3천 악체~2만 악체의 토지는 티마르(Timar)로 기병이나 군인들에게 지급되었다. 하스를 받은 베이레르 베이나 산작 베이는 책임자를 임명하여, 자신의 영역 내의 시파히(sipahi) 즉 기병을 책임지게 했다. 하스, 제아메트, 티마르의 주인들은 유사시 소유 토지에 비례한 일정 수의 갑옷을 갖춘 기병과 종자(gulam)를 데려와야 했다. 원칙적으로 티마르는 국유지로서, 상속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이것이 서구 봉건제와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이다. 다만, 아들이 군인일 경우 아버지 사망 후 동일 티마르가 재배정되기도 했고, 시대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소유권이 인정되기도 했다.

티마르 소유자들은 봉토 내에 법에서 규정된 권리를 가졌다. 각 티마르나 제아메트는 클르츠(kılıç)라는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범위 내에서 사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티마르 주인에게 납세하며 농민은 해당 농토를 떠날 수 없었다. 한편 농민들은 법에서 규정한 세금 이상을 티마르 소유자에게 낼 필요는 없었다. 기병의 말을 돌보고, 건물을 세우거나 유통을 돕는 일 따위도 농민의 몫이었으나, 이들은 노동의 대가를 따로 받았다. 티마르 소유자들은 원정 불참이나 농민에 대한 가혹행위, 중대 범죄와 같이 티마르 관련 법을 어길 시 티마르를 박탈당할 수 있었다.

이집트, 바그다드, 예멘, 아비시니아, 바스라, 라사, 알제리, 트리폴리, 튀니지와 같은 지방의 군인들은 티마르 대신 연봉제(sâlyâneli)로 봉급을 받았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티마르의 가치 하락, 장비의 가격 인상으로 인하여 티마르 제도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 즉, 티마르가 원정에 참여가 불가능해지고, 기병은 가난해져 농민으로부터 세금을 갈취하게 된다. 또한, 16세기 말, 화력 무기의 발전으로 티마르 소유 기병의 유용성이 떨어지게 되고 다른 군대로 차츰 대체되면서 티마르 제도는 쇠퇴하게 된다. 티마르의 수입은 기병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 중앙 재무부에 흡수되어 급여로 제공되거나, 티마르는 군인이 아닌 관료들에게 배분되었다. 압딜함이드 1세(I. Abdülhamid, 재위: 1725년~1789년) 시대부터 티마르 시스템을 개혁하고 남용을 방지하게 되었으나,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원정에 있어서도 큰 도움은 되지 못했다. 19세기에는 티마르 제도에 기반한 기병 대다수는 신식군인(Asâkir-i Mansûre)이 되었으나, 티마르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티마르는 중앙 정부에 흡수되고, 월급을 받게 된다.

● 다국어 표기 Timar(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Halil İnalçık. “TİMAR”,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1. İstanbul: TDV. 2012. pp.168~173.
- Halil İnalçık - D. Quataert. *An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ttoman Empire: 1300~1914*. Cambridge., 1994.

I H140 I 티모시 1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라크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기독교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imothy I

티모시 1세는 아시리아 북부 지방의 아디아베네에서 727/728년에 태어났다. 어렸을 때는 아크라 지역 바쉬쇼 학교의 아브라함 바르 다산다드(Abraham Bar Dashandad) 밑에서 수학했다. 이후 베스 브가쉬(Beth Bgash)의 주교가 된다. 동방교회 총대주교 하나니쇼 2세(Hnanisho' II, 재위: 773년~780년)의 사망 후 티모시 1세는 선거로 동방 교회 총대주교가 되었다. 티모시 1세는 사망 후 바그다드의 가톨릭코스 수도원 다야르 알 자탈리크(Dayr al-Jathaliq)에 묻혔다.

티모시는 과학, 신학, 전례 및 정경에 관한 다수의 저서를 남겼으며, 그가 남겼던 서신에는 다양한 신학적 질문과 당시 교회의 상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의 저서 중에 특히 유명한 것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논쟁을 기록한 것으로 782년 압바스 칼리프 알 마흐디(Al-Mahdi, 재위: 775년~785년)와 함께한 논쟁으로 추정하고 있다. 초판은 고대 시리아어로 출간되었고, 후에 아랍어로 다시 출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티모시는 동방 교회의 선교 확장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아르메니아, 다일람, 길란, 라이, 타바리스탄의 라이, 세계스탄의 사르바즈,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와 중국을 위하여 대주교를 서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남겼던 서신 등에서 투르크를 위한 대주교 서임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또한, 투르크의 칸이 메시아의 기적으로 개종했다는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언급했던 ‘투르크’가 어느 연대의 어느 부족 또는 왕조인지, 그가 어느 지역의 대주교를 서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았다. 관련 학자들은 티모시 1세의 서신과 그 외 사료와 유적을 교차 검증하며 여러 가지 추정을 남기고 있으나, 어느 것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티모시 1세가 중앙아시아와 중국 지역 선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것은 분명하

여, 투르크 교회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티모시 1세

● 다국어 표기 I. Timothy(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Dickens, Mark. "Patriarch Timothy I and the Metropolitan of the Turks". April 2010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20(02). 2010.. pp.117~139.

Güngör, Harun."Eski Türklerde Din ve Düşünce". *Türkler*Cilt 3.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463~544.

I H141 | 티무르 건축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사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imurid architecture

티무르 제국의 건축은 다른 예술 장르와 함께 14세기 말부터 16세기 초까지 중앙아시아, 이란 동부 및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지역에서 건설 및 생산되었으며, 이슬람 미술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무굴 시대의 인도-이슬람 예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티무르 시대의 중요한 예술 중심지는 사마르칸트, 헤라트, 쉬라즈 일부로, 티무르 건축은 각 지역색을 하나로 통합되어 발전했다. 티무르 건축은 주로 대형 복합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복합단지는 주로 영묘, 모스크, 마드라사, 수도승의 숙소로 구성되어있다.

티무르 건축은 기본적으로 이란과 중앙아시아 영토에서 발전한 이전 시기의 건축 스타일을 바탕으로 발전하였다. 벽돌이나 네 개의 이완 사용 등이 이전 시대의 유산이라면 티무르 제국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전 시대보다 더 높이 솟은 양파돔과 더 풍부해진 장식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티무르 시대의 건축은 돔은 이중돔으로 건설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외부 돔은 앞서 언급했듯이 양파돔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양파돔은 원형으로 된 드럼 위에 있었다. 또한, 외부 돔은 매끈하지 않고 골이 파여있는 형식이 대다수였다. 내부 돔은 일반적으로 사각형 홀의 모서리에 배



티무르의 영묘(사마르칸트, 우즈베키스탄)

치된 아치로지지된다. 홀에서 아치로의 전환은 각 모서리의 스퀴치로 이루어진다.

또한, 건물의 큰 홀이나 넓은 방의 경우 천정을 늑재 궁륭 등으로 만들었는데, 이 늑재 궁륭을 다시 더 작게 나누어 세분화하거나 남은 공간을 무카르나스로 채웠다. 따라서 천정은 균형이 잡힘과 동시에 더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다.

티무르 건축 장식의 경우, 벽돌은 티무르 제국 이전 시대에도 이 지역 건축의 주요 재료이자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되었다. 티무르 제국에서는 벽돌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였으며, 동시에 유약이 바른 타일과 벽돌을 교차로 배치하여 문양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반나이(banna'i) 기술역시 자주 사용하였다.

티무르 건축에 주요한 장식 요소 중 하나인 타일은 주로 모자이크 형태로 사용되었다. 타일의 경우 상회 기술과 하회 기술이 각각 단독으로 사용되거나 모두 사용되는 등, 높은 기술 수준

을 보여준다.

내부 장식의 경우 석고 장식과 함께 안료를 이용한 칠 장식 역시 사용되었다. 장식에 사용된 문양은 주로 식물 문양, 텍스트 및 기하학 문양과 같이 흔히 알려진 이슬람 건축에서 선호된 문양을 비롯하여 비종교 건축물에 경우에는 세밀화와 유사한 그림 역시 포함되었다. 건물에 장식적으로 사용되는 서체는 쿠팍 서체를 선호했다.

티무르 건축의 대표적인 예로는 사마르칸트의 샤희진다(Shah-i Zinda)를 들 수 있다. 건물을 장식한 모자이크 장식과 타일, 유약을 발라 구운 벽돌을 비롯하여 높이 솟은 대문은 티무르 특징을 잘 보여준다. 비비 허눔 모스크(Bibi-Xonum Mosque)의 경우에도 골이 파인 양파돔, 이완을 장엄하게 장식된 타일을 볼 수 있다.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Ulugh Beg Madrasah)는 티무르 후기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이다.

티무르 건축은 이슬람 세계 건축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티무르 이후 사파비 왕조에서는 티무르 제국 스타일을 일부 계승하여 발전시켰으며, 서부 이란 지역을 통치했던 흑양조와 백양조에도 다수 계승되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투르크계 왕조가 다수 있었던 중앙아시아 지역 건축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티무르 제국 건축

● 다국어 표기 Timurlu mimarisi (튀르키예어), Temuriylar arxitekturasi (우즈베크어), Teymuri memarlığı (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고리 아미르, 샤희진다, 비비 허눔 모스크,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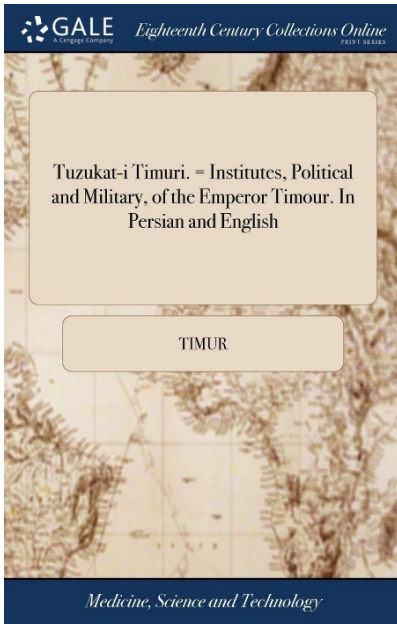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Bekaş, Engin. “Timurlular-Timurlu Sanatı”,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41, İstanbul: TDV, 2012. pp.180~184.

Blair, Sheila; Bloom, Jonathan M. *The Art and Architecture of Islam 1250-180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Hill, Derek; Grabar, Oleg. *Islamic Architecture and its Decoration*, London; Faber 1964.

I H142 | 티무르 법령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Timur Tuzukati



『티무르 법령』 영문 번역판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티무르 법령』은 티무르의 투쟁, 군대와 국가를 다스리는 원칙, 사회에 대한 그의 견해, 종교에 대한 이해, 그의 철학 및 개인적인 이상 등을 담고 있다. 『티무르 법령』은 총 두 챕터로 구성된다. 뮐푸자트(Mülfuzat)라는 첫 번째 장은 투을룩 테미르 한(Tuğluk Temir Han)과의 첫 번째 전투부터 마지막 양카라 전투까지의 사건(티무르가 통치 기간 동안 승리한 전투)과 함께 그의 전투 비법 등을 전달하고 있다. 두 번째 장인 튀쥐카트 부분에는 국가 행정과 군사 행정에 관한 티무르의 견해와 함께 그가 정한 법령과 규칙들이 나열되어 있다.

저명한 우즈베크 역사가 보리바이 아흐메도프(Böribay Ahmedov)의 주장에 의하면 티무르가 직접 차가타이 투르크어로 수기한 『티무르 법령』은 17세기까지 예멘의 판사 자파르 파샤(Ja'far Pasha)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다.

티무르 헌정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한 미르 에부 탈립(Mîr Ebû talib)은 그의 책 서문에서 그가 성지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예멘에 방문했던 것을, 또한 자파르 파샤의 도서관에서 티무르의 삶의 행적을 기록한 차가타이 투르크어로 쓰여진 작품을 발견했다는 것을 기록했다. 그는 순례를 마치고 아그라에서 바부르 샤 자한(Baburî Şah Cihan)의 요청에 따라 『티무르 법령』을 페르시아어로 번역해서 1637년~1638년 술탄에게 헌정한다. 바부르 샤 자한은 당대의 위대한 학자였기에, 미르 에부 탈립의 번역본을 에쉐레프 부하리(Eşref Buhâî)에게 보내어 세레페틴 알리 야즈드(Şerefeddîn Ali Yazdi)의 자페르나메(Zafername) 및 기타 문헌과 비교해 보며 번역의 오류와 결함을 수정하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티무르 법령』이 페르시아어로

번역되었고, 이 번역본은 박물관에 보관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티무르 법령』의 페르시아어 텍스트는 1773년 벵갈 군 사령관의 비서였던 데이비 소령에 의해 영어로 처음 번역되었으며, 그 이후 서문, 서론, 색인 및 기타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주석들과 함께 요셉 화이트(Joseph White)에 의해 1783년에 다시 번역되어, 페르시아어 원문과 함께 영국 옥스포드에서 출판되었다. 이 판본은 1785년 그리고 1891년에 인도에서, 그 이후 1963년에는 이란에서 출판되었다. 『티무르 법령』은 여러 언어로 번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령이 티무르의 것인가에 대한 진위 여부는 역사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 중 하나이다. 몇몇 역사가들, 특히 영국 동양학자 에드워드 그랜빌 브라운(Edward Granville Browne)과 러시아 동양학자 바실리 빌라드미로비치 바르톨드(Vasilij Viladimirovich Barthold)는 이 법령이 티무르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며, 심지어 그 책조차 원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진위 여부를 떠나 티무르의 법령은 당대 최고의 성공적인 군인, 정치가, 지도자인 티무르의 법령들을 담고 있는 한 권의 안내서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튀취카트 티무리, 투쥬카트 티무리
- 다국어 표기 تیمور توزوکاتی (페르시아어), Timur'un Günlüğü (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티무르, 차가타이 투르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imur, S. E&Bahadırođlu, M. T. Timur'un Günlüğü-Tüzükât-ı Timur, (haz: Kutlukhan Şakirov, Adnan Aslan). İnsan Yayınları, İstanbul, 2010.

I H143 | 티무르 제국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Timurid Empire

티무르는 1369년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의 실권을 장악해서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티무르 제국(1370년~1506년)을 성립시켰다. 그는 유럽 세계에서는 태머레인(Tamerlane)으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티무르 이 령’ 즉, ‘절름발이 티무르’라는 페르시아어의 사투리에서 기원한 단어다. 그가 절름발이였던 것은 젊었을 때 전쟁에서 받은 상처가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서방 원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티무르는 관심을 동방으로 돌리게 되었다. 이미 중국에선 몽골 제국의 일원이었던 원조가 무너지고 중국인 정통 왕조인 명조의 천하가 되었다. 티무르가 칭기즈 칸의 위업을 계승하려 꿈꾸고 있었다면, 중국 땅에서 몽골인을 내쫓은 명이 그에게 남겨진 단 하나의 정복 목표였던 것은 당연했다. 1404년 말 티무르는 20만의 대군을 이끌고 사마르칸트에서 출발해서 천산 산맥을 넘고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 본격적인 중국 정복에 나섰다. 이슬람 상인을 통해 재빨리 이 소식을 접하게 된 명의 영락제(永樂帝)는 변경의 방비를 강화해



티무르 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용 모양의 날뿔
Source: <https://images.metmuseum.org/CRDImages/>



타슈켄트 티무르 박물관

서 티무르와의 일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여기서 서방의 패자인 티무르와 중국의 황제인 영락제와의 사이에 세기의 일전이 시작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하늘은 명조를 돕고 말았다. 1404년 말 사마르칸트를 출발하여 시르다리아강의 두터운 얼음을 밟고 오토라르(Otrar)에 이르렀을 때, 이 불세출의 영웅은 병이 들어 그 파란만장한 일생을 마치게 되었는데, 이 때가 1405년 2월 18일이었다.

티무르가 급서하자 티무르 제국 내에서도 5년간에 걸쳐 승계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는데, 이를 슬기롭게 진압하고 제위에 오른 인물은 티무르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샤흐 루크(Shah Rukh: 1409년~1447년)였다. 제위에 오른 그는 수도를 사마르칸트에서 헤리트로 옮겼고, 아들인 울루그 베그(Ulu Beg)로 하여금 제1의 도시인 사마르칸트를 지배하게 하고 자신은 남방의 헤리트(Herat)에 머물면서 티무르 제국에 군림하게 되었다.

티무르가 불세출의 정복자였다면 샤흐 루크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은 통치자였다. 그는 약 40년에 이르는 치세를 통해 헤리트와 그 북쪽에 위치한 메르브(Merv)의 부흥에 힘써 훌륭한 궁전을 세웠으며 학문과 미술을 보호하고 장려했다. 또한 그는 훌륭한 외교적 수완도 발휘해서

명과 국교를 회복하고 오스만 제국과도 친선 관계를 유지했으며 또한 남인도까지 외교 사절을 파견해서 우호 관계를 구축하고 교역을 활발하게 했다. 샤흐 루크의 이러한 개명적(開明的) 성격은 울루그 베그 재위기(1447년~1449년)에 절정에 이르렀다. 샤흐 루크가 재위하고 있는 동안 사마르칸트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는 약 3년에 걸친 재위 기간 동안 티무르 제국의 문화 부흥을 위해 힘썼는데, 궁정에 학자와 문인, 예술가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학문과 예술을 토론했으며 시의 중앙 광장에는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건축물들도 세웠다.

또한 그는 천문대를 만들게 하여 그 자신이 직접 천체를 관측하고 몇몇의 학자들과 협력해서 천문표(天文表)도 편찬했는데, 바로 이것은 17세기 중엽 유럽 세계에 전해져 그 정확성으로 서양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소위 개명군주라면 학자를 보호하고 학예를 장려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앙아시아 역사상 울루그 베그와 같이 자신도 뛰어난 학자였던 인물은 적을 것이다. 따라서, 당대(當代)의 사람들이 그를 왕좌에 있는 학자라고 하여 아리스토타레스의 제자인 알렉산더 대왕에 견주었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1449년 울루그 베그가 사망하자 아부 사이드(Abu Said)가 제위를 계승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마르칸트에서 제국을 통치하다가 후에는 헤랏으로 옮겨 티무르 제국 전체 판도에 걸쳐 자신의 통치권을 지속적으로 확립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큰 실효를 거둘 수 없었고, 1469년 살해됨으로써 중앙아시아의 티무르 제국기는 사실상 종료되고 티무르 제국 내의 판도는 각지에서 호족 세력이 흥기해서 분할되어 버리고 말았다. 티무르 제국의 멸망은 또다시 중앙아시아를 사분오열의 상태에 빠뜨렸고, 화려하게 번영했던 투르크 이슬람 문화도 이와 함께 쇠퇴하게 되었다. 이후 1500년 킵차크 칸국의 혈통을 잇는 우즈베크족이 북방으로부터 침입해서 사마르칸트, 헤라트 등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의 주요 도시들을 점령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티무르 제국의 명맥은 끊어지고 말았다.

- 다국어 표기 تیموریان(페르시아어), Timuriyān(영어)
- 연관 검색어 칭기즈 칸, 티무르, 사마르칸트,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 트란스옥시아나
- 참고문헌(오프라인) 룩 관텐 저, 송기중 역, 『유목민족제국사』, 민음사, 1984.
서울大學校東洋史學研究室 編. 講座 中國史 II, 지식산업사. 1989.

李龍範. 中世 滿洲蒙古史의 研究. 同和出版公社. 1988.

조성을 편역. 『격동의 아시아 정복왕조시대, 송조와 몽골제국』. 집현전. 1988.

Parker, E.H. *A Thousand Years of the Tartars*. London, Dawsons of Pall Mall. 1969.

I H144 | 티베트 불교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동아시아 ● 나라 러시아, 중국, 몽골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불교 ● 유형 소분류2 종단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ibetan Buddhism

티베트 불교는 라마교라고 불리기도 한다. 주술을 중시하는 티베트의 고유 신앙과 불교가 혼합되어 토착화된 이후에는 밀교가 전해지며 티베트 불교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후에 티베트 뿐만 아니라 북인도, 몽골 및 중국 일부 지방에서 이 티베트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일부 투르크계 국가에도 전해졌다.

몽골에서는 밀교가 성행하고 있었으나, 쿠빌라이 칸(Kublai Khan, 재위: 1260년~1294년) 시대에 티베트 불교의 영향력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오고타이 칸(Ögedei Khan, 재위: 1229년~1241년)의 1269년 티베트 원정으로 티베트 불교는 확고하게 몽골에 자리 잡게 되었다. 몽골의 침략으로 몽골과 합병된 위구르인들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불교를 믿고 있던 위구르인들도 이런 경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갔다.

몽골에서 한때 티베트 불교의 영향력은 감소했으나, 16세기 이후 알탄 칸(Altan Khan, 재위: 1507년~1583년) 시대에 티베트의 동쪽 지역까지 이뤄졌던 원정은 몽골인들 사이에서 불교가 다시 성행하게 되었고, 몽골인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거나 그들과 함께 살았던 일부 투르크 부족들도 티베트 불교를 믿게 되었다.

투르크인 대부분이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 불교의 영향력은 거의 사라졌음에도, 현재까지도 투바인 중 다수가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으며 사라족, 호탄 투르크인, 위구족과 같은 일부 투르크계 민족 중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는 인구가 존재한다.

특히, 투바의 경우 과거 중국의 영역이었던 당시, 몽골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티베트 불교를



투바의 테첸링(Tsechenling) 불교 사원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전하기도 했다. 티베트 불교 중 겐룩파의 영향하에 있으며, 티베트 불교는 투바의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텡그리즘이라고 불리는 투르크 전통 종교와 샤머니즘이 티베트 불교와 공존하고 있다. 1992년 달라이 라마가 투바 공화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2016년도 조사에 따르면 투바 공화국 인구의 약 52%가 불교를 믿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티베트 불교, 티벳 불교
- 다국어 표기 Тывада Буддизм(투바어), тибет бурканчылыгы(키르기스어), Tibet Budizmi(튀르키예어), Tibet buddizm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텡그리즘, 투바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사전, 티베트 불교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086598&cid=40942&categoryId=31572>
https://www.znak.com/2016-03-24/na_tyumenskom_severe_kazhdyy_desyatyy_gotov_vzyat_v_ruki_oruzhie

● 참고문헌(오프라인) Güngör, Harun. “Eski Türklerde Din ve Düşünce”. *Türkler*Cilt 3.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2002. pp.463~544.

Holland, Edward C. “Buddhism in Russia: challenges and choices in the post-Soviet period”. *Religion State and Society* 42(4) October 2014. pp.389~402.

Zhukovskaia, N.L. “Lamaism in Tuva”. *Anthropology & archeology of Eurasia*vol. 39, no. 4 (Spring 2001). 2001. pp.48~49.

I H145 I 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상징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Tyn

틴은 시베리아의 투르크계 민족(알타이인 등)의 전통 신앙(샤머니즘)에서 인간의 영혼을 정의하는 여섯 개념 중 하나로 정신, 마음의 뜻과 비슷하다. 베르비츠키는 틴을 영혼, 마음으로 이해했지만, 알타이어로는 틴(Тын)은 ‘나는 호흡한다’라는 뜻의 동사 ‘티니프(тынып)’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아 틴은 ‘살아 숨쉬는 인간의 정신’이나 ‘숨’이란 의미를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알타이인은 틴이 끊어질 때 모든 성분이 나누어지고, 사람이 죽을 때 틴이 끊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보았다. 상대를 비방할 때 ‘티닌 티르스 에트신(Тынын тырс этсін)’라고 말하는데, 이는 ‘네 틴이 끊어지는 소리를 내주겠다’를 의미한다. 타타르인들은 틴이 인간이나 동물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틴은 삶의 기원을 확인해 주며, 삶의 전 기간 동안 인간과 함께한다. 죽음을 맞이하면 틴은 사라진다. 이때 틴은 망자의 마지막 호흡과 함께 천상으로 올라간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틴

● 다국어 표기 Ты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쿠트, 슈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Гл.ред. Е.М. Мелетинский.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г.- 672, 1990.

Вербицкий, В.И. «Алтайские инородцы: сборник», Рипол Классик. 77, 1881.

Безертинов, Р. Н. “Встреча с Душой,”. Тенгрианство и эпическое наследие народов Евразии: истоки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109, 2017.

I H146 | 티라커리 마드라사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마드라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ilya-Kori Madrasa

티라커리 마드라사(Tilya-Kori Madrasa. 우즈베크어: Tillakori madrasasi)는 세르더르 마드라사와 동일한 후원자의 후원으로 1646년~1660년에 건설되었다. 초창기 마드라사의 일부는 티무르의 아내였던 토크만-아가(Touman Agha)에 의해 건설된 대상 숙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티라커리 마드라사는 건설 직후에는 마드라사의 역할을 했으나, 비비하눔 모스크(Bibi Khanum Mosque)의 붕괴와 알리케 쿠켈타쉬 모스크(Alikeh Kukeltash Mosque)의 해체로 모스크로 사용되었다.

티라커리 마드라사는 레기스탄 광장에서 가장 큰 건물이다. 모스크의 금박된 돔에서 ‘금으로 덮인(Tilla kori)’이라는 이름을 따 온 것으로 보인다. 티라커리 모스크의 전면부는 120m 정도로 광장 북쪽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주요 돔도 광장의 대칭축에서 벗어나 있다. 겉면은 다색 타일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다. 전면부의 입구 양쪽에는 4개의 아치형 벽감이 각 2층씩 존재한다.

마드라사에는 작은 정사각형 내원과 이보다 더 큰 내부가 존재하는데, 이는 이 지역의 마드라사 스타일과는 차이가 있다. 5각형의 전면부 벽감과 작은 원통형의 큐폴라로 덮인 코너 첨탑이 있는 이 마드라사는 16세기~17세기 부하라의 마드라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사각



틸라커리 마드라사 전면부

형의 중정을 둘러싼 삼면은 학생들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물 전면부 중앙에는 커다란 피슈타크가 있는 이완이 있으며, 서쪽 면의 이완은 모스크와 연결되어 있다.

모스크는 가장 큰 돔 아래 중앙 방에 있고, 이는 아치와 돔이 있는 갤러리와 연결되어 있다. 돔은 4단계로 상승한다. 높은 직사각형 주각이 기도실 위에 있고, 마드라사 벽을 따라 올라간다. 그 후, 두 개의 테라스가 있는 팔각형이 원통형 돔을 지지한다. 돔의 푸른색은 드럼의 다색 서체 장식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내부 공간은 평천장이지만, 무카르나스로 지지되는 블라인드 아치의 존재로 마치 돔처럼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다.

중앙 방은 양각의 금박 문양, 유약을 바른 타일 모자이크의 인레이 장식, 스투코로 틈새를 메우는 장식이 되어 있다. 금색과 푸른색이 내부 장식의 주를 이루고 있다. 대리석 미흐랍의 다양한 색상과 금박 문양은 트란스옥시아나 지역 장인의 솜씨로 보인다.



틸라커리 마드라사 전경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툴라커리 마드라사, 툴라코리 마드라사, 툴야코리 마드라사
- 다국어 표기 Tilla-Kari Medresesi(튀르키예어), Tillakori madrasasi(우즈베크어), Tilla-Kari mədrəsəs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울루그 베그 마드라사, 세르 더르 마드라사, 레기스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chnet.org/sites/2148>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Cumhuriyetleri Mimarlık Abideleri*. Ankara:Türk Kültür ve Sanatları Ortak Yönetimi Yayınları. 1996.
Г.А. Пугаченкова, Л.И. Ремпель. *История искусств Узбекистана*, Moscow:Искусство. 1965.
Ramazanoğlu, Gözde. *Orta Asya'da Türk Mimarisi*, Ankara:T.C. Kültür Bakanlığı. 1998.

I H147 | 툸라 테페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아프카니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Tillya-Tepe

현재 아프카니스탄 지역에 위치한 툸라-테페 유적은 박트리아 왕국이 멸망한 후 쿠산 왕조가 세워지기 직전에 조성된 무덤 유적이다. 1979년부터 소련과 아프카니스탄 공동 발굴단이 조사했는데, 사리아디니가 조사 책임자였다.

무덤은 툸라-테페(황금 언덕)라고 불리는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무덤이 들어서기 1,000년 전에 축조된 조로아스터교의 사원지터에 축조되었다. 사원지가 축조된 후 B.C. 6세기~ B.C. 4세기경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에서 성벽을 한 겹 더 쌓았으나 B.C. 4세기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곳에 무덤이 들어선 것은 무덤에서 발견된 동전의 연대로 보아서 B.C. 1세기 초로 추정된다.

툸라-테페 유적에서는 총 6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목관묘 유적으로 피장자는 남성 1인과 여성 5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여기서 약 2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무덤의 시기나 출토품의 성격으로 판단하면 무덤의 주인공들은 파르티아의 족장과 그의 아내였을 수도 있다. 혹은 쿠산 왕조 발흥을 전후한 시기의 족장의 무덤 혹은 중국에서 옮겨 온 사르마트 계통에 가까운 대월지의 계급 세력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남성 무덤인 4호 무덤에서 출토된 단검이 사르마트 문화 계통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단검에 터키석 등을 상감하고 화려한 황금을 사용한 것은 스키토-시베리아 문화권 혹은 그 이후의 사르마트 문화 계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유적을 발굴한 사리아디니의 주장이다.

여성 무덤 6호에서 출토된 관은 사르마트 문화의 유적인 호흘라치, 코비야코프스키 무덤과 비교되면서 북방 유목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쿠산 왕조 특징의 여성 형상물이 황금으로 제작되어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재지적(在地的)인 특징도 있다. 무덤에서는 돌고래를 맨 남성 장식판, 아테나 여신 음각 인장이 달린 반지, 돌고래에 올라탄 큐피드의 문양 잠금쇠, 아프로디테의 장식판 등 헬레니즘 예술의 흔적도 발견되었다. 또 로



틸라 테페에서 출토된 아테나 인장 음각 반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금화(A.D. 14년~A.D. 37년), 알사케스조 파르티아의 오로데스 2세(B.C. 57년~38년)의 은화, 프라테스 4세(BC38~2년)의 은화 등이 발견되었고, 이는 유적의 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래서 틸랴 테페 유적에서는 북방 유목 민족의 특징, 재지적인 특징,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 등이 보여서 박트리아 멸망 이후 박트리아 지역의 여러 외교 관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틸라 테페
- 다국어 표기 Тилля-Тене(러시아어), Tillatepa(우즈베크어), Тилля-тене(카자흐어), Tilya-tepe(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В.И. Сарияниди Афганистан. сокровища безымянных царей. // М.: ГРВЛ. 160 с. 1983.
 Сарияниди В.И. Храм и некрополь Тиллятепе. М. 240 с. 1989.

I H148 | 파르가니(이슬람 황금시대)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라크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시대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Al-Farghani (Islamic Golden Age)

소위 이슬람의 황금 시대(아랍어: العصر الذهبي للإسلام, 페르시아어: دوران طلایی اسلام, 영어: Islamic Golden Age)에는 파르가니를 비롯하여 이스마일 알자자리(Ismail al-Jazari), 비루니(al-Biruni), 이븐 시나(Ibn Sina)와 같이 과학, 철학, 의학, 공학 전문가 등이 탄생한, 다양한 학문이 발달한 시기였다. 이 시대는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을 기초로 하여 그리스·로마의 고전 문화나, 페르시아·인도의 여러 문화를 받아들여 성립된 일대 종합 문화이며, 중세 및 르네상스의 서구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그 역사적인 의의는 매우 크다.

무함마드의 사후 『코란』의 해석을 통해 법학이나 신학이 성립되었지만, 우마이야 왕조 때부터 외래 학문의 이식이 시작되고, 압바스조 시대가 되면서 그리스어 문헌 번역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철학·수학·과학의 연구가 발달했다. 특히 제7대 칼리프인 마문(al-Ma'mūn, 재위: 813년~833년)이 바그다드에 '지혜의 집'을 세우고, 그리스어 문헌의 수집 및 번역을 장려하게 되자 절정에 이르렀다. 이들 문화 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아랍인보다도 오히려 피정복민이었으며, 특히 페르시아인의 역할이 컸다. 이슬람 문화의 전성기는 9세기부터 11세기까지이며, 12세기에는 쇠퇴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도나 그리스의 천문학 서적 번역으로부터 시작되어 마문의 장려 아래 본격화되었다. 마문이 바그다드에 천문대를 만들고 관측을 하게 하면서부터 천문학 연구는 급속히 발전했으며, 일식의 관측, 경도와 위도의 계산, 또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표(天文表) 정정 등도 행하여졌다. 또 아스트롤라베(astrolabe)와 같은 우수한 천문 관측 기구가 발명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9세기로부터 10세기에 걸쳐 파르가니, 바타니 등의 대천문학자가 배출되었다.

특히 파르가니(805년~870년)는 라틴어 이름으로는 알프라가누스(Alfraganus)로 알려진 천문학자이다. 압 '지혜의 집'의 천문학자 중 한 명이며 칼리프 무타와킬(al-Mutawakkil)의 명으로 푸스타트(al-Fus-tāt)에서 나일강의 대수위계(大水位計, al-Miqyās al-Kabīr)를 건설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자와미그 일름 알 누줌 와 알 하라카트 알 사마위야(Jawāmiğ

‘Ilm al-Nujūm wa al-Ḥarakāt al-Samāwiya, ‘별의 학문과 천체 운동의 요소’), 『알 카밀 피 알 아스투를랍(al-Kāmil fi al-Aṣṭurlāb, ‘천측구에 대한 완전한 책’)』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이슬람 황금기, 이슬람의 황금시대
- 다국어 표기 Fergānī-İslam’ın Altın Çağı(튀르키예어), Əl-Fərqani-İslamın qızıl dövrü(아제르바이잔어), al-Farg’oniy-İslom oltin davr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아흐마트 알 파르거니이, 비루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nYFHhwe3sZo>
- 참고문헌(오프라인) El-Fergānī. *The Elements of Astronomy, textual analysis, translation into Turkish*. critical edition & facsimile by Yavuz Unat, edited by Şinasi Tekin & Gönül Alpay Tekin. Harvard University. 1998. Yavuz Unat, El-Fergānī. *Cevami’ilm en-Nu’ûm ve Usûl el-Harekât es-Semâviyye*. Astronominin Özeti ve Göğün Hareketlerinin Esası, T.C.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Bilimin ve Felsefenin Doğulu Öncüleri Dizisi 14. Ankara. 2012.

I H149 | 파르다 투르순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Parda Tursun

파르다 투르순(Parda Tursun)은 소비에트 시대의 우즈베크 문학가이다. 파르다 투르순(Parda Tursun)은 필명이고 본명은 투르수너브 파르다(Tursunov Parda)이다. 그는 1909년에 나망간(Namagan) 주 퍼프(Pop) 지역의 처르케사르 마할라(Chorkesar mahalla)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일찍 여읜 파르다 투르순(Parda Tursun)은 1918년에 고향을 떠난다.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일을 하지만, 지식에 대한 갈증은 칼마르크스 사범학교에 진학하도록 만든다. 1928년 졸업 후 그는 1930년대 초반에 타슈켄트 주 피스켄트(Piskent) 지역에 위치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한다. 그의 문학에 대한 관심은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되었고, 그는 <붉은 우즈베키스탄(Qizil O’zbekiston)>, <우즈베키스탄의 목소리(O’zbekiston ovozi)> 신문사 편집부에서 일하게 된다. 1929년부터 1934년까지 그는 이 신문에 자신의 기사문, 에세

이 및 단편들을 게재한다. 1930년에는 그의 첫 번째 작품인 『수려함(Zo'rluk)』이 발표된다.

1934년~1935년에는 『아스타나에서(Ostonada)』, 『콜도쉬와 마류샤(Qo'ldosh va Marusya)』 및 『한 여성의 이야기(Bir xotinning tarixi)』을 포함한 여러 단편소설을 출판한다. 특히, 『선생님(Domla, 1937)』은 작가가 평생 동안 저술한 모든 소설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만큼 작가에게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파르다 투르순(Parda Tursun)은 동시대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많은 단편소설과 수십 개의 에세이를 집필했다. 대표작으로는 『아버지는 의장이다(Dadajon rais, 1932)』, 『새로운 의장들(Yangi raislar, 1933)』, 『회의에서(Majlisda, 1934)』, 『즐거운 인생(Quvnoq hayot, 1935)』, 『여름목장(Yaylovda, 1935)』, 『트랙터 운전기사(Traktorchi, 1935)』 등이 있다. 작가는 단편소설에서처럼 우즈베크 지식인의 삶 및 투쟁 정신을 그의 에세이에 투영시켰다.

그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몇 년동안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교사와 편집자로 일한다. 1947년에는 우즈베크 지식인의 어렵고 고된 삶을 그린 『바른 길(Haq yo'l)』이 출판되며, 이후 『교사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즈베크어 및 러시아어로 재출판된다.

파르다 투르순(Parda Tursun)은 기자, 교사, 출판가, 사회평론가, 수필가, 소설가 그리고 번역가로 다채로운 활동을 했으며, 1957년에 세상을 떠났다.



파르다 투르순
Source: <https://ziyouz.uz/>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파르데 투르순
- 다국어 표기 Parda Tursun(우즈베크어), Парда Турсу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마할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I H150 | 파르티아 왕국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Parthian Kingdom

파르티아 왕국은 이란과 오늘날의 아르메니아를 비롯한 이라크, 조지아, 튀르키예 동부, 시리아 동부,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파키스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페르시아만 해안 지역,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까지 그 세력권을 두고 있었다. 파르티아는 고대 이란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주요 이란계 정치적 문화적 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기원전 3세기 중반에 파르니 족장 아르사케스가 이란 동북부 파르티아 지방에서부터 셀레우코스 왕조에 반기를 들어 건국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후손을 자처했으며 미트리다테스 1세의 치세 때는 셀레우코스 왕조를 공격하여 메디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수복하면서 영토를 급격히 확장했다. 서기 2세기 후반 전성기의 파르티아 제국은 남으로는 유프라테스강 북안, 북으로는 현재의 튀르키예 동남부, 동으로는 현재의 이란 동부예까지 걸쳐 있었다. 이 제국은 로마의 서양과 동양을 잇는 비단길 무역로 한복판에 위치해 있었으며, 교역과 상업의 중심지로 번창했다.

파르티아 왕국은 450년에 걸친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아 그 제왕들의 이름과 중요 사항은 적국인 로마 제국 사학자들의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표기가 대체로 라틴어로 되어 있다. 파르티아 왕국의 건축술은 티그리스강을 사이에 두고 자란 쌍



파르티아 왕국의 은화



파르티아 하트라에 위치한 사원 상인방 장식
Source: <https://images.metmuseum.org/CRDImages/>

둥이 도시였던 크테시폰과 셀루키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건축 양식은 그리스 양식을 점차 멀리하는 것이었고, 이슬람 건축의 특징과도 구별되는 것이었다. 세 면이 벽이고 한 면이 트인 커다란 홀(iwan)은 파르티아 건축의 대표적 양식이다.

사막의 도시 하트라(Hatra)는 파르티아 도시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준다. 이 도시는 군사 요새로, 그 성벽이 가장 인상적이다. 한편 기원전 1세기 후반에 그리스 지리학자 이시도로스(Isidoros)가 저술한 『파르티아 도정기』는 파르티아(安息(安息)) 관련 서적으로 파르티아 왕국 내의 교통 상황을 기술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파르티아 왕조, 파르티아 제국

● 다국어 표기 安息(중국어), Parthian Kingdom(영어)

● 연관 검색어 셀레우코스 왕조, 투르크메니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PjrSeE2jPz4>

● 참고문헌(오프라인) Brosius, Maria. *The Persians: An Introduction*.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06.

Hill, John E. *The Peoples of the West from the Weilue 魏略 by Yu Huan 魚豢: A Third Century Chinese Account Composed between AD 239 and 265*. Draft annotated English translation. 2004.

Sheldon, Rose Mary. *Rome's Wars in Parthia: Blood in the Sand*. London & Portland: Valentine Mitchell. 2010.

I H151 | 파묵칼레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Pamukkale

튀르키예 남부 데니즐리 주에 있는 고대 도시 유적이다. 파묵은 튀르키예어로 목화를 뜻하고 칼레는 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파묵칼레는 목화의 성이라는 뜻이다. 이곳에 가면 석회석들이 정말 활짝 핀 목화꽃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다.

칼슘이 풍부한 온천수가 흘러내리면서 석회석을 녹여 낮은 웅덩이를 만들고, 이 물웅덩이에 물이 넘치면 다시 그 아래에 또 다른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이런 과정이 자그마치 14,000년이나 계속되어 돌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장관을 이룬 이곳은 이 세상의 풍경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물웅덩이 가장자리에는 종유석이 만든 돌고르름이 매달려 있어 신비함을 더한다.

파묵칼레의 온천수는 그 온도가 체온과 비슷해 목욕하기에 알맞고 신경통과 피부병을 비롯한



파묵칼레 온천

각종 질병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고대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한다. 이 지역에 언제부터 도시가 들어섰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헤로도토스가 남긴 역사서에 따르면 이곳과 가까운 곳에 키드라라(Kydrara)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 파묵칼레에 남아 있는 페허의 도시 히에라폴리스(Hierapolis)는 기원전 190년경에 페르가몬 왕국의 에우메네스 2세가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기독교사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빌립보가 순교한 곳이고 근처에 골로세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히에라폴리스

● 다국어 표기 Hierapolis(영어), Pamukkale(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재원, 『터키, 1만년의 시간 여행 01』, 책문, 2010.

Scheffel, Richard L.; Wernet, Susan J., eds. *Natural Wonders of the World. United States of America: Reader's Digest Association, Inc.* 1980.

I H152 | 파이버드 허나커히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건축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Fayzobod xonaqohi

파이버드 허나커히는 1598년~1599년, 부하라 칸국 압둘라 칸 2세(Abdullaxon II, 재위: 1583년~1598년) 시대에 부하라에 건설된 모스크 겸 수피 수도승들이 머물 수 있는 카나카(우즈베크어로는 허나커흐(xonaqoh))이다. 전체 면적은 35mx28.8m이며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면에 위치한 피슈타크는 푸른색과 노란색 타일이 흰색 선으로 분할된 형식의 기하학 장식과 서예 장식으로 꾸며져 있으며, 양옆으로는 2층 방과 아치형 방이 있다. 방 내부는 간치 카빙(Ganch Carving 또는 간치커르릭 Ganchkorlik)이라고 불리는 석고 장식으로 꾸며져 있다.

건물 중앙에는 아치형 갤러리로 삼면이 둘러싸인 카나카가 있다. 이 카나카의 면적은 12.7mx12.7m이며 대형 돔으로 덮여 있다. 카나카의 돔은 팔각형 기단 위에 올려져 있다. 카나



파이버드 허나커히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카 내부도 회색과 노란색의 간치 카빙 기술을 이용하여 기하학 문양 위주로 장식되었다. 돔과 벽면을 연결하는 부분은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었다.

이 건물은 폐허인 채로 발견되었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쳐 재건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파이즈보드 카나카, 파이자바드 카나카
- 다국어 표기 Fayzobod xonaqohi(우즈베크어), Fayzabad khanaqah(영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칸국, 압둘라 칸 2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ФАЙЗОБОД ХОНАҚОҲИ”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Ф ҲАРФИ. Tashkent; Давлат илмий нашриёти. 2000. p.15.
Petruccioli, Attilio. “Bukhara and Samarkand”. *The City in the Islamic World*, Volume 94/1 & 94/2 (ed.Salma K. Jayyusi, Renata Holod, Attilio Petruccioli, Andre Raymond), Leiden, Boston: Brill. 2008. pp.491~524.

I H153 | 파즈룰라 한 사전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남아시아 ● 나라 인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Fazlullah Han Sözlüğü

차가타이 시기에 집필된 서적들은 역사 연구와 함께 투르크 언어학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서적들은 대부분 당대 최고의 문학자 알리셰르 나버이이를 이해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또한 문화적으로 교류가 많았던 페르시아와의 관계에 있어서, 페르시아인들에게 차가타이 투르크어를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작품들도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파즈룰라 한 사전』이다.

이 작품은 17세기 초, 바부르 조 아브렌기집의 요청으로 인해 파즈룰라 한에 의해서 인도에서 집필되었다. 1825년 캘커타에서 뫼니쉬 아브라힘에 의해서 출판되었기 때문에 파즈룰라 한 사전이라는 이름 대신 ‘캘커타 뫼가트’라는 이름으로도 익숙하게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차가타이 투르크어 및 페르시아어 사전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일부 힌디어 표제어들도 발견된다. 이 사전은 서론을 포함하여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장에는 동사, 두 번째 장에는 명사, 세 번째 장에는 숫자, 동물, 식물, 투르크 부족 및 타 부족들의 이름과 함께 군사 용어들이 나열된다.

파즈룰라 한 사전의 필사본은 현재 영국의 대영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파즈룰라 한 뫼가티, 파즈룰라 한 뫼가트, 캘커타 뫼가트, 캘커타 사전
- 다국어 표기 Fazlullah Han Sözlüğü(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차가타이 투르크어, 바부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turkcenindirilisi.com/akademik/cagatay-turkcesi-sozlukleri-fazlullah-han-lgati-h99046.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Caferoğlu, Ahmet. Türk Dili Tarihi, İstanbul, 1974.

I H154 | 파지리크 문화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Pazyryk culture

파지리크 문화는 알타이에 위치한 초기 철기 시대 문화로서 스키토 시베리아 문화권의 지역 문화이다. B.C. 6세기~B.C. 4세기까지 알타이의 파지리크 유적, 바샤다르 유적, 투엑타 유적 등에서 발굴된 특징적인 문화를 일컫는다. 깊은 구덩이 안에 목관과 목곽을 설치하고 그 위를 둘러싼 구조의 무덤과 그곳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근거로 해서 파지리크 문화라고 했다. 이를 밝혀낸 것은 당시에는 레닌그라드(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고고학자인 그랴즈노프와 루덴코이다.

파지리크 문화의 무덤은 깊은 구덩이 아래에 영구 결빙층이 발견되는 현상이 있는데, 자연적



파지리크 출토 마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석기시대 파지리크 문화의 암각화

현상과 무덤의 구조적 특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파지리크 문화의 봉분은 지름이 24m~50m에 달하는데 이를 이루는 것은 여러 가지 크기의 돌이고, 이 돌은 영구 결빙층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무덤이 만들어진 뒤에 첫 번째 겨울에 돌무지와 무덤방은 충분히 냉각되고 다시 여름이 되어도 얼음이 녹는 것을 막는 역할을 봉분의 돌이 한다. 이러한 과정이 여러 번 거치면서 여름에도 무덤 속은 영하로 유지되고 무덤방 아래에 렌즈 모양의 결빙층이 형성된다. 이 얼음층은 무덤 속의 유기 물질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파지리크 문화에서는 시신을 미라 처리해서 무덤에 안치하는데, 파지리크 유적 2호, 5호, 바샤다르 유적, 투엑타 유적, 아크 알라하 3유적, 베르흐 칼진 II유적의 3호 유적 등에서 발견되었다.

파지리크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은 무기, 마구, 동물 문양 장식이다. 특히 마구 중에서 굴레를 장식했던 굴레 장식은 나무로 깎은 조각품을 금박으로 싸서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주로 그리핀, 맹수, 굽 동물 등이 그 대상이다. 마구는 말에 장식된 채 발견되었는데, 무덤 구덩이 안에는 장식된 말을 매장했다. 파지리크 문화는 러시아 알타이뿐만 아니라 몽골 알타이에서도 발견되고 흉노의 문화와 일정 정도 일치해서 흉노 문화를 이루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적 가운데는 파지리크 문화뿐만 아니라 흉노 시기까지 무덤으로 사용된 경우가 발견되는데, 대표적인 유적이 파지리크 유적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파지리크 문화

● 다국어 표기 Пазрыская культура(러시아어), Pazyryk culture(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Руденко С.И. (1953).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Горного Алтая в скифское время. М.-Л. 402 с.

Руденко С.И. (1960).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Алтая в скифское время. М.-Л. 360.

김재윤. 『교과서 밖의 역사: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라와 여신상』. 2021.

I H155 | 파지리크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Pazyryk

파지리크 유적은 알타이 동부의 추리시만강을 끼고 있는 계곡에 위치한다. 이곳은 카툰강 유역에 형성된 산악 초원 지대로 해발 1,400m 가량이었던 곳이다. 유적은 그라즈노프와 루덴코에 의해서 1929년(1호)부터 발굴되었는데, 1947년~1949년에 대부분 발굴되었다.

파지리크 유적에는 모두 14기의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서 5기는 대형 무덤이고 그 주변에 소형 무덤이 위치한다. 1호~5호는 철기 시대 파지리크 문화의 무덤(기원전 5세기)이고 6호(기원전 4세기)는 흉노 시대의 무덤이다. 파지리크 유적은 지름이 24m~50m에 달하는 봉분 아래의 깊은 구덩이(4m~6m) 속에 나무 방과 목관을 설치하고 그 위에 다양한 크기의 돌을 쌓은 구조이다. 무덤은 주로 봄 혹은 가을에 축조되는데, 특히 봄에 만든 무덤은 여름에 생긴 지표면의 열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혹은 가을에 만든 무덤도 다음 해 여름을 지나면서 생기는 열기를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파지리크 무덤 아래에는 거대한 얼음층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서 알타이의 유물은 유기질 제품도 잘 보존될 수 있었다. 이를 동토층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무덤의 구조와 현상은 철기 시대 무덤뿐만 아니라 흉노 시대 무덤에서도 발견되었다.

헤로도투스가 기록에 남긴 흑해 연안의 스키타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 및 사회 발전 단계가 알타이 무덤에서 발견된다. 왕이 치르는 장면에 기록된 미라(2호와 5호)와 증기를 쐬우는 장면에 나오는 천막과 대마 씨앗이 가득 찬 청동 솥이 파지리크 5호분에서 실제로 확인되었다. 5호분에서는 뚜껑이 있는 전차가 분해된 채 발견되었다. 무덤에는 무덤 구덩이와 나무 방 사이에 다섯 마리에서 스물 두 마리까지 부장되었는데, 재갈과 재갈멈치뿐만 아니라 굴레 장식 및 마면 등이 화려하게 장식되었다. 그중에서 굴레장식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그 위를 얇은 금으로 싸서 만든 유물인데, 동물을 표현했다. 이뿐만 아니라 펠트와 가죽으로 만든 유물도 많이 출토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안장 덮개이다. 단순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펠트와 가죽 조각을 덧붙여서 동물의 근육과 갈비뼈를 표현했다. 이러한 기법을 루덴코와 그라즈노프는 이란과 아케메니드 중앙아시아 장인이 제작한 금속 상감 기법을 차용한 것으로 보았다. 이 기법은 파지리크 유적



파지리크 무덤 유적(시베리아, 러시아)

뿐만 아니라 흉노의 무덤인 노용 올 유적의 카페트에서도 확인되어서 중요한 유물로 여겨진다.

파지리크 6호분에서는 중국 한경이 발견되어서 흉노 시대에는 알타이 지역도 중국과 교류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은 기원전 5세기~4세기인 철기 시대부터 흉노 시대까지 이용되었고, 파지리크 문화의 특징이 흉노 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흉노의 기원과 관련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파지릭 유적

● 다국어 표기 Пазыры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파지리크 문화

● 참고문헌(오프라인) Грязнов М.П. Первый Пазырыкский курган. Ленинград, 1950.

Руденко С.И. Культура населения Горного Алтая в скифское время. М.-Л. 402 с. 1953.

김재윤.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라와 여신상: 교과서 밖의 역사』, 2021.

I H156 | 파지리크 카펫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예 ● 유형 소분류2 카펫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Pazyryk carpet

파지리크 카펫은 알타이 지역 파지리크 고분군 중 5호분에서 출토된 카펫을 지칭하는 말로, 다양한 문양과 높은 퀄리티를 자랑한다. 본 카펫과 관련한 보고서는 1963년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카펫의 크기는 1.89mx2m 크기로 매우 가느다란 양모로 되어 있으며 10제곱센티미터에 36,000개의 괴르데스 매듭(Gördes düğümü) 또는 투르크 매듭(Türk düğümü)이라고도 하는 투르크 특유의 매듭 방식이 나타난다.

이 매듭 방식은 실을 두 날실 주변을 두르고 날실 사이로 끼집어내 매듭을 엮고 끊어 내는 방식이다. 카펫에는 말을 탄 사람이 있는 넓은 가장자리와 사슴 문양이 있는 두 번째로 넓은 가장자리 면, 그리폰이 있는 바깥과 안쪽의 좁은 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탕에 있는 24개의 정사각형은 십자형의 꽃 문양과 함께 붉은 바탕에 흰색, 노란색, 푸른색이 주로 쓰인 체스판과 유사한 형태이다.

루덴코(Руденко С.И)는 쿠르간 출토 유물을 비롯하여 이 카펫은 스키타이인의 것이며, 기원전 5세기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리스만(Ghirsman)과 부사글리(Bussagli)는 B.C. 4세기~B.C. 3세기에 제작되었다고 말했다. 모나기트(Monagit)는 기원전 3세기와 기원 원년 사이에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크 니센(Johanna Zick-Nissen)는 이 카펫의 예술적 특징이 북서 이란을 가리키고 있다면서, 기원전 5세기에 수사와 프리기아 사이의 어느 곳에서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압뮐카디르 이난(Abdülkadir İnan), 바하엠티딘 외겔(Bahaeddin Ögel), 마리오 부사글리(Mario Bussagli)와 같은 학자는 시신을 매장하는 전통과 미이라화 된 시신의 종류를 비롯하여 알타이 지역의 역사, 다른 쿠르간 출토 유물과 비교할 때 이 카펫은 훈족이 B.C. 3세기~B.C. 2세기에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펫에 사용된 문양은 고대 아시리아인의 잎사귀 네 장의 연꽃 문양, 아케메네스 제국 페르세폴리스의 조각에서 보이는 옷과 말을 탄 기사 문양, 사슴 문양에서 영향을 받아 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파지리크 카펫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파즈룩 카펫
- 다국어 표기 Pazırık halıs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파지리크 문화, 파지리크 유적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hermitagemuseum.org/wps/wcm/connect/225758d4-9e3f-422a-9608-e678e043c379/WOA_IMAGE_1.jpg?MOD=AJPERES&817377de-a7c6-4a75-a0ec-52d2aec58811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Halı Sanatı*. İstanbul. Yapı ve Kredi Bankası Kültür ve Sanat hizmetleri. 1972.
- Руденко С.И. Пятый Пазырыкский курган. КСИИМК. Вып. XXXVII. М.–Л. 1951. pp.106~116.

I H157 | 파키르 바이쿠르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Fakir Baykurt

바이쿠르트는 소설, 단편소설, 시, 수필, 개인사, 어린이 동화, 구전 이야기, 논평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한 튀르키예 현대문학 작가이다. 특히 그는 도시와 농촌의 문학을 향유하는 커다란 격차를 좁히는 데 일조했다.

그는 1929년 튀르키예 남서부에 있는 도시 부르두르 예실로바 지역 악차코유 마을에 사는 6남매 소작농 가정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파키르 바이쿠르트(Fakir Baykurt)의 본명은 타히르(Tahir)이다. 아버지 벨리는 예멘과 발칸반도에서 14년 동안 군인으로 복무했다. 그의 아버지는 영국에 포로로 잡혀 있던 중 주변에서 터진 폭탄 때문에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된 가난한 아나톨리아 시골 사람이었다. 그런데 1938년 바이쿠르트가 초등학교 3학년 밖에 되지 않았던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건초 더미가 쌓인 수레에서 떨어져 그만 그는 아버지를 잃게 되었다. 당시 말형은 11살이었고, 어머니가 6남매를 보살펴야 했다. 다음은 바이쿠르트가 회고한 내용이다.

“시골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즈미르와 아이든 근교에서 무화과나 올리브 따는 노동일을 열심히 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고 돌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눌러앉기도 했다. 아버지가 일하다 돌아가셨을 때 나는 초등학교 학생이었다. 아이든의 나질리 지역 부르하니예 마을에 정착한 외삼촌이 나를 데려가서 “내가 너 공부시켜 줄게”라고 하셨지만,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다. 나는 외삼촌과 함께 당나귀 한 마리와 도끼 한 자루를 들고 불단 산맥에서 몰래 목재를 나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쉬타틀르 마을에서 수도 공사하는 엔지니어에게 깨끗한 식수를 날랐다. 전쟁이 격렬해지자 외삼촌은 군대로 징집되었고, 나는 모든 일을 혼자 떠맡게 되었다. 그리하여 저 멀리 에르주룸에서 온 시골 출신 노동자들과 함께 어울렸다. 그들과 함께 이와 벼룩을 잡았다. 나는 학교에 갈 수 없었다. 나는 내 또래들이 가지고 다니는 책이 부러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어느 날 물통을 버리고 이 마을에서 도망갈 생각을 했다. 외삼촌은 전쟁터에 있었고, 외숙모는 혼자 계셨다. 도망을 치는 게 괴로웠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

나는 마을에서 학업을 시작했는데 매우 지쳐 있었다. 당시 매년 마을에 있는 소를 길들이기

위해 몰았다. “저는 고아 학교에 들어가 기술자가 될 거예요”라며 열정을 내비쳤었는데 사실 그 방법도, 어떤 일을 할 것인지도 잘 몰랐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으스파르타에 있는 괴넨 마을 학교(Gönen Köy Enstitüsü)에 입학했다. ‘고아 학교’라고 들은 학교는 바로 여기 마을학교였다. 등교 첫날 매우 색다른 학교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시각, 새로운 세상이 내 앞에 펼쳐졌다. (...)

1948년에는 나는 마을학교 교사가 되었다. 예실로바에 있는 카바죽 데레 마을에서 5년 동안 근무했다. 여기서 보낸 5년 동안 나는 쉬지 않고 배움에 정진했다. 카바죽 데레 마을에서 나의 대학 시절을 보냈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후 앙카라 가지교육대학원에 입학했고, 시바스와 하피크에서 튀르키예어 교사로 재직했다. 코니아 초급장교 준비학교(Konya Assubay Hazırlama Okulu)에서 튀르키예어 교사로 근무를 했다. 이후 튀르키예 북동부에 위치한 아르티빈의 사브샤프트 지역에 배정받아 교직 생활을 하는데, 그리 순탄치 않았다. 첫 소설 『뱀의 복수(Yılanların Öcü)』와 신문 <중후리에트(Cumhuriyet)>에 기고한 글 때문에 교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정부는 나를 사무직 근무로 직무를 변경해 앙카라로 불러들였다. ‘비효율적’인 업무이긴 했지만, 이것 또한 오래 가지 못하고 1959년 본부로 소환되어 대기 발령을 명 받았다.

실직한 후 궁핍한 생활을 이어 나가면서 나는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맛보았다. 나는 간신히 1960년 5월 27일이 되어서야 복직할 수 있었다. 이후 꽤 긴 시간 동안 앙카라 참르레데, 칼레직, 술락유르트, 날르한, 발라, 추북 지역에서 초등학교 감사를 맡았다. 덕분에 동네 구석구석을 알게 되었고 이때의 경험은 유용하게 활용되었는데, 소설과 이야기를 구상할 때 이 시절 기억을 기반으로 쓰기도 했다. 작품 『미국 봉대(Amerikan Sargısı)』, 『거북이(Kaplumbağalar)』, 『낮(Tırpan)』을 예로 들 수 있다.”

파키르 바이쿠르트스는 1960년에 교육부가 주관한 ‘시청각 교육(Audio Visual Education)’이라는 해외 프로젝트에서 미국 파견자를 선발하는 시험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최종 선발에서 탈락하자 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했다. 결국 1962년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파키르 바이쿠르트스는 1965년 튀르키예 교사 연합회(TÖS) 의장이 되었다. 이후 국립민속원(Millî Folklor Enstitüsü)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1969년에는 가지안텝의 으스라히예 지역에 있는 페브지파샤 중학교에서 근무했다. 1970년에는 중동공과대학교 홍보출판부, 1977년

에는 스웨덴에서 개최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1978년에는 튀르키예 문화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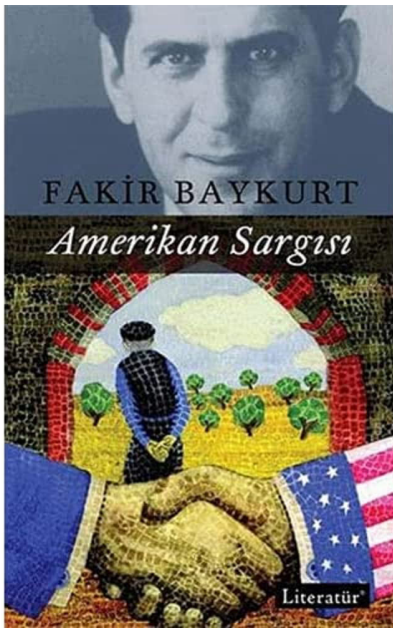
파키르 바이쿠르트는 1950년대에 문학에 입문했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장애를 뛰어넘고 대중을 일깨우는 것”이다. “예술가는 뒤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끌어야 한다. 최전선에는 개혁을 꿈꾸는 혁신가가 있어야 한다. 소설과 이야기는 독자들의 삶을 계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도전하려는 태도를 이끌어 내야 한다. 예술 작품과 유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더 강력한 모험가가 되어야 하고, 이뤄야 한다. 무뎠다면 날렵해져야 한다. 어둡다면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어야 한다.” 그의 예술관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말이다.

1962년 처음으로 영화로 만든 「뱀의 복수(Yılanların Öcü)」는 개봉할 때 큰 주목을 받았는데, 강력하게 반발하는 집단도 있었다. 이 작품은 2014년에는 49부작 TV 드라마로 제작되었다.

1979년 바이쿠르트는 독일 이민자 중 공업 노동자의 삶을 그리려고 했다. 이 작품의 사전 준비를 위해 독일에서 1년 정도 지냈을 때 튀르키예에서 1980년 9월 12일 군사 정변이 일어났다.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민주주의 채널이 차단되었다. 말과 글의 자유는 크게 제한되었다. 그의 작업은 독일에서 계속되었다. 새로운 소설과 이야기를 쓰면서 독일 교육부에서 외국인 아동 교육에 대해 조언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튀르키예와 다른 나라 국적 어린이들이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평화의 깎지(Barış Çöreği, 1982)』는 독일에 거주하는 이민자 어린이들의 눈으로 이야기를 썼다. 『야간 교대(Gece Vardiyası, 1982)』라는 이야기 책은 튀르키예 노동자들이 처한 고된 노동 환경을 다루었다. 여기 담긴 이야기는 바이쿠르트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거나 튀르키예 노동자들에게 들은 내용으로 구성했다. 1985년에 독일산업협회(BDI)가 작품 『야간 교대(Gece Vardiyası)』를 쓴 바이쿠르트에게 글쓰기 표창장을 수여했다. 소설 『용광로(Yüksek Fırınlar, 1983)』는 같은 문화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다루었다. 1986년에 출판된 『뒤스부르크 기차(Duisburg Treni)』는 1979년에서 1985년까지 독일에 머물면서 쓴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뒤스부르크 3부작 시리즈 중 두 번째 책인 『남편 렌(Koca Ren, 1986)』은 뒤스부르크에서 튀르키예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소설을 썼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의 모습을 잘 부각한 바이쿠르트는 면밀한 관찰과 증명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가 직면하는 문제점을 짚었다.

그가 처음으로 펴낸 책은 11개 이야기로 구성된 『주근깨(Çilli, 1955)』이다. 그의 소설은 『뱀



『미국 봉대(Amerikan Sargısı)』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의 복수(Yılanların Öcü'nde, 1959)』인데,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을 다뤘다. 이 소설로 이우누스 나디 소설상을 받아 큰 주목을 받았다. 『신사들의 전쟁(Efendilik Savaşı, 1959)』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밝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된 책이다. 소설 『이라즈자의 안녕(Irazcanın Dirliği, 1961)』은 소설 『뱀의 복수(Yılanların Öcü)』 후속편이다. 소설 『열 번째 마을(Onuncu Köy, 1961)』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어느 교사가 마을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노력을 담았다. 『배앓이(Karın Ağrısı, 1961)』는 마을을 관찰한 내용으로 구성된 이야기 책이다. 『난쟁이(Cüce, 1964)』는 튀르키예 동북부 지역 샤프샤프트 출신이 겪는 가슴 아픈 상황을 묘사했다. 소설 『미국 봉대(Amerikan Sargısı, 1967)』는 친미 정책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다루었다. 소설 『거북이(Kaplumbağalar, 1967)』

는 마을학교 교사가 시골의 환경을 바꾸는 노력을 그렸다.

TRT 소설상을 받은 『낮(Tırpan, 1970)』은 나이 많은 노총각과 결혼하고 싶지 않은 젊은 아가씨가 운명에 맞선 저항을 다루었다. 『아나톨리아 차고(Anadolu Garajı'nda, 1970)』 이후로는 이야기 요소들이 더 견고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소설 『영경귀(Köygöçüren, 1973)』에서는 시골에서 겪는 물 공급 문제를 다루었다. 21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목숨값(Can Parası, 1973)』으로 그는 사이트 파이크 이야기상을 받았다. 『갇힌 아들(İçerdeki Oğul, 1974)』에서는 수감 생활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삶을 다루었다. 소설 『뽕(Keklik, 1975)』에서는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만연한 고향에서 한 청년과 노인이 그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옳음과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국경에서 죽음(Sınırdaki Ölü, 1975)』에 실린 25개 이야기 중 3편이 상을 받았다. 『카라 아흐메트의 서사(Kara Ahmet Destanı)』는 『이라즈자의 안녕(Irazca Üçlemesi)』의 후속편으로 1977년에 출판되었다. 뱀의 복수, 이라즈자의 안녕, 카라 아흐메트의 서사는 문학사에서 '이라즈자 3세트(Irazca Üçlemesi)'로 불린다. 소설 속 영웅인 이라즈자는 아줌마 영웅의 시초이다. 소설 『고원(Yayla, 1977)』을 쓰기 전 사전 조사를 위해 3주 동안 메

르신 토로스에 머물렀다. 『칼레칼레(Kalekale, 1978)』는 생산력, 창의성, 환경을 살피고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바이쿠르트는 장편소설, 단편소설, 시, 수필, 개인사, 어린이 동화, 구전 이야기, 논평 등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했다. 작가 자신은 그에게 가장 잘 맞는 장르는 소설이라고 했다. 어느 인터뷰에서 이야기 장르를 진지하게 접근하고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사바하틴 알리(Sabahattin Ali), 사이트 파이크(Sait Faik), 안톤 체호프(Çehov), 헤밍웨이(Hemingway)를 꼽았다. 바이쿠르트의 많은 작품들이 독일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불가리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그루지아어로 번역되었다.

바이쿠르트는 1999년 9월 11일 독일 에센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했다. 튀르키예로 운구되어 장례식은 1999년 9월 14일 거행되었고, 이스탄불 진질리쿠유 묘지에 안장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파키르 바이쿠르

● 다국어 표기 Fakir Baykurt(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튀르퀴

● 참고문헌(오프라인) Andaç Feridun (Hazırlayan), *Aydınlanmanın Işığında Sanat İnsanlarımız Fakir Baykurt*, İde Yayınları, İstanbul, 1997.

Bayrak Mehmet, *Köy Enstitülü Yazarlar Ozanlar*, Töb-Der Yayınları, Ankara, 1978.

Bayrak Mehmet, *Köy Enstitüleri ve Köy Edebiyatı*, Özge Yayınları, Ankara, 2000.

Cevdet Kudret, *Türk Edebiyatında Hikâye ve Roman III*, İnkılâp Kitabevi, İstanbul, 2009.

Enginün İnci, *Cumhuriyet Dönemi Türk Edebiyatı*, Dergâh Yayınları, İstanbul, 2002.

Kaplan Ramazan, *Cumhuriyet Dönemi Türk Romanında Köy*, Akçağ Yayınları, Ankara, 1997.

Tarkan Necdet, *Fakir Baykurt'la bir Yıl ve Ötesi, Meslek Anıları*, Elma Teknik Basım Matbaacılık, Ankara, 2014.

I H158 | 파트마 알리에 토푸즈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FATMA ALIYE



튀르키예 50리라 지폐의 파트마 알리에 토푸즈

튀르키예 최초의 여성 작가이며, 소설가인 파트마 알리에의 1862년 9월 9일 이스탄불의 역사가 아흐메트 제브데트 파샤와 그의 부인 아드비에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파트마 알리에의 교육 기관이 많지 않았고 여아를 학교에 잘 보내지

않던 시대에 살았다. 그녀의 교육은 개방적인 집안 분위기였기에 가능했다. 처음에는 오빠 알리 세다트를 위해 집에 방문하는 교사들 수업을 청강하며 공부를 시작했다. 그녀는 배운 것에 새로운 지식을 덧붙이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켰다. 이를 알아차린 아버지 아흐메트 제브데트 파샤는 딸의 노력을 지지했다. 그리고 그녀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녀는 개인 과외 교사에게 프랑스어를 배웠다. 그녀의 부단한 노력은 가까운 주변 사람에게도 모범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언니 에미네 세미예는 여성의 권리와 관련해 눈을 뜨게 됐고, 그녀가 첫 오스만 제국 페미니스트가 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파트마 알리에의 17살 때 부소령 파이크와 결혼했고, 슬하에 딸 4명을 뒀다.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프랑스어를 배우고 싶어 책으로 공부하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 속에 남편의 부정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발전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남편의 동의를 받아 1890년에 조지 오네트(Georges Ohnet)의 소설 『의지(Volonte)』를 『목표(Meram)』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다. 이 소설의 역자 이름으로 ‘어느 주부’라는 필명을

썼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도전을 응원했다. 이 번역은 당시 중요한 문학가였던 아흐메트 밋하트의 눈에 들었고, 칭찬도 받았다.

파트마 알리에에는 이 번역 이후에 문학과 출판 세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신문 <진실의 번역(Tercüman-ı Hakikat)>에 ‘어느 여성’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여성과 관련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드디어 1890년 10월 8일 출판된 「공주에게 보내는 오일러의 스물한 번째 편지(Euler'in Prenses'e Yirmi Birinci Mektubu)」에서 저자명을 파트마 알리에라고 실명을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번역 작품에서 ‘번역가 메람(Mütercime-i Meram)’이라는 필명을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첫 번역 소설에 대해 극찬을 보냈던 아흐메트 밋하트와 함께 「상상과 진실(Hayal ve Hakikat)」이라는 작품을 공동으로 작업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오스만 제국의 가족과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했던 인터뷰를 「이슬람 여성(Nisvan-ı İslam)」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그녀의 이름으로 출판된 공식적인 첫 소설은 『숙명(Muhadarat, 1891)』이라는 책이다. 그는 이 책에서 19세기 오스만 사회에서의 가족생활을 자세히 기술했다. 강압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결혼은 행복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사회 활동에 관여하기 시작한 파트마 알리에에는 1897년 튀르키예-그리스 전쟁에서 순교한 참전 용사 가족들을 돕기 위해 만든 구호 단체(Cem'iyet-i İmdadiyye)에 창립 멤버로 참여해 활약했다. 이 단체를 통해 지원 캠페인을 전개했다. 적십자 협회에 첫 여성 회원으로 가입한 파트마 알리에에는 이 프로젝트로 압뮐하미드 2세와 적십자 협회로부터 메달을 받았다.

2009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튀르키예 50 TL 지폐의 뒷면에 실린 파트마 알리에의 초상화는 최초의 여성 문학가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소설에서 주로 오스만 시대 가족 생활을 다룬 그녀는 일반적이고 나약한 인간을 그렸다. 기적적인 우연이 만들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소설 속 인물들과 사건들은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묘사했다. 그녀의 소설에는 아흐메트 밋하트의 영향이 분명하게 보인다. 파트마 알리에에는 아흐메트 밋하트가 했던 방식으로 작가 자신이 한 번씩 사건 안으로 들어가 독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한다.

그녀는 작품 『이슬람 여성(Nisvan-ı İslam)』을 신문 <진실의 번역(1891)>에서 연재했고 이후에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오스만 시대 가정을 주제로 한 이 책은 외국인들의 큰 관심 속에 프

랑스어, 아랍어, 영어로 번역되었다. 이 작품은 1893년 시카고 책 박람회에서 주목을 받았고, 상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환경에서 여성의 삶이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알리고 여성 권리를 처음으로 대변했다. 가족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젊은 여성들이 교육받기를 권장했다.

철학과 관련해 궁금증이 많았던 파트마 알리예는 아버지와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이븐루시드(스페인의 아랍계 철학자)와 가잘리(이슬람 사상가)의 철학을 비교하면서 1904년 『철학 역사책(Teracim-i Felasife)』을 집필했다. 그리고 1889년에 출판된 『우디(Udi)』라는 소설에서는 음악과 철학의 관계를 다루었다.

그녀는 막바지에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 정치 생활을 주제로 책을 썼는데, 메쉬루티예트 이후의 정치 분위기를 다룬 『아흐메트 제브테트 파샤의 시절(Ahmet Cevdet Paşa ve Zamanı, 1914)』라는 책이다.

그녀는 1934년에 시행된 성씨 법령에 따라 토푸즈(Topuz)라는 성을 가지게 됐고, 1936년 7월 13일 이스탄불에서 눈을 감은 파트마 알리예의 묘지는 페리쿄이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팻마 알리예 토푸즈

● 다국어 표기 FATMA ALIYE TOPUZ(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Kızıltan Mübeccel, *Fatma Aliye Hanım, Yaşamı, Sanatı, Yapıtları ve Nisvan-ı İslam*, Mutlu Yayıncılık, İstanbul, 1993.

Kütükcü Tamer, “Fatma Aliye’nin Udi’inde Kadın ve Müziğin Modernizasyonu”, *Varlık*, Ekim, 2004.

I H159 | 파티마

● 시기 B.C.~A.D.10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Fatim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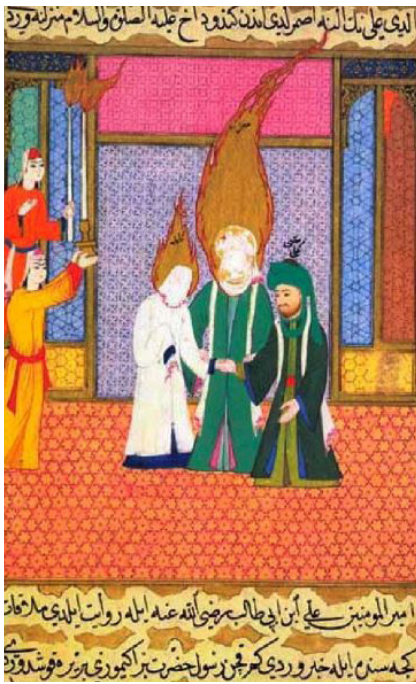
파티마의 원이름은 파티마 빈트 무함마드(Fatimah bint Muhammad)로 파티마 알 자흐라(Fatimah al-Zahra)라고도 알려져 있다. 605년 메카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막내 딸이다. 파티마의 유년 시절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파티마가 15세 때 훗날 제1대 정통 칼리파가 되는 아부 바크르(Abū Bakr, 573년~634년)와 제2대 정통 칼리파가 되는 우마르(Umar ibn al-Khattāb, 583년~644년)가 파티마와 결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무함마드에게 요청했지만, 무함마드는 이 청혼을 거절했고, 제4대 정통 칼리프가 되는 알리 이븐 아비 탈립('Alī ibn Abī Ṭālib, 601년~661년)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624년 알리와 결혼한 파티마는 625년 첫 아들인 하산(Hasan ibn 'Alī ibn Abī Ṭālib, 625년~670년)을 낳았고, 626년 둘째 아들 후사인(Husayn ibn 'Alī ibn Abī Ṭālib, 625년~680년)을 낳았다. 이 두 아들은 예언자의 자손이라는 의미의 샤리프(Sharif)의 조상이 된다. 627년 태어난 셋째 아들 무흐신(Muhsin ibn Ali)은 유아 시기에 사망했다. 이후 딸인 자이나브(Zaynab bint Ali, 626년~682년)와 움므 쿨툼(Umm Kulthum bint Ali, 627년~685년과 705년 사이)을 낳았다.

우흐드 전투(625년)에서 파티마는 부상자를 치료했으며, 이가 부러진 무함마드를 치료하기도 했다. 무함마드에게서 교육을 받은 파티마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지극히 친밀했으며, 무함마드 자신도 여성 중에서는 파티마를 가장 사랑하며 남성 중에서는 알리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결혼 후에도 파티마와 무함마드의 교류는 빈번했다. 무함마드의 파티마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알리는 파티마의 사망 이전까지는 다른 처나 첩을 얻지 않았다.

무함마드의 사망 이후 파티마는 대추야자밭과 토지로 이루어진 유산을 자신에게 줄 것을 아부 바크르에게 요청했으나, 아부 바크르는 무함마드가 유산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하디스를 인용하여, 생계 유지를 위하여 밭에서 번 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유산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전승에 따르면 이후 파티마는 죽을 때까지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으나 상



16세기에 그려진 『예언적 전기 (Al-Sira al-Nabawiyya)』에 묘사된 알리와 파티마의 결혼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심했다고 한다.

파티마는 예언자 사후 6개월 후인 632년 11월 22일 사망했고, 메디나의 바끼(al-Baqi')에 묻혔다고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매장지는 알 수 없다.

수니파에서는 파티마의 사망 원인을 무함마드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으로 보고 있으나, 시아파는 아부 바크르의 침입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아파의 기록에 의하면 파티마의 출생 연도를 612년 또는 615년으로 보고 있다. 시파아에 내려오는 일부 전승에서는 예언자가 승천 시 먹었던 낙원의 열매에서 파티마가 태어났으며, 그 낙원의 열매가 그리워질 때마다 파티마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기록했다. 또한, 그녀가 태어나자마자 누구인지 예언되었으며, 이는 알라가 알리가 파티마의 남편으로 적합하다고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아파에서는 파티마는 신의 특별한 가호를 받은 것으로 묘

사하는 전승들이 있으며, 시아파 이슬람 문학에서는 파티마의 삶에 대한 전승이나 전설을 다룬 작품들이 많다.

투르크 문학이나 민속 신앙에서도 파티마는 자주 다루어진다. 특히 파티마는 경건한 이슬람 여성으로 인내심이 강하고 남편과 가정과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형태로 묘사된다.

벡타슈 종단에서 결혼식 때 파티마가 언급되는 기도문을 읽기도 한다. 현자 코르쿠트 이야기에서도 높은 도덕성을 가진 여성이 언급되는데, 이 여성을 파티마의 후손이라고 묘사한다.

아나톨리아반도에서 파티마 숭배 신앙이 있기에 그녀를 행운과 풍요의 상징으로 여기고, 파티마의 손이라고 하는 그림을 난로의 벽에 그리기도 한다. 또한, 여자들이 요구르트나 피클을 담을 때나 밀 반죽 따위를 할 때, “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파티마의 손이다”라는 기원문을 읊기도 하고, 치유나 순산을 기대할 때 파티마를 언급하기도 한다. ‘파티마 어머니의 손(Fatma Ana eli)’이라고 불리는 식물인 예리코의 장미(학명: *anastatica hierochuntica*)를 끓여 임산부에게 선물하기도 한다.

이슬람권에서 파티마나 파티마와 유사한 이름, 파티마에서 변형되거나 파생된 이름을 여성의 이름으로 짓기도 한다.

● **다국어 표기** Fatıma(튀르키예어), Fatimə(아제르바이잔어), Фатима(카자흐어), Fotima(우즈베크어), Fatima(투르크멘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Kandemir, M. Yaşar. Mustafa İsmet Uzun. “FÂTİM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2, İstanbul: TDV. 1995. pp.219~223.

Vaglieri, L. Veccia. “FÂTİMA”, *Encyclopaedia of Islam* VOL. II (ed; B. LEWIS, CH. PELLAT AND J. SCHACHT). Leiden; Brill. 1991. pp.841~850.

Üçer, Müjgân. “Anadolu Folklorunda Fadime Ana”. *Türk Folkloru Araştırmaları Yıllığı Belleten*, 1976. pp.147~156.

I H160 | 파티흐 모스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Fatih Mosque

파티흐 모스크는 15세기 이스탄불에 건설된 모스크로 엄밀하게는 모스크와 함께 그 외 부속 건물로 구성된 복합단지의 일부 건물이나, 이 복합단지를 파티흐 모스크라고 이르기도 한다. 파티흐 복합단지는 모스크, 귤바하르 하투툰 영묘(Gülbahar Hatun Türbesi), 낙쉬딜 왈리데 술탄 영묘(Nakşidil Vâlide Sultan Türbesi), 도서관, 마드라사, 수피 탁발승과 빈자들을 위한 위한 숙소(Tabhâne), 병원, 기도 시간 공지실(Muvakkithâne), 무덤(Hazîre), 대상 숙소, 시장, 목욕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파티흐(Fatih)는 ‘정복’이라는 뜻으로 당시 비잔틴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을 정복했던 메흐메드 2세(II. Mehmed, 재위: 1444년~1446년, 1451년~1481년)의 별명이기도 했다. 그런 메흐메드 2세는 그리스 정교회 교회(Hagioi Apostoloi)가 있었던 자리에 모스크를 비롯한 부속 건물을 짓도록 명했고, 이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넓이는 108,000제곱미터이며, 건축가는 시나네티딘 유수프(Sinaneddin Yusuf,



파티흐 모스크 및 복합단지

?~1471년)이다. 1462년~1470년 건설된 이 모스크는 1765년 대지진으로 돔 일부가 훼손되었고, 1767년~1771년 복구 과정에서 본래의 중앙 돔 형태에서 오늘날의 네 개의 세미돔이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등 본래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다.

■ 모스크

파티흐 모스크는 지름 26m의 중앙 돔과 키블라 벽 바로 위에 위치한 세미돔, 그리고 돔을 감싸고 있는 작은 돔으로 덮여 있다. 돔으로 덮인 아케이드가 중정을 둘러싸고 있다. 입구는 일곱 단계로 이루어진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으며 팔메트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정문은 녹색 돌과 흰색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상단부에 비문이 있다. 이 비문에는 건축 연도 등이 적혀 있다. 중정을 둘러싼 아케이드는 흰색 대리석, 녹색 반암, 분홍색 화강암과 무카르나스로 장식된 주두로 꾸며져 있다. 배랑의 창문 벽감에는 상회 자기 타일로 되어있으며 코란 구절이 적혀



파티흐 모스크 내부

있다. 모스크 내에는 대리석으로 된 미흐랍이 무카르나스로 장식되어 있다. 내부의 기둥과 아치로 만들어진 오각형의 벽감은 검은 바탕에 흰색 양각으로 장식되어 있다.

미너렛에는 세 개의 발코니가 있으나 첫 번째 발코니만 원형이고 남은 두 발코니와 연장된 부분은 19세기에 추가된 것이다.

■ 파티흐 영묘

1481년 사망한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영묘인 파티흐 영묘는 파티흐 모스크 키블라 벽과 인접해 있다. 영묘가 메흐메드 2세의 사망 전후 언제 건설되었는지는 명확한 정보는 없는 상태이다. 1766년 지진으로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으나 금방 복구되었고, 그 후 화재와 지진으로 지속적으로 훼손과 복구를 반복하게 되었다. 팔각형 형태의 영묘는 돔으로 덮여 있다. 입구에는 처마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이 처마는 후대에 추가된 것이다. 영묘 내에는 술탄 메흐메

드의 2세 이외의 관은 없으나 압뉘라지즈(Abdülaziz, 재위: 1861년~1876년) 시대에 가져다 놓은 궁중의 물품들과 커튼 등이 있다.

■ 귤바하르 하툼 영묘

파티흐 영묘보다 조금 작은 이 영묘는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아내인 귤바하르 하툼의 영묘이다. 팔각형의 몸체는 돔으로 덮여 있다. 이 영묘에는 귤바하르 하툼 이외에도 딸과 두 명의 궁인이 묻혀 있다.

■ 낙쉬딜 왈리데 술탄 영묘

술탄 메흐메드 2세의 어머니 낙쉬딜 술탄의 영묘이다.

■ 도서관

도서관은 현재 원형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건물의 훼손이 심한 편이라 서적은 보호를 위해 쉴레이마니예 도서관(Süleymaniye Kütüphanesi)으로 옮겨진 상태이다. 1742년에 건설된 도서관 중정으로 향하는 문과 모스크로 통하는 문이 있다. 돔과 벽이 많이 갈라진 상태였다.

■ 마드라사

술탄 메흐메드 2세는 이스탄불 정복 이후 곧바로 마드라사와 같은 교육기관 건설을 착수했다. 이를 위하여 비잔틴 시대의 수도원이었던 판토크라토르(Pantokrator) 수도원의 방을 마드라사로 바꾸어 이용했다. 1470년 이 모스크의 마드라사를 완성할 때까지 이곳에서 수업을 지속했다. 마드라사는 모스크의 양옆에 위치해 있으며 정식 이름은 사흐-느 세만(Sahn-ı Semân: 여덟 개의 안뜰)이라고 한다. 사흐-느 세만은 다시 두 개로 나뉘는데, 건물의 위치에 따라 바흐리 시야흐(Bahr-i Siyâh: 흑해)와 바흐리 세피드(Bahr-i Sefid: 지중해)로 나뉜다. 두 마드라사 건물 모두 각각 19개씩의 방이 있으며, 돔으로 덮여 있다. 석재와 벽돌로 만들어진 본 마드라사 중앙에는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중정이 있다. 1766년 지진으로 훼손되었으나, 곧바로 복구되었다. 1955년 이후 마드라사는 복구를 반복하며 현재는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이 외에도 테팀메(Tetimme)라고 하는 기초 학교도 건설했으나, 현재는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기록화도 남아 있지 않아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다.

파티흐 모스크는 이전 시대의 위츠 세레펠리 모스크에서 더 넓은 돔과 더 낮은 미너렛을 조합하여 더 원숙한 형태의 모스크를 만들어 냈으며, 이는 후대에 미마르 시난이 대형 돔 모스크를 만들어 내는 밑바탕이 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파티히 모스크, 파티흐 자미, 파티흐 켈리예시, 파티히 켈리예시

● 다국어 표기 Fatih Külliyesi(튀르키예어)

Fatih Camii(튀르키예어). Fotih masjidi(우즈베크어), Fateh məscidi(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드 2세

● 멀티미디어 링크 파티흐 모스크 전경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5/55/Fatih_Camii_-_Aerial_view.jpg/799px-Fatih_Camii_-_Aerial_view.jpg

파티흐 영묘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2/2d/Fatih_Sultan_Mehmet_T%C3%BCrbesi%2C_Istanbul_-_panoramio_%281%29.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Osmanlı devri mimarisi*. İstanbul: İnkılâp Kitabevi. 2004.

Eyice, Semavi. “FÂTİH CAMİİ ve KÜLLİYES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2. İstanbul: TDV. 1995. pp.244~249.

Kuban, Doğan. *Türk Barok Mimarisi Hakkında Bir Deneme*. İstanbul: Pulhan Matbaası. 1954.

I H161 | 파파 에프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기독교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Papa Eftim

에프팀 사제의 본명은 파블로스 카라히사리디스(Pavlos Karahisaridis)이며, 튀르키예 공화국에서 성법이 생긴 이후로는 제키 에레네롤(Zeki Erenerol)로 개명한다. 에프팀은 1884년 튀르키예(당시는 오스만 제국) 이오즈가트(Yozgat) 지방의 아크다오마데니(Akdağmadeni)에서 태어났다.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은 모두 고향에서 받았다. 21세에 성직의 길에 들어섰고, 1912년에 보제(輔祭). 1915년에는 선거로 사제가 되었다. 이때 받은 이름이 에프팀이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은 사제가 된 후 주변의 신망을 받는 그를 1918년 케스킨(Keskin) 시 주교로 임명한다.

1차 대전 전후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은 공개적으로 연합국과 그리스 편을 들었으며, 무슬림에 대한 학살을 지지했다. 이에 에프팀은 총대주교청과 반목하기 시작했다. 1918년



파파 에프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에프팀은 총대주교청의 관리들을 공격하여 체포되기도 했다. 에프팀은 “무슬림만큼 기독교인들 또한 슬퍼하고 있으며, (튀르키예의) 기독교인들도 투르크임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청은 종교적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을 섞어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에프팀은 독립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앙카라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콘스탄티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청과 관계를 끊게 된다. 독립 전쟁 기간 동안 「투르크 정교회(Türk Ortodoks Kilisesi)」라는 발표문을 출판하고 모든 정교회인은 아나톨리아반도에서 시작된 독립 전쟁을 지원할 것이며, 악의의 도구가 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의회의 야외 연단에서 튀르키예인

을 독려하는 연설을 하는 등의 활동도 이어갔다.

1922년 아나톨리아 튀르키예 정교회 총회(Umum Anadolu Türk Ortodoksları Cemaatleri)의 지지를 받아 독립 튀르키예 정교회 총대주교청(Bağımsız Türk Ortodoks Patrikhanesi)를 카이세리(Kaysery)시에 설립했고 1923년 이스탄불로 이주했고, 파파 에프팀은 에프팀 1세로 총대주교에 오른다. 1923년 로잔 조약의 결과 그리스-튀르키예 인구 교환에서 에프팀과 그 가족은 그리스로 이주해야 했지만, 튀르키예 정부의 결정으로 아나톨리아반도에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대부분 투르크 출신의 정교회인도 그리스로 이주하게 되었다.

1924년 에프팀 아나톨리아반도에 정교회인이 남지 않자 카이세리에 있을 의의를 찾지 못했으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위해 독립 튀르키예 정교회 총대주교청을 이스탄불로 옮기기로 한다. 같은 해, 그가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에 의해 파문당하기도 했다.

에프팀은 1962년 건강상의 이유로 총대주교직에서 은퇴하고 1968년 3월 14일 사망한다. 그는 활동 기간 내내 그리스인 위주로 운영되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청에 반하는 시위와 활동을 지속했다. 또한, 그는 전례에서 튀르키예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에프팀은 튀르키예 내에서 독립 전쟁에서 큰 활약을 펼친 민족주의자 사제로서 평가받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에프팀 사제, 에프팀 신부
- 다국어 표기 Papa Eftim(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독립 튀르키예 정교회 총대주교청
- 참고문헌(오프라인) Biçici, Mehmet. "Papa Eftim ve Milli Mücadeledeki Önemi". *Gaziantep Univers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16(2). pp.453~460.
- Ercan, Hikmet Yavuz. "FENERYE TÜRK ORTODOKS PATRİKHANESİ". *Tarih Araştırmaları Dergisi* 5. 1967. pp.411~438.

I H162 | 파흘라반 마흐무트 영묘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Pahlavan Mahmud Mausoleum

19세기 히바에 건설된 파흘라반 마흐무트 영묘의 이름의 유래인 파흘라반 마흐무트는(Pahlavan Mahmud Khwarazmi, 1247년~1325년) 14세기에 살았던 수피 시인이자 레슬링 선수이며 전사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현재 히바 이외에도 이란의 코이(Khoy)에 그의 영묘가 있으며 각각 둘 다 진짜 영묘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 영묘 모두 순례지로 인기가 있다.

1810년 히바 칸국 콩기라트 왕조의 무함마드 라힘 1세(Muhammad Rahim Bahodir, 재위: 1806년~1825년)는 정치적 의도로 파흘라반 무함마드를 일종의 수호 성인으로 채택하고 그의 영묘를 건설했다.

건물 중앙은 티무르 양식의 파란색 돔으로 덮여 있는 방으로 수피 신도들의 시설인 칸카이며, 그 주변에 영묘가 위치한다. 마흐무트의 영묘는 이 칸카의 서쪽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측면 방에 위치해 있다. 무함마드 라힘 1세의 영묘는 칸카의 북쪽 벽에 자리했다. 마흐무트의 시가 쓰인 유약을 바른 타일로 영묘 전체가 장식되어 있다.

무함마드 라힘 1세가 이 영묘에 미리 자신의 자리를 지정한 것이 전례가 되어 이후 콩기라트 왕조 후기에 이곳은 히바 칸들의 왕실 영묘가 되었다. 이에 무함마드 라힘 1세의 영묘 이외에도, 옐러쿨리 칸(Olloqulixon, 재위: 1825년~1842년)의 영묘와 아스판디요르 칸(Asfandiyorxon,



파흘라반 마흐무트 영묘



파흘라반 마흐무트 영묘 내부

재위: 1910년~1918년)의 영묘가 추가되었다. 이 외에도 여름 모스크와 코란을 보관하는 방, 순례자들을 위한 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흐무트 영묘의 북쪽, 서쪽 및 동쪽은 히바 칸국의 고위층을 위한 공동묘지가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파클라반 마흐무드 영묘, 팔라반 마흐무드 영묘
- 다국어 표기 Pahlavon Mahmud maqbarasi(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khivamuseum.uz/sites/default/files/1_32.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orientalarchitecture.com/sid/1364/uzbekistan/khiva/pahlavan-mahmud-mausoleum>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i, Ahmad H., VM Masson.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Paris: Unesco. 1992.
UNESCO. *Kiva: City of a Thousand Domes*. Paris: Sharq. 1997.

I H163 | 판필로프 공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공원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Park of 28 Panfilov Guardsmen

판필로프 공원의 정식 명칭은 ‘28인의 판필로프 부대 용사 공원’으로서 알마티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다. 독일군이 1941년 여름에 모스크바로 침공했을 당시 판필로프 사단 소속의 최전방 군인들은 카자흐인 병사들이었는데, 이들의 희생적인 방어 전투로 소련군이 전열을 정비할 수 있었다. 이를 기리기 위하여 공식 명칭을 채택했다. 전체 면적은 약 180,000제곱미터(약 55,000평)로 숲이 우거진 알마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동시에 전몰자의 위령탑과 전쟁 관련 조각이 많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공원 내에는 러시아정교회 성당과 민속악기 박물관이 있어서 알마티와 카자흐스탄을 대표하는 명소이기도 하다.

공원의 기원은 19세기 후반 알마티 도시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한다. 1870년대에는 코자크인들의 묘지가 있었던 공원 묘지였다. 공원의 명칭 또한 여러 번 바뀌는데, 1899년에는 ‘푸쉬킨 정원’이라고 했다. 러시아 혁명 직후에는 ‘레닌 공원’이라고 개칭되었고, 이어서 ‘5월 1일 공원’이



판필로프 공원 내의 러시아 정교회 대성당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판필로프 공원 내의 민속악기 박물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en/thumb/>



28인의 판필로프 부대 용사 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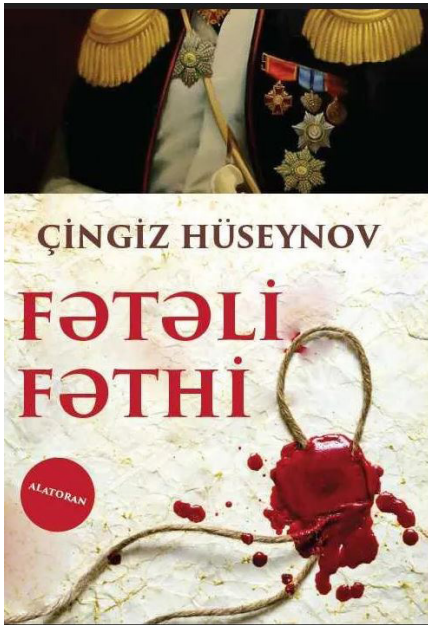
라고 변경되었다. 알마티가 카자흐(자치) 공화국의 수도가 된 이후인 1927년에는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 공원’으로 불렸다.

현재의 이름은 1942년에 결정되었는데, 이는 모스크바 방어전에 투입된 316사단 1075연대 소속 28명의 병사들의 활약에서 가져왔다. 공원 조성에 기여한 사람은 당대 건축가 젤코프였는데, 그는 러시아정교회 성당 건축 및 인접한 민속악기박물관 건립에도 관여되어 있다. 현재 일설에 의하면 28인 용사 무용담이 사실과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원명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카자흐스탄 당국은 이에 개의치 않고 이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판필로브 공원
- 다국어 표기 28 панфиловшылар паркі(카자흐어), Парк имени 28 гвардейцев-панфиловце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보즈네센스크 성당(젤코프 성당)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vkj2fP-5NcQ>
- 참고문헌(온라인) <https://dic.academic.ru/dic.nsf/ruwiki/1847025>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3, Алматы., 2005.

I H164 | 패탈리의 운명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소설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Fathali fatal



『패탈리의 운명(Fətəli fətəli)』표지
Source: <https://r2.1k-cdn.com/sig/>

『패탈리의 운명(Fətəli fətəli)』은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작가 친기즈 휘세이노브(Çingiz Hüseynov)가 러시아어와 아제르바이잔어로 쓴 소설이다. 이 소설은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이 작품의 초판은 1981년 모스크바에서 ‘필연성’이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초판 당시 이 소설은 원래 러시아어로 쓰였다. 작가는 이후 이 작품의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어 버전을 재 작업하여 1988년 바쿠에서 출판했고 완성도를 높였다. 작품의 러시아어로 된 제목은 ‘Фатальный Фатали’, 아제르바이잔어로 된 제목은 『패탈리의 운명』이다.

『패탈리의 운명』에서는 19세기 아제르바이잔의 역사를 미학적으로 다룬다. 유명한 극작가이자 사상가인 미르재 패탈리 아쿤드자대(Mirzə Fətəli Axundzadə)가 이 소설의 주인공이다. 작가는 이 작품의 장르를 ‘역사 판타지’라고 부른다. 이 소설에는 역사적 사건 이외에도 예술적 상상력과 환상의 산물인 줄거리, 사건, 에피소드 등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패탈리의 운명』에서 저자는 주로 러시아의 아제르바이잔 점령 문제를 제기한다. 이 작품에서 저자는 민족의 분단으로 인한 비극을 예술적으로 그려내려고 노력했다. 친기즈 휘세이노브(Çingiz Hüseynov)에 따르면 이 소설은 바로크 양식으로 쓰여졌다. 이 작품에는 저자의 자전적인(Autobiography) 이야기도 들어있다. 이 소설은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 양쪽에서 몇 차례 재판되었고, 이에 대한 많은 진지한 학술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탈리 패티

● 다국어 표기 Fethali fethi(튀르키예어), Фатальный Фатал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참고문헌(오프라인) Çingiz Hüseyinov, *Fətəli fəthi*,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86.

Sultanlı Vagif, “Yazıram ki, əzablardan qurtarım…(Çingiz Hüseyinov haqqında)”, *Xalq cəbhəsi qəzeti*, 23 may 2002, № 96 (126), 2000.

Yusifli Vaqif, “Çingiz Hüseyinovun səkəsninci baharı”, *Azərbaycan dergisi*, 2009, s.137~140.

Гусейнов Чингиз, Фатальный Фатали, Москва, Изд-во Академия, 2011.

Исмаилов Рафик, Двужычие в современной Азербайджанской прозе и проблемы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перевода. (Кандидатская диссертация), Баку, 1988.

I H165 | 페네르바흐체 스포츠 클럽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기예 ● 유형 소분류2 스포츠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Fenerbahçe Spor Kulübü

페네르바흐체 스포츠 클럽은 튀르키예 이스탄불 유럽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 페네르바흐체에서 비롯된 프로 축구클럽이다. 이 축구팀은 갈라타사라이, 베식타쉬와 더불어 튀르키예 1부 리그를 대표하는 팀으로 지금까지 2부 리그로 강등된 적이 없다. 1부 리그인 수페 리그를 포함한 여러 대회에서 튀르키예 프로팀 중 가장 많은 국내 챔피언이 된 팀으로도 유명하다.



페네르바흐체 스포츠 클럽 로고

1968년 페네르바흐체는 발칸 컵을 차지함으로써 튀르키예 프로 축구팀 중 최초로 국외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인 2012년~2013년 시즌에는 유로파 리그에서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페네르바흐체 스포츠 클럽 홈페이지
 Source: <https://www.fenerbahce.org/>

페네르바흐체 스포츠 클럽은 튀르키예 프로팀 중 국내나 국외에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팀이다. 특히 갈라타사라이와의 경쟁 관계가 심한데, 2009년 9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페네르바흐체와 갈라타사라이 간의 дер비를 세계 10대 дер비 중 두 번째로 랭크 시키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네르바흐체 스포츠 클럽
- 다국어 표기 Fenerbahçe Sports Club(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Yüce, Mehmet. *Osmanlı Melekleri: Futbol Tarihimizin Kadim Devreleri Türkiye Futbol Tarihi – Birinci Cilt* (in Turkish).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14.
 Yüce, Mehmet. *İdmançı Ruhlar: Futbol Tarihimizin Klasik Devreleri: 1923~1952 Türkiye Futbol Tarihi – 2. Cilt* (in Turkish). Istanbul: İletişim Yayınları. 2015.

I H166 | 페라이즈의 서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법률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Ferâiz Kitabı

『페라이즈의 서』는 1343년 페르시아어로 기록된 상속 분배에 대한 법률을 투르크어로 번역한 책이다. 페라이즈는 이슬람 상속법을 연구하는 과학의 한 분야이다. 페라이즈(Ferâiz)의 어원은 fard에서 파생된 단어 farîza의 복수형이다. 부정사로서 fard는 ‘무엇을 결정하다, 감시하다, 확실히 하다, 설명하다’를 의미하며, 명사로서 fard와 farîza는 ‘감시와 임명된 것, 확고한 몫’을 의미한다. Fard와 동의어인 파리아(Fariza)는 납세자에게 엄격하고 구속력 있게 요구되는 종교적 의무와 결혼 계약에 따라 여성에게 지불해야 하는 지참금 즉, 마흐르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슬람 문헌에서 파리자(Fariza)라고 불린다.

『페라이즈의 서』는 고대 아나톨리아 투르크어의 전형적인 특징과 함께 동부 투르크어의 특징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대 아나톨리아 투르크어의 전형적인 특징인 원순 모음들이 페라이즈의 서에서는 평순 모음으로 나타난다. 둘째, 어두음 /v-/과 함께 /b-/ 음가도 함께 사용된다. 셋째, 동부 투르크어의 특징인 /b/ 음가를 포함한 bol- 동사의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넷째, 권유법과 미래시제 대신 -A 어미를 사용한다. 다섯째, 목적격 어미 -ni(동부 투르크어의 특징)의 사용이 잦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시나시 테킨은 고대 아나톨리아 투르크어 텍스트와 투르크어사의 ‘olga-bolga’ 문제라는 주제로 관련 서적에 대한 연구를 했으며, 이 연구에서 그는 『페라이즈의 서』의 번역가는 동부 투르크어와 아나톨리아 투르크어인 오우즈어를 혼합하여 사용했으므로 ‘오우즈 투르크어를 구사할 수 있던 투르크인’이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라이즈 키타브
- 다국어 표기 Ferâiz Kitabı(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feraiz>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I H167 | 페르가나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Fergana

페르가나는 중앙아시아의 동부, 아랄해로 흘러 들어가는 시르다리야강 상류와 카라테긴 산지에 위치한 페르가나 분지를 중심으로 한 도시로, 페르가나 주의 주도다. 중국 문헌에는 한(漢)나라 때 중앙아시아의 페르가나에 있던 오아시스 국가 및 페르가나 지역을 대완(大宛)이라고도 불렀다. 행정 구역상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주(州)에 속한 도시이자 주도이다. 주의 15개 지구(district) 중 페르가나 지구에 속한다. 시르다리야강 상류와 페르가나 산지 사이에 위치한 페르가나 분지의 남부, 알라스키(Alaisky) 산맥의 북쪽 기슭에 걸쳐 있다.

페르가나는 수도 타슈켄트에서는 남동쪽으로 약 238.80km 지점, 해발 고도 590m에 위치한다. 기후는 중위도 건조 기후에 해당하며 연평균 기온은 13.7°C, 연평균 강수량은 206mm이다. 1877년 러시아에 점령되어 페르가나 주의 군사 요지, 행정 중심지로 설립되었다. 지명은 '마르길란의 북쪽'이란 뜻에서 1910년까지 노비마르길란(Novyi Margelan)으로 불리다가, 1924년까지 러시아 총독 미하일 스킨베레프의 이름을 따 스킨베레프(Skobeev)로 불리었다. 현 지명은 페르시아어로 다양하다는 뜻의 페르가네(فرغانه)에서 유래했다.

1918년 투르키스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 편입되었으며, 이후 1924년에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1991년 우즈베키스탄의 영토가 되었다. 1930년대 운하가 건설되었다. 현대 견직, 면직물과 정유 화학 공업 등이 발전하며 대도시화되었으며, 1977년 도시 북쪽의 키르길리(Kirgili) 일부 지역이 편입되었다. 페르가나 분지 지방의 관문이며, 주 농산물로 목화, 포도를 재배한다.

페르가나 주민의 약 40%가 우즈베크인이며 그 외에 타지크인, 독일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아르메니아인 등 다양한 민족이 거주한다. 페르가나 주립대학교 등의 고등 교육 기관의 소재지이고 교통 기관으로 남서부에 페르가나 공항(Fergana International Airport)이 위치한다.



페르가나 센트럴 파크



페르가나 전경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르고나, 페르거나
- 다국어 표기 Ферғана(러시아어), Fargʻona(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n.wikipedia.org/wiki/Fergana#/media/File:Uzbekistan_adm_location_map.svg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대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081216&cid=40942&categoryId=31642>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페르거나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68161&cid=40942&categoryId=34057>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2.

I H168 | 페르테브 나일리 보라타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PERTEV NAILI BORATAV

페르테브 나일리 보라타브(Pertev Naili Boratav)는 튀르크 민속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학자 중의 한 명이다. 민속학 발전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현대문학 작가이기도 하다.

그의 아버지 압두라흐만 나일리 베이는 20세기 초에 삼순 하브자(Havza)와 마르딘데리크(Derik)에서 군수로 근무한 뒤 다르데레(Darıdere; 오늘날 불가리아 국경에 있는 즐라토그라드, Zlatograd)로 이주했는데, 보라타브는 이곳에서 1907년 9월 2일에 태어났다.

1927년에 이스탄불 고등학교를 졸업한 보라타브는 학창 시절 심리학과 사회학을 가르쳤던 교사 힐미 지야 율켄(Hilmi Ziya Ülken) 덕분에 처음 민속 문화를 접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율켄이 자신을 이 분야로 이끌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하면서, 율켄과 자신의 관계를 론자 전통(오스만 제국 시대 수공예자의 장인-도제 관계)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율켄이 ‘수집 매뉴얼(Derleme Klavuzu)’을 자신에게 물려 주었다고 강조했다.

페르테브 나일리 보라타브가 미적 감각을 높이고 민속 문화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는 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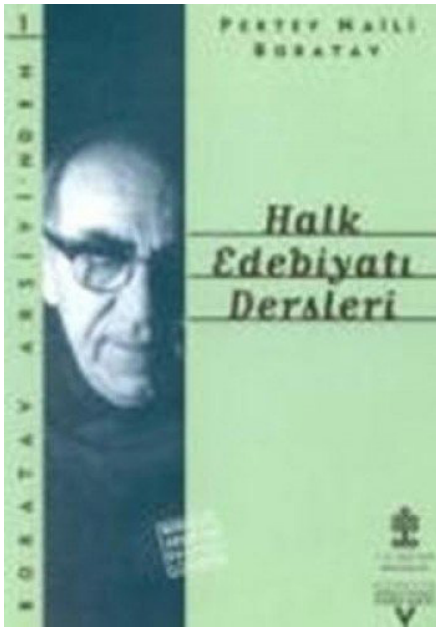
어머니 스투카 보라타브(Sıdıka Boratav)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어 1967년 프랑스에서 먼저 출간하고 앙카라에서 1968년에 출판한 동화책 『먼 길 걸었다(Az Gittik Uz Gittik)』에 수록된 「발에 가시가 박힌 까마귀(Ayağına Diken Batan Karga)」, 「아이셰, 파트마의 새끼 양(Ayşe, Fatma Kuzular)」, 「건강한 새, 아픈 새(Can Kuşu, Çor Kuş)」, 「당나귀 머리(Eşek Kafası)」, 「산적 메흐메드(Mehmed Eşkiya)」, 「일리크 술탄(İlik Sultan)」, 「어부의 아름다움(Balıkçı Güzeli)」, 「탁탁 소리 나는 나의 몽둥이(Tık Sopam)」, 「조그마한 솔(Tencerecik)」, 「위대한 알라와 파디샤흐의 아들(Allah Kerim Padişahın Oğlu Erim)」, 「거위를 주면 거위의 깃털을 뽑아 주겠니?(Kaz Yollasam Yolar mısınız?)」, 「부자들의 목욕탕(Zengin Hamamı)」 등은 어머니께 들은 내용을 각색하여 만든 작품이다.

이stanbul 대학교에는 푸아트 쿠피뤼뤼(Fuat Köprülü)를 비롯하여 라그프 훌루시(Ragıp Hulusi), 알리 에크렘 볼라이으르(Ali Ekrem Bolayır), 페리트 캄(Ferit Kam), 이스마일 학크 발타즈올루(İsmail Hakkı Baltacıoğlu), 오스카르 레스체르(Oskar Rescher), 유수프 셰리프(Yusuf Şerif) 등 훌륭한 은사들이 있었다. 페르테브 나일리는 이stanbul 대학교에 다니면서 동시에 ‘고등 사범 학교(Yüksek Muallim Mektebi)’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그와 어울리는 친구들은 같이 잡지를 만들고 페르테브 나일리의 성을 지어준 휘세인 니할 아트스즈(Hüseyin Nihal Atsız), 오르한 샤이크 곱야이(Orhan Şaik Gökyay), 슈크뤼 귤뤼오을루(Şükrü Güllüoğlu), 지야 카라무크(Ziya Karamuk) 등이었다.

보라타브는 1930년 10월 대학교를 졸업하고, 1931년 2월 1일부터 조교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튀르키예의 민속학에 대한 보라타브의 접근 방식은 ‘투르크 민족들의 민속(Türk Dünyası Folkloru)’이다. 이런 관점은 1990년대가 되어서야 튀르키예에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작품 「코르올루 서사시(Köroğlu Destanı)」를 연구하면서 강조한 요소 중 하나는 서사시의 ‘공통점’이다.

보라타브의 친구 휘세인 니할 아트스즈(Hüseyin Nihal Atsız)가 창간한 <아트스즈 잡지(Atsız Mecmua)>는 1931년 5월 15일 창간호가 발행되어 1932년 9월 25일까지 매달 발행된 잡지다. 보라타브는 이 잡지에 글을 기고하면서 창간자 아트스즈의 민족주의적 시각에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니할 아트스즈는 그때 즈음부터 인종차별적 견해를 밝혔던 사람이다. 보라타브는 민족주의를 문화에서 찾았으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투르크 민족들’을 토대로 연구했다.



『민속문학 강의(Halk Edebiyatı Dersleri)』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이stanbul 대학교(Darülfünun)를 졸업한 이후 페르테브 나일리 보라타브의 삶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 변화는 1932년에 코니아 고등학교에 발령받으면서 시작되었는데, 이 사건에는 이전 배경이 있었다. 1932년 7월에 열린 제1회 튀르키예사(史) 학술대회에서 튀르키예 역사학자 제키 웰리디 토간(Zeki Velidi Togan)이 당시 역사학자들의 튀르키예 사관(Türk Tarih Tezi)이 잘못된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라시트 갈리프(Raşit Galip)이 토간을 맹렬히 공격했고 학술대회가 일종의 큰 스캔들로 마무리되었다. 라시트 갈리프가 “...한탄을 금치 못합니다. 내가 이스탄불대학 토간 선생의 학생이 아니라 천만 다행입니다”라고 유감을 표하자, 보라타브와 니할 아트스즈는 라시트 갈리프에게 “우리는 토간의 제자인 것이 영광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은

사를 옹호하는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 이 전보를 받아 라시트 갈리프는 두 사람에게 보복성 발령을 내렸다. 당시 아무도 가고자 원하지 않던 곳으로 두 사람을 보냈는데, 아트스즈는 말라티야로, 보라타브는 코니아로 발령이 났다. 보라타브를 1932년 10월 25일 코니아 남자고등학교에서 문학 교사로 근무를 시작했고, 이어 중학교 프랑스어 교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이곳이 그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사바하틴 알리(Sabahattin Ali)가 코니아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알리와 구면이었고 첫 만남은 고등 사범 학교(Yüksek Muallim Mektebi)에서 이루어졌다. 사바하틴 알리는 요즈가트 지역에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지만, 가끔 몰래 이스탄불에 있는 고등사범학교 기숙사에서 머물렀다. 보라타브의 사고 폭이 확장되고 좌파 성향을 갖게 된 데는 사바하틴의 역할이 컸다.

보라타브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성실함으로 민속 문학에 나오는 자료들을 직접 수집했는데, 이야기꾼의 설명과 청중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현장에서 직접 수집했고, 이를 글로 풀어내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미국에서는 1970년 이후에서야 논의되기 시작한 방법인데, 보라타브는 1940년대부터 사용한 것이다.

보라타브가 처음으로 시도한 ‘코르오울루(Köroğlu)’ 연구는 그가 문화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살아 있는 구세주든 전설적인 인물이든 시공간을 초월한 민족의 미덕과 결점이 존재하는 영웅’이라고 받아들이고 코르오울루에 큰 애정을 쏟았다.

페르테브 나일리 보라타브의 삶의 여정은 1998년 3월 16일 파리에서 끝났다. 투르크 문화, 선조들이 축적한 지혜, 사회와 인류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올곧은 지식인의 태도, 문서로 남긴 수천 개의 이야기는 ‘보라타브의 아카이브(Boratav Arşivi)’에 담겨있다. 이 외에 도『코르오울루 서사시(Köroğlu Destanı, 1931)』, 『민속과 문학 1(Folklor ve Edebiyat I, 1939)』, 『민속문학 강의(Halk Edebiyatı Dersleri, 1942)』, 『구전 이야기와 이야기 전통(Halk Hikayeleri ve Hikayeciliği, 1946)』, 『옛날 옛적에(Zaman Zaman İçinde, 1958)』, 『100가지 질문으로 살펴보는 투르크 민속문학(100 Soruda Türk Halk Edebiyatı, 1969)』, 『100가지 질문으로 살펴보는 투르크 민속(100 Soruda Türk Folkoru, 1973)』, 『나스레딘 호자(Nasreddin Hoca, 1996)』 등이 있다. 이 작품 중 일부는 독일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영어로 번역되었다. 또한 독일인 중국 학자 볼프람 에버하르트(Wolfram Eberhard)와 함께 준비한 『투르크 설화의 유형(Typen Türkischen Volkmärchen, Türk Halk Masallarının Tipleri)』은 3,000개의 튀르키예 민담을 378가지로 목록화한 작품이다. 그의 민속과 구비문학 분야의 걸작은 엄청난 지식과 문헌을 축적하며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사후 페르테브 나일리 보라타브는 파리에 안장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르테브 나일리 보라타브

● 다국어 표기 PERTEV NAILİ BORATAV(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ydın Ayhan, “Perte Naili Boratav’la Söyleşi”, *Pertev Naili Boratav’a Armağan (Haz. Metin Turan)*,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98.

Başgöz İlhan, “Pertev Naili Boratav’ın Türk ve Dünya Folklor Çalışmalarındaki Yeri”, *folklore/edebiyat*, sayı: 14, 1998.

Birkalan Hande, “Pertev Naili Boratav, Türkiye’de Politika ve Üniversite Olayları” (çev. Gönenç Turan), *folklor/edebiyat*, sayı:33, 2003.

Boratav Pertev Naili, *Az Gittik Uz Gittik*, Bilgi Yayınevi, Ankara, 1969.

Boratav Pertev Naili, *Köroğlu Destanı*, Adam Yayınları, İstanbul, 1984.

Çetnik Mete, “Pertev Naili Boratav’ın Gençlik Döneminin Bazı Özellikleri”, *Pertev Naili Boratav’a Armağan (Haz. Metin Turan)*,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98.

Görkem İsmail, “Prof. Pertev N. Boratav’ın 1927~1944 Dönemi ve Atsız Mecmua’daki Yazıları”, *Milli Folklor*, Sayı: 42, 1999.

I H169 | 페를레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Perlee Khodoogiin

페를레(1911년~1982년)는 몽골의 대표적인 역사 연구가이자 흥노 고고학자이다. 40년 동안 몽골과학아카데미의 역사 연구소 연구 책임자와 연구소장을 역임했다. 1959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주제는 ‘몽골과 거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이다. 1962년과 1967년에 몽골아카데미 회원으로 추대되었다. 그의 주요 관심사는 몽골의 민족지 자료와 문명과 관련된 것이었다.

흥노와 관련해서는 오논강 유역의 헤르멘 탈 유적을 발굴하고 몽골의 고민족과 관련해서 비교 연구했다. 흥노 유적뿐만 아니라 구석기 시대 유적, 암각화 및 청동기 시대 무덤, 투르크 무덤, 거란의 무덤과 성지를 발굴했다. Khuitnii Gol 분지의 고고학 자료를 사료와 비교해서 연구했다. 그는 석관묘에 머리와 견갑골을 묻는 몽골의 전통은 몽골의 청동기 시대인 판석묘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의 대표적인 연구 업적은 ‘몽골 고대 민족성에서 고고학의 중요성(1956년)’, 몽골의 고대 무덤 전통(1956년), 고대 몽골의 이주민과 이주의 역사(1966년), 몽골의 고대 조상(1976년) 등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를레
- 다국어 표기 Perlee Khodoogiin(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흥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I H170 | 페리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Peri

페리는 이란 신화에 나오는 정령 중 하나이다. 페리의 어원은 고대 인도유럽어의 ‘세상에 내어놓는’, ‘날다’라는 의미의 ‘per’이거나, ‘채우다’라는 의미의 ‘pele’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트』에서 페리(파이리카)는 여성 형상의 교활한 정령이다.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지역에서 페리는 인간 또는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새, 비버, 독이 없는 뱀으로 묘사될 때는 선한 존재로, 개구리, 거북이, 호랑이, 독이 있는 뱀으로 묘사될 때는 악한 존재로 표현된다. 인간의 형상일 때는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일 때는 선한 존재이고, 구역질 나고 추한 모습일 때는 악한 존재이다. 페리는 인간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때 특별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한다.

페리의 형상은 소아시아와 중앙 아시아, 북 캅카즈, 남 캅카즈, 불가 유역, 남 우랄 지역의 투르크 민족에게서도 발견된다. 투르크 신화에서 페리는 파리(пари)로 불리기도 한다. 여기서 페리는 주로 물과 관련된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한 환상적인 존재이다. 때때로 비둘기 같은 동물이나, 동물의 형상과 결합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새의 다리를 가진 아름다운 여성). 「코로글루」 같은 서사시에서 페리는 주인공의 아내로 등장하기도 한다.

투르크 전설에 등장하는 페리의 대부분은 선한 존재이고, 인간과 사랑을 하는 존재이다. 인간과 사랑을 나눈 페리는 그 인간에게 실종된 사람이나 동물, 잃어버린 물건 등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도 한다. 서시베리아 타타르인들은 페리가 집안 일을 도와주지만 가끔은 적대적인 힘을 보이는 존재로 인식한다. 중앙 아시아 신화에서 페리는 샤먼을 도와 군대를 편성하게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투르크멘-우즈베크에서는 샤먼을 ‘포르한(порхан)’으로, 타지크-위구르에서는 샤먼을 ‘파리혼(парихон)’으로 부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르, 베리, 베르, 파이리카

- 다국어 표기 **Пери**(러시아어), **پری**(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코로글루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под ред. Токарева С. А. —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2. г. — т.2. pp.286~287.**

I H171 | 페지리아티 문학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시대 ● 집필자 오문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FECRI ATI



페지리아티 성명서
Source: <https://www.leblebitozu.com/wp-content/uploads/>

오스만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정치적 혼란에 빠지게 되자 저명인이나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문인들도 새로운 탐색을 시도했다. 그 일환으로 문인들의 조직과 단체를 만들고자 했다. 오스만 시대 문인 중 상당수가 의기투합한 학교 동창으로서 이들이 세운 단체는 서양의 문학 학교와 비슷한 공동체였다. 이 시기에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지가 된 주요 세 도시는 이스탄불, 이즈미르와 그리스 테살로니키이다. 특히 그리스 테살로니키에서 간행한 <정원>, <놀이터>, <아름다움>, <시> 등의 문예지는 이후 페지리아티 동인모임을 결성했던 작가들이 서로를 알 수 있도록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다.

아흐메트 사뮴(Ahmet Samim), 아흐메트 하심(Ahmet Haşim), 에민 빌렌트 세르다르오을루(Emin Bülent Serdaroglu), 에민 라미(Emin Lami),

타흐신 나히트(Tahsin Nahit), 제랄 사히르(Celal Sahir), 제밀 쉴레이만(Cemil Süleyman), 함둘라흐 쉬피(Hamdulah Süphi), 레피크 할리트(Refik Halit), 샤후베티넨 쉴레이만(Şahabettin Süleyman), 압뉘하크 하이리(Abdülhak Hayri), 파이크 알리(Faik Ali), 파즐 아흐메트(Fazıl Ahmet), 푸아드 쿠피렐뤼(Fuad Köprülü), 뮈피트 라디프(Müfit Radip), 야쿠프 카드리(Yakup Kadri), 알라타틴 고티사(Alaattin Gövsa) 등의 작가로 구성된 페지리 아티는 1909년 2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상주의적 태도로 튀르키예 문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단체를 결성했다고 말했다.

페지리 아티 작가들은 이 성명서에서 “우리는 유럽의 예술 단체들처럼 언어와 문학 그리고 사회 과학과 통섭하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문학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척박한 조국의 학문과 문학 풍토를 극복할 수 있는 어느 지점까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지향점을 밝혔다. 이들은 이 성명서에서 “언어, 문학, 사회의 지식 발전을 위해 우리가 생각한 공헌은 두 가지이다.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능을 한데 모아 단체의 힘을 기르고, 지적 연구를 통해 빛나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로써 후광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페지리 아티의 각오와 갈망의 목표다”라고 밝혔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시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 단체의 구성원들의 작품을 담은 페지리 아티 도서관 세우기
- 소속 회원이나 번역 대회 수상자들에게 서구의 중요한 작품들을 번역시키기
- 누구든지 참가할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 대중들에게 문학의 재미를 알리고 정보력 확대하기
- 서구의 비슷한 단체와 관계를 맺어 서로의 작품을 교류하기

튀르키예의 문학사에서 처음으로 발표한 이 ‘공동 성명’은 문학 활동으로 자리잡은 페지리 아티 작가들의 문학적 이해를 한마디로 ‘예술은 개인적이고 명예롭다’라는 표어로 상징화했다. 이 표어로 자신들이 갈 길을 나타낸 페지리 아티 동인들은 ‘함께 일하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동인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이 단체가 세웠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었다. 이후 몇 년간 중요한 주제에서 스스로 방향을 설정하면서 튀르키예 문학에서의 입지를 다져갔

다. 시에서는 상징주의자들,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에서는 프랑스 소설가 모파상(Maupassant), 연극에서는 노르웨이 극작가 입센(Ibsen)을 모방했다. 페지리 아티 작가들은 단체의 이름으로 동인지를 출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그들은 자신들보다 먼저 출발한 문학파 에데비야트 제디데처럼 문예 동인지 <세르베티 튀눈>을 활용했다.

페지리 아트에 참여한 청년들의 열정은 충만했지만 좋아하는 것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각자 달랐으므로 단체에서 자신이 소망하던 목표를 이루지 못한 불만 등 여러 이유로 단체를 떠났다. 페지리 아티 파의 정신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실패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단체의 상징이었던 파이크 알리(Faik Ali), 파즐 아흐메트(Fazıl Ahmet), 함둘라흐 수피(Hamdullah Suphi), 제랄 사히르(Celal Sahir)는 장관직을 맡는 등 출세 길에 올랐다.

결국 동인 결성은 1912년 말 해체되고 말았다. 이 동인의 구성원인 야쿠프 카드리 카라오스만오을루(Yakup Kadri Karaosmanoğlu)와 레피크 할리트 카라(Refik Halit Kara)는 독창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을 거둔 소설가인데, 이후 민족 문학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아흐메트 하심은 페지리 아티 동인들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20세기 튀르키예 시를 서구의 관점에 맞춘 거장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지리 아티

● 다국어 표기 FECRİ AT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푸아드 쿠피렐뤼

● 참고문헌(오프라인) Enginün İnci, *Yeni Türk Edebiyatı Tanzimat'tan Cumhuriyet'e (1839~1923)*, Dergah Yayınları, İstanbul, 2006.

Levend Agah Sırrı, *Edebiyat Tarihi Dersleri*, Kanaat Kitabevi, İstanbul, 1938.

Özkırımlı Atilla, *Tarih İçinde Türk Edebiyatı*, Ümit Yayınları, Ankara, 1995.

Ünlü Mahir, Özcan Ömer, *20. Yüzyıl Türk Edebiyatı, C. 1*, İnkılap Yayınları, İstanbul, 2003.

I H172 | 페체네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Peçenek

페체네크족은 6세기부터 12세기 중앙아시아와 흑해 북쪽 스텝 지역 연안에 살던 투르크 계열의 유목 민족이다. 투르크어족에 속하는 페체네크어를 사용했다. 페체네크인의 기원은 투르크 계열로 보이는데 볼가강과 우랄강 지역에 살았으며, 9세기에서 10세기에 걸쳐 남서 유라시아의 크림반도로 정착했다. 10세기 중반 비잔티움 황제 콘스탄티노스 프로피로게니투스는 자신의 저술에서 이들의 영역이 서쪽으로 시레트강까지 넓게 퍼져 있고, 헝가리에서 4일 정도의 거리에 있다고 묘사하고 있다.

889년 하자르족에게 밀려난 페체네그인은 계속 서진(西進)하여 마자르족과 충돌했고, 비잔티움 제국은 9세기부터 이들을 더 위험한 부족인 루스인과 마자르족을 제어하기 위해 용병으로 고용했다. 루스인과 마자르족의 압박으로 페체네크인은 10세기에 계속해서 비잔티움 제국의 트라키아를 공격했으며 또한 키예프 루시와도 끊임없이 분쟁을 벌였는데, 1018년 비잔티움 제국이 불가르족을 정복하여 자신들의 영토와 이웃하게 되자 비잔티움과의 마찰이 더욱 커졌다. 1090년과 1091년에 걸쳐 이들은 비잔티움 제국의 깊숙이 침입하여 거의 콘스탄티노폴 근처까지 진출했는데,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우스 1세는 쿠만족과 연합하여 이들을 분쇄하고 거의 무력화시켰다. 페체네크인의 일파들은 1094년과 1122년에도 비잔티움과 전쟁을 벌였는데, 거의 대부분 패하여 거의 사라졌다.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지금의 헝가리 지역에 흩어져 산 것으로 보인다.

서부 유라시아 대초원 유목민의 한 갈래로, 유목민답게 목축업과 사냥, 약탈, 교역 등에 종사했으며 본래는 카스피해 북안의 볼가강과 우랄강 일대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래는 스키타이계 유목민이었으나 중세 초 투르크인의 서진 과정에서 투르크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9세기 경에 시르다리아강 유역에서 드네프르강 유역과 크림반도 인근으로 이주해 왔으나 889년, 하자르 칸국에게 패배하고 서진하여 현재의 몰다비아 지역에 정착한다. 이들은 슬라브족과 불가르족, 마자르족에 대항하는 동로마 제국의 용병으로 쓰였고, 이후 하자르 족이 쇠퇴하자 다시

동쪽으로 영역을 넓혀 10세기~11세기 말까지 흑해 북안의 넓은 스텝 지역을 영유했다.

10세기 말~11세기 초에는 키예프 공국의 남진을 저지하고 왈라키아와 흑해 이북을 잇는 통로를 확보하기까지 했다. 11세기 초반 드네프르강 하류를 빼앗기기도 했지만, 통행권을 인정받아 민족의 동서 분단은 피했다. 동로마 제국과의 충돌은 황제 바실리오스 2세가 숙적이자 북방의 완충지대인 불가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스트로스강 국경을 수복하면서 피할 수 없게 되었는데, 1020년대부터 크고 작은 분쟁을 겪던 양국은 1040년대부터 1120년대까지 로마-페체네크 전쟁이라 불리는 대전쟁을 벌이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체네그인

● 다국어 표기 Печенеги(불가리아어/러시아어), Πατζινάκου/Πετσενέγοι(그리스어), Besenyő(헝가리어), Pacinacae(라틴어), Peçenekler(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페체네크족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7807&cid=40942&categoryId=31642>

● 참고문헌(오프라인)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I H173 | 페탈리 카차르 뤼가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서적 ● 유형 소분류2 사전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FETH-ALİ KACAR LÛGATI

페탈리 카차르 뤼가트는 19세기 이란에서 작성된 차가타이 사전 중 가장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사전이다. 이 사전은 페탈리 카차르 카즈비니(Fethali Kaçar Kazvini)에 의해서 1862년 작성된 페르시아-튀르키예어 사전이다.

사전의 서론 부분에서 저자는 아제르바이잔어와 차가타이 투르크어를 비교하여 문법적인 비교 연구를 시도했으며, 그는 아제르바이잔어의 1/10은 차가타이 투르크어와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놓는다.

사전은 특히 저자가 인용한 자료들에서 그 가치가 높게 평가받는데, 초기에 카즈비니가 일리 세르 나비이(Ali şer navoi) 작품을 인용하기로 했으나, 이후 뤼트피(Lutfi), 미르 하이다르(Mir Haydar), 우베이둘라 한(Ubeydullah Han), 푸줄리(Fuzuli), 몰라 사피(Molla Safi) 등의 작품들을 인용함으로써 더욱 다양한 표현들을 수록할 수 있었다. 그는 특히 어휘 수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두 개의 판본이 전해지지만, 페탈리 카차르 뤼가트는 따로 출판되지는 않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탈리 카차르 사전
- 다국어 표기 FETH-ALİ KACAR LÛGAT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hmet Caferoğlu. *Türk Dili Tarihi*, İstanbul. 1974. pp.224~225.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Ercilasun, A. B.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Türk dili tarihi* (Vol. 603). Akçağ. 2004.

I H174 | 페툴라흐 귈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인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Fettullah Gülen

페툴라흐 귈렌(Fethullah Gülen: 1941년 4월 27일~)은 튀르키예의 유명 교육자이자 이슬람 사상가이다. 그는 사회교육운동인 히즈메트운동(Hizmet Hareketi)을 이끌어 왔는데, 여기서 히즈메트(Hizmet)는 튀르키예어로 봉사를 뜻한다. 귈렌운동(Gülen movement)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이슬람 종교 율법과 민주주의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 히즈메트운동은 국내외의 수백만 명이 기부한 자금으로 학교와 싱크탱크 등을 운영하며 인재를 양성해 왔다. 이 운동은 20세기 초 튀르키예의 낙쉬반디계 종교 지도자였던 사이드 누르시(Said Nursi: 1873년~1960년)의 명저 『리살레이 누르 쿨리아트(Risale-i Nur Külliyatı: 빛의 신서)』에서 영향을 받



페툴라흐 귄렌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아 통상 누르주운동(The Nurcu Movement)이라고도 불린다.

페툴라흐 귄렌을 중심으로 하는 누르주 공동체의 조직 체계는 매우 위계적이며 그들이 표방하는 자유주의적, 관용주의적 노선과는 달리 비민주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슬람운동을 이끄는 최고의 위치에 있고 위계질서는 최상부에서 최하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아비레르(Abiler: 형들)'를 통해 유지되어 왔다.

그는 오랜 경력, 정치적 행동주의 및 튀르키예 중앙 정당과의 관계로 유명 인사가 되었으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 정의개발당(AKP)을 창당하고 총선 승리를 이끄는 과정에서 귄렌의 도움을 받

았다. 튀르키예의 온건 이슬람 사상가인 귄렌은 2008년 미국 <포린 폴리시>의 '세계의 지성 100인 인터넷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고, 2013년 <타임> '세계의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는 적어도 2013년까지는 현 튀르키예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과는 동맹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2013년 부패 혐의 수사 이후 양자 간의 관계는 나빠지기 시작했고,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은 히즈메트운동을 정부 전복을 꾀하는 페툴라주의 테러 조직(FETO)으로 규정하고 탄압해 왔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6년 7월 19일 발생한 쿠데타의 배후로 페툴라흐 귄렌을 지목했다. 이후 튀르키예 군사 쿠데타 진압 후 히즈메트운동 관련 교육 기관을 폐쇄하고 교사들의 자격을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페툴라흐 귄렌은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툴라 귄렌
- 다국어 표기 Fethullah Güle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정의개발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fgulen.com/kr/>
- 참고문헌(오프라인) David Tittensor. *The House of Service: The Gülen Movement and Islam's Third Way*.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 M. Hakan Yavuz. *Toward an Islamic Enlightenment: The Gülen Movement*.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M Hakan Yavuz & Bayram Balci. *Turkey's July 15th Coup: What Happened and Why*. Utah Series in Middle East Studies.

University of Utah Press. 2018.

우덕찬. 터키 이슬람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 2005.

I H175 | 펠리오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프랑스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Pelliot

프랑스의 동양학자 폴 펠리오(Paul Pelliot)는 파리에서 출생하고 사망했다. 베트남 하노이의 프랑스 극동학원 교수를 거쳐(1901년), 1906~1909년에 중앙아시아 각지를 답사했다. 의사 겸 측량사 바 이양(Louis Vaillant), 사진사 누에트(Charles Nouette)를 데리고 1906년~1908년에는 카슈가르에서 복도를 거쳐 투므슈크(토포스 사라이) 및 쿠차(두르두르 아쿠르, 스바시)의 불사지(佛寺址)를 발굴·조사하고, 소상(塑像), 목조, 벽화 단편과 문서류를 입수했으며, 키질, 쿵투라 등의 석굴 사원 내부를 촬영했다.



펠리오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1907년 말 투르판에서 돈황(敦煌) 문서 발견의 소식을 접하자 그곳으로 급히 이동하여 장경동(藏經洞)에서 주요한 문서 5000여 점을 가려 뽑아, 회화류 약 200점과 함께 입수했다. 1909년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콜레주드 프랑스의 교수가 되었다.

그후는 문헌에 의한 연구나 발표를 했고, 동양학 연구에 광범위한 업적을 남겼으며, 중앙아시아 조사에 대한 상세한 현지 메모나 사진은 미간행된 채 남아 있다가, 1961년부터 편찬과 간행(Mission Pelliot en Asie Centrale(중앙 아시아에서의 펠리오 조사대) 12 Vols. 중 7 Vols)을 시작했다.

펠리오가 남긴 문서류는 파리 국립도서관에, 회화·조각 등은 파리의 기메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특히 돈황[敦煌]의 천불동(千佛洞)에서 수많은 고문서·사본·목간,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수

집했다. 그가 찾아낸 고문서 중에는 신라의 승려 혜초(慧超)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도 있었다. 원전은 3권이었으나 발견된 것은 그것을 요약한 이른바 약출본(略出本)이었는데, 이것마저 중권에서 하권에 걸친 내용이었고, 앞뒤 부분은 결질(缺帙)된 것이었다. 귀국 후 프랑스 학원의 교수, 이어 학사원 회원이 되었다.

그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말에 능통했으며, 많은 논문 이외에 주요 저서로 『돈황 천불동(6권, 1920~1926)』, 『중앙아시아에서의 펠리오의 사명(1924)』, 『마르코 폴로(4권, 1938, A.C.Moule와 共著)』가 있고, 사후에 『원조비사(元朝秘史, 1949)』, 『성무친정록역주(聖武親征錄譯註, 1951, 앵비스와 공저)』 등과 그외에 많은 저서를 출판했다. 그는 중국학의 위대한 학자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의 소장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파리동양박물관(Musée Guimet)에는 그의 이름을 딴 갤러리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폴 펠리오

● 다국어 표기 伯希和(중국어), Pelliot(영어)

● 연관 검색어 돈황, 마르코 폴로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7900&cid=40942&categoryId=34440>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미술사 대사전 인명편, 펠리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68998&cid=42636&categoryId=42636>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펠리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57900&cid=40942&categoryId=34440>

● 참고문헌(오프라인) Hopkirk, Peter. *Foreign Devils on the Silk Road: The Search for the Lost Cities and Treasures of Chinese Central Asia*. Amhers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0.

I H176 | 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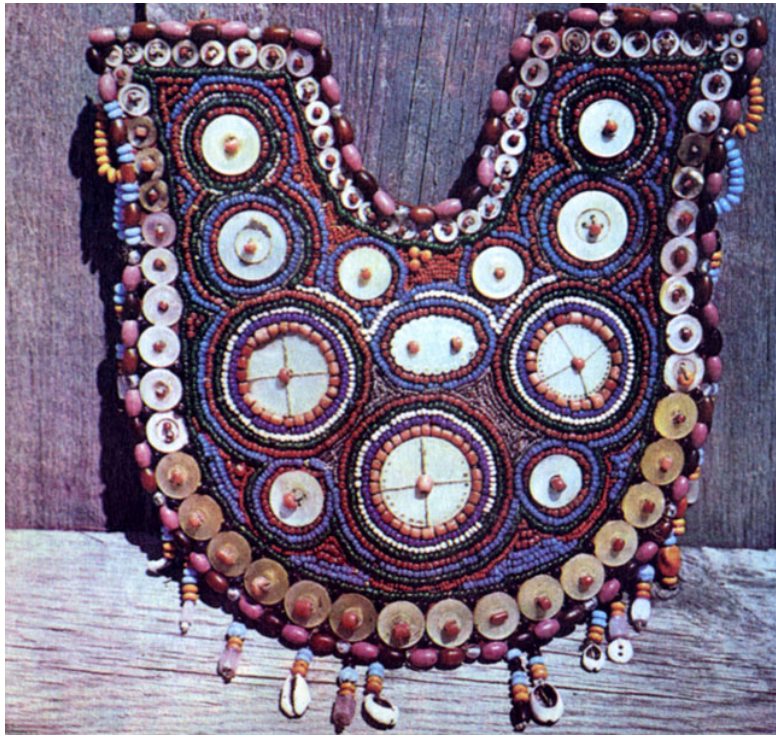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Pogho

하카스 여성들은 결혼식 전에 자신의 딸들을 위해 구슬, 조개 등 다양한 물건들을 꿰어 ‘포고’를 만들고 전통 의상의 가슴 부분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반달 모양이나 초승달 모양을 하고 있는 이 포고의 가장자리에는 은화 또는 구슬 등이 매달려 있다.

포고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기원은 기원전 3000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것은 오쿠네프 시대의 하카스 대초원에 세워진 거대한 석상에서 하카스 포고와 유사한 장식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카스의 고대 영웅서사시에는 “금으로 만든 포고는 달과 같이 빛나며, 은으로 만든 포고는 해처럼 빛난다(Altınnañ itken poğozı ayğa çastal turadır, kümüsteñ itken poğozı künge sustal turadır)”라는 문구가 전해지는데, 이는 하카스인들의 포고 문화가 적어도 청동기 시대부터 하카스 땅에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백산호는 포고를 만드는 데 자주 사용되었는데, 초승달, 반달, 말굽 또는 말발굽의 모양으로 제작이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백산호 이외에도 하카스어로 타나(Tana)라 불리는 자개 조각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포고에 수놓아진 자개들의 숫자는 홀수여야만 하며, 일반적으로 3개에서 9개의 자개들이 발견된다.

포고는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전환기인 결혼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단계와 관련이 있는 장식품이다. 일반적으로 포고는 신부를 신랑의 마을로 데려갈 때, 신부 또는 신랑의 어머니와 같이 가장 가까운 친인척 여성들이 결혼식에 입기 위해 만든 의복의 장식품으로 사용된다.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선발된 그룹의 책임자 역할을 맡은 여성은 자녀가 많고, 좋은 집안 출신임을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수단으로서 특별한 전통 의상을 입는다. 특별한 사명을 안고 신부의 집으로 출발하는 신랑의 친인척 여성들은 왼쪽과 오른쪽에 대칭적으로 포고로 수놓아진 전통 의상을 입으며 긴 챙이 있는 모자를 쓴다. 포고가 달려 있는 전통 의상 위에는 세게데크(Segedek)라고 알려진 민소매 조끼를 입는다.



포고

Source: <https://centr-kadisheva.ru/wp-content/uploads/203.jpg>

포고는 하카스인들에게 가족과 부족의 행복을 상징하는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움직임에 모티브로 한다는 해석과 함께 다산 숭배와도 관련이 있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은 포고가 고대 시베리아 종교인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사실 포고와 관련된 전통은 출산과 관련이 있는 여신 우마이(Umay)의 숭배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소비에트 시절 당시 잊혀졌던 포고 문화는 21세기 하카스인들 사이에서 다시금 유행하게 되었다. 오늘날 하카스 여성들은 결혼식 외에도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 포고를 착용한다. 포고의 자개 부분이 수놓아지는 부분은 과거 가족으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이 판지로 만들어지고 천으로 덮여 있는 형태를 하고 있다. 게다가 19세기 하카스-미누스크 지역의 토착민인 하카스 여성들은 그들의 전통을 일부 변화시켜, 포고를 가슴 부분이 아닌 가슴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장식하여 착용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포오

● 다국어 표기 Poĝo/Поғо(하카스어), Поро(러시아어), Poĝo(튀르키예어), Pogho(영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В. Я. Бутанаев. Хакасско-русский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Хоорай-орыс тархын этнография с стігі). Абакан: УПП Хакасия, 1999.

В. Я. Бутанаев. «Любимые паряды». Сокровища культуры Хакасии / сост. И. Л. Кызласов, А. М. Тарунов. – М., Научн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изд. Центр. 2008.

Кидиекова, И. К. «Пого».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2. Абакан: ООО Поликор. С. 51. 2008.

Okutan, N. Hakasya'daki Kutsal Kaya İdoller Bağlamında "Ulug Hurtuyah Tas" İle İlgili İnançsal Pratikler. *I. Uluslararası Türk Dili ve Edebiyatı Öğrenci Sempozyumu (OTUDES) Bildiri Kitabı*çinde, Ordu: Ordu Üniversitesi, 2017, ss. 219~228.

I H177 I 포르바진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Por Bazhyn

포르바진은 1891년 코사크 탐험대인 클레멘츠(D.A.Klements)가 발견한 남시베리아의 투바 공화국에서 발견된 성터로, 위구르 제국 시절 만들어진 궁궐로 추정된다. 포르바진은 비이켄(Biy Khem)강과 카아 켄(Kaa Khem)강은 도달하기 어려운 투바 동부 지역의 토자(Todzha) 및 쿤귀르튀크(Küngürtük)에서 시작하여 울룩 켄(Ulug Khem), 예니세이강까지 이어진다. 아자스(Azas) 호수가 토자의 중심부에 있다면 쿤귀르튀크의 한가운데에는 퇴레 호수가 위치한다. 이 호수의 남서쪽에는 중세 중요 역사적 기념물 중 하나인 포르바진 성터가 남아 있다.

포르바진은 투바어로 ‘흙으로 만든 집’을 의미한다. 이 성벽의 기반부의 벽 두께는 9m에 이르지만 정상부는 1m의 두께를 갖는다. 3.5헥타르의 면적에 넓게 펼쳐진 성은 공중에서 봤을 때 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다. 길이 211m, 너비 158m의 성 외벽 동쪽에는 양쪽에 망루가 있는 성문이 존재했다. 특히 성벽 안쪽에는 북서쪽 성벽과 남쪽 성벽을 따라 26채의 직사각형 건물터가 남아 있다. 클레멘츠의 보르바진 발견 60년 후, 1957년과 1963년 바인스타인(Vainshtein)은 궁전 안뜰에 궁궐 건물로 추정되는 2개의 건물터와 함께 이들 문이 샤머니즘의 믿음에 따라 동



포르바진 성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학자들은 투바 영토에 위치한 이 복합단지는 8세기 중반 위구르 카간(El etmiş Bilge Kagan Moyan çor) 시대의 것이며 더불어 예니세이 키르기스 무역로 바로 옆에 위치한 이 성은 무역로를 통제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주장한다. 745년부터 예니세이 키르기스 칸국에 의해 멸망하는 840년까지 거의 한 세기 동안 중앙아시아 북부에서 패권을 장악했던 위구르인들의 통치 기간에 세워진 포르바진 요새와 함께 그 옆에 위치한 퇴레 호수는 수많은 샤먼 전설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포르바즌
- 다국어 표기 Por Bazhyň / Пор-Бажың(투바어), Por Bazhyn / Пор-Бажын(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илуновская, М., Семенов, В., «Дворец уйгуркого кагана». Сокровища культуры Тувы. Москва: Научно-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изд. Центр. 2006. С. 86~91.

I H178 | 폰다코 데이 투르치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탈리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상인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Fondaco dei Turchi

폰다코 데이 투르치(Fondaco dei Turchi)는 오스만 제국의 무슬림 상인들이 베네치아에 있을 때 묵었던 숙소이자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였고, '투르크인 여인숙'이라는 뜻이며, 이는 서유럽에서 오스만 무슬림 혹은 무슬림 일반을 투르크인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용어이다.

16세기 전반에는 오스만 무슬림 상인들이 베네치아에 무역을 하기 위해 오는 일이 많아졌고 이들은 주로 발칸반도에서 왔는데, 개인의 집이나 여관에 주로 묵었다. 그러나 오스만 제국과 베네치아 사이에 키프로스 점령, 레판토 해전 등 전쟁(1570년~1573년)이 일어나자 무슬림 상



폰다코 데이 투르치



폰다코 데이 투르치(복원 이전 모습)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인들은 베네치아에서 좀 더 안전한 공동 숙소를 이용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1575년 처음으로 리알토 시장 근처에 폰다코 데이 투르치가 만들어졌다. 이 건물에는 물 저장고와 작은 목욕탕, 창고 등이 같이 부설되었다.

이 건물 하나로는 베네치아에 온 모든 오스만 무슬림 상인들을 수용할 수 없었으므로 1621년 대운하에 면한 위치의 50개의 침실에 300명의 상인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건물을 베네치아 공화국이 빌려서 수리하여 두 번째의 폰다코 데이 투르치가 열리게 되었다. 마치 유대인 게토와 같이 폰다코 데이 투르치는 밤에는 문을 닫아 걸었고 기독교인 소년과 여성은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거주자들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으나 낮에는 베네치아 내의 다른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었다.

베네치아 당국은 페르시아 상인들도 무슬림이므로 폰다코 데이 투르치에 머물도록 하려고 했으나 페르시아인들은 이런 방침에 따르지 않았다. 베네치아 공화국이 소멸(1797년)한 이후에도 폰다코 데이 투르치에는 1838년까지 오스만 무슬림이 거주했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폰다코 데이 투르치
- 다국어 표기 Türk Han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레판토 해전
- 참고문헌(오프라인) Maria Pia Pedani. «Fondaco dei Turchi,»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pp.220~221.
Juergen Schulz. «Early Plans of the Fondaco dei Turchi» *Memoirs of the American Academy in Rome*, Vol. 42. 1997.
pp.149~159.

I H179 I 폴랏 봉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봉기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Pulat Khan's Revolution

폴랏 칸(Po'latxon, 재위: 1875년)의 본명은 이삭 하산 어글루(Ishaq Hasan oglu)이다. 히바 칸국의 후더요르 칸(Xudoyorxon, 재위: 1845년~1868년, 1863년~1875년)의 실정에 지친 사람들은 올림 칸(Olimxon, 재위: 1801년~1810년)의 손자였던 폴랏벡(Polatbek)에게 제위에 오르라고 설득했으나 폴랏벡은 거절했다. 그러자 이들은 타슈켄트로 와 이삭에게 그가 '폴랏 칸'의 이름으로 봉기를 하도록 설득했고, 이삭은 동의했다.

그는 칸으로 선언되었고, '폴랏 칸'으로써 봉기를 이끌게 된다. 다수의 부자와 군대, 심지어 후더요르 칸의 친척으로부터도 지원을 받게 되었다. 1875년 7월 22일, 후더요르 칸은 이 봉기를 피해 타슈켄트로 피난을 가게 되고, 나스릿딘벡(Nasriddinbek, 재위: 1875년~1876년)가 제위를 잇게 된다. 즉, 이 당시에는 두 명의 칸이 있는 셈이었다. 나스릿딘벡은 반러시아 지하드를 선포했다. 폴랏 칸은 자신의 군대를 투입하지는 않았지만, 지지를 호소했다. 압두라흐먼 어프터바치(Abdurahmon oftobachi)는 1875년 8월 7일 타슈켄트 남부 외곽에 약 10,000여 명의 군대를 조직하여 러시아와 전투를 벌이게 된다. 그 즉시 카우프만(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фон-Ка́уфман, 1818년~1882년)은 이에 맞설 군대를 파견했다.

1875년 벌어진 전쟁에서 압두라흐먼의 세력은 러시아와 치열하게 싸웠고, 세 번 러시아의 군

대를 패배시켰지만, 결국 수천 명의 코칸드 사망자를 남기며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나스릿딘벡은 러시아와 불평등 조약을 맺었으나, 코칸드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나스릿딘벡은 타슈켄트로 도망쳐야 했고, 폴랏 칸은 정식으로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압두라흐먼은 자신의 군대와 폴랏 칸의 군대를 합치게 되었다. 그러나 폴랏 칸은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패배하고 체포되어 1876년 3월 1일 마르길란(Margilan)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펠라트 칸 레블루션, 펠랏칸 코즈그얼러니

● 다국어 표기 Po'latxon qo'zg'oloni(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코칸드 칸국, 나스릿딘벡

● 참고문헌(오프라인)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Bababekov, H. N. "The khanates of Khiva and Kokand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khanates and with other powers.

Part Two: Ferghana and the khanate of Kokan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UNESCO, 2005. pp.71~82.

Dubovitskii, Victor. Khaydarbek Bababekov. "The Rise and Fall of the Kokand Khanate", *Ferghana Valley: the heart of Central Asia*, London: NewYork : Routledge. 2015. pp.29~68.

I H180 | 폴로스막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Polosmak N. V.

폴로스막(Polosmak N. V.)은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 지부 고고학연구소 수석 연구원이며, 러시아의 대표적인 스키타이 문화권의 파지리크 문화의 고분 및 몽골의 흉노 고분을 연구자이다.

그는 2,500년 전 알타이 산의 우코크 고원에 만들어진 아크 알라하 3유적을 발굴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 무덤에서는 잘 보존된 30세 가량의, 일명 얼음공주라고 불리는 여성 미라

가 완벽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이 유적뿐만 아니라 아크 알라하 1유적, 아크 알라하 5유적, 쿠티르 쿤타스 유적 등 스키타이 문화 중에서도 알타이에 위치한 파지리크 문화의 중요한 고분을 발굴하고 저서로 발표했다. 기원전 5세기의 스키타이 문화 중 알타이에 위치한 파지리크 문화에서 훼손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완벽한 미라를 바탕으로 많은 학문적 성과를 냈다. 아크 알라하 3유적은 무덤 구덩이 안에 나무로 만든 무덤 방과 그 내부에는 통나무 관을 넣고 무덤 구덩이를 돌로 채운 형태이다.

폴로스막의 2001년 저서는 한국에도 2016년에 『2500년 전 알타이 초원의 기마인』으로 번역되었다. 또한 몽골의 노용 올(러시아 명:노인 올라) 20호를 공동 발굴했는데, 깊이 18m로 노용 올에서 가장 깊은 무덤 중에 하나이다. 유적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무덤이다. 무덤은 소나무를 통으로 이용한 이중 무덤 방으로 완벽하게 짜여진 무덤이었으나 도굴된 흔적이 남아 있었다. 무덤에서는 말을 장식하는 은제 드리개 장식, 양탄자, 중국산 철기, 마차 등이 출토되어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차에 대해서는 그 연원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특히 노용 올 20호분에서 발굴된 카펫이 점토가 뒤엉킨 채 출토되어서 그 모습을 알 수 없었으나, 러시아에서 보존처리해서 카펫의 원형을 그나마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크 등 유적에서 출토된 많은 식물로 흉노 의복 연구에 큰 성과를 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폴로스마크

● 다국어 표기 Полосьмак Н. В. (러시아어), Polosmak N. V. (영어)

● 연관 검색어 스키타이, 카펫

● 참고문헌(오프라인) Полосьмак Н.В. Всадники Укока.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пресс. 336 с., 2001.

Полосьмак Н.В. «Стерегиущие золото грифы» (ак-алахинские курганы). Новосибирск: 125 с. 1994.

Полосьмак Н.В., Баркова Л.Л. Костюм и текстиль пазырыкцев Алтая (IV–III вв. до н.э.).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 232 с. 2005.

Полосьмак Н.В., Богданов Е.С. Ноин-улинская коллекция.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2006~2012 гг.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 176 с. 2016.

I H181 | 표토르 바실예비치 쿠르비제코프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hk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Pyotr Vasilyevich Kurbizhekov



표토르 바실예비치 쿠르비제코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하카스의 유명 민담꾼 표토르 바실예비치 쿠르비제코프는 1910년 11월 14일 러시아 예니세이 지방의 아친스크(Achinsk) 지역의 푸가라르(pugalar) 마을에서 태어나 1966년 9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20대 때부터 뛰어난 서사시와 민담 전달 능력으로 인하여 대중들에게 ‘eeliğ haycı-nımahçı(iyeli haycı-nımahçı/후두음으로 민요를 부르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갖춘 니마히예(정령신)로 주목받는다. 제2차 세계 대전 중 소련군 대열에서 전쟁에 참전하고 참전 용사로서 고국으로 돌아온 쿠르비제코프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투르크 샴니즘 영웅서사시를 민중들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학자들에 의하면 쿠르비제코프는 약 103개의 영웅서사시를 외울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특히 그는 하카스 민담꾼들 중 가장 풍부한 서사 레퍼토리를 가진 만담꾼으로서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투르크 민담 서사 방식의 풍부함과 서사시의 양식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다. 특히 쿠르비제코프는 후두음으로 민요를 불렀기에 일반 민담꾼과는 다른 운율적 그리고 선율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그가 하카스 전통 악기인 차트한(chathan)을 연주하며 읊었던 대부분의 서사시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카스 투르크 크즐 부족의 유명 만담꾼들로 부터 듣고 자란 것들이었다.

밤새도록 민담을 노래하며 청중들을 매혹시켰던 쿠르비제코프의 「알튼 아릭(Altın Arıç)», 「아이 후우즌(Ay Huucin)」은 1988년 모스크바에서 소련 인민 서사시(Epos narodov SSSR), 1997년에는 노보시비르스크의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민족들의 민속에 관한 기념기와 같은 학술적 자료로서 하카스어 그리고 러시아어로 출판되었다. 또한 그가 노래했던 24개의 서사시는 오늘날 영웅서사시로서 대부분 튀르키예어로도 번역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표트르 바실리예비취 쿠르비제코브
- 다국어 표기 Pyotr Vasilyevich Kurbizhekov / Пётр Васильевич Курбизеков(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ауногашева, В. Е. «Петр В. Курбизеков».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1. Абакан: ООО Поликор. 2007. с. 330.
Okutan Davletov, N., Davletov, T. B. “Şamandan Haycıya: Hakas Türklerinde Âşıklık Geleneği.” Âşık Sanatı Sempozyumu 2021 Hacı Bektâş-ı Velî Yılı Bildiriler Kitabı içinde. Nevşehir: Kapadokya Üniversitesi Yay. 2021, ss. 63~73.

I H182 | 푸아드 파샤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정치가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Fuad Paşa

푸아드 파샤(Fuad Paşa)는 탄지마트 개혁기 오스만 제국의 대재상으로 유명한 탄지마트 개혁 관료 중의 한 사람이다. 케체지자데 메흐메드 푸아드 파샤라고도 불리었다. 그는 시인 잇제트 몰라의 아들로 이스탄불에서 태어났다. 푸아드 파샤는 동료였던 메흐메드 에민 알리 파샤와 긴밀히 협조하여 탄지마트 후반기의 개혁을 이끌었고, 비무슬림과 열강에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논란이 컸던 1856년의 개혁 칙령을 기초했다. 그는 지방 행정 개혁, 국가 평의회(Şura-yı Devlet) 설치, 외국인에의 재산권 수여 등 개혁기의 많은 정책과 제도의 수립에 기여했고 탄지마트위원회, 법령 규정 최고위원회(Meclis-i Vala-yi Ahkam-ı Adliye)에서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고 감독했다.

푸아드 파샤는 14세까지 마드라사 교육을 받았으나 아버지가 중앙 아나톨리아의 시바스로 유배당하면서 학업을 중단했다. 아버지가 부재한 가운데 장학금을 얻어 군의(軍醫) 학교에 들어가 프랑수어를 배웠다. 졸업 후 그는 오스만군에 입대하여 트리폴리에서 군의관으로 봉직했다. 1837년 이스탄불로 돌아와 무스타파 레시드 파샤의 권유로 오스만 중앙 관부의 번역실에서 통역관이 되었다. 2년 후 수석 통역관이 되었고, 런던 대사관의 제1비서관이 되었으며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임시 특사로 파견되기도 했고, 궁정의 디완(Divan-ı Hümayun)의 통역관이



귀스타브 르 그레이가 그린 푸아드 파샤
Source: <http://expositions.bnf.fr/legray/images/3/102.jpg>

되었다. 1847년에는 레이쉴컷탑(서기장)의 조수 중의 하나로 매우 권위있는 직책인 아메드지(amedci)에 임명되었다.

그는 1848년 혁명 후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수천 명의 망명객들이 몰려 들었을 때 외교적 수완을 크게 발휘하여 오스만 제국을 대표하여 러시아의 차르를 직접 만나서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대한 상으로 니산의 임티야즈라는 훈장을 받았고, 1852년 외무장관으로 임명받은 후 1869년 사망할 때까지 이 직위에서 5차례 봉직했으며, 대재상으로 2회 봉직했다.

그는 탄지마트 후반기의 모든 중요한 사안들에서 큰 역할을 했으니, 예루살렘의 성지 문제, 크림 전쟁, 1856년 개혁칙령, 레바논 위기, 지폐 발행 문제 등등에서 모두 그러했다. 그는 술탄 압둘아지즈의 이집트 방문과 유럽 순방에 동행했으며, 술탄의 총애를 받았다.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은 바도 있다.

심장병으로 프랑스 니스에서 요양 중에 1869년 2월 12일 사망했고, 시신이 이스탄불로 운구되어 매장되었다. 탄지마트 개혁 관료로서의 그는 개혁과 외교를 통해 제국을 살리고자 노력했으며, 프랑스어 실력과 재담으로 많은 일화들이 남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푸아드 파샤
- 다국어 표기 Keçecizade Fuad Paş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메흐메드 에민 알리 파샤, 무스타파 레시드 파샤
- 참고문헌(오프라인) Ö. Faruk Bolukbaşı. "Fuad Pasha,"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225.
- Orhan F. Köprülü. "Fuad Paşa, Keçecizade,"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3. 1996. pp.202~205.

I H183 | 푸우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의복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Poos

푸우스는 하카스인들의 귀걸이의 일종으로 실로 연결되어 귀에 걸 수 있기도 하지만, 이마 양쪽 관자놀이 부근에 위치한 머리띠 혹은 양갈래로 땀은 머리에 부착할 수 있다. 고리 모양의 실 아래 부분에는 색동 구슬을 길게 꿰어 만들며 그 끝에는 은화 혹은 금화를 매어 매듭을 짓는다. 은화 혹은 금화의 끝에는 비단실로 만든 술을 연결하여 길게 늘어뜨린다. 푸우스를 양쪽에서 연결하는 일지르베(Ilcirbe)라 알려진 이 체인은 장신구 양쪽 고리를 잇는 역할을 하며, 구리 혹은 은으로 만들어진다.

하카스 하아스(Haas/Kachin) 부족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 반지와 귀걸이를 착용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고대 투르크 시대부터 투르크 남성들은 귀걸이를 착용하는 전통이 있었다. 고대 투르크 전사들의 무덤에서 다양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귀걸이들이 출토되는 것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해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세 시대의 흔한 패션 장신구 중 하나였던 남성들의 귀걸이 착용 문화가 19세기가 되어 사라지게 되고 현재에는 여성들만이 착용을 한다.



푸우스

Source: <https://shareslide.ru/img/thumb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푸으스, 푸스
- 다국어 표기 Poos(하카스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shareslide.ru/img/thumbs/6641eae5cee303ce16682c7f51ee1c72-800x.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Шибаева, Ю. А. Одежда хакасов. Сталинабад: Таджикский гос. ун-т им. В. И. Ленина. 1959. с. 74.

I H184 | 푸위 키르기스어

- 시기 기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Fuyu Kyrgyz

푸위 키르기스어는 중국 헤이룽장성 지방의 하얼빈 북서쪽(옛 만주) 치치하얼 시 푸위 현 우자쯔 촌과 치자쯔 촌에서 사용되는 푸위인들의 언어이다. 기록에 따르면 푸위인들의 조상들은 18세기 중반 알타이산맥 중가르 부근에서 현재 거주지로 강제 이주되었다. 푸위인들은 대부분 샤머니즘을 믿으며, 부분적으로는 라마교를 믿는다.

고대 키르기스인들의 언어로서 9세기~11세기에 사용되었다 추정하기로는 예니세이 키르기스어가 푸위 키르기스어의 전신이다. 언어적 측면에서 고대 키르기스어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는 푸위 키르기스어는 황색위구르어와 더불어 남부 시베리아 하카스어, 출름어, 쇼르어와 매우 비슷한 특징을 지닌다.

오늘날 푸위인들은 약 900여 명이 현존하고 있으며 70세 이상의 노년층 9명 정도만이 푸위 키르기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고, 50대의 경우 직접적인 대화는 할 수 없지만 언어를 듣고 이해를 하는 수준이며,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몽골어 혹은 중국어를 사용하기에 절멸 상태에 놓인 언어로 분류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푸유 키르기스어, 푸위 키르기즈어
- 다국어 표기 Fyū Kirgızc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하카스어, 출름어, 쇼르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Schönig, Claus. “Anmerkungen zum Fu-yü Kirgisischen”, *Laut, J-L./ M.Ölmez* (ed.) 1990. pp.317~348.

김주원 외. 『사라져가는 알타이 언어를 찾아서』. 태학사. 2008.

I H185 | 폴레흐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Pulekh

폴레흐는 추바시 신화의 선한 신으로 최상위 신 투라와 가장 가까운 존재이자 조력자인 정령이다. 투라가 지시하면 폴레흐는 투라의 이름으로 이를 실행한다. 그래서 폴레흐를 투라로 혼동하기도 한다. 투르크, 몽골, 만주어의 ‘분리, 구별하다’의 ‘폴(Пун)’이란 단어에 ‘-에흐’, ‘-체’ 어미가 덧붙여져 형성된 단어인데, 썸어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폴레흐는 투라의 명을 받아 다양한 일을 하는데,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영혼을 전달하는 일을 해서 ‘영혼을 주는(낭는)’ 폴레흐라고 불린다. 아이가 태어날 때 폴레흐가 아이의 이마에 누구와 결혼하는지, 어떻게 죽는지,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살지 등이 기록된 표시를 남긴다. 이 일을 끝내고 하늘로 되돌아가 투라에게 보고를 한다. 폴레흐는 억울한 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주며, 가축도 폴레흐가 보호해 준다. 어떤 머느리가 집에 올지 결정하는 것도 폴레흐의 소관이다.

폴레흐에게 바치는 제물은 ‘죽’, ‘비스킷’, ‘햇곡식으로 만든 빵’, ‘맥주’ 등이며 농촌 의례에서는 가축의 소산물을 제물로 삼기도 한다. 폴레흐는 가정을 갖고 있고, 아내는 하르판(Харпан) 또는 푸레흐 아마셰(пулех амаше)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풀렉

● 다국어 표기 пулех(러시아어), Пўлѣхсѣ(추바시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нтон Салмин. Система верований чувашей, Чебоксары. pp.28~29. 2004.

I H186 | 프레드리히 빌헬름 라들로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Friedrich Wilhelm Radloff



프레드리히 빌헬름 라들로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투르크학이 하나의 연구 분야로서 서서히 자리잡을 무렵, 프레드리히 빌헬름 라들로프는 1837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고대 투르크어와 관련된 문헌들이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기 시작되었고, 투르크학은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던 실정이었다.

1854년 17세가 되던 해에, 신학과 철학을 전공하기 위해 베를린 대학교 철학 학부에 등록했지만 그는 이후 전공을 문헌학으로 변경한다.

베를린 대학교는 훔볼트가 설립한 이후 1820년 저명한 지리학자 카를 리터(C. Ritter)가 합류하게 되면서 독일 최고의 연구 센터로 발전하게 된다. 이미 19세기부터 고전 문헌학 그리고 인도-유럽어 분야에서 연구가 시작되어 기초 학문으로서 그 기반이 마련되었던 베를린 대학교에서는 당시 언어 친족 관계, 우랄-알타이어 및 알타이어에 대한 이론 확립, 알타이어군에 속하는 개별 언어들에 대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라들로프는 이러한 교육 환경 속에서 당대 최고의 교수진들에게서 수학했다. 대학교 수학 당시 그는 비교 문법을 창안하고, 인도유럽어의 비교 문법을 쓴 프란츠 보프(F. Bopp)의 강의를 들었으며, 또한 언어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하이만 슈타인탈(H. Steinthal)에게 중국어 수업을 들었다. 또한 그는 튀르키예어, 몽골어, 만주어, 중국어, 히브리어, 아랍어 및 페르시아어 수업을 들은 바 있다. 라들로프는 동아시아 국가의 언어를 연구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갈 계획을 세우고, 러시아어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초기에 라들로프는 만주 통구스어를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이후 시베리아에 도착한 그는 투르크 민족의 언어, 역사, 문화 등을 연구 주제와 계획을 변경한다. 1858년 그는 예나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1859년부터 1871년까지 시베

리아에 머무르며 겨울에는 교사로, 여름에는 시베리아와 투르키스탄 지역에 사는 다양한 투르크 부족들로부터 언어, 문화, 역사 자료를 수집했다. 시대적 기술적인 어려움과 험난한 자연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12년동안 현장 조사를 통해 연구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모은다.

1872년부터 1884년 카잔에서 거주할 당시 그는 교육학, 철학 및 언어학 연구에 전념하며 무려 10편의 작품을 쓴다. 그는 또한 카타노프 표도르비치(Nikolay Fyodoroviç Katanov), 세르게이 말로프(Sergey Efimoviç Malov), 블라디미르트세프(Boris Yakovleviç Vladimirtsev)와 같은 학자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한 평생 투르크학의 설립과 발전에 기여한 라들로프는 1918년 5월 1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투르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며, 투르크학의 아버지, 러시아의 투르크학 창시자라 불린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Friedrich Wilhelm Radloff
- **다국어 표기** Василий Васильевич Рáдлов(러시아어), Vassili Vassilievitch Radlov(프랑스어), 瓦西里·拉德洛夫(중국어), Vasili Radlof(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세르게이 말로프
- **참고문헌(오프라인)** ALKAYA, E. “Friedrich Wilhelm Radloff”. *Bizimkülliye*, 18. 2017. pp.51~57.

I H187 | 프레베자 해전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전쟁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Battle of Preveza

프레베자(Preveza)해전은 지중해권의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1538년 9월 28일 그리스 이오니아해 프레베자(Preveza)에서 발생한 오스만 제국의 함대와 유럽 연합 함대간의 해전이다. 1537년 거대한 오스만 함대를 지휘하던 하이렛틴 바르바로사 파샤(Hayrettin Barbarossa Paşa)는 베네치아 공화국에 속해 있던 시로스(Syros) 아이기나(Aegina), 로스(Ios), 파로스



오스만 누리 파샤와 호브한네스 우메드 베흐자드가 그린 프레베자 해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Paros), 티노스(Tinos), 카르파토스(Karpathos), 카소스(Kasos), 낙소스(Naxos)와 같은 에게 해(Aegean Sea)와 이오니아 지역의 섬들을 점령했다.

그리고 베네치아의 괴뢰국가인 낙소스 공국(Duchy of Naxos, 이탈리아어: Ducato di Nasso)도 오스만 제국에 합병되었다. 그는 또 베네치아의 강력한 방어 거점인 코르푸(Corfu)를 포위하고, 남부 이탈리아에 있는 스페인의 거점인 칼라브리아(Calabrian) 해안을 약탈하여 파괴했다. 위협을 느낀 교황 바오로 3세는 1538년 2월 ‘신성 동맹’을 조직하는 데 성공했다.

이 동맹에는 교황령, 스페인, 제노바 공화국, 베네치아 공화국과 몰타 기사단이 참가해 하이렛틴 파샤에게 대항했다. 하이렛틴 파샤의 함대는 122척의 갤리선(galleys)과 갤리엇선(galliot)을 주력으로 하고 있었다. 신성 동맹의 함대는 302척의 함선(162척의 갤리와 갤리엇, 갤리엇보다 작은 140척의 푸스타)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주력인 갤리선 55척이 베네치아의 함대였고, 49척이 스페인, 27척이 교황령과 몰타 기사단 소속이었다. 황제 카를 5세를 섬기던 제노바의 제



프레베자 해전 기념비

독 안드레아 도리아(Andrea Doria)가 전군의 지휘권을 쥐고 있었다. 프레베자 해전은 오스만 제국 해군에 기독교 신성 동맹의 함대 전력을 동원해서 힘을 겨루었다는 측면에 볼 때, 훗날의 레판토 해전의 전주곡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스만 제국은 프레베자 해전에서의 승리로 1540년 10월 모레아(Morea)와 달마티아(Dalmatia)의 베네치아 영토와 베네치아령인 에게해와 이오니아해, 동아드리아해의 영토에 대한 주도권을 장악하는 조건으로 베네치아와 오스만 제국 사이의 평화 협정이 체결되었다. 신성 동맹 측에 가담한 세력 중 베네치아가 가장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베네치아는 프레베자 해전 패배 후 동지중해 지역에서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었고, 오스만 제국에 배상금으로 30만 두카토(Ducats)를 지불해야 했다. 오스만군은 프레베자의 승리와 그 후 1560년 제르바섬 해전(Battle of Djerba)에서 승리해 이를 저지하려는 두 지중해의 강대국 베네치아와 스페인을 격퇴할 수 있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프래베자 전투

● 다국어 표기 Battle of Preveza(영어)

● 연관 검색어

● 멀티미디어 링크 Battle of Preveza (1538) – An in-depth Analysis

프레베자 해전에 대한 다큐멘터리

<https://www.youtube.com/watch?v=QAME42prcGw>

● 참고문헌(오프라인) Abulafia, David. *The Great Sea: A Human History of the Mediterrane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Bradford, E. *Akdeniz-Bir Denizin Hikâyesi*. İstanbul: Köprü. 2013.

Gürkan, E. S. “The centre and the frontier: Ottoman cooperation with the North African corsairs in the sixteenth century”, *Turkish Historical Review* 1.

İnalçık, H. *The Ottoman Empire, the Classical Age, 1300~1600*. London: Phoenix. 1994.

우덕찬, 「16세기 오스만 제국과 지중해」, 『지중해지역연구』, 제22권, 제4호. 2020.

I H188 | 피끄흐의 서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이집트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itab Fi'l-Fıkh, Ziyâü'l-Ma'neviyye 'ale'l-Mukaddimeti'l-Gazneviyye

『피끄흐의 서』는 이슬람 율법 피끄흐를 킵차크 투르크어로 번역한 종교 번역서이다. 『피끄흐의 서』는 작품의 내용, 작가, 작품이 쓰여진 장소 등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마지막 페이지가 손실되었기 때문에 작품의 정보를 알 수 없지만, 책의 첫 장에 쓰여진 문구에 의해 『피끄흐의 서(Book of Fiqh)』로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의 연구 결과 작품의 원명이 『Kitab Fi'l-Fıkh, Ziyâü'l-Ma'neviyye 'ale'l-Mukaddimeti'l-Gazneviyye』로 밝혀졌으며, 작품은 이슬람 율법 피끄흐의 킵차크 투르크 번역본으로서 저자는 무함메드 b. 아흐메드 (eş-Şeyh el-imâm ebu'l-Bekâ' Muhammed b. Ahmed b. ez-Ziyâ' al-Kuresî el-Hanefî)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작품의 필사본은 총 266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140쪽까지 아랍어 6행, 킵차크 투르크

어 번역 6행으로 구성되며, 140쪽 이후부터는 각 7행의 아랍어, 킵차크 투르크어 번역으로 이루어진다.

순수 종교적인 주제만을 포함하는 『피끄흐의 서』에는 다른 종교서와 마찬가지로 이슬람의 파드(fard), 와집(wajib), 순나(sunnah)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기도의 조건, 종교인으로서의 의무, 순례의 미덕이 강조된다.

이 필사본은 현재 이스탄불 실레마니에 도서관 아야소피아 섹션 1360번으로 보관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킵타 피끄흐
- 다국어 표기 Kitab Fi'l-Fiqh(아랍어), Book of Fiqh(영어)
- 연관 검색어 킵차크 투르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SADYBEKOV, K. Peculiarities of Religious works written in Mameluke Kipchak Language, Mamluk Kipçak Türkçesi ile yazılmış dini Eserler ve özellikleri,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s' Education and Teaching, Germany, 2015, p.119~125.

I H189 | 피르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호칭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Pir

피르(Pir)는 ‘노인’, ‘경험이 많은 사람’ 등의 뜻이었던 페르시아어 피르(پیر)에서 파생된 단어로, 수피즘에서는 ‘입문자를 지도하는 사람’, ‘가이드’, ‘깨달음의 방향으로 안내해 주는 가이드’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런 용법은 9세기~10세기에 호라산 수피 집단과 니샤푸르의 말라마티야 집단에서 사용되기 시작되었다.

호라산 수피의 경우 11세기 이후 셰이크(Sheikh: 집단의 원로, 리더)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면서, 종종 셰이크와 피르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호라산 수피의 경우 특정 인물의 출신 지역 앞에 피르를 표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아흐멧 야사위(Ahmad Yasawi, 1093년

~1166년)을 ‘투르키스탄의 피르(pîr-i Turkistan)’로 부르기도 했다.

피르는 형이하적인 의미와 형이상적인 의미 모두 갖추고 있다. 형이하적으로는 ‘자신의 깨달음을 갖추어 입문자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이고 형이상적으로는 ‘신성한 축복과 신성을 관찰할 수 있으며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라는 의미이다.

종단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타리카트(Tarkiat)가 형성된 이후 피르는 제도적 의미를 갖게 된다. 즉, 타리카트의 설립자 또는 창시자에게 피르의 호칭을 붙이게 된다. 때때로, 일부 타리카트에서는 설립자가 아니더라도 타리카트의 전통이나 관습을 새롭게 정비한 사람에게도 피리-사니(pîr-i sâni)라고 부르기도 한다. 타리카트 창시자의 영묘가 있는 곳을 ‘피르의 집’, ‘피르의 안녕’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수피즘 이외의 영역에서는 장인(匠人)이나 각종 직업군의 첫 창시자를 피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피르는 정신적인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에서 첫 인류이자 첫 예언자인 아담은 농부들의 피르이고, 노아는 선원들의 피르, 다윗은 대장장이의 피르인 식이다. 각 분야의 장인들은 자신의 가게 앞에 그 직종의 피르의 이름을 걸어 두기도 했다.

피르는 수피즘 문학에서 다양한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으며, 이슬람 이외의 기독교나 조로아스터교의 수도승과 같은 이들에게 붙이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피리

● 다국어 표기 Pir(우즈베크어), Pîr(튀르키예어), Пи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호자, 데데

● 참고문헌(오프라인) Arpağuş, Sâfi. “Pîr”.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4, İstanbul: TDV. 2007. pp.272~273.

Uludağ, Süleyman. *Tasavvuf Terimleri Sözlüğü*. İstanbul. 1991. pp.384~385.

I H190 | 피르 술탄 압달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명칭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PİR SULTAN ABDAL

피르 술탄 압달은 알레비-벡타슈 전통에서 7대 소리꾼(오잔) 중 한 명이다. 압달은 민중의 사랑을 받는 여느 유명인들과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다양한 소문에 둘러싸여 살았다.

연구자 아슬란오을루(1984년)는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피르 술탄’ 또는 ‘피르 술탄 압달’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여섯 명의 오잔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민중들은 이우누스 엠레, 피르 술탄 압달, 카라자오을란(Karacaoğlan), 키프오을루(Köroğlu)와 같은 인물들을 신화화 했다. 영웅 신화로 탄생한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다. 민중들이 만들어 낸 피르 술탄과 그의 인생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피르 술탄 압달의 이름은 하이다르(Haydar)이다. 그는 시바스의 바나즈 마을에서 태어났다. 하이다르의 혈통은 기원이 예멘의 하즈레티 알리(Hazreti Ali)의 손자 중 제이넬 아비딘(Zeynel Abidin)까지 올라간다. 하이다르가 일곱 살이 되자 그는 초원 벌판에서 아버지가 키우는 양 떼에 풀을 먹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시바스에 있는 이을드즈 산에서 그는 양 떼를 몰다가 잠깐 졸았다. 꿈에 흰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나타났는데 한 손에는 우박을, 다른 손에는 사과를 들고 있었다. 하이다르는 우박을 마시고 사과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러다 할아버지의 주먹을 보게 되었는데 반짝거리는 초록색 점이 눈에 띄었다. 이 할아버지가 하즈 벡타쉬 벨리(Hacı Bektaş-ı Veli)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곧바로 예의를 갖춰 할아버지와 포옹을 하고, 손등에 입을 맞췄다. 그러자 하즈 벡타쉬는 하이다르에게 ‘피르 술탄’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이다르는 사즈 연주를 누구보다 잘하고 시를 훌륭하게 읊어서 하이다르가 죽어서도 유명세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후손들이 기억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애원했다. 하즈 벡타쉬는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이라고 말하고는 홀연히 하이다르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 후 피르 술탄은 점점 유명해졌고, 성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마침내 존중받고 사랑받는 피르가 되었다. 매주 금요일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의 집을 방문해 설교를 들었다. 압달을 찾아온 양들은 살이 쪼고, 혈빛고 굶주린 사람들은 모두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으며,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시바스(Sivas)와 하픽(Hafik) 사이에 있는 소푸라르(Sofular) 동네 출신인 ‘흐즈르(Hızır)’라는 자가 어느 날 피르 술탄의 소문을 듣고 바나스에 찾아와서 조언을 구했다. 훗날 파샤가 된 그는 처음에는 압달의 수발을 들다가 결국 수련생이 됐다. 흐즈르는 7년 동안 피르 곁에서 시중을 들면서 수양을 했다. 어느 날 말했다.

“피르님, 저를 공직에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피르 술탄은 흐즈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리고 말했다.

“흐즈르, 그렇게 하거라. 내가 기도해 주마. 그러면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게다. 파샤나 장관이 될 것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나를 죽이게 될 거다!”

흐즈르는 허락을 받고 이스탄불로 향했다. 파디샤의 궁에 입성했고 성장해 피르 술탄이 말한 대로 파샤가 되어 시바스 주지사로 임명받았다. 그러나 흐즈르는 갈수록 초심을 잃고 타락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로 부터 수탈을 일삼고, 지켜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기 시작했다. 명예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었다.

세월이 한참 지나 어느 날 흐즈르 파샤는 검은 눈썹이 있는 키프(Kör) 무프티에게 포고령을 쓰게 했다. “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면 혀를 자르고 사형에 처할 것이다.”

포고령은 마을 곳곳에 붙었고 왕을 언급할 수 없었다. 피르 술탄은 과거 자신의 제자가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듣고 한탄하면서 화를 냈다. 사람들도 흐즈르가 명령한 대로 따르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왕을 칭찬했고 흐즈르 파샤를 비난했다.

이 사실을 들은 흐즈르 파샤는 피르 술탄을 시바스에 있는 토성(土城)에 가뒀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과거 피르로 모셨던 분을 해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왕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시 세 편을 읊으면 용서하겠다고 알렸다. 피르 술탄은 사즈를 손에 쥐고 첫 번째 운을 뗐는데 왕을 언급했다. 그러자 듣고 있던 흐즈르 파샤는 성을 냈다. 그리고 피르 술탄에게 경고했다.

“피르님, 잘못된 연주를 하고 계시네요. 조심히 행동하세요. 시가 두 편 남았으니 신중하세요!”

피르 술탄은 말을 듣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시에서도 왕을 언급했다.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흐즈르 파샤를 쳐다봤다. 사람들은 말했다. “알레비 따위도 당신 말을 듣지 않는데 무

슨 파샤야!”

흐즈르 파샤는 버럭 화났다. 성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다시 저 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당장 목을 쳐라!”

피르 술탄의 목을 매달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즈르 파샤가 명령했다. 돌을 던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죄를 묻겠다고 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은 돌을 가져가 던졌으나 피르 술탄은 돌을 하나도 맞지 않았다.

절친이자 교단 친구인 알리 바바(Ali Baba)도 그곳에 있었다. 명령대로 돌을 던져야 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장미 한 송이를 피르 술탄을 향해 몰래 던졌다. 피르는 그런 알리 바바를 보고 말했다. 그래서 매우 슬펐고 다음 시를 읊었다.

피범벅이 된 잔인한 사건은
불쌍한 피꼬리처럼 나를 걱정시킨다
내 머리 위에 돌이 비처럼 쏟아진다
다 괜찮지만, 친구의 손길이 날 무너지게 한다
근경에 처해있을 때는 친구와 적이 명확하게 보인다
열 가지 걱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오십 가지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 목을 매달게 했다
내 목을 매달거나 나에게 돌맹이를 던지거나
나는 피르 술탄 압달이다. 목숨은 하늘의 뜻이다
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자비는 내리지 않는다
사람들 손에 있는 돌은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어쨌든 내 친구의 장미가 나를 괴롭힌다

피르 술탄이 이렇게 시를 읊자, “이 사람 여전히 음모를 꾸미는군!”이라고 파샤는 고함쳤다. 밧줄은 피르 술탄 목까지 내려왔다. 교수형이 실행된 다음 날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들었어요? 어제 저녁에 흐즈르 파샤가 피르 술탄을 교수형에....”



피르 술탄 압달이 살았던 바나즈 마을의 조각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듣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이 대답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코치히사르 길에 있는 세이페벨리에서 봤어요.”

바로 이어 또 다른 이는 피르 술탄을 말라티아에서, 다른 사람은 예니한 길에서, 또 다른 사람은 타브라 보아즈에서 보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놀라서 모두 일어나 교수대로 달려갔다. 가서 보니 교수대에는 피르 술탄의 겹옷만 걸려있을 뿐 피르는 없었다.

피르 술탄은 겨우겨우 호라산에 도착했다. 그리하여 왕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이후 호라산에서 에르데빌(Erdebil)로 갔고,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그곳에 묻혔다.

문헌 자료의 기록에 따르면 피르 술탄은 16세기에 살았다고 전한다. 시바스 주 이을드젤리 지역 츠르츠크 부차오에 속한 바나즈 마을에서 태어났고 이름은 하이다르이다. 시(詩)에 언급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으로 살았던 시대를 알 수 있는데, 하이다르가 살았던 삶과 관련된 역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행 시 중 하나는 사파비 제국의 타흐마스프(Tahmasp, 1524년~1576년) 시대에 카누니 술탄 쉴레이만(Kanuni Sultan Süleyman, 1520년~1576년)이 이란과 전쟁을 시작하며 바그다드와 바스라를 정복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피르 술탄 압달의 시와 예술은 알레비-벵타슈 종파의 사상과 신념을 받아들이고 전도하는 것이 목표였으며, 사랑이 주요 주제였다. 그는 신앙과 믿음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고자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전쟁을 치르듯 살아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굴하지 않고 묵묵히 삶을 개척해 나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피르 술탄 압달, 피르 술탄 아브달

● 다국어 표기 PİR SULTAN ABDAL(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 Ensar, *Türk Halk Edebiyatı*, Maya Akademi Yayınları, Ankara, 2008.

Aslanoğlu İbrahim, *Pir Sultan Abdallar*. ErmanYayınevi, İstanbul, 1984.

Başgöz İlhan, İzahlı Türk Halk Edebiyatı Antolojisi, AraratYayınevi, İstanbul, 1968.

Bayrak Mehmet, *Pir Sultan Abdal*, Yorum Yayınları, Ankara, 1986.

Bezirci Asım, *Pir Sultan Abdal*, 2. Basım. SayYayınları, İstanbul, 1992.

Ergüven Abdullah Rıza, *Türk Halk Yazını*, YabaYayınları, Ankara, 1993.

Eyuboğlu İsmet Zeki, *Alevi-Bektaşî Edebiyatı*, DerYayınları, İstanbul, 1991.

Turan Metin, *Türk Halk Edebiyatı*, Anadolu Üniversitesi Yayınları, Eskişehir, 1993.

I H191 | 피르와 지아렛가흐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유적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Pir and shiyaratgah

지야라(Ziyara) 또는 지야라트(Ziyarat)는 아랍어의 ‘방문하다’의 지야르(زى)에서 기원한 단어로 성지나 종교적으로 중요한 인물의 무덤, 영묘 등을 순례 또는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제르바이잔어로 피르(pir)와 지아렛가흐(ziyaratgah)는 성인의 묘소나 거주지와 같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일종의 사원을 의미하며 앞서 언급한 자야라를 행하는 곳이다. 피르와 지아렛가흐 외에도 이맘자대(İmamzadə)나 오작(ocaq)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유대교, 기독교에서 이슬람교, 소련의 무신론 정책까지 있었던 아제르바이잔을 비롯한 카프카스 지역의 피르와 자야렛가흐에는 다양한 신앙의 흔적이 남아 있다. 소련 통치 시대의 무신론 정책에도 불구하고 피르와 지아렛가흐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며,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현대 아제르바이잔에서 피르와 지아렛가흐의 방문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피르와 지아렛가흐는 제도화된 종교 인프라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편이며, 비공식적인 관리인, 일반인,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성들에 의해 관리된다.

아제르바이잔의 유명 지아렛가흐 중 에스하비-캐흐프 지아렛가흐는 나흐츠반 시(Naxçıvan şəhəri)에서 약 12km 떨어진 일산다그(İlandağ)와 내해지르산(Nəhəcir dağı) 사이의 천연 동굴에 위치해 있다. 에스하비-캐흐프(Əshabi-Kəhf)는 아랍어로 ‘동굴 사람들’을 뜻한다. 코란을 포함한 고대 종교 문헌에 동명의 장소가 소아시아나 팔레스타인에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코란의 ‘에스합(Əshab, 동굴)’ 수라에 기록된 전설에 따르면, 젊은 무슬림들이 박해를 피해 개와 함께 동굴에 숨었다. 알라께서 그들을 잠재우시고 몇백 년 후에 깨우셨지만, 젊은이들은 새로운 시대의 세계가 낫설었기에 이 이상한 세상을 보고 영원히 잠들었다고 한다.

또 다른 지아렛가흐 중 미르뫼브썸 아가 지아렛가흐(Mirmövsüm ağa ziyaratgahı)는 바쿠의 쉬벨란(Şüvəlan) 마을에 위치한다. 미르뫼빅크 아가 미라부탈르브의 아들 미르뫼브썸자대대(Mirböyük Ağa Mirabutalıb oğlu Mirmövsümzadə)의 이름을 땄다. 그의 아버지 미라부탈르브(Mirabutalıb)는 제7대 이맘 무세이 카즘(Musa əl-Kazım, 745년~799년)의 후손이



태재피르 모스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라고 한다. 그의 아들 중 하나인 미르되브쉽 아가는 1883년에 이채리새해르(İçəri şəhər, 바쿠 시내 구시가지)에서 태어났으나 병약했기에, 그의 여동생인 퀴채 새키네 하눔(Qönçə-Səkinə xanım)이 미혼의 몸으로 평생 동생을 돌봐줬다. 이런 여동생의 사망을 견딜 수 없었던 미르되브쉽 아가는 얼마 지나지 않아 1950년에 사망했다고 한다. 이곳은 아제르바이잔의 순례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 중 하나이다.

겐제 이맘자대시(Gəncə imamzadəsi)는 8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영묘 지붕이 푸른색 타일로 덮여 있기에 괴이 이맘 영묘(Göy imam türbəsi, 파란 이맘 묘)라고 부르기도 한다. 복합단지의 핵심을 이루는 이 영묘는 17세기경에 지야랏가흐의 형태로 변했고, 이후 주변에 다른 종교적인 건물들이 세워졌다.

이 외에도 아제르바이잔 내 유명 지야렛가흐는 다음과 같다.

- 태재피르 모스크(Təzəpir məscidi)
- 비비헤이배트 모스크(Bibiheybət məscidi)
- 배르대 이맘자대시(Bərdə imamzadəsi)
- 흐즈르-진대 바바지야렛가흐(Xızır-Zində baba ziyaratgahı)
- 셰익 쥐네이드의 피르(Şeyx Cüneyd piri)
- 설탄 바바의 피르(Soltan baba piri)
- 세이드 애흐매드의 피르(Seyid Əhməd piri)
- 바바딜림 피르(Babadilim piri)
- 가라팔타르 피르(Qara paltar piri)
- 하나가의 피르(Xanağa piri)
- 세이드 재말렛딘의 피르(Seyid Cəmaləddin piri)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피르, 지야렛가흐

● 다국어 표기 Pir and shiyaratgah(영어), pirlər və ziyaratgahlar(튀르키예어), пиры и зиярагахы(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지야라트

● 참고문헌(온라인) http://www.azerbaijans.com/content_504_az.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Darieva, Ts. “Encountering Informal and Invisible Religious Diversity in Post-Soviet Azerbaijan”, *New Diversities*, Vol. 23, No. 2, 2. 2021. pp.11~25.

Zarcone, Tn. “ZIYARA-6.The Turkish lands, including the Balkans and Central Asia”, *Encyclopedia of Islam* VOL. XI (ed; P.J. Bearman, Th. Bianquis, C. E. Boswor th, E. Van Donzel And W.P. Heinrichs), Leiden; Brill. 2002. pp.534~535.

I H192 | 피리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화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Piry

피리(Piry)는 아나톨리아와 중앙아시아 투르크 민족 신화에 나오는 다양한 직업의 수호신들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피르’는 페르시아어로 ‘노인’이란 뜻이다. 직업의 수호자란 개념은 이슬람 이전의 전통에서 기원하며 튀르키예 신화에서 가장 많이 발달했다. 이슬람이 확립되면서 이슬람 신화의 많은 주인공들이 피리의 역할을 이어받았다.

중앙아시아에서 누흐(Нух)는 목수의 신이며, 다우드(Дауд)는 금속을 다루는 수공업의 신이고, 파티마(Фатима: 우즈베크인과 타지크인들의 비비 파티마 Биби Фатима, 투르크멘인들의 비비 파트마 Биби Патма, 키르기스인들의 바트마 주우라 Батма зуура)는 여성의 일을 수호하는 신이다. 둘둘 아타(Дюльдюль-ата)는 알라의 신격화된 말로, 투르크멘인의 말 사육의 수호신이다. 몇몇 피리는 이슬람 이전 지역신에서 기원한다. 암바르 오나(Амбар-она), 보보 데흐콘(Бобо-Дехкон), 코르크트(Коркут), 양 목축의 수호신인 아이무시(Аймуш), 큰 뿔가축의 수호신인 젠기 바바(Зенги-баба), 말 목축의 수호신인 질키시-아타(Жылкыши-ата) 등이 그것이다.

일련의 고대 수호신들은 그 기능을 이어받은 이슬람 신들에 의해 대체되었다.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에서 양 목축의 수호신들(우즈베크의 초판-아타, 카자흐의 쇼판-아타, 키르기스의 출폰-아타)은 투르크멘 신화에서 무사(Муса, 기독교의 모세)로 바뀌었다. 이슬람 신화의 하나의 등장 인물이 여러 지역에서는 다른 직업을 수호하는 신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수피즘에서 피리는 ‘노인-스승’을 의미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프리, 피뤼, 피르
- 다국어 표기 Пирь(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암바르 오나, 부르크트 바바, 우즈베크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окарев, С. А. Мифы народов мира. Большая Россий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II. 314. 1991.

I H193 | 피리 레이스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지도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Piri Reis

피리 레이스의 본명은 무히잇딘 이븐 하즈 메흐메드(Pirî Muhyiddin bin Hacı Mehmed)로 오스만 제국 갈리폴리에서 태어났다. 탄생 연도는 147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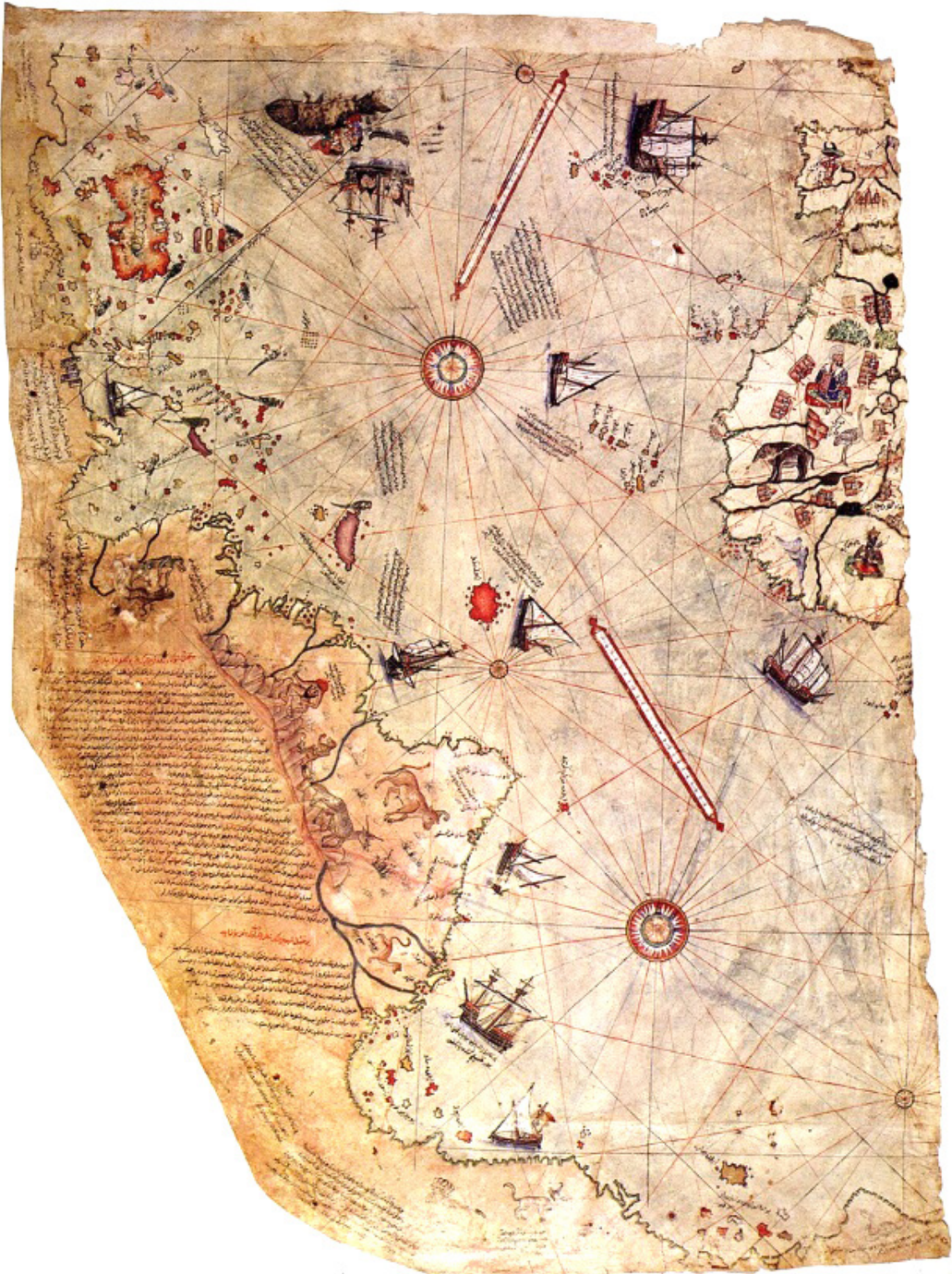
피리 레이스는 젊은 시절 삼촌인 케말 레이스(Kemal Reis, 1451년~1511년)와 함께 지중해 인근에서 1495년까지 해적으로 활동했다. 그의 해적 활동은 자신의 저서인 지도책 『바다의 책(Kitab-ı Bahriye)』에 기록되어 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이예지드 2세(II.Bayezid, 재위: 1481년~1512년)는 1495년 케말 레이스를 오스만 제국 함대의 함장으로 임명했고, 임명 당시에 피리 레이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케말 레이스는 1499년 하레메인 재단(Haremeyn vakfı)의 수입을 알렉산드리아로 운송하고, 1499년 2차 레판토 해전에는 피리 레이스도 참전했으며, 1500년 모든, 코론 정복, 1501년 필로스(나바린) 정복에서는 갤리선의 선장으로 참전했다. 이외에도 1504년 로도스 섬의 무슬림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한 케말 레이스의 원정, 1505년 트리폴리 에미르의 원조 요청으로 인한 원정, 1506년 북아프리카와 안달루시아에 있는 무슬림에 대한 보호 및 포르투갈과의 원정에도 참여했다. 케말 레이스는 1510년에 사망했다.

셀림 1세(I.Selim, 재위: 1512년~1520년)의 이집트 원정 동안 피리 레이스는 자페르 베이(Cafer Bey, ~1520년) 함대 휘하에서 선장으로 복무했다.

1513년, 피리 레이스는 최초의 세계 전도를 만들게 되었다. 현재까지 전해져 오는 이 지도의 일부분에서는 스페인, 포르투갈, 북아프리카 해안과 아메리카 동부 해안을 담고 있다. 이 지도를 1517년 셀림 1세에게 바쳤으며, 현재는 톱카프 궁전 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소장번호: 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Revan Köşkü, nr. 1633 mükerrer]

1521년 쉴레이만 1세(I. Süleyman, 재위: 1520년~1566년) 치세에서는 베오그라드 원정에 다뉴브 해군으로 복무했고, 1522년 로도스 원정에 참여했으며 1524년 하인 아흐메드 파샤(Hain Ahmed Paşa, ~1524년)의 반란 진압에도 참전했다. 피리 레이스는 이 진압 원정에 참



피리 레이스가 제작한 세계 지도, 1513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전한 대제상 파르갈르 이브라힘 파샤(Pargalı İbrahim Paşa, 재임: 1523년~1536년)와 만나게 되어 자신이 집필한 지리서 『바다의 책(Kitab-ı Bahriye)』을 그에게 보여 주었다. 지중해의 섬, 협곡, 연안, 해협, 만에 대한 정보를 비롯하여 항로 등을 자세하게 담은 책을 검토한 이브라힘 파샤는 피리 레이스에게 책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을 권했다. 그 권유를 받아들인 피리 레이스는 1526년 집필한 책의 두 번째 사본을 술탄에게 바쳤다. 또한, 1527년에 두 번째로 제작한 지도 역시 술탄에게 바친다. 이 지도에서는 대서양의 북쪽과 북중미 해안이 담겨 있다. 이 지도도 현재 톱카프 궁전 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소장 번호: Topkapı Sarayı Müzesi Kütüphanesi Hazine, nr. 1824]

피리 레이스는 갈리폴리에 위치한 조선소(Tersane)에서 장교로 복무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바르바로스 하이렛딘 파샤(Barbaros Hayreddin Paşa, 재임: 1534년~1546년)의 함대 휘하에서 복무하게 되었다. 1547년 피리 레이스는 인도양의 오스만 함대 사령관이 되었고, 이때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인도양의 유일한 오스만 기지인 아덴을 탈환하는 것이었다. 피리 레이스는 1549년 아덴을 탈환했다. 1552년 피리 레이스는 페르시아만 입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포르투갈의 주요 기지인 호르무즈 섬을 정복하기 위하여 수에즈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포르투갈 측의 거센 저항으로 인하여 호르무즈 정복에 실패하고 포위를 풀고 바스라로 후퇴했다. 피리 레이스의 이 후퇴가 적군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가이며, 호르무즈의 이슬람 교도들을 약탈했다는 루머가 퍼지게 된다. 1553년 피리 레이스는 호르무즈 전에서의 후퇴를 이유로 재판을 받고 사형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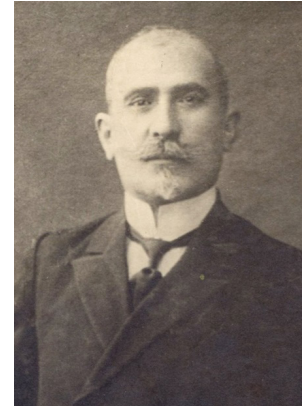
피리 레이스가 제작한 지도와 그가 집필한 서적은 당대의 역사, 지리 정보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피리 레이스
- 다국어 표기 Piri Reis(튀르키예어), Piri Reis(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바르바로스 하이렛딘
- 참고문헌(오프라인) Bostan, İdris. “PİRİ REİS”,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34, İstanbul: TDV. 2007. pp.283~285.
Soucek, Svat. *Studies in Ottoman Naval History and Maritime Geography*. Piscataway, NJ : Gorgias Press. 2011.

I H194 | 피리둔 배이 쿵채를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Firidun bəy Köçərli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문학평론가인 피리둔 배이 쿵채를리(Firidun bəy Köçərli)는 1863년 1월 26일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슈샤(Şuşa)에서 태어났다. 그는 중등 교육을 슈샤에서 받은 후, 조지아에 있는 고리 교원대학교(Qori Müəllimlər Seminariyası)를 졸업했다. 그는 교사 과정을 이수한 이후 잠시 이레완(İrəvan)에 있는 예레반 김나지움(İrəvan Gimnaziyası)과 고리 교대의 아제르바이잔어 학과에서 교사로 일했다. 그는 1918년에 고리 교사 과정(Teachers Seminary)의 투르크학과를 토대로 아제르바이잔에서 가자흐 교대(Azərbaycanda Qazax Müəllimlər Seminariyası)를 만들었다.



피리둔 배이 쿵채를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그는 아제르바이잔 민주공화국(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Milli Şura) 회원이었으며 독립 선언에 서명했다. 그는 문학 창작 활동을 고리 교대에서 공부하던 시절부터 시작했다. 그는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인 『리마티-소크라테스(Təlimati-Sokrat)』란 작품을 번역했다. 이 작품은 1891년에 크림반도의 바흐치사라이(Bağçasaray)라는 도시에서 출판됐다. 그의 문학 비평 작품 대부분은 계몽주의에 기반한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사를 체계화한 첫 연구자이다. 그가 러시아어로 쓴 『아제르바이잔 타타르인들의 문학(Azərbaycan tatarlarının ədəbiyyatı: Литература азербайджанских татар)』은 1903년에 티블리시에서 출판됐다. 이 작품은 아제르바이잔 문학사를 구성하는 기초 자료로써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작품의 다른 버전은 모국어인 아제르바이잔어로 1908년에 쓰여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인들의 문학(Azərbaycan türklərinin ədəbiyyatı)』이다. 이 연구는 국가 문학사의 풍경 전체를 조망한다. 그는 생애를 마칠 때까지 연구한 결과물을 출판하지 못했는데, 이 작품은 사후 1925년~1926년에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의 자료』

들(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materialları)』이라는 제목의 2권짜리 책으로 출판됐다. 이후 이 연구는 『아제르바이잔 문학(Azərbaycan ədəbiyyatı)』이라는 제목으로 독자들에게 공개됐다. 논문으로는 「타타르 희극(Tatar komediyaları)」, 「무슬림 교사들의 노력(Müsəlman müəllimlərinin hümməti)」, 「우리 문학에 관한 편지(Ədəbiyyatımıza dair məktub)」, 「아제르바이잔의 시인 와기프의 생애에 대해(Azərbaycan şairi Vaqifin həyatından)」, 「장인 제이날(Usta Zeynal)」, 「우리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움직이지 않는 탐욕(Həqiqi gözəllik və hərəkətsiz nisfimiz)」, 「모국어(Ana dili)」, 「우리의 국가 시인인 압바스 아가 가입자대(Milli şairimiz Abbas ağa Qaibzadə)」, 「술탄 매지드 개니자대(Sultan Məcid Qənzadə)」, 「니콜라이 바실예비츠 고골(Nikolay Vasilyeviç Qoqol)」,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과 무슬림 동양(Lev Nikolayeviç Tolstoy və müsəlman Şərqi)」 등이 있으며, 아제르바이잔 문학-미학계에서 소중한 연구로 평가받는다. 그의 논문 중 1911년에 발표된 「미르재 패탈리 아쿤도브(Mirzə Fətəli Axundov)」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현대문학 평론 논문으로 쓰여진 첫 작품 중 하나이다. 그는 또한 학생들을 위해 『아동들에게 선물(Balalara hədiyyə)』이라는 제목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출판하기도 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을 재점령하고자 했던 러시아 볼셰비키들에 반대하는 시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920년 5월에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피리둔 베이 쿵채를리

● 다국어 표기 Firidun bey Köçərli(튀르키예어), Фиридун-бек Кочарлинский(러시아어), Фиридун бэй Кочарли(타타르어), Firidun bay Kocharli(우즈베크어), Firidun bey Kocharli(투르크멘어), Firidun bəy Köçərli(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 XX-XXI yüz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Mikayıloğlu Pərixanım, *Firidun Bəy Köçərli*,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6.

Nəbiyev Bəkir, *Firudin bəy Köçərli*, Bakı: Gənclik nəşriyyatı, 1984.

Sultanlı Vaqif, *Azərbaycan Ədəbi Tənqidi*,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9.

I H195 | 피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Pitsen

피첸은 서시베리아 타타르 신화에 나오는 숲의 귀신이다. 비첸(бичен), 피찬(пичан), 페찬(печан), 피친(пицин), 엔(ен), 엔페리(енпери), 우르만 이야세(урман иясе)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행운을 가져다주지만, 깊은 숲 속으로 끌어들여 불행을 야기하기도 한다. 인간의 형상, 특히 긴 지팡이를 들고 배낭을 맨 단정한 노인의 모습이거나, 원숭이 같은 짐승의 형상을 하기도 한다. 피첸은 버려진 사냥꾼의 오두막에 살면서 말을 좋아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갈기를 형클어뜨리고 말 등에 역청을 바르곤 한다. 또 아름다운 여인의 형상을 하고서는 인간과 성관계를 맺기도 한다. 피첸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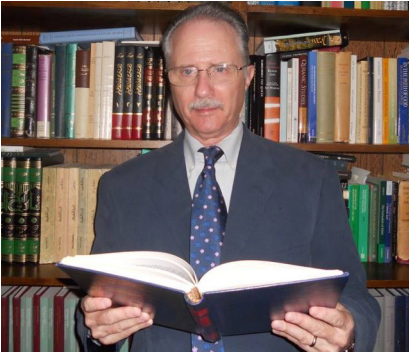
어느 날 사냥꾼이 숲에 들어가 피첸이 깃든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와 결혼을 하고 부자가 되었다. 그러다가 예정보다 이른 시간에 집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름다운 여인인 아내 대신 입에 송곳니가 튀어나온 괴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괴물은 산발한 머리에서 도마뱀을 꺼내 그것을 먹고 있었다. 사냥꾼은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질렀는데, 아내도 재물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다른 투르크 민족 신화에서 피첸은 추바시 신화의 아르수리(арсури)와, 카잔 타타르와 바시키르 신화의 슈랄레(шурале)에 상응한다. 토볼, 옴스크 타타르인에게는 피첸과 비슷한 존재로 털이 덩수룩하며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숲 사람’인 이이시-케세(ййш-кеше)가 있다. 이이시-케세는 숲을 지나가는 사람을 길을 잃게 만들어 그와 결혼하고, 밤마다 이이시-케세 귀신이 그 사람의 겨드랑이에 있는 구멍에서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피트첸
- 다국어 표기 Pitsen(아제르바이잔어), Пицен(러시아어), Pitse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슈랄레, 아르수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Валиев Ф. Т. О религиоз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ях западносибирских татар, в сб. Природа и человек в религиоз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ях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и Севера, Л. 1976, с. 320~329.

I H196 | 피터 골든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기타 ● 나라 미국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Peter B. Golden) ● 라틴 문자 Peter Benjamin Golden



피터 골든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피터 골든은 벨라루스(벨라루스(벨라루스))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 3세대였으며, 1941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교육자 집안은 아니었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가정 분위기 덕분에 어려서부터 러시아 대문호들의 문학 작품을 접할 수 있었다. 생산직 출신이었던 부모의 영향으로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근무하는 노동 환경에 자주 노출되어 어려서부터 많은 언어를 접할 수 있었는데, 이는 이후 그가 역사학을 전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는 예술가가 될 마음이 없었음에도 음악-예술고등학교(현재 피오렐로 H. 라가디아 예술고등학교: Fiorello H. LaGuardia High School of Music & Art and Performing Arts)에 진학하여 미술을 전공했는데,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예술고등학교가 더 나은 교육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퀸스 칼리지(Queens College)에서 역사를 전공했고, 1963년에는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여 당시 비잔틴-슬라브 연구의 대가였던 이호르 세브첸코(Ihor Ševčenko)의 지도로 공부한다. 그는 석사 과정 중 조지아어와 튀르키예어를 배웠으며, 캅카스 역사, 오스만 제국사, 중앙아시아사, 중세 아랍 역사 등을 수강한다. 석사 과정 도중 그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거주하며 앙카라 대학의 하산 에렌(Hasan Eren), 사아데트 차아타이(Saadet Çağatay), 제이넵 코르크마즈(Zeynep Korkmaz)에게 튀르키예어를 배운다. 튀르키예에서 돌아온 이후 그는 1968년 석사 학위를 제출했으며 그 이후 1970년에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했다. 이 논문은 후에 그의 첫 번째 책인 하자르 연구(Khazar Studies, 1980)로 출판되었다.

그는 1969년 가을 미국 뉴저지에 위치한 럿거스 대학에서 교편을 잡는다. 이후 1974년부터 1980년까지 역사학과장, 1983년부터 1985년까지는 역사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1989년 튀르

키에 국립국어원의 명예회원이 되었으며, 럿거스 대학교 연구원(1994년), 럿거스 대학교 우수 장학금에 대한 학장상(2005년), 튀르키예 대학 간 학생회 우수 장학금 수여(2005년), 역사 고등 학술연구의 회원(2005년~2006년), 헝가리의 오리엔탈 연구소(2009년)(the Csoma de Kőrös Society of Hungarian Orientalists)와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의 명예 회원(2019년)으로 선출되었다.

2008년에는 프랑스 파리의 대학에서 고대 투르크와 하자르 역사에 대한 강의를 위해 초청을 받았다. 그는 2008년~2011년에는 럿거스 대학과 뉴브런즈윅 대학의 학제간 전공/부전공인 중동 연구 프로그램(MESP)의 책임자로 재직했다. 그 이후 은퇴하여 역사, 및 중동 연구 명예교수(2009년 3월)로 임명되었으며, 현재는 MESP 이사로 근무 중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페터 골든
- 다국어 표기 Peter Benjamin Golden(영어)
- 연관 검색어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킵차크
- 참고문헌(오프라인) Peter, Golden. *The Cambridge History of Inner Asia: The Chinggisid Age*, co-edited with N. Di Cosmo, A.J. Frank, Cambridge: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I H197 | 하가니 쉬르바니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시인
- 유형 소분류2 디반 시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i)
- 라틴 문자 Khagani Shirvani

12세기 아제르바이잔의 저명한 시인인 하카니 쉬르바니(Xaqani Şirvani)는 1120년에 아제르바이잔의 도시인 샤마흐(Şamaxı) 근처에 있는 시골 마을 맬햄에서 태어났다. 그는 큰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당대의 여러 과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시 창작에 재능을 보였던 그는 쉬르반샤흐라르(Şirvanşahlar) 궁에 초청을 받은 후부터 큰 명성을 얻는다. 그러나 궁중 권력 암투의 결과로 체포된다. 그는 감옥에 있



하가니 쉬르바니 기념 우표(1997년, 아제르바이잔)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는 동안에도 굴하지 않고 「해브시예(Həbsiyyə)」라고 불리는 시(詩)를 썼고, 해당 시들에서 그는 사회에 만연한 부정행위와 도덕적 문제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후 그는 중동(中東)지방을 여행했으며, 여행 소감을 문학 작품으로 저술했다. 그는 샤마흐(Şamaxı) 궁의 억압적인 환경을 견딜 수 없어 메카(Məkkə)를 방문한 이후에는 다시는 샤마흐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타브리즈(Təbriz)에서 남은 여생을 보냈으며, 1199년에 그곳에서 사망했다. 그는 사망 후 타브리즈에 있는 매그배레튀스-쉬에라(Məqbərətüş-şüəra) 묘지에 묻혔다.

그의 작품 세계는 매우 풍부하다. 쉬르바니의 풍부한 문학적 유산은 1만 7,000여 베이트 서정시가 담긴 디반, 시 ‘퇴흐패툴-이라게인’, 60여통의 산문 편지 등이 있다. 그의 디

반 시들은 송시, 가잘, 찬미시, 애도시, 루바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회적이며, 철학적인 주제를 다룬 저작에는 『쉬니예(Şiniyyə)』, 『매다인의 파괴된 곳들(Mədain xərabələri)』, 『해브시예(Həbsiyyə)』, 『퇴흐패툴-이라게인(Töhfətul-İraqeyn)』 등이 포함된다. 그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자신의 메시지를 편지를 통해 전달했는데, 이 편지글들은 아제르바이잔 산문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의 전통에 따라 시인은 페르시아어로 작품들을 썼다. 그는 이슬람 과학에 정통했지만, 건조하고 딱딱한 언어 대신 달콤하고 매혹적인 시적 언어로 표현했다. 당대 과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사상을 작품 전체에서 암시했다. 때로 그의 작품에는 당시 독실하게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상이 드러나고 있으며, 시적 상징이 널리 쓰였다.

그의 시 『퇴흐패툴-이라게인(Töhfətul-İraqeyn, 1156)』은 아제르바이잔 문학의 첫 서간체 마스나비로 여겨지는데, 이 작품에서 그는 수많은 상징과 암시를 통해 자신이 처한 환경의 모순을 드러낸다. 마스나비 스타일로 저술된 이 작품은 아제르바이잔의 시 장르에서 저술된 첫 작품들 중에 하나다. 그는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동양 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서정시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가잘과 루바이는 아제르바이잔 시학의 최고 전통의 기초를 닦았다. 그의 작품에는 아제르바이잔 시학의 특징인 조국과 국가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 그의 『퇴흐패툴-이라게인』, 『쉬니예(Şiniyyə)』, 『매대인의 파괴된 곳들(Mədain xərabələri)』 등의 작품들은 후속 세대 작가들이 많은 모방작을 낸 작품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가니 쉬르가니, 시르가니
- **다국어 표기** Hakani Şirvani(튀르키예어), Хагани Ширвани(러시아어), لشروانی خاقانی¹(아랍어), شروانى خاقانى(페르시아어), Khaqani Shirvani(불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Həmid Araslı, *Xaqani Şirvani*,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82.
Kəndli Qafar, *Xaqani Şirvani: həyatı, dövrü və mihiti*, Bakı: Elm nəşriyyatı, 1988.
Səfərli Əlyar, Yusifli Xəlil, *Qədim və orta əsrlər Azərbaycan ədəbiyyatı*, Bakı: Ozan nəşriyyatı, 1998.
Səfərli Əlyar, Yusifli Xəlil, *Poet's of Shirvan*,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2.
Sultanov Məmmədəğa, *Xaqani Şirvani: həyatı və yaradıcılığı haqqında*, Bakı: Azərneşr, 1954.
Xaqani Şirvani, *Seçilmiş əsərləri*, Bakı: Lider nəşriyyatı, 2004.

I H198 | 하나피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법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Hanafi

하나피 학파는 수니파 이슬람 4대 법학과 중 하나로 이라크를 중심으로 동쪽 지역인 호라산과 트란스옥시아나 지역을 비롯하여 아나톨리아반도와 발칸반도, 인도 등지에 널리 퍼져 있으며, 중국, 만주, 일본, 아프가니스탄, 카프카스 지역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슬람을 믿는 투르크 민족의 대다수가 하나피 학파를 따르고 있다.

하나피 학파는 코란을 기초로, 코란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하디스를 통할 것을 근거로 하고, 합의(ijma), 유추(qiyas), 법률적 재량(istihsan), 관습(urf) 순으로 샤리아의 기초를 삼

는다. 또한, 합리적 추론 또는 상식을 통한 추론(Ra'y)을 중시한다.

하나피 학파의 탄생은 하나피 학파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아부 하니파(Abu Hanifa, 699년~767년) 탄생 이전 이라크 쿠파 지역에 성행했던 쿠파 학파(또는 이라크 학파)에서 기원을 찾는다. 쿠파 시를 중심으로 압둘라 이븐 마수드(Abdullah ibn Masud, 594년~653년)와 4대 칼리프 알리(Ali ibn Talib, 600년~661년)를 비롯하여 약 1,500여 명의 1세대 무슬림들은 꾸란과 하디스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했다. 사제 관계를 통해 전승되는 지식과 이즈마(Ijmā: 합의)를 중시하던 이들 학파는 쿠파 학파(또는 이라크 학파)로 불리며, 하디스(메디나) 학파의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쿠파 학파와 메디나를 중심으로 한 하디스 학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방법론과 원리적인 부분으로, 쿠파 학파는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하여 코란과 순나에 기반한 지식을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을 통해 텍스트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종교적 지식과 판단을 내린다는 점이였다. 이는 다양한 인종과 종교의 공존, 정치적 활동의 다양함, 페르시아와 그리스 문화에 친숙하여 학문에 대한 접근법이 풍부하고 익숙한 지역적 특성에 기인한다.

8세기 이후 아부 하니파와 그 제자들은 법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라크 학파의 유산들을 확장하고 검토하고 일부 동화하게 됨으로써, 이라크 학파는 하나피 학파의 기원으로 인정받는다. 아부 하니파 이후 그의 제자 아부 유스프(Abu Yusuf, 738년~798년)와 무함마드 알 샤이바니(Muhammad al-Shaybani, 749년~805년)는 아부 하니파의 가르침을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체계화시키고 전파시키는 데 크게 공헌했다.

1세대 무슬림들이 사망 후 하나피 학파는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확장되기 시작한다. 8세기 이후 우마이야 시대와 압바스 시대에는 제도를 갖춘 국가 수립이 필요했다. 새로운 국가에서 발생하는 논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안정을 확보하고, 사회 정의 확립 및 국가의 존립을 위한 전제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당시 국가의 현안이었기 때문에, 압바스 조에서는 아부 하니파와 그 제자들이 체계화한 이론을 이용했다. 제자들이 학파의 전파를 위하여 다른 국가로 가는 것 외에도 하룬 알 라쉬드(Harun al-Rashid, 재위: 786년~809년) 시대 이후 하나피 학파 출신의 재판관을 주로 임명하는 방식이 하나피 파가 공식화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 결과, 우마이야 시대 이후로 이라크, 이란, 호라산, 서부 투르키스탄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셀주크와 오스만 제국도 제국 내부에서 하나피 학파가 주류 학파로 채택되었으며, 그



아부 하니파 모스크 및 영묘(바그다드, 이라크)

로 인해 발칸반도에까지 하나피 학파가 퍼지게 되었다.

하나피 학파는 이슬람이 탄생한 아랍 사회의 주류적인 관습과 개념을 부분적으로 누르며 종교의 실제적인 측면을 이해함에 있어 추측과 추론을 중시한다. 이에 따라 아랍 사회와 환경과 문화적, 관습적 조건이 타 문화권에서 적용되기 어려울 때, 하나피 학파의 의견이 다른 문화권에서 채택되기 비교적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하나피 학파 전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이라크는 히자즈 지역으로 가는 관문이였기에 하나피 학파 확산에 더 유리했으며, 사원과 마드라사의 정기적인 학파 연구 모임의 활성화도 그 전파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나피파, 하네피파, 하나피 법학파
- 다국어 표기 Hanefilik(튀르키예어), Ханафи маънаби(카자흐어), Hənəfi məzhəbi(아제르바이잔어), Hanafiylik(우즈베

크어), Ханәфи мәзһәбе(타타르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ardakoğlu, Ali. "HANEFÎ MEZHEB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6, İstanbul: TDV. 2013. pp.1~21.

Heffening, W.-[J. SCHACHT], "HANAFIYYA", *Encyclopaedia of Islam* VOL. III (ed; B.LEWIS, V. L. MENAGE, CH. PELLAT, J. SCHACHT, Leiden; Brill, 1986, pp.162~164

I H199 | 하디스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Hadis

하디스(Hadis)는 코란, 합의(이즈마으), 유추(끼야스)와 함께 이슬람법의 4가지 법원(法源) 중 하나로, 예언자 무함마드가 말하고 행동하고, 말없이 인정한 것을 기록한 것을 가리킨다. 예언자 전승 내지 전통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하디스는 아랍어 명사로 우리가 하는 말(言)과 새롭다(新)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말은 말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새로운 것이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632년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이 예언자에 대해 말을 많이 했기에, 하디스는 처음에 예언자와 관련된 말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였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언자의 말을 가리키는 말로 정착했다. 하디스와 함께 자주 쓰는 말로 순나(Sunnah)가 있다. 순나는 이슬람 이전 시기에는 조상들의 관습을 의미했으나 이슬람 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언자의 관습을 뜻하게 되었다. 하디스가 예언자의 말이라면, 순나는 예언자의 말과 행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두 용어의 차이는 무의미해졌고, 모두 예언자의 말과 행동을 뜻하게 되었다. 다만 엄격히 구분할 경우 순나는 하디스에 있는 이슬람법(法)이나 가치를 가리킨다. 하디스가 반드시 순나를 내포하는 것은 아니다.

하디스는 크게 '예언자 하디스'와 '성(聖)스러운 하디스' 둘로 나뉜다. 예언자 하디스는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한 말이나 행동, 또는 묵인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주체가 예언자다. 반면 성스러운 하디스는 발화의 주어가 신이다. 하디스는 전승(이스나드)과 본문(마텐)으로 구성

된다. 전승은 예언자의 말을 전달한 사람들의 명단이고, 본문은 예언자가 한 말의 내용이다. 최초의 하디스는 예언자가 직접 구술한 포고문, 편지, 논술문에서 찾을 수 있다. 예언자의 초창기 동료, 추종자, 후대 사람들의 글(싸히파)에도 예언자의 말이 기록되었다. 최초의 중요한 하디스 모음집은 말리크 이븐 아나스(Malik ibn Anas, 711년~795년)의 『알무왓따』다. 법학과 관련된 하디스를 다루고 있다. 아부 다우드 앗타얄리시(Abu Daud al-Tayalisi, 751년~819년) 같은 학자들이 쓴 『알무스나드』라는 글도 하디스 모음집이다. 가장 유명한 것은 4대 수니 법학파 중 하나를 세운 아흐마드 이븐 한발(Ahmad ibn Hanbal, 875년 죽음)의 『무스나드』다. 하디스는 9세기에 본격적으로 책으로 편찬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수니 이슬람 세계에서는 6개의 하디스 모음집을, 시아 이슬람 세계에서는 4개의 하디스 모음집을 각각 6서(六書)와 4서(四書)로 부르면서 소중히 지켜왔다. 시아의 하디스 편찬 시기는 수니에 비해 약 1세기 느린 10세기다. 예언자의 언행, 묵인만을 하디스로 인정하는 수니와 달리 시아는 예언자뿐 아니라 예언자를 이어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끈 이맘의 언행까지도 하디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니보다 더 확장된 하디스 개념을 지니고 있다.

수니와 시아의 하디스는 다음과 같다. 수니의 육서: 6개의 올바른 책(앗씨하훗 싯타 al-sihah al-sittah) ① 아부 압둘라 알부카리(al-Bukhari, 870년 죽음)의 『자미으 앗싸히흐(Jami' al-Sahih)』. 약 7,397개 하디스. ② 아부 알후사인 무슬림 이븐 핫자즈 이븐 무슬림 알쿠샤이리 안나이사부리(al-Naysaburi, 817년~875년, 보통 무슬림이라고 부름)의 『싸히흐(Sahih)』. 약 10,000개의 하디스. ③ 아부 다우드 앗시지스타니(al-Sijistani, 888년 죽음)의 『수난(Sunan)』. 약 4,800개의 하디스. ④ 아부 압둘 라흐만 아흐마드 이븐 슈아이브 안나사이(al-Nasa'i, 915년 죽음)의 『수난(Sunan)』. 약 5,000개의 하디스. ⑤ 아부 이사 앗-티르미디(al-Tirmidhi, 825년~892년)의 『자미으(Jami')』. ⑥ 아부 압둘라 이븐 마자흐(Ibn Majah, 890년 죽음)의 『수난(Sunan)』. 약 4,341개의 하디스. 시아의 사서: 4권의 책(알쿠툽 알아르바아 al-Kutub al-Arba'ah) ① 아부 자으파르 무함마드 이븐 야으콕 알쿨라이니(al-Kulayni, 939년 죽음)의 『우쉴 알카피(Usul al-Kafi, 종교 지식의 총족)』. 약 16,199개의 하디스. ② 무함마드 이븐 바부야 알꿈미(al-Qummi, 991년 죽음)의 『만 라 야흐두루흐 파끼흐(Man La Yahduruh al-Faqih, 법학자가 방문하지 않는 자)』. 약 5,963개의 하디스. ③ 무함마드 앗투시(al-Tusi, 1066/7년 죽음)의 『키탱 알이스티브싸르(Kitab al-Istibsar, 논란이 되는 전승 점검)』. 약 5,511개의 하디스.

④ 무함마드 앓뚜시(al-Tusi, 1066/7년 죽음)의 『키타프 앓타흐딕(Kitab al-Tahdhib, 증명된 판결)』. 약 13,590개의 하디스.

● 다국어 표기 Hadith(아랍어), Hadis(튀르키예어), Hadis(우즈베크어), Hədis(아제르바이잔어), Хадис(카자흐어), Hadys(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샤리아, 무함마드, 코란, sunnah, 아흐마드 이븐 한발, 아부 압둘라 알부카리

● 참고문헌(오프라인) 박현도. 「예언자를 따라서: 이슬람법원(法源) 하디스(Hadith)」, 『법으로 보는 이슬람과 중동』. 모시는사람들. 2016. pp.145~161.

Brown, Jonathan A. C. *Hadith: Muhammad's Legacy in the Medieval and Modern World*.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2009.

Kamali, Mohammad Hashim. "Hadith." In *Encyclopedia of Religion*, 2nd ed., 2005. 3726~3733. Detroit, MI: Thomson Gale.

Robson, J. "Ḥadīth."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3. Leiden: Brill. 1986. pp.23~28.

Robson, J. "Ḥadīth Ḳuds."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3. Leiden: Brill. 1986. pp.28~29.

I H200 | 하라 수오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Khara suorun

하라는 야쿠트어로 '검은', '어두운'의 의미이고, 수오르는 '까마귀'라는 의미로 하라 수오룬은 '검은 까마귀'란 뜻이다. 하라 수오룬은 야쿠트 종족의 수호신이며 울루 토이온의 아들인 아홉 사만 종족의 조상이다.

전설에 따르면 까마귀는 하라 수오룬의 작은 아들이라 죽이면 안된다. 하지만 까마귀가 사냥꾼의 기분을 거슬리게 할 때, 까마귀의 부리에 토끼나 족제비 가죽 조각을 물리면 까마귀를 죽일 수도 있다. 이 것은 사냥꾼을 모욕한 까마귀의 잘못을 하라 수오룬에게 증명하는 행위이다. 까마귀 부리의 가죽 조각을 보고 하라 수오룬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냥꾼을 용서해 준다고 한다.

야쿠트 서사시 올롱호에서 하라 수오룬과 관련되는 까마귀는 매우 흥미롭고 상징적인 존재

이다. 까마귀는 죽음과 불행, 악의 화신이며 피에 굶주린 새이다. 그래서 올롱호에서 까마귀는 죽음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상징이다.

고대 아시아 서사시에 나타난 까마귀의 형상을 연구한 멜레틴스키에 따르면, 까마귀는 천공을 가르고 땅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천상과 지하세계의 새이다. 그래서 창조와 시간은 까마귀의 활동과 관련되며, 고대의 북동 아시아인들에게서 까마귀는 샤먼적인 특성이 있는 천상과 지상, 하늘과 땅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 수오른, 카라 수오룬
- 다국어 표기 Хаpa Cyopyн(러시아어), Suğorun(아제르바이잔어), Suğoru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야쿠트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Миф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Гл. ред. Мелетинский Е.М. М.: Советск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1990, 672.
Мелетинский Е.М., Поэтика мифа, М.:Вост.лит., 2006, 187.

I H201 | 하람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법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Haram

하람(حرام)은 사전상 ‘금지된 것’, ‘금지된, 할랄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슬람법에서는 모든 행위를 다음 다섯 범주로 분류하는데, 이들은 금지된 것(ḥarām), 하지 말도록 권장하는 것(마크루(makrūh)), 중립의 것(무바흐(mubāḥ) 또는 자이즈(jaiz)), 하도록 권장하는 것(무스타합(mustaḥabb) 또는 만두브(mandūb)) 및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파르드(fard) 또는 와집(wajib))으로 이중 하람은 엄격하고 구속력 있게 요구되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의미한다.

코란에서 하람은 사전상의 의미로 83번 사용된다. 대부분은 알라가 금지한 행위와 종교적 금



하람과 구분되는 할랄

지, 특정 행위에 대한 사람들 사이의 금지에 관하여 기술할 때 사용되었다. 하디스에도 하람과 그 파생어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이슬람 법학자들은 어떤 행위가 하람으로 규정되는 이유는 생명, 정신, 종교, 순결, 재산의 보호가 공식화된 종교의 기본 목적에 명백하게 위해를 끼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인간의 행위 중 하람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명백하게 판단된 것들이다. 1) 하람이라는 단어 또는 그 파생어를 사용하여 코란과 하디스 등에 규정된 행위. 2) 그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할랄이 아님을 분명히 말한 행위. 3) 하람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예를 들면 ‘하지 말라’, ‘접근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행위. 4) 어떤 행동을 피하는 것이 확실한 의무라고 명시한 것으로 이를테면 ‘술과 도박, 우상, 점쟁이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 5) 어떤 처벌이 필요하다는 진술과 함께 기술된 행위.

하람과 관련된 규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하람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은 오로지 알라에게만 있다. 2) 하람의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해당 사물/

행위는 허용된다. 3) 좋은 의도가 하람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수단도 목적과 함께 모두 합법적이어야 한다. 4) 하람으로 유도하는 이유와 방법도 하람이다. 5) 하람으로 의심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하람과 할랄이 공존하는 어떤 특정 행위나 상황에서는 하람을 우선하여 판단하여 해당 상황이나 행위를 피해야 한다. 악을 예방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둔다. 6) 필수적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하람을 허용한다.

무슬림들에게 하람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며, 분명히 알려진 할랄을 하람으로, 이와 반대로 하람을 할랄로 수용하는 것은 신앙심이 없는 수준으로 취급된다.

- 다국어 표기 Haram(튀르키예어), Xapam(카자흐어), Haram(우즈베크어), Haram(아제르바이잔어), Haram(투르크멘어)
- 연관 검색어 할랄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하람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7681&cid=40942&categoryId=31600>
- 참고문헌(오프라인) Demirci, Kürşat. Ferhat Koca. "HELÂL".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6, İstanbul:TDV. 1997. pp.97~104.

Ⅰ H202 | 하르간 두르벌징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성터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hargani durvuljin

하르간 두르벌징(Khargani durvuljin) 유적은 몽골의 아르강가이 울지트 군에 위치한다. 아르항가이에는 골모드 II 유적으로 알려진 흥노의 무덤 유적이 잘 알려진 곳이다. 이뿐만 아니라 아르항가이의 타미르강 유역은 몽골 전체에서 가장 무덤이 밀집한 지역으로 현재까지 2,242개가 발견되었다.

몽골 전체에서 발견된 흥노 무덤이 5천여 기인데, 거의 반 정도가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아르항가이에 위치한 하르간 두르벌징 흥노 성터는 2017년부터 발굴되었는데, 2019년 발굴

결과 ‘선우’라고 씌여진 도자기 편이 발견되었고, 2020년에도 ‘하늘의 아들 선우’라고 새겨진 도자기 편이 지표에서 채집되었다. 또한 ‘하늘의 아들 선우, 영원한 하늘처럼 장수하길..’이라는 문구가 찍힌 수막새 기와 편도 함께 출토되어서, 발굴된 성터가 용성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곳과 가까운 북쪽에도 궁전지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었다. 흉노의 용성에 대한 기록은 사기 110권에 남아 있다. “흉노족이 매년 1월 전 귀족 선우가 궁전에서 소회의를 소집하고 제사를 지내 왔다. 5월 용성에서 대회의를 소집하고, 조상 및 하늘을 위한 제사를 치루어 왔으며, 사람들의 영혼과 땅, 하늘의 신께도 제사를 지낸다. 가을철 대림에서 말의 살이 썩는 시기를 맞추며, 인구 및 가축 조사를 파악해 왔다.”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매년 겨울, 봄, 가을에 회의를 하고, 3차례 제사를 지냈으며, 3계절용 궁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기에 기록된 용성의 위치를 한가이, 오르콘, 타미르강 유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연구된바 있다. 이러한 근거로 보아서 하르간 두르별징 흉노 성터는 그간 기록에 남아 있던 용성터일 가능성이 있다. 그간 흉노의 계절 궁전이 헤를렌 강변에서 발견되었는데, 타미르강변에서도 대규모 궁전지가 발견됨에 따라서 몽골의 귀족 계층 연구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르간 두르불징
- 다국어 표기 Khargani durvuljin(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Iderkhangai. 「흉노왕족의 여름궁전」, 『유라시아 고대 네트워크 흉노와 한』 2021.

I H203 | 하맘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종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Hamam

하맘은 아랍어의 ‘데우다’, ‘따뜻하게 하다’의 의미인 ‘hamm’에서 파생된 단어로 ‘데우는 장소’라는 의미이며, 일반적으로 목욕탕으로 번역된다.

청결을 중요시한 이슬람 세계에서는 하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튀르크인에게 하맘은 거주지에 위치해야 할 중요 요소 중 하나이다. 이슬람교가 아랍 지역에서 인근 지방으로 퍼져 나간 시기의 하맘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다. 다만, 초기의 하맘의 영향이 있었을 곳의 하맘과 고대 로마 목욕탕의 흔적이 남은 곳의 하맘은 로마 목욕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아시아 등지의 튀르크 하맘에 대해서는 흔적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모습을 알기는 어렵다. 튀르크인이 아나톨리아반도에 정착한 이래로 셀주크 시대에 건설된 하맘으로 일부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아랍의 하맘과 튀르크인의 하맘의 차이점 중 하나는 남녀 목욕탕을 인접한 형태로 건설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튀르크 하맘에서는 목욕물을 담아 몸을 담글 수 있는 탕은 없으며, 물을 모아 두는 작은 세숫대야나 세숫대야 형태의 대리석으로 된 작은 통에 물을 모아 씻는다. 대신 땀을 내기 위한 사우나의 역할의 공간이 있었다. 하맘 중앙에 위치한 현대 튀르키예어 기준으로 괴벡 타시(ğöbek taşı: 일반적으로 대리석으로 되어 있으며 밑에서 데워 따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특 튀어나온 넓은 대리석 판이 했다. 세숫대야가 있는 씻는 공간은 이 괴벡 타시 주변에 위치한다. 괴벡 타시와 씻는 공간이 있는 이 부분을 통틀어 스작르크(sıcaklık)이라고 한다. 사우나 및 씻는 공간과 연결된 탈의실(camekân)이 있다. 탈의실과 스작르크를 연결해 주는 공간은 율르크르크(ılıkılık)이라고 한다. 탈의실에서는 탈의뿐만 아니라 휴식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어 때때로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거나 음료를 끓일 수 있는 화덕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사용한 물을 버릴 수 있는 하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물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샘이나 수조 등이 있다. 스작르크 양옆에는 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곳과 온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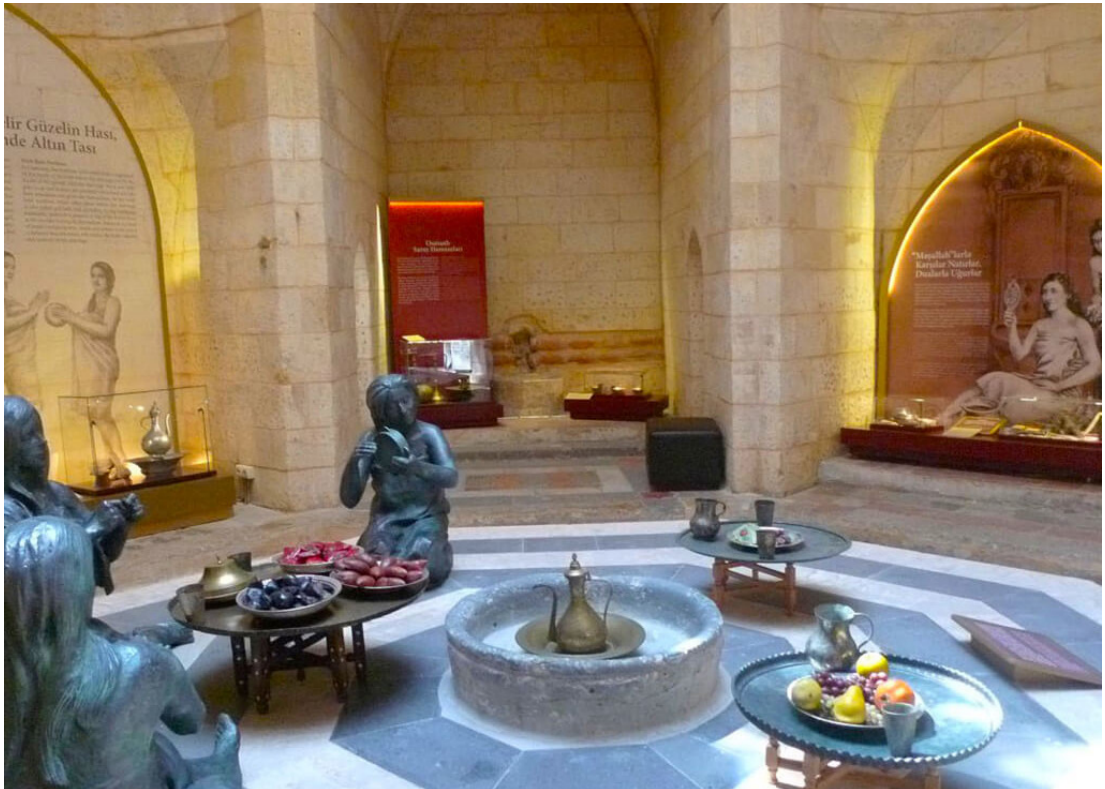
조절할 수 있는 기관실이 위치해 있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시대에는 술탄이 원정을 나갔을 때 텐트에 설치한 목욕탕, 즉 차드르 하맘(Çadır Hamam)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를 통해 목욕을 매우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셀주크 시대에 건설된 하맘의 흔적이 아나톨리아반도 곳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셀주크 시대의 목욕탕은 일반적으로 스작르크의 경우 네 개의 이완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스작르크 모서리에는 개인적으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슬람교에서는 완전한 나체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은 금기시되기 때문에 씻을 수 있는 공간은 남에게 보이지 않게 만들어 지곤 한다. 네 개의 이완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성은 중앙아시아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다.

오스만 시대에도 국가 전역에 하맘, 특히 대중목욕탕인 우무미 하맘(umumi hamam)이 건설되었다. 대중목욕탕 이외에도 성과 거대 주택, 부유한 가문의 별저에 하맘을 건설하기도 했으며, 작은 시골 마을에서의 일반 주택에서 목욕탕의 일종인 구실하네(gusülhane)를 건설하기도 했다. 오스만 시대의 대중목욕탕은 복합단지인 켈리이에(Külliye)의 부속 건물로 건설되기도 했는데, 이 부속 건물 내의 대중목욕탕은 켈리이에의 운영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기도 했으며, 모스크 방문자, 즉 공동체에 제공하는 서비스 공간이기도 했다. 이스탄불에 건설된 대중목욕탕은 남탕과 여탕이 함께 건설되었으나, 입구는 각기 다른 도로를 접해 건설되어 남녀가 서로 마주치지 않고 출입할 수 있었다. 오스만 시대의 하맘도 탈의실(camekân)과 중간 공간인 을룩르크(ılıklik), 씻고 몸을 데울 수 있는 스작르크(sıcaklık)을 기본으로 하여 건설되었다. 물론 물을 보관하는 장소와 화덕이 있는 기관실도 존재했다. 탈의실에서는 휴식을 위해 세디르(sedir: 소파의 일종)를 설치하고 신발을 벗어 두는 곳으로 사용했다. 을룩르크는 일반적으로 가로로 길게 만들었으며 체모를 깎는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스작르크는 일반적으로 더운 공기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문을 작게 만드는 편이다.

오스만 시대의 스작르크에서도 네 개의 이완과 중앙에는 괴백 타시으를 설치했고, 씻을 수 있는 공간은 모서리에 마련했다. 때때로 십자형의 스작르크가 있는 하맘도 발견되는데, 이는 주로 온천 지방에서 건설되었다. 이 외에도 정사각형 스작르크 주변에 씻을 곳을 마련한 형태나 스작르크를 여러 개의 아치로 공간을 분할한 후 천장을 돔으로 처리한 형태도 있다. 이 경우 공간이 분할되었기 때문에 중앙에 괴백 타시으를 설치할 수 없었다.

직사각형 형태의 스작르크 양옆에 씻는 곳을 마련한 형태, 을룩르크, 스작르크, 그리고 씻는



하맘_박물관 재현

Source: <https://www.gaziantepmetgold.com/admin/uploads/image/>

곳을 같은 크기의 방으로 마련한 하맘도 있다. 이는 대중목욕탕보다는 개인 하맘을 위해 설계한 형태이다.

하맘 내부는 대체로 화려하게 장식한다. 특히 탈의실을 화려하게 꾸미기도 했다. 장식은 타일과 색이 있는 돌, 대리석을 배치하여 꾸몄고 석재 조각과 무카르나스, 마름모 형태의 주두 장식이 있는 기둥 따위가 장식성을 배가시키기도 했다.

투르크의 보건 생활뿐만 아니라 사교 생활을 담당했던 대중목욕탕은 현대에 들어와 거의 사라졌고 크게 선호되지 않으나 그 전통을 일부에서 이어가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hammam
- 다국어 표기 hamam(튀르키예어), hamam(아제르바이잔어), Хаммам(카자흐어), Hammom(우즈베크어)

- 멀티미디어 링크 하맘_박물관 재현 <https://www.gaziantepmetgold.com/admin/uploads/image/kesfet/hmm4.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Önge, Yılmaz. “Eski Türk Hamamlarında Su Tesisatı ile İlgili Bazı Detaylar”, *Uluslararası Türk-İslâm Bilim ve Teknoloji Tarihi Kongresi Bildirileri*. İstanbul. 1981, pp.213~223.
- Önge, Yılmaz. “Anadolu Türk Hamamları Hakkında Genel Bilgiler ve Mimar Sinan’ın İnşa Ettiği Hamamlar”. *Mimarbaşı Koca Sinan: Yaşadığı Çağ ve Eserleri*(ed. Sadi Bayram) 1, İstanbul: Vakıflar Genel Müdürlüğü. 1988. pp.403~428.
- Ünver, A. Süheyl. “Konya’da Selçuklular Zamanındaki Hamamlara Dair”. *Türk Tıp Tarihi Arkivi*, VI/18. İstanbul. 1940, pp.83~86.
- Eyice, Semavi. “Hamam”.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5, İstanbul: TDV. 1997, pp.402~430.

I H204 | 하미

- 시기 기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Ha Mi

하미는 텐산[天山] 산맥 동단부(東端部) 남쪽 기슭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이다. 동서 교통로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고래로부터 유목 민족과 중국 간의 투쟁의 각축장이 되었다. 위구르어로는 코물(Qomul) 또는 쿠물(Kumul), 몽골어로는 하밀(Hamil)이라고 한다. 투르크어로는 ‘모래(砂)’라는 뜻인데, 부근의 사막 지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미라는 명칭은 하미과[哈密果]에서 유래하는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과일인 멜론이 유명하기 때문이다. 이 오아시스는 기원을 전후하여 중국에 이오(伊吾)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북쪽 유목민의 세력이 타림 분지로 진출하는 기지로서 중요시되었다. 하미 지구(哈密地区, 합밀 지구)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동부, 텐산 산맥(天山山脉, 천산 산맥)의 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급 행정구이다.

지구 행정 공서는 하미 시(哈密市, 합밀 시) 젠궈남로(建国南路, 건국남로)에 소재하며 우루무치 시로부터 588km 거리에 있다. 행정 구획은 하미 시(哈密市, 합밀 시)의 1개 현급 시, 이우 현(伊吾县, 이오 현)의 1개 현과 바리쿤 카자흐 자치현(巴里坤哈萨克自治县, 파리쿤 합살극족 자치현)의 1개 자치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내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하미농장



하미시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관리국(哈密农场管理局)과 신장군구(新疆军区) 이우군마장(伊吾军马场)이 주둔하고 있다. 남북 간 440km, 동서 간 약 404km로 면적은 약 142,000제곱킬로미터이며 신장 전체의 9%를 차지한다. 인구는 약 550,000명(2008년)으로 한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후이족(回族, 회족), 몽골족 등 37개 민족이 거주하며, 위구르를 위주로 하는 소수 민족이 약 160,000명으로 29%를 차지하고 있고 성시 인구(城市人口)가 50%를 차지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물
- 다국어 표기 哈密(중국어) قۇمۇل شەھىرى(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천산 산맥
- 멀티미디어 링크 <http://www.hami.gov.cn/hmnet.gov.cn> Chinese government site on Kumul (in Chinese)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Giles, Lionel. (1930~1932). "A Chinese Geographical Text of the Ninth Century." BSOS VIHill.

John E. *Through the Jade Gate to Rome: A Study of the Silk Routes during the Later Han Dynasty, 1st to 2nd Centuries CE*. BookSurge, Charleston, South Carolina. 2009.

I H205 | 하미디이에 기병대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조직 ● 유형 소분류2 군사
- 집필자 이은정 ● 라틴 문자 Hamidiye Regiments



하미디에 기병대 장교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하미디이에 기병대는 1880년대 압뉘하미드 2세가 동 아나톨리아에 설립한 부족 기병대였다. 러시아 제국의 코사크 부대들을 모델로 하여 오스만-러시아 국경의 산악 지대를 순찰하는 것을 임무로 했다. 이들은 동 아나톨리아에서 오스만 중앙 정부의 권위를 확보하고 부족들의 군사력에서 이익을 얻고 지역 내의 아르메니아인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아랍 튀르크멘, 카라칼팍 등도 있었지만 특히 쿠르드 부족장들이 장교로 충원되었고 장교들은 부족민들을 부하로 데리고 왔다. 쿠르드 부족들의 술탄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서 잠재적 반란자들을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만들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한다. 이들에게 오스만 제국에서 분리하여 아르메니아 독립 국가를 만들려는 아르메니아인 민족주의자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주요한 업무였다.

하미디이에 기병대는 1890년 초에 건립 준비가 시작되었고, 이 기병대의 창설과 관련된 문건들에는 설립 목표가 군 복무의 일반화를 통해 오스만 국가의 무력을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맥락에서 기존에 군 복무대상이 아니었지만 기마술과 사격술에 능한 유목민들로부터 기병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되어 있다. 처음에는 21개 부대로 만들어졌으나, 세금이 면제되었으므로 유목 부족들 사이에서 크게 관심을 끌어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1892년 45개, 93년 56개, 94년 58개,

98년 60개, 1901년에 65개 부대로 계속 성장했다. 이 지역에 잠재적으로는 100개의 부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예측한 보고서도 남아 있다. 1896년 121개조의 설립 규정이 만들어졌다. 1개 부대는 4개~6개의 하부 단위(bölük)로 이루어져 있었고, 한 부대는 부족 인구의 크기에 따라 최소 512명, 최대 1,152명을 포함한 것을 볼 수 있다. 인구가 적어서 하나의 대대를 구성할 수 없는 부족은 몇 개 하부 단위를 만들어 평화 시에는 자기들끼리 훈련하고 전시에는 다른 작은 부족과 함께 하나의 부대를 만들어 한 지휘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하미디이에 기병대는 장교들에게 부하의 수에 따라 봉급이 주어졌을 뿐, 일반 병사들에게는 봉급이 없었고 무기와 무기고만이 제공되었으며, 국가 입장에서 많은 세금을 면제한 것도 아니라 손실이 적었으며, 약 35,000명의 군인을 얻게 되는 것이었다. 동아나톨리아의 부족장 집안의 아들은 군사학교에 보내졌고, 중앙에서 지역으로는 순회 교사 및 기도자(va'iz)가 파견되었다. 하미디이에 기병대는 휘하 부족들이 잘 통제가 안 되고 인원이 과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려웠고, 내분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1890년대 중엽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에 상당히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8년 청년투르크 혁명 이후 제2차 헌정기에 새 위원회가 재정비하여 게릴라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20세기 초 이들의 의무 병역 기간은 18세에서 45세 사이의 27년 간이었다. 1912년에 부족 기병대(aşiret alayları)로 이름이 바뀌었고, 발칸 전쟁에도 일부 자원하여 참여했으며 1차 대전과 튀르키예 독립 전쟁에도 참전하여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미디에 기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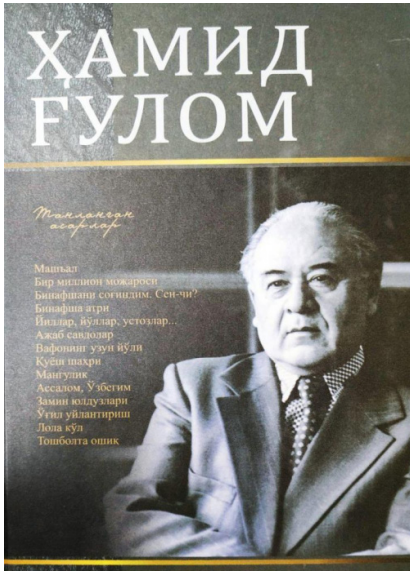
● 다국어 표기 Hamidiye Alaylar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압틸하미드 2세

● 참고문헌(오프라인) Bruce Masters. «Hamidiye». Gábor Ágoston and Bruce Masters, eds., *The Encyclopedia of the Ottoman Empire*, Facts on File. 2008. p.249.

Cezmi Eraslan. «Hamidiye Alayları,» *TDV İslam Ansiklopedisi*, Vol. 15. 1997. pp.462~464.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Hamid G'ulom



하미트 굴럼 선집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img_knjigi/

하미트 굴럼(Hamid G'ulom)은 우즈베크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국민 작가, 시인이며 극작가이다. 그는 1919년에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중앙아시아 산업대학교(1935년~1937년)와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교(1938년~1941년)에서 수학했다. 이후 1954년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후원으로 모스크바로 가서 막심 고르키 문학연구소에서 공부했다. 그 후 그는 <문학신문(Literaturiaya Gazeta)> 신문사의 우즈베키스탄 특파원,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1958년~1971년) 비서관과 가푸르 굴럼 문학예술 출판사 국장을 맡았다.

하미트 굴럼(Hamid G'ulom)은 당시 우즈베크 문학의 대가 가푸르 굴럼(G'afur Gulom),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 마크수드 샤이흐조다(Maqsud Shaykhzoda)

의 영향을 받아 작가로 성장했다.

대표 작품으로는 『우리의 캠프장(Bizning lager)』, 『태양처럼 밝은(Quyosh kabi charog'on, 1936)』, 애국심과 적에 대한 증오심이 드러난 『복수할 일이 있다(Qasosim bor, 1942)』, 제2차 세계 대전 시대상을 반영한 『카테리나(Katerina, 1942)』과 『우크라이나의 바람(Ukraina yellari, 1943)』, 우즈베크 국민들의 파시즘과의 투쟁을 그린 『나의 노래들(Qo'shiqlarim, 1949~1956)』, 『드네프르 강가에(Dnepr bo'yida, 1949)』, 『승리의 길(G'alaba yo'lida, 1952~1956)』 등이 있다.

10월 혁명 당시 우즈베크 사람들의 삶과 집단 농장 건설 이야기를 다룬 『Olmos qizi』, 『타슈켄트의 사람들(Toshkentliklar, 1967, 1974년 합자 국가상 수상작)』, 『빛(Mash'al)』, 『너에게로 향한다(Senga intilaman, 1963)』, 『제비꽃의 향기(Binafsha atri)』, 『영원함(Magulik,

1981, 작가연합 국가상 수상작)』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전 세계 사람들의 자유 투쟁, 평화 및 국가 간의 우정을 다룬 『대륙들이 깨어있다 (Qit'alar uyg'oq)』, 『쿠바에 관한 이야기(Kuba haqida hikoyalar)』, 『집(Uy)』, 『히로시마의 발라드(Xirosima balladalar)』, 『유럽에 대한 인상(Yevropa taassurotlari)』, 『알제리의 아침 (Jazoirda tong)』, 『충성의 긴 길(Vafoning uzun yo'li)』 등의 작품이 있다.

그의 작품은 4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하미트 굴럼(Hamid G'ulom)은 또한 알렉산드르 푸시킨, 미하일 레르몬토프, 윌리엄 셰익스피어, 타라스 셰우첸코, 수르코프, 로페 데 베가 등의 작품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그의 희극 『페르가나 이야기(Farg'ona hikoyasi)』, 『아들 장가보내기(O'gil uylantirish)』 등은 공화국 극장에서 공연되었다.

하미트 굴럼(Hamid G'ulom)은 1988년에 국가 명예훈장(EI - yurt hurmati)과 2004년에 노동훈장(Mehnat shuhrati)을 수상했으며, 2005년에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미트 굴럼

● 다국어 표기 Hamid G'ulom(우즈베크어), Хамид Гулям(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페르가나, 타슈켄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nasri/hamid-g-ulom-1919~2005>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I H207 | 하미트 올림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Hamid Olimjon



하미트 올림전 탄생 100주년 기념서
Source: <https://www.academy.uz/ru/news/>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은 우즈베키스탄의 시인 줄피야(Zulfiya, 1915년~1996년)의 남편이자 우즈베크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하미트 올림전은 1909년에 지자흐(Jizzah) 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초등교육을 받은 이후 1928년까지 사마르칸트에서 공부를 했으며, 이후 1928년부터 1931년까지 교육학 아카데미의 사회경제학부에서 수학했다.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은 교육학 아카데미에서 우이군(Uygun), 어이딘(Oydin), 미르테미르(Mirtemir), 잘롤 이크러미이(Jalol Ikromiy)와 같은 젊은 시인들과 함께 공부했다.

그는 1926년부터 1927년까지 <자라프션(Zarafshon)> 신문의 부사장, 1931년에 <청년들(Yoshlar)>, <건설(Qurilish)>과 <소비에트 문학(Sovet adabiyoti)> 잡지사에서 책임 비서직을 맡았다. 그리고 문화건설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1932년~1934년)으로 근무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시집 『전투의 노래(Kurash nashidasi)』, 『새로운 인생(Yangi turmush)』, 『승리의 서사시(Zafar Dostini)』, 『프롤레타리아(Proletar)』, 『5월 1일의 불꽃(Birinchi may alangalari)』, 『강의 밤(Daryo kechasi, 1936)』, 『치르치크 강가에서(Chirchiq bo'ylarida, 1937)』, 『지역(O'lka, 1939)』, 『행복(Baxt, 1940)』 및 우즈베크 문학이론을 다룬 그의 연구 『공부하는 것과 학습의 어려움(O'qish va o'rganish qiyinchiliklari)』, 『작가의 수준을 높임시다(Yozuvchinung saviyasini ko'taraylik)』, 『우즈베크 문학 발전 시대(Adabiyotimizning tikka ko'tarilish davri)』, 『문학과 사람들(Adabiyot va xalq)』, 『우즈베크 국민 문학(O'zbek

xalqining adabiyoti)』, 고전문학과 구비문학에 관련된 논문 「우즈베크 국민들의 위대한 시인 나버이이(O'zbek xalqining ulug' shoiri Novoiy)」, 「나버이이와 현대 시대(Navoiy va zamonamiz)」, 「용기, 사랑과 우정의 서사시(Mardlik, muhabbat va do'stlik dostoni)」, 「파르허드와 쉬린에 대하여(Farhod va Shirin haqida)」 「우즈베크 국민들의 영원한 시인(O'zbek xalqining o'lmas shoiri)」, 「무함마드 아민 무키미이(Muhammad Amin Muqimiy)」 등이 있다.

우즈베크 문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은 1939년 우즈베키스탄 작가연합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명예 훈장(Hurmat belgisi)을 수상했으며, 1943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가 설립되자 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하미트 올림전은 1944년 3월 7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하여 수많은 학교, 거리, 공원, 지역 사회 농장, 카르쉬 국립대 그리고 타슈켄트의 지하철역이 하미트 올림전(Hamid Olimjon)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주변 국가 언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미트 올림잔

● 다국어 표기 Hamid Olimjon(우즈베크어), Хамид Алимджа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줄피야, 사마르칸트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boblar.uz/uz/people/khamid-alimdzhan>

● 참고문헌(오프라인) Kattabekov A. va boshqalar, *O'zbek sovet adabiyoti tarixi*, Toshkent: O'qituvchi, 1990.

Mirzayev Saydulla, Shermuhammedov Said, *Hozirgi zamon o'zbek adabiyoti tarixi*, Toshkent: O'zbekiston, 1993.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Olimjon Hamid, *Mukammal asarlar to'plami, 5 jildlik*, Toshkent: Fan, 1975.

I H208 | 하브라우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habrau

하브라우는 14세기~15세기 킵차크 출신의 시인이자 연주자이다. 즉흥시인이라는 뜻의 단어인 이이라우(йырау)를 붙여 하브라우-이이라우(Хабрау-йырау)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때는 즉흥시인 이이라우라는 의미이다. 카자흐 문학가들의 정의에 따르면 하브라우는 킵차크 부족 출신으로 우랄 지역의 야이크강(р. Яик)에 위치한 사라이치크(Сарайчик)라는 도시에 몇 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 어떨 때는 토흐타미쉬 칸의 궁전에 가까웠고, 궁전의 분쟁 시기에는 에디게 장군의 편에 서기도 했다. 바시키르 영웅서사시 「이두카이와 무라담(Идукай и Мурадым)」에서는 민중의 수호자이며, 100년을 산 현명한 악사칼이자 민중의 수호자인 명예로운 시인 하르바우의 모습으로 출현한다. 그는 이 서사시에 포함된 다음과 같은 여러 쿠바이르(짧은 시)의 지은이로도 등장한다. 「나는 당신의 노인-악사칼(Мин картынмын)」, 「아, 우랄 산이여, 우랄 산이여(Эй, Уралтау, Уралтау)」, 「높은 산의 죽음(Бейек таузын улгэне)」, 「무엇이 나쁜 것인가?(Бер тигэс тэ ни яман?)」. 카자흐, 노가이, 카라칼파크에서는 하브라우를 사브라(Сабра) 또는 시프라-지라우(Сыпра-жырау), 솅파슬리(Соппаслы), 시피라-지라우(Сыпыра-жырау)로 부르기도 한다. 지르문스키(В.М. Жирмунский)는 하브라우를 노가이, 카자흐, 바시키르, 카라칼파크 이이라우 유파의 창시자로 보았다. 하브라우의 시 작품들은 오늘날까지 바시키르 세센과 카자흐, 카라칼파크, 노가이 지라우들의 구연 목록에 남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이들 중 몇몇 작품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출판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브라우
- 다국어 표기 Хабра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킵차크, 이이라우, 악사칼, 세센, 토흐타미쉬, 노가이
- 참고문헌(온라인) <http://wiki02.ru/encyclopedia/Habrau-yyrau/t/15478>
<https://ufa-gid.com/encyclopedia/habrau.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Идельбаев М. Х. Авторская изустная поэзия средневековой тюркской словесности и Хабрау-Йырау//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гуманитарных и естественных наук, №:8-2. 2014, pp.87~90.

I H209 | 하비비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Habibiy

‘하비비이’의 이름은 저키르전 험무함마드 오글리 하비비이(Zokirjon Holmuhammad o'g'li Habibiy)이다. 그러나 주로 하비비이로 불린다. 그는 우즈베크 고전시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 시킨 시인으로 전통 시 장르인 가잘(g'azal)을 통해 우즈베크 민족의 희망과 열망, 영적 성숙을 표현해 왔다.

하비비이는 1890년에 안디잔 주 파흐타어버드(Paxtaobod) 구에 위치한 코칸트 마을의 서이(Soy) 마할라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구식 학교와 안디잔과 코칸트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았다. 하비비이는 루트피이(Lutfiy), 나비이이(Navoiy), 무키미이(Muqimiy), 푸르캣(Furqat)과 자브키이(Zavqiy)와 같은 시인들의 가잘을 읽고 습작하면서 시를 읽었고, 스무 살에 시를 쓰기 시작했다.

1919년에 하비비이는 안디잔의 보타커라(Bo'taqora) 마을에 살며 농사를 지으며 시 창작 활동을 했다. 1920년대에 집필한 민요 형식의 많은 시는 조국과 우즈베크 사람들의 삶과 투쟁, 독립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이는 「나의 국가(O'lkam)」, 「파르허드의 노래(Farhod qo'shig'i)」, 「축복받은 나이(Muborak yosh)」, 「인간은 위대하다(Inson aziz)」, 「중대한 의무(Ulug' burch)」, 「재봉사들(Chevarlar)」, 「소망을 가지고(Muddao bilan)」와 같은 시에서 반영되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는 비판적인 시를 집필한다. 이 시기 발표된 가잘 중 특히 「전사 청년의 노래(Jangchi yigit qo'shig'i)」, 「아이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Boladan ota-onaga xat)」, 「엄마가 아이에게 보낸 편지(Onadan bolaga xat)」와 같은 작품들이 비판적인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하비비이는 1938년 작가연합 회원이 되었고, 1946년까지 양기욤(Yangiyol) 뮤지컬 극장에서 일했다.

1949년에 출판된 『노동가요(Mehnat qo'shiqlari, 1949)』와 『새로운 알라들(Yangi yallalar, 1949)』에는 다양한 연도에 쓰인 가잘과 함께 전통 시 장르인 무함마스(muxammas)와 무랍바(murabba) 형식으로 집필한 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마음의 노래(Ko'ngil taronalari, 1957)』, 『시대의 파르허드들이(Zamon Farhodlari, 1959)』, 『선집(Tanlangan asarlar)』, 『시선집(She'rlar, 1963)』, 『하비비이(Habibiy, 1965)』, 『내 꽃밭은 아름답다(Gulzorim go'zal, 1965)』, 『데번(Devon, 1971)』 등과 같은 다양한 시집이 출간되었다.

하비비이는 1974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민시인 칭호를 받았으며, 1980년에는 국민 우정훈장을 수여받았다.

하비비이는 1980년 4월 16일에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후 파흐타오보드에 하비비이 하우스 박물관이 열렸다. 또한 안디잔의 거리 및 학교가 그의 이름으로 명명되기도 했다. 가잘과 가창 분야에서 독특한 유파를 만들고 아루즈(aruz) 형식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시를 창작했다고 평가받는 하비비이의 시는 노래 가사가 되어 불리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비비이의, 하비비이, 하비비

● 다국어 표기 Habibiy(우즈베크어), Хабиби(러시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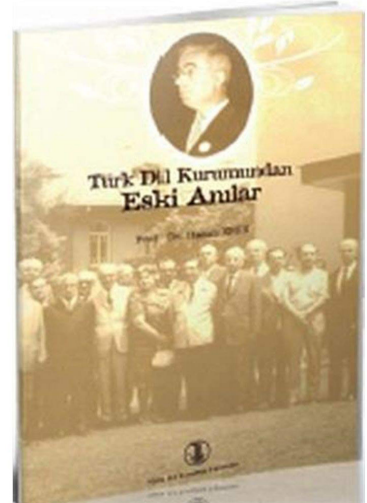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I H210 | 하산 에렌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Hasan Eren

하산 에렌은 1919년 3월 15일 지금의 불가리아 국경 안에 있는 비딘(Vidin)에서 태어났다. 하산 에렌은 1932년 비딘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1937년 불가리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이후 헝가리 정부의 4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부다페스트 대학의 굴라 네메스(Gyula Németh), 라요스 페케테(Lajos Fekete) 그리고 라요스 리게티(Lajos Ligeti)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1943년 ‘투르크어 음성 변화(A török magánhangzóváltakozások)’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시베리아 투르크 방언의 몽골어 요소에 대한 부교수직 논문을 발표했으며, 어원학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에 대한 연구로 1946년 튀르키예 어원학 분야 부교수로 임명된다.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의 옛 순간들(Türk Dil Kurumundan Eski Anılar)』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하산 에렌이 튀르키예에 오려고 할 무렵 2차 세계 대전 발발로 인하여 그는 헝가리 남부도시 세게드(Szeged)에서 머물며 세게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이후 철도가 개통이 되고, 모든 길이 열리자 그는 튀르키예로 돌아와 앙카라 대학교 언어역사지리학부에서 부교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튀르키예어문학부에서 투르크어 역사를 비롯하여 추바시, 야쿠트와 같은 투르크 방언들에 중점을 두어 학생들을 교육했다. 그는 학과장으로 근무하며, 러시아어 및 문학, 헝가리어 및 헝가리 문학과 관련된 수업을 하기도 했다.

하산 에렌은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도 근무했으며, 메흐메트 알리 아아카이(Mehmet Ali Ağakay)가 사전학 및 응용분과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그의 튀르키예 사전 연구 프로젝트에 판본 준비자 및 감독자로서 참여했다.

1960년 혁명으로 인해 대학에서 제명되었던 147명의 교수 중 한 명인 하산 에렌은 18개월 후

복직했으며, 1961년 투르크 백과사전 편집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한다. 1985년 편집위원회 회장으로 근무 당시 백과사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1983년 10월 18일 그는 아타튀르크 문화 언어 및 역사 고등교육기관(Atatürk Kültür Dil ve Tarih Yüksek Kurumu)의 일부인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의 회장으로 임명되어 10년 동안 기관의 회장직을 맡았다. 1984년에서 1990년 사이 그는 튀르키예 라디오 및 텔레비전 공사의 최고위원회에서 근무했다. 그는 1993년 9월 20일 은퇴한다. 그는 2007년 5월 26일에 사망했으며, 앙카라 제베지 아스리 공원 묘지(Cebeci Asri Cemetery)에 묻혔다.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투르크학자였던 하산 에렌은 1966년 헝가리 언어학 협회 명예회원, 1972년 헝가리 동양 과학 협회 명예 회원, 1988년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명예 회원, 1966년 헝가리학 협회, 같은 날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으로부터 감사장과 상패, 2000년에는 헝가리 대통령으로부터 헝가리 공로훈장을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산 에렌**

● 다국어 표기 **Hasan Ere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eren-hasan>

● 참고문헌(오프라인) Zülfikar, H. Hasan Eren'in Ardından. *Dil Araştırmaları*, 2(2), 2008, pp.162~166.

Akalın, Ş. K. Hasan Eren'in Ardından: Bir Âlimin Ölümü. *Türk Dili Dil ve Edebiyat Dergisi*, 66(794), 2007, pp.267~275.

I H211 | 하산 이젯틴 디나모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HASAN İZZETTİN DİNAMO

하산 이젯틴 디나모(Hasan İzzettin Dinamo)는 튀르키예의 시인이며, 작가이다. 1909년 트라브존에 속한 악차아바트 지역에 있는 아한다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무너져 가는 제국과 전쟁을 지켜보며 온갖 아픔을 겪었다. 아버지는 1차 세계 대전 사리카미스 전투에서 돌아

가서고, 디나모는 보육원에서 자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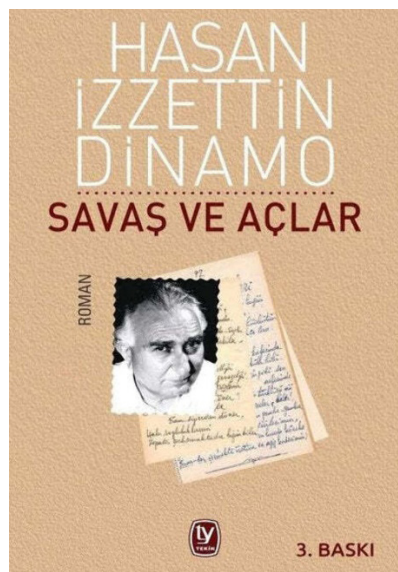
디나모는 1931년 시바스 사범학교를 졸업했다. 사범학교 재학 시절 친구 베흐비 켄(Vehbi Cem)과 메흐메트 제와트(Mehmet Cevat)와 같이 『제목 없는 책(Adsız Kitap)』이라는 첫시집을 1931년 시바스에서 출간했다.

전국 각지에서 교사 생활을 이어간 디나모는 평소에 관심 있었던 미술 교육을 받기 위해 앙카라 가지대학교 회화과에 등록했다. 가지대학교 재학 시절 튀르키예의 교육과 사상에 관련하여 중요한 사람들을 여럿 만났다. 당시 교육부 장관, 문학가 하산 알리 이위젤(Hasan Ali Yücel), 튀르키예 교육 분야를 쇄신하는 데 기여한 이스마일 하크 툰구취(İsmail Hakkı Tonguç), 에민 튀르크 엘리친(Emin Türk Eliçin), 사바하틴 알리(Sabahattin Ali) 등이다. 그리고 학교 친구 중에서도 튀르키예 사상과 문학 생활에 족적을 남긴 자히트 탄올(Cahit Tanyol), 휘렘 아르만(Hürrem Arman), 함디 코누르(Hamdi Konur) 등은 디나모가 예술에 대한 이해와 사고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1935년 나즘 히크메트와 함께 불법단체 조직 혐의로 체포되었다. 디나모는 대학 교육을 마치지 못한 채 4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됐는데, 징역살이를 하면서 「기차(Tren)」라는 시를 지었다. 이 시는 시바스와 에르주룸 사이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에 참여한 군인들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끔찍한 7월의 불별더위가 대초원을 달구는 정오에 군복 바지를 입고 상의를 벗은 괴물 같은 공병들이 두 줄로 서서 쇠처럼 붉게 달구어진 어깨에 강철을 올리고 리듬에 맞춰 좌우로 흔들며 여기저기로 옮기는 모습을 그렸다. 서정적이고 비극적인 어조로 쓴 시는 단번에 당국의 미움을 샀고, 불법 조직 결성 혐의까지 가해져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는 출소한 뒤에도 한동안 이스탄불에서 글을 쓰며 생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정부에게 불온한 인물로 낙인 찍힌 작가가 글만 쓰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번역 일과 과외 교사를 하면서 생활을 유지했고, 역사 소설을 쓰기도 했다.

하산 이젯틴 디나모는 유배 되기도 하고, 교도소 수감을 하기도 하고, 무직자로 지내야 했는



『전쟁과 배고픔』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데 그때마다 매번 다른 일을 했다. 그는 사진사로도 일했다. 이 체험을 살려 하산 데니즈라는 이름으로 『아마추어 사진사(Amatör Fotoğrafçılık)와 에티켓(Görgü Kuralları)』를 출간했는데, 당시에는 이 작품도 인기가 있었다.

그는 또 다시 튀르키예 정치사에서 중요한 1955년에 이스탄불 포그롬(9월 6일~7일)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다. 그러나 다행히도 한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무죄로 석방되었다.

하산 이젯틴 디나모는 1930년 중반 이후 나즘 히크메트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내용을 시에 녹여냈다. 자유, 민주주의, 평화가 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됐다.

디나모는 튀르키예 독립 전쟁에 관한 역사적 사료들을 참조해 소설을 썼는데 전쟁에서 아버지를 잃고 고아로 살았던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서 평화를 강조하고, 사회 변화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의 입장이 작품에서 잘 드러났다.

당시 유행하던 고전 문학 영향을 받아 음율에 맞춰서 시를 지은 디나모는 1940년대 이후 세대인 엔베르 곱체(Enver Gökçe), 니야지 아큰즈오을루(Niyazi Akıncıoğlu), 메흐메트 케말(Mehmet Kemal), 일ahami 베키르(İlhami Bekir) 등 시인들과 함께 사회에 참여하며 사실주의 시를 짓는 데 앞장섰다.

소설 『전쟁과 배고픔』, 『무사의 교도소』, 『무사의 슬럼가』에서는 튀르키예 현대 정치와 전쟁사를 주제로 다루었다. 이때에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체를 선호했다. 디나모는 문학으로 독자들을 의식화를 시키고 계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산 이젯틴 디나모의 대표작은 『바다등대(1937)』, 『카라자흐메트 심포니(1960)』, 『성스러운 반란(8권)』, 『성스러운 평화(4권, 1971)』, 『불꽃 튀는 해(1968)』, 『전쟁과 굶주림(1968)』, 『옥중에 쓴 시(1974)』, 『유배 시(1975)』, 『튀르키예 나비(roman, 1981)』, 『제2차 세계 대전 문학 회고록(1984)』, 『TKP(튀르키예공산당)와 지식인들(1989)』, 『전쟁통 아이들(1981)』 등이다.

1989년 6월 20일 이스탄불에서 눈을 감은 디나모는 셴릭뢰이 묘지에 안장됐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산 이제틴 디나모
- 다국어 표기 HASAN IZZETTIN DINAMO(영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ınkaynak Hikmet, *Edebiyatımızda 40 Kuşak*, Türkiye Yazarlar Sendikası Yayınları, İstanbul, 1977.

Asan Ömer, *Hasan İzzettin Dinamo*, Belge Yayınları, İstanbul, 2000.

Bezirci Asım, *On Şair On Şiir*, May Yayınları, İstanbul, 1971.

Esen Selim(Hazırlayan), *Kendileri*, Evrensel Yayınları, İstanbul, 2007.

Seyda Mehmet, *Edebiyat Dostları*, Kıtış Yayınları, İstanbul,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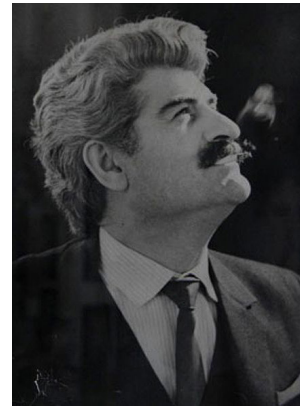
I H212 | 하산 휘세인 코르크마즈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HASAN HÜSEYİN KORKMAZGİL

튀르키예에서 사회주의 시풍을 반영한 1960년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시인 중 한 명인 하산 휘세인 코르크마즈길은 1927년 3월 4일 시바스에 속해 있는 귀룬(Gürün)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에는 동화와 구전 이야기, 서사시, 주로 전쟁이나 영웅을 다루는 이야기 코작라마(koçaklama)를 들으며 자랐다. 시바스 귀룬(Gürün) 초등학교, 1942년 니데 기숙 중학교, 아다나 남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교사 중에는 시인으로도 활동한 아리프 니하트 아시아(Arif Nihat Asya)가 있었다.

하산 휘세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인 1948년에 체포됐지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1950년에는 앙카라 가지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과에서 학업을 마쳤다. 1951년 그는 카흐라만마라쉬 곱순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한 지 6년 반이 지났을 때였는데 정치 활동에 가담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교사를 그만둬야 했다. 실직 후 1954년부터 1960년까지 기차, 카페, 호텔에서 연필로 초상화를 그리거나 간판 제작, 공문서 대리 작성, 가족을 보살피는 일을 했고, 도자기를 만들며 생계를 유지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에 관심을 가졌고, 해학을 담은 단편소설과 라디오 극본도 썼다. 1960년에는 이스탄불, 이후에는 앙카라에서 머물며 당시 영향력 있는 잡지 중 하나인 <아키스(Akis)>에서 근무했다. 이후에는 앙카라에서 <포럼(Forum)> 잡지를 만들고 운영했다.



하산 휘세인 코르크마즈길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하산 휘세인은 1939년에 예르진잔 지진으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추모하기 위해 시를 쓰기 시작했다. 이후에는 음절과 아루즈 형식에 맞춰 시를 습작했다. 그리고 「8월(Ağustos)」이라는 시를 1959년에 처음으로 잡지 <친구(Dost)>에 실었다.

그는 이름이 같은 공장에서 일어난 파업 때문에 쓴 첫 시집 『카벨(Kavel, 1963)』로 1964년 예디테페 문학상 시 부문에서 수상했다. 『붉은 백조(Kızılkuyu, 1971)』로는 튀르키예 국영방송사(TRT)가 1970년에 개최한 대회에서 시 부문 공로상을 받았다. 그리고 『꽃샘추위(Filizkiran Fırtınası, 1981)』로 1981년 외메르 파룩 토프락 문학상과 제브자트 위스틴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 옛날이야기와 동화를 들으면서 형성된 감수성과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읽은 고전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는데 풍부한 자양분이 됐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는 모비석을 해석하는 데도 관심이 생겼다.

그는 고등학교 때 써뒀던 「노인의 근심(ihtiyar Karanlık)」과 「무르익은 통증(Olgunlaşan Ağrı)」이라는 작품을 재판받을 때 경찰에게 빼앗겼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 외에도 아지즈 네신이 운영하는 뒤선(Düşün) 출판사에서 발행을 앞두고 있을 때 1962년 출판사에 붙이나 『히로시마(Hiroşima)』 시집도 소실되고 말았다.

코르크마즈길은 시인이기도 하지만 기자이기도 했고, 풍자 작가이기도 했다. 코르크마즈길의 풍자시집이 3권 있다. 단편소설집 『오오오(Öhhööl!)』는 주로 사회적 사건을 나타냈고, 『메이드 인 튀르키예(Made in Turkey)』는 정치적 사건, 『콧수염이 말해요(Bıyıklar Konuşuyor)』는 사람과 주변 환경에 따른 문화와 예의에 대한 차이를 다루었다.

하산 휘세인은 시인으로서 사건을 묘사하는 데 탁월했고 신문기자로서는 통찰력이 뛰어났다. 시인과 신문기자로서 활동하면서 받았던 깊은 인상을 『바그다드 바스라에 가는 길(Bağdat Basra Yollarında, 1974)』이라는 여행기에 잘 나타냈다.

하산 휘세인은 53년 평생동안 시 13편, 단편소설 3편, 동화 5권, 전쟁 기록 1편을 썼다. 뇌출혈로 쓰러져 오랫동안 치료를 받다가 1984년 2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묘지는 앙카라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핫산 휘세인 코르크마즈길

● 다국어 표기 HASAN HUSEYİN KORKMAZGİL(영어), HASAN HÜSEYİN KORKMAZGİ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Aydın Mehmet, *Hasan Hüseyin Korkmazgil Sanatı-Yaşamı*, Hatipoğlu Yayınları, Ankara, 2014.

Bezirci Asım, *On Şair On Şiir*, May Yayınları, İstanbul, 1971.

Kılıç Hüseyin, *Konuşan Kadavralar Komedyası*, Otopsi Yayınları, Ankara, 2000.

Özcan Ömer, *Türk Edebiyatında Hiciv ve Mizah*, İnkılap Yayınları, İstanbul, 2002.

Timuroğlu Vecihi, *Yazınımızdan Portreler*, Başak Yayınları, Ankara, 1991.

Turan Metin, *Kültür Kimlik Ekseninde Türk Edebiyatı*, 4. Baskı, Ürün Yayınları, Ankara, 2014.

I H213 | 하얀 뼈대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유형 소분류2 신분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aq suyek

카자흐스탄 전통 사회에서 형성된 최상류 계급으로서, 이들은 칭기즈 칸의 장남 쥬치의 혈통을 가진 자들이다. 이들은 칸이나 술탄 등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세습될 뿐만 아니라 국가 영역에서 최고의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다.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신라 시대 성골과 진골을 생각해 본다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

카자흐인들은 ‘뼈대’ 개념으로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어 칭기즈 칸 및 쥬즈와 혈연적 연관을 지니면 ‘하얀 뼈대(백골)’로 불렀고, 이러한 혈통을 갖지 못한 일반 평민들을 ‘검은 뼈대(흑골)’로 불렀다. 이 둘 계급의 혼혈로 태어난 사람들은 ‘노란 뼈대(황골)’로 불렀다. 전쟁 포로 등으로 형성된 노예는 이들 부류에 들지 못했으며 따로 분류되었다. 카자흐 칸국 등 카자흐인들의 국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 그중에서 ‘악-수이엑’은 최고 통치자 또한 그 집안의 사람을 지칭했다. 이들은 교육을 특별히 받았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 대체로 우수했으며, 면세 외에도 재판에서도 제외되는 등 특권도 있었다. 물론 칸이나 술탄 등이 되려면 우선 혈통적으로 악-수이엑이어야 하고 만약 악-수이엑이 아닌 자가 칸이나 술탄으로 참칭하면 사회적 지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처벌받기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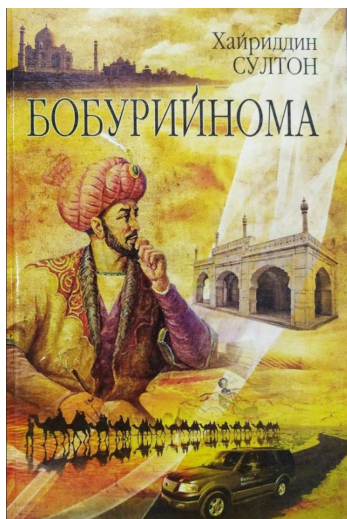
카자흐인들의 영역이 제정 러시아령에 편입되면서 악-수이엑 특권층의 위상은 낮아지기 시

작했고, 러시아 당국의 차별적 정책에 기존의 특권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소련 시기에 이러한 신분적 특권은 완전히 폐기되어 현재는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악-수이엑’은 과거 카자흐스탄의 전통적 신분제를 나타내는 특권 귀족들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악수이엑
- 다국어 표기 ақ сүйек(카자흐어), white bone(영어), белая кость(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사회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1, Алматы, 2004.

I H214 | 하이릿딘 술터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Xayriddin Sultonov



『boburiynoma』 표지
Source: <https://assets.asaxiy.uz/product/items/desktop>

하이릿딘 술터너브(Xayriddin Sultonov)은 1956년에 타슈켄트 주 키브라이 구 투젤 마을에서 태어나, 1978년에 타슈켄트 국립대학교(현재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언론학과를 졸업했다.

어릴 적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압둘라 커드리이, 어이벡, 가푸르 굴림, 압둘라 카하르, 어딜 요쿠버브의 작품들을 읽으며 문학적 기교를 익혔다. 그는 작품을 통해 고귀한 인간의 특성, 삶, 의식 등의 모범적인 측면들을 일반화하여 보여주며, 수사, 사건의 복잡한 서술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문체의 특성으로 인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이릿딘은 <굴리스트톤(Guliston)>, <청춘(Yoshlik)>과 같은 잡지사에서 시작하여, 1990년대에 <가푸르 굴림(G'afur

G'ulom) 문학예술 출판사에서 편집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2000년부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홍보고문, 그 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문화, 언론 및 예술단체 관련 자를 맡았으며, 1999년부터 2003년대까지 타슈켄트 주 에스키 코원치(Eski Qovunchi) 지역의 대의원이었다.

하이릿딘 술터너브는 1996년에 슈흐라트(Shuhrat) 훈장을, 2003년에 노동훈장(Mehnat shuhrati)을 수여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태양은 모두에게 똑같이 빛난다(Quyosh barchaga barobar, 1980)』, 『어느 날 밤 이야기(Bir oqshom ertagi, 1983)』, 『어머니의 고향(Onamning yurti, 1987)』, 『인생은 지나간다(Umr o'tmoqda, 1988)』, 『바부르의 꿈(Boburning tushlari, 1992)』, 『세상의 비밀(Dunyoning siri)』, 『공연(Tomosha)』, 『종이로 만든 꽃(Qog'oz gular)』, 『한 오두막에 4명의 남자(Chayladagi to'rt erkak)』, 『어이, 잠쥬드(Yo, Jamshid!)』, 『행복의 해변(Saodat sohili)』, 『여름의 유일한 추억(Yozning yolg'iz yodgori)』, 『멋진 날 중 하나(Ajoyib kunlarning birida)』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이릿딘 술톤, 하이릿딘 술탄, 하이릿딘 술탄, 하이릿딘 술톤, 하이릿딘인 술톤

● 다국어 표기 Xayriddin Sultonov(우즈베크어), Султанов Хайридди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압둘라 커드리이, 어이벡, 가푸르 굴림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 Shokirova Rixsiya, *O'zbek adiblari*, Toshkent: Fan, 2007.

Sultonov Xayriddin, *Onamning yurti*,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1987.

Sultonov Xayridin, *Umr esa o'tmoqda*, Toshkent: Yosh gvardiya, 1988.

Tursunov Sanjar, *Muhabbatning mangu ertagi, hikoyalar*,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nashriyot-matbaa ijodiy uyi, 2017.

I H215 | 하이지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Hajji

하이지는 민속 악기 차트한이나 호미스 반주에 알리프티그 니마흐(하카스 영웅서사시)를 부르거나 서술하는 하카스의 이야기꾼-명인이다. 하이지는 민속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카스어로 ‘하이’라고 부르는 배음 창법(倍音唱法)으로 노래를 부르는 음악가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이지는 ‘하이’를 행하는 사람이란 의미이다. 하이지를 하이지-니마흐치(хайчы-нымахч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니마흐가 ‘이야기’란 의미이므로 이때는 이야기꾼-하이지란 의미가 된다. 이야기꾼의 재능은 세습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야기로 과거 영웅들의 업적이나 민족의 역사를 전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카스인들의 존경의 대상이다.

하이지는 보통 10개~20개나 그 이상의 연주 목록을 갖고 있다. 관찰력이 좋은 예언자 혈통의 기억력이 좋은 사람만이 하이지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사얀-알타이 투르크 민족들은 서사시에 삶을 바친 하이지를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으로 여긴다. 보통 하이지들은 가족도, 집도, 재



하이지의 공연 모습

Source: <https://www.19rus.ru/images/NEWS/Kulture/epos.jpg>

산도 없이 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이지는 민족 사회에서 큰 존경을 받는 손님으로 대접받는다. 큰 상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칭송하고 여가를 윤택하게 하려고 자기 마을에 하이지를 초대해 머무르게 한다.

하이지 중에서도 특히 뛰어난 이들을 에엘리그 하이지(노래를 지배하는 영혼의 하이지란 의미)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알리프티그 니마흐를 연주할 때는 산이나 타이가, 강의 정령들이 모여들어 공연을 감상한다고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이지

● 다국어 표기 Хайджи(러시아어), хайчы(하카스어)

● 연관 검색어 하카스어, 하카스인, 호미스

● 멀티미디어 링크 하이지 톨라가 - 알리프티그 니마흐 연주 모습

https://www.youtube.com/watch?v=k_bf1Cejyg

● 참고문헌(오프라인)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Абакан, 2008, 234.

В. Я. Бутанаев, И. И. Бутанаева. Мир хонгорского (хакасского) фольклора. — Абакан: Издательство Хакас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м. Н. Ф. Катанова, 2008.

Ⅰ H216 Ⅰ 하자렛 술탄 모스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Hazret Sultan Mosque

하자렛 술탄 모스크는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 있는 국가 최대의 이슬람 사원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건축공사가 진행되었다. 77m 높이를 가진 4개의 대형 미너렛(첨탑)을 곁에 두고 있고 이슬람 모스크의 형태에 전통적인 카자흐인들의 문양을 넣어 건축했다.

이 모스크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높은 돔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높이가 51m에 이르고, 8개의 소형 돔을 가지고 있다. 평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은 5천명 정도이며 특별한 날에는 1만 명의 신자들이 모여 이슬람 예배를 드린다. 모스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해도 11ha(약 4천



하즈렛 술탄 모스크

평)에 이를 정도로 거대하다. 이와 같은 예배 공간 외에도 간단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장소와 코란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하즈렛 술탄의 뜻은 ‘신성한 술탄’이라는 뜻이며 카자흐스탄의 남부에 있는 도시 투르키스탄에 있는 아흐메드 야세비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모스크 건축 이후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다. 하자렛 술탄 모스크는 수도 아스타나와 카자흐스탄 이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스크로 자리를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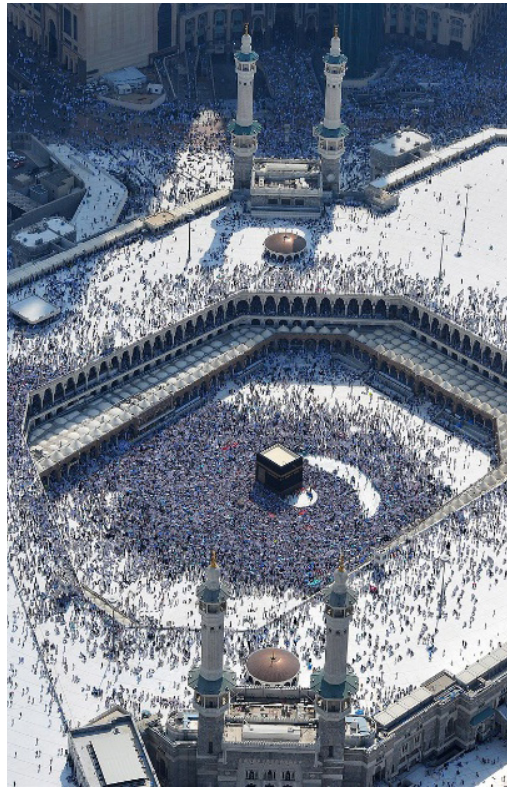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자렛 술탄 모스크
- 다국어 표기 Әзірет Сұлтан мешіті(카자흐어), Хазрет Султан мечеть(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이슬람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1BNqNf5smk>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astana-kazakhstan.net/attractions-2/culture-and-entertainment/hazret-sultan-mosque/>
- 참고문헌(오프라인) Bülent Batuman(ed.), *Cities and Islamisms: On the Politics and Production of the Built Environment*, Routledge, 2021.

I H217 | 하즈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신형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Hac

라마단 단식과 함께 이슬람 의례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메카(Mecca) 성지 대순례를 말한다. 이슬람의 예언자 무함마드가 죽기 전에 행한 순례를 본받아 행한다. 이슬람교에서 순례는 소순례와 대순례로 나뉜다. 둘의 차이는 기간과 의례다. 우므라(Umrah)라고 하는 소순례는 연중 어느 때나 할 수 있지만, 대순례는 이슬람력 둘하즈(순례)월 8일에 시작하여 12일이나 13일에 끝난다. 또 소순례에 비해 대순례는 순례자가 행해야 할 의례가 더 많다. 대순례는 신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행할 능력이 있는 성인 신자라면 평생 한 번은 해야 하는 의무다. 순례를 위해 대출을 하거나 집을 비우는 동안 가족들이 평소와 같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면 순례를 해도 무효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는 집을 떠나 메카에 도달하는데 일 년 이상 걸리기도 했다.



카바 주변에 모인 순례객들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세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1325년 6월 13일에 고향 모로코의 탄자를 출발하여 북아프리카를 가로질러 이집트, 시리아, 다마스쿠스, 메디나를 거쳐 무려 1년 3개월 만인 1326년 9월에야 비로소 메카에 도착했다. 오늘날이었다면 항공편으로 14시간이면 탄자에서 메카까지 갈 수 있으니, 이븐 바투타처럼 고생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명의 이기 덕에 여정이 편해진 만큼 순례를 원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 과거와 달리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순례 비자를 주어야만 꿈을 이룰 수 있다. 한정된 공간에 너무나도 많은 순례자가 몰리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해마다 무슬림 인구 1,000명당 1장 꼴로 국가별 비자수를 정하여 발표한다.

여성의 경우 45세 이상이면 배우자의 동의 하에 혼자 순례가 가능하지만, 45세 이하는 반드시 배우자와 함께 순례를 해야 한다. 비자 발급비는 없지만, 텐트 사용비, 성지 이동 시 교통비 등 순례 부대 비용을 내야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즈, 핫즈, 하지, 핫지
- 다국어 표기 Hajj(아랍어), Hac(튀르키예어), xaç(아제르바이잔어), haj(우즈베크어), қажылық(카자흐어), ажылык(키르기스어), haj(투르크멘어), хаҗ(타지크어)
- 연관 검색어 쿠르반 바이라므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Al-Haram_mosque_-_Flickr_-_Al_Jazeera_English.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Wensinck, Arent J. and Bernard Lewis. "Ḥadjj". In *Encyclopaedia of Islam*, 2nd ed., Vol. 3. Leiden: Brill, 1971. 31~38.
- 박현도, 「핫즈 Hajj, 메카 대순례」, 『월간조선』 2017년 10월호, 통권 451호, 2017. pp.508~518.

I H218 | 하즈 바이라므 웰리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HACI BEYRAM-ı VELİ

실제 이름이 누만(Numan)인 하즈 바이라므 웰리(Hacı Bayram-ı Veli)는 1352년 앙카라 추북 강변 지역에 있는 솔파솔(Solfasol) 마을에서 코윤자 아흐메드(Koyunluca Ahmed)라는 농

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신비주의(Tasavvuf) 삶을 이야기한 책 『메나크프나네(Menakıpname)』에 의하면, 하즈 바이라므 웰리는 이슬람 고등학교 격인 마드라사(medrese)를 졸업하고, 앙카라에서 종교학자로 지내다가 스승인 쉐이 하미드(Şeyh Hamid)가 있는 악사라이로 갔다. 이후 스승과 함께 아나톨리아를 여행하고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쿠스(Şam)와 히자즈(Hicaz) 지역을 여행했다. 하즈 바이라므 웰리가 죽자 할와티야(Halvetiyye)와 낙쉬반디야(Nakşbendiyye)라는 두 종파가 '바이라미예(Bayramiyye)'라는 하나의 종파로 합쳐졌다.

하즈 바이라므는 매우 겸손했다. 농사일도 직접했고, 수도승들과 농작물을 심고 수확하고 곡식을 모아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는 본인도 필요한 만큼만 가져갔다. 수도원의 빨래는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세탁하는 방식이었다. 종파가 없어질 때까지 '빨래 회전'이라 해서 수도원에 거주하는 모두가 세탁에 참여했다. 하즈 바이라므는 세탁하는 동안에도 일정한 박자로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지크르(염송)'를 암송했다.

이슬람력으로 1년 동안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는 7월(Recep), 8월(Şaban), 9월(Ramazan)에는 유명한 수도승이 시골이나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기부도 받는다. 경작한 농작물과 돈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준다.

하즈 바이라므는 삶을 청렴하고 겸손하게 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는 악삼사딘(Ak Şemseddin)의 자서전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악삼사딘은, 오스만 메드레세에서 종교학자였을 때부터 수피에 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제이네딘 하피(Zeyneddin Hafı)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종교학자 일을 그만뒀다. 알레포(Halep)로 향하는 길에 꿈을 꿔는데 자기 목을 감싸고 있는 사슬을 하즈 바이라므가 잡고 있었다. 그래서 길을 돌려 앙카라로 향했다. 앙카라 근처에 도착해서 보니 하즈 바이라므가 신도들과 함께 농산물을 추수하고 있었다. 악삼사딘도 그 옆에 가서 하즈 바이라므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다. 식사 시간이 되어서, 하즈 바이라므는 사랑을 담아 배식했다. 그러나 악삼사딘의 사발에는 아무것도 담아 주지 않았다. 배식하고 남은 수프와 요구르트는 개에게 주었다. 이후 악삼사딘은, 개 밥그릇에 있는 음식으로 배를 채웠다. 이런 상황으로 그를 매우 겸손한 사람으로 본 하즈 바이라므는 악삼사딘을 제자로 인정했다.

신비주의자 하즈 바이라므 웰리는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아루즈(Aruz) 형식으로 쓴 2개의 시와, 음절(Hece) 형식으로 쓴 3개의 시가 있다. 그리고 하즈 바이라므의 것으로 추정되는 튀르키예어 산문 편지도 있다.



하즈 바이라므 웰리의 관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다음은 그가 쓴 시 한 귀절이다.

무슨 일인가 내 마음에 무슨 일인가 내 마음에
문제와 걱정으로 가득 찼네 내 마음이
애가 타네 내 마음이 애가 타네 내 마음이
타들어가면서 힘을 찾았네 내 마음이
---(중략)
타라 내 마음아 타라 내 마음아
타들어가면서 힘을 찾을 거야
나비처럼 나비처럼
사랑의 불꽃 때문에 애가 탄다 내 마음

---(중략)

진심으로 애가 땀고 진실을 위해 애가 땀네
사랑의 색이 온통 내 마음을 물들였구나
자신을 찾았네 자신을 찾았어
원하는 것을 얻으니 기쁨 줄 알았네 내 마음

---(중략)

이제 기쁘다 이제 기쁘다
이제 연인과 함께 할 수 있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님과 함께 기쁨을 찾았어 내 마음

그는 1429년 눈을 감았고, 하즈 바이람 웰리의 묘지는 앙카라 하즈 바이람 모스크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지 바이람 벨리, 하지 바이람 벨리

● 다국어 표기 HACI BEYRAM-ı VEL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마드라사, 낙쉬반디야

● 참고문헌(오프라인) Atalay Besim, *Bektaşilik ve Edebiyatı*, Ant Yayınları, İstanbul, 1991.

Gölpınarlı Abdülbaki, "Hacı Bayram-ı Veli", *Türk Dili Dergisi, Türk Halk Edebiyatı Özel Sayısı*, S.207, Aralık, 1968.

Gölpınarlı Abdülbaki, *100 Soruda Tasavvuf*, 2. Baskı, Gerçek Yayınevi, İstanbul, 1985.

Kocatürk Vasfi Mahir, *Tekke Şiiri Antolojisi*, 2. Basım, Edebiyat Yayınevi, İstanbul, 1968.

Pekolcay Necla, *İslâmî Türk Edebiyatı*, 2. Baskı, Kitabevi Yayınları, İstanbul, 1994.

Turan Metin, *Ozanlık Gelenekleri ve Türk Saz Şiiri*, 3. Basım, Başkent Matbaacılık & Klišecilik, Ankara, 1997.

I H219 | 하카스 고고학 미술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미술 ● 유형 소분류2 장르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hk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Khakasskiy arheoart

샤머니즘을 토속 신앙으로 믿는 하카스인들이 거주하는 하카스-미누신스크 계곡은 세계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태초부터 이곳에서 살던 하카스인들의 풍부한 신화와 영웅서사시, 민요와 악기의 세계, 응용 미술, 암각화들이 전해진다. 이러한 작품들은 많은 민속학자, 역사가, 고고학자, 민족지학자, 언어학자 및 화가들의 중요한 발견들 덕분에 세상에 재탄생되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고분 및 석상들이 없는 하카스의 풍경을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카스인들이 거주하는 영토에 이러한 고대 문명들의 흔적들은 하카스인,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독일인 화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문화적 참고 자료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토드코프(V. A. Todikov), 수바라코프(R. I. Subrakov) 및 사갈라코프(G. N. Sagalakov)와 같은 유명 화가들은 자신의 장식품에서 출토된 다양한 장식품, 암각화, 향아리, 단검, 벨트 및 마구 등을 고대 하카스인들을 상징하는 모티프로 사용했다. 위 화가들과 함께 시작한 이 운동은 1980년대 중반 고고학적 양식을 의미하는 ‘고고학 미술’이라는 새로운 예술 양식을 만들어냈다.

이 예술 양식은 울투르가세프(A. L. Ulturgaşev), 사갈라코프(G. N. Sagalakov), 도모야코프(A. V. Domojakov), 카펠코(V. F. Kapelko), 코토예코프(A. I. Kotojekov) 등의 예술 작품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샤머니즘이 형성한 세계관을 이해하고자 했던 이들 화가들은 초기 그래픽 아트를 대표하는 암각화를 토대로 샤먼 신화의 모티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자신들의 고고학적 양식과 독창성으로 더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카스 미술품
- 다국어 표기 Khakasskiy arheoart / Хакасский археоAPT(러시아어), Khakas archeoart(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lturgashev.ru/>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идиекова, И. К. «Древность в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 искусстве хакасии».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1. Абакан: ООО Поликор. 2007. С. 187.

I H220 | 하카스 마(馬)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생물 ● 유형 소분류2 동물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Khakassian Horses

하카스 마(馬)는 수천 년 전부터 하카스인이 거주했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예니세이 인근 지역과도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해 왔다. 그 지역의 운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화려하고도 찬란한 역사적 사건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던 투르크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말 사육은 그들 사이에서 항상 특별한 역할을 해 왔다.

기원전 7세기 초 남부 시베리아에서는 반유목 부족이 군대를 형성하기 시작하고, 정착된 농업 타가르 문화가 등장하며 비로소 이 시기에 국가적 특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대 중국 역사가들은 이러한 급격한 성장을 두고 “딩링고”라 불렀다.

이들의 말 사육과 관련된 최초의 기록은 후기 신석기 시대(B.C. 4000년대 후반)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바칸 지역 역사박물관에서는 B.C. 800년~B.C. 200년의 타가르 문화에 속하는 말 석판이 전시되어 있다. B.C. 3000년대 중반 이들 공동체는 말을 단순한 식량 수단이 아닌, 이동 수단으로써 사육하기 시작한다. 이후 천년이 지나, 말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는 데 사용되었다. 대초원 지역의 주민들은 유목 생활을 위해 4륜 차와 2륜 수레를 사용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A.D. 1세기~A.D. 5세기의 하카스-미누신스크 지역에 초기 봉건 국가가 등장했다는 점도 확인 가능하다. 하카스 문명의 발전 과정은 다면적이고 점진적이었는데, 하카스인은 중국과 외교 및 상업 교류를 진행함에 따라 말을 판매하고 비단 교환을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당서』에는 당시 당나라인들이 특히 관심을 가졌던 고대 하카스 말과 관련된 정보들이 전해진다. 일부 연구자에 의하면 고대 키르기스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말을 사육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는 목이 짧고 뚱뚱한 말이며, 다른 하나는 전쟁에 참전할 만큼 덩치가 크고 강한 말이었는데 이는 고대

키르기스인들의 자랑으로서 중국 황제에게 선물할 만큼 장엄한 흰색을 띤 특수마로 전해진다.

키르기스 문화에서 말은 역사적 기록과는 별개로 고고학적 유산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다. B.C. 9세기~B.C. 8세기 말 마구의 등자 및 말의 얼굴 부분에 덧대는 장비 등은 높은 수준의 장인 정신과 예술적 취향을 구현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khakas-horses.com/>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абунное коневодство Хакасии / Ю.Ю. Коломеец, А.Д. Волков; Рос. акад. с. - х. наук. Сиб. регион. отд-ние. Гос. научн. учр. Науч. -исслед. ин-т аграр. проблем Хакасии, Краснояр. гос. аграр. ун-т. - Новосибирск, 2013.

I H221 | 하카스 언어문화역사학 연구소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관 ● 유형 소분류2 연구소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HakNIYALI

하카스 언어문화역사학 연구소는 하카스 영토 내에 사는 하카스인들 및 기타 다른 소수 민족들의 언어, 문학, 민속학, 역사, 고고학, 예술을 연구하기 위해,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1944년 7월 러시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인민위원회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이 연구소의 첫 소장은 하카스의 유명한 작가이자 학자였던 도모자코프(N.G.Domozhakov) 교수가 맡았다.

하카스인들은 언어, 문자, 문학, 민속학 및 역사, 민족지학, 경제학, 민족심리학 등의 전공 등을 설치하여 이 기관에서 학자 양성을 위해 힘썼다. 초대 소장이었던 도모자코프의 뒤를 이어 울투르가셰프(S. P. Ulturgashev), 찬코프(D. İ. Chankov), 아소차코프(V. A. Asochakov), 순취가셰프(Ya. İ. Sunçugashev), 코토제코프(G. G. Kotozhekov)가 이 기관의 소장을 역임했다. 1998년부터 2021년까지는 발렌티나 투구제코바 교수가 연구소의 총 책임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한 바 있다. 현재는 2021년 12월 19일 하카스 공화국 교육 과학부에 의해 임명된 니나



하카스 언어문화역사학 연구소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마이나가셰바(Doç. Dr. Nina Maynagasheva) 교수가 하카스 언어 문학 역사학 연구소 소장으로서 근무 중이다.

하카스 언어문화역사학 연구소는 남시베리아 고고학, 하카스 역사, 하카스 공화국 발전의 경제 및 사회 문제, 하카스 언어의 형성, 발전 및 현대적 기능(언어사), 하카스 문학 장르와 문체의 독창성, 현대문학 맥락에서의 하카스 문학, 하카스 민속에 대한 연구를 하며 정부 기관 및 민간 기업에 학술 방법론적 조언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하카스 언어문화역사학 연구소는 1947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과학학술지 <Uçenye zapiski(Scientific Bulletin)>와 함께 2000년부터 <사얀-알타이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최근 문제들(Aktualnye problemy istorii i kultury sayano-altaya, Sayan-Altay Tarihi ve Kültürünün Güncel Sorunları)>이라는 제목의 학술지를 발행 중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키니알리

● 다국어 표기 HakNiiYALi (Hakasskiy Nauchno-Issledovatel'skiy Institut Yazika, Literatura i Istorii) / ХакНИИЯЛИ (Хакасски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языка, литературы и истории) (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Данкина, Н. А. «Хакасски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языка, литературы и истории».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2. Абакан: ООО Поликор. 2008. С. 240~241.

I H222 | 하카스 전통력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의식주 ● 유형 소분류2 생활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ühk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Khakas Traditional Calendar

하카스 전통력은 우주의 별의 움직임과 관련된 주기적인 자연 현상을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주기 측정 시스템은 하카스인들의 조상인 예니세이 키르기스 시대의 12동물력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통력에 의하면 매년 고유한 표시 및 특성이 있다. 1세기는 5개의 12년 달력으로 구성되며 총 60년을 의미한다. 다섯 개의 시대는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가진 색으로 표현된다. 이는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색', 불을 상징하는 '붉은색', 물을 상징하는 '하얀색', 토양을 상징하는 '검정색' 그리고 식물을 상징하는 '녹색'이다.

춘분(3월 21일)으로 한 해가 시작되는 하카스 전통력을 통해 통해 연도, 계절, 월, 24시간 및 하루의 짧은 시간을 예측할 수 있다. 이 전통력에는 다양한 시간 표현들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1분 가량의 시간에 해당하는 “소가 음메하며 울 때까지(inek müürence, inek mööleyinceye [dek])”, 약 10분의 시간을 의미하는 “(하카스인들의 전통 음식인 피로 만든 소시지 음식, 한국인들의 순대와 흡사함)피가 익을 때까지(han pışanca)”, 차가 끓는 시간을 의미하는 약 30분에 해당하는 “차가 끓을 때까지(çay haynaanca)”, “담배 한대를 피우는 동안(tamkı tarthanca)”, 아이란이 가마솥에서 증류되어 음료로 만들어지기까지 걸리는 약 1시간 30분의 시간(pİR hazan sıhhanca) 등이다.

하카스인들은 여름이 되면 그들이 살았던 전통 가옥이었던 유르트(Yurt)를 보고 시간을 확인했다. 문이 동쪽을 향하고 있는 유르트의 내부 구조는 집들마다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는데 툰둑(Tunduk)으로 알려진 지붕 중앙의 둥근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의 움직임을 따라 하카스인들은 시간을 추측했다. 밤에는 치티겐(Çitiġen)이라 알려진 큰곰자리와 킷 아트 칠티스(Kök

at çultus)의 작은곰자리, 위스 무이아흐(Üs Muyğah)로 알려진 오리온자리, 월게르(Ülger)로 알려진 플레이아데스, 솔반(Solban)으로 알려진 금성 및 쿠키테이(Köketey)로 알려진 시리우스와 같은 행성 및 별자리에 따라서 시간을 예측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카스전통달력

● 다국어 표기 Khakas Traditional Calendar(영어), Khakasskiy traditsionny kalendar / Хакасский традиционный календарь(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유르트

● 참고문헌(오프라인) Бутанаев, В. Я. «Календарь хакасский».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Т. 1. Абакан: ООО Поликор. 2007. С. 252~253.

Ⅰ H223 Ⅰ 하카스어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hakas Lanugage

하카스인들은 수세기 동안 미누신스크 지역에서 축산, 농업, 사냥 및 채집에 종사하며 살아왔다. 하카스 공화국은 금속 산업, 전기 에너지, 난방 산업으로 인하여 시베리아의 다른 지방에 비해 비교적 산업화된 지역으로 간주되지만, 대부분의 하카스인들은 도시보다는 시골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 17세기 이후 러시아 인구의 유입과 함께 하카스인들은 도시로 망명을 하게 되었고, 이는 점진적인 지역 인구 감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카스 공화국 내에는 러시아인, 우크라이나인, 타타르인, 키르기스인, 쇼르인, 추바시인 등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사는데, 그들 중 러시아인의 비율은 80%를 차지하고, 정작 하카스인은 12%만이 거주하고 있다.

하카스어는 러시아 하카스 공화국에서 하카스인들이 사용하는 투르크어이며 알타이어, 쇼르어, 투바어와 함께 북동투르크어 그룹에 속한다. 하카스어는 1930년대까지 정형화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24년 키릴 문자를 기반으로 하카스어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다양

한 교과서와 함께 공식 문서들이 출판되기 시작되었다. 1929년~1939년에는 키릴 문자 대신 라틴 문자를 사용했으나, 이후 다시 키릴 문자로 공식 문자를 변경했다.

하카스 공화국의 공식 언어는 하카스어와 러시아어이지만, 하카스어는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 하카스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 및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카스어로 예술 및 문학 언어, 특히 교육 및 대중 매체의 언어로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카스어
- 연관 검색어 북동투르크어, 알타이어, 쇼르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cikders.ankara.edu.tr/pluginfile.php/173020/mod_resource/content/0/DERS7_HAKASLAR%20VE%20DILLERI.pdf
- 참고문헌(오프라인) Johanson, Lars, and Éva J. Csató. *The Turkic Languages*. Routledge, 2015.

I H224 | 하카스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김근식 ● 라틴 문자 Khakas People

하카스인들은 남시베리아의 하카스-미누신스크 분지(Хакаско-Минусинская котловина)에 위치한 하카스 공화국(Республика Хакасия)을 근거지로 삼는 투르크계 민족이다. 하카스인은 모두 4개의 인류학적 그룹으로 나뉘는데, 사가이인(сагайцы), 카친인(качинцы), 키질인(кызылыцы), 코이발인(койбалы)이 그것이다. 이들 대부분이 스스로를 하카스 사람이라 생각한다.

2010년의 러시아 인구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에 대략 72,000명 정도의 하카스인이 있으며, 63,643명이 하카스 공화국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미누신 타타르(минусинские татары)나 아바칸 타타르(абаканские татары)라고 불렸다.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하카스인들은



하카스인들의 전통 목조 주택

텔렌기트, 텔레우트, 출림인, 쇼르인들과 가까운 민족이다.

하카스란 단어는 중부 예니세이 계곡의 토착 주민을 지칭하는데, 9세기~10세기 중국 사료에서 예니세이 키르기스인을 부르는 호칭인 하가스(хагасы)에서 유래했다. 하카스인이 몽골 오이라트, 파라탄, 할마흐 부족과 밀접한 관계라는 설도 존재한다(투르크-몽골계).

하카스인은 1876년 공식적으로 기독교화 되었지만 전통 신앙이 계속 남아 있었다. 그들은 하늘, 산, 물, 신목에 제물을 바치고 기도하는 샤먼이 주관하는 집단 기원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카스인의 주업은 유목을 곁들인 목축이고, 사냥도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타이가 지역에서는 농업도 영위한다.

하카스어는 동투르크어파의 위구르 그룹에 속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카스족
- 다국어 표기 Хакасы(러시아어), خاکيون(아랍어), Hakaslar(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키질, 출림인, 쇼르인

● 멀티미디어 링크 하카시아 지도

https://ru.wikipedia.org/wiki/%D0%A5%D0%B0%D0%BA%D0%B0%D1%81%D0%B8%D1%8F#/media/%D0%A4%D0%B0%D0%B9%D0%BB:Map_of_Russia_-_Khakassia.svg

● 참고문헌(오프라인) Тишков В.А. Журавский А.В, Казыьмина О.Е. «Народы России: Атлас культур и религий», М.:ИПЦ «Дизайн. Информация. Картография», 2008.

I H225 | 하킴잔 나우르즈바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조각가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Khakimzan Nauryzbaev



하킴잔 나우르즈바이가 조각한 잠불 기념동상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kk/>

하킴잔 나우르즈바이(Khakimzan Nauryzbaev)는 1925년 카자흐스탄의 북부 지방인 쿠스타나이주에서 출생한 후 2009년 알마티에서 사망한 조각가이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조각 솜씨로 이름을 날렸는데 콜호즈 내의 학교에서 국가 지도자들의 흉상을 제작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43년에 나우르즈바이는 알마티 예술학교에 진학해서 심층적인 학업을 지속했다. 하지만 학교장은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더 나은 학교인 모스크바 건축대학으로 진학시키기로 결정했다. 그후 예술학교장은 하리코프 예술대학 총장이 되었는데, 이에 나우르즈바이는 다시 하리코프로 초청되어 학업을 지속했고, 1951년에 졸업했다.

1951년에 나우르즈바이는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고 1952년부터 1966년까지 알마티 예술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나중에 유명한 조각가가 된 인물

도 있었다. 1952년에 역시 그는 소련 예술가 연맹 회원이 되었다. 이어서 카자흐 공화국 예술가 연맹 총무, 소련 예술가 연맹의 집행위원이 되었다. 그리고 1960년에는 카자흐 공화국 공훈 예술가가 되었다. 1969년에는 국민예술가 칭호를 받으면서 국가를 대표하는 조각가가 되었다.

1950년대 초에는 알마티에서 아바이 기념 동상 제작 대회에 참가하기도 했지만 정작 기념비는 아바이 탄생 115주년의 해인 1960년에 설치되었다. 현재 알마티 시내에서 볼 수 있는 아바이 동상은 바로 나우르즈바이의 작품이다. 그 밖에도 알마티 및 타라즈 등 주요 도시에는 나우르즈바이가 제작한 동상과 조각품이 다수 설치되어 있다.

- **다국어 표기** Хакімжан Есімханұлы Наурызбай(카자흐어), Хакимжан Исмаханович Наурызбае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카자흐스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k3y4iw5the4>
- **참고문헌(온라인)** <https://kraeved-kst.kz/ru/gordost/o-regione/gordost-zemli-kostanaiskoi/nauryzbaev-khakimzhan-ismakhanovich-1925-2009.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т. 4, Алматы, 2006.

| H226 | 하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신
- 집필자 김흥중 ● 라틴 문자 Hat

하트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질서와 조화, 그리고 미(美)를 관장하는 추바시의 선한 신이다. 투르크어에서 일치하는 단어로 ‘영혼, 정신’을 뜻하는 코트(кот)와 ‘행복’을 의미하는 몽골어의 ‘후타그(хутаг)’, 만주-퉁구스어의 ‘쿠투(куту), 후투리(хутури)’와 비교할 수 있다. 하트란 단어는 어머니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만일 부부가 잘 살면 ‘하틀라’라고 하는데 하트의 이름에서 나온 표현이다. 아내를 사별한 남자에게는 ‘그의 집에는 하트가 없어’라고 말한다. 하트는 남성과 여성의 조화를 의미하는데, 인

간과 가축을 재해와 도둑으로부터 지켜 달라고 할 때 하트에게 기도한다.

인생의 중요한 일을 돌보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추클레메(Чүклемме) 축제나, 지역 단위 축제인 하트-추크(Хăт чук)에서 하트에게 기원한다. 주민들은 제물로 암소, 황소, 말, 망아지 등을 바치는데 이것으로 시골 사람들은 대지의 원초적인 질서를 회복한다고 믿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헛, 허트
- 다국어 표기 Хăт(러시아어), Хăт(추바시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нтон Салмин, Система верований чувашей, Чебоксары, 2004, 30.

I H227 | 한 모스크

● 시기 A.D. 1500년~A.D. 18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우크라이나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모스크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Han mosque

크림 타타르 칸국의 데블렛 기라히 칸(Devlet Giray Khan I, 재위: 1551년~1577년)은 오스만 제국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은 후,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1552년 오스만 제국의 유명 건축가 미마르 시난에게 모스크 건설을 의뢰한다. 크림반도 남서쪽 해안에 위치한 괴즈레베(Gözleve, 또는 Yevpatoriya) 시에 건설된 한 모스크는 미마르 시난의 기록에는 '타타르 한 모스크(Tatar Han camii)'라고 표기되어 있다. 한 여행가의 기록에 의하면 기라이 칸의 영묘가 모스크 키블라 벽 뒤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다.

한 모스크는 약 14mx14m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지름 6m 가량의 돔이 중앙에 있으며, 키블라 벽의 위에는 역시 지름 6m 가량의 세미 돔이 중앙 돔과 인접해 있다. 그 외 작은 돔이 세 개씩 나란히 동편과 서편에서 중앙 돔을 둘러싸고 있다.

모스크는 직사각형의 기도실과 아치로 5구역으로 나뉜 주랑 현관이 있다. 기도실은 네 개의 기둥이 있으며 이층으로 이루어진 갤러리는 본당을 서쪽과 동쪽으로 나누고 있다.

두 개의 미너렛은 각각 동쪽 문 바로 옆과 서쪽 벽에 위치해 있다. 서쪽 벽에 위치한 미너렛은



한 모스크

약간 북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두 미너렛의 배치는 평행하지는 않다.

주랑 현관은 양옆이 닫혀 있는 형태이며, 첨두 아치와 무카르나스로 마무리된 대리석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랑 현관에는 5개의 돔이 있다. 정문은 이 주랑 현관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양옆에 외부 미흐랍이 위치해 있다. 다른 문은 각각 건물 동쪽 벽과 서쪽 벽의 미너렛과 인접해 위치해 있다.

키블라 벽 바깥에서 외부 계단을 통해 내부 동편 갤러리에 위치한 왕을 위한 구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돔에 있는 16개의 창문과 기도실 벽에 나있는 창문 및 아치형 벽감에 뚫린 창문을 통해 빛을 받을 수 있다. 내부는 흰색으로만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으며, 키블라 벽의 세미 돔과 중앙 돔을 지지하는 펜던티브에 무카르나스 정도로만 장식되어 있다.

1970년대, 1990년대에 복구 및 수리를 거친 한 모스크는 당시 미마르 시난 작품의 특징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



한 모스크 정면

Source: <http://www.iccrimea.org/monuments/images/>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한 자미

- 다국어 표기 Cuma Cami(크림 타타르어)

- 멀티미디어 링크 한 모스크 정면

<http://www.iccrimea.org/monuments/images/hancamifront.jpg>

한 모스크 내부

<http://www.iccrimea.org/monuments/images/hancamiinterior.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2772>

Inci Bowman, "Crimean Tatar Architecture." International Committee for Crimean Website. <http://www.iccrimea.org/monuments/monuments.htm>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Kırım Türk Eserleri", *Sanatı, Tarihi, Edebiyatı ve Musikisiyle Kırım* (ed:Oktay Aslanapa).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2003. pp.11~57.

I H228 | 한혈마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기록 ● 유형 소분류2 생물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Parafilaria multipapillosa*

돌을 밟으면 자국이 나고, 전견박부(前肩膊部)에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하루에 1,000리를 달린다고 하여 한혈마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름에 대해서는 대개 ‘피와 같은 땀을 흘리며 달리는 말’, 즉 말의 털 색깔(혹은 말의 피부에 기생하며 피를 빠는 기생충으로 인한 출혈 또는 피부 자극) 때문에 마치 피와 흡사한 땀을 흘리는 말이라는 뜻으로 한혈마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

중국 전한(前漢)의 무제(武帝) 때 장건(張騫)의 서방 원정에 의하여 그 존재가 알려졌다. 뒤에 페르가나[大宛國: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의 Ferghana]에 그 명마가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나, 페르가나는 이것을 한(漢)나라에 헌상하기를 거부했으므로 BC 104년 이사장군(貳師將軍) 이광리(李廣利)가 페르가나에 원정하여 양마(良馬) 수십 마리, 중마(中馬) 3,000여 마리를 얻어 개선했다. 무제는 ‘서극천마(西極天馬)’라 하여 노래를 지어 칭송했다. 『후한서(後漢書)』 권32 「동평헌왕창전(東平憲王蒼傳)」에는 한혈마의 교역과 특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대원마(大宛馬) 한 필을 보냈는데 앞 어깨 뒤의 작은 구멍에서 피가 흘러 나온다. 무제(武帝)가 「천마점적한(天馬露赤汗)」을 노래하는 것을 늘 들어 왔는데, 지금 직접 보니 과연 그렇구나.” 땀과 피가 흐르는 말이란 뜻의 한혈마(汗血馬, 학명 *Parafilaria multipapillosa*)는 뒷목과 어깨 사이의 피하 조직에 기생충이 서식하는데, 그 부위가 부어올라 달릴 때면 혈관이 늘어나 창구(瘡口)가 생겨 땀과 피가 흘러나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고 한다.

대원마(Turkman 馬)는 모두가 한혈마인데, 아랍 말보다는 못하나 지구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신당서(新唐書)』 「서역전(西域傳)」에 의하면 한혈마는 토화라(吐火羅, 토카리스탄(Tokharistan))에서도 출산되며 그밖에 중국 동북부와 몽골, 러시아, 헝가리, 프랑스 등지에도 분포되어 있다. 대원의 한혈마가 한나라에 수입되자 그와 구별해 오손(烏孫)의 천마(天馬)는 ‘서극마(西極馬)’로 개명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천마
- 다국어 표기 汗血馬(중국어), Parafilaria multipapillosa(라틴어)
- 연관 검색어 흉노, 장건, 페르가나, 우즈베키스탄, 무제, 서역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blog.naver.com/funnyjeff/221510051431>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한혈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1495&cid=40942&categoryId=33390>
네이버 지식백과 실크로드사전, 한혈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3908&cid=62093&categoryId=62093>
- 참고문헌(오프라인) Beckwith, Christopher I. (16 March 2009).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Maenschen-Helfen, Otto. *The World of the Huns: Studies in Their History and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I H229 | 할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수피
- 집필자 박현도 ● 라틴 문자 Hal

수피는 체험을 바탕으로 영적인 종교 체험 여정을 마قام과 할로 나눈다. 마قام은 수피 자신이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영성 단계로, 정거장으로 번역한다. 반면 할은 신이 선물로 주는 단계다. 따라서 체험자 자신이 도달하고 싶어도 도달하기 어렵다. 마قام을 넘어서는 단계인 할은 아랍어 단수로 상태를 뜻한다. 복수는 아흐왈이다.

할에서 수피는 자기가 소멸되고 신을 체험한다. 신에 이르는 길에서 자아는 소멸한다. 나방이 죽을 줄 알면서도 기꺼이 뜨거운 불에 날아 들어가는 것처럼, 수피는 신이라는 불 속에서 자기 자신을 태워 버리는 나방과 같다. 자기 소멸은 먼저 인간이 끊임없는 정신적 노력으로 코란 계시에서 신이 자신을 드러낸 ‘신적 속성(屬性)’을 받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인간은 태초의 빛에 둘러싸인 자신의 영혼을 보고 소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소멸의 영상으로

부터 소멸하여 신을 발견하고 신을 향해 완전히 자기 소멸(faná)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피 영성 여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피는 자기 소멸이라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기 소멸을 통해 인간은 진정한 태초의 모습을 찾고 이제는 그 안에서 머문다. 이를 바까(baqà)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 인간은 다시 신과 헤어짐을 경험하는데, 이를 통해 완전한 신적 자아로 변환한다. 이제 인간은 신을 통해 행동하는 것이다.

거짓 자아가 사라진 수피는 이제 본래의 모습, 신이 창조한 그 원래의 모습, 진면목을 갖게 된다. 왜냐하면 거짓 자아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이 머물기 때문이다. 이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단일성으로 가득하다는 것,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실재도 없다는 것, 현상 세계 자체가 신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내면적으로 깨닫는다. 이러한 신적 체험이 바로 수피 여정의 최종 목적지다. 수피에게 신은 배타적인 신앙이 가두어 둔 형태로 있지 않다. 영적 여행의 끝에 만나는 영원한 모습을 지닌 실재다.

● 다국어 표기 Hal(아랍어), Ha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마감, 수피

● 참고문헌(오프라인) Chittick, William C. *Sufism: A Short Introduction*. Oxford: Oneworld Publications. 2000.

Corbin, Henry. *L'imagination créatrice dans le soufisme d'Ibn 'Arabî*. Paris: Flammarion. 1958.

Ernst, Carl. *An Introduction to the Mystical Tradition of Islam*. Boulder, CO : Shambhala Publications. 2016.

Corbin, Henry. *L'imagination créatrice dans le soufisme d'Ibn 'Arabî*. Paris: Flammarion. 1958.

Ernst, Carl. *An Introduction to the Mystical Tradition of Islam*. Boulder, CO: Shambhala Publications. 2016.

I H230 | 할랄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법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Halal

아랍어 할랄(حلال)은 사전상 ‘허용되는, 허용 가능한, 자유로운, 허하다’를 의미하는 단어로 ‘하람(Haram)이 아닌 것,’ 즉, ‘금지된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할랄은 코란에서도 약 50여 구절에서 등장하고 있으며 할랄과 할랄의 파생어까지 포함하여 하디스에도 많이 나타난다.

이슬람법에서는 모든 행위를 다음 다섯 범주로 분류한다. 금지된 것(ḥarām), 하지 말도록 권장하는 것(마크루(makrūh)), 중립의 것(무바흐(mubāḥ) 또는 자이즈(jaiz)), 하도록 권장하는 것(무스타합(mustaḥabb) 또는 만두브(mandūb)) 및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파르드(fard) 또는 와집(wajib)). 이 중 할랄에 해당하는 것이 금지된 것 이외의 모든 것인지, 권장하는 것과 의무만을 포함하는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어떤 행위나 사물의 할랄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이 있다. 첫 번째는 코란과 순나에 할랄이라고 분명히 밝혀진 것이다. 예를 들어 쇼핑 활동이나 상업 활동은 할랄이다. 코란을 비롯하여 성전(聖典)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먹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할랄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코란과 순나를 통해 여러 번 강조하면서 그것을 하는 데 죄나 해가 없다고 밝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금지(하람)로 구분된 음식이 어떤 필요나 상황에 따라 먹는 것은 죄가 아니라 명시하고 있다. 즉, 상황에 따라 할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어떤 행위나 사물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하람)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할랄이 된다는 것이다. 즉, 코란과 순나에서 바람직하지 않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할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기본 원칙 삼아 할랄 여부를 판정하고 의무, 권장하는 것, 중립의 것을 다시 구분하게 된다. 이슬람법에서 할랄에 기본적인 규칙을 비롯하여 보조적인 성격의 많은 규칙들이 정립되어 있다.

다만 이슬람법에서 목적과 마찬가지로 수단도 합법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 활동을 통한 수입은 할랄이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얻는 수입은 하람으로 판단한다. 할랄은 이슬람 세계의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재화와 의료, 관광, 금융과 같은 서비스



프랑스 슈퍼마켓의 할랄 제품 진열대

산업에까지 적용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헬랄, 할룰
- 다국어 표기 Helal(튀르키예어), Халал(카자흐어), Halal(아제르바이잔어), halol(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하람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할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143692&cid=40942&categoryId=31600>

- 참고문헌(오프라인) Demirci, Kürşat. Ferhat Koca. "HELÂL".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7, İstanbul:TDV. 1998. pp.173~479.

I H231 | 할리데 누스레트 조르루투나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Halide Nusret Zorlutuna



『하얀 세블리에보(Beyaz Selvi)』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할리데 누스레트 조르루투나(Halide Nusret Zorlutuna)는 튀르키예 현대 여성작가이다. 1901년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그녀의 아버지는 에르주룸 출신으로 이스탄불에서 신문기자로 활동한 메흐메트 셸림(Mehmet Selim)인데, 후에 아브눌라 카즈미(Avnullah Kâzımî)로 개명했다.

아브눌라 카즈미(Avnullah Kâzımî)는 1908년 ‘민족 헌신자당(Fedakâran-ı Millet Cemiyeti)’라는 야당을 설립한 이유로 연합진보당(İttihat ve Terakki Partisi)에 의해 수년간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할리데 누스레트는 아버지의 얼굴을 몇 번 보지 못했다. 아버지 아브눌라는 한동안 정치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이라크 키르쿠크 행정구역장으로 임명되었고 가족과 함께 키르쿠크로 향했다. 때문에 할리데 누스레트는 홈

스쿨로 가족이나 과외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았다. 키르쿠크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1978년에 출간된 『어느 한 세기의 소설(Bir Devrin Romanı)』이라는 책에 잘 나타나 있다.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을 때 가족 전체가 이스탄불로 돌아왔고 할리데는 에렌콰이 여자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그녀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 내용을 담은 「울부짖는 웃음(Ağlayan Kahkahalar)」이라는 글이 1917년 <학생수첩(Talebe Defteri)>이라는 잡지 공모전에서 1위하면서 문단에 입문했다.

할리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스탄불 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과로 진학했다.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일을 해야만 했고 임용 고시를 준비하여 교원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녀는 가르

치는 일을 좋아했고, 이스탄불에서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탄불 대학교 역사학과를 다녔다. 영어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1924년 에디르네 사범학교를 시작으로 크르크라렐리(Kırklareli), 카르스(Kars), 아르다한(Ardahan), 우르파(Urfa), 카라만(Karaman), 이스탄불, 앙카라 등 튀르키예 여러 지역 고등학교에서 교직 생활을 이어나갔다.

할리데는 무드로스 휴전 협정(1918년)이 체결될 무렵 시 창작을 시작했다. 튀르키예 독립 전쟁의 분위기와 양상이 튀르키예 민족 문학 흐름에 영향을 끼쳤는데, 할리데가 쓴 시 「봄은 가라(Git Bahar)」는 민족 감정을 잘 살려 유명세를 탔다. 당시 지배적인 문학사조였던 ‘민족문학’ 작품으로서는 음절의 운율을 잘 지키며 쓴 시이다.

할리데 누스레트 조르루투나가 1930년에 쓴 「저녁부터 시작된 걱정(Geceden Taşan Dertler)」, 1943년의 작품 「고원 민요(Yayla Türküsü)」, 1960년에 쓴 「조국의 4개 모서리(Yurdun Dört Bucağı)」를 모아 1967년 『빈 손(Ellerim Bomboş)』이라는 책으로 발간했다. 출간된 소설은 1921년 『재(Küller)』, 1922년 『안개낀 밤(Sisli Geceler)』, 1933년 『웃는 아버지는 누구(Gülün Babası Kim)』, 1945년 『하얀 세블리에보(Beyaz Selvi)』, 1971년 『위대한 어머니(Büyük Anne)』, 1974년 『빛나는 문(Aydınlık Kapı)』 1978년 『사랑과 승리(Aşk ve Zafer)』 등이다. 이 외에도 1977년 『어린 시절 나의 친구(Benim Küçük Dostlarım)』, 1978년 『어느 시대의 소설(Bir Devrin Romanı)』이라는 회고록을 썼다.

할리데 누스레트 조르루투나(Halide Nusret Zorlutuna)는 1983년 6월 10일 앙카라에서 눈을 감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할리데 누스레트 조르루투나

● 다국어 표기 HALİDE NUSRET ZORLUTUN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앙카라

● 참고문헌(오프라인) Ayda Adile, *Böyle İdiler Yaşarken*, Ayyıldız Matbaası, Ankara, 1984.

Çınarlı Mehmet, *Sanatçı Dostlarım*, Ötüken Neşriyat, İstanbul, 1979.

Gürel Zeki, *Hâlîde Nusret Zorlutuna*,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88.

Onaran Mustafa Şerif, “Ölümünün On Beşinci Yılında Halide Nusret Zorlutuna”, *folklor/edebiyat* dergisi, Sayı: 19, Ankara, 1999.

I H232 | 할리데 에디프 아드와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HALİDE EDİP ADIVAR

할리데 에디프는 튀르키예 현대문학을 주도한 소설가이며 단편소설 작가이다. 1884년에 이스탄불에서 태어난 할리데 에디프의 아버지는 압뉘함미드 2세 때 파디샤 금고 서기관으로 근무한 메흐메트 에디프(Mehmet Edip)이다. 할리데 에디프는 초등교육을 과외로 받았고, 이스탄불 위스퀴다르 아메리칸 콜레지에서 학업을 이어 나갔다. 누군가의 신고로 학교를 그만두게 됐지만 제이콥 애보트(Jacob Abbott)의 『아나(Ana)』라는 책을 13살 때(1897년) 번역했는데, 이를 계기로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었다. 영어와 프랑스어 교육을 받은 할리데 에디프는 이 고등학교에서 졸업한 학생 중 첫 번째 무슬림 여성이었다.

할리데 에디프는 그녀의 교사였던 르자 테브피크 뵈뤼크바시(Rıza Tevfik Bölükbaşı)와 재혼했다. 전 남편은 살리흐 제키(Salih Zeki)였다. 따라서 작품 활동 초기에는 ‘할리데 살리흐(Halide Salih)’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신문 <타닌(Tanin)>에 그녀의 필명 활동이 남아 있다.

할리데 에디프는 위스퀴다르 아메리칸 콜레지를 졸업하고, 다양한 작품을 번역했다. 2차 메쉬루티예트가 선포되자 그녀는 여성들의 권리에 대해서 글을 썼다. 첫 번째 글은 휘세인 자히드(Hüseyin Cahid)가 창간하고 테브피크 피크레트(Tevfik Fikret)가 편집장을 맡은 <타닌(Tanin)>이라는 신문에 게재했다.

할리데 에디프가 쓴 글에 주로 보수주의자들이 반응을 보였다. 1909년 3월 튀르키예 정치사에서 ‘3월 31일 봉기’로 명명한 사건이 터진 이후 그녀는 잠깐 이집트로 갔다. 그리고 이스탄불에 다시 돌아와서 정치적 내용이 담긴 글과 문학작품도 같이 썼다.

할리데 에디프는 한동안 교직 생활과 장학사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테말리 니스반(Teali-i Nisvan) 협회 산하로 여성권리향상위원회를 공동 창립했다.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시기에 여학교 장학사 직위를 맡고 있었던 할리데 에디프는 1916년 제말 파샤의 요청으로 학교 개교를 위해 레바논과 시리아에 갔다.

초반에는 ‘할리데 살리흐’라는 필명을 사용했던 할리데 에디프는 1897년 존 아바트(John

Abat)가 집필한 『마데르(Mâder, 1314)』를 번역했고 이후에 타닌(1324~1341년) 신문에 게재된 글로 이름이 알려졌다. 개인의 사랑을 주제로 모던한 형식이 뚜렷하게 나타난 첫 작품에서는 여성의 성장과 여성의 심리에 집중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할리데 에디프는 민족 투쟁(독립 전쟁)을 하는 동안 아나톨리아 사람들과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다. 범투르크 민족주의 이념으로 『불타오르는 셔츠(Ateşten Gömlek)』와 『계집을 처라(Vurun Kahpeye)』와 같이 ‘다큐멘터리’로 불려도 무방할 소설을 썼다. 『산에 오른 늑대(Dağa Çıkan Kurt)』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단편소설은 1차 세계 대전을 다루었다. 그녀의 모든 소설에서 여성 주인공이 더 활기차고 강한데, 이는 작가 자신의 자아상을 투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여러 작품 중 일부는 외국어로 번역됐는데, 몇몇 작품은 본인이 직접 번역했다.



할리데 에디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할리데 에디프는 1912년에 튀르크 협회(Türk Ocağı)에 합류했고, 1919년에는 윌슨원칙협회(Wilson Prensipleri Cemiyeti) 창립자로 활동했다. 언변이 뛰어난 할리데 에디프는 1919년 5월 15일 그리스의 이즈미르 지배가 시작되자 이스탄불에서 열린 위스퀴다르, 파티흐, 술탄 아흐메트 지역 집회에 연설자로 참여했는데, 술탄아흐메트 집회에서 할리데 에디프는 전설적 인물이 됐다. 이후 집회와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자 1917년에 재혼한 남편 아드난 아드바르(Adnan Adıvar)와 함께 아나톨리아로 가서 독립 전쟁에 가담한다.

무기를 아나톨리아로 빼돌리는 일을 맡았던 할리데 에디프는 남편과 함께 독립 전쟁에서 실제로 최전선에 뛰어들어 적십자 병원에서 일했다. 그리고 <하키미예티 밀리에(Hâkimiyet-i Milliye: 국권)>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그 당시 긴장감을 녹여낸 글을 썼고, 이스탄불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다. 그리스의 억압적 행위를 기록으로 남겼고 이후에는 합동 참모 본부에서 발행하는 피해조사위원회(Tedkik-ı Mezâlim Komisyonu) 보고서도 작성했다. 할리데 에디프는 민족 투쟁을 하는 동안 군부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하사 직책을 받았고 이후에 상사 계급도 달았다. 독립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아드와르 내외는 앙카라로 돌아왔다. 남편 아드난 아드와르가 외교부 이스탄불 대표가 되어 이스탄불로 가게 되었다.

공화국이 선포되었지만 할리데 에디프는 공화인민당(Cumhuriyet Halk Fırkası) 및 무스타파 케말과는 정치적 견해가 달랐다. 남편 아드난 아드바르의 진보공화당(Terakkiperver Cumhuriyet Fırkası)을 창당할 때부터 함께 했던 그녀는, 평화 유지(Takrir-i Sükun) 법률이 통과돼 진보공화당이 없어지고 단일 정당 시대가 열리자 남편 아드난 아드와르와 함께 튀르키예를 떠나야만 했다. 그들은 영국으로 갔다.

할리데 에디프는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미국에 두 번(1928년, 1931년), 인도에 한 번(1935년) 방문했다. 큰 관심이 있었던 인도 방문에서 무슬림 대학교인 ‘민족대학(Jamia-i Millia)’을 설립하는 데 초기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강연에도 몇 번 참가했는데 이를 통해 그녀는 높은 명성을 얻었다. 인도에서의 일정이 끝나고 『인도 속으로(Inside India, 1937)』라는 작품 집필을 위해 할리데 에디프는 펜을 들었다.

1939년까지 14년 동안 그녀는 외국에서 생활했다. 그중 4년은 영국에서, 10년은 프랑스에서 보냈다. 남편과 함께 1939년에 고국에 돌아온 할리데 에디프는 1940년에 이스탄불 대학교 문과대에서 영미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자로 생활했다. 1950년에 민주당에서 독립해 이스미르 국회의원이 됐으나 1954년에 정치에서 물러나 학교로 돌아온다.

할리데 에디프의 삶을 훑어보면 그녀는 동서고금, 상위-하위문화 등 다양한 곳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녀의 전반적인 문학적 지향은 민중 문화와 탄지마트 이후 개혁주의를 지향했다. 영국 문학에서는 셰익스피어, 바이런(Byron)의 영향을 받았고, 성경도 깊이있게 읽었다. 그녀는 프랑스 문학에서는 졸라(Zola)도 즐겨 읽었고, 설레이만 첼레비(Süleyman Çelebi)의 메블리드(Mevlid)에도 관심을 가졌다.

할리데 에디프가 사회 내부 문제에 집중한 소설에서는 여성 문제를 많이 언급했고, 여성이 짊어지는 부담을 많이 다루었다. 첫 소설에서 여성은 개인주의자로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캐릭터였는데, 시간이 더 지나 쓴 소설 속에서는 여성이 사회와 맺는 관계에 집중한다. 할리데 에디프는 소극적이고 동양적인 여성뿐만 아니라 모성애와 여성성을 잃은 다소 남성 같은 서양여성도 비판한다. 그리고 그녀의 대표작 『한단(Handan, 1912)』에서는 신여성과 구여성의 이미지를 대조하면서 신여성의 내적갈등과 사회와의 부조화를 묘사하기도 한다. 그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여성상은 동양 여성의 다정함과 서양 여성의 자신감 있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성을 합한 모습이었다.

할리데 에디프의 소설에는 동양과 서양, 과거와 현재가 담겨있다. 서구화는 의심할 것 없이 현대 튀르키예 소설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이다. 동양과 서양 사이에 있는 사회와 개인적인 상황은 할리데 에디프의 작품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할리데 에디프 아드와르의 대표적인 소설은 『도깨비(1908)』, 『라이크의 엄마(1909)』, 『세비예와 탈립(1910)』, 『한단(1912)』, 『새 투란(1912)』, 『마지막 작품(1913)』, 『약속된 질서(1918)』, 『불타오르는 셔츠(1923)』, 『계집을 처라(1923)』, 『심장통(1924)』, 『제이노의 아들(1928)』, 『광대와 그의 딸(1936)』, 『올파라스에서 살인(1937)』, 『모래 파리(1939)』, 『끝없는 축제(1946)』, 『거울아 돌아라(1954)』, 『아킬레 부인의 골목(1958)』, 『장인(匠人) 케림의 아들(1958)』, 『사랑의 길에서 코미디(1959)』, 『해결책(1961)』, 『삶의 조각들(1963)』 등이다. 단편소설은 「이즈미르에서 부르사예(야쿠프 카드리, 팔리흐 르프크, 메흐멧 아슴과 함께, 1922)」, 「페허의 신전(1911)」, 「산에 오른 늑대(1922)」 등이다.

그녀의 대표적인 희곡은 「가나안 목동(1916)」, 「마스크와 영혼(1945)」이며, 회고록은 「튀르키예의 열정과 시련(1962)」, 「보라색 덩굴 집(1963)」 등이다.

말년에 건강이 나빠진 할리데 에디프 아드와르는 1964년 1월 9일 이스탄불에서 신부전증으로 생을 마감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할리데 에디프 아드와르

● 다국어 표기 HALİDE EDİP ADIVAR

● 연관 검색어 이즈미르, 위스퀴다르, 이스탄불

● 참고문헌(오프라인) Bekiroğlu Nazan, *Halide Edib Adıvar*, Şule Yayınları, İstanbul, 1999.

Enginün İnci, *Halide Edib Adıvar*, Kültür ve Turizm Bakanlığı, Ankara, 1986.

Enginün İnci, *Halide Edib Adıvar'ın Eserlerinde Doğu ve Batı Meselesi*, İstanbul Üniversitesi Edebiyat Fakültesi, İstanbul, 1978.

Çalışlar İpek, *Biyografisine Sığmayan Kadın Halide Edip*, Everest Yayınları, İstanbul, 2010.

Göze Hicran, *Zor Yılların Zor Kadını Halide Edip Adıvar*, Boğaziçi Yayınları, İstanbul, 2003.

Kazan Frances, *Halide Edip ve Amerika* (Çev. Bernar Kuduğ), Bağlam Yayınları, İstanbul, 1995.

Moran Berna, *Türk Romanına Eleştirel Bir Bakış*, İletişim Yayınları, İstanbul, 1983.

Naci Fethi, *Türkiye'de Roman ve Toplumsal Değişme*, Gerçek Yayınevi, İstanbul, 1981.

Tanpınar A. Hamdi, *Türk Edebiyatı Üzerine Makaleler*, İstanbul, 1977.

Uluköse Güven, *Halide Edip Adıvar*, Kastaş Yayınevi, İstanbul, 2006.

Uyguner Muzaffer, *Halide Edip Adivar: Hayatı Sanatı Yapıdan*, VarlıkYayıncılık, İstanbul, 1968.

Yücebaş Hilmi, *Bütün Cepheleriyle Halide Edib*, İnkılap ve Aka Kitabevleri; İstanbul, 1964.

오은경, 「신여성의 성과 낭만적 사랑: 소설<한단>을 중심으로」, 『정신분석을 통해본 이슬람, 전쟁, 테러 그리고 이슬람: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시대의 창, 서울, pp.53~72.

I H233 | 할리마 후더이베르디예바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Halima Xudoyberdiyeva



할리마 후더이베르디예바 선집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

할리마 후더이베르디예바(Halima Xudoyberdiyeva)는 우즈베키스탄의 시인, 언론인, 사상가이다. 그녀는 1947년에 시르다리아(Sirdaryo) 주의 베티부트(Boyovut) 지역에서 태어났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타슈켄트 국립대학교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에는 <행복(Saodat)> 잡지에서 부장 및 부편집장을 맡았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는 모스크바 교육 기관의 문학관련 과정에서 공부했다. 졸업 후 1978년부터 1982년까지 <젊은 수호자(Yosh gvardiya)> 출판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위원회 위원, <행복(Saodat)> 잡지의 편집장, 공화당 여성위원회의 회장직을 지냈다.

그녀는 1960년대부터 약 20편의 작품집을 출판했다. 대표작으로는 시집 『첫사랑(ilk muhabbat, 1969)』, 『하얀 사과(Oq olmalar, 1973)』, 『꽃밭(Chaman, 1974)』, 『태양의 순수한 빛(Bobo quyosh, 1977)』, 『따뜻한 눈(Issiq qor, 1979)』, 『충성(Sadoqat, 1983)』, 『신성한 여성(Muqaddas ayol, 1988)』, 『토마리스가 말한 것(To'marisning aytgani, 1996)』, 『가는 중이다(Yo'ldadirman, 2005)』, 수필집 『내 가슴의 아픈 점(Yuragimning og'riq nuqtalari)』 등이 있다.

할리마 후더이베르디예바는 어린이, 여성, 자연의 모습을 통해 조국과 인간 공동체의 운명을

묘사한다. 또한 인간의 내면과 영적문제를 통찰하고 묘사했기에 시인이면서 동시에 사상가로 불리기도 했다. 그녀는 시인, 수필가이기도 했으며, 동시에 번역가로 활동했다.

할리마 후더이베르디예바는 파주 알리에바(Fazu Aliyeva), 실바 가푸티간(Silva Kaputikyan), 이브로임 유수퍼브(Ibroyim Yusupov)의 작품들을 번역했다. 할리마 후더이베르디예바(Halima Xudoyberdiyeva)는 작품 『신성한 여성(Muqaddas ayol)』으로 1990년 함자 국가 상을 수상했다. 1992년에는 우즈베키스탄 국민 시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국민 시인 할리마 후도이베르디예바는 2018년 7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할리마 후도이베르디예바, 할리마 후다이베르디예바, 할리마 후다이베르디예바
- 다국어 표기 Halima Xudoyberdiyeva(우즈베크어), Халима Худайбердиев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우즈베키스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arboblar.uz/uz/people/khudajberdiyeva-khalima>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Xudoyberdiyeva Halima, *Halima Xudoyberdiyeva she'rlar*, Toshkent: Akadernashr, 2020.

I H234 | 할리트 지야 우샤클르길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Metin Turan) ● 라틴 문자 HALIT ZIYA USAKLIG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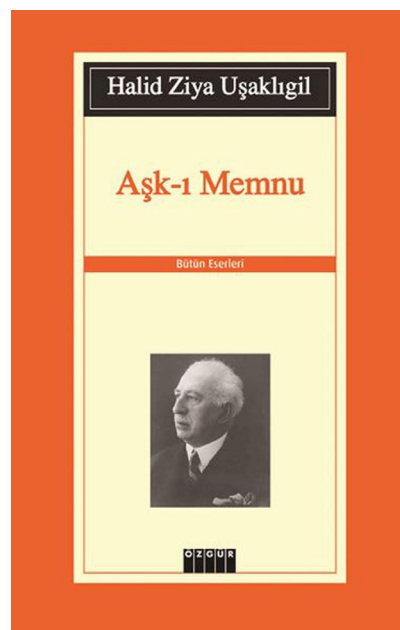
이즈미르에서 정착해 이스탄불에서 카페트 무역업에 종사한 우샤르 헬바즈자데레르 가문(Uşaklı Helvacızâdeler)의 부유한 가정에서 1866년에 태어난 할리트 지야는 메르잔 마헬레 맥테비, 파티흐 군사 중등학교에 다녔다(1873년~1878년). 어린 시절 이스탄불에서 머물 때 아 시옥 가리프, 케렘과 아슬르, 천일야화(아라비안나이트)와 같은 책을 읽으며 독서의 습관을 기른 할리트 지야는 이즈미르로 오고 나서부터 아흐메트 밋하트, 나므크 케말, 압달하크 하미트의 작품을 읽기 시작했다.

책 읽기를 좋아하고 문학과 연극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할리트 지야는 튀르키예어로 출판된 번역 작품들을 즐겨 읽었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즈미르로 이사해 이즈미르 뤼쉬디에시(İzmir Rüşdiyesi. 현재의 이즈미르 아타튀르크 고등학교)에 등록했다. 그러나 교육 시스템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할아버지는 손자의 외국어 습득을 위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고대 그리스어를 잘 아는 변호사 오귀스트 드 자바에게, 수학은 아르메니아인 비서관 안투안에게 개인 과외 학습을 맡겼다. 과외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 폰손뒤 테라일(Ponson Du Terrail)의 소설책을 튀르키예어로 번역한 할리트 지야는 아르메니아 가톨릭 신부가 세워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메쉬타리스테(Mechitariste)학교에 등록했다. 여기서 으젠느 쉬(Eugène Sue), 쥘 베른(Jules Verne), 루이 휘기에(Louis Figuier), 카밀 플라마리온(Camille Flammarion), 폴 페발(Paul Féval), 알렉산드라 뒤마(Alexandre Dumas), 으젠느 스크리브(Eugène Scribe), 라신(Racine) 등 외국 작가들의 작품과 나르크 케말, 압뉘하크 하미트 같은 튀르키예 작가들의 작품을 읽었다. 할리트 지야는 뒤마, 스크리브, 라신의 작품들도 번역했다.

할리트 지야는 1883년 기술학교를 졸업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 나가지 못했지만, 가능성을 확인한 그의 교사는 피에르 바살(Pierre Vassal), 레이몬드 페레(Raymond Père)의 추천으로 파리에서 가져온 고전주의, 낭만주의, 자연주의 작가들의 작품을 읽게 했다. 학교에서 영어와 독일어 수업도 열심히 들은 할리트 지야는 이즈미르에서 열린 거의 모든 이탈리아, 프랑스 오페레타 극단의 공연들을 관람했다.

지야가 쓴 첫 번째 글은 1883년 잡지 <하지네 에브라크(Hazîne-i Evrak)>에 게재된 「바다 송아지(Deniz Danası)」이다. 1885년 외교부에 들어가기 위해 이스탄불에 갔지만 불합격하자 이즈미르로 돌아왔다. 오스만 은행에서 번역과 회계 업무를 했고, 1883년부터 1892년까지 이즈미르 중등학교에서 문학 교사로 근무했다. 이어 프랑스 과학자들의 지리와 자연과학 관련 글을 편집하여 잡지 <하지네 에브라크(1883)>와 신문 <이즈미르 빌라예트>에 발표했다. 할리트 지야는 친구 테브피크 네브자트, 하크와 같이 <네브루즈(Nevruz)>, 이후에는 신문 <헌신>과 <조화(ahenk)>를 발간했다. 이즈미르 지역 최초의 민영 신문으로 알려진 <네브루즈(Nevruz, 1884)>에 뤼세, 위고, 조지 오네 같은 작가들의 작품을 번역했고, 단편소설 「핏방울(Kan Damlası)」을 처음 게재했다. 이 무렵 맥테브와 세르베티 뤼눈에도 글을 쓴 할리트 지야는 1888년 「메모에 마지막 잎새(Bir Muhtıranın Son Yaprakları)」라는 단편소설을 이즈미르에서 출판했다.

1888년 어머니를 잃은 할리트 지야는 1889년에 삼촌과 두 달간 유럽여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기행문을 신문 <히즈메트>와 <타릭>에 편지글 형식으로 실었다. 그리고 같은 해 국회의장 에민 알리의 딸인 파트마 멤누네와 결혼했다. 할리트 지야는 슬하에 자녀가 6명(베디데, 비힌, 사둔, 귀진, 베다드, 빌렌드)을 두었다. 첫째 베디데가 병에 걸려 죽었는데, 셋째와 넷째도 어렸을 때 병에 걸려 죽었다. 다섯째 베타트도 33세에 자살하며 비극적인 죽음을 택했다. 할리트 지야는 셋째 사둔을 위해 『부서진 장난감(Kırık Oyuncak)』, 넷째 귀진을 위해서 『부서진 인생(Kırık Hayatlar)』, 다섯째 베다드를 위해서 『쓰라린 이야기(Bir Acı Hikaye)』를 썼다. 그는 1937년 사우디아라비아 티란 섬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다섯째 아들 하릴 베다드가 33살에 자살을 하자 참을 수 없는 아픔을 글로 덜어내고자 했다.



『금지된 사랑(1901)』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images/>

할리트 지야가 이스탄불로 돌아오자 문단은 그를 쉽게 받아 주었다. 그러자 그는 한동안 신문 <노력(İkdam)>에 단편소설을 꾸준히 게재했다. 레자이자데 이크렘의 제안으로 1896년에는 잡지 <세르비티 뤼눈>에 합류했다. 그리고 소설 「청과 흑(Mai ve Siyah, 1897)」, 「금지된 사랑(Aşk-ı Memnu, 1900)」을 잡지에 연재했다. 그러다 메쉬루티예트(1908년) 칙령 이후에는 담배공사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이스탄불 다뤘뤼눈에서 서양 문학을 가르쳤다. 일 년 뒤인 1909년 연합진보당 제안으로 술탄 레샤트(메흐메트 5세) 서기관 수석비서로 근무했다(1909년~1912년). 상원의회(senato) 의원으로 선출되자 이 일을 그만뒀지만 다뤘뤼눈에서는 계속 강의했다. 정부에서 할리트 지야를 프랑스, 독일, 루마니아에 파견보냈다. 휴전 기간에 다시 담배공사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됐다. 공화국이 설립되고 예실뢰이에 있는 별장에서 창작 작업을 하며 바쁘게 생활했다.

튀르키예 소설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할리트 지야는 1886년부터 1908년 사이에 소설 8권을 썼다. 문학계에 이렇게 서서히 자리 잡은 할리트 지야는 에데비야트 제디데 문학 동인에서 제일 먼저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이며, 공화국 시기까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이다.

공화국 시기에 그는 삶의 모든 것을 문학에 바쳤다. 공화국 초기에 정부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는 작품을 많이 남기지지는 않았다. 1930년대가 되자 그는 활발하게 글쓰기 활동을 시작했다. 신문 <공화국(Cumhuriyet)>과 <마지막 소식(Son Posta)>에 글을 실었는데, 특히 회고록 형태로 문학 세계에 시사점을 던졌다. 문자혁명에 대한 글을 1차 튀르키예 국립국어원(1932년 9월 26일)에서 발표했고, 튀르키예어의 역사와 언어에 대한 애정을 예술적 형식으로 언급하는 일련의 발표를 했다.

할리트 지야의 소설은 이즈미르 시기와 이스탄불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이즈미르에 있을 때에는 첫 소설을 신문에 연재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책으로 펴내지 못했다. 이스탄불에서는 튀르키예 문학에서 첫 현실주의 소설인 『세필레(Sefile)』, 이후 『이야기(Hikâye)』, 한 남성을 두고 벌이는 두 젊은 여성의 사랑 이야기와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되는 『네미데(Nemide)』, 자신의 소설 스타일과 양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죽음의 노트(Bir Ölünün Defteri)』, 빈부 격차와 삼각관계가 주제인 『페르디와 주변인(Ferdi ve Şürekâsı)』 등을 꾸준히 출간했다.

플라토닉 사랑과 인생의 가혹한 현실이 한데 모여 묘사되는 소설 『청과 흑(1898)』 발표 이후 할리트 지야의 작품 중 널리 알려진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금지된 사랑(1901)』이다. 사회 생활의 단면을 보여준 『부서진 인생(Kırık Hayatlar)』, 작가가 사망한 뒤 책으로 만들어진 『마지막 세대(Nesli-âhir)』 등도 그의 대표작이다. 이스탄불에서 쓴 여러 소설 중 『청과 흑』과 『금지된 사랑』은 튀르키예 소설을 대표하는 소설 중 하나이다. 소설, 단편소설, 기행문, 회고록, 희곡, 문학사 등 여러 분야에서 글을 남긴 우샤클르길의 주요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 * **장편소설:** 『세필레(1886~1887)』, 『네미데(1892)』, 『죽음의 노트(1893)』, 『페르디와 주변인(1895)』, 『청과 흑(1898)』, 『금지된 사랑(1901)』, 『부서진 인생(1924)』, 『마지막 세대(1990)』
- * **단편소설집:** 『미치광이(Hizmet, 1888)』, 『메모에 마지막 잎새(1888)』, 『연애 결혼의 역사(1888)』, 『어머니의 편지(1999)』, 『유머 선물(1893)』, 『짧은 일화 I-III(1897~1899)』, 『여름 이야기(1900)』, 『시든 다발(1901)』, 『바구니에서 찾았네(1920)』, 『모든 아픔(1934)』, 『사랑에 대한(1935)』, 『그를 기다릴 때(1935)』, 『노년의 친구(1937)』, 『여자

의 발톱(1939)』

* 희곡: 「반짝이는(1918)」, 「악몽(1918)」, 「쥐(1926)」

* 회고록과 기행문: 「독일 편지(1915~1916)」, 「독일 생활(1916)」, 「마흔(1936)」, 「궁전과 저 너머(1940~1942)」, 「쓰라린 이야기(1942)」

그는 오랫동안 병에 시달렸지만 온갖 치료를 거부하고 1945년 3월 27일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사후 이스탄불 바크르콰이 묘지에 있는 아들 할릴 베다드 옆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할릿 지야 우샤클르길

● 다국어 표기 HALİT ZİYA USAKLIGİL(영어), *Halit Ziya Uşaklıgi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이스탄불, 이즈미르

● 참고문헌(오프라인) Huyugüzel Ömer Faruk, *Halit Ziya Uşaklıgil*, Akçağ Yayınları, Ankara, 2004.

Kurdakul Şükran, Çağdaş Türk Edebiyatı Meşrutiyet Dönemi, Broy Yayınları, İstanbul, 1986.

Mumcu Yasemin, “Halit Ziya Uşaklıgil’in Romanlarında Fizyoloji-Psikoloji İlişkisi”, *Erzurum Teknik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Dergisi*, Özel Sayı, 2018.

Önertoy Olcay, *Halit Ziya Uşaklıgil: Romancılığı ve Romanımızdaki Yeri*, Kültür Bakanlığı Yayınları, Ankara, 1995.

Par Arif Hikmet(Hazırlayan), *Halit Ziya Uşaklıgil*, Serhat Yayınları, İstanbul, 2000.

Uyguner Muzaffer(Hazırlayan), *Halit Ziya Uşaklıgil, Hayatı-Sanatı-Eserlerinden Seçmeler*, BilgiYayınevi, Ankara, 1995.

Yener Cemil, *Halit Ziya Uşaklıgil*, Toker Yayınları, İstanbul, 1974.

I H235 I 함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품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오은경
- 라틴 문자 Xamsa

『함사』는 다섯 개 이야기로 구성된 연작 서사시를 말하며, 투르크 문학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오래된 문학 전통이다. 아랍과 페르시아 문학에도 ‘함사’ 전통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 문학사에 기록된 기념비적인 함사 형식의 작품들은 모두 투르크 시인들이 남겼다. 함사 전통이 가장 중요

한 문학 장르였던 도시 헤라트에서는 약 20명이 넘는 시인들이 합사 창작에 도전했다. 그러나 현재 완성도가 높은 『합사』로 후손들에 의해 칭송받고 있는 작품은 우즈베크의 시인 알리셰르 나비이와 아제르바이잔 대문호 니자미 갠재비 두 명뿐이다.

『합사』는 연작시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 시는 서로 논리적으로 확고하게 연관되어 통합되어 있기도 하지만 각각의 시가 개별성을 갖기도 한다. 합사는 대략 다섯 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알리셰르 나비이의 『합사』는 5개의 다스탄(구비서사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좋은 사람들의 감탄(Hayratu -l -abror: Yaxshi kishilarning hayratlanishi, 1483)」, 「파르허드와 쉬린(Farhod va Shirin)」, 「라일리와 마즈눈(Layli va Majnun)」, 「일곱 행성(Sab'ayi sayyor, Yetti sayyora)」, 「알렉산더 대왕 성벽(Saddi Iskandariy: Iskandar devori)」과 같은 작품들이다. 52,000개의 행(바이트, bayt)을 포함한 이 『합사(beshlik)』는 신성한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 실재, 자연, 괴물들과 인간, 사회와 국가들 간의 도덕과 윤리, 윤리와 성숙함을 위한 인간의 노력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첫 서사시 「좋은 사람들의 감탄(Hayratu -l -abror)」은 공동체에서 존경과 숭배의 대상인 원로들이 절대자의(Yaratganning) 신비로운 힘에 대한 경외심과 우주 만물과 인간들의 관계를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알리셰르 나비이의 『합사』에 들어간 두 번째 작품 「파르허드와 쉬린(Farhod va Shirin)」은 1484년 쓰여졌다. 나비이이의 이 작품 이전에도 같은 주제로 「후스라브와 쉬린(Husrav va Shirin)」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 작품은 54개의 연, 5,782개의 행으로 구성되었다.

「라일리와 마즈눈(Layli va Majnun)」은 『합사』의 세 번째 작품이다. 서사시의 내용은 아랍 지역에서 전승되는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따온 것이다. 아랍과 페르시아 문학에서 고통과 사랑의 슬픈 이야기로 전승되오던 이야기를 알리셰르 나비이이는 작품의 주인공들이 그들의 사랑을 신성한 사랑으로 승화하고, 사랑이 없는 것 자체가 불행이 되도록 각색한다.

「일곱 행성(Sab'ayi sayyor, Yetti sayyora)」은 『합사』의 네 번째 작품이다. 이 서사시는 38연과 5,009행으로 이루어졌다. 작품의 도입과 결말 부분의 연들은 작품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작품의 목차에서는 일곱 개의 제목으로 카테고리를 정하고 있다. 일곱 개의 행성, 일곱 개의 여행객, 일곱 개의 궁전, 일곱 가지의 색깔, 칠일 밤, 일곱 개의 음악, 일곱 개

의 마콤(장단, makom) 등이 그것이다. 50개 이상의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된 형태로 펼쳐진다.

『함사』의 마지막 작품은 알렉산더 3세 대왕에 대한 것이다. 아제르바이잔 시인 니자미(Nizami)가 「알렉산더 대왕기(大王記, Iskandarnoma)」라고 하면서 왕과 관련된 역사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리 알리셰르 나버이이는 자신의 작품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성벽(Saddi Iskandariy, 89연, 7,215행)」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시인은 왕과 관련 역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계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정의라는 측면 등에 집중했다. 알렉산더 3세 대왕은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고, 북방 원정을 떠나면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sadd)을 만든다. 이 성벽은 상징적으로 욕망으로 인한 재앙에서 보호받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험세, 햄세
- 다국어 표기 Xamsa(우즈베크어), Hamsa(튀르키예어), Khemse(영어), Xəmsə(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알리셰르 나버이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Асарлар / Ун беш томлик. 6~10, ж. Т.: Фан, 1964.
Асарлар/ Ун жилдлик. 6~8 ж. Т.: Т.Тулум номидаги нашр, 2011.
Алишер Навоий Танланган асарлар/ Уч жилд. 2~3 ж. Т. 1948.
Мукамал асарлар туплами. 7~12 ж. Т.: Фан, 1986.
Язык птиц // Суфии. Восхождение к истине. М., 2007.
Хамса / Нашрга тайсрл. П.Шамсиев. Т. 1960.

Ⅰ H236 Ⅰ 함자 쥘피카르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이양희 ● 라틴 문자 Hamza Zulfikar

튀르키예의 언어학자인 함자 쥘피카르는 1941년 튀르키예 동부에 위치한 비틀리스(Bitlis)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다. 초중고를 비틀리스에서 마치고, 앙카라 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부에 입학했다. 1964년 졸업 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Türk Dil Kurumu; TDK)에서 1년

간 근무했으나, 앙카라 대학교 튀르키예어문학과 조교 임용에 합격 후 교직 생활을 시작한다. 이 후 1970년 「차카타이어 코란 해석(Çağatayca Bir Kur'an Tefsiri)」 학위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1982년 「튀르키예어 의성어 어휘(Türkiye Türkçesinde Ses Yansımali Kelimeler)」 논문으로 부교수가 되었고, 1988년에는 정교수로 임명되었다.

함자 질피카르는 병역 복무 후 앙카라 대학교로 복직하여 학과 강의뿐만 아니라 부속 여학기관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튀르키예어를 강의했다. 이 후에도 튀르키예 국내 타 대학 및 국외를 오가며 강의 활동을 계속했는데, 1975년에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976년부터 1977년까지는 프라트 대학교(Fırat Üniversitesi), 그리고 1982년에는 이위전취 이을 대학교(Yüzüncü Yıl Üniversitesi)에서 창립 교원으로 발탁되어 강의를 했다. 교수 활동 이외에도 1980년부터 튀르키예 백과 사전에서 부편집장을 역임하며 교육부에서 주관한 백과 사전 편찬 작업을 수행했다. 1983년 10월부터 1989년까지 약 6년간 앙카라대학교 튀르키예어과 학과장직을 역임하며 교수 생활을 계속했으며, 1992년에는 튀르키예어문학과 학과장으로 임명되었다. 1985년~1986년에는 네덜란드 정부 초청으로 너트 아카데미(Nuts Academy)에서 4개월간 튀르키예어를 가르쳤다. 이 기간 동안 네덜란드의 취학 연령 아동을 위한 교재를 연구 검토하고 네덜란드 교육부에 연구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함자 질피카르 교수의 강의 이외의 주요 업적 및 활동은 다음과 같다. 함자 질피카르는 하산 에렌 교수(Prof. Dr. Hasan Eren)와 함께 에스키셰히르의 아나돌루 대학교 원격(방송통신) 대학(Open Education Faculty) 과정의 튀르키예어 교과서 준비 및 편찬 작업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의 고등교육위원회(YÖK : Yükseköğretim Kurulu)에서 주관한 『튀르키예어와 작문』 교재에서 <문장 구조> 단원을 집필했다. 이뿐만 아니라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 정회원 활동으로 수많은 출판물의 출간 작업에 참여했으며, 특히 1996년과 2000년도판 철자법 작업에 참여했다. 이 외에도 하산 에렌(Prof. Dr. Hasan Eren), 네브자트 괴즈아이든(Prof. Dr. Nevzat Gözaydın), 이스마일 파르라트르(Prof. Dr. İsmail Parlatur), 탈라트 테킨(Prof. Dr. Talat Tekin) 교수들과 함께 1988년도 튀르키예어 사전 편찬 작업을 수행했다. 이후에도 학교 사전, 1998년도 튀르키예어 사전 작업 등을 계속했다. 이러한 사전 편찬 작업 성과로 표제어가 75,000개에 이르게 되며, 최근 선정 작업을 거친 표제어는 80,000에 이르게 되었다.

이 외에도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 용어학 및 응용학과장직을 역임하며 철자법, 약어 및 다

양한 용어 사전을 연구했다. 함자 질피카르는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부원장직을 수행하며 국가의 다양한 부서에서 요청한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중 하나는 4,000여 명의 공무원에게 공문서 작성, 철자법 및 튀르키예어 교육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아다나, 킬리스, 이즈미르, 반(Van) 비틀리스, 바이부르트, 발룩케시르, 코니아, 카라만, 앙카라, 초룸, 말라티야 등의 지역에서 다채로운 주제의 강연을 했으며, 2001년에 튀르키예 국립국어원에서 사직하고 떠났다.

그의 연구 업적을 살펴보면, 1967년부터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130여 편에 달하는 소논문들을 집필하며 다양한 학회지(<Hisar>, <Türk Dili>, <Türk Kültürü>, <Türkoloji Dergisi>, <Askerî Tarih Bülteni>, <Türkoloji Dergisi>, <Kardelen>, <Türkbilig>, <Türkoloji Araştırmaları dergileri> 등)에 연구 논문을 게재했고, 관련 분야의 심포지엄 참석 및 여러 학자들과 공동 집필 서적, 교재 출간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연구는 아래와 같다. 『외국인을 위한 튀르키예어 문법(Yabancılar İçin Türkçe Dilbilgisi, 1969)』, 『고등교육에서의 튀르키예어 쓰기 및 표현(Yüksek Öğretimde Türkçe Yazım ve Anlatım, 1974)』, 『튀르키예어 의성어 어휘(Türkçede Ses Yansımali Kelimeler, 1980)』, 『헌법 사전(Anayasa Sözlüğü, Hasan Eren 공저, 1985)』, 『튀르키예어(Türk Dili, TDK, 1988)』, 『용어 구성의 문제 및 용어 생성법(Terim Sorunları ve Terim Yapma Yolları, 1991)』, 『비틀리스-무쉬 지역의 민속 문화(Bitlis-Muş Yöresinde Halk Kültürü, 1992)』, 『튀르키예어 의성어 사전(Türkçede Ses Yansımali Kelimeler Sözlüğü, 1996)』, 『학교 사전(Okul Sözlüğü, TDK; 1994)』.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함자 질피칼

● 다국어 표기 Hamza Zülfişkar(튀르키예어), Hamza Zulfikar(영어)

● 연관 검색어 앙카라, 튀르키예 국립국어원, 탈라트 테킨, 이즈미르, 코니아

● 참고문헌(온라인) <http://kaynakca.hacettepe.edu.tr/kisi/88888/hamza-zulfikar>
<https://www.biyografya.com/biyografi/12491>

● 참고문헌(오프라인) Işık İ. *Resimli ve Metin Örneklî Türkiye Edebiyatçılar ve Kültür Adamları*. Ansiklopedisiö 2. bas. 2009.

I H237 | 핫투샤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Hattuša

히타이트 제국의 수도 핫투샤(Hattuša)가 있는 튀르키예 현지 마을 명은 보아즈칼레인데, 초롬 주에 위치하고 있다. 핫투샤는 해발 950m~1,250m 사이의 북에서 남으로 경사진 언덕바지에 세워진 도시이다. 도시의 아래쪽에는 돌로 기초를 쌓고 그 위로 진흙을 쌓아 만든 두터운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총 길이는 6km 정도이다.

핫투샤는 기원전 제2천년기와 기원전 제1천년기에 아나톨리아와 북부 시리아 문명에 상당한



핫투샤

Source: <https://whc.unesco.org/uploads/thumbs/>

영향력을 행사했다.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대도시에는 왕궁 거처, 사원, 교역소, 공동묘지 등의 형태를 통해 옛 수도가 어떠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핫투샤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계곡 건너의 북쪽 언덕을 뷔유크카야(Büyükkaya)라고 하고, 계곡의 남쪽 부분을 다시 둘로 나뉘어 아래쪽 도시와 위쪽 도시로 구분한다. 유적으로는 대신전, 사자의 문, 스펡크스의 문, 왕의 문, 대궁전 터와 신성한 암벽 신전인 야즐르카야(Yazılıkaya)가 있다.

1834년에 발견된 유적지는 1906년까지 본격적으로 발굴되지 않다가, 하투실리 3세(Hattushili III)와 람세스 2세(Ramses II) 사이에 맺어진 평화 조약 사본이 발견되면서 핫투샤에 대해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독일과 튀르키예 고고학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히타이트의 수도에 대한 정보는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독일 고고학회에서는 장기간의 고고학적 연구 계획의 모델로 핫투샤를 탐사했으며, 핫투샤는 출판의 주인공으로 떠올랐고 주기적으로 전문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핫투샤, 하투사

● 다국어 표기 Hattuša or Hattusas(그리스어), Hattuşa(튀르키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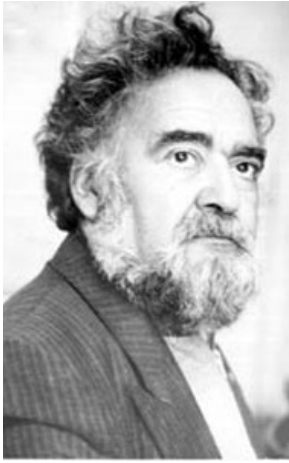
● 참고문헌(오프라인) 유재원, 『터키, 1만년의 시간 여행 01』, 책문, 2010.

Bryce, Trevor. *Life and Society in the Hittite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Encyclopædia Britannica: Büyükkale. 2002.

Ⅰ H238 Ⅰ 해릴 르자 울루투르크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Xəlil Rza Ulutürk

해릴 르자 울루투르크(Xəlil Rza Ulutürk)는 20세기에 살았던 아제르바이잔의 위대한 시인이며, 학자이고, 번역자 및 출판인이다. 그는 1932년 10월 21일에 살얀(Salyan rayonu) 지방 피랍배 마을(Pirəbbə kəndi)에서 태어났다. 그는 고등학교까지는 살얀에서 졸업했다.



해밀 르자 울루투르크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

1949년~1954년에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Universiteti, 현재 바쿠 국립대학교, Bakı Dövlət Universiteti) 아제르바이잔어문학부에서 수학했다. 이어서 그는 모스크바에 있는 막심 고리키 문학연구소(Maksim Qorki adına Ədəbiyyat İnstitutu)에서 공부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국립 사범대학교(Azərbaycan Dövlət Pedaqoji İnstitutu)에서 석사를 졸업했는데, 「전쟁 이후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연작시 장르(Müharibədən sonrakı Azərbaycan sovet şeirində poema janrı)」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잠시 사범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했지만, 정치적 견해 때문에 해직당했다.

그는 학술적 활동을 아제르바이잔 과학 아카데미(Azərbaycan Elmlər Akademiyası) 니자미 갠재비 문학 연구소(Nizami Gəncəvi adına ədəbiyyat İnstitutu)에서 이어 나갔다. 그는 「아제르바이잔-우즈베크 문학 관계(Azərbaycan-özbək ədəbi əlaqələri)」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는 아제르바이잔과 우즈베크 문학의 저명한 인물인 막수드 세이흐자대(Maqsud Şeyxzadə,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제르바이잔 작가)의 삶과 작품에 관한 모노그래프를 저술했다.

그는 1990년 1월 16일 소비에트 국가보안위원회(SSRİ Dövlət Təhlükəsizlik Komitəsi)에 의해 체포돼 모스크바에 있는 레벨토파 감옥(Lefortovo həbsxanası)에 수감됐고, 1990년 10월 9일까지 그곳에서 징역을 살았다. 그는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 감옥에서 쓴 시들을 『레벨토파 감옥에서(Lefortovo zindanında)』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그는 자신의 문학 활동을 1948년에 작성한 「압쉐론(Abşeron)」이란 시로 창작했으며, 그의 첫 시집은 1957년에 출판됐다. 그는 소비에트 시대에는 정치적 서정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또한 소비에트 정치 체제를 찬양하는 작품들도 썼다. 그러나 시인의 작품 세계에서 민족 해방 정신, 식민주의에 대한 항의, 독립사상은 다양한 예술형태로 표현됐다. 시인은 아제르바이잔의 독립을 바라는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 국제적 이슈를 다루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민족이 식민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의 배경에 대해 집필했다. 이를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자유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시인의 생전에 30편 이상의 시, 번역 작품 및 학술서적들이 출판됐다. 그의 창작은 내용과 형

태 면에서 풍부하고 다채롭다. 그는 민족시 장르, 음절 운율(heca vəznı, 운율 형식 중 하나)와 자유 운율(sərbəst vəzin)로 된 시들을 썼다. 그는 모든 시를 연작시(poema)로 썼다. 그의 시들은 투르크 세계의 통일, 아제르바이잔의 분단, 카라바흐 분쟁(Qarabağ dərdi), 자유 등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문제들에 초점을 맞췄다. 그의 「아프리카의 소리(Afrikanın səsi)」, 「나는 동양이다(Mən Şərqəm)」, 「37일은 이어가고 있다(Davam edir 37)」, 「내 고향 당신을 위하여(Yurdum, sənın sağılıına)」, 「나의 모국어(Ana dilim)」, 「고향은 나에게서 시작된다(Məndən başlanır Vətən)」, 「나는 감옥에서 젊어진다(Zindənda gəncleşirəm)」, 「나는 권위를 원한다(Səlahiyyət istəyirəm)」, 「총으로 갖추라(Silahlan)」, 「투르크인의 세계(Türkün dünyası)」 등의 시들은 아제르바이잔 문학을 대표하는 소중한 작품들이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단의 ‘해방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번역 작업에도 몰두했다. 그가 번역한 작품은 『삶보다 긴 밤들(Ömürdən uzun gecələr)』, 『형제의 화환(Qardaşlıq çələngi)』과 같은 책에 실렸다. 그는 또한 니자미 갠재비의 『비밀들의 보물(신비의 보배, Sirlər xəzinəsi)』 연작시를 페르시아어에서 아제르바이잔어로 번역해 출판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에서 회고록 저자로도 유명하다. 문학과 예술 기록 보관소(Ədəbiyyat və İncəsənət arxivi)에 소장된 회고록-일기들의 일부가 출판돼 독자들에게 공유됐다.

그는 1992년에 아제르바이잔의 민족시인 명예칭호(Azərbaycanın Xalq şairi fəxri adı)를 수여받았다. 그는 1994년 6월 22일에 바쿠에서 사망해서 바쿠 제1묘지(I Fəxri Xiyaban)에 묻혔다. 그는 사후 독립 훈장을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헤릴 르자 울루튀르크

● **다국어 표기** Halil Rıza Ulutürk(튀르키예어), Халил Рза Олотөрк(비시키르어), Halil Rza Ulutürk(투르크멘어), Halil Rza Ulutürk(우즈베크어), Халил Рза Улутюрк(카자흐어), Халил Рза Улутюрк(러시아어), اولوتوروك رضا خليل(페르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Axundlu Yavuz, *İstiqlal Şairləri*, Bakı: Elm Nəşriyyatı, 1998.

Əhmədov Teymur, *Azərbaycan YazıçılarıXX-XXIYüzdilliklərdə: Ensiklopedik Məlumat Kitabı*,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1.

Əlizadə Əsgərli, *Sözün Divanı və Vətəndaş Yanğısı*, Bakı: BQU Nəşriyyatı, 2007.

Müasir, *Azərbaycan Ədəbiyyatı(Dərslik)*. İki Cildde, II Cild, Bakı: BDU Nəşriyyatı, 2007.

Xəlil Rza Ulutürk, Bibliografiya, Bakı: Azərbaycan Milli Kitabxanası, 2017.

Xəlil Rza Ulutürk Xatirələrde,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20.

I H239 | 해센 배이 재르다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언론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Hasan bey Zardabi



해센 배이 재르다비 묘지

국가 언론의 창시자인 해센 배이 재르다비는 1842년 아제르바이잔의 도시 괴이차이(Göyçay)의 시골 마을 재르다브(Zərdab)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 시골 마을에서 초등 교육을 받았으며,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배웠다. 그는 1852년에 샤마흐(Şamaxı)에 있는 러시아어 학교에 입학했다. 1861년에 티빌리시에서 김나지움(중등 교육 기관)을 마치고, 1861년에는 정부 장학금을 받아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수학-물리학과에 입학했다. 1865년에 이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는 대학교를 마친 이후 티빌리시(Tiflis)에 있는 토지행정국(Torpaq İdarəsi)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1868년 2월 28일부터 구바(Quba)에서 법원 서기로 일했고, 이후에는 한동안 독립 변호사로 활동했다. 1869년 11월 18일에 바쿠의 한 학교에서 자연과학 교사로 채용됐다.

그후 그의 삶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즉, 그는 국민의 문맹률 개선과 모국어 교육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전문극장의 설립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연극 예술의 발전을 이끌었다. 아제르바이잔 희곡 장르 창시자인 미르재 패탈리 아쿤도브(Mirzə Fətəli Axundov)와의 우정과 소통은 공연 예술 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873년에 그의 지도 아래 극작가 내재프 배이 배지로브와 애스개르 아아 아드고젤로브(Əsgər ağa Adıgözəlov)의 적극적인 참여로 아쿤도브(M. F. Axundov)의 코미디 작품들인 「하즈 가라(Hacı Qara)」와 「랜캐란 칸의 고관(Lənkəran xanının vəziri)」이 무대에 올랐다.

그는 1875년 7월 22일에 바쿠에서 아제르바이잔 투르크어로 <애킨치(Əkinçi)> 신문을 발행

했다. 이 신문은 아제르바이잔 언론의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신문은 아제르바이잔은 물론 러시아 전역에서 발행된 최초의 투르크어 신문이었다. 1877년 9월 29일에 이 신문은 출판을 중단했지만, 2년간의 발행을 통해 국민에게 민족과 근대정신을 교육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1880년~1890년에 바쿠와 티빌리시에서 발행된 <지야(Ziya)>, <캐스쿨(Kəşkül)>, <카스피(Kaspi)>, <노보예 오보즈레니예(Novoye obozreniye)> 등의 신문들에는 그의 많은 학술 논문들이 게재됐다. 이 논문들은 러시아와 아제르바이잔어로 쓰여졌다. 그의 논문들은 당시의 사회정치적 문제, 여성의 자유, 모국어의 문제, 민족 민담과 문학 연구 등을 다룬 주제들이다.

그는 1907년 5월 8일에 바쿠에서 사망해 바쿠에 위치한 비비헤이베트 모스크(Bibiheybət məscidi) 근처에 있는 묘지에 묻혔다. 묘지는 1937년 철거됐다. 이후 고인의 유골은 몇 년간 가족의 집에 보관됐다가 1957년에 사망 50주년을 맞아 현충원(Fəxri Xiyaban)에 묻혔다. <애킨치(Əkinçi)> 신문이 발행된 6월 22일은 아제르바이잔에서 매년 언론의 날로 기념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산 베이 재르다비
- 다국어 표기 حسن بيگ زردابحسن بيگ زردابي(페르시아어), Гасан бек Зардаби(러시아어), Hasan bey Zardab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바쿠
- 참고문헌(오프라인) Topçubaşov Əlimərdan, *Azərbaycanın yol göstərəni*, Bakı: BSU nəşriyyatı, 2010.
Rüstəmov İzzət, *Həsən bəy Zərdabi*, Bakı: Turan nəşriyyatı, 2012.
Zərdabi Həsən bəy, *Seçilmiş məqalələri və məktubları*, Bakı: Zərdabi nəşriyyatı, 2016.
Zərdabi Həsən bəy, *Həsən bəy Zərdabi xatirələrde*, Bakı: Xan nəşriyyatı, 2017.

I H240 | 하이대르-바바에게 보내는 인사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이란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시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온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Hail to Haydar-Baba

「하이대르-바바에게 보내는 인사(Heydərbabaya salam)」는 위대한 아제르바이잔 시인 매햄매드히세인 새흐리야르(Məhəmməd Hüseyin Şəhriyar, 1906년~1988년)가 모국어인 아제르

바이잔어로 저술한 시(詩)다.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작품의 제 1부는 1952년 테헤란에서 쓰여졌다. 제 2부는 타브리즈(Təbriz)에서 저술했고, 1954년에 완성되었다. 매함매드휘세인 새흐리야르는 작품의 일부분을 페르시아어로 저술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새흐리야르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테헤란을 떠나 타브리즈에 온 뒤 이 작품을 완성했다.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하여 시인이 느낀 슬픈 감성은 시의 전체 정신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는 하이대르바바 산(Heydərbaba dağı: 이란, 태브리즈 인근에 위치한 산)을 배경으로 쓰여졌다. 민속적 모티프를 주로 썼으며, 시인의 어린 시절 추억, 사람들의 삶의 특징, 색채, 독창성, 자연미 등이 가미되었다. 시의 각 연은 5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연의 첫 항은 하이대르바바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작품에는 분단된 아제르바이잔인들의 이별, 고통, 이별로 인한 그리움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는 출간되자마자 널리 퍼졌다.

아제르바이잔 민주 공화국(Azərbaycan Xalq Cümhuriyyəti)의 창시자인 매함매드 애민 래술자대(Məhəmməd Əmin Rəsulzadə)는 이 작품에 대해 「문학적 사건(Ədəbi bir hadisə)」라는 제목으로 학술논문을 썼으며, 시에 묘사된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많은 세밀화들이 그려졌다. 이 작품은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하이다르바바야 살람

● 다국어 표기 Haydarbabaya salam(튀르키예어), Sei gegrüßt, Heydar Baba(독일어), Приветствия Гейдар-бабе(러시아어), حیدر بابایه سلام(페르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Hökumə Büllürü, *Məhəmməhüseyn Şəhriyar*, Bakı: Elm, 1984.

Həbibbəyli İsa, *Ustam Məhəmmədüseyn Şəhriyar*, Bakı: Elm, 1999.

Məhəmmədüseyn Şəhriyar, *Heydərbabayə salam*, Bakı: Azərneşr, 1998.

Şükürova Esmira, *Məhəmməhüseyn Şəhriyar: həyatı, mühiti, yaradıcılığı*, Bakı: Maarif, 1999.

Quliyev Elman, *Şəhriyar poeziyası və milli təkamül*, Bakı: Elm, 2004.

I H241 | 해티브 태브리즈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비평
- 집필자 오온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Khatib Tabrizi

예흐야 이븐 엘리 해티브 태브리즈(Yəhya ibn Əli Xətib Təbrizi)는 1030년에 태브리즈(Təbriz)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에 관한 정보는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는 주로 시리아 소재 도시 매르 앤-뉴만(Məərə ən-Nüman)으로 이주한 이후만이 알려져 있다.

그는 교육을 받고자 시리아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아랍 시인인 애불 엘라 매엘리인(Əbül Əla Məərrin)의 제자가 되었다. 이후 그는 생애를 마칠 때까지 바그다드(Bağdad)에 있는 니자미예 메드레세(Nizamiyyə mədrəsə)에서 교사와 도서관 부서장을 역임한다. 그는 1109년에 바그다드(Bağdad)에서 사망했고, 바브 아브라즈 묘지에 묻혔다. 그의 작품들은 여러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 박물관들에 보관돼 있다.

그는 아랍어로 작품을 썼는데, 초기에는 주로 시를 저술했고 이후 평론과 문학비평가로 활동했다. 그의 작품들에는 백과사전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학평론, 언어학, 역사학, 신학 등을 담고 있다. 작품들은 문학평론과 비평의 비중이 더 높다. 그는 논평을 선호했으며 시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제안했다. 그의 대표적인 평론으로는 「열개 송시의 논평(On qəsidənin şərhi)」과 「이븐 뒤레이드(İbn Düreyd)의 ‘맥수래’(Məqsurə)에 대한 평론」, 「무파드달 다이비니(Mufaddal Dabin)의 엘 무파드달리야트(Əl Mufaddaliyyat) 평론」, 「애부 탐맘 디바느 평론(Əbu Təmmam divanının şərhi)」, 「해마새 평론(Həmasə'nin şərhi)」, 「애불 엘라 매엘린(Əbül Əla Məərrin)의 ‘새그드 애즈-잔드 디바느 평론(Səqd əz-zənd divanının şərhi)」 등이 있다. 그의 마지막 평론은 「애루즈(Əruz, 운율 형식 중 하나)와 각운에 대한 소고(Əruz və qafiyə elmləri haqqında xülasə)」인데, 이 논평에서 그는 아루즈, 운율, 문학적 표현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해티브 태브리즈

- 다국어 표기 Hatib Tabrizi(튀르키예어), Хатиб Тәбризи(러시아어), الخطيب التبريزي(아랍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 참고문헌(오프라인) Allahverdiyev Qaley, *XI əsr Azərbaycan ədəbiyyatşünaslığı məsələləri*, Bakı: Şam nəşriyyatı, 2004.
- Mahmudov Malik, *Xətib Təbrizi (həyat və yaradıcılığı)*, Bakı: Elm nəşriyyatı, 1972.
- Mahmudov Malik, *Piyada Təbrizdən Şama qədər*, Bakı: Yazıçı nəşriyyatı, 1984.
- Mahmudov Malik, *Ərəbcə yazmış azərbaycanlı şair və ədiblər: VII-XII əsrlər*,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06.
- Talibzadə Kamal, *Azərbaycan ədəbi tənqid tarixi*, Bakı: Şərq-Qərb nəşriyyatı, 2015.
- Təbrizi Xətib, *Kitab əl-kafi fi-l-əruz və-l-qəvafı*, Bakı: Tural nəşriyyatı, 2005.
- Vaqif Sultanlı, *Azərbaycan ədəbi tənqidi*, Bakı: Nurlar nəşriyyatı, 2019.

I H242 I 햄새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문학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Khamsa

『햄새(Xəmsə)』는 12세기의 아제르바이잔 시인인 니자미 갠재비(Nizami Gəncəvi, 1141년 ~1209년)가 저술한 운문 작품이다. 영어로는 ‘함사’ 튀르키예어로는 ‘함세’로 표기된다. 우즈베크어로는 ‘함사’이며, 알리셰르 나버이이의 대작 연작시 『함사』가 있다.

세계 문학의 희귀한 진주로 여겨지는 이 작품은 다섯 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의 이름 『햄새(Xəmsə, 함사)』도 다섯 편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햄새』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다섯 편의 작품은 「비밀들의 보물(신비의 보배, Sirlər xəzinəsi, 1174~1175)», 「호스로브와 쉬린(Xosrov və Şirin, 1180)», 「레일리와 매즈눈(Leyli və Məcnun, 1188)», 「일곱 미인(Yeddi gözəl, 1197)」과 「알렉산더 대왕전(İsgəndərnamə, 1200~1203)」이다.

「비밀창고(Sirlər xəzinəsi, 1174~1175)」는 공통의 줄거리이지만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20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매우 교훈적이다. 「호스로브와 쉬린(Xosrov və Şirin, 1180년)」은 사랑을 주제로 쓰여졌다. 이 시는 셀주크 조의 술탄인 술탄 토그룰라 2세(Sultan II Toğrula)와 아제르바이잔 아타배일래르 제국(Azərbaycan Atabəyləri)의 사(왕)인

매함매드 자한 패흘래반(Məhəmməd Cahən Pəhləvan)에게 헌정된 것이다. 이 작품에서 호스로브와 시린은 함께 자신의 사랑을 위해 비쉬툰산(Bisütun)을 관통하는 전설적 캐릭터가 만들어졌다. 「레일리와 매크눈(Leyli və Məcnun, 1188년)」도 사랑이야기이다. 작품의 줄거리는 이별로 끝난 아랍의 유명한 사랑이야기 전설에서 따왔다. 「일곱 미인(Yeddi gözəl, 1197)」이란 작품은 주제 면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7개의 다양한 이야기로 구성된 시다. 시의 줄거리를 구성하는 사건들과 이야기들은 사산 제국의 바흐람 구르(Bəhram Gur) 왕조의 삶에서 따온 것이다. 『햄새(Xəmsə)』의 마지막 작품인 「알렉산더 대왕 전(İsgəndərnamə, 1200년~1203년)」은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에 관한 작품이다. 이전의 시들과 달리, 이 작품은 「원정기(Şərəfnamə)」와 「출정기(İqbalnamə)」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니자미 갠재비는 이 작품을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여겼다.

『햄새(Xəmsə)』에 포함된 모든 작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스나비(Masnəvi) 형태로 저술되었다. 이 작품들의 주요 내용은 휴머니즘, 국가에 대한 사랑, 정의로운 왕 등이다. 『햄새(Xəmsə)』는 동양 고전문학의 정수로서 하피즈 쉬라즈(Hafız Şirazi), 아미르 호스로우 대흘래비(Əmir Xosrov Dəhləvi), 뫼울라나 켈랄레딘 루미(Mövlana Cəlaləddin Rumi), 사디 쉬라지(Sədi Şirazi), 매함매드 푸줄리(Məhəmməd Füzuli), 세이드 애짐 쉬르바니(Seyid Əzim Şirvani) 같은 위대한 예술가들의 작품에 영향을 주었다. 많은 시인들은 『햄새(Xəmsə)』 전체나 『햄새(Xəmsə)』에 들어간 일부 시들을 모방해 시를 썼다. 그리고 『햄새(Xəmsə)』에 묘사된 수많은 사건들과 영웅들에 대한 세밀화들이 그려졌다.

니자미 갠재비의 『햄새(Xəmsə)』는 우즈베키스탄의 알리셰르 나버이이의 『함사』와 더불어 투르크 문학의 정수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함세, 함사
- 다국어 표기 Hamse(튀르키예어), Xamca(카자크어), خمسه(페르시아어), Xamce(러시아어), Hamsa(영어), Xamsa(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니자미 갠재비, 매함매드 푸줄리, 우즈베키스탄, 알리셰르 나버이이, 함사
- 참고문헌(오프라인) Rezulzadə M.Ə., *Azərbaycan şairi Nizami*, İstanbul: Türk Dünyası Araştırmaları Vakfı, 1991.
Səfərli Əlyar, Yusifli Xəlil, *Qədim və orta əsrlər Azərbaycan ədəbiyyatı*, Bakı: Ozan nəşriyyatı, 1998.
Yusifli Xəlil, *Nizami Gəncəvi: sələflər və xələflər*, Bakı: Adiloğlu nəşriyyatı, 2011.

Бертельс Е. Э., Великий азербайджанский поэт Низами, Баку: Изд-во АзФАН. 1940.

Выдающиеся русские ученые и писатели о Низами Гянджеви, Баку: Изд-во Язычы, 1981.

Санан Ибрагимов, Тюркство Низами. Берлин: Изд-во Ланберт, 2015.

I H243 | 행복의 정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Firdavsul-iqbol

역사서 『행복의 정원(Firdavsul-iqbol)』의 저자는 무니스(Munis Xorazmiy, 1778년~1829년)와 그의 제자이자 조카인 무함마드 리자 아가히(Muhammad Riza Mirab Agahi, 1809년~1874년)이다.

이 책은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최초의 예언자 아담부터 노아의 아들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두 번째 부분은 야벳부터 콩기라트까지의 몽골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칭기즈 칸과 그 자손을 다루고 있으며, 네 번째 부분에서는 엘투자르 칸(Eltuzarxon, 재위: 1804년~1806년)까지의 히바 칸국 콩기라트 왕조에 대해 서술했다. 다섯 번째 부분에서는 엘투자르 칸부터 무함마드 라힘(Muhammad Rahim Bahodir, 재위: 1806년~1825년)의 시대를 다루고 있다. 이 다섯 번째 장이 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저자들이 살아있던 시대를 서술하고 있는 만큼, 사건 대부분은 관찰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기반으로 저술되었다. 책의 서술은 담백하고 명확한 편이다.

1998년 러시아 출신 사학자 유리 브레겔(Юрий Энохович Брегель, 1925년~2016년)은 레닌그라드에서 소장하고 있던 저자의 일본 판본에 기반하여 무니스와 아가히의 전기와 판본의 특징 및 참고 문헌과 저작 방식에 대해서 추가 서술하여 출간하기도 했다(Shir Muhammad Mirab Munis-Muhammed Rıza Mirab Agahı, Firdaws al-Iqbal History of Khorezm, Leiden 1988). 이 서적은 17세기~19세기 중앙아시아 역사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사료 중 하나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피르다브술 이크볼, 피르데브설 이크발
- 다국어 표기 Firdavsul-iqbol(우즈베크어), Firdevsü'l-ikbâl(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무니스
- 참고문헌(오프라인) Yiğit, İsmail. "Munis", *TDV İslam Ansiklopedisi Cilt 31*. Istanbul: TDV. 2006. pp.147~148.
Muhammad Munis, Mirab., Yuri Bregel, Muhammad Riza Agahi, Mirab. *Firdaws al-iqbal : history of Khorezm*. Leiden: E.J. Brill. 1988.

Ⅰ H244 Ⅰ 허디 자리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Hodi Zarif

우즈베키스탄 민속학의 창시자인 허디 자리프(Hodi Zarif, 또는 Zarifov Hodi Tillyayevich)는 1905년 3월 20일 타슈켄트에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처음에는 집 근처의 학교에서 교육받다가 한동안 러시아 학교에서 수학했고, 1916년부터는 자디드인들이 건립한 신식학교에서 수학했다.

허디 자리프는 1920년 타슈켄트의 기숙학교 교사와 유치원 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1921년부터 1922년까지는 타슈켄트 구(舊)시가(Eski shahar)의 청소년 조직 부서장을 역임했다. 1923년부터 1926년 사이에 그는 바쿠 교원학교(Bakı Müəllimlər Seminariyası)에서 수학하는 동시에 민속과 민족지 자료를 기록 및 녹취하기 시작했다. 바쿠에 있는 동안 그는 아제르바이잔 민속 표본을 수집했다. 바쿠에서 학업을 지속하며 처음에는 투르키스탄 교육위원회를, 이후에는 우즈베키스탄 교육위원회의 중앙 장학위원회 바쿠 지부를 설립했고, 1926년 9월까지 위원회 의장직을 맡았다. 1926년 말부터 그는 우즈베키스탄 교육위원회 학술분과 우즈베크인 연구회 연구원을 역임했고, 국가 과학위원회정치교육 부서장으로 일했다. 이때에도 그는 물론 민속자료 수집을 병행했다.

허디 자리프는 1927년에 사마르칸트 사범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민속 작품 및 자료 수집에 몰

두하느라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지는 못했다. 그는 재학 동안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지 못하다가 1965년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했다.

1928년에 그는 민속학 및 고고학 연구소를 설립하여 이끌었다. 이 연구소는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과학 아카데미 알리셰르 나비이 언어문학 연구소 민속학과의 기반이 되었다. 이 때부터 그는 우즈베키스탄 민속학 상임 지도부를 비롯해 다양한 직책을 거쳐 사망할 때까지 민속학과장을 맡았다.

허디 자리프는 우즈베크 바흐쉬들로부터 유명한 서사시를 수집했고, 동화, 노래, 속담, 방언 및 민족지학 자료, 역사 관련 문서와 기념품 등을 수집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서사시 연구, 바흐쉬, 민속 시인의 서사시 레퍼토리의 이념과 예술, 우즈베크 민속학 발전의 주요 방법 연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특히 허디 자리프는 에르가쉬 주만불불 오글리(Ergash Jumanbulbul o'g'li), 퍼질 올더쉬 오글리(Fozil Yo'ldosh o'g'li), 누르먼 압두베이 오글리(Nurmon Abduvoy o'g'li), 압둘라 누르알리 오글리(Abdulla Nurali o'g'li), 홀요르 압두카림 오글리(Xolyor Abdugarim o'g'li), 아흐마드 바흐쉬 맛나자르 오글리(Ahmad baxshi Matnazar o'g'li), 벌라 바흐쉬(Bola baxshi)와 같은 바흐쉬들과 그들의 창작 활동에 관한 학술논문을 집필했다.

주요 저서로는 『우즈베크 민속(O'zbek folklori)(2권)』, 『우즈베크 민족의 영웅서사시(O'zbek xalq qahramonlik eposi)』, 『동시대인 나비이(Navoyi zamondoshi)』, 『귀족의 미덕(Fozillar fazilati)』, 『무함맛 아민 무키미이(Muhammad Amin Muqimiy)』, 『알퍼미쉬 서사시의 주요 모티프(Alpomish dostonining asosiy motivlari)』, 『아르샤샤 영웅(Arshaq-shaq qahramoni)』, 『우즈베크 민속학 역사(O'zbek folklorshunosligi tarixidan)』, 『우즈베크 민족 서사시의 역사적 근거(O'zbek xalq dostonlarining tarixiy asoslari)』, 『우즈베크 민족의 바흐쉬들(O'zbek xalq baxshilari)』, 『민속학과 학술 용어 안내서(Folklor va termin to'plovchilarga qo'llanma)』 등이 있다. 또한 그는 우즈베크 민속학에서 자신만의 학파와 계보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우즈베크 문학사, 방언학, 언어학, 민족지학 및 고고학과 관련해서도 학술연구서를 출간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1934년에 출간된 『용어 사용 안내 사전(Lug'at ham termin to'plovchilarga qo'llanma)』, 1948년 출간된 『루트피이와 나비이(Lutfiy va Navoiy)』, 1958년에 출간된 『민속학과 고고학의 비교 연구(Folklor va arxeologiya

materiallarini qiyosiy o‘rganishga doir)』 등이 있다.

1967년 3월 20일 그의 60번째 생일은 큰 피로연이 열렸다. 60회 생일을 기념해 그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그의 회갑기념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같은 해 허디 자리프는 교수 직함과 우즈베키스탄의 명예학자 칭호를 받았다.

그는 1972년 1월 13일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 1973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베루니이(Beruniy) 국가상이 수여되었다. 나버이이 문학박물관 내 우즈베크 구비문학 부서에는 허디 자리프의 흉상이 있다. 타슈켄트에는 그의 이름으로 명명된 거리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호디 자리프

● 다국어 표기 Hodi Zarifov(우즈베크어), Ходи Зариф(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바흐쉬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zayev To‘ra, *Hodi Zarif suhbatlari*, Toshkent: SHAMS-ASA, 2013.

Olim To‘laboev va bosh, *XX asr o‘zbek folklorshunosligi, Antologiya*, Toshkent: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Davlat ilmiy nashriyoti, 2017.

I H245 | 허자

- 시기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Xoja

허자(Xoja)는 16세기를 대표하는 시인이자 작가 및 사상가이다. 그는 만담가로서 우즈베크 문학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허자(Xoja)의 본명은 사이드 퍼샤허자 이븐 압둘바허브 허자(Poshshaxoja ibn Abdulvahobxoja)이다. 허자(Xoja)는 그의 필명이다. 허자의 삶과 창작 활동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으며, 출생과 사망일 또한 정확하지 않지만, 일부 출처에 따르면 허자(Xoja)는 1480년 니소(Niso)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당시의 수피 셰이크이자 시인이

었다고 전해진다.

허자(Xoja)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받은 다음 니소(Niso)와 마리(Marv)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페르시아-타지크어와 아랍어를 습득하고 역사 책, 우즈베크 문학과 페르시아-타지크 문학 특히 니자미이(Nizomiy), 사아다이(Sa'diy)와 나버이이(Navoiy) 작품들을 공부했다. 또한 그는 민속, 민화 및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기록에 의하면 허자(Xoja)는 직접 쓴 서정시와 서사시를 자흐릿딘 무함마드 바부르(Zahridin Muhammad Bobur)에게 보냈다.

허자(Xoja)는 1496년 여름, 케팍 미르저 통치하에 측량사로 일을 하며 문학 작품 집필에도 몰두했는데, 1508년 니소(Niso)와 어비바르드(Obivard) 지역이 샤이바니칸에 의해 정복되었을 당시, 이미 허자(Xoja)는 그 지역에서 재능 있는 시인이자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같은 해 샤이바니 칸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길에 니소(Niso)에서 잠시 머물며, 허자(Xoja)를 만나게 되고, 그를 두룬(Durun) 지역의 주지사(hokim)로 임명하지만, 샤이바니 칸의 멸망 후 허자(Xoja)는 두룬을 떠나 사마르칸트로, 이후 부하라로 이동하여 정착한다.

그는 1514년까지 테무르 술탄(Temur Sulton)과 쿠추쿤치현(Kuchkunchixon)을 섬겼고 1515년부터 1516년까지 카르마나(Karmana)의 주지사인 자니베크 술탄(Jonibek Sulton) 통치하에서 일한다. 부하라의 칸인 우바이둘라칸(Ubaydullaxon)은 헤라트를 정복한 이후 허자(Xoja)에게 셰이크-울-이슬람(shayxulislom) 계급을 하사하지만, 1543년 허자(Xoja)는 자신이 맡고 있던 직위를 그만두고 정계를 떠나 부하라로 돌아와 문학 창작 활동에 집중한다.

허자(Xoja)의 문학 작품들은 대개 서정적이고 서사적인 작품으로 구성된다. 아쉽게도 그의 서정시는 디반(devon) 형태로 보존되지 못하여, 일부 시만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또한 허자(Xoja)는 가잘(g'azal)을 통해 열렬한 사랑, (연인들의) 만남에서 받는 기쁨, 행복 및 이별의 고통에 대해 노래한다.

허자(Xoja)가 키스탄 어딜에게 헌정한 1538년 작품 『굴저르(Gulzor)』는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정직과 정의, 예절-도덕과 품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허자(Xoja)가 1508년에서 1510년 사이 테무르 술탄(Temur Sulton)에게 헌정한 『정의의 열쇠(Miftoh ul-adl(Adolat kaliti)』와 『굴저르(Gulzor)』는 내용 면에서 매우 비슷하다. 이 두 작품은 현재 우즈베키스탄 과학 아카데미의 동양학 연구소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동양학 연구소

에 보관되어 있다.

허자(Xoja)의 아들 하산허자 니서리이(Hasanxoja Nisoriy)의 작품 『친구들에 대한 회고 (Muzakkir al-ahbob(Do'stlar yodnomasi))』에 의하면 허자(Xoja)는 『라일리와 마즈눈(Layli va Majnun)』도 집필했다고 전해지지만, 그가 집필한 이 작품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16세기 허자건(Xojagon) 종파의 수피학자 마흐두미 아잠 커서니(Mahdumi A'zam Kosoniy)는 허자(Xoja)를 '높이 나는 매'라고 묘사한 바 있다.

허자(Xoja)는 1547년에 부하라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바허부딘 낙쉬반디(Bahovuddin Naqshband)의 영묘(maqbara) 근처에 묻혔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호자

● 다국어 표기 Xoja/ Poshshoxoja(우즈베크어), Падшах-ходжа(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부하라, 낙쉬반디, 우즈베키스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www.ziyouz.com/portal-haqida/xarita/uzbek-sheriyati/o-zbek-mumtoz-adabiyoti/poshshoxoja-1480-1547>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5.

Mallayev N., *O'zbek adabiyoti tarixi, Birinchi kitob*, Toshkent: O'qituvchi, 1963.

Zohidov V., *Poshshoxo'ja, O'zbek adabiyoti*, Toshkent: O'zSSR Davlat baiiy adabiyot nashriyoti, 1962.

Ⅰ H246 Ⅰ 허지 무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Hoji Muin

허지 무인(Hoji Muin)은 우즈베키스탄 민족 부흥기의 문학과 예술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이다. 1883년 사마르칸트에서 태어나 조부와 루하바드(Ruxabad) 마드라사에서 종교 교육과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다. 마드라사 졸업 후, 우즈베크어뿐만 아니라 타지크어, 페르시아어, 아

랍어를 구사할 수 있었으며, 후에는 러시아어, 튀르키예어 및 아제르바이잔어까지 숙달하게 되었다.

1901년 메카로 순례를 다녀와 ‘하지(우즈베크어: 허지(Hoji))’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메카를 순례하며, 이란 영토를 지나 다양한 고대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 메카 순례 후 같은 해 바슬리(Vasli)의 지도하에 자신이 공부했던 루하바드 마드라사에서 교사로 재직했으며, 자신의 집에서 작은 학교를 열었다. 교사로서의 경험을 쌓은 허지 무인은 1903년 허자 니스밧더르 마할라(Khoja Nisbatdor mahalla)에서 자비로 신식학교를 열었으며, 1916년까지 교사로 재직했다. 당시 신식 학교는 계몽가나 자디드 교인들에 의해 개교되며, 비종교적인 과목과 과학을 가르쳤다.

어린 시절부터 시에 관심을 가졌던 허지 무인은 특히 아흐마트 야사비(Ahmad Yassaviy)와 마쉬랍(Mashrab)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필체가 아름다웠던 허지 무인은 18세에 와슬리의 시를 필사해 주며, 그의 영향을 받아 시를 쓰기 시작했다. 와슬리는 사마르칸트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의 저명한 지식과 교육자, 자디드인들에게 허지 무인을 소개한다. 그러나 1908년, 사마르칸트에서 신식과 구식의 갈등이 절정에 이르고, 허지 무인은 ‘낭만적인 시를 쓰는 것은 도덕에 해롭다는 것을 알기에’ 와슬리를 떠난다.

그 후 ‘나-히프(Na-hif)’라는 필명으로 시를 쓰기 시작했고, 후에는 ‘메흐리이(Mehriy)’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주로 전통적인 형식의 시와 민족 시를 썼다. 특히 여러 언어에 능숙한 편인 만큼, 일부 시는 아랍어나 타지크어로 쓰기도 했다.

1914년 1월 시집 『문학의 꽃다발(Guldastai adabiyot)』, 1915년 『새로운 문학(Yangi adabiyot)』을 출판한다. 1913년에는 피트랏(Fitrat)의 작품 『토론(Munozara)』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문학활동 이외에도 투르키스탄 언론에 사회정치 평론이나 시평 등 칼럼을 집필하고 적극적으로 기고했다.

1914년에 상연된 극 『파다르쿠쉬(Padarkush)』의 영향을 받은 허지 무인은 시 집필을 그만두고 연극 극본을 쓰기 시작한다. 무인은 『결혼식(To'y)』 누스라틸라 쿠드라툴라(Nusratulla Qudratulla)와 공동 집필, 『구식학교 신식학교(Eski maktab-yangi maktab)』, 『양귀비(Ko'knori)』, 『억압받는 아내(Mazluma xotin)』, 『부자와 하인(Boy ila xizmatkor)』, 『판사와 선생(Qozi va muallim)』과 같은 연극으로 자디드의 연극을 풍부하게 했다.

다른 자디드 극작가들과 달리 허지 무인은 동포들이 “아직 무지하고 암흑 속에 남아 있는” 이 유를 동포들이 넓은 마음을 가졌음에도 쾌락을 즐기며 봉건 가부장제 생활에 헌신하는 “특성” 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최초로 마약 중독과 바람둥이를 폭로하는 작품을 쓰기도 했다.

1918년 6월 허지 무인은 신문 <노동자의 소리(Mehnatkashlar tovushi)>의 편집자가 되어 한동안 연극계를 떠나 있었으나 베흐부다이(Mahmudxo'ja Behbudiy)의 비극적인 사망 후 다시 돌아와 ‘인민의 극장(Xalq teatri)’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시에 사마르칸트에서 활동하고 있던 신생 아마추어 극단을 위해서 새로운 작품을 제공해 주고,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다. 이 아마추어 극단은 여러 인종과 국적으로 구성되어 있던 만큼, 그의 작품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공연될 수 있게 되었다.

1923년 『교육의 희생자(Maorif qurbonlar)』라는 연극을 집필한 이후로 자디드인들과 멀어진 반면 볼셰비키와 가깝게 지내며 활동할 수밖에 없게 된다.

1929년, 그는 신문 <타직의 소리(Ovozi tojik)>에서 집필자이자 편집자로 일하고 있을 때 발생한 오류로 인해 3년 동안 시베리아로 추방을 당한다. 1932년 추방에서 돌아왔으나 1938년 1월에 허지 무인은 반소련 선전 및 간첩 혐의로 다시 체포되어 10년 형을 선고받았고, 1942년 6월 21일에 솔리캄스크시의 한 감옥에 사망한다. 사후 10여년이 지난 1956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호지 무인

● 다국어 표기 Hoji Muin(우즈베크어), Ходжи Муин(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베흐부다이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5.

Karimov Naim, *XX asr adabiyoti manzaralari*, Toshkent: O'zbekiston, 2008.

I H247 | 헤라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아프가니스탄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Herat

헤라트는 서부 아프가니스탄의 헤라트 주의 주도이다. 힌두쿠시 산맥에서 발원하는 하리루드강의 계곡에 위치한다. 교통의 요지이며 기후가 온화하고 토지가 비옥하여 일찍부터 발전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비문이나 아베스타에 이미 이 지명이 기록되어 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 땅에 도읍 알렉산드레이아 아레이온(Alexandria Areion)을 건설했다.

하리루드강은 중부 아프가니스탄의 산맥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사막으로 흐른다. 비옥한 영역에 위치하여 헤라트는 전통적으로 포도주로 유명하다. 헤라트는 아프가니스탄의



헤라트

세 번째 도시이며 페르시아어를 사용하는 타지크족이 도시의 주요 거주자이며 동이란의 페르시아인과 같다.

헤라트는 많은 역사적인 건물이 있는 고대 도시이지만, 이들은 근래의 수십 년간 다양한 군사적인 전투로 손상을 겪었다. 도시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건설된 요새 유적이 많다. 중세에 헤라트는 호라산의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가 되었다. 그곳은 호라산의 진주로 알려졌다.

15세기에는 티무르 제국의 수도로서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시내 및 교외에는 샤 루흐(Shah Rukh, 재위: 1404년~1447년)의 비(妃) 가우하르 샤드(Gawhar Shad, 1378년~1457년)의 명으로 1417년~1437년에 세워진 무사라라고 불리는 건물군(모스크, 마드라사, 가우하르 샤드 묘[廟])이나 마드라사·흐사인·바이카라(1469년~1506년경) 미나레트 등의 유구가 있다.

특히 15세기에 헤라트에 형성된 페르시아 미니어처의 화파인 헤라트파(Herat School)가 유명하다. 티무르조(朝)의 샤 루흐(Sha Rukh, 재위: 1404년~1447년) 및 아들 바이승구르



지진으로 무너진 헤라트의 건물 모습

(Baysunghur, 1433년 사망)가 헤라트의 궁정에 서화원을 설치해서 사본 제작을 보호 장려했으므로, 1420년경 이후 페르시아 미니어처의 중심은 시라즈에서 헤라트로 옮겨졌다. 헤라트파의 화풍은 선명하고 강렬한 색채의 대비나 변화 있는 자태로 개성적으로 표현된 인물과, 자연주의적 필치로 리얼하게 그려진 배경과의 조화를 특색으로 한다. 이 파의 대표작으로는 우화집 『칼릴라 와 디므나(Kalila wa Dimna, 1420년경, 테헤란, 굴리스탄 궁전)』나 『샤 나메(왕서[王書], 1430년경, 동궁전)』 등이 있으며, 대표적 화가로서는 샤 무자파르(Shah Muzaffar, 1456년~1480년경 활약), 미라크나카시 및 거장 비히자드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헤라트
- 다국어 표기 هرات(다리어, 파슈툰어), Herat(영어)
- 연관 검색어 투르크메니스탄, 티무르 제국, 마드라사

참고문헌(오프라인) Frye, R.N. “Harāt”. In Lewis, B.; Ménage, V. L.; Pellat, Ch. & Schacht, J. (eds.). The Encyclopaedia of Islam, New Edition, Volume III: H-Iram. Leiden: E. J. Brill. 1971.

Vogelsang, W. J. “Herat ii. History, pre-Islamic period”. In Yarshater, Ehsan (ed.). Encyclopædia Iranica, Volume XII/2: Hedāyat al-mota’allemin-Herat VI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egan Paul. 2003.

I H248 | 헤르멘 탈 유적(우기우르 솜)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성지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hermen Tal

헤르멘 탈(Khermen Tal) 유적은 아르한가이 아이막에 위치한 우기우르 솜의 북쪽에 20km 떨어진 헤르멘 탈 계곡의 숲속에 위치한다. 1950년대 몽골 연구자들이 부서진 성지를 발견했고, 2000년대 유적의 평면도를 작성하고 시굴을 했다. 하지만 정식 발굴이 진행된 적은 없다.

헤르멘 탈 계곡의 동서 라인을 따라서 세 개의 성이 나란히 위치한다. 가장 서쪽에 위치한 성은 높이 1.5m, 성의 면적은 400m×520m이다. 이 성의 문(너비 10m)은 북, 동, 서에 위치한다.

이 성의 내부에는 내성(內城)이 존재하는데 35m×25m이다. 성의 내부에는 이보다 더 작은 구조물이 발견되었다. 중앙에 위치한 성은 높이 150m, 면적은 430m×290m으로, 헤르멘 탈 계곡의 3개 성 가운데 가장 크다. 문은 서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문의 너비는 약 10m이다. 별다른 시설 없이 벽이 끊어진 곳이 문지이다. 가장 동쪽에 위치한 성은 가장 작다. 이 성에는 문지가 서쪽 1곳에만 위치한다. 그 중앙의 높이는 25m×20m이다. 이곳에서 4km~6km 떨어진 곳에 부르한톨고이 성지가 위치한다.

몽골의 흉노 성지 유적은 흉노인의 생활 방식을 알 수 있는 유적이다. 몽골에서 성지는 중앙부와 고비 지역에 위치하며 자바이칼 지역에서도 흉노 성지가 발견되었다. 성지는 토성과 보호 시설이 없는 건물지 그리고 수혈 주거지 등으로 구분된다. 유적의 성격에 따라 제사용 건물지, 방어용 성터, 귀족이 살던 궁전지, 생산 장인이 모여 사는 마을지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유적은 세 개의 성이 나란히 일렬로 설치되었고 유적의 규모 정도만 알려져 있다. 유적의 성격에 관한 향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헤르멘탈
- 다국어 표기 Khermen Tal(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C.В. Данилов Города в кочевых обществах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Улан-Удэ: 2004. 202 с.

I H249 | 헤르멘 탈 유적(어기너르숨)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hermen Tal

헤르멘 탈 유적은 아르항가이 아이막 어기너르숨에 위치한다. 지하 1.7m 지점에서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머리쪽이 넓고, 다리쪽이 좁은 형태의 목관이 설치되었다. 60대의 남성이 신전장

으로 형태로 매장되었고 유물로는 금박 장식, 철촉, 철대구, 철검, 의복 잔편 등이 출토되었다.

여기서 출토된 토기는 선비 무덤에서 보이는 발형토기이다. 그런데 철검, 화살촉 등은 알타이의 코크 파시 단계(3세기~5세기)의 문화상과 유사하다.

이 유적의 절대 연대가 측정되었는데, 킨 대학은 A.D. 335년~535년이고, 북경대학은 이보다 늦은데, 출토된 유물 양상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자의 연대치가 좀 더 정확하다. 선비 유언이 활동한 시기는 3세기~5세기인데, 이 시기에 요령 지역에서는 삼연 문화가 강하게 나타났고, 자바이칼에서는 두로이 문화가 나타난다. 유언의 실체와 가까운 유적이 헤르멘 탈(몽골)과 스테푸슈카 유적 등에서 나타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케르멘 탈

● 다국어 표기 Khermen Tal(몽골어)

● 연관 검색어 선비, 코크 파시, 유언

● 참고문헌(오프라인) Очир, А., Чэнь Енжи, и др., Талын гурван хермийн хужанбулш, Археологийн судлал, XXXV, Улаанбаатар, 2015.

강인욱. 「유라시아 동부 초원 지역 선비·유언 시기 고고학적 문화와 그 의의」. 『동북아역사논총』, 57권. 2017.

I H250 | 헤벨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정령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Hevel

헤벨은 추바시어로 태양을 의미한다. 추바시 신화에서 헤벨신, 즉 태양신을 지칭하기도 한다. 태양은 지상의 모든 생명체 대부분에게 영향을 주며 빛나는 존재 중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태양을 향한 여러 민족들의 신앙은 광범위한 양상을 보여준다. 벵갈의 문다 신전에서는 태양신이 주신이고, 잉카에서는 황제가 태양의 자손이라고 여겨지며,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태양 원반은 신성의 상징이다. 몽골에서 태양은 ‘불’, ‘황금’, ‘왕권’을 의미한다. 헤벨은 투르크어의 고

유 단어는 아니며, 수메르의 태양신인 기빌(gibil), 헤울(heul), 키메르(кимпр) 또는 그리스 단어 헬리오스(heli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추바시인들은 얼굴을 동쪽으로 향해 기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때 만일 방향을 잃는다면 태양을 향해 기도를 한다. 기도할 때 동쪽이나 태양을 향하는 것은 추바시인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에서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다. 헤벨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제물은 맥주이다. 작은 밀 전명인 유스만(юсман)이나 죽을 바치기도 한다. 카라바이(каравай)라고 불리는 크고 납작한 추바시 전통 빵을 헤벨에게 바치기도 하는데, 이는 형태와 색에서 태양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추바시인들은 태양이나 달, 대지 등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다. 논쟁을 할 때 헤벨 신을 부르기도 하고, 이때는 얼굴을 태양으로 향하고 송배의 몸동작을 표한다. 이런 동작은 ‘이것은 사실이야’라는 의미를 표현한다. 헤벨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면 헤벨이 벌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헤베르
- 다국어 표기 Хевел(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추바시어, 추바시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Антон Салмин. Система верований чувашей, Чебоксары. 2004, pp.34~35.

I H251 | 혁명(우즈베키스탄 저널)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정기간행물
- 유형 소분류2 잡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Inqilob

<혁명(Inqilob)>은 투르키스탄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발행되었던 우즈베키스탄 정치, 경제, 문학 잡지였다. 이 잡지는 1922년부터 1924년 사이 타슈켄트에서 한 달에 두 번 발행되었으며, 정확한 집계는 알 수 없으나 총 2,000부~3,000부 정도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혁명>은 당대 우즈베키스탄 최고 지식인들이 편집자로 참여했다. 나지르 투라쿨러브(Nazir

Turakulov), 압둘라 커드리이(Abdulla Qodiriy)와 사드릿딘 아이니(Sadriddin Ayni), 압둘라 아블러니이(Abdulla Avloniy) 등은 <혁명>을 통해 우즈베크 문학과 저널리즘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혁명>에는 나지르 투라쿨러브(Nazir Turakulov), 게오르기 사파로브(Georgy Safarov), 압둘라 무스타포예브(Abdulla Mustafoev), 이스마일 베리셰브(Ismail Berishev), 불라트 솔리예브(Bulat Soliev), 압두라흐먼 사디이(Abdurahmon Sadiy), 아그잠 아우버브(Agzam Ayubov), 발리 알러머브(Vali Allomov), 허지 무인(Xoji Muin), 버투(Botu), 올토이(Oltoy), 셔키르 솔라이먼(Shokir Sulaimon) 등의 칼럼, 평론, 시 및 단편소설들이 게재되었다.

잡지에는 「정치(Siyosat)」, 「경제(Iqtisod)」, 「문학(Adabiyot)」, 「교육과 훈육(Ta'lim va tarbiya)」, 「민족과 민족주의(Millat va milliyat)」, 「투르키스탄의 계몽기(Turkistonda davri istiboq)」, 「이슬람의 세계(Islom dunyosi)」, 「사회 정치(Ijtimoiy siyosat)」, 「뉴스(Xabarlar)」 세션이 있었고, 투르키스탄의 정치, 경제 및 문화 생활에 대한 다양한 과학적이며, 정치적이고, 비판적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에세이, 유머 및 정보제공 자료가 제공되었음은 물론 장편소설, 단편소설, 드라마, 산문, 시 등 모든 문학 장르의 작품이 게재돼 잡지의 문예지로써의 위상을 더욱 높여 주었다.

여성의 계몽을 촉구한 <혁명>은 ‘여성들이여 공부하십시오! 무지는 인류의 적입니다(Xotin qizlar o'qingingiz: insoniyatning eng yovuz dushmani jaholatdur!)’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잡지 <혁명>은 마르크스 이념을 강조했기에 투르키스탄 공산당은 투르키스탄의 ‘유일한 저널’이라고 표현할만큼 잡지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1922년 <혁명>에는 사드릿딘 아이니(Sadriddin Ayni)의 작품 「부하라 사형 집행인들 간의 대화(Buxoro jallodlarining o'zaro musohabali)」이 게재되었으며, 압둘라 커드리이(Abdulla Qodiriy)의 소설 『지난 날들(O'tkan kunlar)』의 일부가 게재되었다.

또한 <혁명>은 주변 투르크 국가들의 고전문학들을 소개하며 우즈베크 문화와 민족정신을 고양시키는데 기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인킬로브

● 다국어 표기 Inqilob(우즈베크어), Революция(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압둘라 커드리이, 사드릿딘 아이니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azizova N., *Milliy jurnalistika tarixi*, Toshkent: Sharq, 2008.

Abduazizova N., *Istoriya nasionalnoy jurnalistiki, genezis i evolyusiya*, Toshkent: Sharq, 2012.

I H252 | 현대 위구르어

● 시기 기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Uygur Turkish, Uyghur/Uygur language

현대 위구르어는 오늘날 위구르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위구르인의 대부분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동투르키스탄)에 거주하며 2017년 중국의 인구수 통계에 의하면 신장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인들은 12,123,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위구르인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거주한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튀르키예 등지에서도 소수 집단으로 거주한다.

‘위구르’가 동투르키스탄 지역에 거주하던 투르크인들의 민족 명칭으로 자리 잡은 것은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1921년 타슈켄트에서는 야르켄트, 악수, 투르판 등 지역명이 민족 명칭 후보로 제시되었지만, 이들을 제치고 민족 공식 명칭이 ‘위구르’로 채택되었는데, 1933년 설립되고 1934년 멸망한 동투르키스탄 제1공화국이 ‘위구르’ 명칭을 사용한다. ‘위구르’ 이름은 1955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설립되면서 비로소 공식화되었다.

차가타이 투르크어를 전신으로 한 현대 위구르어는 각 지역마다 다양한 방언이 존재한다. 그들 중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구도인 우루무치 방언이, 위구르어의 표준어로 채택이 되며, 그 이외 지역 카쉬가르, 악수, 하미, 투르판 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방언으로 받아들여졌다.

20세기 중반까지 아랍 문자를 기반으로 한 문자를 사용했던 위구르인들은 이후 정치적, 지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문자를 다양하게 변경한다. 1925년~1930년 사이 변형된 형태의 아랍 문자를 사용하던 구 소련 지역에 거주하던 위구르인들은 1930년~1947년에는 라틴 알

파벳을, 1947년 이후에는 오늘날 사용하는 키릴 문자로 전환하여 사용해 왔다. 반면 1956년 이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거주하던 위구르인들의 라틴 문자로의 개혁 의지는 1974년에서 1983년까지 약 9년간 시행되지만, 1983년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결정에 따라 아랍 문자로 변경되었다. 위구르어는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키릴 문자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는 아랍 문자를 사용하여 표기된다.

위구르어는 아랍어나 페르시아어와는 다르게 아랍 문자의 변형 형태를 사용하여 모든 모음을 표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아랍어 혹은 페르시아어에서 유입된 언어들도 차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들 방식대로 모음 표기를 분명히 한다. 즉 위구르어는 발음에 따라 전사된다고 할 수 있다.

위구르어는 한국어와 동일하게 교착어이며, 문장 구조도 SOV형으로 동일하다. 위구르어의 어휘는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랍어, 페르시아어 차용어가 상당수이며, 한어, 러시아어도 종종 발견된다. 투르크어 분류 체계에 의하면 우즈베크어와 동일하게 카를루크어에 속하여 남동투르크어파로 분류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위구르 투르크어
- 다국어 표기 Uygur Türkçesi, uygurca(튀르키예어), Uyğur tili, ئۇيغۇرچە(위구르어), Уйгурский язык(러시아어), اللغة الأويغورية(아랍어), 维吾尔语(중국어)
- 연관 검색어 신장 위구르 자치구
- 참고문헌(오프라인) Öztürk, R. *Yeni Uygur Türkçesi Grameri*. Türk Dil Kurumu. 1994.

I H253 | 현자 코르크우트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시인, 음악가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orkyt Ata

코르크우트 아타는 10세기 시인, 작사가이자 작곡가인 실존 인물이다. 코르크우트-아타(Горкут-ата)로 불리기도 한다. 그의 출신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를 시르다리아(Сырдарья)강 유역의 초원 지대에 있는 오우즈(오구즈)-킵차크 연합 부족의 출신으로 추정한다. 그는 현악기 코브즈(кобыз)의 창시자이며, 아킨, 구연자, 시인과 음악가의 수호자이다.

코르크우트에 관한 전설은 킵차크 투르크계 민족(카자흐, 카라칼파크)에게서 자주 등장하며 특



현자 코르크우트 기념탑(키질러르다, 카자흐스탄)

히 남오우즈 계인 투르크멘,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민족은 공동의 민족 서사시인 「오우즈(오구즈)-나메(Огуз-наме)」를 갖고 있다. 투르크 민족의 서사 문학의 기념비인 「현자 코르크트의 서(Китаби деде Коркуд)」의 저자이기도 하다. 카자흐 철학사에서 코르크트는 민족의 단합을 이끈 활동가이자 투르크 민족의 세계관을 정립한 사상가이자 학자로 알려져 있다.

전설에 따르면 코르크트는 세 가지 종류의 예술 능력을 가졌다. 첫 번째로 그는 오우즈 부족 출신의 바흐시(бахши, баксы, абыз)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로 그는 현악기 코브즈를 만든 큐이시(кюйши)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우즈인들의 삶을 묘사한 문학 유산들을 전달하는 유명한 지라우(жырау)이자 구연자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르크트 아타, 데데코르크트
- 다국어 표기 دهه قورقوت(아랍어), Қорқыт Ата(카자흐어), Korkut At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코브즈, 오우즈-나메, 현자 코르크트의 서, 바흐시, 큐이
- 멀티미디어 링크 코르크트 - 큐이의 역사
<https://www.youtube.com/watch?v=jFpWSDGxd74>
- 참고문헌(오프라인) Қазақ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Алматы, — Т. 3. 2004, С. 300.

I H254 | 현자 코르크트의 서(書)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서사시 ● 유형 소분류2 작품
- 집필자 김근식, 김홍중, 오은경, 황영삼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Epic of “Dede Korkut”, the Book of Korkyt Ata

『현자(賢者) 코르크트의 서(書)(튀르키예어: Dede Korkut Kitabı; 아제르바이잔어: Kitabi-Dədə Qorqud; 투르크멘어: Kitaby Dädem Gorkut)』는 영웅서사시이며 범(凡)투르크 민족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오우즈(오구즈) 부족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유산이다.

이 서사시는 11세기~12세기에 속하는 작품이다. ‘현자 코르크트의 서’라는 말은 오우즈(오구즈) 부족(Oğuz tayfaları)의 언어에서는 ‘Kitab-i Dədəm Qorqud əla lisan-i taife-i Oğuzan’로 표기되며, 그 뜻은 ‘현자 코르크드(Dədə Qorqud)의 저서’라는 말이다. ‘현자 코르크트의 서’의 저자는 현자로 알려진 코르크트(Dədə Qorqud)이다. 14세기의 위대한 역사학자인 아이배크 애드 대브다리(Aybək əd Dəvadar)와 라시드 알딘 파들알라 하마다니(Fəzlullah Rəşidəddin)에 따르면,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Məhəmməd Peyğəmbər) 시대에 살았고 투르크인들의 사절단으로 무함마드에게 간 적이 있다. 서사시의 서론에서도 그가 예언자 무함마드와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나온다.

『현자 코르크트의 서』는 산문 도입부와 12개의 이야기(노래)로 이루어져 있다. 몇몇 인물은 서로 연관성을 갖기도 한다. 등장인물은 오우즈의 칸인 바얀두르 칸(Баяндур-хан)과 그의 장군 샬로르-카잔(Салор-Казан)과 전사들이다. 서사시는 공통의 책 제목인 현자 코르크트의 책으로 통합되며 현자 코르크트는 작품의 저자가 된다. 하지만 분석을 해 보면 데데 코르크트는 하나의 인물이 아니라 여러 음유시인 오잔(Ozan)들의 형상을 하나로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의 12개 이야기(노래)는 ‘보이(boy)’라고 한다. 여기서 ‘보이(boy)’란 작품의 사건들을 일컫는 말이지만, 모두 개별적이며 독자적인 하나의 작품으로 봐야 한다. 각 작품의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디르새 칸의 아들인 부가즌의 이야기(Dirsə xan oğlu Buğacın boyu), 2) 샬루르 가잔의 집이 약탈된 이야기(Salur Qazanın evinin yağmalandığı boy), 3) 바으부라의 아들 바므스 베이래크 이야기(Bayburanın oğlu Bamsı Beyrək boyu), 4) 가잔 칸의 아들 우루즈 배이 이야기(Qazan bəyin oğlu Uruz bəyin dustaq olduğu bo), 5) 어르신 두하의 아들 델리 도므룰 이야기(Duxa Qoca oğlu Dəli Domrulun boyu), 6) 어르신 간르의 아들 간투랄르 이야기(Qanlı Qoca oğlu Qanturalı boyu), 7) 어르신 가즐르그 아들인 예으내이의 이야기(Qazılıq Qoca oğlu Yeynəyin boyu), 8) 바삐이 태페괴쥬를 죽이는 이야기(Basat Təpəgözü öldürdüyü boy), 9) 배킬르의 아들 애므란 이야기(Bəkil oğlu Əmranın boyu), 10) 샬루르 가잔이 자신의 아들 우르즈를 구하는 이야기(Salur Qazan dustaq olub oğlu Uruz çıxardığı boy), 11) 내부 오우즈에게 외부 오우즈 간에 갈등으로 베이래크가 사망하는 이야기(İç Oğuz Dış Oğuz asi olub Beyrək öldüyü boy).

서사시의 대부분은 종족에 기반을 둔 캅카스에 살아왔던 오우즈인의 봉건 유목의 삶을 반영

하는데, 오늘날의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도시, 요새, 강, 호수 명칭이 자주 언급된다. 이와 함께 몇몇 일화들은 동화적이거나 신화적, 환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데르세 칸이 오랜 기도와 자선 행위 후에 아들을 낳는다는 내용이다. 코르쿠트는 아들을 ‘부가치(황소)’라 부르는데, ‘지기트(기수)’들은 그를 시샘해서 아버지에게 그를 모함한다. 화가 난 데르세 칸은 부가치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만 산(山)꽃을 곁들인 어머니의 젖이 청년을 구한다.

두 번째는 적이 살로르-카잔의 집을 약탈한 것과 검은 목동의 용맹함에 대해 이야기이다. 침입자들은 살로르-카잔의 영지에 쳐들어 왔고, 칸이 없는 틈을 타 그의 집을 파괴했으며, 그의 아내와 아들 우루즈, 다른 아이들, 그리고 300명의 지기트를 노예로 삼았다. 또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칸의 만여 마리의 양을 가지려 했다. 600명의 기수들이 검은 목동과 그의 목장을 덮쳤으나, 목동은 혼자서 주인의 가축 떼를 지킨다. 여기서 목동의 영웅적인 전투가 자세히 묘사된다.

세 번째 이야기는 바이-부라의 아들 밤시-베이레크의 모험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바이-비드잔의 관리인 바누-치체크의 딸에게 구혼하러 가는 길에 역경을 극복하는 이야기이다.

네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카잔의 아들 우루즈가 포로로 잡히고 어떻게 오우즈 관리들이 피비린내나는 전투 후에 그를 풀어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를 희생해서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이를 찾는 영웅 도므룰에 대한 이야기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 죽으려 하지 않지만, 오직 아내만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섯 번째는 지기트 칸-투랄리가 트라페주스 영주의 아름다운 딸 셸드잔-하툼을 얻기 위한 모험 이야기이다.

일곱 번째 이야기에서는 자기 아버지 카질릭-코드지를 포로에서 구출한 지기트 이에켄카의 업적을 다룬다.

여덟 번째는 사자가 기른 아루즈-코드지의 아들 비사트의 모험 이야기이다. 비사트는 외눈박이 거인 테페피즈를 이기고 오우즈(오구즈)인을 파멸에서 구한다.

아홉 번째 이야기에서는 용감한 칸의 국경수비대장 베킬이 사냥 도중 다리가 부러진 것을 틈타 적들이 배신하려는 것을 베킬의 아들 이므란이 물리친다.

열 번째는 포로인 형제를 구출한 지기트 세크레크에 대한 이야기다. 열한 번째는 살로르-카잔이 포로로 잡힌 것과 그의 아들 우루즈가 그를 구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열두 번째 마지막 장에서는 종족간 암투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루즈 장군이 이끄는 바깥 오우즈인은 안쪽 오우즈인에 저항해 봉기했고, 용감한 베이레크를 죽인다. 카잔-칸은 이 반란을 진압하고 오우즈인들 사이의 암투를 끝낸다.

이 작품은 신화적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11세기에 기록되었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원고들은 16세기에 필사된 원고들이다. 이 서사시를 제일 먼저 연구한 독일의 동양학자 프리드리히 폰 디트신(Fridrix fon Ditsin)에 따르면, 이 서사시에 등장하는 신화적 줄거리들 중 일부, 특히 외눈박이 괴물은 고대 그리스 서사시에 영향을 미쳤다. 또 고대 그리스의 호메로스가 작성한 폴리phem(Polifem) 주인공보다도 시기적으로 더 먼저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 이 작품은 두 가지 판본이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 번째 판본이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첫 번째 판본은 드레스덴 판본이다. 프리드리히 폰 디트신이 이스탄불에서 독일로 가지고 간 원고이다. 그는 이 원고를 드레스덴(Drezden) 도서관에 선물했다. 이 원고에는 서론과 12개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또 다른 원고는 바티칸 판본이다. 20세기 들어 1950년에 바티칸(Vatikan)에서 발견됐다. 이 판본은 서론과 6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드레스덴에 있는 원고를 바탕으로 이후 ‘현자 코르크트의 서 엘라 리사니 타이페이 오구잔(Kitabi-Dədə Qorqud əla lisani taifeyi-oğuzan)’ 책이 집필됐다. 그 뜻은 ‘오우즈 부족들의 언어로 된 현자 코르크트의 작품’이다. 1972년에 드레스덴에 있는 왕립 도서관에서 이 책의 사본을 구매해서 바쿠로 회수했다. 이 사본은 아제르바이잔 과학 아카데미에 보관돼 있다. 세 번째 판본은 이란 투르크멘 사하라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투르크멘 사하라 판본(Türkmen Sahra Nüshası)이라고 불린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필사본 판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분실되었던 13번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현자 코르크트’는 ‘코르크트 아타’ 혹은 ‘데데 코르크트’라고 불린다. ‘데데(Dede)’는 ‘현인 혹은 현자’라는 뜻이다. 10세기 시인이며 실존 인물로 전해진다. 신화적 인물인 코르크트 아타에 관한 전설은 카자흐인, 카라칼팍인 등 킵차크 종족의 후손 및 오우즈(오구즈) 계열인 투르크멘인, 아제르바이잔인, 튀르키예 투르크인들 속에서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이다. 코르크트는 8세기~9세기에 시르다리아 강변에서 출생했고, 출생 직전 일식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코르크

트 이야기는 러시아의 투르크학자 바실리 바르톨드(Vasily Bartold: 1869년~1930년)가 1922년에 러시아어로 완전히 번역했고, 동 저서는 1962년에 출판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1986년에 카자흐어로 번역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코르크우트가 현인이며 시인, 음악가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동시대인의 정신적 리더로서 각인되었다. 이 점에서 코르크우트가 실존 인물인지 전설상의 인물인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그가 태어나고 활동하던 지역이 바로 시르다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카자흐인들은 자신들의 지도자로 간주한다. 실제로 코르크우트의 묘는 타슈켄트에서 카자흐스탄의 카잘린스크로 이르는 경로상에 존재하고 있다. 코르크우트는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연주했기 때문에 음악적 전통이 카자흐인에게 전승되고 있다고 한다. 가사의 배경은 코르크우트 현자가 생각하는 생활의 덕목과 지혜에 관한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운율을 타고 일반 카자흐인들에게 전승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코르크우트는 투르크멘인들에게도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데데 코르크우트의 이야기, 현인 코르크우트 이야기, 키타비 데데 코르크우드
- 다국어 표기 Epic of Dede Korkut(영어), Kitabı Dede Korkut(터키어), Книга о Дедѣ Горгуда(러시아어), Kitabı-Dədə Qorqud(아제르바이잔어) ده قورقوت(아랍어), Қорқыт Ата(카자흐어), Korkut At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현자 코르크우트, 바흐시, 오잔, 아시옥, 밤시 베이렉
- 멀티미디어 링크 코르크우트 - 큐이의 역사
<https://www.youtube.com/watch?v=jFpWSDGxd74>
<https://www.youtube.com/watch?v=9cQwekDPMPo>
- 참고문헌(온라인) <https://e-history.kz/en/news/show/7637/>
- 참고문헌(오프라인) *Kitabi Dədə Qorqud*, Bakı: Qızıl Şərq mətbəəsi, 1988.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6 cildə, I c., Bakı, 2004.
В. В. Бартольда, Книга моего деда Коркута, М-Л. АН СССР, 1962.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Алматы- Т. 3. С. 300, 2004.

I H255 | 형제 살해법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A.D. 1500년 ~ A.D. 18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제도
- 집필자 이영희 ● 라틴 문자 Kardeş Katli

형제 살해법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자 계승 과정에서 통치자가 되는 남성 후계자를 제외한 모든 남성들을 처형하는 전통이 법으로 굳어지게 되면서 만들어진다. 비공식적으로 허용되던 형제 살해 전통은 메흐메드 2세(Mehmed II, 재위: 1444년~1446년, 1451년~1481년) 시기 법령(Kanunname)이 마련되면서 공식적으로 법의 틀 안에서 허용된다.

오스만 제국의 극단적인 통치자 계승 원칙인 형제 살해 전통은 오스만 제국이 성립하던 14세기 아나톨루 공국의 계승 원칙과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당시 아나톨루 공국들은 통치자가 사망할 경우 분할 상속을 진행했다. 예를 들면 장자, 차남에게 영지가 상속되었고, 막내는 공국의 중심지를 상속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상속 방식은 공국을 약화시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계속된 분할 상속으로 영지의 크기가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영지를 두고 내전을 벌이면서 공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오스만 제국은 내부 분열과 세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제 살해라는 극단적인 통치자 계승 원칙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바예지드1세(Yıldırım Bayezid I, 재위: 1389년~1403년)가 포로가 된 이후 벌어지는 10년간의 내전도 오스만 제국의 형제 살해 전통의 원인이 되었다. 바이에지드 1세가 앙카라 전투(1402년 7월 28일)에서 티무르 제국의 티무르에게 패배하면서 포로로 사마르칸트에 압송된다. 당시 정당한 통치자가 없었기 때문에 바이에지드 1세의 4명의 아들(이사 첼레비, 쉴레이만 첼레비, 무사 첼레비, 메흐메드 첼레비)이 1402년~1413년 사이에 통치자 자리를 놓고 내전을 벌인다. 당시 오스만 제국은 술탄이 압송되고 정복지들이 독립하는 등 국가 최대 위기 상태였다. 이후 메흐메드 첼레비가 오스만 제국을 재통합했고, 메흐메드 1세(Mehmed I, 재위: 1413년~1421년)가 오스만 제국을 안정적으로 이끌게 된다. 이러한 장기간의 제국의 내전과 분열은 오스만 제국의 통치자 계승 원칙에 영향을 주었다.

오스만 제국의 형제 살해 전통은 투르크 속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먼저 ‘늑대의 자식은 늑대

다'를 통해서 볼 때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잠재적 경쟁자, 예를 들어 현재에는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먼 미래에 통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남성들을 모두 위험 요소로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내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형제 살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늑대는 분열된 자를 삼킨다'는 제국이 분열되면 언젠가 다른 국가에 멸망한다는 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었고 통치자 계승 원칙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 오스만 제국은 제국의 분열을 선제적으로 막고자 형제 살해의 전통이 유지된 것이다. 암묵적인 형태로 유지되던 형제 살해는 메흐메드 2세 시기 편찬된 법령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법령을 살펴보면 제국의 통일성을 위해서는 계승자가 형제 살해를 할 수 있으며, 모든 울레마(Ulema)들이 이를 인정하고 명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암묵적으로 묵인되었던 오스만 제국의 형제 살해 전통이 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고, 통치자의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게 된다.

최초의 형제 살해는 오스만 가지(Osman Gazi, 재위: 1302년~1324년) 시기에 이루어졌다. 오스만 공국의 기반을 마련한 에르투으를 가지(Ertuğrul Gazi)가 사망하자 삼촌 뉘다르(Dündar)를 처형하고 통치자가 된 것을 시작으로 그의 후계자들은 형제 살해를 통해서 통치자가 되었고 제국을 통치했다. 하지만 아흐메드 1세(Ahmed I, 재위: 1603년~1617년)는 형제 살해 법령을 폐지했고, 왕자들은 카페스(Kafes, 새장)에 유폐되어 생활하게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데슈 카틀리, 카르데쉬 카틸리

● 다국어 표기 Siblicide(영어), Cainism(영어), fratricide(영어), Kardeş Katli(튀르키예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Mehmet Akaman. Osmanlı Devletinde Kardeş Katli. Eren, İstanbul. 1997.

이영희. 「오스만 제국 카라마니 메흐메드 파샤(Karamanî Mehmed Paşa)의 개혁-메흐메드 2세 시기 법률,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전북사학』. 전북사학회, 65호. 2022.

I H256 | 호드긴 톨고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Khudgyn Tolgoi

호드긴 톨고이(Khudgyn Tolgoi) 유적은 아르항가이 아이막 바트첵겔리 솜 바양 올 박 지역에 위치하며 솜 중심지에서 서북쪽으로 약 23km 떨어진 곳에 있다. 유적 남쪽 약 7km 지점에는 타미르강이 흐르고, 유적의 북과 동쪽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남쪽은 완만한 경사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곳에는 306기의 무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분포하면서 몇 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유적은 1981년에 소련과 함께 공동 조사해서 6기를 발굴하고, 1987년에 2기를 조사했으며, 한국과 공동 조사해서 4기를 발굴했다. 87-1호는 지름이 7.5m로 적석이 들어가고, 중심부에는 흙이 채워져 있었다. 적석을 제거하자 돌과 흙으로 채워졌으며 지표 아래 2.8m에서 매장주체부가 드러났다. 판석이 있었고 그 아래에서 목관이 드러났는데, 서북쪽에 도굴갱이 확인되었고, 인골은 심하게 교란되어 있었다. 무덤에서는 재갈, 고리 3점, 원형과 방형 교구, 철촉, 골제 활 부속구,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묘광 동북 모서리에서는 두개골이 없는 양뼈 1개체가 출토되었다. 01-1호는 한국과 공동 조사한 무덤이다. 지표면에 드러난 적석의 직경은 11m인데, 지표 아래에서 0.7m 깊이에서 적석층이 노출되었고, 중앙이 약간 함몰된 상태였다. 깊이 2.7m에서 적석층을 제거하자 토기편, 나무 조각, 동물 뼈 등이 확인되었고, 깊이 2.9m에서 양의 갈비뼈, 말뼈 등이 출토되고, 사슴뿔과 피장자의 하악골, 돌이 확인되었다. 목관의 뚜껑은 이미 없어진 상태이고, 목관의 뚜껑을 두른 돌이 목관 안에 들어간 상태로 하악된다. 목관 위에는 토기가 2점 놓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형토기와심 발형토기이다.

01-1호에서 확인된 목탄과 목관편, 씨앗 등으로 AMS 연대 측정 결과 각각 목탄, 목관, 씨앗의 연대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기원후 1세기 정도에 조성된 무덤으로 생각된다. 01-2호, 01-3호, 01-4호는 각각 AMS 연대 측정 결과 차이가 나타났는데, 기원전 1세기 이전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87-2호에서는 소명경이 확인되었는데, 기원전 1세기 중반~후반 가량에 조성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호드긴 톨고이 유적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1세기 가량에 걸쳐서 유

적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드긴 톨고이
- 다국어 표기 Худгийн толгойн(몽골어), Khudgyn Tolgoi(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역사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호드진 톨고이 흉노무덤』, 2003.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흉노무덤(1)』, 2011.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I H257 | 호라즈미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hwarizmi

호라즈미(Khwarizmi, 780년~850년)는 이슬람의 수학자·천문학자·지리학자이며, 바그다드의 알 마문 도서관·바그다드 천문대 등에서 일하면서 그리스와 인도의 지식을 서로 잘 조화시켰다. 그의 산술책은 인도식으로 숫자 적는 법을 아라비아와 유럽에 전파하는 데 큰 구실을 했다. 또한 대수학에 관해서 그가 지은 책인 적분과 방정식 계산법은 12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되어 중세 유럽의 수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는 바그다드에서 서기 780년 무렵에 태어나 850년에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한 페르시아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서지학자 이븐 알 나딤에 의하면 출생지는 코라스미아(호라즘)이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수학을 배웠으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한다.

그는 바그다드에서 살며 수학자이자 천문학자로서의 명성을 떨쳤다. 칼리프 알 마문에 의해 지어진 지혜의 집에서 연구하며 그곳의 학자로서 그의 동료들과 함께 대수학, 기하학, 천문학에 어우르는 학문 분야를 연구하며 또한 그리스 과학 서적 번역에도 힘썼다. 오늘날 수학 연구에서는 아랍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것은 ‘대수학’이라는 용어일 것

이다. 이것은 그가 쓴 책 『알 자브르 왈 무콴발라(Al jabr w'al muqabalah)』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는 인도-아라비아 수 체계에서 수학적 계산을 할 때 필요한 규칙들을 설명했다. 『이항과 약분(Transposition and reduction)』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 책은 대수학의 기초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2차방정식에 대한 일반화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알 자브르(al-jabr)’는 오늘날의 이항 개념을, ‘알 무콴발라(al-muquabala)’는 동류항의 정리를 뜻한다.

‘알고리즘’도 아랍어에서 유래된 것이다. 이것은 무하마드 이븐 무사 알 호라즈미의 이름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나온 말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이름은 al-Khuwarizmi에서 Alchoarismi, Algorismi, Algorismus, Algorisme로 바뀌었다가 결국에는 알고리즘(Algorithm)이 되었다.

그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 관한 프톨레마이오스의 자료를 체계화하고 고쳤다. 그의 또 다른 유명한 저서인 ‘지구의 표면’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지리학에 기반하여 장소들의 좌표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로 지중해,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그는 아스트롤라베(고대 천문 관측 장치)와 해시계와 같은 기계적인 장치에 대해서도 연구했다. 그는 지구의 둘레를 재는 프로젝트와 70명의 지리학자들을 감독하는 칼리프 알 마문을 위한 지도 제작을 도왔다. 12세기에 그의 업적은 라틴어 번역을 통해 유럽으로 퍼져 나갔고, 이는 유럽 수학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그는 소수점 체계를 기반으로 한 아랍 숫자를 서라틴 지역에 소개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콴리즈미, 화레즈미

● 다국어 표기 محمد بن موسى خوارزمی(페르시아어), Khwarizmi(영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IUUMJyWBo0A>

● 참고문헌(오프라인) Clifford A. Pickover. *The Math Book: From Pythagoras to the 57th Dimension, 250 Milestones in the History of Mathematics*. Sterling Publishing Company, Inc. 2009.

Dodge, Bayard. *The Fihrist of a al-Nadīm: a tenth-century survey of muslim cul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0.

Dunlop, Douglas Morton. “Muḥammad b. Mūsā al-Khwārizmī”.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2 (3-4). 1943.

Maher, P. “From Al-Jabr to Algebra”. *Mathematics in School*, 27(4). 1998.

I H258 | 호라즘 조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국가 ● 유형 소분류2 왕조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Khwarazmian dynasty

호라즘 조(1077년~1231년)는 서투르키스탄의 시르다리아(Syrdarya)강과 아무다리아(Amudarya)강을 위요한 지역과 오늘날의 중동 지방 일부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립된 투르크 이슬람 왕조이다. 호라즘 조는 술탄이었던 무함마드 2세(Muhammad II)의 영도 아래 최극성기를 맞이했다. 그의 재위 시기에 주변 이슬람 국가들이 복속되면서 전(全) 이슬람 세계를 통일하려는 야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이슬람 세계의 정신적 지도자인 바그다드의 칼리프와 정치적 협상을 시도했던 술만 무함마드는 이런 협상에서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곧바로 바그다드 공략에 나섰다. 바그다드 점령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는 이슬람 세계의 반발을 심화시켰다.

1218년에 접어들면서 호라즘 조의 동부 변경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바로 몽골군의 서진이었다. 양국 간에는 몇 차례의 사절이 교환된 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칭기즈 칸은 본격적인 교역을 위한 450명의 사절단을 파견했는데 당시, 몽골 사절단의 구성 인원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인원은 지배층의 각 씨족에서 선출되었고 실질적인 권한을 수행할 수 있었던 구성이었다.

그런데 몽골 사절단이 서투르키스탄의 오토라르(Otrar)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통치관이었던 이날축(Inalchuq)은 이 사절단을 모두 체포하여 구금했다. 당시 오토라르에서 정확히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는지는 관계 사료의 부족으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날축이 그 사절단이 누구를 대표하고 무슨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사절단이 가지고 있던 중요 물품의 획득에만 흥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축은 이들을 간첩죄로 몰아 한 명만을 남겨놓고 모두 잔인한 방법으로 처형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1218년 이전으로 추정되는데, 왜냐하면 바로 1218년에 칭기즈 칸이 호라즘 조의 정벌을 위해 출정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218년을 시작으로 인류사에 가장 잔인했던 몽골군의 서방 정벌이 시작되었다. 칭기즈 칸은 약 200,000명의 몽골 대군을 총지휘하면서 조지, 외게데이, 차가타이 등의 자식들과



호라즘 조의 유적지

함께 호라즘 조에 대한 정벌을 감행했다. 몽골군은 큰 저항을 받지 않고 트란스옥시아나를 횡단해서 그 주변의 유목 부족들을 평정했고 1219년에는 오토라르를 점령했고 크즐 쿨(Kızıl Kum) 사막을 통과해서 부하라를 점령했다. 또한, 1220년에는 호라즘 조의 중요 상업 도시였던 사마르칸트도 점령했다.

항복을 거부한 호라즘 조의 시민들은 기술자와 사제 계층을 제외하고 무참히 학살되었고 호라즘 조의 모든 도시들이 몽골군의 말발굽 아래 유린되었다. 동년말에 칭기즈 칸은 제베와 수부데이 두 장군으로 하여금 퇴각 중이던 호라즘 조의 술탄 무하마드 2세를 추격하게 해서 중국에는 그가 카스피 해상의 아스타라바드(Astarabad)에 위치한 아베스쿰(Abeskun) 섬에서 사망케 했다. 이어 호라즘 조의 수도였던 구르간지(Gurganji)를 공략케 하여 함락시킴으로써 호라즘 조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콰레즘조

● 다국어 표기 Khwarezmian(영어)

● 연관 검색어 아무다리야, 부하라, 사마르칸트, 칭기즈 칸

● 참고문헌(오프라인)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C. E. Bosworth. "Chorasmia ii. In Islamic times" in: Encyclopaedia Iranica (reference to Turkish scholar Kafesoğlu), v. Encyclopædia Britannica, "Khwarezm-Shah-Dynasty".

Rene Grousset.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Transl. Naomi Walford, Rutgers University Press. 1991.

I H259 | 호라즘 투르크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기타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용어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Khorezmian language

호라즘 투르크어는 호라즘 제국에서 사용되던 투르크어이다. 아랄해 남부 시르강 중심에 위치한 지역인 호라즘은 11세기 초 당시 가즈나 왕조에 복속된 주였으며 이곳을 관리하기 위해 임명되어 오는 주지사를 호라즘샤(Khwarezmshah)라고 불렀다. 호라즘샤 하룬의 집권 당시 가즈나 세력 약화와 동시에 호라즘 지역을 노리고 있던 셀주크 조는 즉시 군대를 보내 호라즘 지역의 관할 통치자였던 잔드 말리크 샤를 물리치고, 호라즘을 셀주크 조의 호라산 주로 편입시킨다. 셀주크 조 아래 호라즘의 투르크화가 점차 진행되어 갔으며, 호라즘샤 하룬의 뒤를 이어 오우즈들의 베이딜리 부족의 아누쉬 테킨이 호라즘샤로 임명된다. 이로서 투르크인으로 이루어진 호라즘 조의 통치가 시작된 것이다.

아누쉬 테킨의 아들 쿠트벳딘 무함마드(Kutbeddin Muhammad)는 셀주크 조에 대한 충성을 하며 동시에 호라즘 지역에 대한 확고한 그의 통치권을 확립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는 호라즘은 제국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호라즘 제국은 12세기 카쉬가르의 뒤를 잇는 제2의 문학과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한다. 이들 국가에서 사용하던 호라즘 투르크어는 1077년 가즈나 술탄 마흐무드의 호라즘 정복으로 인하여 투르크화 된 이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언어이다. 이후 오우즈(Oghuz), 킵차크(Kıpçak) 등 기타 이외 투르크 부족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정착했다. 여러 부

족들이 한 곳에 밀집되어 거주하다 보니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혼합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초기 카라한어의 전통을 고수하던 호라즘 투르크어는 킵차크-오우즈-칼루크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들의 방언과 음성 및 구조적 특징들을 수용하고, 점차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적 정체성을 성립하게 된다.

이 새로운 언어는 다양한 방언의 영향으로 어휘의 사용이 자유로웠고, 접미사 등 문법 요소도 풍부해졌다. 호라즘 투르크어는 호라즘 지역뿐만 아니라 알톤 오르두 지역에서도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후 티무르 제국에게 복속된 이후, 차가타이어에게 그 자리를 내어 준다.

호라즘 투르크어로 쓰여진 대표 문학 작품은 크사쉴 엔비야(Kısasül-Enbiyâ), 네첼페라디스(Nehcül Ferâdîs), 무카딧메틸 에데브(Mukaddimetü'l-Edeb), 무합베트 나메(Muhabbet-nâme)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호레즘어, 하레즘어, 호레짐어, 하레짐어, 호레즘투르크어, 하레즘투르크어, 호레즘투르크어, 화레즘 투르크어

● **다국어 표기** Harez̄m Türk̄çesi(튀르키예어), Khorezmian language(영어)

● **연관 검색어** 오우즈(Oghuz), 킵차크(Kıpçak), 티무르, 알톤오르두, 카라한 투르크어, 칼루크, 크사쉴 엔비야(Kısasül-Enbiyâ), 네첼페라디스(Nehcül Ferâdîs), 무카딧메틸 에데브(Mukaddimetü'l-Edeb), 무합베트 나메(Muhabbet-nâme)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Caferoğlu, Ahmet. Türk Dili Tarihi, İstanbul, 1974.

Ercilasun, A. B. Başlangıçtan yirminci yüzyıla Türk dili tarihi (Vol. 603). Akçağ, 2004.

I H260 | 호라즘 더스툰

● 시기 기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장르 ● 유형 소분류2 분파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Xorazm dostonchilik maktabi

호라즘 더스툰(Doston: 서사시)은 우즈베키스탄의 호라즘 지역에서 구연되는 더스툰을 통칭하는 것으로, 호라즘 학파 혹은 호라즘 유파(Xorazm dostonchilik maktabi)로 부른다. 내용과

구성 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지역의 더스툰과 차이를 보인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이 지역만의 독특한 스타일 방언과 밝고 매력적인 멜로디가 특징이다.

호라즘 더스툰에서는 구전과 기록문학 전통이 상호작용을 한다. 즉흥곡보다는 정해진 음악이 리드하고, 나레이터는 암송보다는 원고를 들고 읽는다. 다른 지역의 더스툰 공연에서 연주가 한 명인 반면, 호라즘에서는 3명~5명으로 구성된 바흐쉬(baxsh) 앙상블이 함께 공연한다.

호라즘류 더스툰은 쉬르버니이(Shirvoniy)파와 에러니이(Eroniy)파로 구성된다. 쉬르버니이 방식의 바흐쉬 연주자는 더스툰의 제목을 비밀로 하고 공연하며, 악기로는 두터르(dutor), 불러먼(bulomon) 또는 기작(g'ijjak)을 사용한다.

에러니이(Eroniy)파는 서사시 연주 중에 내레이션이 나올 때 더스툰의 제목을 언급하고, 악기는 두터르(dutor)를 사용한다. 또한 드라마틱하고 우울하며 단순하지만 무게감이 느껴지는 음악과 차분한 연주와 동작들이 쉬르버니이 파의 연주와 구별된다.

호라즘류의 더스툰에서는 주인공의 감정과 내적 경험을 시로 서술하고 설명은 산문으로 서술해야만 한다. 더스툰을 부르기 전, 바흐쉬 앙상블은 페쉬라브(Peshrav), 무함마시 우쉬석(Muhammasi ushshok)과 같은 멜로디를 연주한 후 교훈이 담긴 노래를 연주한다. 더스툰 연주가 마무리되면 '축제에서 돌아오길(To'yingdan qaytsin)'이라는 노래가 연주된다. 호라즘류 더스툰에서는 목청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막히지 않는 탁 트인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도 다른 유파 더스툰과의 차이점이다.

호라즘 학파의 주요 대표 바흐쉬들은 수야브 바흐쉬(Suyav baxshi, 19세기), 주마나자르 바흐쉬(Jumanazar baxshi), 맛나자르 잡보르 오글리(Matnazar Jabbor o'g'li), 별라 바흐쉬(Bola baxshi), 후더이베르간 오타간 오글리(Xudoybergan o'tagan o'g'li), 얼러베르간 바흐쉬(Ollobergan baxshi), 무러드 바흐쉬(Murod baxshi), 별타버이 바흐쉬(Boltaboy baxshi), 주마버이 바흐쉬(Jumaboy baxshi), 코드르 서즈치(Qodir sozchi) 등이 있다.

호라즘 더스툰의 주요 레퍼토리에는 「어척 가립(Oshiq Gharib)」, 「어척 마흐무트(Oshiq Maxmud)」, 「어척 어이든(Oshiq Oydin)」, 「티히르와 주흐라(Tohir va Zuhra)」, 「라일리와 마즈눈(Layli va Majnun)」, 「툴룸비이(Tulumbiy)」를 비롯하여 「고로글리(Go'ro'gli)」 시리즈가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호라즘 학파, 호라즘 유파, 허라즘 학파, 허라즘 유파, 허라즘 다스탄
- 다국어 표기 Xorazm dostonchilik maktabi(우즈베크어), Хорезмская школа дастанов(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더스탄, 다스탄, 데스탄, 바흐쉬, 오잔, 알퍼므쉬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Yusupboyev Mardon, Kurbanova Shonazar o'gli Umida, "Xorazm dostonchilik san'atining o'ziga xos xususiyatlari", *Oriental Art and Culture Scientific-Methodical Journal (SI) II*, 2020, pp.71~75.

I H261 | 호미스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음악 ● 유형 소분류2 악기
- 집필자 김홍중 ● 라틴 문자 Khomys

호미스는 키르키스인들의 코무즈와 같은 기원을 가진 하카스의 민속 현악기이다. 2개~3개의 뜯는 현을 가진 악기로 알타이의 토프슈르(топшур)와 투바의 도쉬풀루르(дошпулур 또는 тошпулур)와 같은 계통이다.

호미스의 몸체와 목 부분, 머리 부분은 하나의 통나무로 만든다. 몸체는 파서 만든 타원형이며, 양가죽이나 사슴 가죽으로 만든 나무로 된 덧 공명판은 몇 개의 둥근 구멍이 나 있다. 진동판은 축축한 것을 당겨 말린다. 목에 지판은 없다. 호미스의 현은 말의 털이나 양의 내장으로 만든다. 현이 두 개인 호미스일 때, 하나는 흰 색으로 다른 하나는 검은 색으로 만든다. 아래의 현은 가락을 위한 것이며, 윗 현은 저음을 위한 것이다. 현이 세 개일 때 윗 현 두 개가 저음을 담당한다. 현의 음계는 5음계이고, 일반적인 악기의 길이는 70cm~80cm이다.

호미스는 보통 땅이나 마루(가죽이나 양털을 깔고)에 앉아 연주한다. 과거에 호미스는 노래나 이야기를 할 때 반주를 넣는 악기였으나 20세기 초중반에는 러시아의 악기 발랄라이카로 대체되어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1970년대 말에 하카스 민속 악기 복원 작업이 진행될 때 호미스가 포함되어 오늘날에는 자주 연주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코미스, 코므스, 호므즈, 호미스

● 다국어 표기 Хомыс(러시아어)

● 멀티미디어 링크 하카스 민속 현악기 호미스의 반주와 시낭송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oOi5bmwbiA>

● 참고문헌(오프라인) Энциклопедия республики Хакасия, Абакан. 255, 2008.

Унгвицкая М. А., Майногашева В. Е. Хакасское народное поэтическое творчество. Абакан. 1972.

Вертков К.А. Атлас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народов СССР, М.: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музыкаль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138.

I H262 | 호스틴 불락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터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hustyn Bulag

호스틴 불락(Khustyn Bulag) 유적은 몽골 투브 아이막 몽근 모리트의 헤르렌강 지류인 바이달락 하천 유역에 있다. 토기와 기와를 생산하는 가마터와 철을 제련하던 노가 발견되어서 흉노 시대의 대표적인 생산 유적으로 알려졌다. 가마터는 구릉 사면에서 발견되었는데, 1999년에는 한국-몽골 공동 조사단이 흉노 시대의 토기 및 가마터를 발굴 조사해서 다량의 토기편과 기와편, 토기 받침대 등이 나왔다.

유적은 처음에는 토기를 굽다가 나중에 가마의 입구를 고쳐서 기와를 구웠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가마터에서 나온 목탄으로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유적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에 존재했던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유적에서 제작된 기와 및 문양전은 고아 도브(남서쪽으로 70km 떨어진), 테렐진 두르불진(동북쪽으로 50km), 후레트 도브 유적 출토품과 유사해서 이 유적에서 구운 가마에서 주변 토성과 계절 궁전지에 기와와 문양전을 공급했을 수 있다. 이들 유적은 헤르렌강을 따라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에서는 가마터에서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곳에 제철터가 확인되었다. 강의 단구 위에 초원에서 산지로 변화되는 계곡 입구에서 확인되었다. 9개의 제철로가 발견되었는데, 화덕 자

리의 형태에 따라서 3개로 구분되며, 탄소 연대 측정 결과 기원전 2세기~기원후 1세기까지 나왔다. 호스틴 불락 유적에서 나온 제철 유적은 러시아에서도 발견된바 있는데, 이들 유적의 제철로는 중국 한나라의 것과는 전혀 구조적으로 달라서 흉노에서 철을 대량으로 생산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스틴 불라그
- 다국어 표기 Khustyn Bulag(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G. 에렉젠·양시은, 『흉노』,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2017.

I H263 I 호자

- 시기 기타 ● 지역 기타 ● 나라 기타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호칭
- 집필자 최선아, 우덕찬 ● 라틴 문자 Hoca

페르시아어로 콰자(خواجه), 투르크 언어에서는 호자/코자(Hocam xoja, Кожа,خوجا)로 발음하는 이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사만 조 시대의 페르시아어의 ‘가주’, ‘셰이크’, ‘왕’ 등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 페르시아어 단어에서 기원했다는 설과 투르크어의 ‘위대한’, ‘커다란’이라는 의미로 나이가 들거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에게 사용하던 코자(koca)에서 변형되었다는 설도 있다. 투르크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름 앞에 이 경칭을 붙였으나, 현대 튀르키예어의 경우 고유 명사 뒤에 붙는다.

이 호칭은 다른 단어와 결합되는 형태로, 사만 조 이래로 호라산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직급의 관직, 도시의 유력 인사 등에게 사용되었으며, 가즈나 조에서는 이 호칭은 공식적인 직함으로서 높은 직급의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 사용되었다. 가즈나 조의 직위 체계의 영향을 받은 셀주크 조에서도 유사하게 사용되었으며, 호라즘샤에서도 고위 관료들과 재상에게 사용되었다.

일 칸국, 티무르, 흑양조, 백양조 등에서 꾸준히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사파비 조에서는 옛날만큼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나 환관을 지칭하기도 했다. 아나톨리아 셀주크 조에서는 도시 관료들과 상인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12세기에는 교육받은 계층, 재판관, 도시의 영주를 비롯하여 이맘에게 이 호칭이 주어졌다.

수피즘 교단이나 종단에서는 교단/종단의 설립자, 종단의 높은 사람들, 셰이크에게 호자라는 경칭을 붙여 주었다. 종단의 계보(silsile)에 자리한 인물에게도 붙였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아흐마드 야사위(Ahmad Yasawi, 1093년~1166년), 낙쉬반디 교단의 종교인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었고, 투르키스탄 지역에서는 예언자 무함마드와 4대 칼리프의 후손들과 이슬람을 교육하고 전파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오스만 조에서는 기초 학교(sıbyan mektebi) 교사와 마드라사 율레마들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기에 현대 튀르키예어도 그 영향으로 종교계의 종교 학자, 이맘, 하딕뿐만 아니라 비종교적인 일반 학교 중등학교 교사와 대학교 강사에게도 사용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호싸, 호좌, 과자
- 다국어 표기 Қожа(카자흐어), خوجا(위구르어), xoja(우즈베크어), hoca(튀르키예어), Xoca(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DiA. “HOCA”,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8. İstanbul: TDV. 1998. pp.186~187.

I H264 | 호자 데하니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Hoca Dehhani

호라산 출신의 시인이자 학자였던 호자 데하니는 13세기 혹은 14세기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사실상 그의 삶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그의 시를 제외하면 현재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푸아트 쿠피프릴뤼의 연구에 의하면 그는 호라산에서 코니아로 이주하여 정착했으며, 이 정보도 그의 시의 한 구절을 통해 얻은 것이다.

호자 데하니는 13세기 살았던 하지 벡타슈 벨리(1209년~1271년)의 문집에서 다른 유명 투르크 시인들과 함께 언급된 바 있으며, 또한 그의 시는 14세기 초 췌이흐오을루 무스타파(Şeyhoğlu Mustafa)가 작성한 ‘Kenzü’l-Küberâ’라는 시인의 메모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메모가 14세기 초에 작성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그의 생몰 연대는 13세기에서 14세기로 추정할 수 있다.

푸아트 쿠프릴뤼에 의하면 호자 데하니는 셀주크 제국 술탄 3세 알라딘 케이쿠바드(Alaeddin Keykubad, 1283년~1302년) 재위 당시 호라산에서 아나톨리아반도로 이주해 셀축국의 궁전에 정착하면서 알라딘 케이쿠바드의 요청에 따라 페르시아어 20,000구절로 이루어진 『셀주크 샨아메』를 저술했다. 안타깝게도 호자 데하니가 알라딘 케이쿠바드에게 헌정한 이 작품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호자 데하니는 현재 알려진 최초의 디반 시인(궁정 시인)이다. 13세기~14세기 초 당시 투르크 문학이 종교적이고 신비로운 주제에 초점을 맞춘 신비주의 위주의 문학이었다면, 호자 데하니는 그러한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당시 시대의 사회 생활과 환경, 삶에 대한 이해, 도덕, 신념 및 아름다움 등 비종교적인 주제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호자 데호니
- 다국어 표기 Hoca Dehhani(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푸아트 쿠프릴뤼, 코니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hoca-dehhani>
- 참고문헌(오프라인) Akar, A. Türk dili tarihi. İstanbul: Ötüken Yayınları, 2005.

I H265 | 호자 무함마드 버버이 사머시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Xoja Muhammad Boboyi Samosiy

호자 무함마드 버버이 사머시이는 콰자간(Khwājagān, 우즈베크어:Khojagon)-낙쉬반드 타리카의 14번째 셰이크이며, 부하라의 일곱 명의 피르(pir) 중 다섯 번째이다. 생몰은 정확하지 않으나, 일부 출처에 따르면 1259년에 로마탄(Romitan)의 사머스(Samos)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1354년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부친인 사이드 압둘러흐(Sayyid Abdulloh)는 부하라의 종교인으로 유덕하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가정에서 엄격하게 교육받았던 사머시이는 마을에서 기초적인 종교 교육을 받았다. 부친은 사머시이를 호자 마흐무트 안지르 파그나비이(Mahmud Anjir Fag'naviy)에게 데려가, 당대 최고의 셰이크에게 아들을 맡긴다. 파그나비이는 처음에는 사머시이를 직접 돌보았고, 그 후 제자인 호자 알리 러미타니이(Xoja Ali Romitaniy, 13세기 중반~1316년 또는 1321년)에게 그의 교육을 맡긴다. 러미타니이의 제자가 된 사머시이는 그에게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평생 그를 섬겼다. 러미타니이가 호라즘으로 이주했을 때도 그의 곁을 지켰다.

사머시이는 재능 있는 제자들(murid)을 찾을 때 스승의 방식을 따라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관찰하여 헌신적이고 재능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를 제자로 받아 주고 가르쳤다. 사머시이가 아미르 쿨랄(Amir Kulol, 1278년~1370년)과 바허웃딘 낙쉬반트(Bahouddin Naqshband, 1318년~1389년 낙쉬반디 종단의 창립자)를 발견하고 그들을 가르친 것은 그의 큰 업적 중 하나이다. 일설에 의하면, 사머시이가 제자와 함께 부하라 인근의 힌두번 성(Qasri Hinduvon)을 지나갈 때 위대한 인물의 탄생을 예언했는데, 그가 바허웃딘이었다. 태어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바허웃딘을 영적 아들로 받아들이고, 쿨랄에게 그의 교육을 맡겼다. 기록에 의하면, 사머시이는 그의 모자를 바허웃딘에게 선물했는데 바허웃딘은 이를 통해 재앙을 벗어나는 이적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사머시이는 이들 외에도 많은 제자를 양성했는데, 그중 호자 무함마드 소피이 수허리(Xoja Muhammad So'fiy Suxoriy), 호자 마흐무트 사머시이(Xoja Mahmud Samosiy, 사머시이의

아들), 호자 마블러너 알리 더니쉬만드(Xoja Mavlono Ali Donishmand) 등이 뛰어난 이들로 알려져 있다.

평생을 수피즘 수도승이자 농민으로 살았던 사머시이는 1354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무덤은 사머시이에 남아 있다. 사머시이 이후 그의 제자 사이드 아미르 쿨랄이 그의 계보(silsila)를 이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호자 무함마드 보보이 사모시
- **다국어 표기** Xoja Muhammad Boboyi Samosiy(우즈베크어), Muhammed Baba Semmâsî(튀르키예어), Məhəmməd Baba Səmmasi(아제르바이잔어), Мухаммед Баба Самаси(카자흐어), Baba Mohammad Sammasi(영어), Ходжа Мухаммад Бобо Самосий(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낙쉬반디, 호자 마흐무트 안지르 파그나비이, 아미르 쿨랄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aqshband.uz>
- **참고문헌(오프라인)** Buxoriy, S. S. *Bahouddin Naqshband yoki Yetti pir*, Yozuvchi. 1993.
Buxoriy, S. S. “Xoja Muhammad Boboyi Samosiy”, *Yetti pir*; Ma’naviyat sarchashmasi, 2021.
Husniddinov, Z. *Islom ensiklopediyasi*,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Davlat ilmiy nashriyoti. 2004.

I H266 | 호자 무함마드 어리프 아르 레브가리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Xoja Muhammad Orif ar-Revgarıy

호자 무함마드 어리프 아르 레브가리(Xhoja Muhammad Orif ar-Revgarı, 12세기 중반 ~13세기)의 생몰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레브가르(Revgar)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레브가리는 또한 머히토본(Mohitobon-어둠을 비추는 달)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콰자간 타리카(Khwājagān, 우즈베크어: Khojagon)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으로 부하라 일곱 피르(Pir) 중 두 번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낙쉬반디의 계보(Silsila)에서 열한 번

째 피르이다. 또한 레브가리는 호자 압둘헐릭 기즈두버니이(Abdulxoliq Gijduvoni, 1103년 ~1179년)의 네 번째 제자로 그에게서 수피즘을 배웠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기즈두버니이를 섬겼다고 한다. 레브가리는 20살 때쯤 부하로로 가 마드라사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레브가리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영적 여행(Seyr-u Suluk)을 하게 된다. '필요시에만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시에만 자고, 필요시에만 말을 해야 하는' 형식의 고행을 통해 숨겨진 세계의 비밀을 찾고자 했다. 스승인 기즈두버니이와 함께 고행하던 레브가리는 짧은 시간 안에 스승이 세웠던 원칙을 완전히 숙달한 가장 충성스럽고 발전한 제자가 된다.

기즈두버니이의 사망 이후 레브가리는 과자간 타리카를 관리하게 된다. 또한, 스승과 마찬가지로 부하라와 가즈두완을 비롯하여 모든 투르크-타지크 땅에 지식과 꾸란, 순나를 기반으로 한 신비로운 가르침을 전파하려고 노력한다.

이로 인해 그는 '성도들의 수호자(Qutbul avliyo(Valiyar yo'lboshchisi))'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고, '투르크인 셰이크의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레브가리도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은 호자 마흐무트 안지르 파그나비이(Mahmud Anjir Fag'naviy)이다. 레브가리는 자신이 고행 중과 사망 전에 파그나비이가 대신하여 제자를 가르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레브가리는 100년 이상 살아 1234년경(또는 일부 기록에서는 1259년, 1262년) 레브가르 마을에서 사망했고, 그의 무덤도 레브가르에 있다. 현재 그의 무덤은 성지로 많은 사람이 방문한다. 기록에 의하면 레브가르의 후손은 아직도 이어져 있으며, 그의 후손 중에 우즈베키스탄 유명 작가 어먼 무흐터르(Omon Muxtor, 1941년~2013년)이 있다.

레브가리가 남긴 책으로는 『깨달음을 얻은 자의 책(Ārif Nāma)』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깨달음을 위한 영적 여행(Seyr-u Suluk)의 단계와 예의, 계몽, 지혜와 수호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그의 스승인 압둘헐릭 기즈두버니이의 삶과 기적과 견해에 대해 일부 언급하고 있다. 또한, 수피즘 초기의 유명한 수피 수도승과 학자들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호자 무함마드 오리프 아르 레브가리

● 다국어 표기 Hoja Muhammad Orif ar-Revgarīy(우즈베크어), Қожа Ариф Ревғари(카자흐어), Ārif-i Rīvgerī(튀르키예어), Ходжа Ариф Ревғари(러시아어), Arif Riwgari(영어)

- 연관 검색어 호자 압둘헐릭, 기즈두버니이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6K3dr30uHls>
- 참고문헌(온라인) <http://naqshband.uz>
- 참고문헌(오프라인) Buxoriy, S.S. *Xoja Orif ar- Revgariy*, Buxoro. 2007.
Husniddinov, Z. *Islom ensiklopediyasi,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Davlat ilmiy nashriyoti*, 2004.
Rahimov, K. "Xoja Muhammad Orif Revgariy", *Moziydan sado* №.3. Silver Star Print MChJ, 2019.
Sayfulloh, S. *Yetti pir: Dunyo murshidlari*, Toshkent: O'zbekiston. 2019.

I H267 | 호자 압둘헐릭 기즈두버니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Xoja Abdulkoliq Gijduvoni

호자 압둘헐릭 이븐 압둘자밀 기즈두버니이(Khoja Abdulkoliq ibn Abduljamil Gijduvoni, 1103년~1179년)은 낙쉬반디 종단의 창시자 중 하나이다. 부하라의 일곱 피르(Pir) 중 첫 번째이고, 낙쉬반디 계보(silsila)에서는 10번째 피르이다.

기즈두버니이는 부하라 인근의 기즈두반이라는 마을에서 이맘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도 이맘이자 이맘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룸, 즉 아나톨리아반도의 왕조 후손이라고 전해진다. 기즈두버니이는 전통적인 이슬람 교육 환경에서 성장했다. 9세에 코란을 암기하고, 10세 때부터 데르비쉬의 지크르(dhikr)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부하라 출신의 이맘 사드릿딘(Imam Sadridin)이 그의 첫 번째 스승이었으며, 그에게 꾸란의 해석과 주석을 가르쳤다. 또한, 호자 유수프 알 하마더니이(Khoja Yusuf al Hamadoni)의 제자이자 대화 상대가 된다. 당시 하마더니이는 부하라의 유명 신비주의자였고, 지크르 수행을 지지했다. 기즈두버니이는 스승과 함께 바그다드, 이스파한, 발흐, 메르브, 사마르칸트를 여행했고, 부하라에 정착하여 하마더니이의 직전 제자가 된다. 당시 기즈두버니이는 22살이었다. 하마더니이의 또다른 제자로

는 호자 아흐멧 야사위(Khoja Ahmad Yassaviy, 1093년~1166년)가 있다.

기즈두버니이는 콰자간(Khwājagān, 우즈베크어:Khojagon) 타리카트의 8개의 기초 교리를 정립한다. 스승인 하마더니이에게서 배운 네 가지 가르침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후 네 가지를 추가한 것이다. 이 원칙은 다음과 같다. 혀와 마음으로 알라를 기억하는 것(Yad Kard), 설 때마다 주의하며 신을 잊지 않는 것(Hosh dar dam), 걷는 동안 어떤 나쁜 것도 보지 않고 발을 보는 것(Nazar bar qadam), 외면이나 내면이나 항상 진리와 함께 하기 위해 대중 속에서 은둔하는 것(Khalwat dar anjuman), 지크르 때 “오 알라여! 내 목적은 당신이며, 내 목표는 당신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을 말하는 것(Baz Gasht), 알라가 유일신임을 고백할 때 머릿속의 필요 없는 생각을 내던지는 것(Nigah Dasht), 항상 알라의 종이 되는 것(Yad Dasht)이다.

훗날 낙쉬반디에서는 이 8개 원칙에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Wuquf-e zamani), 지크르가 필요한 횟수만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Wuquf-e adadi), 알라의 이름이 새겨진 심상을 형성하여, 그 외에는 의식이나 목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Wuquf-e qalbi)을 추가하여 모두 11개의 원칙을 세우게 된다. 즉, 기즈두버니이가 낙쉬반디의 기초를 세우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이다. 훗날 콰자간은 낙쉬반디에 통합되는데, 기즈두버니이를 낙쉬반디의 창립자 중 하나로 본다.

기즈두버니이는 여러 제자를 양성했다. 그의 첫 칼리프(제자)는 호자 아흐마트 싯딕크(Khoja Ahmad Siddiq), 두 번째 제자 호자 아블리여 카비르(Khoja Avliyo Kabir), 세 번째 제자는 당대 현자 중 한 명인 호자 술라이먼 카르미니이(Khoja Sulaymon Karminiy), 네 번째 제자는 호자 어리프 아르 레브가리이(Khoja Orif ar-Revgariy)이다. 특히 호자 어리프 아르 레브가리이는 피르이며, 그의 무덤은 많은 순례객이 방문하는 성지가 되기도 했다.

기즈두버니이는 1179년 또는 1220년에 기즈두완에서 사망했고, 무덤도 기즈두완에 있으며 성지로 간주된다. 2003년에 기즈두버니이의 90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그의 기념 단지는 개조 및 보수를 하게 되었다.

기즈주와니의 저서 중 『우정에 관한 소책자(Risala-i Sahibiya)』에서는 하마더니이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의 삶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가르침의 도덕 원칙(Vasiyatname)』에서는 그와 낙쉬반디가 제시한 11가지의 원칙이 담겨 있다. 그 외 『압뿔헐릭 기즈두버니이의 말의 예들(Az guftari Khoja Abdulkhaliq Ghijduvani)』 비롯한 그의 작품 필사본은 우즈베키스탄 공화

국 과학 아카데미 아부 라이헌 베루니 동양학 연구소(O'zbekiston Fanlar akademiyasi Abu Rayhon Beruniy nomidagi Sharqshunoslik instituti)와 다양한 도서관과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압둘할리크 기즈두와니

● 다국어 표기 Xoja Abdulxoliq Gijduvoni(우즈베크어), Əbdülxaliq Qicdūvani(아제르바이잔어), Abdülhâlik Gucdüvani(튀르키예어), Abdyhalyk Gižduwany(투르크멘어), Abdul Khaliq Ghijduwani(영어), Абдул-Халик Гидждувани(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uxoriy, S.S. *Xoja Orif ar-Revgarıy*, Buxoro. 2007.

Hasaniy, M. *Xoja Abdulxoliq G'ijduvoni*. Toshkent: O'zbekiston. 2003.

Husniddinov, Z. *Islom ensiklopediyasi*,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Davlat ilmiy nashriyoti, 2004.

Sayfulloh, S. *Yetti pir: Dunyo murshidlari*, Toshkent: O'zbekiston. 2019.

Usmonov, O. *G'ijduvoniy ta'limoti*, FAN, 2003.

I H268 | 호자 아흐멧 야사위 영묘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건축
- 유형 소분류2 영묘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hwaja Ahmad Yasavi Mausoleum

야사위야파 수피의 창시자였던 호자 아흐멧 야사위(Ahmad Yasawī, 1093년~1166년)의 영묘는 카자흐스탄 남주 투르케스탄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영묘는 티무르(Timur, 재위: 1370년~1405년) 재위 기간 중 1389년~1405년에 걸쳐 거의 16년 동안 건설되었다. 그러나 일부분 미완성인 상태로 남게 되었다.

수피의 시인이자 학자인 야사비는 투르크어를 사용하던 카자흐인들을 이슬람으로 개종하게 한 것으로 유명하다. 티무르의 명령으로 건설된 이 영묘는 원래 이 자리에 있던 12세기의 건축물을 허물고 건설하게 된다. 영묘는 전체적으로 모스크를 포함한 복합단지 형식으로 건설되었다. 영묘의 대문은 사이반 왕조의 압둘라 칸(Abdullah Khan, 재위: 1583년~1598년)에 의해 완



호자 아르멧 야사위 영묘
Source: <https://whc.unesco.org/uploads/thumbs/>

성되었다. 19세기 초, 코칸드의 쿠다야르 칸(Khudayar Khan, 재위: 1845년~1875년)은 영묘 주변에 벽을 쌓아 영묘를 요새로 이용한다. 1864년 러시아 군대의 폭격으로 이 벽 일부가 손상되었다. 1907년 이후 지속적으로 복원이 되었고, 1992년~2000년에 튀르키예 정부의 지원으로 복원이 완료되었다. 2003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영묘는 48mx63m 크기의 직사각형으로 8개의 큰 방과 27개의 작은 방 및 12개의 통로로 구성되어 있다. 남쪽에 18m 높이의 대문이 있으며 양옆에는 미너렛이 존재한다. 이 입구를 통해 카잔득(kazandyk)이라고 하는 홀로 들어갈 수 있다. 카잔득의 돔은 37.5m이다. 돔 외부는 밝은 파란색 타일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덮여 있으며, 정사각형과 팔각형의 드럼으로 지지되고 있다. 돔 가운데에는 용머리 장식의 칸달이 있었으며 이는 현재 에르미타주 박물관에서 보관 중이다. 본 홀의 북동쪽과 남서쪽에는 두 개의 방이 있다.

건물 북서쪽 모서리에는 기도소가 있으며 서쪽에는 도서관, 남동쪽과 동쪽에는 악사라이(aq

saray)라고 하는 왕과 셰이크를 위한 장소가 있다. 남쪽 모서리에는 직사각형의 2층짜리 부엌(khalim khana)이 세 개 있다. 동쪽 모퉁이에는 우물이 있는 이 층짜리 방(kuduk khana)이 있다.

영묘는 건물의 북쪽에 자리해 있다. 아흐마드 야세비의 관 영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옥석으로 되어 있다. 영묘는 돔으로 덮여 있으며 녹색과 황금색으로 장식되어 있다. 돔의 드럼은 육각형의 녹색 유약을 바른 타일로 되어 있으며 금색의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다.

영묘의 남서쪽에는 아치형 벽감이 있는 직사각형 형태의 작은 모스크가 있다. 이 모스크도 아치로 지지된 돔으로 덮여 있다. 모스크에는 타일이 모자이크 기법으로 장식된 미흐랍이 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외부 장식에 치중되어 있으며 실내 장식은 회반죽의 무카르나스, 돔 표면의 장식과 흙의 펜던티브 정도가 다이다.

건물의 전면은 대부분 타일로 덮여 있으며, 벽돌 위에 커다란 쿠픽 서체로 ‘알라’와 ‘무함마드’와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으며, 건물의 윗부분에는 코란 구절이 적혀 있다. 섬세하게 장식된 문은 목재이며 특히 도금한 청동 손잡이는 그 장식성을 자랑한다.

이 영묘는 투르크인에게 수피즘을 가르쳐 준 아흐마드 야세비의 영묘로 그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티무르 건축 양식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건축물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호자 아흐마드 야세비 케세네시

● 다국어 표기 Қожа Ахмет Яссауи кесенесі(카자흐어), Qoja Ahmet Iassayı kesenesi(카자흐어), Ahmed Yesevî türbesi(튀르키예어)

● 멀티미디어 링크 호자 아흐메드 영묘 전경

https://whc.unesco.org/uploads/thumbs/site_1103_0003-500-375-20130916122809.jpg

● 참고문헌(온라인) <http://archnet.org/sites/3057>

<https://whc.unesco.org/en/list/1103/>

● 참고문헌(오프라인) Hillenbrand, Robert. *Islamic Architecture: Form, Function and Meaning*.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1994.

Esin, Emel. “AHMEDYESEVÎ KÜLLİYESİ”. *TDV İslâm Ansiklopedisi* 2.cilt, Istanbul: TDV. 1989. pp.162~163.

I H269 | 호자 알리 러미타니이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이슬람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Xoja Ali Romitaniy

호자 알리 러미타니이(Xoja Ali Romitaniy)는 1186년~1191년 사이에 부하라 러미턴(Romiton) 지역의 쿠르건(Kurgon)에서 태어났다. 낙쉬반디 타리카트의 열네 번째 셰이크며 부하라의 일곱 피르(pir)들 중에 네 번째 피르이다. 스승은 마흐무트 안지르 파그나비이(Mahmud Anjir Fag'naviy)이며, 그를 헌신적으로 섬겼다.

알리 러미타니이는 청빈의 길을 걸으며 직조 일에 종사했다. 러미타니이는 훗날 대중과 수피에게 “존경받는 스승(Xojai Azizon, 허자이 아지전)”으로 불리기도 했다.

러미타니이는 스승을 따라 소리내 기도하는 수행법(jahriy zikr) 방식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 러미타니이의 명망이 이란의 먼 지역에도 퍼지게 되며, 호라산 지역의 수피 타리카트인 루크니야(Rukniyya)의 창시자 루크 알 딘 시마니(Rukn al-Din Simnani)와 편지로 교류하게 된다.

러미타니이는 버바르드(Bovard)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도 제자를 양성했고, 다시 호라즘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러미타니이는 이주 전 호라즘의 통치자로부터 서면으로 거주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호라즘에서 일용직 시장에서 노동자 한두 명을 데려와 일당을 주고 그들에게 신비주의를 가르쳐 주었다. 러미타니이의 수업을 들은 노동자들은 다시 그를 찾았고, 이렇게 그의 제자는 빠르게 늘어났다. 호라즘의 유력 인사들이 러미타니이의 인기에 불안해하고, 그를 추방하려 하나, 이주 서면 허가를 보여주게 되었다. 유력 인사들은 결국 러미타니이가 그곳에서 계속 살게 해 주었다고 한다.

러미타니이는 계속 제자를 키웠으며, 제자들은 호라즘, 부하라 및 발흐 지역에서 콰자간(Khwājagān, 우즈베크어: Khojagon) 타리카트를 전파시켰다. 러미타니이는 콰자간-낙쉬반디의 셰이크 권한을 호자 무함마드 버베이 사머시이(Xoja Muhammad Boboyi Samosiy, 1259년~1354년)에게 넘겼다.

러미타니이는 약 130년을 살아 1313년~1321년 사이에 사망했다. 그의 무덤은 호라즘 지역에 있다는 설과 그의 고향인 부하라 러미탄에 있다는 설이 있다. 러미탄에는 그를 기념하기 위한 모스크가 있으며 이는 지역민이 힘을 합쳐 건설한 것이다.

러미타니이는 생전 페르시아어로 지혜가 담긴 시를 썼으며 『신을 아는 자들의 사랑하는 사람 (Mahbub ul-arifn)』이라는 작품을 남겼다. 이 작품에서는 시인의 시와 제자들에게 권장하는 10가지 기본 규칙이 담겨있다.

이외에도 그의 아들 호자 이브라힘(Khoja Ibrahim)이 러미타니이의 일부 사상과 견해를 몇 페이지짜리의 짧은 책으로 만들기도 했다. 15세기에 무함마드 호레즈미 아르잔기(Muhammad Khorezmi Arzangi)는 이 책에 대한 논평을 쓰면서, 『아지전의 짧은 논문의 논평(Sharhi Risolai Azizon/Manoqibi Khoja Ali Azizoni Romitani)』이라는 작품으로 따로 정리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호자 알리 로미타니

● **다국어 표기** Hoja Ali Romitaniy(우즈베크어), Ali Râmiteni(튀르키예어), Hacı Əli Ramitini(아제르바이잔어), Али ‘Азизан Рамитани(카자흐어), Хаджа Али Рамитани(러시아어), Ali Ramitani(영어)

● **연관 검색어** 낙쉬반디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6K3dr30uHls>

● **참고문헌(온라인)** <https://naqshband.uz>

● **참고문헌(오프라인)** Buxoriy, S. S. *Bahouddin Naqshband yoki Yetti pir*, Yozuvchi. 1993.

Husniddinov, Z. *Islom ensiklopediyasi*,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Davlat ilmiy nashriyoti. 2004.

Navro‘zova, G. *Hazrat Xoja Ali Romitaniy*. Buxoro, 1994.

Sayfullloh, S. *Yetti pir: Dunyo murshidlari*, Toshkent: O‘zbekiston. 2019.

I H270 | 호자 알리 르자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회화 ● 유형 소분류2 인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Hoca Ali Rıza

알리 르자는 1858년 오스만 제국 위스퀴다르(Üsküdar) 아흐메디예(Ahmediye) 마을에서 소령 메흐메드 뤼쉬뤼 베이(Mehmed Rüşdü Bey)의 아들로 태어났다. 초급 및 중급 학교를 위스퀴다르에서 졸업하고 1879년 쿨레리 군사학교(Kuleli Askerî İdâdîsi)에 입학한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에 관심이 많았던 알리 르자는 군사학교에서 알게 된 다섯 명의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서 회화 수업을 열 수 있도록 요청한다. 화가 오스만 누리 파샤(Osman Nûri Paşa, 1839년~1906년)를 사사하여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의 술탄이었던 압뮐하미드 2세(II. Abdülhamid, 재위: 1876년~1909년)가 알리 르자가 학교 수업을 바탕으로 그렸던 그림을 칭찬하며 상을 내리기도 했다. 누리 파샤 이후 프랑스 화가인 알렉상드르 카바넬(Alexandre Cobonel, 1823년~1889년)의 제자였던 쉴레이만 세이드 베이(Süleyman Seyyid Bey, 1842년~1913년)로부터 수업을 듣게 된다.

1883년 군사학교에서 중위 계급을 받았으며 같은 학교에서 누리 파샤의 회화 수업의 보조로 일하게 된다. 또한 다뤼쉬사파카(Dârüşşafaka: 1863년 세워진 무료 기숙학교)에서 회화 수업을 했으며, 군사 출판사(Harbiye Matbaası)에서 책임 화가가 된다.

군사학교에서 회화 수업에 사용할 용도로 소묘 화집을 출간했다. 석판 인쇄된 이 책은 중등 교육 과정에 회화 수업이 퍼지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또한 1902년에는 민간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집을 출간한다.

알리 르자 베이는 오스만 화가 협회(Osmanlı Ressamlar Cemiyeti)의 회장을 역임하게 되고 월간인 오스만 화가 협회 신문을 출간하며 문화 관련 잡지를 출판하는 일을 선도하게 된다. 1911년 중령 계급까지 승진했던 알리 르자 베이는 자의로 전역하고 여자 미술학교(İnâs Sanâyi-i Nefise Mektebi)와 참르자 여자 고등학교(Çamlıca Kız Lisesi)에서 미술 교사로 일하게 된다. 교사 시절 끊임없는 인내와 인자함으로 인해 선생(hoca)라는 별칭을 얻게 되기도 한다. 전역 후 교사로 일한 이 20년간이 작품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다.



풍경(manzara), 호자 알리 르자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알리 르자 베이는 풍경화를 주로 하는 사실주의 화가였으나 때때로 상상화를 그렸고 그 경우 작품의 서명 옆에 '상상으로'라고 반드시 표기했다. 그러나 이 상상화조차도 마치 실제의 자연을 관찰하고 그린 것과 같은 느낌을 준다. 알리 르자의 작품은 색상과 문양에 있어 민족적이고 지역적 특성을 바로 느끼게끔 한다. 그의 사실주의 풍경화를 통해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오스만 식의 건물과 가옥 건축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군인 시절 보았던 투르크-이슬람 건축물도 종이에 옮겨진다. 알리 르자는 튀르키예 회화사에 있어 소묘뿐만 아니라 유화와 수채화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또한 회화적 기술과 풍경 표현에 있어 다른 화가들의 모범이 되었다.

알리 르자는 1930년 3월 20일 위스퀴다르에서 사망했다. 그의 작품은 앙카라 국립 도서관(Ankara Millî Kütüphanesi)과 실레이마니예 도서관(Süleymaniye Kütüphanesi) 등에서 소장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르 르자 베이, 알리 리자, 코자 알리 르자, 코자 알리 리자
- 다국어 표기 Ali Rıza Bey(튀르키예어), Ali Rıza bey(영어)
- 연관 검색어 누리 파사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a/a0/Hoca_ali_r%C4%B1za_manzara_1898.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Başkan, Seyfi. *Başlangıcından Cumhuriyet dönemine kadar Türklerde Resim*. Ankara : Atatürk Kültür Merkezi. 2009.

I H271 | 호탄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지명
- 유형 소분류2 도시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Hotan

호탄은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대표적인 오아시스 도시로서 타림 분지 남부의 서역 남도(西域南道, 실크 로드의 하나) 최대의 오아시스 도시이다. 중국 최고의 옥(玉) 생산지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호탄어의 고대 문서에는 Khotana, Hvatāna 등으로 표기되었다. 산스크리트에서는 최초의 왕에 관한 전설에 근거하여 쿠스타나(Kustana, ‘땅의 젖’이라는 뜻. 당나라 현장의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는 구살단나[瞿薩旦那]로 표기)로 불렸다. 본래는 티베트어로 ‘옥이 나는 곳’이라는 뜻의 ‘우기’였으나, 명나라 때 호탄(‘양 우리’란 뜻)으로 불리다가 청나라 초에 ‘우기(혹은 화기(和闐))’로 이름이 바뀌었다. 1959년 다시 지금의 ‘허텐’으로 개명하고 1983년에 시(市)로 승격해 현(縣) 소재지가 되었다.

호탄은 ‘옥의 고향’ ‘비단의 고향’ ‘카펫의 서울’, ‘과실의 고향’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이곳은 온대성 건조 기후대로 추위나 더위가 그다지 심하지 않고, 쿤룬 산맥에서 발원하는 유룽카스하(玉龍喀什河, 일명 바이위허(白玉河))와 카라카스하(喀拉喀什河, 일명 헤이위허(黑玉河))가 동서로 흘러 땅이 기름지고 물산이 풍부하다. 예로부터 호탄의 특산물은 옥이다. 쿤룬 산맥에서 발원해 시의 동쪽을 흐르는 바이위허와 서쪽을 흐르는 헤이위허의 하상(河床)은 옥의 채굴지다.



호탄의 불교 유적지



실크 로드 지도상의 호탄

호탄 오아시스의 동북방 즉 현재의 도모코(Domoko)로부터 북쪽으로 80km 지점에 단단 우 일리크(Dandan-uilik)라는 사막 속에 묻혀 있던 불교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동부 투르크어로 '상아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 유적지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 불교 유적지 중 하나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허탄, 호텐

● 다국어 표기 和田(중국어), خوتەن(위구르어)

● 연관 검색어 카펫, 신장 위구르 자치구

● 멀티미디어 링크 네이버 지식백과 실크로드 사전, 호탄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783975&cid=62093&categoryId=62093>

<https://en.wikipedia.org/wiki/Hotan>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2.

Beckwith, Christopher I.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9.

Grousset, René. *The Empire of the Steppes: A History of Central Asia*. Rutgers University Press. 1970.

“Xinjiang: autonomous region, China”. *Encyclopædia Britannica*.

I H272 | 호흘라치 유적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기타 ● 나라 우크라이나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hokhlach

호흘라치 유적은 노보체르카스크 시 도시 외곽에 위치하는데, 1864년 건물을 건축하면서 우연히 발견되었다. 직경은 42m 이상, 높이는 3.6m 정도라고 알려졌으나 정확한 무덤의 구조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은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사슴과 나무로 장식된 황금 왕관, 향수병 등이 가장 유명하다.

금관은 경첩 장치로 연결된 세부분으로 구성된다. 솥을 장식을 관테에 고정시키기 위한 조그만한 구멍이 있다. 솥을 장식에는 생명수와 수사슴과 염소들로 구성된 것이다. 나뭇잎들은 가는

르는 소리에서 기인했다는 학설과 동물을 의미한다는 학설도 있다. 특히 홀라바르로 사용되는 노래에서 ‘호’가 성스러운 존재로서 호명되는 경우도 있다.

주요 주제는 황소와 쟁기가 등장하며, 풍요와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홀바라르는 주제에 따라 농부의 소원과 욕망을 반영하는 것과 농사에 사용되는 동물들을 담은 것, 쟁기질하는 농부를 반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홀라바르는 초기에는 문장 수와 음절 수가 적은 텍스트들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조화와 음률에 맞게 길어졌으며 원래의 형태에서 아제르바이잔 전통 시 형식인 바야트(bayati)처럼 7음절이 있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홀바라르의 초기 형태는 농장에서 동물에게 사용하는 “후우!”, “홀라아!”, “호하!”와 같은 소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농업의 발달에 따라 구절과 단어가 추가되었다. 이후 합창 부분에서 ‘검은 단어(qara kəlim)’, ‘가스가 단어(qaşqa kəlim)’, ‘황소(öküz)’, ‘검은 황소(qara öküz)’, ‘황소(hodaq)’, ‘쟁기(kotan)’, ‘나무 쟁기 손잡이(mac)’, ‘쟁기(cüt)’ 등의 어휘가 추가되기도 했다. 이후에는 아제르바이잔 전통 시 형식인 바야트(bayati)처럼 7음절이 있는 형식으로 변화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홀라발, 노동요

● 다국어 표기 Holawar(영어), Holavar(튀르키예어), холавар(러시아어), Holavar(아제르바이잔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Nebiyev, Azad. Azərbaycan Xalqədəbiyyatı, Bakı: Çıraq Neşriyyat. 2009.

Yolcu, Mehmet Ali. “Azərbaycan Holavarve Sayacı Nağmələrinin Tür Özəlliklər”, *Dil Sanat və Dil Dergisi*01: 38~49.

I H274 | 홀바인 카펫

- 시기 A.D. 1000년 ~ A.D. 1500년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예술
- 유형 소분류1 공예
- 유형 소분류2 카펫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Holbein carpet

홀바인 카펫은 엄밀한 의미에서 카펫 종류의 정식 이름은 아니다. 오스만 시대의 카펫 일부 종류가 독일 화가 한스 홀바인(Hans Holbein, 1497년~1543년)이 자주 그려 홀바인 카펫이라

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들도 오스만 카펫을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으며 홀바인이 그리지 않는 종류의 오스만 제국의 카펫도 있다.

홀바인 카펫이라 불리는 오스만 제국의 카펫은 문양 구성에 있어 크게 네 종류로 나뉜다. 첫 번째 패턴은 소형 카펫으로 바탕을 작은 정사각형으로 나누고 이 정사각형 내부를 팔각형으로 채운다. 이 사각형의 각은 삼각형으로 채워져 있다. 삼각형은 다른 면의 삼각형과 만나 마름모를 이루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베이셰히르(Beyşehir) 카펫이 이와 유사하다. 이 형태의 카펫은 16세기 생산이 점차 줄어들어 17세기에는 생산이 중단된다.

두 번째 패턴은 첫 번째 패턴을 기본으로 유지하지만, 기하학보다는 식물 문양이 더 지배적이기 때문에 처음 보았을 때는 첫 번째 패턴과 매우 달라 보인다. 팔각형의 윤곽선은 흐릿해지고 마름모는 팔메트와 루미(Rumi) 문양으로 대칭적으로 장식된다. 끝이 뾰족한 삼각형 잎사귀 문양이 등장하기도 한다. 홀바인은 그린 적 없는 카펫이기 때문에 홀바인 카펫이라는 명칭 대신 로토 카펫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것도 베네치아의 화가 로렌초 로토(Lorenzo Lotto, 1480년(?)~1556년)가 그림에서 소재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패턴은 대형 카펫으로 큰 정사각형 내부에 팔각형이 있고, 이런 정사각형 문양 주변을 다시 정사각형으로 둘러싸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크기에 따라 정사각형으로 둘러싸인 팔각형이 2개나 4개가 존재하기도 한다. 홀바인 이전에도 유럽 화가들이 자주 그린 패턴의 카펫이다.

네 번째 패턴의 홀바인 카펫은 세 번째 패턴에서 조금 더 발전된 양식이다. 팔각형으로 채워진 정사각형을 둘러싼 패널 내에 다시 작은 팔각형이 있는 패턴이 2개씩 자리한다.

홀바인 카펫은 주로 우샤크(Uşak) 지방과 아나톨리아 서부 지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카펫은 셀주크 시대와 16세기 오스만 시대의 카펫을 잇는 역할을 한다. 우샤크 지방의 카펫은 계속 다른 형태로 18세기까지 발전했으나 그 후로는 퇴보하기 시작했다. 홀바인 카펫의 또 다른 발전 양상은 베르가마 카펫(Bergama halıları)이다. 베르가마 카펫은 양식화된 식물 문양이 주로 쓰였다. 그 외에도 셀주크 시대의 문양과 쿠픽 서체가 함께 쓰였다.

베르가마 카펫은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16세기에 시작했으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16세기 이즈미르에 머물렀던 영국 상인을 중심으로 우샤크 카펫이 수출되기 시작했고 영국인들과 경쟁 관계였던 이탈리아 공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헝가리, 프로이센의 상인들이 경쟁적으로 구매하며 유럽에 퍼진 것으로 보인다.



‘대사들 (The Ambassadors)’에 그려진 카펫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당시의 오스만 시대 카펫을 훌바인이 종류별로 다 그려내지 않았음에도 모든 카펫에 훌바인의 이름이 붙여진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이른바 ‘훌바인 카펫’은 당시 오스만 제국과 유럽의 무역 및 영향력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홀베인 카펫, 홀바인 카페트, 홀베인 카페트
- 다국어 표기 Osmanlı halısı(튀르키예어), Holbein halıs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카펫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8/88/Hans_Holbein_the_Younger_-_The_Ambassadors_-_Google_Art_Project.jpg/800px-Hans_Holbein_the_Younger_-_The_Ambassadors_-_Google_Art_Project.jpg
- 참고문헌(오프라인) Aslanapa, Oktay. *Türk halı sanatı'nın bin yılı*. İstanbul: İnkılap yayınevi. 2005.
Perdahci, Nurcan. “XVI-XVIII. Yüzyıl Avrupa Resim Sanatı'nda Uşak Halıları”, *Trakya Üniversitesi Sosyal Bilimler Dergisi* Haziran. Cilt 13 Sayı 1. 2011. pp.275~291.

I H275 | 황금인간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카자흐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유물
- 집필자 황영삼 ● 라틴 문자 the Golden Man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동쪽으로 떨어진 이식-쿠르간 지역에서 1969년에 황금장식의 갑옷을 입었던 사람 형태의 부장품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의상을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주인공은 B.C. 4세기~B.C. 3세기 경 이 지역에 거주했던 지도자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러한 추정이 사실이라면 주인공은 스키타이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오늘날 카자흐스탄 땅에 이미 고대 스키타이인의 문명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황금 투구와 갑옷으로 치장되어 이를 일명 ‘황금인간’이라고 칭한다.

고고학자 케말 아키셰브(Kemal Akishev) 등이 주도한 역사적 발굴은 카자흐스탄 및 카자흐인의 역사와 기원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가 되었다. 여러 가지 부장품으로 볼 때 스키타이인과 유사하지만 인종적인 차원에서 DNA분석은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남아있는 뼈가 심하게 부식되고, 현대의 바이러스에 오염되어 규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2019년 카자흐스탄 당국은 ‘황금인간’의 재매장 의식을 단행하는데 그 주인공의 평안한 안식을 기원하기 위해서였다. 학술적으로 황금인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논쟁도 진행 중이



황금인간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

다. 중요한 사실은 15세기 중엽에 형성된 카자흐 칸국 이전에 이미 카자흐인의 기원이 되는 사람들이 이미 오늘날 카자흐스탄 지역에 살고 있었고, 시대적으로 스키타이인이 활동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점이다. 이는 카자흐스탄의 역사적 기원을 기원전 시대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황금인간'의 존재와 발굴은 카자흐스탄의 역사에 대한 긍지를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알튼 아담
- 다국어 표기 Алтын адам(카자흐어), Золотой человек(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이식 쿠르간
- 멀티미디어 링크 <https://e-history.kz/en/news/show/7904/>
- 참고문헌(오프라인) Казахстан,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циклопедия, — Алматы, 2005. — Т. II.

I H276 | 황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색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Folklore and Symbolism of Yellow

황색(sarı)은 옛 튀르키예인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부귀와 권세 그리고 자연(대지, 흙)을 의미하는 중요한 색깔이다. 투르크 민속에서 황색은 중심, 가운데를 의미했다. 투르크의 이슬람화 이전 샤머니즘이 지배적인 신앙이었을 때 투르크 문화권에서는 Sarı Albastı(황색의 알바스트) 혹은 Sarı Albıs(황색의 알브스)로 불리는 수호령이 있다고 믿었다.

알바스트에 대한 믿음은 오늘날 투르크 문화권에도 이어지고 있다. 카작 투르크와 키르기스 투르크들의 민속 신앙에 따르면, 알바스트는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카라 알바스트(Kara Albastı 혹은 알바스트)와 싸르 알바스트(Sarı Albastı 황 알바스트)로 전해진다. 또한, 박쉬(남성 무당)은 '인간의 근경을 치료하는 싸르 크즈(sarı kız 황색의 소녀)여, 오라!'라며 도움을 청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야쿠트 투르크 샤먼은 제의에서 싸르 알바스트에게 도움을 청하며 기도를 올리기도 한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부족 혹은 국가의 통치자는 세상의 중심에 있으며, 중앙에서 군림한다고 믿어 왔기 때문에 황색은 예로부터 통치자를 상징하는 색이었다. 투르크는 통치자를 상징하는 색으로 알튼사르쓰(Altın Sarısı, 황금색)를 사용했다. 그래서 투르크 신화에서도 월겐 신은 금 문궁과 금으로 된 왕좌에 앉는다고 믿었다. 금은 예로부터 통치자의 권력과 지배를 가능케 하는 부(富)의 주된 원천이며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중심, 부와 권력을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금(金)의 색인 황금색은 통치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색이었다. 유목 투르크에게 금 숭상 문화는 일찍부터 발달했고,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민간에서는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금 반지, 금 목걸이, 금 귀걸이 등을 신부에게 선물하는 풍습이 있다. 결혼식 하객과 가까운 친척들 또한 축의금으로 금으로 된 귀금속 제품을 주거나 금으로 만들어진 장식용 금화를 신부에게 달아 주며 축하해 왔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황색이 통치자의 색으로 인식된 것과 함께 위구르 투르크 국가에서는 주권을 의미하는 색으로도 사용되어 황색 깃발이 국경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위구르 제국에서는 황색기와 함께 황군(黃軍)도 존재했다. 오우즈 투르크 시대 영웅 신화 모음집 격인 『현인 코르크트의 서』에서는 황후의 옷 색으로도 황색이 사용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오우즈 칸 신화에서는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황금의 천막이 있었다고 전한다.

황색은 이후 몽골 제국의 발전과 함께 투르크-이슬람 국가들의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셀주크 제국과 오스만 제국에서는 적색과 함께 황색은 군대 깃발로 자주 사용되었다. 이후 황색은 종종 튀르키예 문화에서 노란색은 재난, 악, 질병, 소외, 적대감, 증오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문학에서는 별, 꽃, 옷 등의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싸르 일레 일길리 할크 이나느쉬라르
- 다국어 표기 sarı ile ilgili halk inanışlar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현인 코르크트의 서, 백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녹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적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흑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lopedisi.org.tr/uygurlar>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alıcı yay, İstanbul. 2001.

I H277 | 황색 위구르어

- 시기 기타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분류 ● 유형 소분류2 언어명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Western Uyghur Language

황색 위구르어는 황색 위구르인이 사용하는 투르크어로, 유고족, 위구족, 유구르의 언어라고도 불린다. 중국의 소수 민족인 황색 위구르인의 대다수는 간쑤성 쑤난 위구르 자치현에 거주한다. 황색 위구르인은 일반적으로 투르크인으로 분류되지만, 때로는 서몽골, 중국인 혹은 티베트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간쑤성 지역에서 투르크어의 변형 형태인 황색 위구르어를 사용하는 황색 위구르인과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일부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불교를 받아들였던 불교 신자라고 전해진다.

황색 위구르어는 초기 위구르어의 고립된 형태로 발전된 투르크어이기에 남부시베리아 투르크어, 롭노르어와도 형태적으로는 유사하지만, 티베트어, 몽골어 및 중국어의 영향을 받아 독자적으로 변화되었다는 특성을 가진다. 황색 위구르어는 현재까지 매우 적은 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황색 위구르어 연구는 마르티로스(Marti Ross)의 연구인데, 이는 광범위한 현장 연구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유고족, 위구족, 유구르의 언어 혹은 황색 위구르어
- 다국어 표기 Western Uyghur Language(영어), Sari uygurca(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위구르어, 롭노르, 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Johanson, L. (Trans :Demir, N., & Yılmaz, E.). *Türk dili haritası üzerinde keşifler*. Grafiker. 2002.

I H278 | 후다코프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hudyakov Julius Sergeevich



후다코프
Source: <https://ru.wikipedia.org/>

후다코프(1947년~)는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고고학 및 민족학연구소 수석직원, 노보시베리스크 국립연방대학교 교수이다. 러시아의 케메로보 지역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독일계였고, 어머니는 미국인이었다. 후다코프는 시베리아 고고학과 중앙아시아 지역 가운데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고대 무기 관련한 연구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유명한 고고학자이자 역

사가이다.

그의 연구는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된 이후에 키르기스스탄의 교과서 및 학습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예니세이강 유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이 6세기~7세기 키르기스스탄의 왕급 계층 유물로 추정된 연구 저서는 그의 대표작이다. 현대 키르기스인의 원류를 밝혔다고 평가받는다. 예니세이강이 흐르는 미누신스크 분지에서 확인되는 유적 중에서 사람과 동물 입석이 남아 있고, 성인 무덤에 말을 함께 묻는 습속, 어린아이와 청소년을 따로 매장하는 장법 등이 확인되고, 이는 중앙아시아의 고대 투르크 문화의 특징이 이곳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연구되었다.

1990년대 초 유네스코를 통해서 내륙 아시아의 각 지역 박물관을 방문했는데, 중국 신장은 전시회의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해서 직접 스케치를 남겼다. 그 뒤에도 중국 박물관에서 동투르기스탄과 키르기스스탄과 관련된 유물을 스케치해서, 유네스코 국제조사위원회에서 제공해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그가 연구한 고고학 연구 및 역사 연구 중 특히 키르기스스탄의 말타는 무사와 관련된 연구는 현재 키르기스스탄의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후다코프
- 다국어 표기 Худяков Юлий Сергеевич(러시아어), Khudyakov Julius Sergeevich(영어)
- 연관 검색어 키르기스스탄
- 참고문헌(오프라인) Худяков Ю. С. Вооружение средневековых кочевников Южной Сибири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Сиб.отд-ние. 1986, —272 с.
Худяков Ю. С. Кыргызы на Енисее: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Новосибирск:Изд-воНовосиб.ГУ, 1986.
Худяков Ю. С. Древние тюрки на Енисее. —Новосибирск. 2004. —152 с.

I H279 | 후더요르 칸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군주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Xudoyorxon

히바 칸국의 칸 셰랄리 칸(Sheralixon, 재위: 1842년~1845년)의 아들이었던 후더요르 칸은 1829년 태어나 1845년 킵차크 출신의 천인장(mingbashi) 무술먼쿨(Musulmonkul)의 딸과 결혼했다. 후더요르 칸은 제위에 올랐지만, 장인인 무술먼쿨이 섭정을 했다. 무술먼쿨은 후더요르 칸이 독자적으로 명령을 내리지 못하게 하며 엄격하게 통제했다. 무술먼쿨의 비호하에 킵차크 세력은 차츰 커졌지만, 1853년 이해 반하는 폭력 사건이 발발했고, 무술먼쿨을 비롯하여 킵차크인 20,000여 명이 사망했다. 1853년 무술먼쿨의 사망으로 후더요르 칸은 독자적인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취했던 반 킵차크 정책, 북부 지방을 총독이 통치하는 특별 지구로 만든 정책은 북부 유목민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1858년 코칸드 칸국 북부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후더요르 칸은 형이었던 말라 칸(Mallaxon, 재위: 1858년~1862년)에게 북부 지방 반란을 진압해 달라는 청을 한다. 말라 칸은 이것을 기회로 반란 세력을 용서하고 세금을 줄였으며 코칸드를 점령한 후 자신을 칸으로 선언했다. 후더요르 칸은 이로 인해 부하라로 도망가게 된다. 1862년 말라 칸이 암살되고 그의 조카 무러드 칸 2세(Murodxon II, 재위: 1862년)가 제위에 올랐으나 같은 해 5월 후더요르 칸은 타슈켄트 군대와 함께 코칸드로 돌아와 제위를 찬탈하

여 2차로 코칸드 칸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의 2차 통치는 무거운 세금과 반동적인 시스템으로 악명 높았다. 부하라 토후국은 페르가나를 침략했고, 1866년에는 러시아가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다. 1868년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으로 인해 코칸드는 차르의 최고권을 인정해야 했으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로 인해 코칸드 칸국에서는 자주 봉기가 일어났고, 그중 1873년에 발발한 폴랏칸 봉기(Po'latxon qo'zg'oloni)가 가장 유명하다. 이는 후더요르 칸의 실정과 러시아의 식민 정책에 반대하는 일종의 해방운동이었다. 이 봉기는 카우프만(Константи́н Петро́вич фон-Кауфман, 1818년~1882년)이 진압하고, 시르데리아의 우측 영토를 러시아가 차지하며 끝나게 된다.

후더요르 칸은 타슈켄트로 도망쳤다가 러시아 오렌부르크로 망명했다. 훗날 러시아가 코칸드 칸국이 러시아에 완전히 점령된 후 그는 코칸드의 정치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귀향하길 바랐지만 허락받지 못했다. 2차로 다시 귀국을 신청했을 때 러시아는 이를 허락했으나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밀입국을 시도하다 사망했다.

후더요르 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나스리딘벡(Nasriddinbek, 재위: 1875년~1876년)는 카우프만에 의해 제위에 오른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후도요르칸, 후다야르 칸, 쿠다야르 칸, 쿠다야르 칸

● 연관 검색어 쉐랄리칸, 나스리딘벡, 폴랏 봉기, 코칸드 칸국

● 참고문헌(오프라인) Bababekov, H. N. "The khanates of Khiva and Kokand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khanates and with other powers. Part Two: Ferghana and the khanate of Kokand",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VI, Towards the contemporary period: from the mid-nineteenth to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Paris : UNESCO, cop. 2005. pp.71~82.

Dubovitskii, Victor. Khaydarbek Bababekov. "The Rise and Fall of the Kokand Khanate". Ferghana Valley : the heart of Central Asia, London ; NewYork : Routledge. 2015. pp.29~68.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2002. pp.957~1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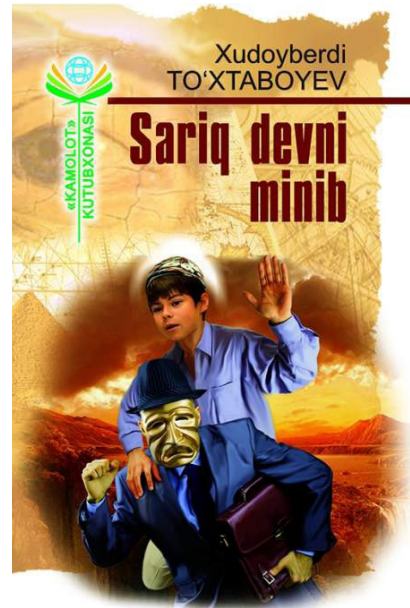
I H280 | 후도이베르디 토흐타버예브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Xudoyberdi To'xtaboev

우즈베크 아동문학가 후더이베르디 토흐타버예브(Xudoyberdi To'xtaboev)는 1932년 페르가나에서 태어났다. 1949년 코칸드(Qo'qon) 교육학교를 졸업한 후 중앙아시아 대학교 어문학과 (1950년~1955년)에서 공부했다. 대학 졸업 이후 교사로 근무했다.

작가 후더이베르디 토흐타버예브(Xudoyberdi To'xtaboev)는 <타슈켄트의 진실(Toshkent haqiqati)>, <붉은 우즈베키스탄(Qizil O'zbekiston)> 신문사 및 <Guliston> 잡지사에서 근무했으며,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청년 수호자(Yosh gvardiya)> 출판사의 편집장, <동방의 별(Sharq Yulduz)> 잡지사의 부편집장, 그리고 <패기념치는 새(Yosh kuch)> 잡지의 편집장을 맡았다.

초기 언론가로 활동했던 후더이베르디 토흐타버예브(Xudoyberdi To'xtaboev)는 1958년부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단편소설 『황급한(Shoshqaloq)』, 『청년 수호자(Yosh gvardiya, 1963)』, 『비밀은 밝혀졌다(Sirochildi, 1964)』, 『마법사의 모자(Sehrli qalpoqcha, 1965)』, 『5명의 자녀가 있는 청년(Besh bolali yigitcha, 1975)』, 『복수자의 황금 머리(Qasoskorning oltin boshi)』, 『세월과 길(Yillar va yo'llar, 1983)』, 『마법사들의 투쟁 또는 달콤한 멜론의 나라에서(Sehrgarlar jangi yoki shirin qovunlar mamlakatida, 1987)』, 『슬픈 눈(Mungli ko'zlar, 1988)』, 『낙원의 사람들(Jannati odamlar, 1996)』 등이 있다. 또한 1970년대 아동문학 발전에 큰 공헌을 한 『노란 괴물을 타고(Sariq devni minib, 1969)』와 『노란 괴물의 죽음(Sariq devning o'limi, 1973)』은 독자들 사이에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그의 작품 『마법사의 모자(Sehrli qalpoqcha)』는 전 세



『Sariq devni minib』 표지
Source: <https://kitobxon.com/>

계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후다이베르디 토흐타버예브(Xudoyberdi To'xtaboev)의 우즈베크 문학에 대한 공헌이 인정받아 함자(Hamza) 상을 수상했으며 1991년에 우즈베키스탄 국민작가라는 명예칭호를 받았다. 그는 2021년 3월 21일에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후도이베르디 토흐토바예프, 후도이베르디 토흐타버예브
- 다국어 표기 Xudoyberdi To'xtaboev(우즈베크어), Худайберды Тухтабаев(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Mirvaliyev S., Shokirova Rixsiya., *Uzbek adiblari*, Toshkent: Fan, 2007.
Xudoyberdi To'xtaboev, *Jannati odamlar*, Toshkent: Cho'lpon nashriyoti, 1995.

I H281 | 후르쉬드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Xurshid

삼십년 사라졌던 오글루 후르쉬드(Shamsiddin Sharafiddin oglu Khurshid)는 우즈베크 고전문학과 20세기 근대문학을 연결하는 작가이자, 현대 우즈베크 희곡의 창시자 중 한 명이다. 1892년에 태어난 후르쉬드는 구식학교와 마드라사에서 공부했다. 1905년에는 자디드(Jadid)문학을 대표하는 가장 젊은 작가였다.

계몽주의적 정신을 담은 첫 번째 희곡인 『옛것과 새것(Eskilik va yangilik)』이 발표된 후 꾸준히 작품을 발표했다. 『어리프와 마루프(Orif va Ma'ruf)』, 『검은 여자(Qora xotun)』, 『작은 군인(Kichik askar)』와 같은 희곡 작품에 이어, 『라일리와 마즈눈(Layli va Majnun)』, 『파르허드와 쉬린(Farhod va Shirin)』, 『시요부쉬(Siyovush)』, 『어이버누(Oybonu)』와 같은 뮤지컬극본과 오페라 리브레토를 집필했다. 그의 작품은 당대 큰 인기를 끌었다.

후르쉬드의 시는 <투르키스탄의 소리(Sadoi Turkiston)>와 <투르키스탄 지역신문(Turkiston viloyatining gazeti)> 그리고 <번역가(Tarjimon)>과 <거울(Oyna)> 같은 잡지에 실렸다. 당대

의 시인 히스랏이 준비했던 『히스랏의 선물(Tuhfai Xislat, 1914)』이라고 하는 시선집에도 후르쉬드의 시가 실렸다. 후르쉬드는 자신의 시를 모아, 『증인의 데번(Devoni Shohidiy)』이라는 제목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렬되는 시선집 일종인 데번(devon)을 만들었다. 그의 가잘(g'azal)은 여전히 유명한 가수들에 의해 불려지고 있다.

후르쉬드는 프리드리히 실러, 셰익스피어, 호지베코프와 같은 작가의 희곡과 하피즈 세로지(Hafiz Sherozi)의 시 100여 편을 번역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고전문학의 대표적인 작품 출판에 참여했다.

후르쉬드는 1960년 9월 13일 타슈켄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후르쉬드의 다양한 창작 활동이 인정받아, 1990년 우즈베키스탄의 명예예술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후르시드, 후르쉬드, 삼싯딘 샤라피딘 오글루 후르쉬드
- **다국어 표기** Xurshid(우즈베크어), Хуршид(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자디드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 *O'zbek adiblari*, Toshkent: G'afur G'ulom nomidagi adabiyot va san'at nashriyoti, 2016.

I H282 | 후르쉬드 다브런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Xurshid Davron

시인이자 언론인 그리고 번역가 후르쉬드 다브런(Xurshid Davron; 본명: Davronov Xurshid)은 1952년 1월 20일 사마르칸트 주의 초르다라(Chordara) 마을에서 태어났다. 1969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타슈켄트 국립대학교 언론학과의 야간반에서 공부하고,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낮에는 타슈켄트 건설현장에서 근무했다. 그는 1971년부터 1973년까지 독일에서 소비에트 군



후르쉬드 다브런
Source: <https://upload.wikimedia.org/>

대에서 복무했으며 이후 1974년부터 1992년까지 출판 분야에 종사했다.

후르쉬드 다브런(Xurshid Davron)은 시를 통해 자연, 사회 및 삶에 나타나는 각종 변화를 통찰력있게 관찰했다. 그는 작품에서 수준 높은 단어 및 시적기교를 사용한다. 그의 첫 시는 1977년 <동쪽 새벽(Sharq tongi)>과 <레닌의 길(Lenin yo'li)>에 등재되었으며, 대표작으로는 『밤의 정원(Tungi bog'lar, 1981)』, 『새와 함께 날아간다(Uchib boraman qushlar bilan, 1983)』, 『토마리스의 눈(To'marisning ko'zlari, 1984)』, 『어린 시절의 목소리

(Bolalikning ovozi, 1986)』, 『Qaqnus(1987)』, 『외로운 새의 비행(Полет одинокой птицы, 1989)』, 『사마르칸트에 대한 생각(Samarqand xayoli, 1991)』, 『봄 오기 전날(Bahordan bir kun oldin, 1997)』이 있다.

또한 후르쉬드 다브런(Xurshid Davron)은 다양한 문학 작품을 번역했다. 니콜라이 자보로트스키(Nikolay Zabolotsky)의 『학(Turnalar)』, 튀르키예의 시인이자 작가인 나므크 케말(Namik Kemal)의 『잘랄 아딘 호라즘샤(Jalal ad-Din Khorezmshah)』 그 밖에도 『바다의 잎(Dengiz yaproqlari)』, 『40명의 연인의 책』, 『일곱 데르비쉬의 공책(Yetti darvesh daftari)』 등의 작품을 우즈베크어로 번역했다.

1990년대에 들어서 후르쉬드 다브런(Xurshid Davron)은 산문 장르 특히 우즈베키스탄의 역사적 사건 및 사실들에 근거한 계몽주의적 작품을 집필했다. 비비허님(Bibihonim)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사마르칸트에 대한 통찰(Samarqand xayoli, 1991)』, 울루그베그(Ulugbek)의 이야기를 담은 『행복한 손녀(Sahibqiron nabirasi)』 등이 있으며, 이들 인물들에 대한 희곡 『미르저 울루그베그(Mirzo Ulugbek)』, 『알굴(Alg'ul)』, 『바부르 샤(Boburshoh)』등을 썼다.

그는 1997년 우정훈장(Do'stlik), 1999년 우즈베키스탄 국민시인 명예칭호, 1989년에 문학 분야 마흐무드 알 카슈가리 국제상, 2009년에 황금연필(Oltin Qalam) 국제상, 2013년 아제르바이잔의 미카일 머쉬피그(Mikayil Mushfig) 상을 수상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후르쉬드 다브론
- 다국어 표기 Xurshid Davron(우즈베크어), Хуршид Даврон(러시아어), Hurşid Devr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올루그 베그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Mirvaliyev Sobir, *O'zbek adiblari*, Toshkent: Fan, 1993.

I H283 | 후바이더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Huvaydo

후바이더(Huvaydo)는 1704년 어쉬(Osh)에서 태어난 시인이며, 수피이다. 본명은 허자나자르 고이입나자르 오글리(Xojanazar G'oyibnazar o'g'li)로 알려져 있다. 니자미(Nizami), 호칸디(Khukandi), 악말(Akmal)과 함께 페르가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코칸드 마드라사에서 공부했으며, 그곳에서 오랜 시간 교사로 일했다. 아흐메드 예세비, 알리셰르 나버이이, 수피 알로야르, 마쉬라브와 같은 작가들의 작품이 그의 세계관과 인생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후바이더는 쾌락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해 줄 수 없으며, 영원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희생해야 한다는 수피적 삶은 추구한다. 이런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지향을 반영한 무욕, 충실, 불멸, 필멸, 근면, 영적 순결과 같은 다양한 윤리적 주제를 중시한 이야기들을 주제로 한 작품 『교훈시(Rohati dil)』, 『이브라힘 아드함(Ibrahim Adham)』을 남겼다.

후바이더는 1780년에 세상을 떠났다. 후바이더(Huvaydo)의 손자 시로지이(Sirojiy)는 그의 사후에 후바이더의 시를 종합하여 『후바이더의 데번(Devoni Huvaydo)』을 출판했다. 후바이더 아버지(G'oyibnazar Eshon)의 영묘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찾는 순례지이다.

『후바이더의 데번(Devoni Huvaydo)』의 여러 필사본과 석판이 있으며, 이들 중 증손자 살로히딘(Salohiddin, 1838년~1910년)과 미르자 하킴 이븐 미르자 마르길로니이(Mirza Hakim

ibn Mirza Umid Margiloniy)가 만든 사본은 현재 사마르칸트 국립대학교 도서관에서 소장돼 있다. 후바이더는 우즈베크 고전문학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의 시 중 일부는 우즈베크 고전노래의 가사가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그의 이름이 명명된 거리와 마할라, 학교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후와이도, 후바이도, 허자나자르 고이입나자르 오글리
- 다국어 표기 Huvaydo(우즈베크어), Хувайдо(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아흐메드 예세비, 알리셰르 나바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sheriyati/ozbek-mumtoz-sheriyati/huvaydo/>
- 참고문헌(오프라인) Abdullaev Vohid, *O'zbek adabiyoti tarixi* (ikkinchi kitob), Toshkent: O'qituvchi, 1967.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O'zbekiston Fanlar Akademiyasi, *O'zbek adabiyoti* (uchinchi kitob), Toshkent: O'zSSR Davlat Badiiy Adabiyot Nashriyoti, 1959.

I H284 | 후반 아르그

- 시기 기타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구비전승 ● 유형 소분류2 서사시
- 집필자 장주영 (자문위원 : Nukhet Okutan Davletov) ● 라틴 문자 Huban Arygh

남시베리아 하카스 호브이 부족으로서 하카스 공화국 타쉬트 지역의 안출 마을 출신인 민담꾼 셈윤 술바예프에 의해 낭독된 하카스 영웅서사시 후반 아르그는 같은 마을 출신이며 하카스 언어 교수였던 알레브티나 마이타코바에 의해 기록되었다.

후반 아르그라 불리는 이 서사시의 주인공은 여성이다. 후반 아르그는 아버지를 이어 칸이 되어 백성을 다스렸으며, 적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를 관리하고 다스리며 민중의 사회 경제적 상황들을 관리하는 인물이다. 여성 칸이 민중을 다스리는 모습은 후반 아르그에서만이 아닌, 다른 하카스 서사시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후반 아르그에서는 국가가 굶주린 자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옷이 없는 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말이 없는 자에게 명마를 주는 것과

같이 국가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사회적 지원을 통해 구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또한 등장하는 모든 영웅의 모습이 항상 선하게 묘사되지 않는 점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등장 인물은 그저 자신의 백성을 생각하고 또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인간으로서의 경영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반 아르그 서사시의 유혈 전투 등의 전투 장면에서 등장 인물들은 서로를 ‘순수한 자’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는 실제로 죽음 앞에 놓인 이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킨다는 의미에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은 고대 샤머니즘의 지혜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후반 아르그 서사시는 특히 사후 세계의 묘사가 매우 자세한데, 이는 투르크 샤머니즘과 관련된 연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후반 아륙
- 다국어 표기 Huban Arygh(하카스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Davletov, T. B. *Huban Arğ-Hakas Türklerinin Kadın Yiğitlik Destanı*, Ankara: TÜRKSOY Yayınları, 2006.

Ⅰ H285 Ⅰ 후아스투아니프트

- 시기 A.D. 1000년~A.D. 1500년 ● 지역 동아시아 ● 나라 중국 ● 유형 종교 ● 유형 소분류1 마니교 ● 유형 소분류2 서적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Huastuanift

『후아스투아니프트(Huastuanift)』는 마니교의 종교 서적으로 회개를 위한 책이다. 페르시아어, 소그드어, 중국어 본이 있으며 위구르어 번역본은 소그드어 본을 번역한 것이다. 번역 시 단어별로 직역했다기보다는 의미를 부여하여 의역했다.

후아스투아니프트는 1906년 아우렐 스타인(Sir Aurel Stein, 1862년~1943년)에 의해 발굴되었고 이후 프리드리히 빌헬름 란돌프(Friedrich Wilhelm Radloff, 1837년~1918년), 프리드리히 뮐러(Friedrich W. K. Müller, 1863년~1930년) 빌리 방(Willy Bang, 1869년~1943년) 등

다양한 투르크학 학자들에 의해 연구 및 출간되었다.

『후아스투아니프트』는 기본적으로 회개 기도를 위한 서적이다. 10세기~11세기 투르크스탄 지역의 마니교 교단에서는 사제와 신자는 회개 기도의 절차가 있었다. 사제를 위한 형식과 신자를 위한 형식이 각기 달리 있었으나, 사제를 위한 형식은 소그드어 본에서 단편적인 형태로 전해 내려왔고, 후기 팔레비어 본에서 단 한 부분만이 남아 있다. 그러나 신자를 위한 형식은 전체가 남아 있다. 위구르어 본은 소그드어 본 마지막 부분과 10장과 11장 첫 구절이다. 신자를 위한 이 기도는 믿음의 근본적인 부분을 말하며, 신자가 고백한 행위(죄)가 교리와 다른 모순된 지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면이 수반되는 형식이다.

이 회개 기도는 마니교의 주요 축제인 베마(Bema) 축제 전례의 일부였으며, 집례하는 사제가 신자들의 이름으로 낭송했다. 마니교에는 죄를 신에게 고백하고 용서받는 구조의 서적들이 더러 있었는데, 후아스투아니프트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다.

후아스투아니프트의 위구르어 본은 당시 문학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으며, 언어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구르 마니교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취급된다.

● 다국어 표기 Huastuanift(튀르키예어), Xuastuanift(우즈베크어)

● 연관 검색어 마니교, 아우렐 스타인

● 참고문헌(오프라인) Tardieu, Michel. *Manichaeism*(trans. M. B. DeBevois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08. Alimuxamedov, Rixsitilla. “Eski Türk Mani Edebiyatına ait tövbenâmeler hususunda”. *International Periodical for the Languages, Literature and History of Turkish or Turkic*. Volume 11/15 Summer 2016. pp.19~30.

I H286 | 훈족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집필자 김재윤, 우덕찬
- 라틴 문자 Hun

훈족은 4세기~6세기경에 카프카스 산맥 일대부터 중앙아시아에 걸쳐서 존재하던 민족으로

370년경에 볼가강의 동쪽에 등장한 민족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4세기 중엽 중앙아시아로부터 서방으로 이동했다고 추정되고, 이른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을 유발시킨 종족으로서 375년 이래 로마제국을 교란시켰으며, 로마제국 밖에 살던 고트족과 게르만족을 정복했다. 훈족은 돈강과 도나우강 사이에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고 451년 아틸라(Attila)의 영도 아래 서방으로 진출했다. 이 진출로 독일과 프랑스는 황폐화되었고 452년 초에 훈족은 이탈리아로 진출했다.



훈 제국의 아틸라 초상화를 담은 카자흐스탄 주화

훈족은 아틸라가 통치하던 시기(452년~453년)에 최대영역을 지배했는데, 흑해, 도나우강, 발트해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453년 아틸라 사망 후 거대한 훈족은 해체되었다.

훈족의 정치체계는 논란이 있어 왔는데, 주로 서양 연구자는 훈족을 국가나 정치체제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터 헤더는 훈족의 체계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무질서적 연합이었고 게르만족 사회처럼 서열 계급사회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훈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자 간에 의견 차이가 있다. 서양 학계에서 훈족의 기원을 중앙아시아에서 이란계 유목민들의 영향을 받은 투르크족으로 보고 있다. 훈족의 언어는 중앙아시아의 투르크족 언어와 가장 비슷하다고 알려졌다. 훈족이라는 명칭 대신에 마사게타이, 스키타이인, 킴메르라고 칭하는 고전 사료들도 있으며 훈족이라는 명칭은 그리스어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대표적인 흉노연구가 구밀료프(Гумилёв, Gumilyov)는 훈족은 기원전 220년에서 기원후 2세기까지 중국 북쪽에 위치한 초원지역에 살던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훈족의 대표적인 유적지가 자바이칼 지역의 카흐타에서 발굴된 수진스키예(суджинские, sudzhinskiye) 무덤이다. 즉 중국 영토 북쪽부터, 몽골 고원, 중앙아시아와 남부시베리아에 살

던 흉노족이 서양사에 등장하는 훈족의 기원으로 보았다. 사실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이미 기원전 3세기경에 몽골의 흉노인과 훈족이 서로 관련이 있다는 설이 처음 제기되었다. 이를 ‘훈-흉노 동족론’이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김현진과 에티엔 드 라 베지에르는 훈족과 흉노족이 한 민족이라는 이론을 다시 주장했다. 김현진은 훈족이라는 용어는 민족을 칭하는 용어가 아니라 정치적 범주로 파악했고, 흉노족과 이란계 훈족, 흉노족과 유럽계 훈족 사이의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연속성을 주장했다. 4세기~6세기경의 흑해 북안과 동유럽 일대에서 발견된 훈족의 물질문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동솥(동복)이다. 이곳에서 출토된 동복은 손잡이에 버섯모양의 장식(장식)이 있으며, 동복 자체에도 문양이 많다.

그런데 이 동복의 전통은 기원전 9세기경부터 시작되는 시베리아의 초기 스키타이 문화에서부터 나타나며, 기원전 3세기경에 나타나는 흉노문화에서도 주요한 유물이다. 시베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동복 출토지는 기원전 7세기의 스키타이 문화 유적인 아르잔-2호이다. 흉노-훈 동족론 문제는 처음 주장된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학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대표적 문제 중 하나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훈

● 다국어 표기 Hun(영어), Хунны(러시아어), Hunlar(튀르키예어), Hunlar(아제르바이잔어), Hunlar(우즈베크어), Ғундар(카자흐어)

● 연관 검색어 아틸라, 흉노, 흉노-훈 동족론

● 참고문헌(온라인) 네이버 지식백과 교황사전, 훈족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7297&cid=50762&categoryId=50853>

구밀로프의 흉노사

<http://gumilevica.kulichki.net/HPH/index.html>

● 참고문헌(오프라인)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1998.

이희수,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

Heather, Peter. *Empires and Barbarians : The Fall of Rome and the Birth of Europe*,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Hernandez, David. *The Greatest Story Ever Forged: Curse of the Christ Myth*, Pittsburgh: Red Lead Press, 2009.

Kim, Hyun Jin. *The Huns*, London: Routledge/Taylor & Francis Group, 2016.

Maenchen-Helfen, Otto J. Knight, Max (ed.). *The World of the Huns: Studies in Their History and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I H287 | 휘세인 나므크 오르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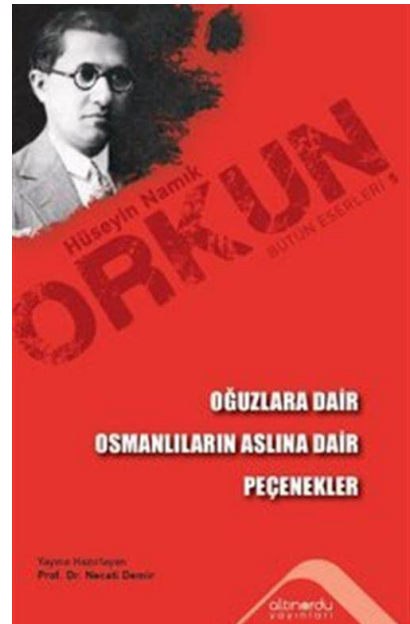
- 시기 A.D. 1800년 ~ 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언어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학자
- 집필자 장주영 ● 라틴 문자 Hüseyin Namık Orkun

휘세인 나므크 오르쿤은 1902년 1월 31일 이스탄불의 카슴파사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그는 이스탄불 대학교 문학부 역사학과에 입학하고 1924년 졸업한다. 그는 1925년 헝가리에서 튀르크학자 네메스(Gyula Németh)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는다.

휘세인 나므크 오르쿤은 1926년 헝가리에서 『현자 코르쿤트의 서에 대하여(Über Das Kitāb-ı Dede Qorqud)』라는 작품을, 튀르크학자 밤베리(Arminius Vámbéry)의 저서 『A török faj』를 기반으로 『튀르크 세계(Türk Dünyası)』라는 작품을 저술한다. 또한 1927년 헝가리의 <Budapestiszemle> 잡지에 「튀르키예에서의 투라니즘과 인종차별적 감정의 발전(A turanizmus és a faji érzék kialakulása Török orfzágban)」, 1930년 <Turan>지에는 「튀르크와 헝가리 친족문제(A török-magyar rokonság kérdése)」의 이름으로 두 개의 기사를 게재한다.

1930년말 튀르키예로 돌아온 휘세인 나므크 오르쿤은 앙카라 가지 교육 연구소(Ankara Gazi Eğitim Enstitüsü), 앙카라 대학교 의과 대학, 국립 음악원 및 경찰 대학에서 1945년까지 튀르키예 역사와 혁명사에 대하여 강의를 한다. 휘세인 나므크 오르쿤은 1932년 9월 26일 열린 제1회 튀르키예어 학회(Türk Dil Kurultayı)에서 「B.C. 24세기~B.C. 23세기의 튀르키예어」라는 주제로 학술 논문 발표를 하며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에게 중국 역사에 기록된 튀르크어의 초기 언어 유물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또한 그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헝가리어 통역사로서 근무하며 그의 곁에서 튀르키



『오스만 제국의 기원』 등 3개 작품 통합본 표지
Source: <https://m.media-amazon.com/>

에 역사와 튀르키예어 연구를 진행했다. 또한 1940년 그는 매주 일요일 앙카라 라디오에서 준비한 ‘투르크 역사 시계(Türk Tarihi Saati)’ 프로그램을 맡기도 했다.

히세인 나므크 오르쿤은 1944년 5월 7일 ‘인종차별-투라니즘(Irkçılık-Turancılık)’ 사건에 연류되어 앙카라에서 구금되었으며, 이스탄불 계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1945년 3월 29일 석방된 후 그는 1946년 설립된 민족놀이협회(Millî Oyunları Yayma Derneği) 회장으로 선출된다. 1951년 1월 8일 투르크집회 앙카라 지부를 개설하고, 이후 말년까지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1956년 3월 23일 앙카라에서 사망했다.

그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작품들에는 『페체네크(Peçenekler, 1933)』, 『아틸라와 그의 아들들(Atilla ve Oğulları 1933)』, 『오우즈와 관련하여(Oğuzlara Dair, 1935)』, 『훈(Hunlar, 1938)』, 『비잔틴 문헌 속 투르크 역사(Türk Tarihinin Bizans Kaynakları, 1938)』, 『오스만 제국의 기원(Osmanlıların Aslına Dair, 1939)』, 『투르크 어휘의 기원(Türk Sözüünün Aslı, 1940)』, 『고대 투르크 비문들(Eski Türk Yazıtları (4 cilt), 1936~1941)』, 『두 왕자 이야기, 위구르어(Prens Kalyanamkara ve Papamkara Hikâyesinin Uygurcası, 1940)』, 『투르크 전설(Türk Efsaneleri, 1943)』, 『이 땅의 투르크인(Yeryüzünde Türkler, 1944)』, 『투라니즘의 역사(Türkçülüğün Tarihi, 1944)』, 『투르크 역사(Türk Tarihi (4 cilt), 1946)』, 『고대 투르크인들의 가축 역사(Eski Türklerde Evcil Hayvanların Tarihçesi, 1954)』 등이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후세인 나므크 오르쿤, 히세인 나믹 오르쿤, 후세인 나믹 오르쿤

● 다국어 표기 Hüseyin Namiq Orkun(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이스마일 가스프랄르,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투라니즘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slamansikopedisi.org.tr/orkun-huseyin-namik>

● 참고문헌(오프라인) Hacaloğlu, Yücel. Ölümünün 50. Yılında Prof. Dr. Hüseyin Namık Orkun, Ankara, 2006.

Çimen, S. G. Hüseyin Namık Orkun'un Hayatı ve Eserleri, Ankara, 2011.

Sançar, Nejdet. "Hüseyin Namık Orkun'un Kitapları, Makaleleri ve Hakkında Yazılanlar". Türk Kütüphaneciler Derneği Bülteni. V/1-2, Ankara, 1950, s.83~118.

I H288 | 휘세인 자비드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작가 ● 유형 소분류2 희곡
- 집필자 오은경 (자문위원 : Vaqif Sultanlı) ● 라틴 문자 Hussein Javid

휘세인 자비드(Hüseyn Cavid)는 1882년 10월 24일 나흐츠반(Naxçıvan) 시에서 태어났다. 가족은 최고 이슬람 종교지도자인 루하니 집안이었다. 그는 일종의 신학교인 몰라학교(molla məktəbi)에서 초등교육을 받은 후, 매함매드 타그 시드기(Məhəmməd Tağı Sidqi)의 매크태브-태르비아(Məktəbi-tərbiyə)라는 근대식 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았다. 1899년~1903년에는 남부 아제르바이잔(현재 이란 북부)의 도시 태브리즈(Təbriz)에 있는 마드라사(Talibiyə mədrəsəsi)에서 교육을 받았다. 그는 이 마드라사에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배웠다. 1906년에는 이스탄불(İstanbul)로 유학을 가서, 1909년에 이스탄불 대학교(İstanbul Universiteti) 인문대학을 졸업했다. 그 이후 나흐츠반(Naxçıvan), 간자(Gəncə)와 티빌리스(Tiflis) 그리고 1915년 바쿠(Bakı)에서 교사로 일했다.



휘세인 자비드 기념동상

휘세인 자비드는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로 창작활동을 했다. 서정시, 서정적 서사시, 서사시 등을 썼다. 그는 아제르바이잔 문학사에서 비극과 희곡을 쓴 첫번째 저자로 인정받는다.

첫 시집인 『지난 날들(Keçmiş günlər)』은 1913년에 출판됐다. 그러나 그는 주로 희곡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가정사와 관련된 희곡 작품들은 형식 면에서 새로운 아제르바이잔 희곡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또한 그가 관여한 자비드 극장(Cavid teatr)은 국립 극장 문화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극본은 보편적이면서도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들을 반영했다.

그가 극예술 장르에서 쓴 첫 작품은 「어머니(Ana)」란 희곡이다. 이 작품은 아제르바이잔 문

학사에서 첫번째 서정적 희극이다. 또 『셰이크 세난(Şeyx Sənan, 1914)』이란 작품에서는 민족을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 보편적인 종교 개념을 내세웠다. 그는 1920년~1930년에는 역사극들을 저술했는데, 대표작으로는 『선지자(Peyğəmbər, 1922)』, 『절름발이 티무르(Topal Teymur, 1925)』, 『세야부쉬(Səyavuş, 1933)』, 『해암(Xəyyam, 1935)』 등이 있다.

그는 억압적 소비에트 정권의 희생자였다. 1938년 체포돼 시베리아(Sibir)의 마가단(Maqadan)으로 유배됐다. 이어 1941년에 이르쿠츠크(İrkutsk) 지역의 타이셰트(Tayşet) 지구에서 사망했다. 그가 죽은 후인 1956년 3월 6일 아제르바이잔 SSR의 대법원은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1982년에 그의 유해는 시베리아에서 아제르바이잔으로 송환되어 나흐츠반(Naxçıvan)에 안장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후세인 자비드, 후세인 자비드

● 다국어 표기 Hüseyin Cavid(튀르키예어), Гусейн Джавид(러시아어), Hüseyin Cavid(아제르바이잔어)

● 연관 검색어 아제르바이잔, 마드라사, 이스탄불, 바쿠

● 참고문헌(오프라인) Cəfər Məmməd, *Hüseyn Cavid*, Bakı: Azərənəşr, 1960.

Əliyev Kamram, *Hüseyn Cavid: həyatı və yaradıcılığı*, Bakı: Elm nəşriyyatı, 2008.

Hüseyn Cavid, Əsərləri, Beş cildə, I-V cildlər, Bakı: Elm nəşriyyatı, 2007.

Turan Azər, *Cavidnamə*, Bakı: Elm və təhsil nəşriyyatı, 2010.

Türkcəl Mustafə Haqqı, *Azərbaycan türk şairi Hüeyn Cavid*, Bakı: Nurlan nəşriyyatı, 2002.

I H289 | 훈카르 이스켈레시 조약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조약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Treaty of Hünkâr İskelesi

훈카르 이스켈레시(Hünkâr iskelesi, 훈카르 부두) 조약 또는 ‘훈카르 이스켈레시’의 러시아식 표기인 운키아르 스킨레시(Unkiar Skelessi) 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이 조약은 1833년 7월 8일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사이에 맺어진 방위 협정이다.

1805년 이집트 총독을 장악한 후 이곳에서 권력을 강화한 메흐메드 알리 파샤(Mehmed Ali Paşa, 1769년~1849년)는 다양한 조치와 개혁을 통해 이집트에서 독립 국가 수립을 도모하고, 1832년 오스만 제국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다. 이집트군은 1832년 12월 21일 코니아(Konya)에서 오스만군을 격파하여 1833년 2월 2일에는 쿠타히아(Kütahya)까지 진격하여 이스탄불을 위협하게 되었다. 이에 오스만 정부는 러시아에 원조를 요청하려 했다. 그러나 1799년에 러시아와 맺었던 동맹에서 지나친 원조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상기한 오스만 제국은 마지막까지 원조를 미루고 외교적 균형을 위하여 영국과 프랑스와 접촉했으며, 이에 불안감을 느낀 러시아는 1833년 2월 20일 함선 8대를 흑해를 통해 보내 뷁익데레(Büyükdere) 앞에 정박시켰다. 영국과 프랑스는 오스만 정부의 요청에 무관심했기에 결국 1833년 3월 말, 러시아 육군의 상륙을 허가했고, 4월 5일 러시아군은 베이코즈(Beykoz)에 상륙하여 흰카르 부두(Hünkâr iskelesi: 흰카르 이스켈레시)에 본부를 세웠다. 이와 동시에 오스만 제국은 이집트군과 쿠타히아에서 협상을 하여, 이집트 주와 시리아 주를 메흐메드 알리 파샤에게 넘기고, 이집트군을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칙령은 5월 6일에 발표되었다.

한편 러시아 측은 5월 5일 이스탄불로 특사를 보내 이 원조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고, 오스만 측은 결정하지 못한 채 거부하는 상황을 이어갔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영국과 프랑스가 해상 시위를 이어갔다. 결국, 오스만 측은 두 차례의 회담에 걸쳐 7월 8일에 ‘흰카르 이스켈레시 조약’을 맺게 되었다. 조약에 서명한 이틀 후, 러시아 함대와 13,000명~15,000명에 달하는 러시아 병사는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출항했다.

8년간 유효한 본 협정은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1조항은 비밀 조항이었다. 1조에서 6조에 걸쳐 영원한 평화와 동맹을 약속하고, 상호 군사적 지원을 협의했고, 원조를 받은 쪽이 파견될 군사에 대한 식비를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비밀 조항에서는 앞서 언급한 원조의 대가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대가로 러시아가 필요한 경우 차낙칼레 해협(Çanakkale Boğazi) 즉 다르다넬스 해협의 폐쇄를 요구했다. 다시 말해 다르다넬스 해협에 어떠한 외국 선박의 통과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었다. 이 외국 선박에 러시아 군함이 포함되지 않는지 여부는 후에 논쟁의 여지를 남겼으나, 러시아 군함이 해협을 통과하여 지중해로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준 이 비밀 조항이 알려지자 유럽 각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러시아군이 철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비밀 조항이 드러나게 되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

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항의하며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해군을 파견했다. 또한, 이런 협약이 발발하게 된 원인을 이집트의 반란을 보며 이집트 문제 해결과 함께 오스만 제국의 노선에 주목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은 러시아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노선을 취하는 범위에서 중재를 시도했다.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는 1833년 9월 18일 뮌헨그라츠(Münchengraetz) 조약을 맺어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왕조의 손에 남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는 데 공동의 입장을 취하기로 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메흐메드 알리 파샤가 오스만 왕조를 계승한다면, 유럽 영토에 대하여 주권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오스만 제국이 붕괴 시 발칸반도에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등 유럽 국가들의 균형을 방해할 사안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항들이 있었다.

1841년 7월 13일 런던 협약(Convention of London)이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간에 맺어졌고, 이 협약에 따라 보스포러스 해협과 다르다넬스 해협에 평시 모든 외국 군함에 대하여 폐쇄할 것을 오스만 제국에 요구했다. 또한, 같은 해 기한이 만료된 헝가르 이스켈레시 조약은 갱신되지 않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운키아르 스킨레시 조약, 웅키아르 스킨레시 조약
- 다국어 표기 Hünkâr İskeleyi Antlaşması(튀르키예어), Ункяр-Искелесийский договор(러시아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Beydilli, Kemal. "HÜNKÂR İSKELESİ ANTLAŞMASI". *TDV İslâm Ansiklopedisi* cilt 18. Istanbul: TDV. 1998. pp.488~490.
- Gencer, Fatih. "Hünkâr İskeleyi Antlaşmasını Hazırlayan Koşullar". *Tarih Okulu Dergisi* Haziran 8, Sayı XXII. 2015. pp.135~160.

I H290 | 흉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지리 ● 유형 소분류1 민족 ● 유형 소분류2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u

흉노는 B.C. 4세기부터 A.D. 5세기까지 북아시아 스텝 지역에 전제한 유목 제국이다. 기원전

209년에 목특 선우가 짧은 기간(B.C. 209년~B.C. 174년) 동안 주변의 유목 집단을 연합해서 최초의 유목 제국을 건설했다. 알타이-샤얀 산맥에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해서 시베리아 남부, 만주 서부, 중국의 내몽골 자치구, 감숙성, 신강성까지 분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노인의 기원과 계통은 크게 몽골계와 투르크계 설이 있다. 투르크계라는 학설은 초창기 학자의 대부분이 투르크학을 전공하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몽골에서는 흉노인을 몽골인의 조상이라고 여기고 몽골의 국가 형성 시기를 흉노로부터로 판단하고 있다. 고대 투르크인을 언어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현 튀르키예인으로 판단해서 큰 눈과 높은 코, 많은 수염을 특징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 돌궐국을 세워 활동했던 투르크인은 몽골인과 닮은 북아시아 인종이다.

최근에는 유전학적 분석을 통해서 흉노인의 계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르한 톨고이 유적에서 출토된 62구의 분석을 한 결과 대부분 모계는 동일하고, 일부는 부계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유적에 묻힌 사람들은 한 씨족이나 부족의 사람이다. 몽골 동부의 귀족 무덤인 도르릭 나르스 유적에서 출토된 인골을 분석한 결과 현재 몽골 인종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배장묘에서 발견된 인골은 부계는 하플라 그룹으로 인도유럽계 인종으로 현재 인도의 최고 계층인 브라만 사람들의 특징적인 유전적 해석이다. 그 외에도 몽골 여러 지역의 흉노 무덤에서 출토된 인골의 DNA 분석 결과 동아시아나 시베리아 인종에서 확인되는 유전적 특징이 대표적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흉노인

● 다국어 표기 Сяунну(러시아어), Xiongnu(영어)

● 연관 검색어 목특 선우

● 참고문헌(온라인) <http://gumilevica.kulichki.net/articles/Article21.htm>

● 참고문헌(오프라인) G. 에릭젠·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Ковалёв А. А. (2002). Происхождение хунну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истории и археологии. // Европа — Азия: Проблемы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актов. К 300-летию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Пб.

I H291 | 흉노 마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마구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u's Harness

흉노 마구는 굴레 세트와 안장 세트로 구분된다. 굴레는 고삐를 채우기 위해서 말의 얼굴에 고정하는 줄로 재갈 및 재갈멈추개에 연결해서 사용하게 된다. 마구 가운데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철제로 된 재갈과 재갈멈추개이다.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보르한 톨고이에서 출토된 I자형 골제 재갈로 양쪽에 구멍을 뚫은 초보적인 형태이다.

일반적인 재갈은 양쪽 끝에 대형 고리가 안쪽 끝에는 소형 고리가 있는 철제 재갈로 소형 고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된다. 재갈멈추개는 뼈, 철, 청동으로 제작되는데, 끝 부분에 동물 장식을 많이 넣기도 한다. 사슴뿔의 끝 부분을 적당한 길이로 자른 다음에 두 개의 구멍을 뚫어 만들어 모양이 다양하다. 대부분 I자형이지만 S자형도 있다. 도르륵 나르스 유적 2호 출토 재갈멈추개는 원형 장식을 도금해서 화려하게 제작된 것이다. 금동의 원형 장식을 부착한 철제 멈추개 8점이 출토되었다. 청동제로 유명한 것은 골모드 유적과 골모드 II유적의 대형 무덤이다.

굴레 장식은 끈의 교차 부위나 연결 부위에 부착함으로써 끈을 결구하게 할 수 있는 장식으로 뒷면에는 II자형과 V자형 걸이에 끈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다. 골제 장식은 금, 은 혹은 청동으로 제작된 것으로 주로 묘도가 있는 방형의 적석 무덤이나 대형 무덤에서 발견된다. 유적마다 굴레 장식의 형태가 달라서 흥미롭다. 동물 모양 굴레 장식도 발견되는데 투브 아이막의 체르틴 저 유적에서 표범, 돈드고비 아이막 박물관에는 곰의 형상을 한 굴레 장식도 있다. 금과 은으로 제작된 굴레 장식은 골모드 유적 20호, 골모드 II유적 1호, 노용 올 유적 6호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골모드 유적 20호에서는 버섯 모양으로 철제에 은박을 입힌 것이다. 골모드 II유적 1호에서는 타출 기법으로 표범 새끼를 형상화했으며 문양 사이에는 터키석을 감입해서 화려하게 장식했다.

흉노 무덤의 일부에는 금속제 마구와 함께 굴레의 끈도 발견되었다. 가죽끈을 접어서 붉은색, 녹색, 흰색 실 등으로 바느질하여 연결한 것으로 폭은 1.5cm 가량이다. 마면 장식도 발견되는데 노용 올 20호 유적에서 금동제 마면, 골 모드 II유적의 1호가 유명하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흉노 마구
- 다국어 표기 Сбруя Хунн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G. 에릭젠, 「흉노 마구와 마차」, 『동양미술사학』 제9호, 2019.
- G. 에릭젠 · 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I H292 | 흉노 옥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공예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u's Jade

흉노 무덤에도 다양한 옥기가 발견되는데, 허리 띠에 매달아 장식하던 송곳니 모양의 옥 장식, 신화적인 동물 문양을 새긴 옥판, 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모양의 옥기, 매장 시에 사용하는 의례용 옥기 등이 있다. 대형 무덤에서는 피장자의 영혼을 보호한다고 믿어 장례에도 옥이 사용되었다. 시신의 가슴에 두는 옥벽과 인체 9개의 구멍을 막는 색옥이 출토되었다. 골모드 II유적 1호 무덤에서 발견된 옥기가 가장 화려하다.

둥근 원판형 옥기에 구멍이 뚫려 있는 옥벽의 형태이고, 그 상단에 손잡이가 형성되어 있다. 작은 원을 양쪽에서 물고 있는 두 마리의 신화적 동물을 별도로 장식한 것이다. 이 동물은 몸통은 용과 같지만 머리는 표범 머리를 했고 이마에는 뿔이 달려 있다. 옥벽의 가장자리에는 용 한 마리와 신화적인 동물 일곱 마리가 서로 싸우는 장면을 표현한 것이다. 중앙의 넓은 면에는 작은 원형 돌기를 4열



흉노 옥벽
Source: 초원의 대제국 흉노-몽골 발굴조사 성과전
(국립제주박물관, 2013)

로 120개 가량이 표현되어 있다. 옥벽의 손잡이에 표현된 신화적 동물 표현은 금은 마구 장식이 나 마차의 청동 부품에서도 확인되고 있어서 무덤의 주인 혹은 씨족의 상징이었을 수 있다. 도르릭 나르스 유적 1호 무덤에서도 원반형 옥기 3점이 출토되었다. 테두리를 따라 소와 유사한 뿔이 있는 동물 문양을 네 방향에 맞추어 표현했고, 그 내부에도 공간을 분할 하여 동물 문양을 장식했다. 2호 무덤에서도 피장자의 가슴 부근에서 옥벽을 포함한 옥 장식이 출토되었다. 원판 모양으로 구멍이 뚫려 있다. 무늬는 사격자 위에 가로선을 그어 작은 원형 돌기 문양을 만들었다.

노인 올라 유적 1호에서 나온 원반형 옥기는 문양은 없지만 녹색의 좋은 품질의 옥을 사용한 것이다. 원반형 외에도 반고리형, 타원형, 관옥형 등 여러 형태의 옥기 끝에 구멍이 뚫린 채 발견되었는데, 의복에 부착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노인 올라 유적 25호와 12호 무덤에서는 사람 모양의 옥기와 용 문양을 화려하게 새긴 옥기 등이 출토되었는데, 의례용 옥기와는 형태와 사용처가 달라서 상징물이나 장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흉노 옥기

● 다국어 표기 Нефрит Хүнн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G. 에렉젠·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Полосьмак Н. В., Богданов Е. С. Ноин-улинская коллекция.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2006~2012 гг. —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 2016.

I H293 | 흉노의 마차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마차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u's chariots

흉노의 최상위급으로 추정되는 무덤에서는 적석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대부분 흑철을 하고 청동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것이다. 노인 올라 유적 20호, 골 모두 유적 1호와 20호 무덤, 도르



홍노의 마차 출토상태
 Source: 초원의 대제국 홍노-몽골 발굴조사 성과전
 (국립제주박물관, 2013)



홍노의 마차 부속구
 Source: 초원의 대제국 홍노-몽골 발굴조사 성과전
 (국립제주박물관, 2013)

릭 나르스 유적 1호와 2호 무덤, 골 모드-II유적 1호 무덤에서 마차가 발견되었다. 대부분 양산이 세워진 의례용 마차이다. 노인 올라 20호 무덤과 골 모드 II유적 1호 무덤의 마차는 흑칠 바탕에 붉은색과 흰색으로 문양을 장식한 것이다. 문양 사이에는 한자로 보이는 문자가 발견되었고, 도르릭 나르스 유적 2호 무덤의 흑칠 마차는 바퀴에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특징이다.

완형이 아니라도 흉노 무덤에서 마차 부속품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무덤에 마차를 부장하는 풍습이 있었을 수 있다. 한 무덤에 한 개체의 마차가 부장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대 또는 10여 대의 마차 부속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골 모드 유적 1호 무덤에서는 2대의 마차 부품, 골모드 II유적에서는 10여 대의 마차 부품이 발견되었다. 마차 부속품은 차관, 축두, 양산의 꼭지, 차 위를 장식했던 장식품 등이다. 마차는 바퀴가 2개이고 방형 모양의 차상 위에 양산을 식은 것으로 중국 한 대 마차와 유사하다. 마차는 형태 및 제작 방법으로 옷으로 칠한 것이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서 교역품이거나 한나라의 선물이었을 수 있다. 흉노에 마차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유라시아 초원의 유목민들도 마차를 사용했다. 특히 청동기 시대 안드로노보 문화에서부터 마차의 존재가 실제 유적과 암각화 등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흉노 무덤에서 발견된 마차를 모두 한나라의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텡시 올 유적, 히르기스 홀로이 유적 등 원형의 적석 무덤에서 마차 부품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골모드 II유적 1호 무덤에서 발견된 마차 부품 중에 뿔이 달린 포범과 같은 변형 동물이 있는 청동 제품이 발견되었는데, 옥기에서 발견되는 표현과 유사하다. 동물 문양은 씨족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유적 출토의 마차를 흉노 제품으로 보는 연구 관점도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흉노의 마차

● 다국어 표기 колесницы Хунн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Полосьмак Н.В., Богданов Е.С., Ноин-улинская коллекция.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2006~2012 гг.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 176 с. 2016.

G. 에릭센·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I H294 | 흉노의 장식 마구

- 시기 B.C.~A.D.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마구
- 집필자 김재운 ● 라틴 문자 Xiongnu's harness ornaments

흉노의 장식 마구는 말띠 드리개와 말띠 꾸미개가 있다.

말띠 드리개는 행엽(杏葉)이라고도 불리는데, 말의 엉덩이 부분을 감싸는 줄에 달려서 말의 뒤를 장식하던 마구이다. 흉노의 말띠 드리개는 긴 뿔이 달린 일각수가 앞 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은제 장식판으로 제작된 것이다. 뒷면에는 위와 중앙에서 끈이 관통할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렸던 흔적이 남아 있다. 골 모드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같은 본에서 압출 기법으로 성형되었으나 세부적으로 조금씩 달라서 같은 본으로 압출한 후 각기 다듬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드리개의 크기는 13cm~14cm 정도인데 매우 세밀하게 압축되었다. 일각수의 뿔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연주문이 둘러져 있는데, 작은 원문으로 표현된 형식과 약회되어 선각으로 표현된 형식으로 구분된다. 말띠

드리개는 골모드 II유적 1호에서 은제와 금제로 된 것이 출토되었다. 이 외에도 노인 올라 20호, 차람 7호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말띠 드리개는 꾸미개보다 더 많은 동물이 표현되었는데, 일각수를 비롯해서 산양, 야크, 사슴, 용 등이다. 용은 원형의 말띠 꾸미개에서는 발견된 바 없다. 노인 올라 20호에서는 산양, 일각수, 용이 표현된 말띠 드리개가 제작되어서 출토되었다. 철제 재



흉노의 마구들

갈과 짝을 이루어서 출토되었는데, 은으로 제작되었고 도금된 것이다.

용문의 표현 방법으로는 여자문인데, 용의 가슴과 다리에 여자 문양을 찍어서 세부 표현을 강조했다. 여자문은 여자정이 있어야 찍을 수 있는 문양으로 장인들과의 인적 교류가 필요하다. 그런데 몽골의 여자정이 아프카니스탄의 티라테페 유적의 2호묘에서 출토된 여성 형상물의 이마에서 발견된 바 있다. 아프카니스탄의 티라 테페 유적은 박트리아 멸망 후 쿠산 왕조 직전에 축조된 무덤 유적으로 B.C. 1세기~A.D. 1세기 사이의 유적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흉노와 박트리아 지역의 장인들이 서로 교류했을 가능성도 추정해 볼 수 있다.

흉노의 말띠 꾸미개는 말의 가슴걸이에 장식했던 원판형 장식 마구인데, 주로 마차를 모는 말에게 장식으로 사용되었다. 원뿔 모양의 뿔이 달린 굽 동물이 무릎을 꿇어 앉은 자세로 장식되어 있는데 타출 기법으로 제작된 것이다. 뿔이 하나 있어서 주로 일각수로 불리며, 날개가 달려 있는 환상의 동물이다. 몸통의 동물은 가젤 혹은 영양, 사슴 등 굽동물이다. 동물의 뿔 옆과 다리 사이에는 구름 문양을 그려서 신비해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뒷면에는 철판으로 보강되어 있어서 장식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골모드 유적 20호에서 나온 출토 유물은 함께 출토된 한식 거울 규구경이 출토되어서 기원후 1세기경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골 모드 유적 20호 출토 말띠 꾸미개의 일각수와 유사한 동물이 표현된 말띠 꾸미개는 제2대 창읍왕(昌邑王) 이자 해훈후(海昏侯) 유하(劉賀)의 무덤에서 유사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강서성(江西省) 남창시(南昌市) 해훈후묘(海昏侯墓)에서 출토된 것이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흉노의 말띠 드리개, 흉노의 말띠 꾸미개, 흉노의 은제 말띠 꾸미개

● 다국어 표기 украшения упряжи Хунну / Серебряная бляха Хунн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Полосьмак Н.В., Богданов Е.С., Цэвээндорж Д. Двадцатый ноин-улинский курган.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 2011.

G. 에릭젠·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I H295 | 흉노의 장신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공예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u's ornaments

흉노 사람들의 장신구는 귀걸이, 목걸이, 골제 비녀 등이 있다. 귀걸이는 보석을 넣을 수 있는 감입부를 만든 다음 주변에도 원형 틀과 작은 황금 알갱이를 덧붙여서 장식을 더했고, 귀걸이 장식 뒤에는 귀에 걸 수 있도록 고리가 달리도록 제작되었다. 머리 장식인 골제 비녀가 상당수 발견되었다. 막대기 끝에 장방형이나 파피프 모양으로 보르한 돌고이 유적 33호에서 여성의 두 개골 아래에서 부러진 상태로 발견된 예가 있다.

대부분 한 개씩만 나오지만, 일부 무덤에서는 쌍으로 발견되기도 한다. 여성용으로 생각되지



흉노의 장신구

Source: 초원의 대제국 흉노-몽골 발굴조사 성과전
(국립제주박물관, 2013)

만 남성 무덤에서도 출토된 예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50여 기의 무덤에서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한 장신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목걸이를 만들었던 구슬 장신구도 다양으로 출토된다. 돌, 유리, 뼈, 조개 등을 이용해서 풍선형, 원형, 타원형, 방형, 다각형 등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흉노 무덤 유적에서는 이집트,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타지에서 수입된 유물들도 발견된다. 석제는 터키석, 호박, 마노 등의 종류가 많다. 도르릭 나르스 유적 2호 무덤에서 물새 모양의 구슬과 벨섹 유적 4호에서 발견된 물방울 모양의 구슬을 청금석으로 제작된 것이다. 청금석은 여러 곳에 산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된 것은 아프카니스탄의 바디크산 주에 있는 것이다. 이 광산은 기원전 7,000년 신석기 시대부터 채굴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소아시아, 이집트, 각지에서 청금석 유물은 이 광산에서 채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리는 썸보링 유적, 누흐팅 암 유적, 우구무르 올 유적, 호드긴 툄고이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유리에 은박을 입힌 구슬도 발견되었다. 특히 골모드 유적 1호에서 나온 유리 구슬은 여러 색상을 띠는 유리를 섞어 만든 구슬도 발견되었다.

● 참고문헌(오프라인) G. 에렉젠·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I H296 | 흉노의 청동 거울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공예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u's Bronze Mirror

흉노 무덤에서 출토되는 청동 거울은 크게 2종류가 있는데 알타이와 카자흐스탄의 스키타이 문화에 속하는 무덤에서 많이 출토되는 종류와 중국 한경이다. 전자가 출토되는 유적은 수후바타르 아이막 텔게르한 올 유적의 5호 무덤, 아르항가이 아이막 골모드 II 유적의 1호 무덤 22호 배장묘 등에서 청동 거울의 한 쪽에 돌기가 있는 원형의 홈이 있는 손잡이 장식이 있다.

몽골과 자바이칼 지역의 흉노 무덤에서는 한나라 청동 거울이 100점 이상 출토되었다. 흉노



흉노의 청동거울

Source: 초원의 대제국 흉노-몽골 발굴조사 성과전
(국립제주박물관, 2013)

무덤의 한경은 소명경, 일광경, 사유사신경, 규구경 등이 많고, 뇌전연호문경도 일부 발견된다. 동경의 연대는 서한 중 말기부터 동한초까지이다. 흉노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중국 한나라 거울은 깨진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셀렝게 아이막 우구무르 올 유적 2호 무덤에서도 파편으로 흩어져 있었으나 완형 복원이 가능하고, 뉴에 매달려 있는 비단 줄도 발견되었다.

도르릭 나르스 유적의 1호 무덤 주변에는 반으로 깨진 청동 거울과 나무 빗이 갈색 직물에 싸여서 함께 출토되었다. 직물의 흔적만 남아 있지만 거울과 빗은 갈색 주머니에 담겨 있었다. 이는 무덤의 주인공이 사망하게 되면 거울을 깨뜨려 부장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철기 시대인 스키타이 문화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풍습이다. 몽골의 샤먼은 거울을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상징적인 도구로 보고 의례를 행할 때 거울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념으로 볼 때 흉노 무덤에서 출토되는 청동 거울은 피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의도적으로 청동 거울을 깨뜨리는 행위도 나쁜 영혼을 쫓아내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 다국어 표기 Бронзовое зеркало Хунн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G. 에렉젠·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I H297 | 흉노의 청동 솥

● 시기 B.C.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공예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u's bronze cauldron



흉노의 청동 솥

흉노 무덤에서 발견된 청동 솥은 스키타이 시대부터 지속적으로 출토되는 유물이다. 기형은 동체부가 길쭉하고 구연부가 좁으며 바닥은 따로 나팔상으로 붙은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흉노 무덤에서 많이 발굴되면서 청동 솥의 수량은 스키타이 무덤 출토품보다 더 많아졌다. 기형에 따라 저부가 편평한 것과 굽다리가 부착된 것으로 구분된다. 저부가 편평한 것은 규모가 작고 말 안장에 매달아 다닐 수 있는 이동용 솥이고, 굽다리가 부착된 동복은 의례용 솥으로 추정된다.

청동 솥은 거푸집에서 주조된 것인데, 다리 부분은 별도로 만들어 부착시킨 것이다. 굽다리는 철로 만들어지고, 동체부

는 청동으로 주조된 것도 다수 확인된다. 주로 저부가 편평한 솥은 구연부의 가장자리에 두 개의 손잡이 달려 있는 반면에 굽다리가 있는 솥은 구연부에 부착한 손잡이 외에도 동체부 양쪽에

가로로 붙여 만든 손잡이도 적지 않게 발견된다. 손잡이의 형태는 반원형이 많은데, 방형도 있고, 상단에 세 개의 돌기가 있어 이전의 청동 솔과 구분된다.

청동 솔은 매장주체부의 머리 부분에 설치된 부장된 공간에서 주로 확인되는데, 내부에는 음식물로 생각되는 동물 뼈가 출토된다. 도르릭 나르스 유적 4호 무덤에서 출토된 동복 안에는 소의 등뼈가 있었는데, 구연부에는 가죽으로 덮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외에도 다리가 세 개 달린 청동 솔도 발견된다. 도르가 올 유적 9호 무덤, 골모드 유적 20호 무덤, 골모드-II유적 1호 무덤 등에서는 중국 한대의 청동 솔인 정(鼎)과 유사한 세 다리가 부착된 청동 솔이 출토되었다. 이 형태는 흉노의 전통 용기와는 거리가 멀고 한나라에서 수입된 제품으로 추정된다.

● 다국어 표기 *бронзовый котел Хунн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G. 에릭젠·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I H298 | 흉노의 카펫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공예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u's carpet

몽골의 흉노 무덤에서 발굴된 카펫은 몽골과 러시아 공동 조사단이 연구한 노인 올라 무덤에서 출토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코즐로프가 책임자로 발굴한 노인 올라 유적 6호 무덤에서 발견된 2.6m~1.95m의 카펫은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이다. 흰색의 펠트 위에 비단 아플리케 조각을 위에 붉은 대마줄을 이용해서 감침질해서 만든 것이다.

장방형 카펫은 중심에서부터 세 부분으로 공간분할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에는 동심원문, 그 가장자리에는 동물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동물 문양 중 5개는 뿔이 달린 소와 같은 동물이 호랑이와 비슷한 신화적 짐승과 싸우고 있는 모습이다. 4마리는 도망가는 사슴 등에 붙어 공격하고 있는 날개 달린 그리폰의 모습이다. 카펫에 아플리케 기법으로 부착된 동물 문양은 흉노 카펫



홍노의 카펫

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다. 카펫의 가장자리는 갈색 비단을 이용해서 마무리했다. 발굴 당시에 카펫 2점은 완형으로 발굴되었으나, 발굴 조사단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1점은 반으로 갈라서 몽골 조사단이 갖고, 나머지 반점과 1점은 러시아에서 보관해서 각각 몽골 국립중앙박물관과 러시아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동물 문양이 있는 카펫 외에도 인물이 등장하는 카펫이 20호 무덤에서 출토되었다. 9명의 높은 신분으로 보이는 남성이 색실로 장식해서 표현되었다. 같은 유적 31호 무덤에서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자수로 표현한 직물이 확인되었다.

직물 분석 결과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것임이 밝혀졌다. 자수 문양은 인도 북부의 사카 출신 장인에 의한 것이고 고대 인도와 페르시아에 전파된 조로아스터교의 행사 장면이 표현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월지가 지배했던 박트리아인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흉노의 카페트
- 다국어 표기 ковёр Хунн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Полосьмак Н.В., Богданов Е.С. Ноин-улинская коллекция.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российско-монго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2006~2012 гг. Новосибирск: «Инфолио». 176 с. 2016.
- Рденко С. И., Культура хуннов и ноинулинские курганы. - М.-Л.: Изд-во АН СССР. 1962.

I H299 | 흉노의 활과 화살

- 시기 B.C.~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러시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무기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u's bow and arrow

흉노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는 활과 화살이었다. 흉노 유적에서 출토된 활은 나무에 여러 개의 골제 부속구를 부착해서 만든 복합궁이다. 활 부속구의 숫자는 동일하지 않은데 6개, 7개, 10개, 11개로 추정된다. 부속구가 다양한 것은 사용자의 신체 크기나 나이 등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다. 골제 부속구의 크기를 기준으로 흉노 활의 길이는 1.4m~1.5m로 추정된다. 흉노의 복합궁은 그 이전 시대인 스키타이 시대의 활과는 차이가 큰데, 길이가 짧고 작다.

흉노 시대의 활이 파지리크 유적의 활에 비해서 두 배로 커지고 길어졌다. 화살촉은 철제, 청동제, 골제로 만들어졌고 철제 화살촉이 대다수이다. 흉노의 화살촉은 그 이전 시대인 스키타이 시대 및 이후의 화살촉보다 크다.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단면이 삼각형이면서 전체 형태가 세 방향으로 날개가 있는 삼익유경식 철촉이다. 길이가 12cm이고 날개가 6cm~7cm 가량인 대형 화살촉이다. 앞 부분이 날카롭고 뾰족하며 날개로 인해서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도 높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화살촉이 존재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달리 사용했을 것이다. 청동촉은 촉두는 청동, 경부는 철(철경동촉)로 제작된 것이다.

몽골의 고비에 위치한 토성 유적에서 한나라 청동 쇠뇌와 철경동촉이 함께 발견되었다. 하지만 흡스골 아이막의 솔로 톨고이 유적에서도 철경동촉이 삼익 유경식 철촉과 함께 공반되기도

하기 때문에 흉노의 복합궁과도 함께 사용되었을 것이다. 골제 화살촉은 날개가 2개 달린 삼각형과 네모 혹은 마름모꼴의 화살촉이 있다. 유성식 골제 화살촉은 습매의 형태에 따라서 I자형과 V자형으로 구분된다. 유적에 따라서는 목제 화살촉도 발견된다. 오브스 아이막 유적에 있는 울란 델르 유적에서는 화살을 쏘 때 소리를 내는 명적이 발견되었다.

목특 선우와 관련된 역사 기록에도 소리를 내는 화살촉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흉노 시대에 명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골모드 유적 43호 무덤과 도리릭 나르스 유적 2호 무덤에서는 화살통의 흔적도 발견된다. 도리릭 나르스 유적의 화살통은 길쭉한 기형에 표면에는 흑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문양을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다. 흉노 무덤에서 발견된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화살통은 몽골 제국 시대까지 1천 년간 별다른 변화 없이 사용되었다.

- 다국어 표기 *лук и стрела Хунн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G. 에렉젠·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I H300 | 흉노 의복과 의복 장신구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의복, 공예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u clothes

흉노인의 의복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물 가죽이나 털로 제작했는데, 유목 생활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중국 문헌에도 가축 동물의 가죽과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동물의 털로 만든 이불을 덮고 잔다고 기술되어 있다. 흉노인의 옷은 말을 타기 적합하도록 고안되었을 것이지만 나중에 한나라 등 다른 나라와 교역하면서 의복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관련된 기록이 사서의 흉노열전에도 남아 있다.

흉노 의복의 실물 자료는 잔존 상태가 좋지 않지만 1920년대 러시아 루덴코가 발굴한 노인 올라 6호와 24호에서 확인된다. 비단으로 된 상의, 하의, 버선, 모자 등이 남아 있다. 그중에서



흥노 의복

6호에 남아 있는 모자의 앞 부분에는 원형 펜던트가 붙어 있고 뒷 부분은 끈으로 묶도록 되어 있다. 일반 모자라기 보다는 샤먼의 것이다. 또한 비단으로 된 상의는 소매가 넓어서 유목 생활에 적당하지 않다.

출토될 당시에도 피장자가 직접 입고 있던 의복이 아니라 목곽 안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노인울라 6호 출토 비단 상의는 한나라로부터 선물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울라 6호는 의복과 모자로 보아서 여성 샤먼이나 왕의 무덤으로 보인다.

흥노의 의복은 비단, 직물, 가죽, 털과 같은 유기 물질로 제작되어 땅속에서 오랫동안 보존되기 어려운 반면에 옷에 부착된 장신구들은 돌, 보속, 뼈, 금속 등으로 제작되어서 잘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골모드 유적의 20호에서 출토된 금제 옷 장식 10점이 유명하다. 원형, C자형, 꽃 모양인데, 금으로 제작되고 그 안을 하늘색 터키석으로 상감한 것이다. 틀 바깥에는 금 알갱이를 붙이는 누금 세공 방식으로 장식되었다. 장신구의 뒷면에 핀 하나가 부착되어 옷 장식임을 알 수 있었다. 비슷한 유물은 도르릭 나르스와 골모드 II유적, 울란 씨베르 유적 9호 무덤에서도 발견된다.

동물 문양의 옷 장식도 발견되는데 알타이에서 발견된 파지리크 문화의 대형 무덤, 카자스스탄 이식 고분에서 발견된 황금 인간, 투바의 아르잔 출토품에서 발견되어 스키타이 문화의 영향이 흉노 문화에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키타이 문화에서 동물 장식은 벽사의 개념이었다면, 흉노 문화에서는 전사였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옷에 달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몽골의 흉노 의복과 장신구
- 다국어 표기 Одежда и Украшения одежды Хунну (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С.И. Руденко. Культура хуннов и Ноинулинские курганы.// М.-Л.: 206 с. 1962.
- G. 에릭센 · 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I H301 | 흉노 칠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공예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o Lacquer

칠기는 나무 그릇에 옷칠을 해서 물이 새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색칠을 함으로써 심미적인 효과를 주는 유물로 흉노 무덤에서 다수 확인된다. 하지만 무덤에서 발견될 당시에는 대부분 형태의 파악이 힘들다. 주로 칠 내부의 나무 용기가 이미 없어지고 칠한 겉면만 남아 있어서 그 원형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흉노 무덤에서 칠기가 출토된 경우는 60여 기이지만, 그나마 그릇의 형태가 남아 있는 유적은 노용 올 6호, 20호, 23호, 24호, 도르륵 나르스 유적 1호, 찬드만 하르 올 유적 7호 등에서는 잘 남아 있다. 칠기의 그릇 기형은 칠이배, 칠반(漆盤), 칠렴(漆奩)이 있고 칠 수저 등도 발견된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칠이배로 타원형의 평면 형태에 구연부 양쪽에 귀가 달린 나무 잔으로 손잡이 부분에 금동을 입혀 화려하게 장식된 것도 있다.

노용 올 6호는 러시아 학자 코즐로프가 발굴한 무덤인데, 새 그림이 있는 칠이배가 출토되었



홍노 칠기

다. 칠기에는 17자의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저부의 테두리에는 ‘建坪五年九月 工王潭經 畫工獲 壺天武雀’, 바닥의 중앙에도 ‘上林’이라는 명문이 있다. 그런데 테두리의 글자는 제작 당시에 적혀진 것이지만 중앙의 명문은 글자의 크기와 획으로 보아서 별도로 새겨진 것이다. 테두리의 글자는 건평 5년 9월에 공인인 王潭經이 제작하고 화공인 獲이 그렸고 감독인 武가 검사했다는 내용이다. 건평 5년은 기원전 2년으로 상림은 한나라 장안궁의 상림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용 올 유적에서 시모코브가 조사한 무덤은 6호와 같은 형태의 칠이배가 나왔다. 칠의 색은 황색이고, 새의 그림이 있지만 6호묘 칠기의 새 모양과는 차이가 있다. 칠이배 저부의 테두리에는 67자의 글자가 남아 있고, 2자는 없어졌다. 그 대용은 유물의 크기와 용량, 제작 장소 및 공정의 담당까지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은 것으로 건평 5년에 제작된 것이다. 현재의 중국 사천성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몽골과 러시아 공동 조사단이 발굴한 노용 올 20호 무덤에서도 2점의 명문이 남아 있는 칠이배가 조사되었는데, 각각 46자와 8자가 남아 있다. 노용 올 31호 무덤에서도 칠이배가 3점 발견되었고 부호와 명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노고비 아이막 찬드만 하르 올 유적 7호에서도 칠이배가 출토되었다. 앞서 나온 무덤 구조와는 달리 대형 무덤이 아니라 소형의 원형 적석 무덤에서 발견되어서 주목된다.

표면에는 노용 올 유적 시모코브 무덤 출토품과 유사한 새 두 마리가 장식되었고, 저부의 테두리에 명민이 남아 있다. 그 내용은 제작 연대와 공방이 적힌 것으로 서한 14대 황제의 연호인 원시(元始)가 적혀 있었는데, 기원후 1년에 해당하고, 축군의 서공(西工)이라는 공방에서 제작된 것이다. 골모드 유적 20호에서는 명문이 있는 칠반이 출토되었다. 영시(永始)는 성제의 연호로 기원전 16년에 해당된다. 흉노 무덤에서 출토된 칠기는 한나라에서 수입된 유물이고 주로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흉노의 칠기

● 다국어 표기 лак Хунн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Полосьмак Н. В., Богданов Е. С. Цэвээндорж Д., ЭрденеОчир Н. Изучение погребального сооружения кургана 20 в Ноин-Уле (Монголия) // Археология, этнография и антропология Евразии. 2008, № 2. С. 77—87.

G. 에릭센·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I H302 | 흉노 토기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토기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Xiongnu earthenware

흉노 토기는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로 볼 때 심발형 토기, 호, 옹, 동이, 시루, 기타 기종으로 구분된다. 무덤에서는 심발형 토기와 호가 세트로 부장되며, 대형 무덤에서는 옹과 등잔도 발견된다. 토기는 석립이 많이 혼입된 조질태토로, 발형 토기는 경부(목)과 견부(어깨) 부분이 발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흑갈색이나 적갈색이 많으며 소성 온도가 높지 않다. 어깨 부위에 파상문이 시문되며, 동체부에는 박자로 두드린 흔적이 많다. 중앙에는 방형의 홈이 있는데, 토기 성형을 위한 중심축의 흔으로 추정된다. 심발형 토기는 불을 직접 맞아 토기 표면이 박락되거나 그늘음이 부착된 경우가 많은데, 취사용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호와 옹류는 기본적



흥노 토기

으로 잔석립이 혼입되지 않은 니질 계통의 토기가 많다. 회색이 많지만 갈색이나 흑색도 있다.

바닥면 중앙에는 방형의 홈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토기 성형을 위한 회전대의 중심축 흔적이다. 입술 부위는 외반하며, 약하게 말아 접기도 했다. 2조의 횡침선 사이에 파상문을 시문하거나 별도의 장식 없이 횡침대만 있거나 중호문 또는 돌대를 장식하기도 한다. 동체부를 정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마연된 토기도 있다. 타날흔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토기의 성형은 회전대 위에서 테쌍기와 타날을 기본으로 하고 회전대를 이용해서 기형을 만들고 정면했다. 바



홍노 토기

Source: 초원의 대제국 홍노-몽골 발굴조사 성과전
(국립제주박물관, 2013)

닥의 중앙에는 심발형 토기와 회전대 방형 축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 문양을 새겨 별도의 부호를 나타낸 경우도 다수이다. 옹은 호에 비해서 대형으로 1m 정도 되며, 대형 고분에서 출토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흉노의 토기는 대부분 무덤에서 나온 것이지만, 버려 유적 등에서 발견된 토기에 자작 사용했던 골제 도구나 호스틴 볼락 유적의 토기 가마터 등을 통해 흉노인의 토기 생산 과정도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흉노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해서 토기를 생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편견이 있는데, 동 시기의 동아시아만큼 토기를 주요하게 사용하지 않았으나 생산한 유적도 있으며 무덤에서도 발견된다. 토기를 주요하게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식생활이 달랐기 때문이고, 대신에 목제 그릇이나 청동 그릇 및 청동 솥 등이 발견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흉노의 토기

● 다국어 표기 керамика Хунну(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G. 에렉젠·양시은. 『흉노, 몽골의 첫번째 유목제국, 흉노의 문화유산』, 진인진, 2017.

양시은, 「몽골 지역 흉노 토기의 제작기법 연구」, 『호서고고학』, 제38호, 2017.

| H303 | 흉노-훈 동족론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상 ● 유형 소분류2 이론
● 집필자 우덕찬 ● 라틴 문자 Relation to Hsiungnu and Hun

기원후 5세기 유럽 역사의 변혁을 가져온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Völkerwanderung)을 야기시킨 훈족이 흉노의 일파라는 흉노-훈 동족론 문제는 금세기 초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학계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대표적 문제이다. 훈족이 흉노에서 기원했다는 흉노-훈동족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흉노와 훈을 다루고 있는 동서 사료의 일치에 근거해서 이 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첫째, 1세기 후반의 지리학자인 오로시우스(Orosius)와 2세기 중엽의 지리학자인 프톨레

마이오스(Ptolemaios)가 작성한 지도에 당시 훈족이 거주했다고 표시된 지점들이 사기(史記)나 전한서(前漢書), 후한서(後漢書)에 전하는 흉노의 거주 지역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있다. 둘째, 위서(魏書), 북사(北史) 등 중국 사서에 4세기 후반 아랄해(Aral sea) 주변에 위치하던 알란(Alan: 奄蔡)이 흉노의 공격으로 멸망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 이 시기의 라틴 역사서에도 훈의 공격으로 알란국이 멸망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셋째, 북위(北魏)의 고종(高宗, 452년~465년)에게 보내진 소그드어 문서에 중국의 서진 시대(西晉時代, 266년~316년)의 흉노의 부족장이었던 유연(劉淵)이 평양(平陽)에서 황제로 칭하고 그의 아들 유충(劉聰)이 서진의 수도 낙양(洛陽)을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포로로 잡힌 소그드인(Sogdian)들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는데, 이 문서는 낙양을 함락시킨 흉노를 훈으로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히르스(Hirth) 비롯한 훈사 및 흉노사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동서 사료의 일치가 흉노-훈동족론 성립의 결정적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멘헨-헬펜(Maenchen-Helfen)을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들어 흉노와 훈은 동족이 아니라 상이한 민족이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첫째, 언어적으로 흉노와 훈이 같은 언어를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그동안 행해진 고고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흉노의 유물에서는 스키타이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동물 양식(animal style)이 발견되는데 훈의 유물에서는 이러한 동물 양식이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다.

흉노-훈동족론 문제는 동양 고대사와 서양 고대사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꼭 해결되어야 할 동양사, 서양사 관련 중요 과제라 생각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훈-흉노 동족론
- 다국어 표기 Relation to Hsiungnu and Hun(영어)
- 연관 검색어 흉노, 훈, 스키타이
- 멀티미디어 링크 www.history.com/topics/ancient-china/huns
- 참고문헌(오프라인) Atwood, Christopher P. "Huns and Xiōngnú: New Thoughts on an Old Problem". In Boeck, Brian J.; Martin, Russell E.; Rowland, Daniel (eds.). *Dubitando: Studies in History and Culture in Honor of Donald Ostrowski*.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 Heather, Peter. *The fall of the Roman Empire : a new history of Rome and the barbarian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Maenchen-Helfen, Otto J. "The Ethnic Name Hun". In Egerod, Soren (ed.). *Studia Serica Bernhard Karlgren dedicata*. Copenhagen. 1959.

우덕찬, 『중앙아시아사 개설』,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1.

I H304 | 흐드르 내비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 나라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명절 ● 유형 소분류2 의례
- 집필자 최선아 (자문위원 : Bədirxan Əhmədli) ● 라틴 문자 Xıdır Nebi

흐드르 내비(Xıdır Nəbi)는 역사 깊은 명절이자 명절 의식으로 지역에 따라 흐드르 일야스(Xıdır İlyas)라고도 한다. 흐드르 내비는 거의 모든 튀르크 민족이 축하하는 명절로 크드르엘래즈(Xıdırelləz) 또는 흐드르엘래즈(Hıdırelləz)라고 부르기도 한다. 아나톨리아반도와 발칸반도의 튀르크인은 흐드르엘래즈라고 부른다. 크드르엘래즈의 경우, ‘루지-흐즈르(Ruzi-Hızır)’ 즉 ‘흐즈르의 날(Xızır günü)’이라는 의미로, 예로부터 크드르엘래즈(Xıdırelləz)는 예언자 흐즈르(또는 키드르 Xızır/Khidr: 이슬람교의 예언자로 신비한 지식과 지혜의 소유자)와 예언자 일야스(또는 엘리야 İlyas/Elijah: 구약 성서와 코란에 등장하는 예언자)가 만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흐드르 일야스에는 일반적으로 만물이 깨어나고, 식물이 발아하며, 흐르는 물이 정화되는 등의 자연 현상이 동반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흐드르 내비(Xıdır Nəbi)는 사람의 이름으로 ‘물, 바람, 공기의 수호자’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예언자 흐즈르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예부터 매년 겨울의 반 정도가 지나면 큰 칠래(Böyük Çillə)와 작은 칠래(Kiçik Çillə)라고 불리는 기간이 있는데 이 사이에 흐드르 내비가 있다. 즉, 흐드르 내비는 작은 칠래가 끝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명절이다. 흐드르 내비는 작은 칠래가 시작되는 2월 10일경에 시작하여 사흘간 계속된다. 시기상으로 노브루즈 명절(Novruz bayramı)이 시작되기 전이다. 이 명절 의식은 과거에는 매우 화려하게 거행되었다.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2월 10일 저녁, 날이 저물어 어두워진 후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흐드르 노래(Xıdır nəğməsi)

를 부르면서 집집이 문을 두드리며 흐드르의 이름으로 선물을 모았다고 한다.

흐드르 내비 의식은 농업과 관련이 크다. 사흘간 진행되는 흐드르 내비의 첫째 날에는 땅을 칭찬했다. 즉, 땅의 숨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땅 위에 불을 지핀다. 정원을 깨끗이 청소하고, 땅에 떨어진 낙엽과 나뭇가지를 모아 태운다. 둘째 날에는 각기 집에서 키우는 황소의 이름으로 싱거운 콤배(kömbə, 빵의 한 종류)를 만들어 황소의 배 아래로 굴리며 “흐드르 내비, 흐드르 일야스 꽃이 나와, 봄이 되었다!”와 같은 노래를 부른다. 셋째 날에는 농부들처럼 땅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씨를 뿌리고, 땅을 가는 사람을 칭찬한다.

구전에 의하면 흐드르 내비는 손에 불이 있는 회색 말을 타고 온다. 그가 대지에 열기, 불, 태양, 물을 가져오며,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믿었다. 흐드르 내비 이후에 시작되는 노브루즈, 채르샌배(çərşənbə:노브루즈 전 매주 수요일) 모두 예언자 흐드르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 흐드르가 온다는 것은 노브루즈를 완성하는 네 가지 요소인 물, 불, 땅, 공기와 연관이 있다고 믿었다. 흐드르가 신격화되었기에, 인생의 시작점이라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그의 이름과 연관시켰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아제르바이잔 민속에서는 흐드르(Xızır)와 관련된 다양한 믿음이 있다. 예를 들어 ‘흐드르 밤(Xızır gecəsi)’에는 예언자가 어느 집에서 스스로를 위해 밀을 가지고 가면 그해 밀을 가져간 집에 큰 복이 들고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또 다른 믿음으로는 뽕나무가 마르기 전에 자르는 것을 죄라고 전해진다. 이는 예언자 흐드르가 죽은 이를 추모하기 위해 유족이나 고인의 지인이 요리를 해 다른 이들과 나누는 에흐산(ehsan)이라는 풍습을 위해 심은 나무이기 때문이라 믿기 때문이다.

예언자 흐드르에 대한 사랑과 믿음 덕에, 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도 한다. 이를 테면 “흐드르 일라스를 걸고(Xızır İlyas haqqı)”, “흐드르 진디 할아버지에게 맹세한다(Xızır Zindı babaya and olsun)”와 같은 구문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튀르키예의 흐드르엘레즈의 경우, 5월 6일에 행해지며, 흐드르가 올 날이기에 집과 정원을 깨끗이 치우고, 양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불을 피우고 그 위를 여러 번 뛰어넘으면 일 년 내내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믿는다. 또한, 흐드르가 들린 곳에 복이 들 것이라고 믿기에 가정 내 음식 용기와 창고, 지갑 따위를 밤새 열어 두기도 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흐드르엘레즈, 흐드르엘래즈
- 다국어 표기 Xıdır Nebi(영어), Hıdır Nebi(튀르키예어), Hıdırellez(흐드르엘레즈), Хыдыр Неби(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노브루즈 명절, 칠래
- 참고문헌(오프라인)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10 cildə, 1 c., Bakı. 2018. s. 290~300
Mərasimlər, adətlər, alqışlar. 1993: 160;
Güngör, Kemal. “Anadolu’da Hızır Geleneği ve Hıdırellez Törenlerine Dair Bir İnceleme”. *Türk Etnoğrafya Dergisi*, Sayı : 1. 1956. pp.56~72.

I H305 | 흑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유형 소분류2 색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Folklore and Symbolism of Black

고유한 믿음과 신앙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표현과 상징은 예술과 문화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 가운데 색(色)에 대한 상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역사 속에서 색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흐르는 하나의 기호 체계로 작용했다. 민간에서 사용되는 일상 의복에서부터 장신구, 음식, 가구를 비롯하여 통과 의례에서 사용되는 여러 의례 용구까지 색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암묵적인 동의이자 상징이었다.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색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종의 약속으로 작용했다. 국기의 색, 통치자와 관료들의 의복, 군대의 깃발과 의복, 국가 행사, 궁궐 그리고 사원 등에 사용되는 색들 또한 엄격하게 규정되었고 또한 비밀스러운 상징으로 발현되어 왔다. 수백 년을 지나 현재까지 이어져 온 튀르크족의 역사 속에도 이처럼 색(色)에 대한 상징 코드가 존재했다. 오랜 시간 동안 튀르크 문화권에서 중요시되던 색이 있었다. 그것은 흑색(kara), 백색(ak), 적색(al, kırmızı), 청색 그리고 황색(sarı)이다. 특히, 이 다섯 가지 색을 동·서·남·북을 표현하는 데 사용했으며 적색은 남쪽, 동쪽은 청색, 흰색은 서쪽을 표시하는 데 사용했다. 이 중 청색은 예로부터 ‘하늘(의) 색(gök renk)’을 일컫었다. 현대 튀르키예어에서 청색은 보통 녹색(yeşil) 혹은 파란색(mavi)을 가리킨다. 색은 다수의 문화권에서 방향을 상징화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오방색(五方色)이다. 튀르크족의 오방색 전통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디 오방색은 동양에서 음양오행을 기반으로 하는 흑색, 백색, 적색, 청색, 그리고 황색을 가리키는데, 과거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목을 하던 시기의 투르크족 또한 끊임없는 교류와 소통을 통해 동양 문화권이 지닌 오방색에 대한 의미를 받아들였고 여기에 자신들의 해석을 덧붙였다. 이후 시간이 지나 점점 여러 종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소들은 변형 혹은 유지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튀르키예, 투르크 문화권에서 색에 대한 의미는 크게 유목 문화적, 종교적(전통 신앙, 이슬람)으로 해석되고 있다. 색의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하며 추적해 볼 수 있겠으나, 투르크족이 바다에 붙인 이름을 통해 오방색에 대한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13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아나톨리아반도 곳곳에 정착한 오우즈 투르크족은 북쪽에 위치한 내해인 흑해를 ‘흑색의(검은) 바다’라는 의미로 ‘카라 데니스(Kara Deniz, 흑해)’로 불렀다. 또한, 서쪽에서 북서쪽까지 길게 이어져 있는 지중해를 ‘흰빛의 바다’라는 의미로 ‘아크 데니스(Ak Deniz, 지중해)’라고 불렀다. 현재 튀르키예가 위치한 아나톨리아반도 주변에는 흑해, 지중해, 에게해, 마르마라해가 자리 잡고 있다. 그중 마르마라해는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악 데니스와 카라 데니스를 이어주는 내해(內海)이다. 북서쪽에 위치한 에게해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이름으로 1941년 제1회 튀르키예 지리학회 회의를 통해 현재의 이름이 붙여졌으며, 그 이전까지 에게해는 ‘아크 데니스’ 혹은 ‘아다라르 데니스(Adalar Denizi, 섬들의 바다)’라고 불렀다. 따라서, 색과 관련된 바다는 카라 데니스와 악 데니스 두 곳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투르크족은 아나톨리아반도 남쪽에 위치한 홍해를 다른 민족이 사용한 표현과 같이 ‘크즐 데니스(Kızıldeniz, 붉은 바다)’라고 불렀다. 아나톨리아 동쪽에는 바다가 없고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있다. 옛 튀르키예인들은 아르메니아 최대 크기의 호수로 알려진 세반호(Lake Sevan)를 두고 ‘괘체 킬뤼(Gökçe Gölü, 하늘빛의 호수)’라고 불렀다. 흑색(kara)이 지닌 의미는 오르훈 비문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오르훈 비문에서 흑색을 의미하는 ‘카라(kara)’는 오르훈 비문의 내용 가운데 ‘카라 부둔(kara budun)’이라는 표현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흑색은 강한, 큰(거대한)이라는 의미로, 카라 부둔(kara budun)은 크고 강한 민족(부족)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흑색은 용사, 전사, 영웅 등을 상징하는 색이며, 문학 작품에서도 이처럼 사용되었다. 흑색은 또한 옛 튀르키예인들의 상례에 사용되는 색으로 상복에 사용되었으며, 검은 날(장례식 혹은 죽음의 날), 검은 띠를 두르다(상복을 입다), 검은 구름이 드리워지다(죽음이 가까워지다) 등의 표현으로 민간에서 사용되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카라 렌크 일레 일길리 켈레넥셀 튀르크 이나느쉬라르
- 다국어 표기 Kara renk ile ilgili geleneksel türk inanışları(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백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녹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적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황색과 관련된 민속 신앙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Roux, Jean-Paul, *Türklerin ve Moğolların Eski Dini*, (Çev. Aykut Kazancıgil). Kabcacı yay, İstanbul. 2001.

I H306 | 희생

- 시기 기타 ● 지역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북아시아 ● 나라 튀르키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 유형 민속 ● 유형 소분류1 신앙
- 집필자 양민지 ● 라틴 문자 Qurban(Islamic ritual sacrifice)

희생은 신에 공물로 무엇을 올리는 행위, 혹은 그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주서』 돌궐 이역전에는 곱투르크 즉, 돌궐의 풍습과 관련하여 ‘가한은 매년 여러 귀인(貴人)들을 거느리고, 조상이 머물렀던 동굴에서 제사를 지냈다. 또한 오월 중순에 타인수(他人水)에 모여 양과 말을 많이 잡아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수서』에서도 돌궐의 풍습을 두고 ‘매년 오월 8일에 서로 모여 신에게 제사를 지냈고, 새해에 중신(重臣)들을 그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굴로 보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라고 전하고 있다. 즉, 투르크는 전통적으로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희생을 바쳤던 것으로 보인다.

주서에서는 하늘의 신, 천신을 『수서』에는 신이라고 했는데, 이는 모두 고대 투르크어에서 최고의 신 ‘텡그리(tengri)’의 번역 풀이다. 천신 사상이 기본 신앙의 바탕이었던 고대 투르크 신앙은 자신들의 지배자인 군주 가한(칸)이란 용어 앞에 하늘 신의 대리자, 하늘의 아들, 하늘에서 권능을 이어받은 자라는 의미로 ‘텡그리’를 붙여 표현했다. 현대 튀르키예어로 희생 제물 혹은 희생물을 지칭하는 단어는 ‘kurban(쿠르반)’으로 표기한다. 투르크어로 희생/희생 제물은 오르훈 비문에 ‘죽다’라는 의미로 ‘kergek boldı’라는 표현과, ‘정령들에게 바쳐진 희생’이란 뜻을

지닌 사하 투르크어 'kerek'에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제천 의식은 대부분 희생(kurban)을 동반했다. 제천 의식이 고대 투르크부터 이어져 온 전통임을 감안할 때, 투르크 신앙에서 희생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희생(kurban) 혹은 제물은 일반적으로 생명이 있는 동물(kanlı/canlı)을 바치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kansız/cansız)을 바치는 것으로 나뉜다. 여기서 생명이 없는 제물은 사람, 동물(양, 염소, 말, 낙타, 소, 사슴 등)과 물고기 등 이외에 신을 위해 바쳐진 제물을 일컫는다. 즉, 인간이 소유한 것 가운데 혹은 생산한 모든 것 중 신을 위해 바쳐진 모든 것이 이에 속할 수 있다. kansız 제물 가운데 하나인 으드크/우두크(ıdık/uduk) 거룩한, 축복받은, 신께 보내진, 신께 바쳐진, 자유로운 등을 의미) 결점이 없는 동물 가운데 주인에 의해 신에게 바쳐질 목적으로 털을 깎거나 젖을 취하지 않으며, 짐을 지게 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방목하여 키우는 동물을 의미한다. 투르크 샤머니즘에서는 수호령들을 위해 보내진 말 혹은 그들의 탈것으로 풀어준 말을 의미했다.

이 밖에 투르크 문화권에서 무생물 제물로는 가축에서 얻은 젖, 기름, 젖을 발효시켜 만든 음료, 술 등이 있으며 특히, 수호령들을 위해 땅에 뿌려지곤 했다. 투르크 문화권에서 희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고, 그 다음을 양으로 꼽았다. 대부분 희생으로 수컷이 바쳐졌으며, 이러한 전통은 『현인 코르크투의 서(Dede Korkut Kitabı)』에서 희생으로 '말 가운데에서 종마, 낙타 가운데 숫낙타, 양 중에서는 숫양'을 선별하여 잡았다고 전하고 있다. 희생으로 바치는 동물은 뼈를 자르거나 부러뜨리지 않으며, 의식 후에도 개에게(먹이로) 주지 않는다. 제례 후에는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특별한 제례 후에는 뼈를 모아 단지에 넣어 투르크 문화권에서 성스러운 나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는 자작나무에 걸어 놓기도 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쿠르반

● 다국어 표기 kurban(튀르키예어)

● 연관 검색어 텡그리, 샤머니즘, 현인 코르크투의 서, 쿠르반 바이라모

● 참고문헌(오프라인) Altun, Erman, *Türk Halkbilimi*, Kitapevi yay, İstanbul, 2009.

Günay Ünver. Güngör Harun, *Türklerin Dini Tarihi*. Berikan yay, Kayseri, 2015.

İnan, Abdulkadir, *Tarihte ve Bugün Şamanizm*. Türk Tarih Kurumu, Ankara, 1986.

Ögel, Bahaeddin, *Türk Mitolojisi I-II*. Türk Tarih Kurumu, Ankara, 2010.

I H307 | 히르기스트 홀로이

● 시기 B.C. ~ A.D. 1000년 ● 지역 북아시아 ● 나라 몽골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적 ● 유형 소분류2 무덤
● 집필자 김재윤 ● 라틴 문자 Khirgizst khooloi

히르기스트 홀로이 유적은 고비 알타이 아이막 척트 솜 중심지에서 동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척트 베게르행 도로 북쪽에 있다. 유적이 위치한 곳은 알타이 산맥 남면의 낮은 산악 사이에 형성된 비교적 넓은 계곡 지대로 현지 주민들이 이 지역을 '히르기스트 홀로이'라고 부른다. 무덤은 골짜기 사이에 위치하면서 남북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존재한다.

이 유적은 알타이 산맥 남쪽에서 발견된 유일한 흉노 무덤군으로 1986년에 무덤 5기가 조사되었다. 4호는 지표면에 노출된 적석의 직경은 6.5m 가량인데, 현지 주민들에 의해서 약간 훼손되었다. 깊이 3m에서 통나무 19개를 가로질러 놓은 매장주체부의 뚜껑이 드러났는데, 남북 방향이다. 뚜껑을 제거하자 그 내부에는 통나무로 만든 목곽과 그 안에 안치된 목관이 드러났다. 목곽의 크기는 3.45m×1.1m, 목관의 크기는 2.3m×0.6m이고, 높이는 0.55m이다. 결빙층으로 인해서 목재 매장 시설의 상태가 양호했다. 목곽의 동서 장벽과 북단벽은 각각 3개, 남단벽에는 4개의 통나무를 사용했고, 나무 끝에 흙을 파서 결구했다. 목관의 두께는 40cm~50cm의 판재를 이용했다. 목관 뚜껑과 바닥, 양측 장벽에 폭 60cm의 판재를 2개씩 사용했으며, 통나무 가장 자리의 썩기를 파서 결구했다. 목관 안에는 인골이 없었고, 유물 부장 공간에 있었는데, 도굴의 흔적으로 추정된다. 5호는 이미 후대 교란으로 가장 상층은 교란된 상태여서, 4.6m 범위 내에서만 적석이 확인되었다. 깊이 1.8m로 들어가자 남북 방향으로 뚜껑이 드러났다. 목관의 평면 형태는 사다리꼴인데, 길이는 2m, 폭은 머리쪽은 0.5m, 다리쪽은 0.35m이다. 높이는 0.5m이다.

무덤 내에서는 도굴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장자의 머리 동쪽에 고리형 손잡이가 달린 심발형 토기, 삼익형 철촉 2점, 철촉 3점, 철제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허리 부분 서쪽에는 사슴뿔을 잘라 만든 골제 고리 장식, 철제 고리 3점, 철편 등이 출토되었다. 피장자의 머리 쪽에는

북단벽을 안으로 파고 부장 공간이 따로 있었는데, 소 머리뼈, 양, 염소 등의 머리뼈와 다른 부위의 뼈가 확인되었다. 토기와 동복도 출토되었다. 동복은 양쪽에 손잡이가 달리고, 다리가 없는 형태였다. 동복의 구연부에는 가죽을 덮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 몽골의 무덤 유적의 연대는 주로 AMS 측정 연대 및 중국 거울, 옷 등이 연대 가늠의 기준이 되는데, 이 유적에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히르기스트 홀로이 유적은 흉노 시기의 무덤으로 그 시기를 B.C. 3세기~A.D. 1세기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키르기스트 쿨로이
- 다국어 표기 Хиргист хоолой(몽골어), Khirgist khooloi(몽골어)
- 연관 검색어 흉노
- 참고문헌(오프라인) 국립중앙박물관·몽골국립박물관·몽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몽골 도르릭 나르스 흉노무덤 (1)』, 2011.
DANDINSUREN TSEVEENDORJ SC.D(ed.), *ENCYCLOPAEDIA XIONGNU*, ULAANBAA TAR, 2013.
Худяков Ю.С., Цэвээндорж Д., Новые находки хуннских луков в Гобийском Алтае//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и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Монголии. Новосибирск: — 126, 1990.

I H308 | 히바 칸국의 관청 기록물

- 시기 A.D. 15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유물 ● 유형 소분류2 문서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Chancellery of Khiva Khans

‘히바 칸국의 관청 기록물(Chancellery of Khiva Khans)’은 히바 칸국의 역사를 알려주는 문서 컬렉션으로 우즈베키스탄의 국립중앙기록관(O‘zbekiston Respublikasi Markaziy davlat arxivi)에 보관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러시아가 히바 칸국을 점령한 1873년 투르키스탄 총독 부로 보내졌고, 이후 상트페트르부르크 살티코프셰드린 도서관(지금의 러시아 국립 도서관)으로 보내졌다. 러시아의 동양학자 알렉산드르 쿤(Алекса́ндр Лю́двигович Кун)은 이 문서들을 히바 칸국의 재정에 관한 문서와 외교 서한을 포함한 서신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 문서

Archives of the Chancellery of Khiva Khans

The collection of documents in the archival fund “The Chancellery of Khiva Khans” stored in the Central State Archiv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is one of the largest archives of Central Asian rulers. The fund consists of the documents in Asian languages (Arabic, Persian, Chagatai, and Turkic). This collection of archival documents is a peculiar heritage of the peoples of Central Asia and is the largest of the known and preserved archival collections of documents from the Muslim East. In general, archives of the Chancellery of Khiva Khans reflect the historical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more than 200 years in the territory of modern Uzbekistan, Turkmenistan and Kazakhstan. It also provides substantive information about diplomatic relations of the Khiva Khanate with Russia, Britain, Turkey, Iran, Afghanistan, Bukhara emirate and the Kokand khanate. Furthermore, the archival fund contains more than 20 thousand documents in Arabic graphic (18th – early 20th century), which sheds light on a wide range of unexplored issues related to state management, document management system and the functioning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Khiva Khanate.



© The Central State Archiv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Registration Year: 2017
Submission Year: 2016
Submitted by: Uzbekistan
Document type: Books

‘히바 칸국의 관청 기록물’ 세계기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유네스코 정보
 Source: <https://www.unesco.org/>

는 오랫동안 잊혀졌다가, 1936년에야 동양학자 파벨 이바노프(Павел Петрович Иванов)가 우연히 이 문서 컬렉션을 발견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연구가 이뤄졌다. 파벨 이바노프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40년에 이 문서 컬렉션에 대한 책 『19세기 히바 칸의 기록 보관소 (Архив хивинских ханов XIX в)』를 발간했다. 이후 무함마드전 올다셰브(Muhammadjon Yoldashev)와 같은 학자들도 이 기록물을 바탕으로 연구를 시작했다. 1962년에 우즈베키스탄 기록 보관소의 요청으로 이 문서 컬렉션은 우즈베키스탄으로 옮겨졌다.

히바 칸국의 관청 기록물은 아랍 문자를 이용해 고(古)우즈베크어인 차가타이어를 비롯하여 아랍어, 페르시아어, 투르크어로 작성된 문서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에는 18세기~20세기 히바 칸국의 마지막 왕조인 쿡그라트(Kungrat/Qungrat) 시기의 국가관리 체계, 문서관리 체계, 국가기관의 기능 등이 담겨 있다. 또한, 국가 경제 수준, 사회와 문화 생활, 히바 칸국과 관련된 모든 지역의 변화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그 외에도 이 문서 컬렉션을 통해 히바 칸국이 튀르키예, 이란, 아프가니스탄, 부하라 토후국, 코칸드 칸국, 인도, 러시아, 영국 등과 맺었던 외교 관계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2만여 개에 달하는 문서는 모두 정본이며 문서 중 상당 부분에는 칸이나 커지(qozi), 야서불버

쉬(yasovulboshi), 역서컬(oqsoqol) 등 특별한 고위 관료들의 서명이 남아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히바 칸국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연구를 위해 2012년 본 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 사본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결정하였다.

히바 칸국의 관청 기록물은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 기록물은 이슬람 동부지역에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기록물 컬렉션 중에서 가장 규모가 방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히바 칸국의 아카이브

● 다국어 표기 Xiva xonligi devonxona hujjatlari(우즈베크어), Архив хивинских ханов(러시아어)

● 참고문헌(온라인) <https://iranicaonline.org/articles/ivanov-pavel-petrovich>
<https://www.unesco.org/en/memory-world/archives-chancellery-khiva-khans>

● 참고문헌(오프라인) Ro'zmetova, Roziyjon Baxram qizi. "XIVA XONLARI DEVONXONA HUJJATLARI", *Zenodo*, 2022.

Исакова. М.С. ИСТОРИЯ КОМПЛЕКТОВАНИЯ И НАУЧНОГО ОПИСАНИЯ АРХИВНОГО ФОНДА "КАНЦЕЛЯРИЯ ХАНА ХИВИНСКОГО"//ВЕСТНИК АРХИВИСТА. -МОСКВА, 2015 - №4. - С 269-28.

I H309 | 히바 혁명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역사 ● 유형 소분류1 사건 ● 유형 소분류2 혁명
● 집필자 최선아 ● 라틴 문자 Khivan Revolution

히바 칸국의 칸이었던 아스판디요르 칸(Asfandiyorxon, 재위: 1910년~1918년)의 보수주의로 인하여 국내의 개혁 요구가 묵살되었고 몇몇 개혁 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히바 칸국에서는 칸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러시아 볼셰비키 정부의 토지 시행령이 히바 칸국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에 1918년 요무드 투르커만스(Yomud Turkomans)가 이끄는 쿠데타 세력이 칸 정부를 전복하고 아스판디요르 칸의 동생인 사이드 압둘라흐 칸(Sayid Abdullah, 재위: 1918년~1920년)을 칸의 자리에 앉힌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도 독재와 폭정을

지속했고, 호전적인 외교 정책으로 인하여 페트르-알렉산드로보스크 포위전(Осада Петро-Александровска)에서 패배를 당하여 불만이 축적되었다.

1918년 호라즘 공산당이 창설되고,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을 뿐인 공산당이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도움으로 점점 세력을 키워 나가게 된다. 1919년 11월 히바 칸국에 공산주의자 반란이 시작되었으나, 정부의 저항에 밀리고 되고, 반란군은 붉은 군대에 도움을 요청한다. 1920년 2월 칸의 군대가 와해되고, 사이드 압둘라흐 칸은 칸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 1920년 4월 26일 호라즘 소비에트 인민공화국이 건설된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히바 레볼루션, 히바 인클러비, 히바 인클로비

● 다국어 표기 Khivan Revolution(영어), Революция в Хиве(러시아어), Hiva devrimi(튀르키예어), Xiva inqilobi(우즈베크어)

● 참고문헌(오프라인) Tekin, Feridun. “Hive Hanlığ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pp.1102~1114, 2002.

Alpargu, Mehmet, “Türkistan Hanlıkları”. *Türkler Cilt 8*. Ankara:Yeni Türkiye Yayınları. Ankara. pp.957~1045, 2002.

Adle, C., Irfan Habib, K M Baïpakov, *History of civilizations in Central Asia. v.5 Development in contrast : from the sixteenth to the mid-nineteenth century*. New Delhi : Motilal Banarsidass Publications, 2004.

Usmonov, Q., M.Sodiqov, S.Burxonovam, O'ZBEKISTON TARIXI. Tashkent, 2006.

I H310 | 히스랏

● 시기 A.D. 1800년~현대 ● 지역 중앙아시아 ● 나라 우즈베키스탄 ● 유형 문학 ● 유형 소분류1 인물 ● 유형 소분류2 작가
● 집필자 오은경, Guzal Mihrayeva ● 라틴 문자 Xislat

히스랏(Xislat)은 자디드(Jadid) 문학의 대표자 중 한 사람으로 시인, 번역가, 서예가였다. 소비에트 시대에는 자디드운동이 탄압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동안 다른 진보적 운동을 펼치던 우즈베크인들과 함께 거론조차 되지 않았으나,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즈베키스탄 문화 혁신 과정에서 히스랏이 연구되기 시작했다.



히스랏
Source: <https://corp.uzairways.com/>

히스랏의 본명은 사이트 어리프호자 오글리 사이트 하이바툴 러호자(Said Orifxo'ja o'g'li Said Haybatullohx'o'ja)이다. 그는 1880년 5월 10일 타슈켄트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 구식 학교에서 교육받고, 마드라사로 들어가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를 공부했다. 또한 우즈베크어, 아제르바이잔어, 튀르키예어, 페르시아어 및 아랍어 문학을 깊이 공부했다. 이 시기에 이미 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겨 9세에 고전 시인들의 영향으로 가잘(g'azal)을 쓰기 시작했다.

당시 그의 시에 대한 관심을 일깨운 것은 타슈켄트 시인들을 이끌던 카림벡 카미이(Karimbek Kamiy)였다. 카미이가 이끌던 벡라르베기(Beklarbegi) 마드라사에서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던 시 낭독회는 우즈베크 고전 시 연구자들과 아루즈(aruznavis) 시인들을 탄생시켰다. 히스랏도 이 낭독회의 참여자였다. 필명인 히스랏도 이때 만든 것인데, '히스랏'의 이름으로 쓴 가잘은 스승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토이치 허피즈(To'ychi hofiz), 악바르 허지 하이다러브(Akbar hoji Haydarov), 굴럼 가니예프(G'ulom G'aniev)와 같이 당시의 유명한 가수들이 히스랏의 시를 노래로 만들어 불러 타슈켄트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되었다.

히스랏은 고전 시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만들어지는 고전적인 시선집(詩選集)이라 할 수 있는 데번(devon)을 만들지 않았다. 다양한 시인의 시가 포함되는 시선집인 바여즈(bayoz)를 출간했다. 몇년간 시리즈로 출판한 『히스랏의 선물(Armug'oni Xislat, 1910)』, 『히스랏의 선물(Hadyai Xislat, 1912)』, 『히스랏의 선물(Tuhfai Xislat)』, 『히스랏의 선물(Savg'oti Xislat, 1914)』이 그 예이다. 히스랏의 서정시에는 가잘이 가지는 예술적 구조와 사상적 측면에서 버부르(Bobur), 마쉬랍(Mashrab), 나버이이(Navoyi)의 영향이 크다.

히스랏(Xislat)은 1914년 <투르키스탄의 소리(Sadoi Turkiston)>가 발간되었을 때, 발간을 축하하며 진보적인 지식인들을 응원했다. 1917년 이후에도 그는 현대적인 주제로 가잘(g'azal)과 다른 고전시 장르인 무함마스(muhammas)를 쓰며 창작 활동에 몰두했다. 히스랏은 감성적인 서정시뿐만 아니라 유머러스한 시도 썼으며, 1922년부터 토끼(Quyion)나 파쉬막(Pashmak) 등의 필명으로 잡지 <주먹(Mushtum)>에 기고했다.

본인의 창작 활동 이외에도 니자미(Nizami), 피르다우시(Firdavsiy), 우바이드 저커니이(Ubayd Zokoniy)의 작품을 페르시아어에서 우즈베크어로 번역했고, 아랍어와 페르시아 고전 문학에서 아동에게 적절한 이야기들과 동화를 번역했다.

그러나 자디드(jadid) 시인에 대한 소비에트의 압박으로 인해 활동이 어려워졌고, 그는 1940년대까지는 젊었을 때 배워 두었던 목공업에 종사하며 주로 건설작업장에서 일해야만 했다.

20세기 우즈베크 고전 시의 명맥을 이어 왔던 히스랏은 1945년 6월 8일 6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 표제어의 다른 한국어 표기 히슬라트, 히스라트, 사이트 어리프호자 오글리 사이트 하이바틀러호자

- 다국어 표기 Xislat(우즈베크어), Хислат(러시아어)

- 연관 검색어 자디드, 카미이, 데번, 투르키스탄의 소리

- 참고문헌(온라인) <https://ziyouz.uz/ozbek-ziyolilari/xislat-1880-1945/>

- 참고문헌(오프라인) Aminov va boshqalar,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Toshkent: O'zME Davlat ilmiy nashriyoti, 2000.

Karimov Naim, *XX asr adabiyoti manzaralari*, Toshkent: O'zbekiston, 2008.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연구용역 개요

사업명

토대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명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과제번호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

연구기간

2018.7.1. ~ 2023.6.30.

연구수행기관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연구책임자 & 대표집필자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소장

집필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어과 명예교수

강인욱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근식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명예교수

김재윤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김홍중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연구교수

박현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대우교수

송경근 전 명지대학교 아랍지역학과 교수
 양민지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
 우덕찬 부산외국어대학교 터키·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이수정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
 이영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특임강의교수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이주연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조성금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교수
 최선아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
 추영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국가전략사업단 HK연구교수
 황영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Guzal Mihrayeva(구잘 미흐라예바) 한국학 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문학과 박사수료

집필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배드리한 애흐메들리) Baku Slavic University(Azerbaijan) 교수
 Əli Şamil(엘리 샤밀) National Academy of Science(Azerbaijan) 교수
 Nükhet Okutan Davletov(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브) Cappadocia University(Turkey) 교수
 Metin Turan(메틴 투란) KIBATEK(Cyprus-Balkans-Eurasia Turkish Literature Institute) 회장
 Vaqif Sultanlı(와기프 술탄르) Baku National University (Azerbaijan) 교수

멀티미디어 자문위원

Jabbor Eshonqulov(잡보르 에손쿨로프)
 Literature Museum named after Alisher Navoiy(Uzbekistan) 관장

표기법 자문위원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교수
 연규석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명예교수
 윤시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 연구소 초빙 연구원

Aziza Bekmatova(아지자 벡마토바)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 전임교수

Қайрат Жадыра(카이라트 자디라) L.N. Gumilyov Eurasian National University(Kazakhstan) 교수

감수

김상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박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객원교수

손영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교수

연상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강사

자료 번역

최정안 Erciyes University(Turkey) 박사수료

Leyla Masilmli(레이라 마심리) 인하대학교 교육학 박사

DB 전문가 자문 및 실무 작업

전정훈 동덕여자대학교 정보과학대학 교수

김현정 서울대학교 언어학 박사

이성지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행정 담당 조교

유경혜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홍한해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이연정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집필진 및 자문위원 소개

<대표 집필자 & 편집위원장>



오은경

한국의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비교문학과 튀르키예 문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한국학중앙연구원 초빙연구원으로 연구하면서 박사 후 과정(Post-doc)을 마쳤고, 우즈베키스탄에서 구비문학 연구로 인문학 국가박사학위(Doctor of Science)를 취득했다.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니자미 사범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강의했다. 현재는 동덕여자대학교 교양대학 교수이며,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소장이다. 주요 저서는 『이슬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베일 속의 여성 그리고 이슬람』, 『튀르키예 한국전쟁문학론(튀르키예어)』, 『20세기 튀르키예와 한국 소설 속의 여성(영어, 튀르키예어, 아제르바이잔어)』, 『한국과 우즈베크 영웅서사시·신화, 주몽과 알퍼므쉬 비교(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이다.

<집필진>



강덕수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의국어대학교 서양어 대학 노어과 명예교수이자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 교수이며, 한국사학 친선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는 『예벤어의 형태와 구조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8.1)』, 『The Sakha (Yakut) language: An Analytic Grammar (with G. Torotoev). H Press. 2023』 등이다.



강인욱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학부와 석사를 졸업하고 러시아과학원 시베리아분소 고고민족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 및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 소장이자. 유라시아와 고조선의 고고학이 그의 전공이다. 『우리의 기원: 단일하든 다채롭든』, 『옥저와 읍루』, 『북방고고학개론』, 『강인욱의 고고학 여행』, 『테라 인코그니타』, 『유라시아 역사 기행』 등의 저서와 1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김근식

한국의국어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대학교 유럽문화학부 교수와 한국노어노문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주요 논문으로 『아이트마토프 작품의 주제발전 연구(박사학위 논문)』, 『전환기 러시아 문학출판 연구』, 『90년대 러시아 문학의 개성화 연구』, 『러시아 문학 이데올로기의 향방 연구』, 『러시아 정교회와 반체제 및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저서로 『이동 동사를 활용한 러시아어 작문』(1999), 역서로 『하얀 배』(1983, 아이트마토프), 『공산주의의 종언』(1992, 야코블레프, 공역), 『아버지 金』(1994, 아나톨리 김) 등이 있으며, 러시아어로 번역한 『천둥소리』(1999, 김주영)가 있다.



김재윤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졸업 후 러시아과학아카데미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부교수이다. 주요저서는 『접경의 아이덴티티: 동해와 신석기문화』, 『교과서 밖의 역사: 유라시아 초원 스키타이 문화의 미래와 여신상』, 『환동해 문화권 북부지역의 선사문화: 연해주선사고고학개론』 등이 있다. 역서는 『러시아연해주와 극동의 선사시대』(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수상), 『러시아 연해주의 성(城)유적과 고대 교통로』가 있다.



김흥중

중앙대학교 노어과를 졸업하고, 게르첸 러시아 국립사범대학 러시아 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러시아 CIS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은 「러시아 모더니즘 문학과 몽타주」, 「러시아 각색영화의 특수성과 문화적 의미」, 「자마찐의 '예술 산문 기술 강의: 연상의 시학과 세계 인식」, 「러시아-소비에트 튀르크 문학 연구의 성과와 의미」, 「일본 태양의 근원과 소비에트 오리엔탈리즘」 등이 있다. 2004년부터 러시아 문학, 지역학, 예술 이론 관련 연구 및 강의하고 있다.



박현도

서강대(종교학, 학사), 캐나다 맥길대(이슬람학 석사, 박사수료), 이란 테헤란대(이슬람학, 박사)에서 공부했다. 현재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대우교수로 재직 중이다.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국가개항정보 자문위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직자종교차별예방교육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술로 Studies in Islamic Historiography(공저, Brill, 2019), 『이슬람의 모든 것: 이슬람에 관한 122개의 질문과 대답』(공역, 바오, 2020) 등이 있다.



송경근

한국의국어대학교 아랍어과를 졸업했고, 이집트 알 아즈하르 대학교 역사와 문명과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이슬람학회 회장, 조선대학교 외국어대학 아랍어과 학과장, 동 대학 부학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중동지역 연구』(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케임브리지 이슬람사』(공동번역, 시공사, 2002), 『고등학교 아랍 문화』(교과서 교육인적자원부, 2003), 「이집트 무슬림 형제단의 성장, 투쟁, 사회적 역할 및 제도권 진입에 관한 연구」, 「오만의 이슬람과 그 전망」, 「몽골의 동부 이슬람 세계의 침입」, 「한국의 이슬람사」, 「중국의 이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의 역사적 관계」 외 다수가 있다.



양민지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교에서 터키문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터키 국립 에르지예스대학교 터키어문학과에서 투르크민속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중해 지역원 산하 인문학 센터장을 맡고 있다. 지중해 지역 문명교류 및 투르크 민속에 대해 연구 중이다. 『터키를 가다(공저, 2018)』, 『투르크 지역 연구(공저, 2018)』, 『지중해문명교류사전(공저, 2020)』, 『7인의 전문가가 본 시칠리아의 문명 교류(공저, 2021)』, 『동지중해 결혼 문화와 전통(공저, 2022)』, 『아시아 카펫문화 연구(공저, 2022)』 등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우덕찬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튀르키예 하제테페 대학교에서 역사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어(터키어)전공 교수 및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중앙아시아사 개설』, 『지역연구와 세계 단위론』, 『지역연구의 방법』, 『터키어 표준교재 A2』, 『터키어 표준 교재 B2』, 『튀르키예어 속어사전(TÜRKÇE DEYİMLER SÖZLÜĞÜ)』 등 10여 편의 저역서와 60편의 논문이 있다.



이수정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를 취득하고, 같은 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중동·아프리카학 박사를 취득했다. 육군3사관학교에 강의전담 교수로 근무했고, 현재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 무슬림 역사와 이주 무슬림을 주로 연구한다. 대표 저서로는 『타인을 기록하는 마음』이 있고, 대표 논문으로는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관점으로 본 한국 내 이주 무슬림의 생존 전쟁」, 「난민의 식탁(Refugee Cuisine): 안보를 넘어 공존의 범주로」가 있다.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 졸업 후 동 대학에서 터키언어학 석사과정을 마쳤다. 튀르키예 앙카라 대학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특임강의교수로 터키어를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인지의미론, 대조언어학, 외국어로서 튀르키예어 교육이며, 『Kavramsal Metafor Ve Metonimi Üzerine Uygulamalar (2023)』의 집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저서로는 『처음 배우는 튀르키예(터키)어 (한국외대, 2023)』가 있다.



이영희

동의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이후 튀르키예 앙카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에서 특임강의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된 연구는 오스만 제국 데브쉬르메 제도, 베지리아잠(Vezir-i a'zam) 관련이며, 현재 일 칸 붕괴 이후 중동지역의 국제정치적 변화 과정 및 오스만 제국-사파비 제국 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



이은정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오스만 제국사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이며 아시아언어문명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Guild Dynamics in Seventeenth-Century Istanbul: Fluidity and Leverage (Leiden: Brill, 2004)』,『오스만 제국 시대의 무슬림-기독교인 관계(민음사, 2018)』, 역서로는『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유럽, 이슬람, 세계사 다시보기(사계절, 2006)』,『메흐메드 알리: 오스만 제국의 지방 총독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일조각, 2016)』가 있다.



이주연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의 동양사학과에서 석박사과정을 졸업했다. 전공은 중앙아시아사이며, 그중에서도 페르시아어로 된 사료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박사과정 중에 이란 테헤란 대학교 부설 어학기관인 데흐호더에서 어학 과정과 문학 과정을 수료했으며, 박사논문으로 14세기 후반에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점령했던 아미르 티무르의 역사서, 『승전기』를 역주했다.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장주영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하제테페대학교에서 튀르키예어-한국어 비교언어학으로 석사, 동 대학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언어학(고대 투르크어)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전임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우송대학교에 출강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고대 투르크어, 튀르키예어, 언어학이다. 저서로는『나 혼자 간다! 여행 터키어(문예림, 2016)』,『평등한 언어 세상을 위한 시작 터키어 첫걸음(언어평등, 2020)』,『단단한 언어 성장 튀르키예어(터키어) 초중급(언어평등, 2023)』이 있다.



조성금

중아시아 불교회화 및 불교 도상의 기원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성신여대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를 마친 후(2003),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연구'로 박사(2013)를 마쳤다. 현재까지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동국대학교 대학원 불교미술학과 등에서 불교회화 및 동서 미술 교섭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는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왕국의 불교회화(진인진, 2019)』가 있다.



최선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어과를 졸업하고, 튀르키예 국립 앙카라대학교에서 미술사로 석사와 박사를 받았다. 동덕여대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에 출강하고 있다. 주로 건축사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문명 교류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저서로는 『투르크-알타이: 터키 중아시아 몽골의 사회와 문화(공저)』, 『투르크-중앙아시아: 투르크민족의 문화 이야기(공저)』 등이 있다.



추영민

카자흐스탄의 L.N 구밀료프 유라시아 국립대학교에서 지역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과 특임강의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The Model of Interethnic Communication of Kazakhstan-Assembly of People of Kazakhstan(APK)』, 『South Korea and Kazakhstan: Particularities of Cultural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소련 붕괴 이후 KVN 변천 및 확대 과정을 통해 본 21세기 중앙아시아 방송 대중문화 현상의 특징과 변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등이 있다.



황영삼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하고, 대학원 국제관계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획득했다. 러시아학술원 산하 러시아역사연구원(모스크바) 객원연구원(1996),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한국학과(알마티) 초빙교수(2005년~2006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책임연구원(1999년~2005년)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주요 저서로 『지신허에서 모스크바까지 -고려인 동포 쉽게 이해하기 (ebook, 유페이퍼, 2023)』, 『1인치의 장벽을 넘어서- 독립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사회 (공저, 2020)』 등이 있다. 현재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역사와 고려인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Mihrayeva Guzal
Nuralievna

구잘 미흐라예바 누르알리에브나.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니자미 사범대학교 한국어학과 졸업했다.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2015).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2019), 현재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배드리한 애흐메들리. 바쿠 슬라브 대학교 아제르바이잔 문학 교수이며, 아제르바이잔 국립아카데미 니자미 갠재비 문학연구소 아제르바이잔-아시아 센터장이다. 『사비트 레흐만의 풍자성 연구(Sabit Rehmanın satirası)』, 『아제르바이잔 풍자문학 발전의 과제들(Azərbaycan satirasının inkişaf problemləri)』, 『20세기 아제르바이잔 문학사(XX əsr Azərbaycan ədəbiyyatı tarixi)』,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의 구조와 문제점 그리고 성격(Azərbaycan mühacirət ədəbiyyatı. Təşəkkülü, problemləri, şəxsiyyətləri)』의 문학이론과 아제르바이잔 문학에 관한 다수의 저술과 논문이 있다.



Əli Şamil

엘리 샤밀. 1973년 아제르바이잔 국립대학교 저널리즘 학부를 졸업했다. 1998년부터 아제르바이잔 국립 과학 아카데미 민족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했고, 2007년부터 대외관계부서장을 맡고 있다. 『북사이프러스(Quzey Kıbrıs, 2001)』, 『위구르, 가가우즈, 북사이프러스 투르크인들의 민족과 문학(Uyğur, qaqauz, Quzey Qafqaz türklərinin folkloru və ədəbiyyatı, 2011)』, 『카쉬가이 민족과 민족(Qaşqaylar və onların folkloru, 2020)』외에도 전 세계 20여개 국에서 20편의 저서, 100편이 넘는 학술 논문 그리고 200여 편의 칼럼을 집필했다.



Nükhət Okutan
Davletov

누크헤트 오쿠탄 다블레토프. 하제테페 대학교 투르크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카파도키아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샤머니즘, 고대 투르크 비문, 이슬람 이전 투르크 문화, 투르크 및 그리스 신화에 대한 학부 및 대학원 수업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권 사르으 한: 하카스 여성 서사시 번역(Kün Sarıǵ Han: Bir Hakas Kadınının Destanı adlı destan çevirisi, 공저, 2021)』, 『하카스 투르크 족의 샤머니즘과 죽음(Hakas Türklerinde Şamanizm ve Ölüm, 2021)』 등이 있다.



Metin Turan

메틴 투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키예프 국립대학교에서 투르크 문학을 강의했으며,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튀르키예 이을드즈(Yıldız) 공과 대학교 예술과학부에서 민속문학을 가르쳤다. 현재는 KIBATEK(사이프러스·발칸·유라시아·튀르키예 문학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아시옥 웨이셀의 삶과 예술(Aşık Veysel-Yaşamı ve Sanatı, 1992)』, 『민속 문화(Halk Kültürü, 2005)』, 『코르오울루의 삶과 시(Koroğlu Hayatı-Şiirleri, 2017)』, 『카르스 민속문화와 문학(Kars Halk Kültürü ve Edebiyatı, 2019)』 등이 있다.



Vaqif Sultanlı

와기프 술탄르. 아제르바이잔 바쿠 국립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 문학과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바쿠 국립대학교에서 아제르바이잔 문학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메메트 에민 레술자데의 문학세계(Mehmet Emin Resulzade'nin edebi dünyası, 1993)』, 『어려운 길을 걷는 자(Ağır yolun yolçusu, 1996)』, 『자유의 지평선(Azadlığın ufukları, 1997)』,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문학(Azərbaycan mühaceret edebiyatı, 1998)』, 『문학이론 단면(Edebi nazari illüstrasiyalar, 2000)』, 『아제르바이잔 문학비평(Azərbaycan edebi tenkidi, 2012)』 등이 있다.

투르크학 인문 대사전 VIII

Encyclopedia of Turkic Humanities VIII

1쇄 인쇄 2023년 12월 11일

1쇄 발행 2023년 12월 11일

저자

오은경, 강덕수, 강인욱, 김근식, 김재윤, 김홍중, 박현도, 송경근, 양민지, 우덕찬, 이수정, 이양희, 이영희, 이은정, 이주연, 장주영, 조성금, 최선아, 추영민, 황영삼, Guzal Mihrayeva

자문위원

Bədirxan Əhmədli, Əli Şamil, Nükhet Okutan Davletov, Metin Turan, Vaqif Sultanlı

편집위원

오은경(위원장), 류수, 장주영, 최선아

편집·교정·교열

류수(총괄), 심명석, 하윤정, 박세화, 유현우, 이주희, 전기준

표지 & 북 디자인

이재성

발행처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디자인·인쇄

위애드컴

출판등록

제 2017-000010호

전자책 ISBN

발권 979-11-985841-9-9 (05030)

세트 979-11-961536-3-2 (05030)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

-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재사용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 토대연구지원사업인 투르크 인문백과사전 DB 구축 (2018.7.1~ 2023.6.30, NRF-과제번호 2018SIA5B4060291)의 결과물이며, 그 연구비로 제작되었습니다.
- 잘못된 내용 수정이나 보완 요청 등 이 책에 관한 모든 문의는 이메일 eurturc@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매품



9 791198 584199 05030
ISBN 979-11-985841-9-9 (PDF)
ISBN 979-11-961536-3-2 (세트)

©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2023